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00-000015-10



2011 Sport White Paper

2011 체육백서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발 간 사

대한민국 스포츠는 국민의 일상에 삶의 즐거움을 주면서, 많은 종목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활약하는 스포츠선진국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여러 국제대회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순위 5위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영역과 학교체육 영역에서의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양적·질적 성장은 스포츠복지선진국으로서의 도약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체육정책은 역사적 변천과 더불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되어 왔고, 특히, 새로운 수요 충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체육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체육백서는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의 현실과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의 가치는 개인의 건강 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넘어 국가적 차원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국민적 화합과 동질감 형성, 국민건강 증진, 건전한 사회규범 형성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 사회적 통합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선진국일수록 전 생애적 관점에서의 스포츠 향유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세밀한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몸과 마음의 수련을 통해 우리에게 정직하고 단순한 기쁨을 선사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몸을 돌보고 가꾸며 정직한 삶의 기쁨을 세우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스포츠의 다양한 역할과 가치가 실현되어, 앞으로 선진 스포츠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체육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1 체육백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체육정책의 현황과 성과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체육, 스포츠산업 등 분야별 체육정책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시설 및 전문 인력, 체육 관련 조직 및 단체, 자원, 법제 등 제도적 기반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1 체육백서』가 현장의 모든 체육인, 학계, 업계, 체육기관 및 단체 등과 특히 일반 국민들에게 체육정책의 의미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자 정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체육정책과 현장 간의 소통을 위한 또 하나의 통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백서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 광 식

최 광 식

Contents

Section 01	체육의 개념과 체육활동 실태	33
제1절	체육의 정의와 유사개념	34
1.	체육의 정의와 개념적 한계	34
2.	체육의 유사 개념	36
제2절	체육의 분류와 체육정책 범위	41
1.	체육의 분류	41
2.	체육정책의 범위	44
제3절	체육활동 참여실태	47
1.	생활체육 직접참여 실태	47
2.	생활체육 간접참여 실태	57
Section 02	체육의 제도적 기반	63
제1절	체육정책의 변천	64
1.	1980년대 이전의 체육정책	64
2.	1990년대 중반까지의 체육정책	65
3.	국민의 정부(1998년~2002년)	68
4.	참여 정부(2003년~2007년)	70
5.	이명박 정부(2008년~현재)	72
제2절	체육행정 조직 및 단체	74
1.	중앙정부 체육조직	74
2.	체육단체	116

제3절	체육진흥재원	145
1.	개 관	145
2.	중앙정부의 체육재정	146
3.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재정	147
4.	국민체육진흥기금	168
제4절	체육관련 법제	173
1.	개 관	173
2.	체육관계법 현황	174

Section **03** | 생활체육 185

제1절	개 관	186
제2절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제공	191
1.	시·도 생활체육교실	191
2.	생활체육광장	192
3.	국민체력인증 시범사업 운영	193
4.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195
제3절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	198
1.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198
2.	생활체육대회 개최	199
3.	동호인 리그	201

Contents

제4절	직장체육활동 육성	206
1.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206
2.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207
제5절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생활체육 나눔 운동)	208
1.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208
2.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209
제6절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211
1.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	211
2.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12
3.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12
제7절	생활체육 홍보	214
1.	스포츠 7330 캠페인 전개	214
2.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 전개	217
3.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218
제8절	세계한민족축전	219
1.	개최배경	219
2.	변천과정 및 축전 특징	219
3.	개최현황	220

Section 04	학교체육	221
제1절	개 관	222
제2절	현 황	224
	1. 체육교육과정	224
	2. 초·중등체육 담당교원	226
	3. 학교체육시설 현황	227
	4. 학생체력현황	229
	5. 학교운동부 현황	233
	6.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현황	234
제3절	일반학생 지원사업	236
	1. 초·중등학교체육활성화 방안	236
	2.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 사업	238
	3.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 사업	238
제4절	학생선수 지원사업	244
	1.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	244
	2.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246
	3. 각종 대회의 리그대회 전환	247
	4.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학력증진 방안 사업	248
	5.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248
	6.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육성지원 사업	249
	7. 대학스포츠 정상화 및 활성화 도모	250
제5절	학교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	251
	1.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251
	2. 다목적 체육관 건립	252

Contents

Section 05 전문체육 253

제1절 개 관	254
제2절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255
1. 체육영재 및 지역체육인재	255
2. 꿈나무선수	257
3. 청소년대표선수	262
4. 후보선수	267
5. 국가대표선수	271
제3절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대회 운영 및 훈련시설 확충	279
1. 전국체육대회	279
2. 전국동계체육대회	281
3. 전국소년체육대회	282
4. 국가대표 훈련시설	284

Section 06 국제체육 291

제1절 국제체육계 동향	292
1. 국제체육기구 현황	293
2. 스포츠에서의 도핑방지 강화	298
3. 스포츠의 상업화	304
제2절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역량	306
1. 국제스포츠 정책과 조직	306
2. 체육교류협정 체결	309

3. 국제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311
4.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	313
제3절 국제교류 현황	317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317
2.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320
3.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335
4.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338
5.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파견	341
6. 국제 체육교류 지원	344

Section 07 장애인체육 351

제1절 개 관	352
제2절 장애인체육 조직 및 재정	354
1. 국내 장애인체육 조직 변천과정	354
2. 대한장애인체육회	355
3. 가맹경기단체 및 등록선수	358
4.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364
5. 재 정	364
제3절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366
1. 생활체육부문	366
2. 전문체육	371
3.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380
4. 국제교류	381
5.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390

Contents

Section 08	스포츠산업	393
제1절	개 관	394
1.	스포츠산업의 개념과 특성	394
2.	스포츠산업 환경	403
제2절	스포츠소비 현황	409
1.	스포츠소비 정의	409
2.	스포츠소비의 특성	409
3.	스포츠소비 지출	410
제3절	스포츠산업 현황	414
1.	스포츠 사업체 현황	414
2.	스포츠산업 종사자 및 고용 현황	417
3.	스포츠 산업 규모	419
4.	스포츠산업 부문별 매출 및 실적 현황	422
5.	스포츠시설업 현황	425
6.	경기 및 오락스포츠서비스업	429
7.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433
8.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	434
제4절	프로스포츠산업	435
1.	개요	435
2.	프로스포츠 관람객 현황	435
3.	프로스포츠 단체 및 운영 현황	437
4.	프로스포츠 정책 지원	441

제5절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442
1.	스포츠산업 정책의 제도적 기반	442
2.	스포츠용품업 지원정책	448
3.	체육시설업 및 스포츠서비스업 지원정책	466
4.	스포츠산업전문인력 양성	477
5.	스포츠산업 정보망 및 연구활성화	480

Section 09 | 체육시설 481

제1절	개 관	482
1.	체육시설의 개념	482
2.	체육시설의 종류	483
제2절	체육시설 조성정책	488
1.	체육시설 조성정책의 전개과정	488
2.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	489
3.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490
4.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492
제3절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494
1.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	495
2.	체육진흥시설 지원(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96
3.	생활체육시설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500
4.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07

Contents

제4절 태권도공원 조성	508
1. 태권도공원 조성의 의의	508
2.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경과	509
제5절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관리·운영 효율화	514
1. 체육활동공간의 효율적 활용	514
2.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효율화	517

Section **10** | 체육전문인력 519

제1절 개 관	520
제2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521
1. 선수·코치	521
2. 심판	529
3. 체육계 고등학교 및 대학(원)	531
제3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545
1. 체육지도자 양성제도의 개요	545
2.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549
3.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552
4. 체육지도자 배치·활용	554

Section 11 | 체육정보 559

제1절 개 관	560
제2절 체육정보 현황	562
1. 체육정보시스템	562
2. 체육정보망	563
3. 체육관련 기관별 정보	563

Section 12 | 남북체육교류 581

제1절 개 관	582
1. 남북 체육교류·협력의 의의	582
2. 남북 체육교류·협력의 기능	587
제2절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정책 환경	590
1. 법·제도적 기반	590
2. 교류 자원	592
제3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 현황	595
1. 1990년 이전 남북체육회담을 통한 체육교류의 발전	595
2. 1990년~2000년 남북체육교류	596
3. 2001~2011년 현재까지	599

Contents 표목차

Section 01	체육의 개념과 체육활동 실태	33
표 1-1	놀이, 게임, 스포츠의 특성 비교	37
표 1-2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의 차이점	39
표 1-3	세계 각국의 'Sport for All' 운동	42
표 1-4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특성 비교	43
표 1-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관장 업무	46
표 1-6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빈도 연도별 비교(%)	48
표 1-7	연령별 주2~3회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연도별 비교(%)	48
표 1-8	참여종목 연도별 비교표	49
표 1-9	운동시간 분포도(%)	50
표 1-10	운동시간대 분포도(%)	50
표 1-11	연도별 운동시간대 분포도 비교(%)	51
표 1-12	참여종목별 참여 장소(%)	52
표 1-13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에 대한 연도별 비교(%)	53
표 1-14	규칙적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의 연도별 비교(%)	55
표 1-15	희망 운동종목(%)	56
표 1-16	희망 운동 종목의 연도별 비교(%)	56
표 1-17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57
표 1-18	관람종목의 연도별 비교(%)	59
표 1-19	경기관람 빈도의 연도별 비교(%)	59
표 1-20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연도별 비교(%)	61
표 1-21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비교(%)	62

Section 02 | 체육의 제도적 기반

63

표 2-1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의 주요사업	67
표 2-2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68
표 2-3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69
표 2-4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71
표 2-5	이명박 정부 문화비전 2008-2012의 체육부분 주요 정책과제	73
표 2-6	체육조직기구의 변천 요약	77
표 2-7	광역자치단체(사도)의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80
표 2-7-1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82
표 2-8	지방 체육단체 운영 현황	92
표 2-8-1	광역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실태	93
표 2-8-2	기초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실태	95
표 2-9	국민체육진흥공단 인력 현황	117
표 2-10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정자산	118
표 2-11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인회계 예산	119
표 2-12	201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120
표 2-13	역대 대한체육회(KOC) 회장	122
표 2-14	우리나라 역대 IOC위원	123
표 2-15	사도 체육회 현황	124
표 2-16	대한체육회 재외한인체육단체 현황	124
표 2-17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	127
표 2-18	대한체육회 연도별 예산 현황	129
표 2-19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및 가맹경기단체의 자체수입 비율	129
표 2-20	사도생활체육회 현황	133
표 2-21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현황	134

Contents 표목차

표 2-22	연도별 예산 현황	136
표 2-23	회원단체 예산과 자체수입 비율	136
표 2-24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정원현원표	138
표 2-25	연도별 도핑검사 현황	139
표 2-26	연도별 교육인원 현황	140
표 2-27	연도별 홍보물 배포 현황	140
표 2-28	WADA 및 IF와 도핑검사 위탁대행 MOU 체결 추진	141
표 2-29	연도별 소재지정보 검사 현황	141
표 2-30	연도별 예산 현황	141
표 2-31	연도별 예산 현황	144
표 2-32	체육진흥재단원의 구성	145
표 2-33	분야별 국고 예산 현황	146
표 2-34	정부예산대비 체육예산 현황	147
표 2-35	지방자치단체 체육예산 총괄표	148
표 2-35-1	광역자치단체 체육예산	149
표 2-35-2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	150
표 2-35-3	기초자치단체별 체육예산	151
표 2-36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	159
표 2-36-1	광역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	160
표 2-36-2	기초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	160
표 2-36-3	기초자치단체별 분야별 체육예산	161
표 2-37	기금조성 내역	169
표 2-38	기금지원 실적	170
표 2-39	스포츠산업융자실적	170

Section 03 생활체육

185

표 3-1	주2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활동 참여율 변화	187
표 3-2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수의 변화	187
표 3-3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결성 현황	188
표 3-4	등록신고체육시설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190
표 3-5	사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수	191
표 3-6	생활체육광장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192
표 3-7	국민체력인증 시범사업의 체력측정 요인, 측정항목, 측정방법	194
표 3-8	국민체력인증사업의 인증단계 및 수상기준	194
표 3-9	2011년 지역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 현황	196
표 3-10	서울시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 현황	197
표 3-11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사업추진 실적	199
표 3-12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현황	200
표 3-13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 현황	201
표 3-14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실적	201
표 3-15	사도 종목별대회 지원 실적	202
표 3-16	인구 대비 동호인클럽 현황	202
표 3-17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현황	203
표 3-18	2011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실적	207
표 3-19	소외계층 용구지원 추진 실적	208
표 3-20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실적	210
표 3-21	체육지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211
표 3-22	시·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	213
표 3-23	스포츠 7330 정책 추진 경과	216
표 3-24	스포츠 7330 단계별 목표와 내용	217

Contents 표목차

표 3-25	스포츠 7330 대중언론매체 캠페인실적	217
표 3-26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 추진실적	218
표 3-27	국민생활체육지 발간 연도별 추진실적	218
표 3-28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특징	220
표 3-29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현황	220

Section 04 학교체육 221

표 4-1	정부 내 학교체육 담당 부서의 변천	223
표 4-2	초·중·고등학교 체육과목 및 시간의 변천	224
표 4-3	2011년 중고등학교 체육교원 현황 1(성별)(‘11.3월 현재)	226
표 4-4	2011년 중고등학교 체육교원 현황 2(설립별)(‘11.3월 현재)	226
표 4-5	2011년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현황(‘11.3월 현재)	226
표 4-6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의 연도별 목표 및 소요예산	227
표 4-7	2011년 학교체육시설 현황	228
표 4-8	연도별 학생신체능력검사 결과	229
표 4-9	2011년도 초등학생 건강체력평가 결과	230
표 4-10	초등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의 연도별 비교(2009~2011)	230
표 4-11	2011년 중학생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231
표 4-12	중학생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의 연도별 비교(2010~2011)	231
표 4-13	2011년 고등학생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232
표 4-14	2011년 건강체력 우려학생 현황	232
표 4-15	연도별 학교운동부 현황 비교(2010~2011)	233
표 4-16	연도별 학교운동부 지도자 현황 비교(2010~2011)	233
표 4-17	2011년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현황	234

표 4-18	연도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대표선수 보유 현황 비교	235
표 4-19	2011년 시도 교육청별 스포츠 강사 배치인원 및 인건비 소요예산	238
표 4-20	2011년 급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11.12.1.)	239
표 4-21	2011년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11.12.1. 기준)	239
표 4-22	2011년 종목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현황	243
표 4-23	최저학력기준의 단계별 적용 계획	246
표 4-24	연도별 최저학력기준미달률 조사 결과	246
표 4-25	연도별 초·중고 축구리그 참여팀 수 현황	247
표 4-26	2011년도 고등학교 야구 주말리그 참여팀의 리그별 구성	248
표 4-27	2011년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지원내역	249
표 4-28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의 예산투여 현황	251
표 4-29	2003~2011년도 부문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의 성과	252
표 4-30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의 예산소요	252

Section 05 전문체육

253

표 5-1	체육영재	255
표 5-2	지역체육인재	256
표 5-3	학생선수 통합지원센터 현황(신규)	257
표 5-4	신인선수(꿈나무) 육성사업 추진 현황	257
표 5-5	종목별·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선발 현황	259
표 5-6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합숙훈련 현황	261
표 5-7	청소년대표선수 선발육성 및 선발기준 현황	263
표 5-8	동·하계 합숙훈련 지원내용	265
표 5-9	청소년대표선수 국외전지훈련 현황	266

Contents 표목차

표 5-10	후보선수 발굴 및 최종선발 인원 수	267
표 5-11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비율	268
표 5-12	후보선수 훈련종목과 정원	269
표 5-13	후보선수의 훈련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지원 내역	270
표 5-14	전임지도자 종목과 정원	271
표 5-15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	272
표 5-16	연도별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	272
표 5-17	국가대표선수 훈련인원	272
표 5-18	국가대표선수 세부 훈련종목	274
표 5-19	연도별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 및 지원 현황	275
표 5-20	외국인코치 초청 현황	275
표 5-21	지도자 해외연수사업(국외정보수집) 현황	276
표 5-22	국가대표선수·코치 훈련여건 개선 현황	278
표 5-23	연도별 전국체육대회 개최 현황	280
표 5-24	연도별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 현황	282
표 5-25	연도별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현황	284
표 5-26	국가대표 선수촌 시설 현황	286
표 5-27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시설 연도별 투자 현황	287
표 5-28	국가대표 선수촌 연도별 시설 확충 현황	288
표 5-29	국가대표종합훈련원(제2선수촌) 조성 연도별 추진 현황	290

Section 06 국제체육

291

표 6-1	IOC 위원 국가별 배출 인원수 현황	293
표 6-2	IOC 위원 대륙별 배출 인원수 현황	293
표 6-3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연맹의 회장국적	294
표 6-4	올림픽 정식종목 국제경기연맹 회장의 대륙별·국가별 분포	296
표 6-5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연맹 본부 소재지	297
표 6-6	국제기구 각종 위원회 활동의 연도별 인원 수	297
표 6-7	WADA Foundation Board 구성	299
표 6-8	WADA 금지약물 목록	301
표 6-9	도핑컨트롤센터 년도별 시료 현황	302
표 6-10	도핑방지컨트롤센터 년도별 양성건수	303
표 6-11	올림픽 공식후원업체의 기별 올림픽 후원금액	305
표 6-12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2003~2007)의 국제스포츠 정책	306
표 6-13	문화비전(2008~2012)	307
표 6-14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요 업무	307
표 6-15	대한체육회 국제교류팀과 국제경기팀의 주요업무	308
표 6-16	체육교류협정 체결 현황	310
표 6-17	국민체육진흥5개년 계획의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방안	311
표 6-18	국제스포츠인력 강화 방안	312
표 6-19	국제스포츠인력 양성사업 운영실적	313
표 6-20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활동 현황	313
표 6-21	IOC 산하 분과위원회(commissions) 위원 진출 현황	314
표 6-22	국제경기연맹 임원 진출 현황	314
표 6-23	아시아경기연맹 임원 진출 현황	315
표 6-24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 현황(IOC 제외)	315

Contents 표목차

표 6-25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일정	317
표 6-26	평창동계올림픽 재정 운용상황	318
표 6-27	평창조직위원회 사무처 현황	319
표 6-28	2010년도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현황	320
표 6-29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및 한국의 참가 현황	321
표 6-30	국가별 메달획득 및 종합성적 현황	322
표 6-31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323
표 6-32	역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참가현황 및 경기성적	324
표 6-33	장춘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의 각국 메달 획득	325
표 6-34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326
표 6-35	중국 선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및 한국의 참가 현황	328
표 6-36	중국 선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각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329
표 6-37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330
표 6-38	뉴질랜드 동계 대회 종목별 개최지 현황(4개 지역)	332
표 6-39	뉴질랜드 동계 대회 세부종목별 경기장	333
표 6-40	각 세부경기장의 이동거리	333
표 6-41	제 2회 뉴질랜드 동계대회의 한국선수단의 메달획득 현황	334
표 6-42	IAAF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현황	335
표 6-43	IAAF세계육상선수권 대구대회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337
표 6-44	2011년 F1대회 개최일정 및 대회 타이틀	338
표 6-45	2011년 F1대회 참가팀	339
표 6-46	2011년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결과	340
표 6-47	2011년도 국내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 대회 지원사업	341
표 6-48	2011년도 올림픽제패기념 지원사업	341
표 6-49	2011년도 국내에서 개최된 종목별 국제대회 지원사업(24건)	341
표 6-50	2011년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및 국제대회 파견	342
표 6-51	2011년도 국가간 친선경기대회 초청 및 파견사업(33건)	344

표 6-52	2011년도 개도국 활동지원사업	345
표 6-53	국가간 체육교류 후속지원사업	346
표 6-54	2011년도 국제스포츠기구 파견사업(7건)	346
표 6-55	2011년도 국제스포츠인재 회의 파견사업(3건)	347
표 6-56	2011년도 국제기구 파견·초청 및 올림픽운동 증진사업(24건)	347
표 6-57	국제연맹총회 초청 및 파견 사업(54건)	348
표 6-58	바둑의 종주국화 사업	349

Section 07 장애인체육

351

표 7-1	체육구조별 정부 및 민간조직	353
표 7-2	국내 장애인체육 발전과정	355
표 7-3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주요 임무(기능)	356
표 7-4	사·도장애인체육회 현황('12. 4월 기준)	357
표 7-5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12. 5월 현재)	358
표 7-6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	360
표 7-7	장애유형별 가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	363
표 7-8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364
표 7-9	장애인체육 예산의 연도별 증가추세	365
표 7-10	2011년 및 2012년도 장애인체육 예산내역	365
표 7-11	장애인생활체육 사업영역 및 사업실적 현황('11. 12월 대한장애인체육회)	367
표 7-12	특수체육 관련학과 현황('11. 12월 현재)	369
표 7-13	2011년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11. 12. 31 현재)	371
표 7-14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예정 현황	372
표 7-15	연도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2000년 순회개최 이후)	373
표 7-16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최 현황	374

Contents 표목차

표 7-17	2011년도 장애인선수 훈련지원	375
표 7-18	2011년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현황	375
표 7-19	경기력향상연구연금(2005년 이전 명칭 ‘장애인선수연금’) 지급 현황	376
표 7-20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외 체육인복지사업 지급 현황	377
표 7-21	장애인체육 실업팀 현황('12. 5월 현재)	378
표 7-22	이천장애인체육종합체육시설 건립 및 2단계 계획	379
표 7-23	이천장애인체육종합체육훈련원의 종목별 공간사용계획(14개 종목 활용)	379
표 7-24	2007 제 1회 장애청소년체육대회 개최현 황	380
표 7-25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현황	381
표 7-26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가입 현황	382
표 7-27	하계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383
표 7-28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384
표 7-29	역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385
표 7-30	2011년도 국제대회 국내개최 및 국제대회 참가 현황	386
표 7-31	역대 농아인올림픽대회(하계) 개최 및 참가 현황	388
표 7-32	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389
표 7-33	스페셜올림픽 동계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390
표 7-34	2011년 장애인체육스포츠아카데미	390
표 7-35	2011년도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	391
표 7-36	2011년도 국제심판·등급분류사 양성사업 현황	392

Section 08 | 스포츠산업

393

표 8-1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항목	397
표 8-2	국내 인터넷 사용자 추이	404
표 8-3	운동용구 수출입 현황	407
표 8-4	도시가구 스포츠용품 및 서비스 품목별 소비	411
표 8-5	교양오락비와 스포츠소비	412
표 8-6	2010년 기준 스포츠산업 전체 현황	414
표 8-7	스포츠산업 내 사업체수 현황	415
표 8-8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416
표 8-9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 수	417
표 8-10	부문별 고용 현황	418
표 8-11	조직형태별 고용 현황	419
표 8-12	GDP대비 스포츠산업규모 비율	419
표 8-13	연도별 스포츠산업 규모	420
표 8-14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 추이	421
표 8-15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	422
표 8-16	스포츠산업 전체실적	423
표 8-17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	424
표 8-18	운동·경기용품제조업 상품별 구성비	425
표 8-19	등록체육시설업 현황	426
표 8-20	신고체육시설업 현황	427
표 8-21	연도별 전국 골프장 이용객 현황	428
표 8-22	경기 및 오락스포츠 서비스업 연간 운영기간 및 이용인원	429
표 8-23	2002~2010년도 스포츠서비스업 주요업종 이용자 수	430
표 8-24	체육계학과 학생 및 스포츠산업 관련학과 현황	431

Contents 표목차

표 8-25	연도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수입 현황	432
표 8-26	스포츠신문 매출 현황	433
표 8-27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상품별 구성비	433
표 8-28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434
표 8-29	주요 프로스포츠 관중 추이	436
표 8-30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 수 및 경기당 평균 관중 수	436
표 8-31	주요 프로스포츠 수용규모 및 좌석점유율	436
표 8-32	프로단체 현황('11. 12월 기준)	437
표 8-33	체육과학연구원의 스포츠산업 연구 조직구조 변화	447
표 8-34	스포츠용품 인증제도를 위한 투자실적	449
표 8-35	인증 시험·검사장비 도입 현황	450
표 8-36	2011 서울국제스포츠박람회 전시규모 현황	453
표 8-37	지역별 해외 바이어 참가비율(38개국)	453
표 8-38	품목별 참가비율	453
표 8-39	상담 및 계약실적	453
표 8-40	생산장려 체육용구 지정 현황	456
표 8-41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현황	460
표 8-42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융자 사업개요	464
표 8-43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기금융자 현황	464
표 8-44	체육시설업체 기금융자 기준	466
표 8-45	체육시설업체 기금융자 현황	467
표 8-46	연도별 스포츠시설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	470
표 8-47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융자 기준	471
표 8-48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융자 현황	472
표 8-49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 현황	474
표 8-50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 과제 현황	474
표 8-51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현황	478

Section 09 체육시설 481

표 9-1	운동종목별·시설형태별 체육시설의 종류	483
표 9-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484
표 9-3	전국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485
표 9-4	전국 시도별 체육시설업 현황	486
표 9-5	공공체육시설 지원 대상 및 기준	494
표 9-6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실적	495
표 9-7	2011년 체육진흥시설 예산 지원내역	496
표 9-8	국민체육센터 연도별·지역별 건립 지원 현황	501
표 9-9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 추진실적	503
표 9-10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연도별·지역별 지원실적	505
표 9-11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 실적	506
표 9-12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07
표 9-13	태권도공원 명칭공모 결과	510
표 9-14	태권도공원 조성 방향 국민제안 공모 결과	511

Contents 표목차

Section 10 | 체육전문인력 519

표 10-1	종목별 등록선수 수	522
표 10-2	연도별 선수 수의 변화	524
표 10-3	꿈나무 선수 육성 현황	525
표 10-4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현황	526
표 10-5	종목별 후보선수 및 지도자 수	527
표 10-6	종목별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 수	528
표 10-7	종목별 심판	529
표 10-8	체육계 학과 및 학생 수(전문계 고등학교)	531
표 10-9	체육계학과 학과, 학생 및 교원 수(전문대학)	532
표 10-10	대학교 체육계 학과 학생 및 교원 수	536
표 10-11	대학원 체육계학과 학생 수	542
표 10-12	경기지도자의 자격 요건	545
표 10-13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	546
표 10-14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 현황	548
표 10-15	경기지도자 양성 기관	548
표 10-16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549
표 10-17	연도별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550
표 10-18	종목별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551
표 10-19	연도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552
표 10-20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553
표 10-21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554
표 10-22	업종별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555
표 10-23	2011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실적	556
표 10-24	2011년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실적	557
표 10-25	2011년 광장지도자 배치 실적	558

Section 11 체육정보 559

표 11-1	체육유관기관 도메인	566
표 11-2	체육정보 구축 내역	567
표 11-3	체육과학연구원의 기관별 정보	572
표 11-4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관별 정보	573
표 11-5	대한체육회의 기관별 정보	575
표 11-6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기관별 정보	577
표 11-7	국민생활체육회의 기관별 정보	578
표 11-8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기관별 정보	578
표 11-9	체육인재육성재단의 기관별 정보	579

Section 12 남북체육교류 581

표 12-1	남북체육회담 주요일지	595
표 12-2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 개최 현황	597
표 12-3	1991년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현황	597
표 12-4	1990년~2000년 남북체육교류 세부실적	598
표 12-5	2000년~2011년 남북체육교류 세부실적	603
표 12-6	체육 관련 북한방문 현황(2001~2011)	608
표 12-7	체육 관련 북한주민접촉 현황(2001. 8월~2011. 12월)	609
표 12-8	체육 관련 남한방문 현황(2001~2010)	612

Contents 그림목차

Section 01 체육의 개념과 체육활동 실태 33

그림 1-1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빈도(%)	47
그림 1-2	운동실시 장소 분포(%)	51
그림 1-3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	53
그림 1-4	운동 참여 이유(%)	54
그림 1-5	운동 불참 이유(%)	54
그림 1-6	관람 종목 분포(%)	58
그림 1-7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60
그림 1-8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61

Section 02 체육의 제도적 기반 63

그림 2-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기구	77
그림 2-2	국내·외 체육기구	125
그림 2-3	대한체육회 기구표('11. 12. 31 기준)	125
그림 2-4	국민생활체육회 구성도	132
그림 2-5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처 기구 : 2실 4부	132
그림 2-6	위원회 및 4개 소위원회, 사무총장 및 사무국(1실 3팀)	138
그림 2-7	조직도	143

Section 04 | 학교체육 221

- 그림 4-1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편재와 체육수업 이수단위 225
- 그림 4-2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의 개요 237
- 그림 4-3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요 243
- 그림 4-4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 245

Section 05 | 전문체육 253

- 그림 5-1 꿈나무선수 선발 과정 258

Section 06 | 국제체육 291

- 그림 6-1 동·하계올림픽대회 합산 마케팅수입 304
- 그림 6-2 하계올림픽대회 TV중계권료 304
- 그림 6-3 경기단체(협회) 국제업무 기구(음영 부분) 309

Section 07 | 장애인체육 351

- 그림 7-1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직도('11. 12월 기준) 357

Contents 그림목차

Section 08 | 스포츠산업 393

그림 8-1	국내 스포츠 산업 분류	400
그림 8-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조직도	446
그림 8-3	인증제사업 구성도	449
그림 8-4	생산장려품목 및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절차	456
그림 8-5	기금 융자 시행절차	464
그림 8-6	스포츠서비스업 기금 융자 시행절차	472
그림 8-7	전략과제(중·장기 과제) 선정절차	476
그림 8-8	자유공모 과제 선정절차	476

Section 09 | 체육시설 481

그림 9-1	공공체육시설 확충 비전 체계도	492
--------	------------------	-----

Section 10 | 체육전문인력 519

그림 10-1	체육지도자 양성절차	547
---------	------------	-----

Section 11 | 체육정보 559

그림 11-1	체육정보시스템 구성도	562
그림 11-2	체육정보망 구성도	565

A large red abstract graphic element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consisting of a thick red line that curves and folds back on itself, creating a stylized arrow or 'S' shape.

Section

01

체육의 개념과 체육활동 실태

- 제1절 체육의 정의와 유사개념
- 제2절 체육의 분류와 체육정책 범위
- 제3절 체육활동 참여실태



Section
01

체육의 개념과 체육활동 실태



제1절 체육의 정의와 유사개념

1. 체육의 정의와 개념적 한계

1) 체육의 정의

체육의 정의는 학문적 정의와 법적 정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체육의 학문적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자. 체육의 과학적 연구는 18~19세기 초부터 체조(Gymnastics)의 개념으로 근대체육의 기초를 쌓은 몇몇 체조가들에 의하여 시도되었지만 체육에 대한 용어가 최초로 문헌상에 기록된 것은 18세기 후반 텔사르트(Delsarte)의 “Education Physique”에서 비롯된다. 이후 이 용어는 1840년대 신체와 교육의 합성어인 “Physical Education”으로 일반화되었다.

20세기 초 체육이 신체 그 자체를 교육(education of physical)하는 것이냐 혹은 신체를 매개로 하는 교육(education through physical)적 활동이냐라는 논쟁이 전개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체육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의 한 분야”라는 주장으로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전인교육론적 정의는 체육이 학문적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서 신체운동 자체에 대한 기본개념, 방향, 운동지각 형성에 대한 관심과 인간행동 측면에서의 운동현상 연구로 확대되면서 “움직임 교육(movement education)”, “인간운동(human movement)”, “운동학(kinesiology)”, “인간운동학(human kinetics)”, “운동과학(exercise science)”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스포츠’를 활용하여 “스포츠연구(sport studies)” 또는 “스포츠과학(sport sci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의 체육에 대한 학문적 정의의 발전 과정을 정리해 보면 체육(體育)이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신체활동을 매개 또는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한 영역”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인간의 제운동을 탐구하는 과학과 기술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체육의 법적 개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는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교육적 측면에서 출발한 체육의 범위를 넓게 확장한 것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체활동의 다양한 현상과 기능의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체육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육으로서의 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활동, 운동, 스포츠, 레저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의 유사개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2) 체육의 개념적 한계

체육을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한다고 해서 ‘체육’이라는 용어와 현실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신체·정신활동, 인간의 생활문화로서의 일체의 신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현상간의 불일치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육이라는 용어는 개념적인 혼란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체육 현상 역시 커다란 변화와 확장을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 즉, 근대 스포츠가 도입되기 시작했던 1900년대 초기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학교체육의 현상이 모든 체육현상의 대부분을 차지해왔기 때문에 체육이라는 용어가 적합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전문체육, 즉 엘리트 스포츠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체육 현상은 학교체육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이 때부터 체육이라는 용어의 부적합성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부터 여가스포츠활동을 지칭하는 생활체육활동이 급증하면서부터 교육의 영역이 아닌 상업스포츠(프로스포츠), 여가스포츠, 학교로 한정되지 않는 엘리트스포츠의 영역이 크게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스포츠산업’이란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확장되어 기존 ‘체육’의 개념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체육’과 ‘스포츠’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학계에서는 ‘스포츠’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과거 스포츠는 체육(교육)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 스포츠는 하나의 문화적 형태로서 신체문화, 생활문화의 한 영역이 되어 경쟁적이든 경쟁적이지 아니든 일체의 신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삶의 문화로서 점점 다양화하고 있는 일체의 신체활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현상을 포함하는 개념 정립을 위한 체육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체육의 법적, 행정적 용어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백서에서는 체육 개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체육’을 위에서 설명한 스포츠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사용하였다.

2. 체육의 유사 개념

1) 스포츠, 게임, 놀이

체육은 수많은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동들이 스포츠(sports), 게임(game), 놀이(play) 등의 활동이다. 상황에 따라 스포츠, 게임, 놀이 등의 활동들은 체육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어느 경우에는 이들 개념이 체육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체육을 포함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체육을 중심으로 이들의 활동을 체계화하면 체육은 인간의 움직임(human movement)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의 움직임 중에서 생계를 위하여 하는 활동을 제외한 움직임을 신체 활동(physical activity)이라고 한다. 일을 위한 움직임과 신체 활동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 즉, 일에서는 신체 활동이 일의 목적에 대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신체 활동에서는 신체의 움직임이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신체 활동은 체육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지만 이들 신체 활동이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조건에 따라 체계화되는 단계에 따라 놀이, 게임, 스포츠라는 용어로 불리게 된다.

놀이는 신체 활동 중에서 허구성과 비생산성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문화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되는 활동의 체계이다. 놀이의 허구성이란 현실 생활을 벗어나 일어나는 활동이다. 비생산성이란 활동의 결과로 아무런 상품, 재화, 또는 새로운 종류의 물질이 창조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경쟁은 존재할 수 있으며 흥미를 목적으로 하는 민속놀이나 어린이들의 놀이 등이 전형적 보기가 할 수 있다.

게임은 놀이로 인정되는 신체 활동 중에서 경쟁성에 바탕을 두고 승부를 내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고, 규칙을 정하며, 결과의 불확실성을 유지하면서 확률, 전술 및 신체의 기능을 통하여 승부의 결과를 결정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여기에서 경쟁성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상대 사이에 승리를 위한 패권을 겨루는 것을 말한다. 분리성이란 사전에 미리 규정되고 정해진 공간과 시간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특성을 의미한다. 규칙성이란 일상적인 규범의 적용이 일시 정지된다는 합의하에 활동이 성립하며, 활동의 장애 있어도 새로운 규범의 제정을 이

루고 통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확실성이란 활동의 전개 과정이나 결과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함을 나타내며, 이의 결정이 운(chance)이나 전술(strategy), 그리고 신체의 운동기능(motor ability)에 의존함을 뜻한다.

스포츠는 게임결과의 결정에서 격렬한 신체적 기량이 강조되고 활동의 가치, 규범, 기술 등의 제도화 수준이 매우 높아 그 활동을 위한 조직이 구성되며, 이 조직을 통하여 규칙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는 특성을 지닌 활동을 지칭한다. 따라서 하나의 체육 활동이 사회에서 스포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놀이와 게임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에 더하여 신체적 기량이 경쟁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활동 체계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체육 활동의 체계에서 스포츠는 게임에 바탕을 두고, 게임은 놀이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게임은 놀이의 허구성과 비생산성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스포츠 또한 놀이의 허구성과 비생산성은 물론 게임의 경쟁성, 분리성, 불확실성, 규칙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프로스포츠에서와 같이 스포츠에서 비생산성과 허구성이 사라지면 겉으로는 스포츠의 형태를 띠지만 일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

표 1-1 놀이, 게임, 스포츠의 특성 비교

놀 이	게 임	스 포 츠
허구성 비생산성	허구성 비생산성	허구성 비생산성
	분리성 규칙성 불확실성 경쟁성 확률, 전술, 신체기능에 의한 결과의 결정	분리성 규칙성 불확실성 경쟁성 확률, 전술, 신체기능에 의한 결과의 결정
		신체적 기량 가치, 규범, 기술의 제도화

참고로 체육과 스포츠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스포츠는 체육(교육)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체육은 교육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되 스포츠는 하나의 문화적 형태로서 신체문화, 생활문화의 한 영역이 되어 경쟁적이든 경쟁적이지 아니든 일체의 신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으로 보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교육의 한 영역인 체육보다는 오히려 넓은 개념으로 사용

되고 있다. 스포츠는 이제 경쟁스포츠는 물론 비경쟁적스포츠, 생활스포츠, 레저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을 포함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참여하는 신체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2) 여가, 레크리에이션, 레저스포츠

여가는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개념에서 정의된다. 즉,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시간을 생존을 위한 시간과 생계를 위한 시간, 그리고 자유시간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시간이 생존의 영역이며, 그 다음으로는 생계의 영역이다. 따라서 생존과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하고 시간이 남았을 경우 자유시간, 즉 여가시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여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생존과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하고도 여유 있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존과 생계를 위한 시간은 필수적이고도 구속적인 반면에 여가 시간은 선택적이면서 자유로운 시간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는 여유로운 시간의 개념을 토대로 그 자유시간에 하는 여가 활동은 물론, 여가 활동을 통하여 경험하는 만족과 즐거움의 심리상태와 체험까지를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여가가 체육과 깊은 관계를 지니고 체육과 유사 개념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여가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활동 중에서 체육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가는 체육 활동 중 여가스포츠 또는 레저스포츠와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레크리에이션은 여가의 한 부분으로서 여가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레크리에이션은 여가에 비하여 활동의 다양성이 적으며, 활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된다. 또한 여가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개되는 반면에 레크리에이션은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가활동은 자유롭고 개인 내적인 만족을 위하여 자유시간에만 실천될 수 있는 데에 비하여 레크리에이션은 사회 집단이나 조직의 에너지 재충전이나 재생의 의미를 강조하여 실천되기 때문에 자유시간외에도 조직에 의하여 마련될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은 일반적으로 뒤쪽에 강세를 주어 [리크리에이션]으로 발음하면 에너지의 재생 또는 재창조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앞쪽에 강세를 주어 [레크리에이션]으로 발음하면 휴양, 기분전환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레크리에이션이 재생과 재창조의 의미에서, 기분전환 또는 휴양의 의미로 전환되어 여가의 의미와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레저스포츠는 ‘레저(leisure)’가 여가를 나타내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여가에서 행해지는 스포츠라는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레저스포츠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스포츠경기대회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이다.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개인적으로 추구하는데 적합한 골프,

서핑, 스쿠버다이빙, 수상스키, 래프팅 등의 종목들은 흔히 레저스포츠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어떤 스포츠 종목이든 여가시간에 행해지면 여가스포츠이기 때문에 레저스포츠 종목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표 1-2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의 차이점

구 분	여 가	레크리에이션
범 주	포괄적 활동	한정적 활동
조직정도	비조직적	조직적
목 적	개인적 목적우세/자유, 내적만족 강조	사회적 목적 우세/재생, 사회편익 강조
시 간	자유시간	자유시간, 준 자유시간내

3) 운동, 운동경기

운동(exercise)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운동에 활용되는 체육활동은 인간의 어떤 움직임든 가능하다. 즉, 신체활동이든, 놀이활동이든, 게임 및 스포츠활동이든 무엇이든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실천하는 체육활동은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운동경기(athletics)에서 겨루는 운동들은 모두 사회로부터 정규 스포츠로서 인정을 받은 종목들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경기를 통하여 기량을 겨루기 위해서는 승부의 결과를 정하기 위한 규칙이 분명하고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여 다른 경기의 결과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의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에는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 활동으로 운동을 할 수도 있으며, 승부를 가리지 않는 신체 활동, 즉,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맨손 체조도 할 수 있으며, 줄넘기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스포츠 활동으로 인정을 받지는 않지만 승부를 겨룰 수 있는 신체 활동 게임을 통하여 운동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줄넘기를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다. 한번에 쉬지 않고 줄넘기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는가를 겨룰 수도 있으며, 5분 동안에 줄넘기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는가를 겨룰 수도 있다. 줄넘기의 신체 활동을 겨루는 방법은 겨루는 사람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줄넘기 활동의 경쟁을 스포츠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줄넘기를 하면서 신체적 기량을 겨루는 방법이 스포츠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줄넘기의 경쟁 조건은 상황에 따라서 또는 겨루는 사람들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으며, 이렇게 정해진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경쟁한다 하더라도, 그 경쟁조건은 다음 시기에 쉽게 바뀌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줄넘기도 스포츠로 인정될 수 있다. 줄넘기협회를 구성하여 줄넘기의 경쟁 조건과 줄넘기의 기술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줄넘기로 경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줄넘기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킨다면 줄넘기는 스포츠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일단 갖춘 것이다. 그러나 줄넘기가 정식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규 스포츠 종목의 명분이 되는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단체로서 가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줄넘기협회의 회원수의 확보나 미래에 국내종합체육대회는 물론 세계종합체육대회에서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정식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절차와 같이 국제줄넘기협회를 구성하여 회원국을 확보해야 하며, 국제종합스포츠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종합스포츠기구에 국제줄넘기협회가 정식 가맹단체로 가입되어야 하며, 세계적으로 가맹국과 각 가맹국에서의 일정한 회원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줄넘기의 예를 보면 스포츠의 정의가 명확해진다. 줄넘기 활동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다. 줄넘기로 운동을 하는 방법에는 놀이로 하던, 게임으로 하던, 스포츠로 하던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줄넘기를 스포츠 활동 방법으로 운동을 하려면 줄넘기 협회에서 규정하는 기술과 규정하는 규칙에 따라 줄넘기를 겨루고, 협회가 규정하는 규칙들을 지켰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공인심판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줄넘기는 운동(exercise)에서 운동경기(athletics)가 되는 것이다.



제2절 체육의 분류와 체육정책 범위

일반적으로 체육의 분류는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과 활동목적에 따라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체육정책의 범위는 사회 및 체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제시되어 있다.

1. 체육의 분류

1) 생활체육, 평생체육, Sport for All

‘생활체육’은 건강 및 체육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서 생활의 일부분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서구에서 등장한 평생체육(Sport for Lifetime),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Sport for All)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모든 사람이 성, 연령, 계층, 인종, 종교에 구애됨이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출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국민 전체의 일상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활체육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생활체육의 실천 영역은 매우 넓기 때문에 다양한 용어로 분류된다. 우선적으로 생활체육참가자의 연령수준이나 생애주기별로는 유아체육, 아동체육, 청소년체육, 성인체육, 장년체육, 노인체육 등으로 분류되며, 생활체육참가자의 대상에서 특수한 대상을 지칭하는 분류에는 여성체육, 장애인체육, 군인체육 등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생활체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따라 가정체육, 지역사회체육, 직장체육으로, 그리고 생활체육활동을 제공하는 단체나 재원의 종류에 따라 공공체육, 민간단체체육, 상업체육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평생체육은 1965년 미국에서 전개된 것으로 평생교육의 원리를 바탕으로 체육이 한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생애에 걸쳐 실천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체육활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유아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Sport for All은 성, 연령, 출신계층, 사회경제적 지위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가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회운동 캠페인이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Sport for All이라는 용어는 1975년 유럽의 스포츠 관계장관회의에서 Sport for All 헌장을 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이 용어에 포함된 내용의 핵심은 우선적으로 스포츠 활동이 인간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매우 유익한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스포츠 활동의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등한 참가기회보장과 대중적인 체육활동, 그리고 질 높은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고 있다.

생활체육운동은 유럽의 Sport for All과 같이 사회체육진흥의 운동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캠페인 구호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유럽의 Sport for All이나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운동과 같이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1-3 세계 각국의 'Sport for All' 운동

미 국	Physical Fitness Movement	호 주	Life Be In It
구소련	The Further Development of Mass Sport1 + 2 Movement	노르웨이	Trimming
구서독	Trimming 130	일 본	체력육성운동(體力育成運動)
캐나다	ParticipAction	중 국	전민건신운동(全民健身運動)
체 코	Spartakiad	한 국	생활체육운동

2)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에서는 체육활동이 여가를 위하여 전개되는 반면, 학교체육은 체육활동이 교육을 위하여 전개된다. 또한 전문체육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우월성을 추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체육은 엘리트체육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전문체육을 운동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한체육회의 경기단체에 등록된 아마추어 선수들이 행하는 엘리트스포츠와 프로스포츠협회에 등록된 프로선수들이 행하는 프로스포츠가 해당된다.

학교체육에서는 체육활동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2001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교육의 지침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체육의 성격을 움직임 육구의 실현 및 체육 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내재적 가치와 체력 및 건강의 유지와 증진, 정서의 순화, 사회성 함양이라는 외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하는 교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체육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인간의 움직임에 기초를 두고 신체활동과 놀이를 바탕으로 한 체육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간이게임과 정식게임으로 체육활동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 이르면 정식 스포츠종목의 경기능력을 배양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인간의 움직임, 신체활동, 놀이, 게임, 스포츠라는 활동의 체계가 단계적으로 높아져가면서 체육교육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체육의 목표에서도 운동의 기능과 체력 증진에만 한정되지 않고 운동과 건강에 대한 지식과 이의 활용 능력, 그리고 운동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태도를 기르는 정서적 영역에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체육이 단지 체육의 외면적 활동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움직이는 인지적인 원리와 정서적인 차원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은 여가를 위해 실천하는 체육활동으로 활동주체나 목적, 장소 등에서 엘리트스포츠와 학교체육과 구분되며 특히 엘리트스포츠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생활체육은 여가스포츠활동으로서 학교체육이나 전문체육과 여러 측면에서 매우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대상의 측면에서 학교체육은 학생을, 전문체육은 운동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령범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생활체육은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다. 학생들도 학교의 교육 활동이 아닌 여가 활동으로 체육을 한다면 생활체육을 하는 것이다.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이 의무적인데 반하여 생활체육은 자발적이다. 활동의 내용도 학교체육은 게임과 체력 운동, 무용, 스포츠 등을 주로 다루며, 전문체육에서는 공식적인 스포츠만을 포함하는데 비하여 생활체육에서는 다양한 여가스포츠는 물론이고 스포츠화 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형태의 놀이 및 게임 활동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표 1-4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특성 비교

구 분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대 상	학생	선수(최적 연령기)	모든 사람
활용 방법, 내용	의무적	제도적	자발적, 즐거움
내 용	게임, 스포츠, 체력운동, 무용 등	정규 스포츠	놀이, 게임, 스포츠, 체력운동, 무용 등
시 간	수업 시간	훈련과 시합시간	자유시간
장 소	학교체육 시설	정규 대회 시설	모든 시설
목 적	교육	승리, 직업영역	여가, 욕구충족

생활체육은 활동의 시간과 장소에서도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에 비하여 자유롭다. 활동의 목적에서도 학교체육은 교육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해지며, 전문체육은 승리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해지며 생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생활체육은 여가를 선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체육구조에서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은 각각의 영역에서 뚜렷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부문간의 연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생활체육참여자의 운동기능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운동경기를 하기보다는,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생활체육교실에서 운동기능을 익히는 수준에 있다. 또한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즉 학교에서 체육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운동기능 수준도 낮아 이들이 운동경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전문체육이 가능한 통로는 몇몇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운동부에 제한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육성되는 운동부의 운동선수들은 학교체육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운동부는 학교체육에 포함되기 어려우며 엘리트스포츠라는 영역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이 융합 발전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체육정책의 범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에 관한 정의에서 살펴보면 체육정책 및 행정의 범위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학교체육,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우수한 능력을 가진 선수의 발굴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체육(엘리트 체육), 체육활동·신체활동과 관련된 산업적 활동, 장애인을 위한 생활·엘리트체육 등이 모두 체육정책의 범위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체육정책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업무로 생활체육·전문체육·스포츠산업,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문화·체육의 진흥을 위한 장기·단기종합계획과 육성·지원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표 1-5 참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는 2010년 6월 30일에 개정되어 2009년의 35개 조항에서 18개 조항으로 대폭 정리되었다. 특히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지원, 스포츠클럽의 육성·지원, 전통무예 진흥 등이 새로운 업무로 추가되었다.

최근에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체육·신체활동과 연관된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면서 체육정책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경우 체육용품, 체육시설업 이외에 스포츠마케팅, 예

이전트 등 서비스업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체육 수요가 점점 다양화, 고도화하면서 래프팅·패러글라이딩, X-게임 등 신종 레저스포츠가 급증하고 있어 레저스포츠진흥법 제정 등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육성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2008년에는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고 최근에는 전통무예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는 등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체육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는 학교체육진흥법이 통과되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확대, 체육활동 여건 개선 등의 정책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2011년 7월,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개최가 확정되면서 한국의 스포츠위상이 높아지고 국내 동계스포츠 활성화가 기대된다. 2011년 8월에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제고되었다. 엘리트체육의 경우에는 스포츠영웅사업이 전개되고 은퇴 후 선수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육인 복지와 처우개선에도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분야에서의 약물복용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지면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부간 자문그룹 회의(IICGADS)에 참여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약물복용 방지를 위한 국가 정책의 수립과 국내 선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해 2006년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를 설립하고 2007년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가입하여 국가반도핑기구(NADO)로 활동하고 있다.

나아가 체육콘텐츠가 관광, 게임·방송 등 다른 산업의 콘텐츠로 활용되면서 체육정책이 다루어야 할 영역이 다른 영역과 중첩되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체육의 영역은 체육 자체뿐만 아니라 체육과 연관된 다양한 환경 영역과의 상호관계나 연계를 통하여 보다 확대될 것이며 이에 체육정책의 영역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점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1-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관장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문화·체육의 진흥을 위한 장기·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3. 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4.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 5.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지원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운용 7.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 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육성 9.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지원 10. 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1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지원 12.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추진 및 민간체육시설 설치·이용의 활성화 13.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 14. 국가 간·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15.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 16.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7.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장애인 체육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18.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제3절 체육활동 참여실태

체육활동 참여는 삶의 질과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복지활동이며, 개인의 사회적 완성을 추구하는 여가문화 활동이다. 본 절에서는 2010년에 실시한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체육활동의 직·간접적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생활체육 직접참여 실태

1) 생활체육 참여유형

가. 생활체육 참여율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여부 및 빈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45.3%), 주2~3회(21.2%), 주 4~5회(11.8%), 주 1회(8.8%), 매일 (5.6%), 월 2~3회(4.4%), 주 6회(2.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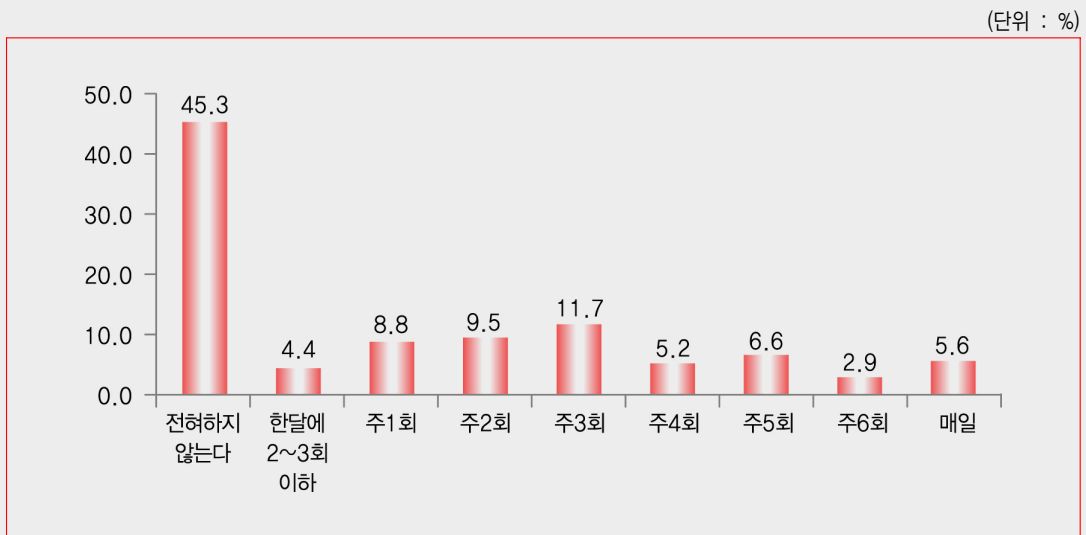


그림 1-1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빈도(%)

이러한 결과는 주 2~3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이 41.5%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0년 주 2~3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은 41.5%로 2008년 주 2~3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34.4%에 비해 7.1%가 증가한 수치이다. 2008년 체육활동 참여율이 2006년(44.1%)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세계금융위기 도래로 경제 위축, 고용 불안, 실업률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6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빈도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도별	전혀 하지 않는다	월 2~3회	주 1회	주 2~3회	주 4~5회	주6회	매일	주2회 이상
1994년	43.3	8.0	11.2	15.8	4.5	—	17.3	37.6
1997년	37.8	10.0	13.4	17.3	9.4	—	12.1	38.8
2000년	34.1	16.7	15.8	16.7	7.1	—	9.6	33.4
2003년	22.5	18.2	19.5	19.9	8.5	—	11.4	39.8
2006년	28.6	13.3	13.9	24.0	12.0	—	8.1	44.1
2008년	53.2	4.4	8.2	15.9	9.3	2.1	6.9	34.2
2010년	45.3	4.4	8.8	21.2	11.8	2.9	5.6	41.5

반면 2010년의 참여율 상승은 세계금융위기의 슬기로운 대처로 인한 경제적 안정,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의 선전으로 인한 생활체육 참여 확산, 노인인구의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08년 30.0%에서 10년 46.9%)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생활체육회 등 공공기관의 생활체육사업 확대와 ‘스포츠7330 캠페인’과 같이 전국민적 홍보확대가 비참여층을 참여층으로 유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7 연령별 주2~3회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도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1994년	50.2	39.0	33.3	31.3	34.8	34.0	—
1997년	50.9	38.6	35.7	35.3	37.8	29.6	—
2000년	39.9	35.6	25.9	30.8	39.1	36.8	—
2003년	32.6	24.4	35.8	46.8	54.0	53.3	—
2006년	38.0	45.2	41.7	50.9	56.7	33.0	24.3
2008년	30.5	30.2	31.8	37.8	40.6	39.6	28.5
2010년	34.8	36.4	38.0	44.4	48.5	51.1	42.8

나. 참여종목

생활체육 참여종목을 살펴보면, 걷기가 31.9%로 가장 높고, 등산 16.2%, 보디빌딩(헬스) 12.8%, 축구 10.1%, 자전거 5.5%, 수영 5.3%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종목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06년까지는 등산이 1순위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집주변에서도 가능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운동효과도 검증된 걷기가 1순위로 부상하고 있으며 보디빌딩(헬스)이 2000년 이후 몸짱 열풍으로 순위 내에 등장한 이후 여전히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스포츠종목으로는 축구가 4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전거가 새롭게 5위에 진입하였다. 특히 자전거 참여인구 증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고유가시대에 자전거가 교통수단의 대체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특별히 순위가 10위권으로 낮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골프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생활체육 참여종목으로서 10위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즐기는 주류스포츠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그만큼 골프가 대중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8 참여종목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1986	육상/조깅	축구	체조/줄넘기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1989	체조/줄넘기	축구	육상/조깅	등산	농구	배드민턴
1994	육상/조깅	체조/줄넘기	등산	볼링	농구	테니스
1997	등산	농구	체조/줄넘기	배드민턴	수영	볼링
2000	등산	체조/줄넘기	농구	축구	보디빌딩(헬스)	수영
2003	육상/조깅/속보	등산	보디빌딩(헬스)	체조/줄넘기	수영	축구
2006	등산	축구	육상/조깅/속보	배드민턴	보디빌딩	체조/줄넘기
2008	걷기	보디빌딩(헬스)	등산	축구	배드민턴	수영
2010	걷기	등산	보디빌딩(헬스)	축구	자전거	수영

다. 1회 운동시간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1회 평균 운동시간은 89분으로 나타났으며, 60분~90분 미만(42.0%), 120분~180분 미만(19.9%), 30분~60분 미만(15.2%), 90분~120분 미만(12.0%), 180분 이상(10.4%), 30분 미만(0.5%)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8년 1회 평균 운동시간 92.9분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운동시간 분포도(%)

(단위 : %)

운 동 시 간	분 포 도
30분 미만	0.5
30~60분 미만	15.2
60~90분 미만	42.0
90~120분 미만	12.0
120분~180분 미만	19.9
180분 이상	10.4
평균(분)	89분

라. 운동시간대

평일에 참여하는 운동시간대는 저녁(34.4%), 아침(새벽포함)(16.9%), 오후(10.0%), 일정하지 않음(9.0%), 오전(9.0%), 점심(2.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휴일에는 일정하지 않음(21.7%), 오전(13.3%), 오후(13.0%), 저녁(12.7%), 아침(새벽포함)(9.9%), 점심(1.0%) 순으로 나타났다. 휴일 운동시간대 분포에서 불규칙하다는 의견(21.7%)이 많은 것은 평일의 규칙적인 시간활용에 비해 휴일은 시간활용을 여유 있게 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표 1-10 운동시간대 분포도(%)

(단위 : %)

운 동 시 간 대	분 포 도	
	평 일	휴 일
아침(새벽포함)	16.9	8.9
오전 시간대	9.0	9.9
점심시간	2.3	1.0
오후 시간대	10.0	13.0
저녁 시간대	34.4	12.7
불규칙	9.0	21.7
해당요일 운동하지 않음	18.4	28.4

운동에 참여하는 시간대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아침시간대 참여율은 감소 경향이 있는 반면, 참여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새벽)시간

의 운동참여율 감소 경향은 출근과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으면서 2008년 큰 폭으로 증가한 불규칙한 시간대의 운동참여는 파트타임직의 증가나 무직자 또는 실직자의 증가와 점점 다양해지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때문 등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1 연도별 운동시간대 분포도 비교(%)

(단위 : %)

연도별	아침(새벽)	오 전	점심시간	오 후	저 녀	불규칙
1986	42.3	9.8	4.1	19.4	9.6	14.6
1989	35.9	11.4	3.1	17.0	12.3	17.8
1991	24.7	16.8	3.4	19.0	10.8	25.2
1994	34.9	11.7	3.2	21.0	16.4	12.9
1997	26.6	13.1	3.9	15.5	21.7	19.2
2000	24.1	14.2	1.8	19.8	22.4	17.6
2003	17.0	11.0	2.3	15.3	38.0	16.4
2006	12.7	13.9	1.4	20.7	30.9	20.4
2008	13.8	11.0	1.6	9.4	24.0	30.4
2010	12.9	9.5	1.7	11.5	23.6	15.4*

주 : 2010년 운동시간대가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기 때문에, 그 평균치로 환산하였음.

* 2010년의 경우 '해당요일 운동하지 않음' 보기가 추가되었으며 23.4%에 달함

마. 운동장소 (참여장소 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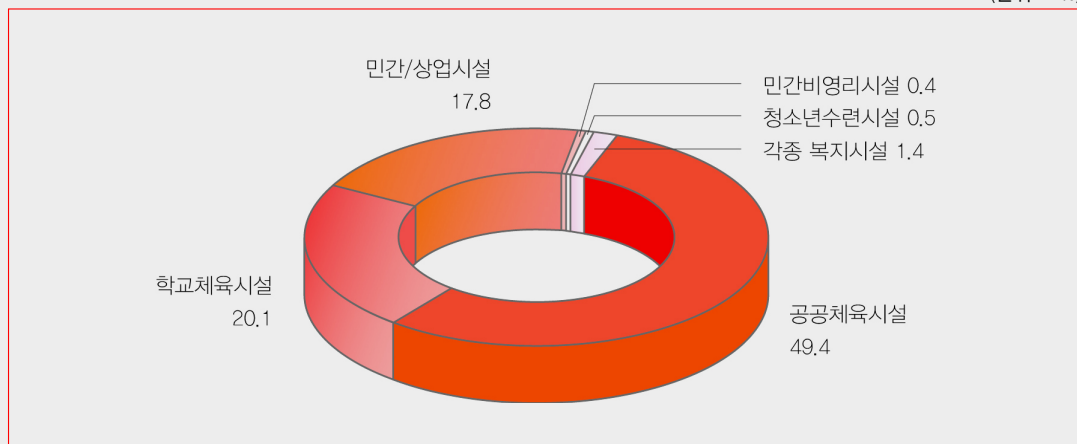


그림 1-2 운동실시 장소 분포(%)

주로 운동을 하는 장소를 살펴보면, 공공체육시설이 49.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학교체육시설 20.1%, 민간/상업시설 17.8% 순이며 청소년 수련시설(0.5%), 각종 복지시설(1.4%), 직장체육시설(0.5%)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참여종목별 참여장소는 걷기, 자전거, 배드민턴, 줄넘기 등은 공공체육시설, 축구, 농구는 학교체육시설, 보디빌딩(헬스), 골프, 요가, 에어로빅은 민간/상업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시설인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의 이용비율이 69.5%(2008년은 32.7%)로 매우 높게 나타나 공공형 체육시설공급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0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의 체육활동 참여장소 문항은 2008년 이전의 실태조사 문항과 달라 운동장소의 연도별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1-12 참여종목별 참여 장소(%)

(단위 : %)

종 목	사례수	공공체육 시설	학교체육 시설	민간/ 상업시설	민간비영리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각종 복지시설	직장 체육시설	기타 시설
[전체]	5,953	49.4	20.1	17.8	0.4	0.5	1.4	0.5	9.9
걷기	1,602	36.3	22.3	0.3	0.1	0.0	0.4	0.0	13.6
등산	819	100.0	0.0	0.0	0.0	0.0	0.0	0.0	0.0
보디빌딩(헬스)	642	18.5	0.6	69.6	0.3	0.9	2.3	1.6	6.2
축구	510	17.5	81.8	0.0	0.0	0.2	0.0	0.4	0.2
자전거(사이클)	277	62.5	10.0	0.4	0.0	0.0	0.4	0.4	26.4
수영	266	47.8	2.6	41.0	0.4	7.1	1.1	0.0	0.0
배드민턴	188	54.3	35.1	0.5	0.0	0.0	1.6	0.0	8.5
농구	170	29.4	68.2	0.0	0.0	0.6	0.0	0.0	1.8
골프	144	9.7	0.7	88.9	0.0	0.0	0.0	0.0	0.7
요가	140	29.3	1.4	40.8	1.4	2.1	8.6	0.7	15.7
줄넘기	136	33.1	22.0	3.7	0.0	0.0	0.0	0.0	41.2
체조 (맨손/생활 체조)	125	30.4	4.8	0.8	0.8	0.0	17.6	0.8	44.8
에어로빅	103	29.1	0.0	66.0	1.0	0.0	1.9	0.0	2.0

바. 운동경비

월 평균 운동경비는 없다(37.0%), 3만원 미만(24.5%), 3-6만원 미만(20.6%), 10만원-15만원 미만(7.0%), 6만원-10만원 이상(6.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경비를 전혀 지출하

지 않거나 소액 지출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특별한 운동경비가 필요하지 않은 걷기나 학교운동장 사용 등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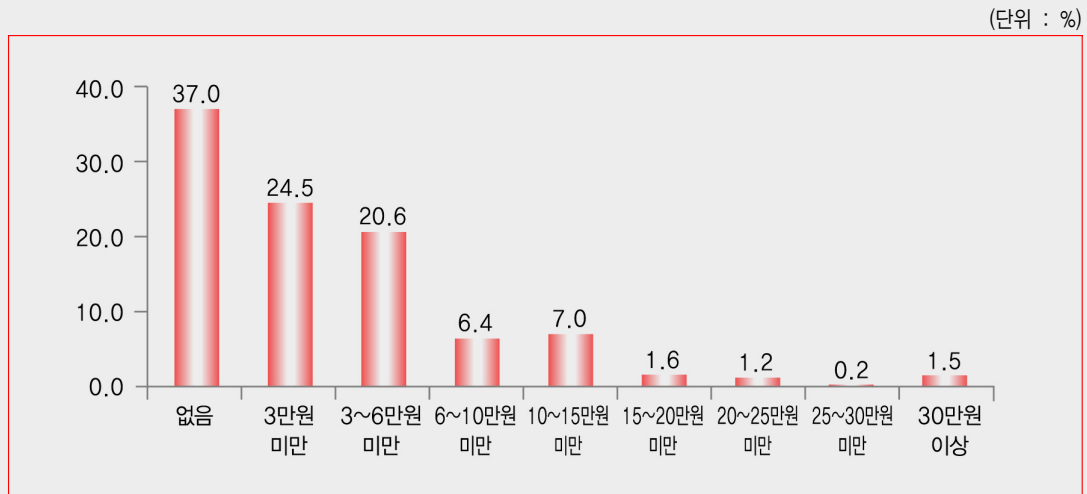


그림 1-3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

2010년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는 34,394원으로 2008년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보다 약 845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비 비지출자는 2008년 43.3%에서 2010년 37.0%로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 조사에서 저소득층의 운동경비 비지출 비율은 증가한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운동경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에 따른 스포츠활동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대도시(36,600원), 전문가 종사자(60,300원)가 가장 많은 월 평균 운동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에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13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에 대한 연도별 비교(%)

(단위 : %)

	없다	3만원 미만	3~6만원 미만	6~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평균
2003년	—	55.3	23.0	7.9	13.9	41,662
2006년	37.9	14.0	22.4	7.8	17.9	25,300
2008년	43.4	14.6	22.8	7.8	11.4	33,549
2010년	37.0	24.5	20.6	6.4	11.5	34,394

2) 운동 참가 및 불참 이유

운동에 참가하는 이유는 건강유지 및 증진(56.6%)이 가장 많고,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17.0%), 스트레스 해소(7.2%), 여가선용(6.6%), 개인의 즐거움(5.8%), 대인관계 및 사교(3.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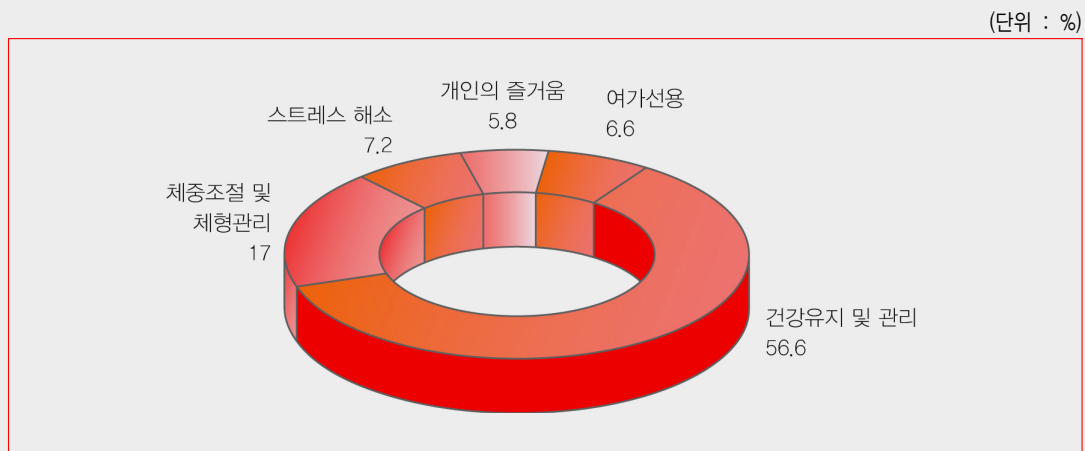


그림 1-4 운동 참여 이유(%)

한편, 운동에 불참하는 이유는 바빠서/시간 부족(55.2%)이 가장 높고, 게을러서(16.9%), ‘신체허약, 나이가 들어서’(9.3%), 관심이 없어서(7.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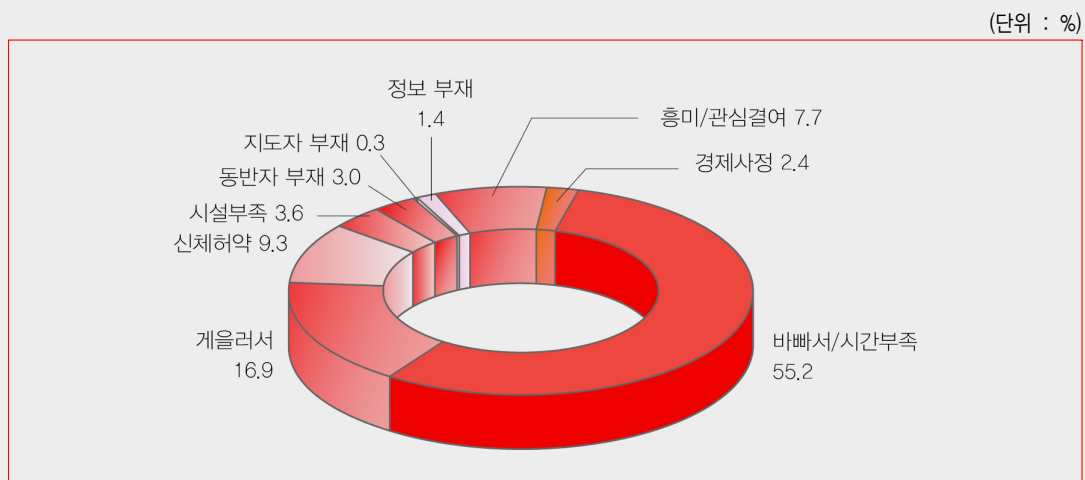


그림 1-5 운동 불참 이유(%)

규칙적 체육활동 비참여의 가장 커다란 이유인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가 2006년 44.1%에서 2008년 54.2%, 2010년 55.2%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과 무관하게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 중 하나로, 직장의 공식적인 근무일수는 주5일로 감소하였지만, 평일은 그동안 주6일 근무량을 5일내에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체육활동 시간을 내기 어렵고 또한 잔여업무를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이유로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득은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을 보내려면 추가비용이 필요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생활비 부족이나 넉넉한 삶의 보충을 위해 투잡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일의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 주말의 추가 수익활동에 대한 부담 등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생활체육이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선택적 활동이 아닌, 심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행복 등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필수적 활동으로 인식되도록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표 1-14 규칙적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의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도별	바빠서/ 시간부족	게을 러서	신체 허약	동반자 부재	시설 부족	지도자 부재	정보 부재	흥미/ 관심 결여	경제 사정
1986	61.9	—	6.7	2.7	—	—	7.5	17.6	3.5
1989	59.2	—	12.6	2.8	—	—	8.1	13.4	—
1991	53.4	—	9.2	3.1	—	—	5.4	13.8	5.4
1994	59.4	16.0	9.0	2.8	—	—	4.6	6.3	2.0
1997	52.4	—	6.4	4.4	—	—	2.0	3.9	3.2
2000	39.1	20.8	5.8	7.1	1.9	0.2	0.2	1.1	1.1
2003	48.0	26.8	8.1	3.2	4.3	0.3	1.3	5.1	2.8
2006	44.6	21.5	13.8	2.2	2.8	2.4	0.2	11.7	1.3
2008	54.2	20.0	8.4	3.2	3.5	0.6	1.6	5.9	2.6
2010	55.2	16.9	9.3	3.0	3.6	0.3	1.4	7.7	2.4

3) 희망 운동 종목

향후 참가해 보고 싶은 운동 종목으로는 수영(17.6%)이 가장 높고, 등산(8.3%), 요가(7.8%), 골프(6.52%), 보디빌딩/헬스(6.4%), 걷기(6.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5 희망 운동종목(%)

(단위 : %)

순 위	희망 운동종목	분 포 도
1	수영	17.6
2	등산	8.3
3	요가	7.8
4	골프	6.5
5	보디빌딩(헬스)	6.4
6	걷기	6.0
7	축구	3.5
8	댄스스포츠	3.1
9	테니스	2.9
10	배드민턴	2.6

희망 운동 종목에 대한 연도별 비교결과, 수영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등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과밀화된 도시로부터 자연을 벗 삼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종목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요가, 헬스의 증가도 눈에 띄는데, 이것은 바쁜 일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정적인 신체활동에 대한 선호도 증가, 몸짱·S라인 등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골프에 대한 선호도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 골프 참여율 증가를 감안할 때 골프 희망인구가 실제 참여인구로 전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6 희망 운동 종목의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도별	테니스	수영	볼링	에어로빅 미용체조	골 프	육 상	축 구	등 산	스쿼시	헬스	요가
1986	15.2	5.2	6.1	6.8	4.3	3.2	2.9	6.8	-	-	-
1989	4.0	12.3	5.9	7.4	-	-	4.0	9.1	-	-	-
1991	20.0	19.9	7.0	5.5	4.9	4.2	4.1	3.4	-	-	-
1994	20.0	20.4	8.6	5.3	2.7	4.2	3.8	5.2	-	-	-
1997	7.9	21.3	4.4	4.5	7.1	4.2	3.8	5.2	-	-	-
2000	8.0	22.5	2.6	-	6.1	1.7	2.8	4.8	-	-	-
2003	4.9	17.0	1.1	1.0	8.0	6.8	2.5	9.0	5.7	4.3	-
2006	5.1	15.6	-	2.3	11.6	2.5	3.3	3.9	3.6	2.3	7.2
2008	3.7	17.8	0.8	2.2	7.2	0.6	3.4	5.9	2.0	6.0	6.5
2010	2.9	17.6	1.1	1.9	6.5	0.5	3.5	8.3	1.6	6.4	7.8

2. 생활체육 간접참여 실태

1)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지난 1년(2011년) 동안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은 13세 이상 인구의 58.6%로 2009년의 55.0%에 비해 3.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영화관람이 81.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박물관, 음악, 연극, 스포츠, 미술관 관람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박물관 관람이 2009년 77.0%에 비해 2011년 26.4%로 대폭 감소하고 미술관 관람도 2009년 56.2%에서 2011년 20.6%로 상당히 감소하는 등 문화예술 관람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스포츠관람은 2009년 20.5%에서 2011년 24.6%로 4.1% 증가하였다.

표 1-17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단위 : %)

	계	음 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 랐
2004	51.0	22.8	20.8	2.4	90.1	77.6	54.3	19.5
2007	54.3	26.6	26.0	2.5	85.0	75.4	56.8	18.4
2009	55.0	26.1	26.2	2.3	91.0	77.0	56.2	20.5
2011	58.6	25.1	24.9	2.6	81.7	26.4	20.6	24.6
남 자	58.0	21.4	19.6	1.9	77.8	24.3	16.8	34.2
여 자	59.2	28.7	30.2	3.3	85.5	28.8	24.4	14.9
13~19세	81.9	23.7	21.9	3.1	87.9	25.8	20.6	20.5
20~29세	81.8	24.9	31.3	2.8	89.8	19.3	21.1	27.2
30~39세	74.3	20.8	25.9	2.2	83.0	31.4	21.1	26.2
40~49세	62.6	26.7	21.7	2.7	81.6	28.4	20.2	24.3
50~59세	44.8	31.3	24.1	2.7	71.6	24.8	20.3	23.7
60세 이상	18.2	29.2	21.6	2.5	54.6	29.2	20.6	17.9
65세 이상	13.8	27.5	16.5	3.1	47.2	30.5	20.1	18.5

자료 : 2011 사회조사 보고서, 통계청

또한 성별로는 공연장 이용과 전시장 관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았고, 반대로 스포츠관람은 남자가 여자보다 2.3배 이상 높았다. 이것은 여전히 스포츠관람이 남성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람스포츠업계는 여성의 스포츠관람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음악·연극, 무용, 미술관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관람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비율이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노년여가 활성화와 노인의 스포츠관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운동경기 관람유형

2010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경기장에 가서 운동경기를 직접 관람한 사람은 전체의 15.7%이며, 나머지 84.3%는 경기장에 가서 직접 관람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직접 관람 비율이 2008년보다 1.2%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 관람이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 관람 종목

운동경기장에 직접 가서 관람한 사람들의 관람 경기종목을 살펴보면, 야구(53.5%)가 가장 많고, 축구(38.1%), 농구(7.5%), 배구(2.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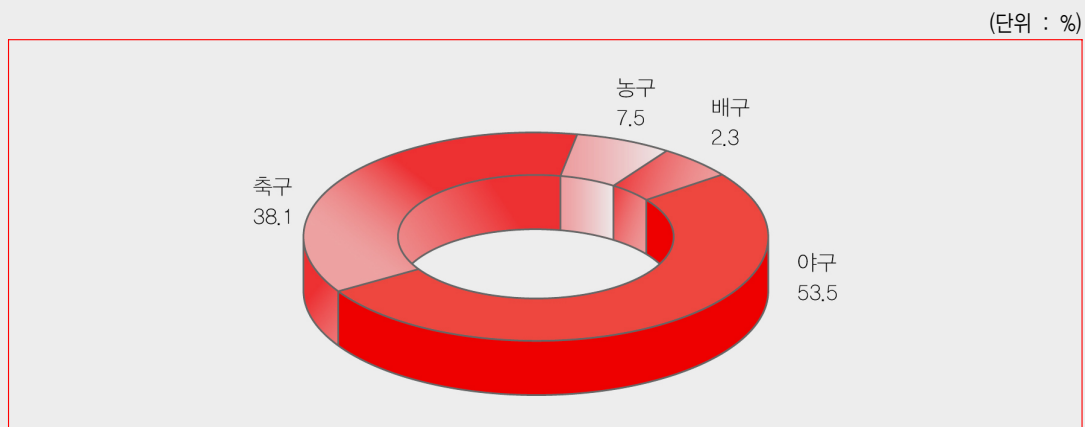


그림 1-6 관람 종목 분포(%)

관람 운동종목으로는 야구와 축구의 선호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0년 야구관람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2008년보다도 5.5% 증가한 53.5%를 차지해 1990년대 초반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반면 축구는 2002월드컵이후 관람스포츠로서 인기를 구가했으나 2006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 43.6%, 2010년 38.1%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2002년 월드컵 이후 월드컵 및 올림픽 축구성적의 부진, 유럽 등 축구선진국 수준의 경기력 기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증가가 축구관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주요 관람종목이 대부분 프로화되어 각 종목 모두 홍보와 광고 및 스폰서십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각 종목 간 경쟁이 보다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종목이 더 마케팅 노력을 강화해 나가느냐에 따라 종목관람 비율이 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8 관람종목의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 도 별	배 구	야 구	축 구	농 구
1986	4.6	48.3	25.2	5.8
1989	6.0	43.2	24.4	6.6
1991	6.4	44.7	19.3	14.3
1994	3.5	59.2	18.3	9.5
1997	3.4	54.8	20.1	11.6
2000	1.7	45.1	32.4	10.5
2003	1.7	37.4	41.5	10.3
2006	1.1	27.1	48.7	12.3
2008	3.7	48.7	43.6	8.1
2010	2.3	53.5	38.1	7.5

나. 경기관람 빈도

운동경기의 평균 관람 빈도에 대한 연도별 비교 결과, 1년에 1~2회 정도 관람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6개월에 1~2회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부터 ‘6개월에 1~2회 정도’가 보기로 추가되었는데, 이것을 고려하더라도 1년에 1~2회 정도 관람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경기관람 빈도가 6개월 이하에서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향후 경기관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마케팅 노력과 아울러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1-19 경기관람 빈도의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 도 별	1년에 1~2회	6개월에 1~2회	3~4개월에 1~2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2회
1991	63.2	—	24.1	10.6	2.1
1994	54.2	—	24.4	18.3	3.0
1997	54.0	—	26.7	14.5	4.8
2000	59.1	—	15.3	23.1	2.5
2003	70.1	—	20.5	8.7	0.7
2006	70.0	—	18.6	10.0	1.4
2008	60.2	22.4	11.2	5.6	0.6
2010	60.8	21.9	11.7	5.0	0.6

다.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경기장에 가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38.7%), 관심 또는 흥미가 없어서(27.7%), TV로 보는 것이 더 좋아서(13.8%), 근처에 경기장이 없어서(12.2%),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6.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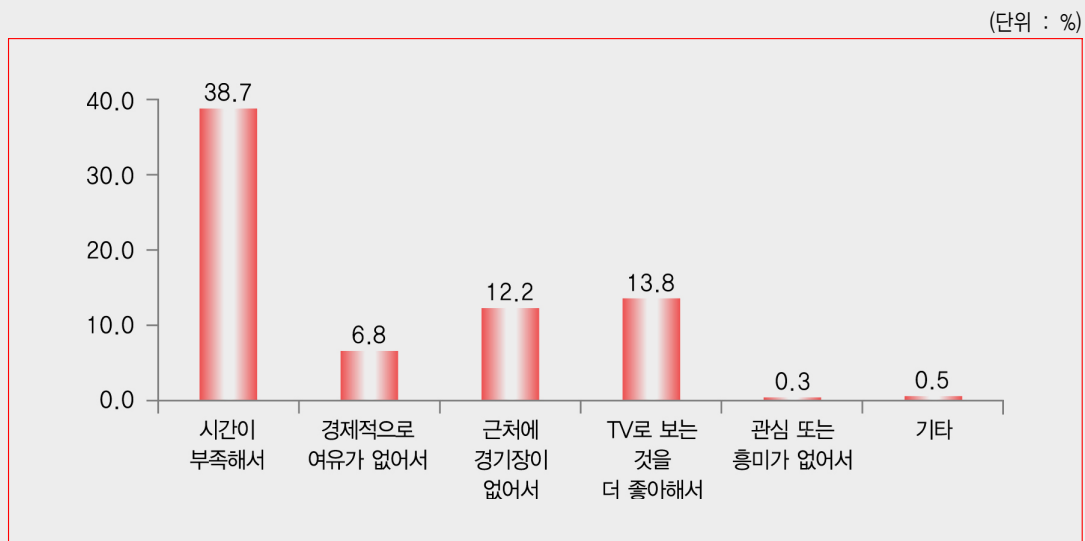


그림 1-7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경기를 직접 관람하지 못하는 이유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관심 또는 흥미가 없어서, 근처에 경기장이 없어서, TV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해서가 꾸준히 높게 나타났다.

2010년 조사결과, 시간이 부족해서는 2006년 이후 상승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는 2008년보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의 생활여건은 나아지고 있는 반면 일은 더 늘어난 것이 원인이며 오히려 운동경기 직접관람 불가이유를 운동경기에 대한 흥미 부족, 프로구단의 마케팅 노력 부족 등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0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도별	시간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근처에 경기장이 없어서	TV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해서	관심/흥미가 없어서	기타
1989	48.1	6.2	17.6	22.9	5.1	-
1991	34.1	7.4	18.4	14.6	25.6	-
1994	41.8	4.4	22.4	11.2	20.3	-
1997	35.7	7.2	18.7	12.7	25.7	-
2000	36.0	5.5	18.1	10.0	30.5	-
2003	33.0	8.4	14.7	12.9	27.4	3.5
2006	27.7	5.2	13.8	13.3	33.2	6.9
2008	37.3	9.9	12.1	12.6	24.1	0.6
2010	38.7	6.8	12.2	13.8	27.7	0.5

3)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체육활동을 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체는 스스로(44.4%), 친구(29.7%), 가족/친지(17.5%), 직장/지역사회(3.1%), 대중매체(2.3%), 체육 동호인(1.7%), 지도자(교사 제외)와 학교(교사)(1.2%), 기타(0.1%)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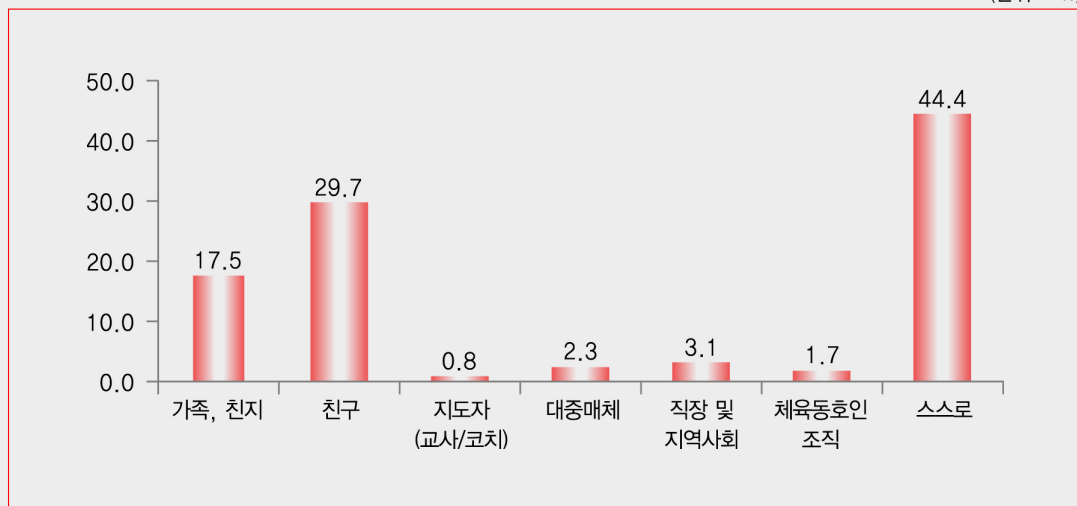


그림 1-8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한편,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스스로, 친구, 가족/친지의 영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결과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스스로 알아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다른 어떤 영향보다 개인의 체육활동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족, 친지 및 친구의 영향력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친구나 가족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1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비교(%)

(단위 : %)

연도별	가족, 친지	친구	지도자 (교사/코치)	대중매체	직장 및 지역사회	체육동호인 조직	스스로
2000년	23.3	26.7	2.7	6.0	6.8	3.9	30.5
2003년	25.0	23.3	1.6	8.6	7.6	2.6	31.5
2006년	22.5	26.2	3.0	9.2	5.7	5.0	28.3
2008년	22.6	26.0	0.7	1.9	2.7	2.2	43.1
2010년	17.5	29.7	0.8	2.3	3.1	1.7	44.4



Section

02

체육의 제도적 기반

- 제1절 체육정책의 변천
- 제2절 체육행정 조직 및 단체
- 제3절 체육진흥재원
- 제4절 체육관련 법제



Section

02

체육의 제도적 기반



제1절 체육정책의 변천

1. 1980년대 이전의 체육정책

우리나라의 체육정책과 제도는 정부수립 후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체육정책과 제도의 틀을 확립하여 체육진흥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제3공화국 이후이다.

제3공화국 이전에는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경기기술 향상, 올림픽대회 참가를 통한 국위 선양, 다른 나라와의 스포츠교류 등이 이루어져 사실상 민간주도로 체육행정의 전반이 이루어졌다. 정부 내에서는 중앙교육행정이 문화행정·체육행정을 포함하여 문교부에서 관장되어 왔기 때문에 담당부서(문화국 체육과)에서 주로 교육적 차원의 체육행정을 수행하였다. 당시 체육시설은 서울운동장 야구장(1959년 8월 준공)과 효창운동장(1960년 10월 준공) 및 장충체육관(1962년 12월 준공) 뿐이었다. 때문에 국민의 관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육의 대중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극히 미약하였다.

제3공화국은 체육을 통해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체육정책과 제도를 확립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체력 향상과 국민체육진흥을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자 국가발전의 기본으로 인식하여 엘리트체육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국민체육진흥재단의 설립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강력한 정부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한 체육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체육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제3공화국이 각종 제도와 조직을 갖추고 체육진흥시책을 추진하기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1962년)했다는 점은 한국 체육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법의 내용은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의 설정, 지방체육의 진흥, 학교 및 직장체육의 진흥,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국립종합경기장의 설치, 선수의 보호 및 육성,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조항을 담고 있어 체육행정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1970년 3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체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체육·학교체육·체육시설·체육기금·운동용구 및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체육행정기능은 교육을 담당하는 문교부에서 담당하여 체육철학, 체육기초과학, 체육지도자 육성 및 체육연구와 같은 분야의 발전은 미흡하였다.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여가를 선용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국력과시를 위한 엘리트체육에 중점을 두어 체육 분야별 균형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다만, 1961년부터 민간단체인 한국레크리에이션협회가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체육·레크리에이션 등의 사회체육활동 보급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체육정책의 특징은 문교부에 의하여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 1990년대 중반까지의 체육정책

이처럼 제3공화국이 국민통합을 위한 체육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제5공화국에서는 체육입국을 표방하여 스포츠 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제5공화국은 ‘스포츠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체육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제5공화국의 체육부문에 대한 정책의지는 체육부 출범으로 가시화 된다. 체육부의 신설로 국민체육 진흥을 본격화하고, 체육을 생활화하며, 체육을 통한 국민통합과 복지 증진 및 국위 선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관철시켜 나가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해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를 국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1982년 3월 20일에 이루어진 체육부의 발족은 한국 체육사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을 이루었다. 비록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박차를 가하고자 체육부가 신설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문교행정의 시각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오던 체육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려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제5공화국은 우리나라 역사상 체육행정이 가장 주목받던 시기이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의 개최를 위하여 막대한 행·재정적인 자원이 체육에 투입된 시기였다. 따라서 체육행정력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게임에서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엘리트체육에 집중되었다.

행정부 내에서 체육을 담당하던 국가 수준의 조직이 전격적으로 중앙부처 수준으로 승격됨으로써, 체육행정의 위상이 제고되고 체육기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우리나라가 올림픽 4위라는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서울올림픽대회를 유치한 후 체육 외교적 측면에서 국제체육교류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공산권을 포함한 미수교국과의 적극적인 체육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체육계 유력 인사와의 유대강화, 순회홍보 실시, 제3세계 저개발국의 스포츠 지원, 그리고 각종 주요 국제경기대회 및 회의에 참가하여 국제체육계에서 우리나라 지위향상과 스포츠를 통한 국제우호 증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88서울올림픽대회에는 역대올림픽 사상 최다 국가인 160개 국가에서 13,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체육외교의 성과를 이루었다.

정부는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회준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 등에 정책적 관심을 두어 왔으나, 양대회 준비에 행정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증진시키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제6공화국 정부는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모체로 하여 88서울올림픽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을 세우고 생활체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탄생(1991년 2월 6일)시켜 국민생활체육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자 했다. 특히 올림픽 이후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의식이 크게 개선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부응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진흥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이전 정부에 비하여 생활체육진흥에 대한 국가의 행정조직 및 기구의 정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호돌이 계획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추진하고자하는 모든 계획을 종합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제6공화국에서는 국민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근로청소년, 유아, 여성, 노인, 장애인 및 소외집단을 포함한 각계각층에 대하여 적합한 생활체육프로그램과 국민개개인이 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 기준치를 만들고, 건강생활체조를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였다. 1988년 12월에는 처음으로 국민여가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1989년 이후 3년마다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체육진흥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그 동안의 체육정책이 엘리트스포츠에 중점을 두었던 것을 벗어나, 발전이 미흡한 생활체육을 중점 진흥하여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균형 육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즉, 제3공화국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 이어진 체육입국의 국가시책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던 엘리트스포츠를 점차 민간차원으로 이양하고, 국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에 역점을 두게 된 것이다.

표 2-1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의 주요사업

	시 설	프 로 그 램	지 도 자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올림픽기념 생활관 건립 - 소규모 근린생활체육시설 건립 - 국공립학교(초등학교)내 테니스장 설치 - 광역권별 수영장 건립 - 레포츠공원 조성 ○ 기존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 학교체육시설 개방·이용 확대 - 올림픽시설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경기 종목의 개발·보급 - 계층별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 건강생활체조 개발·보급 ○ '90 전국 스포츠교실 운영 ○ 직장체육프로그램 개발 ○ '90 전국씨름왕선발대회 개최 ○ 국민체력평가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제도 개선

이러한 문민정부의 체육정책은 한편으로는 민간체육단체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동안 양적인 팽창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체육정책이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문민정부의 체육정책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년~1997년)의 수립으로 집약되었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국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도모, 세계 10위 이내의 경기력 유지, 국제체육 협력증진 및 민족화합 도모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생활체육 중점 진흥을 통해 국민체육활동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모든 종목의 기본인 수영·육상·체조 등 기본종목과 하계종목에 비해 취약한 동계종목의 중점 육성을 추진하였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당초 155개의 단위사업으로 출발했으나 학교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사업기간 동안 총 138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는 (표 2-2)와 같다. 제1차 5개년계획의 당초 계획에 의한 투자 규모는 총 1조 6,669억원이었으나 4조 1,293억원이 투자되어 계획대비 148%의 증가를 보였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시·군 단위지역 기본체육시설인 운동장(34개소)·체육관(32개소)과 동네 체육시설(1,456개소)등이 대폭 확충되었다. 또한 운동처방을 할 수 있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를 처음으로 양성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 19,314명을 양성하였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1994년 동계올림픽과 1996년 하계올림픽에서 10위 이내에 드는 등 세계 상위의 경기력을 계속 유지했으며, 체육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획기간 중에 481명에게 경기력향상연금 114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149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제체육 분야에서는 1993년에는 1997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1999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1996년에는 2002월드컵축구경기대회를 일본과 공동으로 유치하여 국제체육계에서의 위상을 한층 더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남북 간 체육교류에 있어서는 국제대회 남북 단일팀 참가, 체육지도자 상호교류 등 단계적인 남북 간의 체육교류를 계획하였으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표 2-2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정 책 과 제	추 진 내 용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의식 고취 ○ 체육활동공간 확충 및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 국민체육활동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 국민건강전여가 기회의 확대
엘리트체육의 지속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 ○ 국내경기대회 운영의 개선 ○ 우수한 경기지도 인력 양성 ○ 체육인 복지향상 및 체육단체의 자율성 제고
국제체육협력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체육계에서 한국의 입지 강화 ○ 국제체육교류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체육을 통한 민족화합 도모
체육과학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과학의 연구기반 강화 ○ 체육과학의 실용화
체육행정체제의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행정체제의 정비·보강 ○ 체육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체육과학분야에서는 1995년 12월 과학적인 국민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위해 국민체력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체육활동의 과학화를 도모하였다.

3. 국민의 정부(1998년~2002년)

IMF 경제위기 속에서 출발한 국민의 정부는 지방화·민간화·다원화라는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체육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체육업무의 분권화·민간주도화를 추진하였다.

즉 IMF 경제위기는 정부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작은 정부론을 불러일으켰으며, 전체적인 정부조직의 축소에 따라 체육조직의 축소도 불가피하였다.

국민의 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출범 초기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엿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건강은 생활체육에서”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둘째, 체육지도자 양성, 셋째,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복합체육시설 확충, 넷째, 경기단체 재정자립기금 지원 및 법인화, 다섯째, 체육용 기구 품질향상 지원, 여섯째, 2002년 월드컵 등 준비 등 6개 주요사업을 선정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 체육정책 방향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복합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IMF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전문체육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엘리트 체육의 안정적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체육용기구 등 스포츠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이와 함께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8년~2002년)을 수립하고 제반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21세기는 체육·여가생활의 만족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체력과 비만 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기회 부여, 여가활동 기회 확대 등 건강한 체육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국민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두 축이 상호연계 발전되도록 체육발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동 계획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2002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 재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경기장 시설 확보, 숙박·방송·보도시설 확보, 다양한 문화행사 준비,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등의 적극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표 2-3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부문별 목표	추진내용
생활체육 참여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중심의 체육활동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주민활동의 장으로써 체육시설 확충 ○ 미참여 인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 생활체육지도인력의 육성 및 활용 ○ 국민체력관리의 과학적 지원 ○ 민간 주도적 생활체육 확산
세계상위권 경기력의 유지 및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 발굴 및 육성체계의 전문성 보강 ○ 경기단체 자율성 제고 ○ 경기운영체계의 합리화 및 전산화 강화 ○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발전
국제교류 역량 강화 및 남북체육교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교류 대상국 확대 및 교류 내실화 ○ 체육외교역량의 강화로 국제체육기구내 역할 강화 ○ 남북체육교류 추진으로 민족화합 분위기 조성 ○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상징종목의 세계적 보급 확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발전의 재도약 전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준비 운영체제 구축, 경기장 등 대회시설 확보 ○ 경기운영, 개회식 등 대회운영 단계적 준비 ○ 범국민적 대회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전 정부적 지원
체육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산업의 연구 개발 ○ 취약지구 민간체육시설 우선 융자 지원 ○ 민간체육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 체육서비스소비자의 권익 및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 강구
경쟁력 있는 체육과학 발전추구 및 체육행정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체육과학연구원 기능 증대 ○ 국민체력 증진 연구 및 경기력향상 연구 역량 강화 ○ 체육부문 종합정보망 구축 및 다양한 체육정보 제공 ○ 체육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지방체육조직에 전문 인력 배치

4. 참여 정부(2003년~2007년)

참여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시된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여정부는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서 첫째, 생활체육참여율의 획기적 제고(50%)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둘째, 세계 10위 이내의 경기력 유지를 통한 국위 선양, 셋째,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발전 및 지역균형 발전, 넷째, 국제 체육교류의 실질화로 국가이미지 제고, 다섯째,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로 남북 화해 분위기 구축 등을 향후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였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계획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연령·계층·지역의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생활·전문체육을 체계화·선진화하며, 체육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체육의 과학화·정보화를 추진하며, 국제체육협력을 강화하고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체육정책 수립 및 집행, 체육단체 등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한 “분권”을 설정하였다.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국제체육, 체육과학·정보화, 체육행정·재정 등 6개 부문, 21개 과제, 146개 사업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정부의 체육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부문별 목표	추진내용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주화형 생활체육공간 확충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과학적 국민체력관리시스템 구축 레저스포츠 발전 방안 마련 생활체육지도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생활체육 인식 제고 및 추진체제 강화
과학적 훈련지원을 통한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체계 확립 전문체육시설의 다기능화·현대화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등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전문체육단체 자율성 및 재정자립 기반 강화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스포츠산업 진흥 관련 법적 기반 마련
국제체육교류 협력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선수권대회 등 종목별 주요 국제대회의 유치 스포츠외교 전문 인력 양성 국가 간 체육교류·협력 내실화 체육을 통한 민족화합 기반 조성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스포츠 반도핑 활동의 활성화
체육과학의 진흥 및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의 학문적 연구 활동 지원 체육종합정보체계 구축
체육행정시스템의 혁신과 체육진흥재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정책 추진체제의 체계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조성

5. 이명박 정부(2008년~현재)

이명박 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준비하여 제시한 “문화비전 2008~2012”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라는 정책의 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체육정책은 “문화비전 2008~2012”에서 밝히고 있듯이 ‘신나는 한국인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라는 주제로 15분 프로젝트를, 즉, 문을 열면 15분 거리에 원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슬로건으로 대표된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체육에서는 체육 친화적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 기본체육활동 기반조성,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전국대회 운영제도 개선, 선수인권 보호체계 구축,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병행 환경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 체육인력 활용 제고 및 국민체력 향상,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 전통무예 지정·육성 보급,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제고, 전문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 여건 개선, 레저스포츠시설 공간 등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함께 누리는 체육활동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 공공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 관리, 소수자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세계 속의 스포츠한국을 위해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스포츠외교인력 양성 및 국제활동 강화, 태권도의 세계화, 선진스포츠 도핑방지시스템을 확립하고, 엘리트스포츠 경쟁력 분야에서는 2012런던올림픽 대비 국가대표 선수양성, 우수선수 자원의 확대 및 육성시스템 강화, 비인기종목 활성화, 육상발전 계획 추진, 엘리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스포츠의 과학 및 정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프로스포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스포츠용품의 고부가가치화,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지원 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표 2-5 이명박 정부 문화비전 2008-2012의 체육부분 주요 정책과제

부문별 목표	추진 내용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 ○ 체육인력 활용 제고 및 국민체력 향상 ○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 ○ 전통무예 지정 및 육성 보급 강화 ○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활용 제고 ○ 레저스포츠시설-공간 확충
체육 친화적 교육환경 교육 친화적 체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기본체육활동 기반 조성 ○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 선수인권 보호체계 구축 ○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 병행 환경 조성
함께 누리는 체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 ○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 ○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 관리 ○ 소수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 전개
세계 속의 스포츠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대회경기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강국 이미지 지속 ○ 스포츠 외교인력 양성 및 국제 활동 강화 ○ 태권도의 세계화 ○ 선진 스포츠도핑 방지시스템 확립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스포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활동 강화 ○ 스포츠용품 고부가가치화 및 u-스포츠사회 구축 ○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 ○ 민간체육시설의 이용환경 개선
엘리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런던올림픽 대비 국가대표선수 체계적 양성 및 훈련 과학화 ○ 우수선수 자원의 확대 및 육성시스템 강화 ○ 비인기 종목 활성화 ○ 스포츠의과학 및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 육상진흥 토대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 이행 ○ 엘리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체육행정시스템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단체의 조직 및 기능 선진화 ○ 선진형 체육법·제도 정비 ○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제2절 체육행정 조직 및 단체

1. 중앙정부 체육조직

1) 체육조직의 변천

가. 1980년 이전의 체육조직

우리나라의 체육행정조직은 8.15광복과 더불어 시작된 미군정기에 마련되었다. 미군정당국은 1946년 3월 29일 문교부 교화국내에 체육과를 설치하고 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0일 교화국을 문화국으로 개편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는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인원은 4~5명이었다.

정부의 체육조직은 5.16 이후 크게 변화되었다. 종래 문화국에 속해 있던 체육과가 체육국으로 승격되고, 인원 및 예산도 20명, 1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1961년 10월 2일).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하고 1963년 12월 14일 제3공화국의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문예체육국 체육과로 환원되었으며, 1968년 7월 24일 문교부의 문화예술행정이 문화공보부로 이관되면서 사회교육국으로 변경되었다.

1970년 8월 31일에는 다시 체육국을 신설하고 체육과를 국민체육과와 학교체육과로 그 기능을 분리하였다. 1973년 3월 9일에는 체육국내에 학교급식과가 추가되어 3개과가 되었다. 1979년 3월 19일에는 문교부 직제 개정으로 체육국의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 종전의 학교체육과, 국민체육과, 학교급식과가 체육과, 학교보건과, 체육교류과로 변경되었다. 1981년 11월 2일에는 체육국과 사회체육국을 통합하여 체육국체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학교체육과, 국민체육과, 국제경기과, 교육협력과, 재외국민교육과로 정비되었다.

나. 1980년대의 체육조직

1981년 9월 30일 스위스 바덴바덴에서 88올림픽의 서울개최가 확정되고 그해 11월 86아시아게임 유치하게 되면서 체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1982년 3월 20일에 체육부를 신설하여 그 이전까지 문교행정의 시각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오던 체육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종합적

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체육부는 발족 당시 기획관리실, 체육진흥국(체육정책과, 사회체육과, 학교체육과, 체육시설과), 체육과학국(기획과, 지도훈련과, 조사연구과), 국제체육국(지원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담당관)을 두어, 1실 3국 10과 4담당관의 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체육부 전체의 정원은 총 187명이 되었다.

이후 체육부는 1987년까지 다섯 차례의 직제 개편을 통해 소폭의 변동이 있긴 하였으나 전체적인 기조는 유지되었다. 1988년 6월 18일에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도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심의관)을 신설하여 체육행정을 청소년행정과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청소년국의 신설로 체육부 정원은 225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 2월 12일 체육진흥국 내에서 사회체육과가 생활체육과로 개칭되고, 학교체육과가 폐지되고 사업관리과가 신설되었으며, 체육과학국이 체육지도국으로 개칭되었으나, 여전히 체육관련 조직은 체육진흥국(생활체육과, 사업관리과, 체육시설과), 체육지도국(조사기획과, 훈련과, 지도육성과), 국제체육국(지원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담당관) 체제를 유지하였다. 한편 학교체육업무 중 급식관련 업무는 1989년에 발표된 행정개혁위원회의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에 따라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사회체육과를 생활체육과로 개칭한 것은 사회단체 수준의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일반 국민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부정책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1990년 7월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진흥 세부추진계획인 ‘호돌이 계획’에서도 나타난다.

1990년 9월 10일에는 청소년국이 1실 2관 6과의 청소년정책조정실(청소년기획관, 청소년협력관, 청소년기획과,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지도과, 청소년교류과, 시설기금과, 홍보협력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1990년 12월 27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칭하였다.

다. 1990년대의 체육조직

1993년 3월 6일에 1989년에 발표된 행정개혁위원회의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에 따라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문화체육부로 통합하여 문화체육부에는 체육정책국(체육기획과, 생활체육과, 체육시설과), 체육지원국(체육과학과, 지도육성과, 훈련지원과), 국제체육국(협력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과)을 두어 3국 9과 체제를 갖추었다.

1994년 5월 4일에 해외협력과를 체육교류과로 개칭하고, 1994년 5월 16일에 학교체육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나, 전체적인 체육관련 조직은 3국 9과 체제를 유지하였다.

1994년 12월 23일에 문화체육부내에 관광업무가 이관되면서 체육지원국을 폐지하여, 체육행정조직은 체육정책국(체육기획과, 생활체육과, 지원육성과, 체육시설과), 국제체육국(협력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과)의 2국 7과, 77명으로 축소되었다.

1998년 2월 28일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개칭하고, 체육정책국과 국제체육국을 체육국으로 통합하였으며, 기존의 체육기획과와 협력총괄과를 체육정책과로 통합하였다. 또한 기존의 생활체육과는 그대로 생활체육과로 유지하고, 지원육성과와 체육시설과를 체육지원과로, 국제경기과와 체육교류과를 체육교류과로 통합하는 등 체육담당부서를 1국 4과로 축소하였다. 그 결과 총 인원은 2국 7과, 77명에서 1국 4과, 56명으로 21명이나 감소하였다.

1999년 5월 24일에는 체육정책과와 체육교류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통합하여 1국 3과, 40명으로 행정조직 및 정원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라. 2000년~2007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체육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경제부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근무시간의 단축은 국민들의 여가시간을 증대시켰고, 이러한 현상은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증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가한 국민의 여가시간을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유도하고, 국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의 다양화·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전담부서의 신설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2년 3월 9일 생활체육과가 다시 설치되었다. 이후 스포츠여가산업에 대한 수요 및 관심 증가에 따라 2004년 11월에 다시 직제개편을 실시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신설하는 한편, 체육진흥과는 폐지하고 체육진흥과 업무 중 학교운동부, 전국체전 등의 업무는 생활체육과로 태권도공원 조성, 프로단체 육성 등에 관한 업무는 스포츠여가산업과로 국가대표선수 육성, 대한체육회 지도 감독 등의 업무는 국제체육과로 이관하였다. 2005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체육을 이관 받아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고 장애인체육진흥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2006년 7월 25일 기존의 ‘과’단위를 ‘팀’단위로 재편하였다.

마. 2008년~현재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팀’단위를 다시 ‘과’단위로 개편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자로 생활체육과가 체육진흥과로, 장애인체육과가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편되었다. 생활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로 개편되면서 새로 개편된 과에서는 기존의 생활체육업무 이외에 국가대표선수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전문체육과 관련한 업무를 이관받아 동일 과에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장애인문화체육과 역시도 기존의 장애인체육업무 이외에 장애인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여 기능을 확대하였다.

이후 2009년 5월 4일 체육진흥과와 스포츠산업과를 체육진흥과로 통합하고, 장애인문화체육

과를 장애인문화체육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2010년 7월 1일 다시 장애인문화체육팀을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칭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체육국은 1국 4과 5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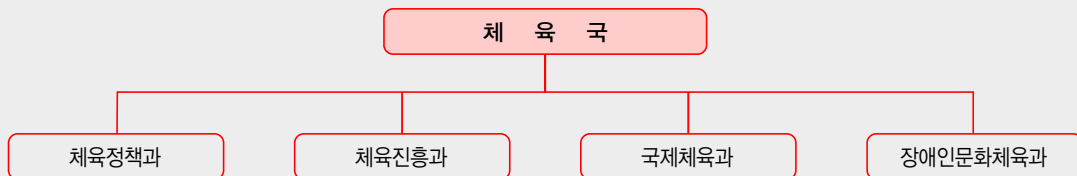


그림 2-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기구

표 2-6 체육조직기구의 변천 요약

○ 1982. 3. 20	체육부 신설(1실 3국 10과 3관 4담당관, 187명) - 기획관리실, 체육진흥국, 체육과학국, 국제체육국
○ 1990. 2. 12	골프장업무 인수
○ 1992. 1. 1	한국마사회 운영의 지도·감독업무 인수
○ 1993. 3. 6	문화체육부 발족, 3국 9과, 98명 - 체육정책과, 체육지원국, 국제체육국
○ 1994. 12. 23	3국 9과, 98명 ⇒ 2국 7과, 77명, 체육지원국 폐지
○ 1998. 2. 28	문화관광부 발족, 2국 7과, 77명 ⇒ 1국 4과, 56명, 국제체육국 폐지
○ 1999. 5. 24	1국 4과, 56명 ⇒ 1국 3과, 40명
○ 2001. 1. 29	한국마사회업무 농림부 이관
○ 2002. 3. 9	생활체육과 신설 1국 4과, 45명
○ 2004. 11. 7	스포츠여가산업과 신설, 체육진흥과 폐지
○ 2005. 12. 15	장애인체육과 신설 1국 5과 52명
○ 2006. 7. 25	‘과’명칭이 ‘팀’제로 변경 1국 5팀
○ 2008. 2. 29	문화체육관광부 신설, ‘팀’제가 ‘과’제로 변경 1국 5과 50명
○ 2008. 12. 31	생활체육과 ⇒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과 ⇒ 장애인문화체육과로 명칭 변경
○ 2009. 5. 1	직제개편 (1국 3과 1팀, 50명), 체육진흥과와 스포츠산업과 ⇒ 체육진흥과로 통합, 장애인문화체육과 ⇒ 장애인문화체육팀으로 명칭 변경
○ 2010. 7. 1	장애인문화체육팀을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편 1국 4과 52명

2) 부서별 주요업무

2011년 12월 31일 현재 체육국의 체육정책과와 체육진흥과, 국제체육과, 장애인문화체육과의 부서별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육정책과는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의 수립,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체육상등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육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후보선수·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지원,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대표선수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그 밖에 국내 다른·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수행한다.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에 관한 사항,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종목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전통민속경기의 진흥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국민생활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국민체력증진에 관련된 사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스포츠산업관련 업체 그 밖의 단체 및 기구의 육성·지원, 스포츠산업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민간체육시설의 설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스포츠용품·용구·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스포츠산업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국제체육과는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교류협정 체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 국제체육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국제체육회의에 관한 사항, 국제 스포츠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그 시행의 지원에 관한 사항, 태권도 등 전통스포츠의 세계보급에 관한 사항, 국제 스포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태권도공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장애인문화체육과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장애인 문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장애인 문화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내외 장애인 문화 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문화 예술정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지방자치단체 체육행정조직 현황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각 시도에서는 대체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국 등의 국단위 수준에서 체육진흥과, 체육청소년과, 스포츠산업과의 과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하부 단위로 체육정책,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스포츠산업 등의 하부 팀 또는 계를 유지하며 지방의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근무 인력은 평균 10명~20여명 내외이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월드컵경기가 끝난 후 월드컵경기장을 보유한 서울, 대구, 광주 등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가 신설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광주에서만 민간위탁관리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등에서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주민자치팀, 생활환경정비팀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체육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 10명~20여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그밖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을 두어 시설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 기초자치단체의 인력은 본청 인력보다 2~3배 정도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표 2-7)과 (표 2-7-1)에 나타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총 3,223명으로 이 중 행정직 1,329명, 기술직 561명, 기능직 753명, 별정직 121명, 계약직 45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7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구 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서울	소 계	165	30	21	106	4	4
	문화국 체육진흥과(5개팀)	22	17	1	1	2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43	13	20	105	2	3
	시설관리공단	-	-	-	-	-	-
부산	소 계	141	38	34	59	6	4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체육정책,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체육시설, 해양레포츠, 국제체육)	26	20	3	1	-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15	18	31	58	6	2
대구	소 계	102	29	22	48	1	2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체육정책, 생활체육, 국제대회, 체육시설)	22	14	6	-	-	2
	체육시설관리사무소	51	11	7	32	1	-
	대구스타디움관리소	29	4	9	16	-	-
인천	소 계	11	10	0	1	0	0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생활체육, 체육지원, 체육시설)	11	10	-	1	-	-
	체육시설관리공단	-	-	-	-	-	-
광주	소 계	16	12	4	0	0	0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체육진흥과(체육정책, 생활체육, 체육시설)	16	12	4	-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민간위탁)	-	-	-	-	-	-
	월드컵경기장 관리사업소(민간위탁)	-	-	-	-	-	-
대전	소 계	138	26	36	1	4	71
	문화체육국 체육청소년과(체육지원, 생활체육,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16	12	3	1	-	-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사업소	122	14	33	-	4	71
울산	소 계	107	26	20	61	0	0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지원과(체육정책, 생활체육, 대회지원)	16	11	4	1	-	-
	시설관리공단	91	15	16	60	-	-

구 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경기	소 계	15	9	6	0	0	0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체육행정담당, 체육지원담당, 체육시설담당)	15	9	6	-	-	-
강원	소 계	21	17	3	0	0	1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체육진흥, 체육시설)	11	7	3	-	-	1
	동계올림픽추진본부 국제행사과 (국제행사1, 국제행사2, 스페셜올림픽지원)	10	10	-	-	-	-
충북	소 계	14	11	2	1	0	0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레저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14	11	2	1	-	-
충남	소 계	14	10	2	1	0	1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담당, 체육지원담당, 체육시설담당)	14	10	2	1	-	1
전북	소 계	15	10	4	1	0	0
	문화관광국 스포츠생활과 (체육진흥, 생활체육동호회, 스포츠산업, 태권도공원)	15	10	4	1	-	-
전남	소 계	14	13	1	0	0	0
	스포츠산업과 (체육지원담당, 스포츠마케팅담당, 해양레저담당)	14	13	1	-	-	-
경북	소 계	14	12	1	1	0	0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14	12	1	1	-	-
경남	소 계	18	14	2	1	0	1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지원과 (체육행정, 생활체육, 레포츠, 체육시설)	18	14	2	1	-	1
제주	소 계	13	10	2	0	0	1
	문화관광스포츠국 스포츠산업과	13	10	2	-	-	1
총 계		818	277	160	281	15	85

1. 기술직 : 전기·토목·건축·기계

2. 기능직 : 사무보조요원 등

3. 별정직 : 공무원분류 상 별정직으로 채용된 체육지도사 등

4. 계약직(전문직 포함) : 일용계약 등에 따라 채용된 체육전문가

※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전국체전준비기획단 등 한시조직은 제외)

표 2-7-1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구 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서울	소 계		149	89	3	13	40	4
	종로구	교육체육과 생활체육팀	5	3	-	-	2	-
	중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6	4	-	-	2	-
	용산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5	1	-	2	2	-
	성동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4	4	-	-	-	-
	광진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5	4	-	-	1	-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5	3	-	1	1	-
	종각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4	3	-	-	1	-
	성북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3	3	-	-	-	-
	강북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외 1팀	4	2	-	-	2	-
	도봉구	체육진흥과 3개팀	12	8	-	1	3	-
	노원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5	3	-	-	2	-
	은평구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진흥팀외 1팀	9	4	-	-	3	2
	서대문구	체육진흥과 3개팀	5	3	-	1	1	-
	마포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3		-	-	3	-
	양천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5	3	-	-	2	-
	강서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7	4	-	1	2	1
	구로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5	1	-	1	3	-
	금천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4	2	-	1	1	-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외 1팀	7	4	-	1	2	-
	동작구	문화공보과	7	6	-	-	1	-
	관악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5	3	-	-	2	-
	서초구	생활운동과 운영팀외 2팀	14	9	2	2	1	-
	강남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5	5	-	-	-	-
	송파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외 1팀	12	5	1	2	2	1
	강동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3	2	-	-	1	-
부산	소 계		88	64	1	10	0	13
	중구	총무과 구민협력계	5	4	-	1	-	-
	서구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계	3	3	-	-	-	-
	동구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담당	4	4	-	-	-	-
	영도구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	5	4	-	1	-	-

구 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부산	부산진구	문화체육과 체육관광	6	4	—	1	—	1
	동래구	교육정보과 생활체육담당	3	3	—	—	—	—
	남구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8 (동원3)	5 (동원2)	—	3 (동원1)	—	—
	북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4	4	—	—	—	—
		문화빙상센터 빙상팀	8	2	—	1	—	5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과 생활체육팀	4	3	—	1	—	—
	사하구	총무과 구민협력계	5	5	—	—	—	—
	금정구	총무과 구민지원담당	5	4	—	1	—	—
	강서구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4	4	—	—	—	—
	연제구	총무과 구민체육계	6	5	—	1	—	—
	수영구	총무과 평생학습담당	10	4	—	—	—	6
	사상구	자치행정과 진흥담당	4	4	—	—	—	—
	기장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계	3	2	1	—	—	—
		도시관리공단 시설운영팀	1	—	—	—	—	1
대구	소 계		32	27	4	1	0	0
	중구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담당	4	4	—	—	—	—
	동구	평생학습과 체육담당	4	3	1	—	—	—
	서구	문화공보과 체육지원담당	3	3	—	—	—	—
	남구	문화홍보과(여가체육담당 체육시설담당)	5	3	1	1	—	—
	북구	문화교육과 생활체육담당	4	3	1	—	—	—
	수성구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5	4	1	—	—	—
	달서구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4	4	—	—	—	—
	달성군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3	3	—	—	—	—
	소 계		43	32	4	7	0	0
인천	중구	공보실 체육진흥팀	4	3	—	1	—	—
	동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4	3	—	1	—	—
	남구	홍보체육진흥실 체육진흥팀	5	2	1	2	—	—
	연수구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5	3	—	2	—	—
	남동구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5	5	—	—	—	—
	부평구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5	3	1	1	—	—
	계양구	교육문화과 체육관광팀	3	3	—	—	—	—

구 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인천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팀	5	5	—	—	—	—
	강화군	총무과 체육팀	4	2	2	—	—	—
	옹진군	관광문화과 문화체육팀	3	3	—	—	—	—
광주	소 계		46	19	11	11	0	5
	동구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팀	5	3	1	—	—	1
	서구	문화체육과	10	4	1	3	—	2
	남구	교육지원과 생활체육팀	4	3	—	—	—	1
	북구	총무과 생활체육팀	4	3	—	1	—	—
	광산군	미래도시사업소 관광생활체육과	23	6	9	7	—	1
대전	소 계		23	18	1	2	2	0
	동구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담당	5	4	—	—	1	—
	중구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4	4	—	—	—	—
	서구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5	3	1	—	1	—
	유성구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3	3	—	—	—	—
	대덕구	문화공보팀	6	4	—	2	—	—
울산	소 계		49	18	12	4	0	15
	중구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4	3	—	1	—	—
	남구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4	3	1	—	—	—
		도시관리공단	8	5	1	—	—	2
	동구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팀	4	2	1	1	—	—
	북구	문화홍보과 체육지원팀	5	2	2	1	—	—
	울주군	문화관광과 생활체육팀	5	3	2	—	—	—
		시설관리공단	19	—	5	1	—	13
경기	소 계		282	169	62	39	0	12
	수원시	체육진흥과	12	8	2	2	—	—
	성남시	체육진흥과	11	6	3	2	—	—
	의정부시	문화관광체육과	6	3	3	—	—	—
	안양시	체육청소년과	8	4	3	1	—	—
	부천시	체육진흥과	19	7	6	6	—	—
	광명시	복지문화국 체육진흥과	22	10	1	9	—	2
	평택시	체육청소년과	19	15	2	2	—	—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3	2	1	—	—	—

구 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경기	안산시	체육진흥과	17	9	4	3	-	1
	고양시	체육진흥과	19	14	3	1	-	1
	과천시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4	3	1	-	-	-
	구리시	평생학습과 체육진흥팀	5	3	1	1	-	-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 체육행정팀	4	4	-	-	-	-
	오산시	문화체육과 체육팀	3	3	-	-	-	-
	시흥시	문화체육과	6	4	2	-	-	-
	군포시	청소년교육체육과	6	5	1	-	-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팀	11	1	-	2	-	8
	의왕시	문화체육과	6	3	2	1	-	-
	하남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6	5	1	-	-	-
	용인시	교육체육과	9	7	1	1	-	-
	파주시	체육청소년과	7	4	2	1	-	-
	이천시	체육지원센터	13	7	1	5	-	-
	안성시	문화체육과 체육팀	5	3	2	-	-	-
	김포시	교육체육과	7	4	3	-	-	-
	화성시	체육관광과	9	6	3	-	-	-
	광주시	체육진흥과	11	9	2	-	-	-
	양주시	총무국 교육체육과	6	4	2	-	-	-
	여주군	교육체육과	8	4	4	-	-	-
	연천군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3	3	-	-	-	-
	포천군	자치행정과	7	5	2	-	-	-
	가평군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4	2	1	1	-	-
	양평군	총무과	6	2	3	1	-	-
강원	소 계		212	98	30	42	7	35
	춘천시	경제국 문화체육과 체육	6	3	2	1	-	-
	원주시	경제문화국 건강체육과	14	8	4	1	-	1
		문화체육사업소	27	8	4	11	3	1
	강릉시	행정지원국 체육청소년과(체육행정,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청소년)	14	10	1	1	-	2
	동해시	행정지원국 체육산업과 (체육기획, 생활체육, 체육시설)	12	10	1	1	-	-
	태백시	스포츠레저과(스포츠기획, 스포츠레저, 스포츠박람회, 스포츠시설)	16	9	3	4	-	-

구 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강원	속초시	문화체육과(체육진흥, 행사운영)	8	5	1	1	1	-
	삼척시	문화공보실(체육진흥, 체육시설)	7	5	1	1	-	-
	홍천군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10	2	2	2	-	4
	횡성군	문화체육과(체육육성, 시설관리)	8	3	2	2	1	-
	영월군	전략사업과(체육진흥, 체육시설)	24	5	1	6	-	12
	평창군	체육과(체육진흥, 체육시설)	13	5	2	3	1	2
	정선군	관광문화과 생활체육	5	4	1	-	-	-
	철원군	관광문화과(체육진흥, 시설, 도민체전TF팀)	10	5	3	2	-	-
	화천군	문화체육과(체육진흥, 체육시설관리)	11	6	-	2	-	3
	양구군	문화체육과(체육진흥, 체육시설)	5	4	-	-	1	-
	인제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	4	2	2	-	-	-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진흥	15	2	-	3	-	10
	양양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	3	2	-	1	-	-
	소 계		155	57	43	37	6	12
충북	청주시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담당, 생활체육담당)	8	6	-	1	1	-
		문화예술체육회관	14	3	7	2	1	1
	충주시	문화체육과(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	6	4	2	-	-	-
		공공시설관리소	9	2	4	3	-	-
		체육시설관리소	13	1	4	8	-	-
	제천시	평생학습체육과(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16	6	6	4	-	-
	청원군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4	3	1	-	-	-
	보은군	문화관광과(체육계, 전지훈련계)	5	5	-	-	-	-
		시설관리사업소	16	5	3	3	-	5
	옥천군	체육시설사업소(운영팀, 체육팀, 시설팀)	21	5	6	4	-	6
	영동군	문화체육과(체육마케팅담당, 체육시설담당)	7	4	1	2	-	-
	증평군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6	2	2	2	-	-
	진천군	문화체육과 체육팀	5	2	1	2	-	-
	괴산군	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시설관리담당)	13	4	2	4	3	-
	음성군	문화공보과(체육진흥팀, 문화체육시설팀)	8	3	3	1	1	-
	단양군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4	2	1	1	-	-

구 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충남	소 계		276	74	43	63	27	69
	천안시	체육청소년과	10	8	1	－	1	－
		종합체육관리사업소	50	4	7	13	24	2
	공주시	미래도시팀(체육지원담당, 레저시설담당)	7	5	1	－	－	－
		공공시설관리소	10	3	－	5	－	2
	보령시	문화공보실 체육지원계	3	3	－	－	－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계	14	－	2	3	－	9
	아산시	체육육성과(스포츠마케팅팀, 생활체육팀, 종합운동장팀, 수영장팀)	21	9	4	7	－	1
	서산시	공보전산담당관실 체육지원담당	4	3	－	1	－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32	4	5	5	－	18
	논산시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3	2	－	1	－	－
		공공시설사업소	28	2	8	2	－	16
	계룡시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담당	4	2	2	－	－	－
	당진시	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교육문화스포츠센터)	21	3	1	5	－	12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 체육진흥담당	3	2	－	1	－	－
	연기군	문화공보과(체육지원담당, 체육시설담당)	13	6	2	1	－	4
	부여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9	2	1	5	－	1
	서천군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4	2	2	－	－	－
	청양군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3	2	－	1	－	－
	홍성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3	3	－	－	－	－
		공공시설사업소 시설관리담당	5	2	2	1	－	－
	예산군	문화체육과 체육지원담당	4	2	1	1	－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담당	5	－	2	2	－	1
	태안군	평생교육과 체육지원담당	4	2	－	1	－	1
		문화체육센터	16	3	2	8	2	1
전북	소 계		155	58	28	33	12	24
	전주시	체육청소년과(생활체육팀, 체육진흥팀)	8	6	－	2	－	－
		스포츠타운조성과 (스포츠타운팀, 스포츠시설관리팀)	6	2	4	－	－	－
	군산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6	4	1	－	－	1
	익산시	건강체육과(체육진흥,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34	9	7	9	－	9

구 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전북	정읍시	교육체육과 체육진흥팀	4	4	-	-	-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운영팀, 체육시설관리팀)	7	2	4	1	-	-
	남원시	교육체육과(체육진흥, 체육시설팀)	9	5	2	2	-	-
	김제시	체육청소년과 체육, 체육시설	18	7	1	7	2	1
	완주군	문화관광과 체육시설	22	2	-	5	9	6
	진안군	문화관광과 체육지원	3	2	-	1	-	-
		공공시설사업소 시설운영	1	-	1	-	-	-
	무주군	태권도공원과 스포츠마케팅	4	2	2	-	-	-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체육담당	9	2	-	3	-	4
	임실군	행정지원과 체육진흥계	3	2	-	-	1	-
	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체육진흥, 체육시설)	11	3	2	3	-	3
	고창군	체육진흥사업소(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	7	3	4	-	-	-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지원팀	3	3	-	-	-	-
	소 계		278	85	48	75	3	67
전남	목포시	스포츠산업과	12	8	1	3	-	-
		체육시설관리과	24	4	3	9	-	8
	여수시	체육지원과	33	10	9	8	-	6
	순천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담당	4	3	-	1	-	-
		체육시설관리소	16	1	5	7	1	2
	나주시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지원담당	4	3	-	1	-	-
	광양시	교육체육지원과(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 체육시설운영담당)	23	8	6	9	-	-
	담양군	문화체육과 스포츠산업담당	6	2	-	4	-	-
	곡성군	문화과 체육팀	4	3	-	-	1	-
	구례군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3	2	1	-	-	-
		시설관리과 체육시설운영	13	3	-	2	-	8
	고흥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체육담당, 시설담당)	14	2	3	2	-	7
	보성군	시설관리과	6	1	2	-	1	2
	화순군	지역마케팅과(체육행정, 스포츠지원, 체육시설, 시설운영담당)	17	8	4	-	-	5
	장흥군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담당	4	1	-	3	-	-
		장흥실내체육관	2	-	-	2	-	-
		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	9	-	-	1	-	8

구 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전남	강진군	스포츠팀	19	4	1	11	—	3
	해남군	문화체육진흥사업소	22	3	3	2	—	14
	영암군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지원담당, 체육시설관리담당)	10	2	5	2	—	1
	무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지원담당	3	2	—	1	—	—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담당	5	2	2	1	—	—
	영광군	스포츠산업과	13	6	3	3	—	1
	장성군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2	2	—	—	—	—
	완도군	문화체육과 스포츠산업담당	5	2	—	2	—	1
	진도군	행정과 체육지원담당	2	2	—	—	—	—
	신안군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3	1	—	1	—	1
경북	소 계		287	131	42	85	2	27
	포항시	체육지원과	15	9	4	1	—	1
	경주시	체육청소년과	33	14	2	6	1	10
	김천시	스포츠산업과	27	10	5	11	—	1
	안동시	체육관광과	12	6	2	4	—	—
	구미시	체육진흥과	29	14	7	8	—	—
	영주시	인재양성과	5	4	—	1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6	2	—	4	—	—
	영천시	새마을체육과	5	4	—	1	—	—
	상주시	문화체육과	6	4	1	1	—	—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4	2	—	1	—	1
		국민체육센터	4	1	—	3	—	—
	문경시	새마을체육과	11	5	3	3	—	—
	경산시	체육진흥과	17	6	6	5	—	—
	군위군	문화관광과	4	4	—	—	—	—
		국민스포츠센터운영담당	8	1	3	4	—	—
	의성군	새마을문화과	4	4	—	—	—	—
		문화체육관리사업소	30	5	2	11	—	12
	청송군	새마을경제과	3	2	—	1	—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3	1	1	1	—	—
	영양군	문화관광과	5	3	—	2	—	—
	영덕군	총무과	7	2	1	4	—	—

구 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경북	청도군	문화관광과	3	2	-	-	-	1
		문화체육시설사업소	9	3	2	3	1	-
	고령군	문화체육과	3	3	-	-	-	-
	성주군	문화체육과	4	3	-	1	-	-
	칠곡군	새마을문화과	4	3	1	-	-	-
		체육시설사업소	8	4	1	3	-	-
	예천군	문화체육사업소	4	3	-	1	-	-
	봉화군	문화관광과	6	2	-	3	-	1
	울진군	문화관광과	5	2	1	2	-	-
	울릉군	문화관광체육과	3	3	-	-	-	-
소 계			224	103	51	31	7	32
경남	창원시	체육진흥과(체육지원, 체육시설, 생활체육, 스포츠유치)	18	10	6	2	-	-
	진주시	체육진흥과(체육기획,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22	13	8	1	-	-
	통영시	체육지원과(체육진흥, 체육시설, 해양레저)	13	9	1	3	-	-
	사천시	체육지원과(체육지원, 체육시설, 시설관리, 수영장담당)	27	8	2	8	-	9
	김해시	체육지원과(체육지원, 생활체육, 마케팅, 체육시설)	16	12	3	1	-	-
	밀양시	체육시설사업소(운영, 체육지원, 체육시설담당)	24	6	4	3	-	11
	거제시	교육체육과(체육진흥, 체육시설)	7	3	3	1	-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체육시설관리팀	13	3	7	-	-	3
	양산시	교육체육지원과 체육지원	6	3	2	1	-	-
	의령군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	3	3	-	-	-	-
	함안군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3	2	1	-	-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시설관리담당	9	3	3	2	1	-
	창녕군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	3	3	-	-	-	-
	고성군	문화관광체육과 체육담당	6	3	1	-	2	-
	남해군	체육시설사업소(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13	4	4	5	-	-
	하동군	기획감사실 체육담당	5	3	1	1	-	-
	산청군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7	2	1	-	1	3
	함양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2	2	-	-	-	-

구 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경남	거창군	시설관리사업소	13	7	2	1	3	—
	합천군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4	2	1	1	—	—
		공공시설사업소	10	2	1	1	—	6
제주	소 계		106	10	18	19	0	59
	제주시	문화산업국 스포츠지원과	51	7	8	11	—	25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스포츠지원과	55	3	10	8	—	34
	총 계		2405	1052	401	472	106	374

1. 기술직 : 전가도목건축-기계

2. 기능직 : 사무보조요원 등

3. 별정직 : 공무원분류 상 별정직으로 채용된 체육지도사 등

4. 계약직(전문직 포함) : 일용계약 등에 따라 채용된 체육전문가

※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전국체전준비기획단 등 한시조직은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에 합산하였음.

4) 지방 체육단체 운영현황

현재 우리나라 지방 체육단체인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지방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3개 체육단체 대통합 등 다양한 유형으로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도의 특성에 따라 체육단체의 통합유형이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각 시·도(16개)에서 체육회, 생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를 운영 중이며,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만이 유일하게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45개 시·군·구가 체육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미설치 26개), 162개 시·군·구가 생활체육회를 독립운영하고 있고(미설치 13개), 27개 시·군·구가 장애인 체육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미설치 195개). 체육단체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총 68개 시·군·구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62개 시·군·구,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통합운영하고 기초자치단체가 1개 시·군·구(경기 성남시), 생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1개 시·군·구(인천 서구),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4개 시·군·구(경기 평택시, 남양주시, 하남시, 김포시)이다.

표 2-8 지방 체육단체 운영 현황

		독립운영	미설치	통합운영				
				체육회 생활체육회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소계
광역	체육회	15	0	0	1	0	0	1
	생활체육회	16	0					
	장애인체육회	15	0					
기초	체육회	145	26	62	1	1	4	68
	생활체육회	162	13					
	장애인체육회	27	195					
통합운영 광역자치단체명		울산광역시						
통합운영 기초자치단체명		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 (62)	부산(영도구, 연제구, 기장군), 대전(중구), 울산(울주군), 경기(부천시, 동두천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포천군), 충북(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연기군), 강원(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전북(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경북(의성군, 울진군), 경남(사천시,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통합 (1)	경기(성남)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통합 (1)	인천(서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 (4)	경기(평택시, 남양주시, 하남시, 김포시)					

※ 경기도 부천시, 고양시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설치예정, 동자료에서는 1개의 독립된 장애인체육회로 분류하였음.
※ 대구 달성군 체육회의 경우 군에서 자체운영, 동자료에서는 1개의 독립된 체육회로 분류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에 합산하였음.

지방 자치단체의 단체 통합유형을 살펴보면 기관이 완전히 통일된 경우도 있지만 단체장과 사무처가 통합된 경우, 사무국장 겸직을 통합으로 본 경우도 있다. 이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정관상 지부는 명칭을 통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2-8-1 광역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실태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서울특별시	체육회	1처 3부 5팀	29	○		단체장 통합 사무처 통합
	생활체육회	1처 1본부 4팀	16	○		
	장애인체육회	1처 1실 4팀	13	○		
부산광역시	체육회	1처 4팀	20	○		단체장 사무처 통합
	생활체육회	1처 2부 4팀	13(2)	○		
	장애인체육회	1처3팀	28(17)	○		
대구광역시	체육회	1부 2과	16	○		단체장 통합 사무처 통합
	생활체육회	1처 2부	9(8)	○		
	장애인체육회	1처 3과	10(7)	○		
인천광역시	체육회	1본부 2부 8팀	54(115)	○		단체장 통합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1처 3팀	1처3팀	○		
	장애인체육회	1처 1과	10(7)	○		
광주광역시	시 체육회	1처 2부	54	○		단체장 통합
	생활체육회	1부	11	○		
	장애인체육회	1부	9	○		단체장 통합
대전광역시	체육회	1처 3부 4팀	8(45)	○		
	생활체육회	1처 3부	7(134)	○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6(24)	○		
울산광역시	체육회	1처 2과	12		○	사무처장, 사무차장겸직
	생활체육회	1처 1부 3과	7(3)	○		
	장애인체육회	1처 1과	6(7)		○	
경 기 도	체육회	2부 4과 1팀	25(6)	○		
	생활체육회	1처 3과	21(7)	○		
	장애인체육회	1처 3과	29(13)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강 원 도	체육회	1처 3과	15	○		
	생활체육회	1처 2과	12	○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20(11)	○		
충청북도	체육회	1처 1실 1팀	14	○		
	생활체육회	1처 3팀	7	○		
	장애인체육회	1처 2팀	8	○		
충청남도	체육회	1국(처)	16(33)	○		
	생활체육회	1국(처)	9(3)	○		
	장애인체육회	1국(처)	9(15)	○		
전라북도	체육회	1처 1부 2과	75(50)	○		
	생활체육회	1처 3과	15(4)	○		
	장애인체육회	1처 2과	21(14)	○		
전라남도	체육회	1처 2부	77(62)	○		장애인체육회단체장겸직
	생활체육회	1처 3과	17(3)	○		
	장애인체육회	1처	18(11)	○		체육회와 단체장 겸직
경상북도	체육회	1처(3팀)	15	○		사무처 통합
	생활체육회	1처(3팀)	10(3)	○		
	장애인체육회	1처(1팀)	7(9)	○		
경상남도	체육회	1처 2부 1과	13(1)	○		
	생활체육회	1처 2과	10(3)	○		
	장애인체육회	1처 1과 3팀	21(13)	○		
제 주 도	체육회	1처 4과	16	○		
	생활체육회	1처 3과	5(9)	○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15(7)	○		

표 2-8-2 기초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실태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서울 (23)	종로구	체육회	위원회	1	○	
		생활체육회	1국	1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중 구	체육회	위원회	1		
		생활체육회	1국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용산구	체육회	위원회	1		
		생활체육회	1국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성동구	체육회	위원회	1	○	
		생활체육회	1국	12(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광진구	체육회	위원회	1	○	
		생활체육회	1팀	12(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동대문	체육회	위원회	1		
		생활체육회	1국	1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중랑구	체육회	위원회	1		
		생활체육회	1국	10(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성북구	체육회	위원회	1		
		생활체육회	1국	15(1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강북구	체육회	위원회	1		
		생활체육회	1국	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도봉구	체육회	위원회	1	○	
		생활체육회	1국	13(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서울 (23)	노원구	체육회	위원회	1	○		
		생활체육회	1국	1(12)	○		
		장애인체육회	위원회		○		
	은평구	체육회	위원회	1	○		
		생활체육회	1국	12(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서대문	체육회	위원회	1	○		
		생활체육회	1국	13(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마포구	체육회	1국		○		
		생활체육회	1국 3팀	16(1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양천구	체육회	위원회	1	○		
		생활체육회	1국	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강서구	체육회	위원회	1	○		
		생활체육회	1국	15(1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구로구	체육회	위원회	1	○		
		생활체육회	1국	12(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금천구	체육회	위원회				
		생활체육회	1국	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영등포	체육회	위원회				
		생활체육회	1국	14(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동작구	체육회	위원회	1	○		
		생활체육회	1국	12(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관악구	체육회	위원회		○		
		생활체육회	1국	13(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서울 (23)	서초구	체육회	위원회	3	○		
		생활체육회	1국	15(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강남구	체육회	1처	1	○		
		생활체육회	1국1팀	10(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송파구	체육회	위원회	1			
		생활체육회	1국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강동구	체육회	위원회	1			
		생활체육회	1국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부산 (16)	중구	체육회	1국		○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6(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서구	체육회	1국		○		
		생활체육회	1국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동구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영도구	체육회	1국	5(4)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부산진구	체육회	1국		○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동래구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남구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9(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부산 (16)	북구	체육회	1국		○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해운대구	체육회	1국	54	○		
		생활체육회	1국 2과	10(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사하구	체육회	1과	1	○		
		생활체육회	1과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금정구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강서구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연제구	체육회	1국	7(6)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수영구	체육회	1국		○		
		생활체육회	1국	8(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사상구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6(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기장군	체육회	1과	8(6)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8(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대구 (8)	중 구	체육회	미설치				
		생활체육회	1국	9(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동 구	체육회	미설치				
		생활체육회	1국	12(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대구 (8)	서 구	체육회	미설치				
		생활체육회	1국	10(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남 구	체육회	미설치				
		생활체육회	1부 2과	10(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북 구	체육회	미설치				
		생활체육회	1국	13(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수성구	체육회	미설치				
		생활체육회	1국	12(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달서구	체육회	미설치				
		생활체육회	1국	1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달성군	체육회	1국	1		○	군 자체운영
		생활체육회	1국	12(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인천 (10)	중구	체육회					
		생활체육회	1국	10(9)	○		
		장애인체육회					
	동구	체육회					
		생활체육회		7(6)	○		
		장애인체육회					
	남구	체육회			○		
		생활체육회	1과	8(8)	○		
		장애인체육회					
	연수구	체육회			○		
		생활체육회	1국	10(10)	○		
		장애인체육회					
	남동구	체육회					
		생활체육회	1국	11(10)	○		
		장애인체육회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인천 (10)	부평구	체육회			○		
		생활체육회	1국	1(10)	○		
		장애인체육회					
	계양구	체육회			○		
		생활체육회		(10)	○		
		장애인체육회					
	서구	체육회	1개 분과	1	○		
		생활체육회	1국	11(10)		○	
		장애인체육회				○	
	강화군	체육회			○		
		생활체육회	1국	2	○		
		장애인체육회					
	옹진군	체육회	1과	1	○		
		생활체육회	1과	29(1)	○		
		장애인체육회					
광주 (5)	동 구	체육회	미설치				
		생활체육회	1국	11(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서 구	체육회	미설치				
		생활체육회	1국	13(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남 구	체육회	미설치				
		생활체육회	1국	13(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북 구	체육회	미설치				
		생활체육회	1국	1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광산구	체육회	미설치				
		생활체육회	1국	39(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대전 (5)	동구	체육회	설치	1	○		사무국장(1)
		생활체육회	설치	1(12)	○		사무국장(1)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대전 (5)	중구	체육회	1국 1과	1		○	사무국장(1)
		생활체육회	1국 1과	1(12)		○	사무국장(1)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서구	체육회	1국	1	○		사무국장(1)
		생활체육회	1국 3계	1(11)	○		
		장애인체육회	1국	1	○		
	유성구	체육회	1국	2	○		회 장(1) 사무국장(1)
		생활체육회	1국	2(14)	○		회 장(1) 사무국장(1)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울산 (5)	중 구	체육회	1국	3	○		사무국통합
		생활체육회	1국	16(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남 구	체육회	1국 1과	3(12)		○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1과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동 구	체육회	미설치				
		생활체육회	1국	2(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북 구	체육회	미설치				
		생활체육회	1국	12(10)	○		
		장애인체육회					
	울주군	체육회	1국	2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2(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경기 (31)	수원시	체육회	1국 2과 5팀	28	○		미통합
		생활체육회	1국 1실 1팀	16(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성남시	체육회	1국 1과 1팀	5		○	장애인체육회는 체육회 사무국 통합 및 체육회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1과 2팀	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1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경기 (31)	의정부시	체육회	1국 1과	3	○		단체장 통합
		생활체육회	1국	11(8)	○		
		장애인체육회			○		
	안양시	체육회	1국 1과	3	○		
		생활체육회	1국 1과	10(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부천시	체육회	2과	6		○	단체장,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미설치	24		○	
		장애인체육회	설치예정		○		
	광명시	체육회	1국 1과	4	○		
		생활체육회	1국 1과	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평택시	체육회	1국	3		○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1국	1(7)		○	
		장애인체육회	1국	1		○	
	동두천시	체육회	1국 2과	11		○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안산시	체육회	1국	8	○		
		생활체육회	1국	21(1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고양시	체육회	1국2과	20(10)		○	단체장,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설치예정	3(예정)	○		
	과천시	체육회	1과	5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과	7(6)		○	
		장애인체육회					
	구리시	체육회	1국	2		○	단체장,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9(7)		○	
		장애인체육회	설치	1	○		
	남양주시	체육회	1국	4		○	단체장,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1국	4(7)		○	
		장애인체육회	1국	1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경기 (31)	오산시	체육회	설치	3	○	조직통합
		생활체육회	설치	3(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시흥시	체육회	1국	3(23)	○	
		생활체육회	1국	3(12)	○	
		장애인체육회	1국	2(4)	○	
	군포시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11(9)	○	
		장애인체육회				
	의왕시	체육회	1과	2	○	사무국 통합 총9명 (사무국장병행)
		생활체육회	1과	2(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하남시	체육회	1국	11(9)	○	체육회, 생활체육회 회장별도/사무국 통합운영/장애인체육은 체육회에서 담당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	
	용인시	체육회	1국 3과	25(13)	○	단체장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1국 1과	4(2)	○	
	파주시	체육회		13(9)	○	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이천시	체육회	없음	2	○	3개 단체 분리
		생활체육회	없음	2(8)	○	
		장애인체육회	없음	2	○	
	안성시	체육회	1국	4	○	사무처(국) 통합 사무처(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김포시	체육회	2과	4	○	3개 체육회 사무국장:1인
		생활체육회	1과	12(10)	○	
		장애인체육회	1과	4(2)	○	
	화성시	체육회	1국	6	○	
		생활체육회	1국	3(11)	○	
		장애인체육회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경기 (31)	광주시	체육회	1국	2		○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1국	2(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양주군	체육회	1국	3(7)		○	체육회, 생체통합 장애인체육회 사무국별도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2	○		
	여주군	체육회	1국	12(9)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연천군	체육회	사무국	3		○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포천군	체육회	1국 1과	13(8)		○	이사회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1국 1과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가평군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1(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양평군	체육회	설치	2	○		
		생활체육회	설치	2(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강원 (18)	춘천시	체육회	1국 4팀	20(13)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 체육회	미설치				
	원주시	체육회	1국	6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 체육회	미설치				
	강릉시	체육회	1국 3과	33(27)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 체육회	미설치				
	동해시	체육회	1국 2팀	15(9)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강원 (18)	태백시	체육회	1국	9(7)	○	
		생활체육회	1국	10(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속초시	체육회	1국 1과	2	○	
		생활체육회	1국	14(12)	○	
		장애인체육회	1국	4(2)	○	
	삼척시	체육회	1국	3	○	
		생활체육회	1국	10(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홍천군	체육회	1국 2팀	16(11)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횡성군	체육회	1국	8(6)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영월군	체육회	1국	6(4)	○	
		생활체육회	1국	10(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평창군	체육회	2팀	19(13)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정선군	체육회	2팀	10(6)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철원군	체육회	1국	6	○	
		생활체육회	1국	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화천군	체육회	1국 2과	16(12)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양구군	체육회	1국	4	○	
		생활체육회	1국	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강원 (18)	인제군	체육회	1국 2팀	14(9)		○	사무국 통합 단체장 분리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고성군	체육회	1국	17(16)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양양군	체육회	1국	3(1)	○		
		생활체육회	1국	11(9)	○		
		장애인체육회	1국	3(1)	○		
충북 (12)	청주시	체육회	1국 1과	4	○		
		생활체육회	1국 1과	3	○		
		장애인체육회	1국	3	○		
	충주시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8	○		
		장애인체육회	1국	2	○		
	제천시	체육회	미설치				
		생활체육회	1국	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청원군	체육회	1국	10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보은군	체육회	1국 1팀	3	○		
		생활체육회	1국 2팀	11	○		
		장애인체육회	1국 1팀	2	○		
	옥천군	체육회	1국	3	○		
		생활체육회	1국	1	○		
		장애인체육회	1국	2	○		
	영동군	체육회	미설치				체육회:문화체육과에서 담당
		생활체육회	1국	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증평군	체육회	1국	1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엘리트 및 생활체육업무 :체육회에서담당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충북 (12)	진천군	체육회	1국 3팀	13		○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괴산군	체육회	미설치				엘리트업무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추진
		생활체육회	1국	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음성군	체육회	1국 2팀	5		○	단체장통합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단양군	체육회	미설치				
		생활체육회	1국 1과	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충남 (16)	천안시	체육회	1국 1과	14(11)	○		
		생활체육회	1국 1과	19(1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공주시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2(8)	○		
		장애인체육회	1국	1(1)	○		
	보령시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10(8)	○		
		장애인체육회	1국	3(1)	○		
	아산시	체육회	1국 1과	19(16)	○		
		생활체육회	1국 1과	13(11)	○		
		장애인체육회	1국 1과	1	○		
	서산시	체육회	1국	3(5)	○		
		생활체육회	1국	1(10)	○		
		장애인체육회	1국	3	○		
	논산시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1(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계룡시	체육회	1국	1(5)	○		
		생활체육회	1국	1(3)	○		
		장애인체육회	1국	1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충남 (16)	당진시	체육회	1국	3	○		
		생활체육회	1국	11(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금산군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9(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연기군	체육회	1국	3(6)		○	단체장, 사무처 통합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1국	1(2)	○		
	부여군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12(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서천군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1(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청양군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1과	6(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전북 (14)	홍성군	체육회	1국	3	○		
		생활체육회	1국	1(5)	○		
		장애인체육회	1국	4(2)	○		
	예산군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태안군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7(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전주시	통합체육회	3개과	21(10)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군산시	체육회	1국	12(8)		○	단체장,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전북 (14)	익산시	체육회	1과	18(12)	○	단체장,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정읍시	체육회	1국 2부	14(10)	○	단체장통합 사무국통합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1국	1	○	
	남원시	체육회	1국	9(8)	○	단체장,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김제시	통합체육회	1국	15(10)	○	체육회+생활체육회= 통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완주군	체육회	미설치	8(6)		행정관리
		생활체육회	1국	8(7)	○	자체관리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진안군	통합체육회	1국	9	○	단체장, 사무국통합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무주군	체육협의회	1개소	6(4)	○	단체장, 사무국통합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장수군	체육회	1국	6(5)	○	단체장, 사무국통합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임실군	체육회	미설치	2	○	
		생활체육회	미설치	7(5)	○	
	순창군	체육회	사무국	8(6)	○	단체장통합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고창군	통합체육회	1국	7(6)	○	군체육회+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부안군	체육회	사무국 1개소	10(5)	○	단체장, 사무국통합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전남 (22)	목포시	체육회	1국	4	○	
		생활체육회	1국	12(9)	○	
		장애인체육회	1국	2	○	
	여수시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18(16)	○	
		장애인체육회	1국	2	○	
	순천시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16(1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나주시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9(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광양시	체육회	1국	6	○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1국	1	○	
	담양군	체육회	1국	11(8)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곡성군	체육회	1국	10(8)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구례군	체육회	1국	14(12)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고흥군	체육회	1국	10(5)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보성군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화순군	체육회	1국	2	○	
		생워활체육회	1국	13(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전남 (22)	장흥군	체육회	1국	3	○	
		생활체육회	1국	9(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강진군	체육회	1국	3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7(5)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해남군	체육회	1국	4	○	사무국장, 간사 생체통합(겸직)
		생활체육회		10(8)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2012.6월 설치예정
	영암군	체육회	1국	8(7)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무안군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11(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함평군	체육회	1국	13(10)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영광군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6(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장성군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완도군	체육회	1국	3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1국	7(5)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진도군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4(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전남 (22)	신안군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12(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경북 (23)	포항시	체육회	1국 1팀	5	○		
		생활체육회		(16)	○		
		장애인체육회		2	○		
	경주시	체육회		4(1)	○		
		생활체육회		1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김천시	체육회	1국	3	○		
		생활체육회	1국	10(8)	○		
		장애인체육회	1국	1	○		
	안동시	체육회	1국	4	○		
		생활체육회	1국	13(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구미시	체육회		4	○		
		생활체육회		14(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영주시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영천시	체육회	1국	2	○		단체장통합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상주시	체육회	1국 1과	3	○		단체장 및 사무국통합
		생활체육회	1국 1과	14(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문경시	체육회	1국	3(3)	○		
		생활체육회	1국	15(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경산시	체육회	1과	6			
		생활체육회	1과	10(8)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경북 (23)	군위군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의성군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10(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청송군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영양군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6(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영덕군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8(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청도군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고령군	체육회	1국		○	
		생활체육회	1국	5(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성주군	체육회	1국	3	○	
		생활체육회	1국	2(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칠곡군	체육회	미설치	1(1)	○	
		생활체육회	미설치	5(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예천군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1(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봉화군	체육회	미설치			
		생활체육회	1국	9(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경북 (23)	울진군	체육회	1국	13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1국	14(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울릉군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1(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경남 (18)	창원시	체육회	1처3부	9	○		
		생활체육회	1국3팀	38(3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진주시	체육회	1국	3	○		
		생활체육회	1국	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통영시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11(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사천시	체육회	1국 2과	13(8)		○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김해시	체육회	1국 1과	5	○		
		생활체육회	1국 1과	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밀양시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10(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거제시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12(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양산시	체육회	1국	3	○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의령군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경남 (18)	함안군	체육회	1국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창녕군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16(1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고성군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남해군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하동군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11(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산청군	체육회	1국	3	○	
		생활체육회	1국	8(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함양군	체육회	1국	5(3)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1국	8(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거창군	체육회	1국	2	○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합천군	체육회	1국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2. 체육단체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가. 설립배경 및 목적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국민에게는 ‘대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민족적으로는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였고,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서울올림픽대회를 영원히 기념하고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과 성과를 보존, 발전시키고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4월 20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연 혁

국민체육진흥재단을 모체로 하여 1989년 4월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 경기시설이나 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0년 7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을 설립하였다. 그 후 공단은 국제청소년교류, 청소년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국제선수단 숙소 제공을 위하여 1990년 9월 올림픽유스호스텔을 개관하였고, 1993년 12월에는 (주)한국스포츠TV를 설립하였다.

또한 1994년 10월에는 안정적인 체육진흥재원 조성을 위해 잠실경륜장을 개장하였으며, 1999년 1월에는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합하여 부설기관으로 설치하였다. 2000년 2월에는 경영효율화의 한 방편으로 (주)한국스포츠TV를 매각하였으며, 2001년 9월에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개시하였다. 2002년 8월에는 경정장을 개장하였고, 2003년 3월에는 올림픽홀을, 2004년 9월에는 소마미술관을 개관하였다. 2006년 2월에는 경륜장을 광명돔경기장으로 이전하였고, 2008년 11월에는 조직효율화의 일환으로 경륜·경정사업을 경륜·경정사업본부로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조직 및 인력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본부 이외에 스포츠산업본부와 경륜·경정사업본부, 체육과학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출자회사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체 조직은 이사장을 비롯하여 3임원 3본부(원)장 3단 38실 70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단본부는 3임원 8실 19팀으로 되어 있다. 스포츠산업본부는 1본부장 1단 3실 14팀으로 되어 있고 경륜·경정사업본부는 1본부장 2단 23실 32팀으로 되어 있으며 연구원은 1원장 4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현황은 본부 165명, 스포츠산업본부 117명, 경륜·경정사업 402명, 연구원 6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은 서울올림픽 기념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올림픽공원·경정공원·경주시설·스포츠센터 등 공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스포츠·문화사업 전문회사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1대표이사 4실 2센터 11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9 국민체육진흥공단 인력 현황

(2011. 12. 31.현재)

구 분	정 원 (현 원)						
	계	임 원	본부장/원장	관리직	일반직	연구직	운영직
계	752(741)	3(3)	3(3)	3(3)	438(429)	41(39)	264(264)
본 부	165(190)	3(3)	-	-	127(137)	-	35(50)
스포츠산업	117(129)	-	1(1)	1(1)	87(87)	-	28(40)
경륜·경정사업	402(350)	-	1(1)	2(2)	205(183)	-	194(164)
연구원	68(72)	-	1(1)	-	19(22)	41(39)	7(10)
(주)체육산업개발	165(176)	1(1)	-	-	121(128)	-	43(47)

라. 자산현황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이익잉여금 3,110억원 등 발족기금 3,521억원으로 시작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조성액은 2011년 12월말 현재 1조 7,383억원이다. 주요 고정자산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0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정자산

(2011. 12. 31.기준)

구 분		내 역
올 림 픽 공 원		770,908.90㎡(서울시 소유 몽촌토성 675,030.00㎡ 별도)
올 림 픽 회 관		연면적 24,303.35㎡, 지하 2층, 지상 15층
경 기 장 (6개)		올림픽체조경기장, 핸드볼경기장, 올림픽역도경기장, 올림픽수영장, 테니스장, 벨로드롬
올림픽유스호스텔		연면적 25,055.69㎡, 지하 1층, 지상 18층
올 림 픽 홀		연면적 16,883.71㎡, 지하 1층, 지상 2층
올림픽미술관		연면적 10,191.17㎡, 지하 2층, 지상 2층
올림픽 문화센터		연면적 9,639.50㎡, 지상 3층
광명동경륜장		연면적 75,491㎡, 지하 1층, 지상 5층
경 료 훈 련 원		연면적 18,361㎡
경 정 훈 련 원		연면적 13,774㎡
올림픽 스포츠센터	분 당	대지 3,880.00㎡, 연면적 17,141.23㎡ (지하3층, 지상 5층)
	일 산	대지 3,716.50㎡, 연면적 35,849.45㎡ (지하6층, 지상10층)
구 축 물		조각작품 및 기념조형물 219점

마. 예 산

보조금사업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과 별도로 운영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11년도 법인회계 규모는 1,250,461백만원으로 주요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1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인회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사 업	금 액	사 업	금 액
	합 계	1,250,461	합 계	1,250,461
본 부	계	112,468	계	112,468
	일 반 관 리	13,304	일 반 관 리	30,191
	올 림 픽 공 원	27,636	올 림 픽 공 원	29,273
	스 포 츠 센 터	12,978	스 포 츠 센 터	10,888
	스 포 츠 산 업	2,022	건 설 관 리	15,625
	올 림 픽 유 스 호 스 텔	18,909	스 포 츠 산 업	3,487
	경 료·경 정·투표권 전입금	37,619	투 표 권 운 영	2,110
			올 림 픽 유 스 호 스 텔	17,754
			기 타	3,140
경 료	계	289,615	계	289,615
	경 료 수 득 금	238,573	본 장 운 영	108,809
	교 차 투 표 수 수 료	15,226	경 료 훈 련 원	4,206
	운 영 자 금 이 자 수 입	6,020	지 점 운 영	54,511
	식 당 매 점 위 탁 수 입	147	스 포 츠 단	3,410
	지 점 매 점 수 입	10,472	경 료 예 비 비	2,541
	경 정 지 점 공 동 활 용 등	15,565	시 설 환 경 개 선 준 비 금	19,881
	입 장 료	1,632	타 기 관 배 분 금	45,597
	기 타 수 입	1,980	공 단 전 출 금	50,491
			사 감 위 분 담 금	169
경 정	계	93,057	계	93,057
	경 정 수 득 금	88,452	본 장 운 영	42,889
	운 영 자 금 이 자 수 입	1,470	경 정 훈 련 원	5,696
	본 장 식 당 수 입	67	지 점 운 영	18,935
	본 장 매 점 수 입	140	스 포 츠 단	991
	조 정 호 수 입	1,762	경 정 예 비 비	1,259
	입 장 료	771	시 설 환 경 개 선 준 비 금	7,371
	기 타 수 입	395	타 기 관 배 분 금	8,705
			공 단 전 출 금	7,172
			사 감 위 분 담 금	39
투 표 권	계	748,674	계	748,674
	투 표 권 수 입	711,260	투 표 권 위 탁 비	261,768
	지 급 보 증 금 회 수	21,255	타 기 관 배 분 금	98,888
	기 타 사 업 외 수 입	16,159	공 단 전 출 금	388,018
국 고	계	6,647	계	6,647

보조금사업이 포함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2011년도 운용 규모는 842,524백만원으로 경륜·경정·투표권 전입금 478,232백만원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주요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2 201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금 액	지 출	금 액
계	842,524	계	842,524
○ 이자수입	42,925	○ 기금관리비	10,155
○ 회원제골프장수입	20,600	○ 사업운영비	11,596
○ 투자사업수입	19,917	- 부가금운영	501
○ 연구원 운영수입	1,762	- 투자사업운영	2,627
○ 법인회계전입금	478,232	- 연구원운영	4,210
- 경 륜	31,289	- 생활체육인프라운영	4,258
- 경 정	10,007	○ 보조금(기금지원)	655,208
- 투표권	436,936	○ 용자지출	7,491
○ 복권기금전입금	37,456	○ 투자지출	21,937
○ 융자회수	11,020	○ 공자금예탁	80,000
○ 여유자금회수	230,612	○ 여유자금운용	56,137

2) 대한체육회

가. 설립배경 및 목적

대한체육회는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7월 13일에 조선체육회라는 명칭으로 창립되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살리자는 취지로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창설된 대한체육회는 1938년 7월 4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으나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부활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단체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9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매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여 우수 선수발굴과 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꿈나무·청소년대표·국가대표후보선수·국가대표선수로 이어지는 우수선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체육회는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 체육인의 복지 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연 혁

1920년 7월 13일 기미년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창립된 조선체육회는 1938년 7월 4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으나, 1945년 11월 26일 광복과 더불어 조선체육회로 다시 부활하였다.

한편 런던올림픽 참가를 위하여 1946년 7월 15일 조선체육회내에 올림픽대책위원회 설치하였으며 이는 조선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KOC) 출범의 계기가 됐다.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National Olympic Committee)로서 1947년 6월 20일 제41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단체가 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조선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 조선체육회 내부 조직이었던 조선올림픽위원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로 명칭이 개칭되었다(1948년 9월 3일).

또한 1954년 3월 16일에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로 인가를 받았으며, 1969년 9월 8일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완전 분리된 독립기구인 사단법인체로 출범했다가 이후 심각한 체육계 내부 갈등을 겪은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8년 3월 1일에는 대한체육회에 대한올림픽위원회 및 대한학교체육회가 흡수 통합되었다.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내 정관상의 특별위원회로의 지위를 갖게 됐다. 1982년 12월 31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대한체육회를 특수법인으로 지정하였다.

2009년 6월 29일 대한체육회 정관을 개정, 종전 정관상 특별위원회인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에 통합시켜 대한체육회(Korean Olympic Committee, 영문약칭 'KOC')가 IOC에 가입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사업에 관하여 IOC와 대외적 교섭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올림픽 정신을 함양, 보급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적, 신체적 자질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제친선과 세계평화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참여 등의 목적을 추가하였다.

주요 국제스포츠행사 개최실적은 1986년에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1988년에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1996년 4월에는 제6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 개최를 비롯하여, 1997년 1월 제18회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1997년 5월 제2

회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 1999년 1월 제4회 강원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99년 6월 17일 제109차 IOC총회, 2002년 9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03년 8월 제22회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아울러, 2006년 3월에는 제15차 국가올림픽총연합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07년 4월 2014년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였고, 2009년에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였다. 특히 2011년 7월 6일에는 2018년 동계올림픽대회를 평창에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축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까지 주요 국제대회를 모두 유치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역대 대한체육회(KOC) 회장과 IOC위원 현황은 (표 2-13), (표 2-14)와 같다.

표 2-13 역대 대한체육회(KOC) 회장

대한체육회장		KOC위원장		기 간 (KOC위원장)	대한체육회장		KOC위원장		기 간 (KOC위원장)
제 1대	장두현			1920. 7.13 ~ 1921. 7.22	제21대	이 효	제 9대	이 효	1963. 4.29 ~ 1964. 1.19 (1962.12.19 ~ 1964. 1.19)
제 2대	고원훈			1921. 7.23 ~ 1923. 7.22			제10대	이상백	(1964. 1.10 ~ 1966. 4.14)
제 3대	최 린			1923.11.28 ~ 1924. 6.30			제11대	장기영	(1966. 6.15 ~ 1968. 2.28)
제 4대	박창하			1924. 7. 1 ~ 1924.11.12	제22대	민관식	제12대	민관식	1964. 1.27 ~ 1971. 7. 5 (1968. 3. 1 ~ 1970. 1.19)
제 5대	이동식			1924.11.13 ~ 1925. 3.29	제23대	김용우	제13대	김용우	1971. 7. 5 ~ 1971.11.20 (1971. 7. 5 ~ 1971.11.20)
제 6대	김규면			1925. 3.30 ~ 1925. 9. 1	제24대	김택수	제14대	김택수	1971.11.20 ~ 1979. 2.14 (1974. 2.13 ~ 1976. 2. 8)
제 7대	신흥우			1925. 9.11 ~ 1927. 7.14	제25대	박종규	제15대	박종규	1979. 2.15 ~ 1980. 7.13 (1979. 2.15 ~ 1980. 7.13)
제 8대	유억겸			1927. 7.18 ~ 1928. 8.17	제26대	조상호	제16대	조상호	1980. 7.14 ~ 1982. 7.11 (1980. 7.14 ~ 1982. 7.11)
제 9대	윤치호			1928. 8.18 ~ 1937. 7. 2	제27대	정주영	제17대	정주영	1982. 7.12 ~ 1984.10. 1 (1982. 7.12 ~ 1984.10. 1)
제10대	유억겸			1937. 7. 3 ~ 1938. 7. 3	제28대	노태우	제18대	노태우	1984.10. 2 ~ 1985. 4.25 (1984.10. 2 ~ 1985. 4.25)
제11대	여운형	제 1대	여운형	1945.11.26 ~ 1947. 9. 1 (1947. 6.15 ~ 1947. 7.19)	제29대	김종하	제19대	김종하	1985. 4.26 ~ 1989. 2.17 (1985. 4.26 ~ 1989. 2.17)
제12대	유억겸			1947. 9.18 ~ 1947. 11.8	제30대	김종렬	제20대	김종렬	1989. 2.18 ~ 1993. 2.23 (1989. 2.18 ~ 1993. 2.23)
제13대	정환범	제 2대	정환범	1948. 2. 6 ~ 1948. 9. 3 (1947. 9.18 ~ 1948. 9. 3)	제31대	김운용	제21대	김운용	1993. 2.24 ~ 1997. 2.25 (1993. 2.24 ~ 1997. 2.25)

대한체육회장		KOC위원장		기 간 (KOC위원장)	대한체육회장		KOC위원장		기 간 (KOC위원장)
제14대	신익희	제 3대	신익희	1948. 9. 4 ~ 1949.10.29 (1948. 9. 4 ~ 1949.10.29)	제32대	김운용	제22대	김운용	1997. 2.26 ~ 2001. 2.26 (1997. 2.26 ~ 2001. 2.26)
제15대	신흥우	제 4대	신흥우	1949.10.29 ~ 1951. 6.16 (1949.10.29 ~ 1951. 6.16)	제33대	김운용	제23대	김운용	2001. 2.27 ~ 2002. 3.12 (2001. 2.27 ~ 2002. 3.12)
제16대	조병옥	제 5대	조병옥	1951. 6.17 ~ 1952. 9.27 (1951. 6.17 ~ 1952. 9.26)	제34대	이연택	제24대	이연택	2002. 5.29 ~ 2005. 2.23 (2002. 5.29 ~ 2005. 2.23)
제17대	이기봉	제 6대	이기봉	1952. 9.27 ~ 1960. 4.28 (1952. 9.27 ~ 1960. 4.28)	제35대	김정길	제25대	김정길	2005. 2. 24 ~ 2008. 4.28 (2005. 2. 24 ~ 2008. 4.28)
제18대	이철승			1961. 1.28 ~ 1961. 5.15	제36대	이연택	제26대	이연택	2008. 5.26 ~ 2009. 2.19 (2008. 5.26 ~ 2009. 2.19)
제19대	김동하	제 7대	김동하	1961. 7.29 ~ 1962. 1. 9 (1961. 7.29 ~ 1962. 1. 8)	*제37대	박용성	제27대	박용성	2009. 2.19 ~ 현재 (2009. 2.19 ~ 2009. 6.28)
제20대	이주일	제 8대	이주일	1962. 1. 9 ~ 1962.12.27 (1962. 3.16 ~ 1962.12.18)					

※ 2009. 6. 29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완전 통합됨.

표 2-14 우리나라 역대 IOC위원

성 명	기 간	성 명	기 간
이기봉	1955 ~ 1960	김운용	1986 ~ 2005
이상백	1964 ~ 1966	이건희	1996 ~ 현재
장기영	1967 ~ 1977	박용성	2002 ~ 2007
김택수	1977 ~ 1983	문대성	2008 ~ 현재
박종규	1984 ~ 1985		

다. 조직 및 인력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는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가맹단체는 정가맹단체, 준가맹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5조 제3항에서는 대한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두고, 정관 제6조에 따라 해외에도 재외한인체육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70개의 가맹경기단체와 16개의 시도지부, 17개의 재외한인체육단체를 두고 있다. 시도체육회에는 해당 사도의 행정구역별로 조직된 217개 시·군·구 체육회와 읍·면·동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다. 시도별 체육회 및 재외한인체육단체는 (표 2-15)와 (표 2-16)과 같다.

표 2-15 시도 체육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설 립 일	예 산			
		2008	2009	2010	2011
서울특별시체육회	1953. 2.20	18,454	20,098	16,689	16,848
부산광역시체육회	1963. 3.17	12,861	14,381	16,126	14,912
대구광역시체육회	1981. 7.20	9,166	9,656	10,549	12,640
인천광역시체육회	1981. 7. 1	21,318	25,056	28,782	36,290
광주광역시체육회	1986.11. 1	8,051	11,928	6,959	6,901
대전광역시체육회	1989. 1. 1	13,266	25,635	18,039	12,423
울산광역시체육회	1997. 7.15	10,119	11,084	11,255	11,033
경기도체육회	1946. 2	21,810	24,915	23,275	20,228
강원도체육회	1946. 5. 1	12,706	10,714	12,862	7,396
충청북도체육회	1946. 3	8,368	8,332	8,599	8,903
충청남도체육회	1927. 3	17,483	17,296	16,574	14,968
전라북도체육회	1947. 3.13	17,532	23,704	12,738	13,199
전라남도체육회	1945. 9	16,053	7,407	9,169	8,803
경상북도체육회	1949. 1	8,203	9,614	11,311	11,468
경상남도체육회	1945.12.22	12,523	14,915	18,713	15,837
제주도체육회	1951. 6.15	5,844	5,940	6,364	5,917

※ 자료 : 대한체육회

표 2-16 대한체육회 재외한인체육단체 현황

구 분	승인일	구 분	승인일	구 분	승인일
일 본	62. 05. 25	호 주	87. 09. 28	필리핀	01. 11. 15
독 일	76. 06. 03	아르헨티나	87. 09. 28	중 국	05. 04. 07
캐나다	77. 09. 19	파라과이	89. 03. 27	영 국	06. 09. 27
스페인	82. 09. 06	괌	89. 03. 27	말레이시아	08. 04. 25
홍 콩	84. 8. 31	싸이판	98. 02. 05	인도네시아	11. 04. 28
브라질	85. 09. 25	뉴질랜드	94. 07.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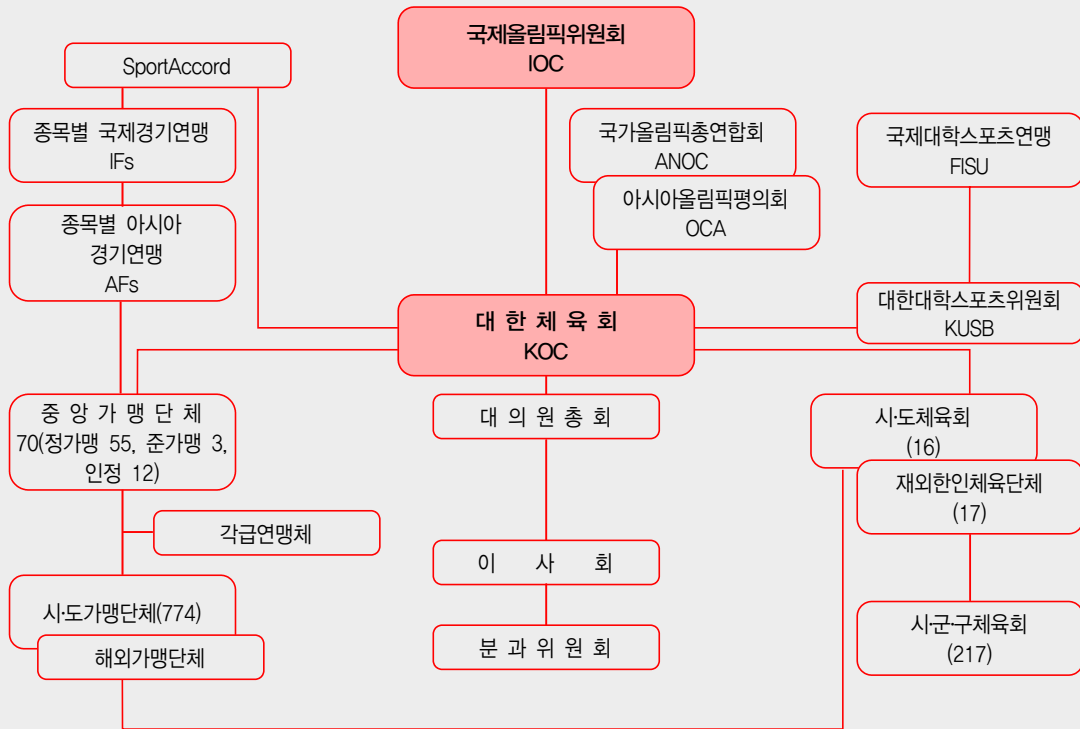


그림 2-2 국내·외 체육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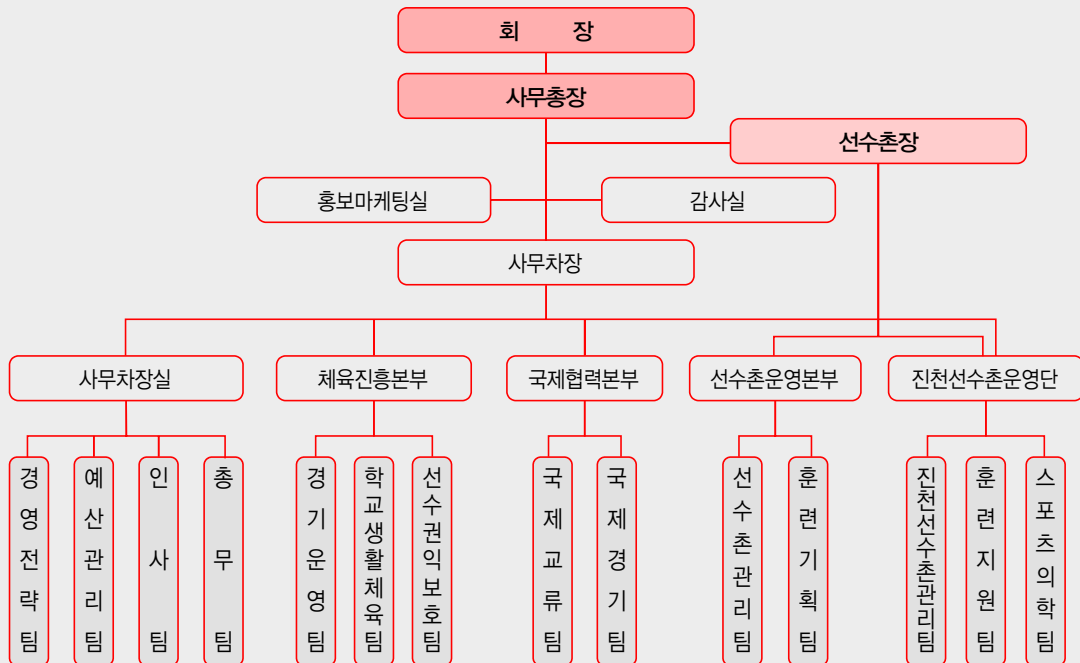


그림 2-3 대한체육회 기구표('11. 12. 31 기준)

대한체육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 각종위원회 및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각종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조사·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국제위원회, 전국체육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문화·환경·교육위원회, 의무위원회, 법제상별위원회, 홍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대학스포츠의 발전, 스포츠를 통한 국제학생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가맹단체이다.

대한체육회는 회장 아래 사무총장, 선수총장이 있고 사무총장의 역할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차장이 있다. 또한 직제와 별도로 국제체육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제위원장을 두어 회장을 보좌하고 있다. 조직원은 임원의 경우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7명, 감사 2명이며, 1사무총장 1선수총장 1사무차장 3본부 2실 1단 14팀, 17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가맹경기단체 현황

대한체육회에 속한 경기단체는 정가맹 경기단체와 준가맹 경기단체로 구분된다. 정가맹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1조에서 정한 경기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약속하여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 받은 경기단체를 말한다. 준가맹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에 가맹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가맹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로서 정관 제5조에 따라 제11조의 권리사항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경기단체를 말한다.

대한체육회는 정가맹 경기단체와 준가맹 경기단체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대한체육회와의 권리·의무관계가 없는 인정단체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단체의 경우에도 명시된 승인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대한체육회에는 55개 정가맹경기단체, 3개 준가맹경기단체, 12개 인정단체 등 총 70개 가맹경기단체가 있으며 해당 종목의 보급 및 선수의 양성, 국내대회의 개최,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및 파견 등 국제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에 속한 경기단체 현황은 (표 2-17)과 같다.

표 2-17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

연 번	단 체 명	영 문	설립일	예 산(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1	대한육상경기연맹(사)	Korea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	1945. 9.23	7,310	9,012	9,890	8,804
2	대한축구협회(사)	Korea Football Association	1928. 5.20	81,088	87,199	80,602	69,001
3	대한테니스협회(사)	Korea Tennis Association	1945.10. 1	5,111	5,962	5,651	6,029
4	대한정구협회(사)	Korea Soft Tennis Association	1945.10. 1	946	866	953	888
5	대한탁구협회(사)	Korea Table Tennis Association	1945. 9.28	2,517	2,961	3,788	3,658
6	대한핸드볼협회(사)	Korea Handball Federation	1945. 7.27	4,006	5,964	11,092	9,936
7	대한역도연맹(사)	Korea Weightlifting Federation	1945. 2.20	2,002	2,326	1,857	2,005
8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	Korean Amateur Boxing Federation	1945.11.10	1,546	1,693	1,466	
9	대한빙상경기연맹(사)	Korea Skating Union	1945.11.24	4,819	4,381	5,358	5,173
10	대한유도회(사)	Korea Judo Association	1945.10.28	3,637	3,607	4,284	3,568
11	대한체조협회(사)	Korea Gymnastic Association	1945. 9. 1	5,571	2,924	2,873	2,954
12	대한사이클연맹(사)	Korea Cycling Federation	1945.11.30	2,442	3,532	5,305	4,013
13	대한농구협회(사)	Korea Basketball Association	1945.12.19	2,959	3,583	3,797	3,673
14	대한배구협회(사)	Korea Volleyball Association	1945. 3. 6	4,804	4,878	3,932	3,817
15	대한씨름협회	Korea Ssireum Association	1927.11.27	963	1,812	3,165	3,549
16	대한럭비협회(사)	Korea Rugby Union	1946. 3.10	1,367	1,228	1,415	1,270
17	대한레슬링협회(사)	Korea Wrestling Federation	1946. 3.14	3,327	3,323	3,571	3,469
18	대한수영연맹(사)	Korea Swimming Federation	1946. 3.15	3,049	2,932	3,634	3,527
19	대한야구협회(사)	Korea Baseball Association	1946. 3.18	2,271	2,942	2,956	4,516
20	대한스키협회(사)	Korea Ski Association	1946. 4.28	3,398	3,292	4,699	5,541
21	대한승마협회(사)	Korea Equestrian Federation	1946. 5.20	2,112	2,467	4,090	2,910
22	대한아이스하키협회(사)	Korea IceHockey Association	1947. 1.11	1,794	1,374	1,331	1,607
23	대한하키협회	Korea Hockey Association	1947. 6. 7	2,802	1,908	2,817	2,675
24	대한검도회(사)	Korea Kumdo Association	1953.11.20	1,800	2,006	1,814	2,040
25	대한궁도협회	Korea National Archery Association	1922. 7.11	626	623	670	582
26	대한사격연맹(사)	Korea Shooting Federation	1955. 2. 8	3,101	4,319	4,741	6,481
27	대한펜싱협회(사)	Korea Fencing Association	1947.11.26	2,765	2,277	3,063	3,571
28	대한태권도협회(사)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961. 9.16	5,628	5,538	5,977	7,582
29	대한배드민턴협회(사)	Badminton Korea Association	1957.11.15	8,617	10,104	7,846	10,706
30	대한조정협회(사)	Korean Rowing Association	1962.10.31	1,788	1,837	2,535	4,233

연 번	단 체 명	영 문	설립일	예 산(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31	대한롤러경기연맹(사)	Korea Roller Sports Federation	1979. 3.10	894	862	1,233	2,371
32	대한요트협회(사)	Korea Sailing Federation	1979. 3.17	2,425	2,778	2,752	2,787
33	대한볼링협회(사)	Korea Bowling Congress	1969. 8.10	1,394	1,540	1,751	1,597
34	대한양궁협회	Korea Archery Association	1983. 3. 4	3,702	3,680	3,625	3,631
35	대한카누연맹(사)	Korean Canoe Federation	1983. 3.26	1,381	1,401	1,898	1,681
36	대한골프협회(사)	Korea Golf Association	1965. 9.23	3,357	8,657	3,806	3,485
37	대한근대5종연맹(사)	Korea Modern Pentathlon Federation	1982. 9.15	2,318	2,329	2,501	3,099
38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사)	Korea Waterski and Wakeboard Association	1979. 2.10	594	683	959	507
39	대한산악연맹(사)	Korean Alpine Federation	1962. 4.21	2,390	2,853	3,121	3,802
40	대한보디빌딩협회(사)	Korea Bodybuilding Federation	1987. 6.16	612	645	612	676
41	대한세팍타크로협회(사)	Korea Sepaktakraw Association	1988. 8.29	653	985	981	831
42	대한수중협회(사)	Korea Underwater Association	1968. 3.6	1,479	1,659	1,575	1,485
43	대한우슈쿵푸협회(사)	Korea Wushu Association	1989. 1.20	666	837	1,137	798
44	대한소프트볼협회(사)	Korea Softball Federation	1989. 1.25	799	771	699	535
45	대한B.S경기연맹	Korea Bobsleigh Skeleton Federation	1989. 5. 5	554	845	889	1,187
46	대한컬링경기연맹	Korean Curling Federation	1994. 1.25	551	609	615	731
47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사)	Korea Triathlon Federation	1987. 8. 2	2,323	1,995	2,587	1,819
48	대한바이애슬론연맹(사)	Korea Biathlon Union	1982. 9.15	974	1,125	1,182	1,585
49	대한스쿼시연맹	Korea Squash Federation	1989. 5. 4	677	657	654	640
50	대한당구연맹	Korea Billiard Federation	1996. 5. 2	1,528	1,707	1,822	1,239
51	대한택견연맹(사)	Korea Taekkyon Association	1991. 1.14	433	519	495	462
52	대한공수도연맹	Korea Karatedo Federation	1980. 8.22	756	778	765	886
53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Korea Federation of Dancesport	2001. 10.1	740	857	1,332	648
54	대한루지경기연맹	Korea Luge Federation	1989. 5. 5	181	271	318	434
55	대한바둑협회(사)	Korea Amateur Baduk Association	2002. 1.25	1,869	2,809	2,602	2,262

※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은 대의원총회를 못하여 예·결산 승인이 되지 않아 자료가 누락됨

마. 재정현황

대한체육회의 2011년도 예산은 자체수입 160억원, 국고 361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289억원, 공익사업적립금 76억원 등 총 1,886억원 규모이다.

2011년 기금과 자체예산이 증가된 것은 기금 예산 중 진천선수촌 준공에 따른 공사비 784억원이 증액되었고, 월드컵잉여금 40억원이 진천선수촌 운영비로 자체예산으로 이전된 것에 기인한다.

표 2-18 대한체육회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계(A)	재 원 별				자체예산비중 (B/A)×100(%)
		국 고	기 금	공익사업적립금	자 체(B)	
2007년	105,221	44,910	53,249	-	7,062	6.7
2008년	136,299	64,977	58,756	-	12,566	9.2
2009년	134,931	67,835	56,023	2,575	8,498	6.3
2010년	141,078	35,604	82,801	9,256	13,417	9.5
2011년	188,661	36,105	128,912	7,613	16,031	8.5

※ 자료 :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의 2011년 총 예산은 2,178억원 규모이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한체육회 등의 보조금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찬조금 등 자체수입 규모는 59억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가맹경기단체의 2011년도 총 예산은 2,270억원으로 국고와 기금 보조금과 사업수익, 찬조금 등 자체 수입으로 구성된다. 전체 예산 중 자체 수입은 1,70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5.1%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9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및 가맹경기단체의 자체수입 비율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예산 (A)	자체 수입 (B)	B/A× 100 (%)	전체 예산 (A)	자체 수입 (B)	B/A× 100 (%)	전체 예산 (A)	자체 수입 (B)	B/A× 100 (%)	전체 예산 (A)	자체 수입 (B)	B/A× 100 (%)
사도 체육회	213,757	6,116	2.9	240,675	7,693	3.2	228,004	7,832	3.4	217,766	5,880	2.7
가맹 경기단체	207,442	159,978	77.1	228,747	178,275	77.9	235,107	178,493	75.9	226,981	170,363	75.1

※ 자료 : 대한체육회

3) 국민생활체육회

가. 설립배경 및 목적

1986년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이후 일반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열기 고조, 산업발달과 자동화시대의 도래로 국민건강 및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어 생활체육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수립 및 시설건립 뿐만 아니라 클럽중심의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처럼 체육동호인의 활동을 적극 육성,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동호인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이들 단체들을 대표하는 민간차원의 생활체육 중심단체를 통해 지원함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국의 체육동호인들은 1990년 7월부터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 결성을 시작하였으며, 이어 시·도 단위의 생활체육회 구성을 추진하여 1990년 11월 30일 15개 시·도생활체육협의회가 결성되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이러한 배경 아래, 민간차원에서 범국민 체육활동을 확산하고 다양한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목적으로 각 시·도생활체육협의회의 참여 속에서 1991년 2월 6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명칭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관련 중심단체로서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국민건강과 체력 증진, 국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문화 창달, 세계 한민족의 동질성과 조국애 함양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연 혁

국민생활체육회는 1991년 2월 6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명칭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이후 1991년 3월 9일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의 가입을 시작으로 종목별연합회가 속속 결성되었다.

또한,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에서 개최하던 세계한민족축전 행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산하단체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1994년 7월 31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재단법인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가 통합되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세계한민족축전의 운영 및 참가동포의 사후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해외동포를 위한 해외생활체육 실천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 등 풀뿌리 생활체

육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조직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아울러 2009년 6월 10일 단체명칭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정부 생활체육 업무 전담기관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국민생활체육회로 변경하였다.

다. 조직 및 인력

국민생활체육회는 2011년 12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생활체육회와 66개 전국종목별연합회 및 6개 협력단체가 있으며, 시도생활체육회에는 해당 시도 행정구역별 시·군·구생활체육회와 생활체육 시도별 종목별연합회로 구성되는데 전국적으로 230개 시·군·구생활체육회와 78종목 686개의 시도 종목별연합회가 있고, 시·군·구생활체육회는 115종목 6,327개 시·군·구 종목별연합회로 구성되어 전국적인 동호인클럽 연결망을 갖추고 점차 선진국형 발전형태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 및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사무처는 2실 4부가 있으며, 전략기획실은 기획, 예산, 국회, 규정, 이사회·총회 업무, 종목육성부는 전국종목별연합회 관리업무와 전통종목 보급·지원, 지역진흥부는 지역생활체육회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대축전 및 전국어르신대회, 스포츠클럽육성지원,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및 생활체육국제교류 업무, 경영관리부는 인사, 회계업무, 홍보마케팅부는 홍보·공보 및 정보화 업무, 감사실은 자체 및 대외감사, 회원단체 감사, 청렴·반부패·윤리의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원은 창립초기 임원인 회장, 사무총장 포함 정원 25명으로 출범한 이래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증가하는 국민생활체육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직의 확대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던 중, 정부의 체육단체 통폐합 정책에 따라 1994년 7월 31일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를 통합하여 정원을 47명으로 증원하였다. 이후 21세기 무한경쟁의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고 생활체육 정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전산인력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 1996년 3월 11일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정원 52명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으나, 1998년 IMF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하여 정원이 38명으로 축소되었고 2009년 3월, 37명으로 재조정된 이후 2012년 감사실 신설에 따른 3명의 인력증원으로 현재 4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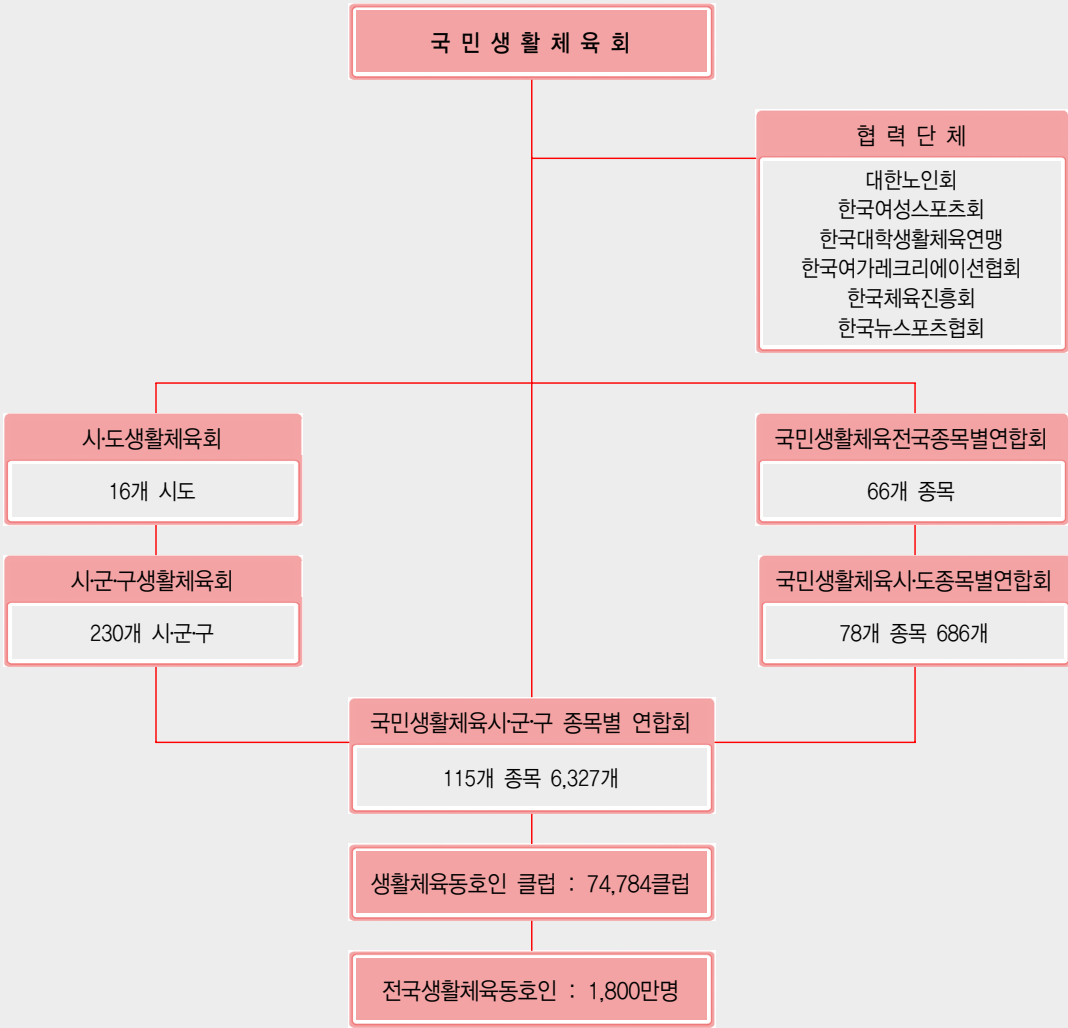


그림 2-4 국민생활체육회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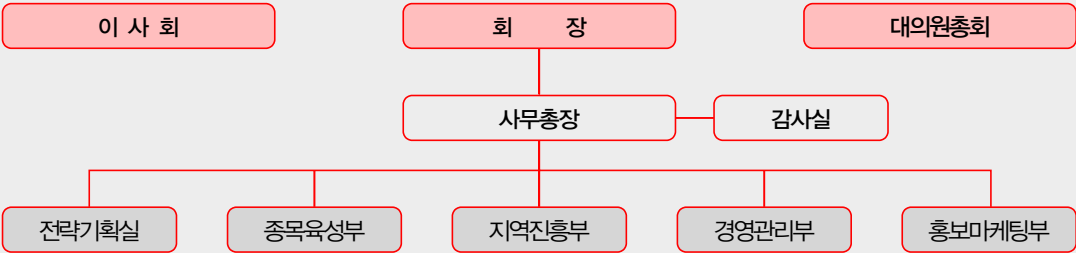


그림 2-5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처 기구 : 2실 4부

라. 회원단체 현황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는 각 시도생활체육회와 전국종목별연합회 및 협력단체로 구성한다. 종목별연합회는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인정한 종목별 체육동호인의 중앙조직을 말하며, 협력단체는 국민생활체육회 활동에 참가를 희망하여 국민생활체육회가 인정한 법인단체를 말한다. 또한, 시도생활체육회는 시·군·구생활체육회와 시도종목별연합회로 구성되며, 시·군·구생활체육회는 시·군·구종목별연합회로 구성된다.

시·도(시·군·구)생활체육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지역주민 참여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전개를 통한 생활체육 동호인의 지속적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종목별연합회는 해당 종목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신규 동호인클럽을 창출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전국규모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주관, 해당종목 보급·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신규 동호인클럽 창출을 위한 안내 및 동호인 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표 2-20 시도생활체육회 현황

구 분	설 립 일	예 산(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특별시	1990.11.20	7,413(16,181)	7,759(15,552)	11,746(22,025)	11,536(24,816)	11,431(18,147)
부산광역시	1991. 3.20	1,577(4,316)	1,675(4,641)	2,904(6,176)	2,486(6,105)	2,370(5,947)
대구광역시	1991. 2. 1	1,453(4,342)	4,818(7,263)	3,009(6,549)	2,819(6,153)	1,893(5,538)
인천광역시	1991. 4.25	3,516(5,329)	2,998(4,898)	5,145(8,261)	2,953(5,508)	2,720(3,665)
광주광역시	1991. 4.22	1,520(3,318)	1,232(3,016)	2,838(4,846)	2,574(4,683)	2,478(4,544)
대전광역시	1991. 7.26	1,593(3,946)	1,746(4,494)	3,804(6,410)	3,465(6,229)	4,748(7,446)
울산광역시	1997. 9. 3	1,705(7,610)	1,286(3,697)	2,285(4,842)	2,134(4,995)	2,147(2,982)
경기도	1990.11.29	7,398(30,408)	6,753(29,418)	8,477(36,800)	7,097(34,781)	6,334(27,357)
강원도	1991. 7. 1	1,547(10,042)	1,293(9,451)	3,271(13,678)	1,999(13,322)	2,083(11,323)
충청북도	1990.11. 5	1,456(6,047)	1,489(5,832)	2,475(9,593)	1,530(7,638)	1,657(5,923)
충청남도	1991. 5.25	1,658(6,584)	1,297(6,836)	2,361(8,857)	2,023(9,190)	1,993(10,246)
전라북도	1990. 9.20	2,411(8,387)	1,856(8,044)	6,640(15,717)	3,642(11,744)	2,921(10,252)
전라남도	1990. 8.22	2,188(5,879)	1,545(7,678)	3,565(12,148)	2,220(11,441)	2,372(11,972)
경상북도	1990. 9.21	2,414(6,110)	1,400(5,530)	2,975(16,018)	2,699(14,161)	2,582(14,859)
경상남도	1990.11.20	1,246(8,141)	1,170(8,843)	2,813(12,293)	1,973(13,169)	2,072(13,178)
제주특별자치도	1991. 5.13	3,016(4,849)	2,837(4,093)	3,253(4,900)	1,565(2,888)	1,926(3,579)

※ 괄호안은 시·군·구생활체육회 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임 ※ 자료 : 국민생활체육회

표 2-21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현황

연번	구 분	설 립 일	예 산(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1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	1991. 3. 9	1,979	2,003	1,527	1,467	1,515
2	국민생활체육전국육상연합회	1991. 7.13	338	341	312	819	323
3	국민생활체육전국배드민턴연합회	1991. 3.31	788	910	910	573	715
4	국민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연합회	1991. 4. 2	1,602	1,509	1,551	1,182	987
5	국민생활체육전국자전거연합회	1991. 9.26	309	367	411	1,027	981
6	국민생활체육전국스케이트링연합회	1991.11.20	143	198	202	245	233
7	국민생활체육전국인드서핑연합회	1993. 2.10	197	203	101	425	249
8	국민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	1993. 2.13	546	580	840	614	696
9	국민생활체육전국테니스연합회	1993. 3.12	240	215	169	471	437
10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	1994.10.19	602	476	584	508	397
11	국민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	1994.11.29	224	386	439	715	384
12	국민생활체육전국사격연합회	1995. 2.17	179	274	334	280	233
13	국민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	1994. 8.23	208	333	336	411	480
14	국민생활체육전국스키연합회	1996. 2.23	208	168	187	291	291
15	국민생활체육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	1997. 1.17	168	166	213	273	266
16	국민생활체육전국볼링연합회	1997. 2.18	357	302	390	387	460
17	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	1998.11.30	257	464	370	402	545
18	국민생활체육전국생활체조연합회	1999. 1.22	332	531	433	451	472
19	국민생활체육전국풋살연합회	1999. 1.19	426	441	443	277	362
20	국민생활체육전국합기도연합회	1999. 7.20	143	407	163	145	300
21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1999. 1.16	101	188	253	204	160
22	국민생활체육전국정구연합회	1999. 3.18	165	160	186	182	180
23	국민생활체육전국보디빌딩연합회	1999. 9.29	89	130	135	152	170
24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1999. 1. 1	539	1,662	298	1,925	1272
25	국민생활체육전국줄다리기연합회	1999.11.24	107	111	203	202	176
26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1999. 7.20	383	373	341	470	466
27	국민생활체육전국농구연합회	1999. 4.24	341	273	416	440	494
28	국민생활체육전국국무도연합회	1999. 6.28	178	199	263	46	98
29	국민생활체육전국골프연합회	2000. 7. 7	145	218	199	362	436
30	국민생활체육전국당구연합회	2000.12.15	190	246	222	447	383
31	국민생활체육전국검도연합회	2001. 3.10	191	217	171	211	237
32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2001. 4.22	277	399	242	213	457
33	국민생활체육전국국학기공연합회	1999.11.27	195	294	314	266	290

연번	구 분	설 립 일	예 산(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34	국민생활체육전국등산연합회	2003. 3.31	103	131	150	294	362
35	국민생활체육전국씨름연합회	2004. 1.30	788	1,133	2,965	3,588	3,877
36	국민생활체육전국인라인스케이트연합회	2003. 3.31	169	210	200	182	338
37	국민생활체육전국낚시연합회	2001. 3.31	223	316	364	295	398
38	국민생활체육전국철인3종경기연합회	2002. 8. 9	123	393	537	633	598
39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	2003. 3.31	76	92	25	75	83
40	국민생활체육전국우슈연합회	2004. 1.30	124	168	139	218	230
41	국민생활체육전국스쿼시연합회	1999. 4.22	75	163	91	101	201
42	국민생활체육전국종합무술연합회	1999. 3.10	248	275	297	306	314
43	국민생활체육전국라켓볼연합회	2003. 3.31	127	131	137	214	149
44	국민생활체육전국익스트림게임연합회	2000. 6. 9	22	72	7	60	89
45	국민생활체육전국인라인하키연합회	2001. 2. 7	85	80	20	113	78
46	국민생활체육전국하키연합회	1999. 8.19	25	44	25	24	54
47	국민생활체육전국그라운드골프연합회	2009. 4.28	-	-	169	167	254
48	국민생활체육전국줄넘기연합회	2009. 4.28	-	-	81	220	376
49	국민생활체육전국핸드볼연합회	2009. 4.28	-	-	20	169	235
50	국민생활체육전국파크골프연합회	2009. 4.28	-	-	216	224	257
51	국민생활체육전국소프트볼연합회	2009. 7. 7	-	-	58	12	12
52	국민생활체육전국프리테니스연합회	2009. 7. 7	-	-	61	50	350
53	국민생활체육전국우드볼연합회	2009. 7. 7	-	-	154	13	13
54	국민생활체육전국바둑연합회	2009. 7. 7	-	-	130	86	100
55	국민생활체육전국럭비연합회	2009. 7. 7	-	-	190	50	60
56	국민생활체육전국요트연합회	2009.11. 4	-	-	75	60	50
57	국민생활체육전국플라잉디스크연합회	2009.11. 4	-	-	36	450	128
58	국민생활체육전국특공무술연합회	2009.11. 4	-	-	70	150	150
59	국민생활체육전국댄스스포츠연합회	2009.11.10	-	-	100	100	100
60	국민생활체육전국민속배리연합회	2010. 3.31	-	-	-	20	20
61	국민생활체육전국전통선술연합회	2010. 5.19	-	-	-	50	50
62	국민생활체육전국이종격투기연합회	2010. 5.19	-	-	-	18	46
63	국민생활체육전국공수도연합회	2010. 9. 2	-	-	-	42	73
64	국민생활체육전국피구연합회	2010.11.10	-	-	-	140	109
65	국민생활체육전국생활무용연합회	2010.12.31	-	-	-	55	80
66	국민생활체육전국견기연합회	2011. 1. 8	-	-	-	-	150

마. 재정현황

국민생활체육회는 창립초기 9억 7천만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자체예산을 포함하여 12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출발하였으나,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업무량의 증대 및 세계한민족 축전의 개최에 따라 그 사업규모가 크게 증대되어, 2011년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 249억 8,600만원 및 자체예산 22억 9,600만원 등, 총 272억 8,200만원의 예산규모로 성장하였다.

표 2-22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계(A)	재 원 별			자체수입비중 (B/A)×100 (%)
		국 고	기 금	자체수입(B)	
2007년	20,302	—	18,911	1,391	7.4
2008년	17,801	—	16,283	1,518	8.5
2009년	22,449	—	20,387	2,062	9.2
2010년	25,802	—	23,661	2,141	8.3
2011년	27,282	—	24,986	2,296	8.4

※ 자료 :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회원단체 예산은 임원출연금과 회원단체 회비 등의 자체 예산과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각 지자체 생활체육진흥 사업비로 구성된다.

표 2-23 회원단체 예산과 자체수입 비율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예산 (A)	자체 수입 (B)	B/A× 100 (%)	전체 예산 (A)	자체 수입 (B)	B/A× 100 (%)	전체 예산 (A)	자체 수입 (B)	B/A× 100 (%)	전체 예산 (A)	자체 수입 (B)	B/A× (%)
시·도 생활체육회	41,152	1,479	3.6	67,561	2,043	3.0	52,715	2,242	4.3	51,727	1,999	3.9
시·군·구 생활체육회	88,134	7,512	8.5	118,482	5,925	5.0	124,107	5,714	4.6	105,231	5,367	5.1
종목별연합회	17,980	12,226	68.0	19,475	13,550	69.0	24,262	11,282	47	24,529	11,467	47

※ 자료 : 국민생활체육회

4)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가. 설립배경 및 목적

1967년 IOC 의무분과위원회 발족으로 ① 스포츠 윤리의 방어 ② 선수의 건강보호 ③ 모든 선수에게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도핑”정의 및 “금지약물목록”이 발표 되었고,

1999. 11. 10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설립(스위스 로잔)과 2003. 3. 5 「스포츠 도핑방지 세계대회」인 코펜하겐 선언을 통해 WADA Code를 선포하여 2004년 하계올림픽부터 전면 적용하면서 WADA 결의문 발표 및 각국 정부와 올림픽 기구가 서명하였으며, UNESCO반도핑국제협약을 추진하여 2005년 제33차 UNESCO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2007. 2. 1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도 스포츠 도핑방지에 대한 국제정세의 흐름속에서 국내전문도핑방지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2006년 11월 13일 1.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수집 및 연구 2. 도핑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도핑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6. 그 밖에 도핑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7. 2. 5 UNESCO반도핑국제협약을 비준, 수용하였다.

나. 연 혁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스포츠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확립과 스포츠 정신의 고양을 도모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으로 2006년 11월 13일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2007년 4월 27일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 가입 및 세계도핑방지규약(WADC)을 수용하였고, 같은 해 6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재창립하여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제정하였다. 2009년 9월 28일 ISO 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획득하였고, 현재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규약을 토대로 국내 및 국제대회의 도핑검사 및 도핑방지 교육과 홍보, 국제교류 및 협력 등 국내 유일의 도핑방지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다. 조직 및 인력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규정 위반행위를 한 선수 및 지도자의 제재를 위하여 도핑방지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항소위원회 및 제재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치료목적을 위한 예외적 금지약물 및 방법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와 혈액검사를 통해 도핑검사

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ABP심사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국은 1실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획운영실은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예산관리, 총무 및 인사관리, ISO인증 관리 등의 업무, 도핑검사팀은 도핑검사 계획 수립 및 집행, 도핑검사 결과 및 제재 관리, 도핑검사관 양성 및 관리 등의 업무,교육홍보팀은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홍보계획 수립 및 집행, 현장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의 업무, 국제협력팀은 세계도핑방지 기구(WADA) 관련 업무 및 도핑방지를 위한 국제 교류 협력 업무, ADAMS(선수소재지정보)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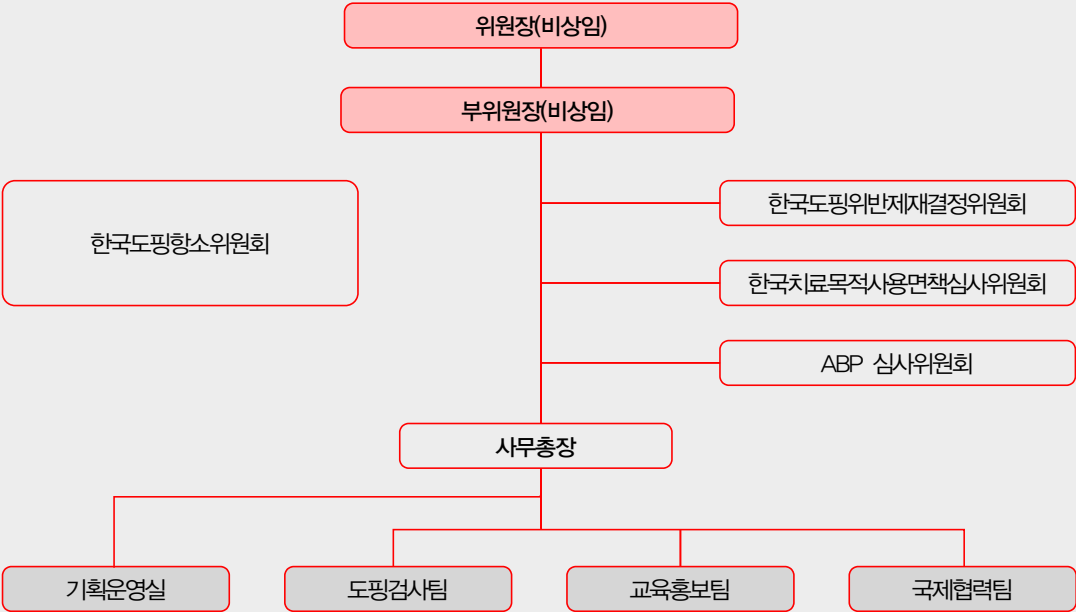


그림 2-6 위원회 및 4개 소위원회, 사무총장 및 사무국(1실 3팀)

표 2-24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정원·현원표

구분	계	임원	1급~3급	4급	5급~6급
정원	15	1	4	3	7
현원	12	1	2	3	6

라. 주요사업

- 국제표준에 근거한 도핑검사
 - 국제표준에 근거한 도핑검사 및 공정한 결과 관리
 - 전문적인 도핑검사관 및 혈액 채취요원 양성

표 2-25 연도별 도핑검사 현황

검사구분			비용주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체검사	경기 기간중		KADA	630	985	1,114	1,183	1,237
	경기 기간외		KADA	1,037	1,486	1,693	1,745	1,778
	소 계			1,667	2,471	2,807	2,928	3,015
외부 요청검사	경기 기간중	국제 대회	국제연맹 /조직위	176	236	316	291	410
		국내 대회	국내연맹	-	19	22	24	1
		프로 대회	프로단체	-	-	92	155	219
		계		176	255	430	470	630
	경기 기간외		국제연맹	-	99	74	68	107
			국내연맹	-	195	12	-	452
			프로단체	-	-	30	87	40
		계		-	294	116	155	599
	소 계			176	549	546	625	1,229
	총 계			1,843	3,020	3,353	3,553	4,244

- 도핑방지를 위한 도핑방지 교육·홍보
 - 중·고등학교 체육교과서 도핑방지교육내용 수록
 - 위원회 표준 교재 제작 및 선수, 지도자, 경기단체 관계자 대상 교육
 - 유소년들을 위한 도핑방지 만화책 제작·활용을 통한 도핑방지 이해력 증진
 - 도핑방지 홍보물 제작(가이드, 만화책자, 리플렛 등)
 - 전국체전 등 주요 현장 아웃리치 홍보
 - 홈페이지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 운영
 - 국제 도핑방지 뉴스 홈페이지 게재 및 국제 도핑방지 정보 공유

표 2-26 연도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선수 및 지도자	경기 단체 연수회 및 강습회	2,079	3,619	5,882	6,605	
	세미나	140	297	150	144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하계훈련	2,354	1,641	1,261	1,109	
	체육중·고등학교	3,519	3,097	2,858	3,727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390	300	500	565	
	프로	200	530	410	281	
합 계		8,682	9,484	11,061	12,431	

표 2-27 연도별 홍보물 배포 현황

종 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도핑안내서	7,149부	13,642부	25,000부	30,000부	35,000부	
리플렛	-	4,000부	4,000부	5,000부	12,000부	
홍보만화	-	-	-	5,000부	10,000부	
포스터	-	-	-	500장	1,000장	
칼럼기고	-	-	-	6회	8회	

○ 도핑방지를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

-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및 국제연맹(IF), 국가도핑방지기구(NADO)와의 업무교류
-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 교육 및 운영
- TUE(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관련 교육 및 관리

표 2-28 WADA 및 IF와 도핑검사 위탁대행 MOU 체결 추진

체결 일자	MOU 체결 연맹(10개 기구)
2011. 1. 24	국제레슬링연맹(FILA)
2011. 4. 5	국제사격연맹(ISSF)
2011. 5. 13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2011. 6. 20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2011. 6. 21	국제연맹총연합회(SportAccord)
2011. 6. 27	세계아이스하키편협회(WTC)
2011. 7. 19	국제인라인롤러연맹(FIRS)
2011. 9. 30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ITU)
2011. 10. 11	국제휠체어농구연맹(IWBF)
2011. 11. 2	국제테니스볼링연맹(WTBA)
2012. 4. 20	국제조정연맹(FISA)
2012. 6. 15	국제핸드볼연맹(IHF)

표 2-29 연도별 소재지정보 검사 현황

구 분	2009 ('09. 7 ~ '09. 12)			2010 ('10. 1 ~ '10. 12)			2011 ('11. 1 ~ '11. 12)		
	대상 인원	실시 인원	실패 인원	대상 인원	실시 인원	실패 인원	대상인 원	실시 인원	실패 인원
국제기준선수	140	-	1	136	-	3	143	-	3
국내기준선수	212	170	-	214	187	9	212	73	26
합 계	352	170	1	350	187	11	355	73	29

마. 재정현황

표 2-30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계(A)	재 원 별			자체수입비중 (B/A)×100 (%)
		국 고	기 금	자체수입(B)	
'07	1,694	1,694	-	-	-
'08	1,725	-	1,725	-	-
'09	1,772	-	1,762	10	0.56%
'10	1,982	-	1,932	50	2.58%
'11	2,112	-	2,061	51	2.41%
'12	2,138	-	2,085	53	2.48%

※ 자료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5) 체육인재육성재단

가. 설립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적극적인 전문체육 육성정책에 힘입어, 2008년 베이징올림픽 7위, 2010년 밴쿠버올림픽 5위를 거두는 등 스포츠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 감소로 인한 선수자원 확보의 어려움, 기초종목의 열세, 일부 엘리트 선수에 의존한 메달획득, 소수에 의존한 스포츠외교활동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수선수, 지도자, 심판, 스포츠외교/산업인력 등 체육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기관인 체육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었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체육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스포츠인재확충, 역량강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확보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연 혁

체육인재육성재단은 2007년 1월 30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 이후 2010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3호(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의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다. 조직 및 인력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및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2팀, 12명)을 두고 있다. 사업운영팀은 체육영재육성, 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교육, 국제스포츠인재양성 등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기획팀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사, 총무,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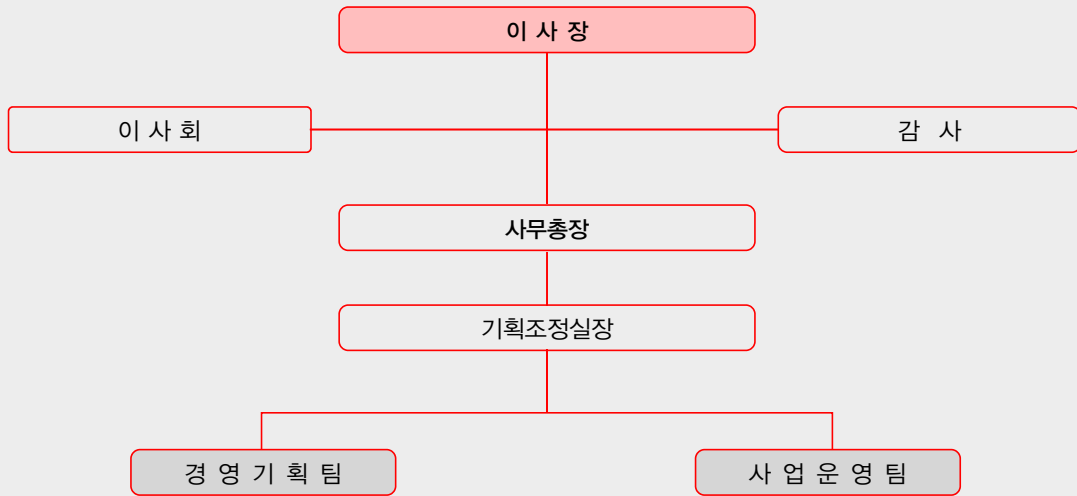


그림 2-7 조직도

라. 주요사업

재단은 2007년부터 ‘유소년 스포츠인재 발굴·육성’, ‘스포츠지도자 양성’,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등의 3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유소년 스포츠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기초종목인 육상, 수영, 체조 종목의 체육영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초등학교 체육영재 육성, 지역 중고 학생 선수의 전인적 육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및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 체육인재 육성, 체육영재의 산실인 체육중·고등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 등의 체육계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8년부터는 국내 스포츠계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지도자의 자질 함양과 전문성 배양을 위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과 해외 우수지도자 초청을 통한 국내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체육전공자와 체육행정가 등이 자신의 경력개발을 통해 사회진출과 더불어 체육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턴과 경력개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체육분야 전문지식을 생산하여 보급하는 ‘스포츠등지’라는 체육 특성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스포츠인재를 양성하고자 체육인재의 전문성 제고와 국내·외 체육단체 진출을 조력하기 위한 수준별 외국어교육, 해외연수, 해외 인턴십, 국제자격 취득 및 해외 학위 취득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마. 재정현황

표 2-31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계(A)	재 원 별				자체수입비중 (B/A)×100 (%)
		국 고	기 금	적립금	자체수입(B)	
2007	2,155	-	-	2,155	-	0
2008	15,651	-	-	15,651	-	0
2009	13,125	-	-	13,125	-	0
2010	14,894	-	-	14,894	-	0
2011	12,837	-	-	12,837	-	0

※ 자료 : 체육인재육성재단

위 단체들 외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다. 먼저 한국체육산업개발(주)는 1990년 서울올림픽 기념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생활체육시설 공간 제공,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올림픽 공원 및 경정공원 시설관리,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등이 있으며 조직 및 인력구성은 앞부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2005년 7월)과 더불어 장애인 체육 영역이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2005년 11월에 설립되었다. 2008년 2월에 16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설립 완료된 후 최근에는 시도별로 원활한 장애인체육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군·구 지부를 일부 승인(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내용은 제7장(장애인체육)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3절 체육진흥재원

1. 개 관

체육진흥을 위한 재원은 크게 중앙정부의 국고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운용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등 민간체육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체재원 등으로 구성된다. (표 2-32)와 같이 범위를 한정하여 산정한 체육진흥재원의 규모는 2003년 1조 6,600억원, 2004년 1조 7,976억원, 2005년 1조 9,762억원, 2006년 1조 8,957억원, 2007년 2조 5,955억원, 2008년 3조 1,303억원, 2009년 3조 4,090억원, 2010년 3조 5,344억원, 2011년 3조 5,938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시·도 교육청의 체육예산 등의 재원을 포함할 경우 실제 체육진흥재원의 규모는 이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32 체육진흥재원의 구성

(단위 : 억원)

	국 고	국민체육 진흥기금	지 방 비	체육단체	계
2003	1,426	1,726	12,847	601	16,600
2004	1,093	1,526	14,443	914	17,976
2005	1,137	1,747	16,041	837	19,762
2006	1,489	2,291	13,835	1,342	18,957
2007	1,812	2,367	20,510	1,266	25,955
2008	2,343	2,578	24,808	1,574	31,303
2009	2,135	3,860	25,949	2,146	34,090
2010	1,529	5,295	26,193	2,327	35,344
2011	1,559	6,568	25,677	2,134	35,938

※ 국 고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예산

※ 국민체육진흥기금 : 보조사업만 작성

※ 지 방 비 : 시·도 및 시·군·구 일반회계 최종예산

※ 체육단체 : 대한체육회 및 시도지부, 가맹경기단체 자체 수입 예산,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시·도,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연합회 자체수입 예산

2011년도 체육재정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비가 7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이 18.3%, 체육단체 수입이 5.9%, 국고가 4.3%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까지는 국고가 국민체육진흥기금보다 많았으나, 2003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국고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즉, 국가 체육예산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중앙정부의 체육재정

중앙정부의 체육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표2-33)에 나타난 것처럼 전문체육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활체육 지원은 기금사업의 비중 증가와 함께 국고예산의 감소를 볼 수 있다. 2008년도까지는 국고예산 총계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2009년 2,135억원에서 1,529억원으로 감소하였다. 2011년 국고예산은 1,558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서 약간 증가하였다(표2-33 참조).

표 2-33 분야별 국고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생활체육	26,252	25,776	11,337	17,649	12,863	93,896	96,547
전문체육	77,718	98,342	142,701	193,058	177,563	42,404	43,128
국제교류	7,465	13,899	11,939	12,998	7,970	7,609	7,126
스포츠산업	2,010	6,792	6,674	6,262	8,269	3,244	3,444
장애인체육	-	3,898	8,514	4,110	6,610	5,550	5,401
기 타	239	145	227	263	244	226	220
합 계	113,684	148,852	181,392	234,340	213,519	152,929	155,866

※ 「기타」는 체육국의 기본사업비

정부예산에서 체육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0.08%, 2006년 0.10%, 2007년 0.11%, 2008년 0.13%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2009년 0.11%, 2010년 0.07%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2011년은 2010년과 같이 0.07%를 차지하였다(표 2-34 참조).

표 2-34 정부예산대비 체육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년 도	정부예산 (A)	문 화 관 광 부		체 육 부 문	
		예 산 (B)	점 유 율 (B/A, %)	예 산 (C)	점 유 율 (C/A, %)
1993	407,641	2,377	0.58	428	0.10
1995	557,805	3,838	0.69	511	0.09
1997	705,284	5,245	0.74	1,541	0.21
1998	807,629	6,183	0.76	1,816	0.22
1999	884,850	6,943	0.78	1,572	0.18
2000	946,199	9,149	0.96	1,799	0.19
2001	1,002,246	9,706	0.96	1,639	0.16
2002	1,060,963	10,991	1.03	1,589	0.15
2003	1,114,831	11,401	1.02	1,425	0.13
2004	1,183,560	15,340	1.30	1,093	0.09
2005	1,343,704	15,676	1.17	1,137	0.08
2006	1,448,076	9,644	0.66	1,489	0.10
2007	1,641,435	12,681	0.77	1,812	0.11
2008	1,782,797	15,136	0.85	2,343	0.13
2009	2,041,000	16,579	0.81	2,135	0.11
2010	2,053,312	18,166	0.88	1,529	0.07
2011	2,099,303	19,603	0.93	1,559	0.07

※ 2005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문화재청, 청소년 예산이 포함되었음

※ 동 표는 예산만 해당.

3.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국고 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기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교부세·지원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되는 중앙정부의 예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30%~50%인 국고 보조율에 따라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증가는 지방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체가 정착되면서 지방행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생활체육교실 등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다.

2011년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은 일반회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총 2조 5,677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 178조 4,234억원의 1.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체육예산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예산 177조 7,474억원 중 2조 2906 억원으로 1.29%로 나타났다.

표 2-35 지방자치단체 체육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1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2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서울특별시	28,459,815	204,382	0.72	29,985,290	227,730	0.76
부산광역시	11,591,398	170,475	1.47	11,135,702	162,406	1.46
대구광역시	5,868,165	130,409	2.22	6,047,893	163,076	2.70
인천광역시	9,530,309	113,235	1.19	10,419,936	113,234	1.09
광주광역시	4,748,007	74,887	1.58	4,573,030	74,495	1.63
대전광역시	3,217,495	76,708	2.38	2,819,728	58,785	2.08
울산광역시	3,371,302	57,539	1.71	3,638,183	74,316	2.04
경 기 도	35,077,644	538,689	1.54	34,355,411	358,765	1.04
강 원 도	9,781,897	212,794	2.18	9,349,338	168,624	1.8
충청북도	7,756,314	141,593	1.83	7,567,185	132,247	1.75
충청남도	11,163,229	148,601	1.33	11,091,553	132,844	1.20
전라북도	10,408,053	137,088	1.32	9,883,479	114,775	1.16
전라남도	13,750,427	181,410	1.32	13,551,240	160,279	1.18
경상북도	6,021,332	59,312	0.99	6,135,725	48,641	0.79
경상남도	14,628,901	280,260	1.92	14,117,396	248,138	1.76
제 주 도	3,049,185	40,414	1.33	3,076,318	52,258	1.7

1. 2011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최종예산

2. 2012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당초예산

※ 기초자치단체 예산 포함한 금액(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예산)

또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의 경우, 경기도가 5,386억원인 것에 반해 제주도는 404억 원으로 경기도의 약 7.5%정도에 불과하였다(표 2-35). 이러한 편차 현상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표 2-35-1, 표 2-35-2, 표 2-35-3).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있으나, 체육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의 건설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35-1 광역자치단체 체육예산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1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2년도 체육예산	
		(B)	$B/A \times 100$		(B)	$B/A \times 100$
서울특별시	20,387,013	116,519	0.57	21,782,900	145,275	0.67
부산광역시	8,383,149	130,968	1.56	7,986,678	134,037	1.68
대구광역시	3,707,500	105,588	2.85	3,892,600	144,103	3.70
인천광역시	6,563,715	85,833	1.31	7,544,795	85,833	1.14
광주광역시	3,502,823	64,766	1.85	3,281,435	63,989	1.95
대전광역시	1,788,559	64,643	3.61	1,567,608	51,441	3.28
울산광역시	2,185,066	34,422	1.58	2,486,944	50,802	2.04
경 기 도	15,300,188	73,553	0.48	15,235,936	51,879	0.34
강 원 도	3,613,313	39,154	1.08	3,446,140	40,109	1.16
충청북도	3,158,300	49,438	1.57	3,120,959	39,457	1.26
충청남도	4,645,542	13,488	0.29	4,584,700	13,810	0.30
전라북도	3,737,466	42,461	1.14	3,694,495	39,379	1.07
전라남도	5,736,483	53,680	0.94	5,350,323	40,526	0.76
경상북도	2,734,668	34,022	1.24	2,810,601	33,269	1.18
경상남도	5,476,438	28,389	0.52	5,109,697	22,290	0.44
제 주 도	3,049,185	40,414	1.33	3,076,318	52,258	1.7

1. 2011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최종예산

2. 2012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당초예산

※ 광역자치단체 예산만 계산(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제외)

표 2-35-2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1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2년도 체육예산	
		(B)	B/A × 100		(B)	B/A × 100
서울특별시	8,072,802	87,863	1.09	8,202,390	82,455	1.01
부산광역시	3,208,249	39,507	1.23	3,149,024	28,369	0.9
대구광역시	2,160,665	24,821	1.15	2,155,293	18,973	0.88
인천광역시	2,966,594	27,402	0.92	2,875,141	27,401	0.95
광주광역시	1,245,184	10,121	0.81	1,291,595	10,506	0.81
대전광역시	1,428,936	12,065	0.84	1,252,120	7,344	0.59
울산광역시	1,186,236	23,117	1.95	1,151,239	23,514	2.04
경 기 도	19,777,456	465,136	2.35	19,119,475	306,886	1.61
강 원 도	6,168,584	173,640	2.81	5,903,198	128,515	2.18
충청북도	4,598,014	92,155	2.0	4,446,226	92,790	2.09
충청남도	6,517,687	135,113	2.07	6,506,853	119,034	1.83
전라북도	6,670,587	94,627	1.42	6,188,984	75,396	1.22
전라남도	8,013,944	127,730	1.59	8,200,917	119,753	1.46
경상북도	10,222,228	203,505	1.99	10,047,164	183,532	1.83
경상남도	9,152,463	251,871	2.75	9,007,699	225,848	2.51

1. 2011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최종예산

2. 2012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당초예산

※ 기초자치단체 예산 총계

표 2-35-3 기초자치단체별 체육예산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1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2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서울 (25)	종로구	200,105	1,103	0.55	216,717	1,168	0.54
	중 구	256,642	9,578	3.73	238,127	5,823	2.45
	용산구	233,966	2,578	1.1	254,287	2,535	1
	성동구	311,505	7,211	2.31	325,005	7,446	2.29
	광진구	271,695	916	0.34	255,778	852	0.33
	동대문구	382,892	820	0.21	298,000	853	0.29
	종랑구	332,623	1,551	0.47	328,183	1,714	0.52
	성북구	352,691	9,614	2.73	373,880	5,570	1.49
	강북구	378,835	2,969	0.78	339,444	2,849	0.84
	도봉구	269,912	2,807	1.04	271,993	1,236	0.45
	노원구	407,386	1,203	0.30	422,300	2,179	0.52
	은평구	324,332	3,083	0.95	351,615	3,286	0.93
	서대문구	283,795	1,147	0.4	266,000	2,822	1.06
	마포구	324,188	4,972	1.53	330,831	2,027	0.61
	양천구	313,587	1,260	0.40	348,625	1,503	0.43
	강서구	397,430	6,105	1.54	414,479	6,306	1.52
	구로구	301,792	2,823	0.94	320,325	4,000	1.25
	금천구	246,216	3,745	1.52	251,067	3,626	1.44
	영등포구	321,699	3,802	1.18	332,344	4,126	1.24
	동작구	289,122	2,209	0.76	274,870	4,477	1.63
	관악구	323,473	4,886	1.51	352,125	4,339	1.23
	서초구	314,025	2,604	0.83	322,951	2,734	0.85
	강남구	541,025	3,109	0.57	562,992	2,517	0.45
	송파구	378,560	7,003	1.85	420,809	7,655	1.82
	강동구	315,306	765	0.24	329,643	812	0.25
	소 계	8,072,802	87,863	1.09	8,202,390	82,455	1.01
부산 (16)	중 구	109,164	728	0.67	93,627	784	0.84
	서 구	168,768	3,140	1.86	141,587	492	0.35
	동 구	148,902	1,699	1.14	132,656	2,543	1.92
	영도구	143,939	554	0.38	149,697	654	0.44
	부산진구	255,305	1,028	0.4	271,740	593	0.22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1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2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부산 (16)	동래구	188,012	498	0.26	176,465	523	0.3
	남 구	224,250	2,651	1.18	186,092	2,820	1.52
	북 구	215,891	4,947	2.29	225,035	2,048	0.91
	해운대구	304,568	865	0.28	291,359	592	0.2
	사하구	292,333	1,926	0.66	254,826	1,118	0.44
	금정구	233,748	1,400	0.6	206,518	2,937	1.42
	강서구	139,720	788	0.56	150,686	1,029	0.68
	연제구	155,821	1,260	0.81	168,516	3,831	2.27
	수영구	131,619	834	0.63	146,408	897	0.61
	사상구	194,170	896	0.46	203,606	894	0.44
	기장군	314,855	16,293	5.17	350,206	6,614	1.89
	소 계	3,221,065	39,507	1.23	3,149,024	28,369	0.9
대구 (8)	중구	126,890	1,117	0.88	134,322	1,078	0.80
	동구	314,500	1,486	0.47	321,000	1,100	0.34
	서구	172,260	1,022	0.59	179,320	727	0.41
	남구	182,195	1,450	0.80	171,677	881	0.51
	북구	315,300	4,866	1.54	331,000	1,514	0.46
	수성구	317,720	1,644	0.52	305,974	2,122	0.69
	달서구	369,800	2,074	0.56	361,000	1,473	0.41
	달성군	362,000	11,162	3.08	351,000	10,078	2.87
	소 계	2,160,665	24,821	1.15	2,155,293	18,973	0.88
인천 (10)	중 구	248,154	1,695	0.68	204,805	1,951	0.95
	동 구	136,135	1,324	0.97	130,023	1,151	0.89
	남 구	313,246	2,350	0.75	307,056	1,546	0.5
	연수구	262,167	1,663	0.63	251,853	1,895	0.75
	남동구	378,058	1,616	0.43	406,746	5,658	1.39
	부평구	408,637	1,844	0.45	404,621	1,619	0.4
	계양구	242,647	2,142	0.88	228,538	1,324	0.58
	서 구	348,039	2,126	0.61	353,408	2,120	0.6
	강화군	325,511	6,385	1.96	346,804	7,795	2.25
	옹진군	304,000	6,257	2.06	241,287	2,342	0.97
	소 계	2,966,594	27,402	0.92	2,875,141	27,401	0.95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1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2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광주 (5)	동 구	145,842	958	0.66	180,187	1,319	0.73
	서 구	281,833	1,631	0.58	241,294	1,387	0.57
	남 구	191,846	403	0.21	195,441	470	0.24
	북 구	331,686	5,026	1.52	354,468	5,565	1.57
	광산구	293,977	2,103	0.72	320,205	1,765	0.55
	소 계	1,245,184	10,121	0.81	1,291,595	10,506	0.81
대전 (5)	동 구	230,790	1,037	0.45	250,695	1,107	0.44
	중 구	263,728	3,034	1.15	243,607	2,025	0.83
	서 구	357,094	2,874	0.8	311,918	1,466	0.47
	유성구	337,468	3,415	1.01	234,400	1,580	0.67
	대덕구	239,856	1,705	0.71	211,500	1,166	0.55
	소 계	1,428,936	12,065	0.84	1,252,120	7,344	0.59
울산 (5)	중 구	151,947	2,527	1.66	198,677	4,113	2.07
	남 구	268,820	5,633	2.1	247,743	7,540	3.04
	동 구	141,333	2,567	1.82	138,098	3,842	2.78
	북 구	174,127	5,852	3.36	164,201	5,277	3.21
	울주군	450,009	6,538	1.45	402,520	2,742	0.68
	소 계	1,186,236	23,117	1.95	1,151,239	23,514	2.04
경기 (31)	수원시	1,174,297	36,861	3.14	1,294,409	45,935	3.55
	성남시	1,905,790	35,103	1.84	1,877,100	31,974	1.7
	의정부시	648,793	5,065	0.78	670,717	4,061	0.61
	안양시	724,330	5,169	0.71	804,040	5,337	0.66
	부천시	829,583	27,238	3.28	831,800	28,457	3.42
	광명시	450,076	6,889	1.53	429,052	9,004	2.1
	평택시	1,084,792	27,544	2.54	969,381	19,781	2.04
	동두천시	257,039	3,356	1.31	235,039	2,237	0.95
	안산시	1,015,789	11,443	1.13	1,086,443	11,094	1.02
	고양시	1,048,884	33,061	3.15	914,421	21,960	2.40
	과천시	213,938	3,434	1.61	197,959	3,584	1.81
	구리시	265,663	1,232	0.46	208,320	1,157	0.56
	남양주시	920,156	4,526	0.49	829,200	4,227	0.51
	오산시	314,134	9,501	3.02	260,042	3,262	1.25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1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2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경기 (31)	시흥시	460,929	6,695	1.45	492,296	7,752	1.57
	군포시	338,408	3,950	1.17	320,672	3,561	1.11
	의왕시	295,531	7,080	2.4	237,626	2,894	1.22
	하남시	268,553	7,002	2.61	429,098	6,147	1.43
	용인시	1,432,424	11,899	0.83	1,476,198	10,051	0.68
	파주시	823,771	5,595	0.68	772,752	4,338	0.56
	이천시	542,273	11,889	2.19	494,916	4,549	0.92
	안성시	366,096	5,974	1.63	386,586	6,133	1.59
	김포시	756,851	11,259	1.49	623,790	6,385	1.02
	화성시	863,886	85,164	9.86	810,641	12,191	1.50
	광주시	480,656	35,175	7.32	404,670	11,409	2.82
	양주군	474,806	2,301	0.48	402,964	2,226	0.55
	여주군	343,874	10,316	3	305,208	5,358	1.76
	연천군	379,905	6,997	1.84	357,711	3,050	0.85
	포천군	472,762	8,115	1.72	436,323	6,913	1.58
	가평군	252,559	7,819	3.1	271,810	11,159	4.11
	양평군	370,908	27,484	7.41	288,291	10,700	3.71
	소 계	19,777,456	465,136	2.35	19,119,475	306,886	1.61
강원 (18)	춘천시	901,256	14,587	1.62	836,421	15,261	1.82
	원주시	646,697	20,091	3.11	747,603	18,760	2.51
	강릉시	543,776	7,970	1.47	606,210	7,431	1.23
	동해시	255,073	11,137	4.37	248,106	7,936	3.2
	태백시	227,664	10,695	4.7	204,286	4,654	2.28
	속초시	209,462	4,098	1.96	170,331	3,010	1.77
	삼척시	383,686	5,730	1.49	364,230	5,323	1.46
	홍천군	377,789	15,831	4.19	324,451	4,450	1.37
	횡성군	267,978	11,606	4.33	215,811	5,198	2.41
	영월군	329,115	3,189	0.97	261,240	2,804	1.07
	평창군	298,747	17,590	5.89	246,916	6,509	2.64
	정선군	310,347	9,509	3.06	279,270	4,964	1.78
	철원군	245,933	8,616	3.50	232,540	6,704	2.88
	화천군	250,348	5,435	2.17	253,427	4,909	1.94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1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2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강원 (18)	양구군	194,048	4,970	2.56	213,488	8,070	3.78
	인제군	293,271	11,881	4.05	261,429	11,120	4.25
	고성군	235,577	4,400	1.87	237,160	3,964	1.67
	양양군	197,817	6,305	3.19	200,279	7,448	3.72
	소 계	6,168,584	173,640	2.81	5,903,198	128,515	2.18
충북 (12)	청주시	824,237	20,544	2.49	831,096	20,143	2.42
	충주시	711,090	16,120	2.27	736,487	15,660	2.13
	제천시	466,876	7,797	1.67	478,177	7,489	1.57
	청원군	435,376	10,097	2.32	408,265	5,418	1.33
	보은군	204,284	2,093	1.02	213,859	2,469	1.15
	옥천군	330,640	6,492	1.96	277,458	3,704	1.33
	영동군	339,686	8,633	2.54	304,253	6,892	2.27
	증평군	132,975	3,578	2.69	133,193	2,368	1.78
	진천군	283,861	3,234	1.14	288,309	4,080	1.42
	괴산군	254,207	1,255	0.49	256,035	1,296	0.51
	음성군	387,700	6,655	1.72	301,399	16,999	5.64
	단양군	227,082	5,657	2.49	217,695	6,272	2.88
	소 계	4,598,014	92,155	2	4,446,226	92,790	2.09
충남 (16)	천안시	812,000	20,705	2.55	775,000	21,533	2.78
	공주시	534,700	4,345	0.81	515,800	3,367	0.65
	보령시	432,900	7,669	1.77	475,435	3,399	0.71
	아산시	565,400	9,664	1.71	614,000	15,305	2.49
	서산시	490,231	7,119	1.45	470,889	10,283	2.18
	논산시	494,169	7,960	1.61	459,272	7,185	1.56
	계룡시	106,459	9,449	8.88	94,500	8,204	8.68
	당진시	595,201	8,188	1.38	603,493	7,663	1.27
	금산군	332,515	5,382	1.62	292,706	2,859	0.98
	연기군	281,734	5,695	2.02	269,361	4,079	1.51
	부여군	366,600	8,598	2.35	381,300	7,551	1.98
	서천군	298,545	10,176	3.41	272,496	3,856	1.42
	청양군	204,770	1,994	0.97	228,529	2,389	1.05
	홍성군	280,748	2,370	0.84	360,000	2,819	0.78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1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2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충남 (16)	예산군	352,131	13,984	3.97	343,705	13,982	4.07
	태안군	369,584	11,815	3.20	350,367	4,560	1.3
	소 계	6,517,687	135,113	2.07	6,506,853	119,034	1.83
전북 (14)	전주시	1,161,607	16,610	1.43	870,336	13,061	1.5
	군산시	711,951	4,881	0.69	770,054	5,743	0.75
	익산시	782,547	6,485	0.83	782,751	7,179	0.92
	정읍시	560,664	4,113	0.73	476,052	3,431	0.72
	남원시	464,207	5,394	1.16	455,890	3,249	0.71
	김제시	524,000	4,780	0.91	493,500	4,131	0.84
	완주군	563,133	660	0.12	500,548	575	0.11
	진안군	272,591	2,576	0.95	254,237	3,463	1.36
	무주군	205,365	16,543	8.06	240,317	9,968	4.15
	장수군	216,702	9,121	4.21	191,311	8,006	4.18
	임실군	285,254	4,793	1.68	255,974	7,029	2.75
	순창군	248,500	4,652	1.87	220,000	1,541	0.7
	고창군	379,787	11,123	2.93	373,514	5,860	1.57
	부안군	294,279	2,896	0.98	304,500	2,160	0.71
	소 계	6,670,587	94,627	1.42	6,188,984	75,396	1.22
전남 (22)	목포시	433,978	18,986	4.37	456,094	8,715	1.91
	여수시	771,837	10,206	1.32	911,563	7,542	0.83
	순천시	640,578	4,614	0.72	740,500	7,233	0.98
	나주시	353,297	3,274	0.93	425,235	3,402	0.8
	광양시	530,254	14,792	2.79	522,779	7,157	1.37
	담양군	291,910	4,985	1.71	300,589	3,252	1.08
	곡성군	197,265	6,034	3.06	193,310	6,233	3.22
	구례군	221,904	3,915	1.76	204,124	4,080	2
	고흥군	385,060	3,494	0.91	396,627	7,066	1.78
	보성군	302,822	4,256	1.41	324,861	9,530	2.93
	화순군	445,682	5,481	1.23	411,860	9,469	2.3
	장흥군	311,177	2,006	0.64	276,046	4,196	1.52
	강진군	269,064	5,684	2.11	241,314	4,234	1.75
	해남군	414,149	8,702	2.1	387,130	6,387	1.65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1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2년도 체육예산	
			(B)	B/A × 100		(B)	B/A × 100
전남 (22)	영암군	328,832	8,749	2.66	290,529	7,160	2.46
	무안군	335,269	2,585	0.77	321,344	2,998	0.93
	함평군	221,820	3,273	1.48	253,921	3,327	1.31
	영광군	293,004	5,142	1.75	313,857	6,289	2.14
	장성군	312,237	1,894	0.61	267,240	2,944	1.1
	완도군	309,558	5,131	1.66	327,549	1,554	0.47
	진도군	284,390	3,147	1.11	245,432	5,410	2.2
	신안군	359,857	1,380	0.38	389,013	1,575	0.4
	소 계	8,013,944	127,730	1.59	8,200,917	119,753	1.46
경북 (23)	포항시	1,143,850	24,453	2.14	1,161,000	29,061	2.5
	경주시	852,000	15,760	1.85	998,000	10,935	1.1
	김천시	546,000	12,529	2.29	558,300	16,823	3.01
	안동시	781,300	12,997	1.66	752,100	10,904	1.45
	구미시	1,195,875	41,925	3.51	899,750	28,472	3.16
	영주시	378,500	5,099	1.35	419,400	3,664	0.87
	영천시	514,230	3,666	0.71	444,000	3128	0.7
	상주시	525,400	14,126	2.69	536,800	18,277	3.4
	문경시	427,018	12,746	2.98	423,921	11,302	2.67
	경산시	480,000	7,409	1.54	454,000	6,655	1.47
	군위군	196,070	5,370	2.74	208,187	2,740	1.32
	의성군	432,778	5,045	1.17	400,610	4,218	1.05
	청송군	231,898	3,110	1.34	222,275	2,312	1.04
	영양군	190,300	2,378	1.25	187,600	4,812	2.57
	영덕군	270,465	4,447	1.64	277,835	3,775	1.36
	청도군	299,377	1,644	0.55	284,005	1,314	0.46
	고령군	203,230	1,889	0.93	233,096	2,294	0.98
	성주군	266,640	3,707	1.39	250,855	4,912	1.96
	칠곡군	333,315	4,491	1.35	354,200	3,548	1
	예천군	259,379	3,632	1.4	281,619	3,539	1.26
	봉화군	271,000	2,357	0.87	273,000	2,030	0.74
	울진군	295,603	10,526	3.56	293,811	5,174	1.76
	울릉군	128,000	4,199	3.28	132,800	3,643	2.74
	소 계	10,222,228	203,505	1.99	10,047,164	183,532	1.83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1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2년도 체육예산	
			(B)	B/A × 100		(B)	B/A × 100
경남 (18)	창원시	1,895,717	90,417	4.77	1,888,106	69,090	3.66
	진주시	676,706	11,796	1.74	666,974	8,340	1.25
	통영시	469,780	7,653	1.63	412,814	7,654	1.85
	사천시	441,118	16,128	3.66	449,861	28,934	6.43
	김해시	865,107	16,175	1.87	882,318	9,956	1.13
	밀양시	461,418	5,837	1.27	476,680	6,204	1.3
	거제시	512,380	8,126	1.59	505,578	11,729	2.32
	양산시	568,016	10,255	1.81	563,066	13,798	2.45
	의령군	215,394	1,766	0.82	223,378	3,513	1.57
	함안군	311,499	18,887	6.06	328,071	7,012	2.14
	창녕군	332,084	7,462	2.25	346,178	9,201	2.66
	고성군	302,889	10,928	3.61	294,006	5,715	1.94
	남해군	318,164	14,408	4.53	276,470	12,630	4.57
	하동군	309,266	6,996	2.26	323,430	7,354	2.27
	산청군	321,279	4,909	1.53	321,310	4,537	1.41
	함양군	350,005	5,336	1.52	319,543	8,447	2.64
	거창군	426,108	7,497	1.76	395,516	7,389	1.87
	합천군	375,533	7,295	1.94	334,400	4,345	1.3
소 계		9,152,463	251,871	2.75	9,007,699	225,848	2.51

1. 2011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최종예산

2. 2012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당초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의 경우, 총 2조 6,704억원 중 기타가 1조 3,338억원으로 49.9%를 차지했고, 전문체육(27.4%), 생활체육(19.6%), 장애인체육(1.6%), 국제교류(1.4%)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국제교류의 비율이 32.6%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문체육의 비율이 각각 72.1%와 44.4%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타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2-36, 표 2-36-1, 표 2-36-2, 표 2-36-3).

표 2-36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계
서울특별시	69,808(34.2)	33,726(16.5)	4,624(2.3)	1,440(0.7)	94,784(46.4)	204,382
부산광역시	22,054(12.9)	16,258(9.5)	2,147(1.3)	1,182(0.7)	128,834(75.6)	170,475
대구광역시	12,483(10.1)	14,679(11.9)	1,502(1.2)	70(0.1)	94,421(76.7)	123,155
인천광역시	14,816(13.8)	47,587(44.4)	2,369.5(2.2)	1,855.5(1.7)	40,549(37.8)	107,177
광주광역시	11,612(15.5)	11,789(15.7)	1,585(2.1)	—	49,901(66.6)	74,887
대전광역시	21,688(28)	16,275(21)	2,145(2.8)	25,238(32.6)	12,139(15.7)	77,485
울산광역시	20,402(27.6)	16,113(21.8)	1,374(1.9)	133(0.2)	35,981(48.6)	74,003
경 기 도	59,894(12.6)	164,089(34.4)	6,217(1.3)	151(0.03)	245,975(51.6)	476,326
강 원 도	48,422(22.8)	69,949(32.9)	2,416(1.1)	924(0.4)	91,083(42.8)	212,794
충청북도	44,568(31.5)	38,433(27.1)	2,121(1.5)	53(0.04)	56,418(39.8)	141,593
충청남도	13,316(9)	43,373(29.2)	3,585(2.4)	30(0.02)	88,297(59.4)	148,601
전라북도	43,771(31.9)	28,632(20.9)	1,651(1.2)	1,126(0.8)	61,908(45.2)	137,088
전라남도	35,720(19.7)	40,948(22.6)	2,672(1.5)	455(0.3)	101,615(56)	181,410
경상북도	36,310(16.5)	66,442(30.2)	2,740(1.2)	5,625(2.6)	109,239(49.6)	220,356
경상남도	57,654(20.6)	94,353(33.7)	5,475(2.0)	115(0.04)	122,663(43.8)	280,260
제 주 도	9,751(24.1)	29,136(72.1)	1,402(3.5)	125(0.3)	—	40,414

1. 2011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체육분야 최종예산

※ 기초자치단체 예산 포함한 금액(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예산)

표 2-36-1 광역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¹
서울특별시	13,525	27,770	4,270	1,350	69,604	116,519
부산광역시	2,117	13,418	2,142	1,182	112,109	130,968
대구광역시	1,666	11,481	1,320	70	83,797	98,334
인천광역시	3,509	41,546	2,240	1,855	29,837	78,987
광주광역시	8,802	9,844	1,569	-	44,551	64,766
대전광역시	14,349	14,305	2,132	-	25,238	56,024
울산광역시	3,211	13,219	1,374	50	33,036	50,890
경 기 도	10,664	27,040	3,128	40	32,681	73,553
강 원 도	7,015	15,897	1,680	189	14,373	39,154
충청북도	16,964	8,542	1,688	37	22,207	49,438
충청남도	1,323	9,629	1,322	-	1,214	13,488
전라북도	4,657	15,206	1,187	-	21,411	42,461
전라남도	3,944	11,330	1,346	-	37,060	53,680
경상북도	2,064	10,444	1,765	-	1,926	16,199
경상남도	1,608	24,684	1,600	60	437	28,389
제 주 도	9,751	29,136	1,402	125	-	40,414

1. 2011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체육분야 최종예산

※ 광역자치단체 예산만 계산(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제외)

표 2-36-2 기초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¹
서울특별시	56,283	5,956	354	90	25,180	87,863
부산광역시	19,937	2,840	5	-	16,725	39,507
대구광역시	10,817	3,198	182	-	10,624	24,821
인천광역시	11,307	6,041	129.5	0.5	10,712	28,190
광주광역시	2,810	1,945	16	-	5,350	10,121
대전광역시	7,339	1,970	13	-	3,520	12,842
울산광역시	17,191	2,894	-	83	2,945	23,113
경 기 도	49,230	137,049	3,089	111	213,294	402,773
강 원 도	41,407	54,052	736	735	76,710	173,640
충청북도	27,604	29,891	433	16	34,211	92,155
충청남도	11,993	33,744	2,263	30	87,083	135,113
전라북도	39,114	13,426	464	1,126	40,497	94,627
전라남도	31,776	29,618	1,326	455	64,555	127,730
경상북도	34,246	55,998	975	5,625	107,313	204,157
경상남도	56,046	69,669	3,875	55	122,226	251,871

1. 2011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체육분야 최종예산

※ 기초자치단체 예산만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로 운영

표 2-36-3 기초자치단체별 분야별 체육예산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¹
서울	종로구	903	174	19	7	-	1,103
	중 구	9,191	375	12	-	-	9,578
	용산구	2,573	-	5	-	-	2,578
	성동구	6,769	419	23	-	-	7,211
	광진구	626	290	-	-	-	916
	동대문구	730	56	27	-	7	820
	중랑구	1,551	-	-	-	-	1,551
	성북구	9,405	187	-	22	-	9,614
	강북구	2,969	-	-	-	-	2,969
	도봉구	599	439	35	-	1,734	2,807
	노원구	922	262	19	-	-	1,203
	은평구	447	395	6	-	2,235	3,083
	서대문구	521	-	9	36	581	1,147
	마포구	564	7	-	25	4,376	4,972
	양천구	1,260	-	-	-	-	1,260
	강서구	840	-	-	-	5,265	6,105
	구로구	2,243	580	-	-	-	2,823
	금천구	230	2	1	-	3,512	3,745
	영등포구	542	-	7	-	3,253	3,802
	동작구	359	1,004	59	-	787	2,209
	관악구	4,116	221	2	-	547	4,886
	서초구	2,599	-	5	-	-	2,604
	강남구	232	930	90	-	1,857	3,109
	송파구	5,420	522	35	-	1,026	7,003
	강동구	672	93	-	-	-	765
	소 계	56,283	5,956	354	90	25,180	87,863
부산	중구	641	82	5	-	-	728
	서구	2,949	191	-	-	-	3,140
	동구	1,699	-	-	-	-	1,699
	영도구	380	174	-	-	-	554
	부산진구	1,028	-	-	-	-	1,028
	동래구	245	160	-	-	93	498
	남구	2,373	278	-	-	-	2,651
	북구	193	261	-	-	4,493	4,947
	해운대구	865	-	-	-	-	865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¹
부산	사하구	1,594	332	-	-	-	1,926
	금정구	1,133	208	-	-	59	1,400
	강서구	501	287	-	-	-	788
	연제구	402	239	-	-	619	1,260
	수영구	488	346	-	-	-	834
	사상구	386	234	-	-	276	896
	기장군	5,060	48	-	-	11,185	16,293
	소 계	19,937	2,840	5	0	16,725	39,507
대구	중 구	1,117	-	-	-	-	1,117
	동 구	994	345	-	-	147	1,486
	서 구	695	327	-	-	-	1,022
	남 구	1,212	238	-	-	-	1,450
	북 구	3,515	455	-	-	896	4,866
	수성구	963	681	-	-	-	1,644
	달서구	1,616	429	29	-	-	2,074
	달성군	705	723	153	-	9,581	11,162
	소 계	10,817	3,198	182	-	10,624	24,821
인천	중구	1,272	422	0.5	0.5	-	1,695
	동구	518	806	-	-	-	1,324
	남구	2,461	663	14	-	-	3,138
	연수구	780	876	7	-	-	1,663
	남동구	551	784	22	-	259	1,616
	부평구	1,355	485	4	-	-	1,844
	계양구	1,578	559	5	-	-	2,142
	서구	1,633	429	64	-	-	2,126
	강화군	1,036	514	13	-	4,822	6,385
	옹진군	123	503	-	-	5,631	6,257
	소 계	11,307	6,041	129.5	0.5	10,712	28,190
광주	동 구	589	368	1	-	-	958
	서 구	954	458	-	-	219	1,631
	남 구	400	-	3	-	-	403
	북 구	399	563	10	-	4,054	5,026
	광산구	468	556	2	-	1,077	2,103
	소 계	2,810	1,945	16	0	5,350	10,121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¹
대전	동구	724	313	-	-	777	1,814
	중구	2,861	169	4	-	-	3,034
	서구	553	378	-	-	1,943	2,874
	유성구	1,870	745	-	-	800	3,415
	대덕구	1,331	365	9	-	-	1,705
	소 계	7,339	1,970	13	0	3,520	12,842
울산	중 구	2,527	-	-	-	-	2,527
	남 구	2,057	544	-	83	2,945	5,629
	동 구	1,542	1,025	-	-	-	2,567
	북 구	5,062	790	-	-	-	5,852
	울주군	6,003	535	-	-	-	6,538
	소 계	17,191	2,894	0	83	2,945	23,113
경기	수원시	1,727	18,557	142	-	-	20,426
	성남시	1,967	7,495	172	-	22,340	31,974
	의정부시	596	2,534	39	80	1,816	5,065
	안양시	743	4,487	89	-	18	5,337
	부천시	968	5,071	503	-	20,696	27,238
	광명시	1,632	2,504	28	-	2,725	6,889
	평택시	3,111	2,854	75	-	21,504	27,544
	동두천시	753	514	20	5	2,064	3,356
	안산시	1,345	6,912	160	24	3,002	11,443
	고양시	1,887	21,568	587	-	9,019	33,061
	과천시	1,491	1,876	67	-	-	3,434
	구리시	774	391	35	-	32	1,232
	남양주시	1,824	2,661	40	-	-	4,525
	오산시	789	2,280	54	2	137	3,262
	시흥시	948	1,630	164	-	5,010	7,752
	군포시	624	1,495	55	-	1,776	3,950
	의왕시	355	574	19	-	1946	2,894
	하남시	1,346	796	76	-	3,929	6,147
	용인시	5,096	6,750	53	-	-	11,899
	파주시	455	2,091	20	-	3,029	5,595
	이천시	1,945	2,910	109	-	6,925	11,889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¹
경기	안성시	1,051	1,336	130	-	3,457	5,974
	김포시	746	2,930	136	-	7,447	11,259
	화성시	443	7,664	20	-	77,037	85,164
	광주시	985	1,387	60	-	-	2,432
	양주시	1,676	535	90	-	-	2,301
	여주군	629	980	17	-	8,690	10,316
	연천군	1,982	5,000	15	-	-	6,997
	포천군	1,163	3,167	88	-	3,697	8,115
	가평군	932	1,367	12	-	5,508	7,819
	양평군	9,247	16,733	14	-	1,490	27,484
	소 계	49,230	137,049	3,089	111	213,294	402,773
강원	춘천시	849	1,455	92	700	11,491	14,587
	원주시	3,097	16,433	83	-	478	20,091
	강릉시	937	4,679	116	-	2,238	7,970
	동해시	799	1,838	30	-	8,470	11,137
	태백시	1,372	3,841	23	15	5,444	10,695
	속초시	760	785	182	-	2,371	4,098
	삼척시	1,751	1,501	48	-	2,430	5,730
	홍천군	8,548	7,024	-	-	259	15,831
	횡성군	9,790	1,801	15	-	-	11,606
	영월군	772	2,010	22	-	385	3,189
	평창군	845	2,496	10	-	14,239	17,590
	정선군	281	861	9	-	8,358	9,509
	철원군	861	709	11	-	7,035	8,616
	화천군	2,624	2,777	14	20	-	5,435
	양구군	313	309	-	-	4,348	4,970
	인제군	6,255	4,380	7	-	1,239	11,881
	고성군	965	556	19	-	2,860	4,400
	양양군	588	597	55	-	5,065	6,305
	소 계	41,407	54,052	736	735	76,710	173,640
충북	청주시	6,784	4,568	241	6	8,945	20,544
	충주시	718	15,292	110	-	-	16,120
	제천시	399	1,026	8	-	6,364	7,797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¹
충북	청원군	4,548	1,122	5	10	4,412	10,097
	보은군	379	1,078	-	-	636	2,093
	옥천군	687	1,060	-	-	4,745	6,492
	영동군	7,748	880	5	-	-	8,633
	증평군	412	971	6	-	2,189	3,578
	진천군	479	703	7	-	2,045	3,234
	괴산군	341	889	6	-	19	1,255
	음성군	296	1,484	19	-	4,856	6,655
	단양군	4,813	818	26	-	-	5,657
	소 계	27,604	29,891	433	16	34,211	92,155
충남	천안시	1,566	6,157	561	-	12,421	20,705
	공주시	315	2,339	645	30	1,016	4,345
	보령시	421	4,448	50	-	2,750	7,669
	아산시	800	4,326	105	-	4,433	9,664
	서산시	751	2,834	245	-	3,289	7,119
	논산시	1,671	1,325	107	-	4,857	7,960
	계룡시	286	943	55	-	8,165	9,449
	당진시	1,852	1,386	141	-	4,809	8,188
	금산군	903	838	19	-	3,622	5,382
	연기군	454	1,724	55	-	3,462	5,695
	부여군	255	866	24	-	7,453	8,598
	서천군	409	962	34	-	8,771	10,176
	청양군	131	343	30	-	1,490	1,994
	홍성군	772	385	100	-	1,113	2,370
	예산군	866	1,458	43	-	11,617	13,984
	태안군	541	3,410	49	-	7,815	11,815
	소 계	11,993	33,744	2,263	30	87,083	135,113
전북	전주시	12,256	4,339	15	-	-	16,610
	군산시	4,086	745	40	10	-	4,881
	익산시	2,293	458	122	-	3,612	6,485
	정읍시	1,195	9	73	-	2,836	4,113
	남원시	4,057	1,053	63	-	221	5,394
	김제시	977	200	11	-	3,592	4,780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¹
전북	완주군	545	102	13	-	-	660
	진안군	2,112	-	54	-	410	2,576
	무주군	606	416	5	1,066	14,450	16,543
	장수군	6,736	2,378	7	-	-	9,121
	임실군	2,090	2,513	23	-	167	4,793
	순창군	601	260	15	50	3,726	4,652
	고창군	1,215	418	7	-	9,483	11,123
	부안군	345	535	16	-	2,000	2,896
	소 계	39,114	13,426	464	1,126	40,497	94,627
전남	목포시	1,724	3,112	109	-	14,041	18,986
	여수시	850	5,715	126	-	3,515	10,206
	순천시	382	1,631	43	-	2,558	4,614
	나주시	1,192	1,693	350	-	39	3,274
	광양시	1,222	2,121	32	-	11,417	14,792
	담양군	457	1,659	15	-	2,854	4,985
	곡성군	773	319	8	-	4,934	6,034
	구례군	870	3,035	10	-	-	3,915
	고흥군	1,663	133	30	-	1,668	3,494
	보성군	567	531	51	-	3,107	4,256
	화순군	2,385	510	350	-	2,236	5,481
	장흥군	498	403	-	-	1,105	2,006
	강진군	359	2,922	33	455	1,915	5,684
	해남군	852	1,076	41	-	6,733	8,702
	영암군	8,706	28	15	-	-	8,749
	무안군	638	191	20	-	1,736	2,585
	함평군	816	471	12	-	1,974	3,273
	영광군	344	2,243	15	-	2,540	5,142
	장성군	448	590	7	-	849	1,894
	완도군	3,571	215	25	-	1,320	5,131
	진도군	2,707	404	22	-	14	3,147
	신안군	752	616	12	-	-	1,380
	소 계	31,776	29,618	1,326	455	64,555	127,730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¹
경북	포항시	1,740	5,428	309	260	16,716	24,453
	경주시	5,702	5,702	108	3,800	388	15,700
	김천시	2,187	4,379	34	-	5,929	12,529
	안동시	1,326	5,219	117	-	6,335	12,997
	구미시	235	9,428	50	50	32,162	41,925
	영주시	593	2,408	10	-	2,088	5,099
	영천시	639	2,969	58	-	-	3,666
	상주시	1,040	1,510	102	-	11,474	14,126
	문경시	6,454	4,796	31	1465	-	12,746
	경산시	1,138	1,885	38	-	4,348	7,409
	군위군	265	400	7	-	4,698	5,370
	의성군	384	1,339	10	-	3,312	5,045
	청송군	2,855	245	10	-	-	3,110
	영양군	1,347	260	9	-	762	2,378
	영덕군	389	1,037	9	-	3,012	4,447
	청도군	1,359	190	14	-	81	1,644
	고령군	280	206	5	-	1,803	2,294
	성주군	545	1,344	12	-	1,806	3,707
	칠곡군	243	336	22	-	3,890	4,491
	예천군	294	1,197	5	-	2,136	3,632
	봉화군	2,174	150	5	-	28	2,357
	울진군	863	5,570	10	50	4,896	11,389
	울릉군	2,194	-	-	-	1,449	3,643
	소 계	34,246	55,998	975	5,625	107,313	204,157
경남	창원시	24,081	30,871	123	18	35,324	90,417
	진주시	5,249	3,158	3,264	-	125	11,796
	통영시	739	3,329	27	-	3,558	7,653
	사천시	6,045	9,632	67	-	384	16,128
	김해시	5,109	7,781	79	7	3,199	16,175
	밀양시	1,356	935	28	-	3,518	5,837
	거제시	732	1,404	24	-	5,966	8,126
	양산시	583	3,041	173	10	6,448	10,255
	의령군	216	689	-	-	861	1,766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¹
경남	함안군	435	-	-	-	18,452
	창녕군	1,417	1,750	17	-	4,278
	고성군	5,990	2,596	5	-	2,337
	남해군	521	424	38	20	13,405
	하동군	401	868	-	-	5,727
	산청군	319	135	-	-	4,455
	함양군	316	433	8	-	4,579
	거창군	1,985	1,247	17	-	4,248
	합천군	552	1,376	5	-	5,362
	소 계	56,046	69,669	3,875	55	122,226
						251,871

1. 2011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체육분야 최종예산

※ 기초자치단체 예산만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로 운영

4. 국민체육진흥기금

1) 설치근거 및 연혁

최초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 여건 조성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법률」(법률 제12336호, 1972. 8. 14)이 제정되어 1974년 1월 1일부터 운동장에 대한 체육 시설 입장료 부가금이 신설되면서 탄생하였다.

1972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설립(허가권자 : 문교부장관, 1972. 9. 23) 되었다. 1982년에는 「정부조직법」(법률 제3540호, 1982. 3. 20)의 개정으로 개정 법률에 따라 체육진흥업무가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이관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다. 현재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동법 제19조에 의거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다. 또한 1989년 4월 20일 국민체육진흥재단이 해산되고 올림픽잉여금 3,110억원 등 총 3,521억원의 발족기금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2) 기금 조성

가. 조성재원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회원제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배분되는 복권수익금, 경륜·경정사업 등에 따른 수익금,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따른 기금출연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시설물의 대여, 임대수입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나. 조성실적

현재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이익잉여금 3,110억원 등 발족기금 3,521억원을 기반으로 '89~'11년까지 6조 6,804억원을 조성하고, 3조 7,88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1년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1조 7,383억원이다.

표 2-37 기금조성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발족기금	조성금액	기금지원액	적립기금
'89~'11	3,521	66,804	37,887	17,383

3) 기금지원 실적

가. 지원 실적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표 2-38 기금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실 적													
		소계	'89~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37,887	4,947	2,708	1,031	1,243	1,726	1,526	1,747	2,291	2,367	2,578	3,860	5,295	6,568
국민 체육 진흥	소계	36,842	3,902	2,708	1,031	1,243	1,726	1,526	1,747	2,291	2,367	2,578	3,860	5,295	6,568
	전문 체육	18,679	2,396	2,324	522	603	829	420	443	556	667	896	1,585	3,204	4,234
	생활 체육	16,062	1,299	301	430	555	747	952	1,145	1,549	1,527	1,518	2,066	1,854	2,119
	학교 체육	2,101	207	83	79	85	150	154	159	186	173	164	209	237	215
청소년육성		774	774	-	-	-	-	-	-	-	-	-	-	-	-
올림픽기념		271	271	-	-	-	-	-	-	-	-	-	-	-	-

※ 전문체육 부문에는 월드컵경기장 건설비(2,103억원) 포함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1년 현재까지 국민체육진흥 3조 6,842억원, 청소년육성 774억원, 올림픽기념사업 271억원 등 총 3조 7,887억원이 지원되었다. 이 중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에 1조 8,679억원이, 생활체육에 1조 6,062억원, 학교체육에 2,101억원이 지원되었다.

나. 용자 실적

국민체육진흥과 한축을 이루고 있는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기금의 용자실적을 보면 체육시설업체에 1996년부터 2011년까지 472개 업체에 총 1,361억원이 용자되었고,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에는 1991년부터 2011년까지 128개업체에 213억원이 용자되었으며, 2006년부터 시작된 스포츠서비스업체에는 2011년말 현재 총 14개 업체에 36억원이 용자되었다.

표 2-39 스포츠산업용자실적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실 적											
	소계		'91~'07		'08		'09		'10		'11	
	업체수	용자액	업체수	용자액	업체수	용자액	업체수	용자액	업체수	용자액	업체수	용자액
계	616	169,005	508	3,209	44	12,182	28	9,050	28	8,073	28	7,491
체육시설업체	472	136,172	392	108,294	25	9,394	19	7,550	17	5,490	19	5,444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128	21,258	86	14,440	17	1,488	8	1,350	10	2,283	7	1,697
스포츠서비스업	14	3,575	8	1,475	2	1,300	1	150	1	300	2	350

4) 지원성과

지난 세월동안 우리나라 체육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위선양과 국민 사기진작 그리고 국민복지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체육정책에 따라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많은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견인차가 되어 왔으며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선도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서울올림픽잉여금 등 3,521억원을 기초재원으로 출발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그 동안 내실있는 조성과 운영을 통해 2011년말 기준 1조 7,383억원을 적립하였으며, 기금조성 기간 중에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육성 등 국민체육진흥분야에 3조 6,842억원, 청소년분야에 774억원, 올림픽기념사업에 271억원 등 총 3조 7,88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체육진흥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성과를 2011년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육복지 여건 조성이다. 생활체육 접근성 향상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학교·지자체·특수시설 등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학교기본체육시설, 레저스포츠시설 등 생활체육기반시설(1,344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의 체육인력·보급, 저소득층 스포츠 복지를 위한 체육바우처 지원, 각종 생활체육단체지원, 동호인 및 스포츠클럽 육성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육성사업으로 체육참여율 향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607억원)를 견인하고 있다.

둘째, 전문체육, 국제대회 지원으로 국위선양 및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 종합 4위라는 놀라운 성과 이후 각종 국제대회에서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온 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31개의 메달획득으로 종합순위 7위라는 역대 최대 성적을 거두었으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종합 5위,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종합2위 등 이런 우수한 성적 배경에는 후보선수 육성, 전문체육시설 확충, 소년체전 지원, 연금 및 체육장학금 등 체육인 복지향상사업을 꾸준히 지원해 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 2011년에는 우수선수 육성(58억원), 비인기종목활성화 지원(27억원),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지원(784억원), 학교체육활성화(132억원), 체육인복지사업(97억원)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제체육교류 증진을 위해 청소년체육교류, 국제체육교류에 1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대비 특별지원(57억원), F1대회(200억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365억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1,064억원)지원 등 국제대회 참가 및 유치활동(113억원)을 지원하였다.

셋째, 스포츠산업을 신규 유망산업으로 육성하였다. 국민체육진흥지원사업 이외에도 국내 열

악한 체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체(54억원) 및 우수체육용기구 생산업체(17억원), 스포츠서비스업체(4억원) 등에 체육산업 용자를 실시하였고 경정훈련원 건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등 기금조성투자사업(127억원)을 지원하였다.

넷째, 장애인체육을 진흥해 나가고 있다. 2006년 1월 장애인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現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과 아울러 장애인체육 정착 및 진흥을 위한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까지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액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원 6억원, 시각장애인생활체육 2억원 등 8억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전문체육분야(10억원), 생활체육분야(39억원)에 지원을 하여 장애인체육의 진흥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체육의 일대 전환기를 가져왔으며 2009년 완공된 이천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에 302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 종합 거점시설로써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2011년 각종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 장애인 생활체육 과 국제대회 지원 및 후보선수 육성 등 전문체육 지원에 270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기여가 기대되고 있다.

다섯째, 스포츠과학의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체육학회를 비롯한 분과학회의 학술활동 지원을 통해 스포츠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을 부설 기관화하여(現 체육과학연구원) 직접 운영함으로써 스포츠과학연구는 물론 체육정책개발 지원, 경기력향상 지원, 스포츠정보 전산화, 스포츠산업 기술지원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2011년 68억원 지원)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4절 체육관련 법제

1. 개 관

체육관련법은 특수한 법의 새로운 영역이 아니라, 실정법에 있어서 체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을 말한다. 체육관련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육법체계를 실정법체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법을 분류하는 데는 법의 형식이나 내용, 또는 효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의 수는 약 4,000여건으로 이런 법령은 형식에 따라서 피라미드식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 최상의 위치에는 헌법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밑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입법으로서 대통령령이 시행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총리령과 부령이 시행규칙으로서 존재한다. 이외에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법규가 밑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주체가 되고,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공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법을 말하며, 사법은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이 외에 공법과 사법에 걸쳐 법률관계가 규정되는 중간영역인 사회법이 있다. 이 사회법의 범주에는 보통 「사회보장법」, 「노동법」과 「경제법」 등을 들 수 있다.

체육관계법에 대한 분류는 주로 공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법률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 「수상레저안전법」 등도 특별법의 형태로 체육관계법에 속한다.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청소년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체육·스포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가진 법률들을 찾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법에서는 직접 스포츠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법」이나 「상법」 등의 법률은 단지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사고와 관련하여 그 주체가 사인이라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은 그 적용순서에 있어서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법에 있어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체육관계법」에서 일반법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며, 「한국마사회법」이나 「경륜·경정

법」 등 특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령은 시간적인 효력에 따라서 일반법과 한시법으로 분류한다. 보통 일반적인 법령은 절차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나, 한시법의 경우 유효기간을 부칙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처럼 명문으로 규정된 효력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우리나라의 체육관련법령은 체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겠지만 체육관계법은 대략 5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2. 체육관계법 현황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가.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 제정된 후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된 법률로서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총 6장 5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체육진흥의 기본이 되는 조장적 법으로서, 체육,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 운동경기부 등의 제개념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체육활동의 권장·보호·육성의무를, 제4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본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운동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호, 레크리에이션의 보급과 프 로경기의 건전 육성, 경륜·경정 등 여가체육활동의 건전 시행, 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을 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민체육진흥채원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구성과 사용을, 제5장에서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 단체의 육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2009년에는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개선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하도록 하되 5년간 한시적으로(2014년 12월31일까지)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으며, 2010년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과 구매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대상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를 추가하고, 체육진흥 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대상을 미성년자에서 청소년으로 조정

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대상별·기능별로 세분화 하였다. 자격검정을 거친 후 현장 중심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프로선수 포함)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 해주도록 조정하였으며,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 마련,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신설 및 자격취소 요건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또한,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및 관련 벌칙을 신설하였고,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와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대상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금지를 명확히 하였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등의 신고·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강화와 징역, 벌금의 병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1989년 3월 31일 제정·공포된 법률로서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민간체육시설업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총 5장 40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업으로 나누며, 민간체육시설을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사인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체육지도자 배치·시설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의 장에게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의무를 부가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해 동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은 양벌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 하였으며, 2010년에는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은 2007년 4월 6일 제정된 법으로서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에는 프로구단이 관객유치와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시설 사용·수익 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프로구단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다.

라.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은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법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마. 경륜경정법

「경륜·경정법」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으로서 “경륜 및 경정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국민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타보트 경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경륜·경정의 시행, 수익금의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발생하는 미환급금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하여 각종 체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년에는 「개별소비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입장료 징수 범위를 경주장에서 경주장 및 장외매장으로 수정하였다.

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은 2007년 12월 14일 제정 및 공포된 법으로서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최초 제정시에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이었으나, 그 후 2009년 개정을 통하여 광주광역시 유치한 2015년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명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변경하였다.

2011년도 주요 개정을 살펴보면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4년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변경하였고,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남북간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변경,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지원 근거 규정 신설, 국가적 차원의 대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 근거 명시, 대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총량 조정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였다.

전체 6장 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회조직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대회 관련시설, 휘장 및 유사명의 사용금지,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로서 우리 민족의 고유 무예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예 및 스포츠로 발전

시켜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체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등 태권도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효율적인 태권도공원의 조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 씨름진흥법

「씨름진흥법」은 2012년 1월 17일 제정된 법으로써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씨름의 날 지정 및 행사진행, 씨름 및 씨름시설의 지원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2년 1월 26일 제정된 법으로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3회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8장 9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위원회, 대회지원위원회, 대회관련시설,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운영,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차.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의안번호 1812063호 2011년 5월 30일 제안되어,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 진흥, 관련 산업 발전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행사인 바, 이러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서울올림픽대회,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개별입법 추진의 행정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대회 유치 절차와 관련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유치 신청서 제출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회 개최에 따른 재정소요를 고려할 수 있도록,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승인시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회 개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회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부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카.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은 2012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13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 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2) 규정과 예규

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1-26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04호)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은 관세법 제36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총8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후관리대상물품은 대한체육회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체육용품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후관리업무를 대한체육회에 재위탁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다.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26호)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체육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기준과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문화체육관광부고시 2009-25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의 지정대상업종·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우수업체 제품의 우선구매, 대한체육회 및 체육과학연구원의 기술지도, 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지정업체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1호)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규정」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립·운영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훈령으로 제정하였다.

바. 국제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07호)

「국제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규정」은 2007년 11월 22일 문화관광부훈령 제198호로 제정되었으며, 국제체육대회의 체계적·심층적인 타당성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국제체육대회 유치를 도모하고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단체 등이 국제체육대회를 유치·개최하기 위하여 정부 승인 또는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기금 내지 기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국제 종합경기대회, 월드컵 축구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연맹(IFs)에서 주최·주관하는 종목별 국제 경기대회로서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선수단(선수와 임원을 포함한다)이 참가하는 대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등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10개국 이상의 국가

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국제체육 관련 회의, 기타 중앙정부의 보증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로 제한하고 있다.

사.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은 1984년 2월 16일 제정된 규칙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연수, 자격검정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은 체육지도자연수원, 연수과정 및 교과, 연수계획의 수립 및 제출, 연수시행, 수료증 교부, 자격검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009년에는 일부 개정을 통하여 국내외 체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전의 루지봅슬레이 종목을 루지와 봅슬레이스켈레톤 종목으로 분리하고, 공수도·댄스스포츠·택전을 종목에 새로 추가하는 등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을 추가·분리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2010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3) 체육유관법령

가.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은 국민의 여가스포츠로서의 수상레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형적인 여가스포츠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2011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종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의 근거 마련과 조종면허 결격사유, 갱신기간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범위를 10해리로 확대하고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하도록 신설하였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의 보완·신설내용을 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개정하였고,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등록기준 완화, 수상레저사업자가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이용한 스포츠생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2011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을 ‘도시·군 계획’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다.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오늘날 사격은 스포츠경기의 한 종목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적 스포츠로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격은 총기를 사용하는 스포츠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관계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은 “사격과 사격장을 단속하여 공안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목적이 스포츠활동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법률로서 이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주요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서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말산업육성법

「말산업육성법」은 2011년 3월9일 제정된 법으로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말이용업”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승마장 및 승마장업과 업종구분이 불명확하여 행정절차 및 시설·안전기준 등이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2009년 6월9일 제정되어 마리나 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리나 항만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도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촉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법률로서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체육과 관련한 2011년 주요개정을 살펴보면 숲길의 정의를 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로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숲길의 종류를 신설하여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 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정의하였다. 또한, 등산로에 한하여 지원하던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 등산로를 포함하여 트레킹길(주요산의 둘레길과 트레일을 포함), 전국 또는 국제규모의 산악레포츠 대회에 필요한 산악레포츠길, 역사·문화적으로 복원할 가치가 있는 옛길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휴양·치유숲길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하였다.

아. 기타 법률

그밖에 체육관련 조문을 두고 있는 것에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다. 또한 그 외에도 스포츠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과 하천법」,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한 「조세법」 등 다양한 법률이 체육관련법에 해당된다.

Section

03

생활체육

- 제1절 개 관
- 제2절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제공
- 제3절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
- 제4절 직장체육활동 육성
- 제5절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 제6절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 제7절 생활체육 홍보
- 제8절 세계한민족축전



Section

03

생활체육



제1절 개 관

생활체육의 기본 철학인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의 이상은 1960년대 노르웨이의 트림(Trim) 캠페인에서 유래되었다. 이후 1975년 3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 각국 체육부장관 회의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유럽 헌장’이 채택되면서 생활체육은 사회운동과 국가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헌장에서는 스포츠 활동 참여가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최초로 천명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는 범세계적 생활체육 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생활체육운동은 체육 소외계층인 노인이나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3세계의 생활체육 환경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수행하면서 체육활동에서 불평등을 해소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눈부신 경제성장, 주5일 근무제 시행,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체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즉, 체육이 국위를 선양하는 활동이라는 인식 이외에 국민 누구나 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더욱이 생활체육이 고칼리 섭취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 문제 해결과 도시 산업사회의 병리현상으로 인한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 해소의 주요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국민의 체육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국민의 체력과 건강 유지 및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 정책 사업은 일곱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는데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주5일 근무제에 힘입어 주2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이 2008년 34.2%에서 2010년 41.5%로 7.3%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과 2008년 조사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체육 참여가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상황 악화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 받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 조사가 1998년 IMF사태 후 처음 이루어졌고, 2008년 조사도 9월 경제 위기설과 고용 불안 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고려할 때, 경제 상황 악화가 생활체육 참여율 감소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1 주2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활동 참여율 변화

(단위 : %)

년 도 별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8	2010
참 여 율	34.7	37.6	38.8	33.4	39.8	44.1	34.2	41.5

※ 2006년까지 3년 주기,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짐.

둘째,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지원 사업이다. 엘리트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동호인에게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인 국민생활체육회가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지원과 동호인행사 개최 지원 등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수와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2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수의 변화

년 도	클럽 수(개)	동호인 수(명)	인구대비비(%) ¹⁾
2002	52,020	1,776,604	3.7
2003	64,665	2,176,221	4.5
2004	73,802	2,449,948	5.1
2005	77,452	2,556,737	5.3
2006	82,781	2,701,736	5.6
2007	92,688	2,913,806	6.0
2008	95,075	2,985,253	6.2
2009	97,697	3,081,436	6.3
2010	97,815	3,085,879	6.3
2011	74,784	3,081,448	6.3

※ 1) : 2011년 말 추계인구 기준임.

그러나 2011년 생활체육 동호인 수가 2010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클럽 수는 2010년 97,815개에서 2011년 74,784개로 23,031개(23.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수와 동호인 수가 감소한 이유는 클럽 등록만 해놓고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 클럽들을 재정비하고 소규모 클럽들 간 통합을 통해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클럽수와 동호인 수만을 조사결과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수는 소프트볼, 프리테니스, 우드볼, 바둑, 럭비, 요트, 플라잉디스크, 특공무술, 댄스스포츠, 민속발리댄스, 전통선술, 이종격투기, 공수도, 피구, 생활무용, 건기 등 16종목의 인정단체를 포함해 2011년 말 현재 6,327개이다.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는 2009년부터 ‘인정단체’ 제도가 도입되어 연합회 결성 현황에 인정단체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2008년보다 연합회 종목 수 등이 크게 증가되었다.

표 3-3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결성 현황

전국 종목별연합회	사도 종목별연합회	시·군·구 연합회
2002 - 40종목	2002 - 63종목 (441개 연합회)	2002 - 84종목 (3,326개 연합회)
2003 - 44종목	2003 - 65종목 (524개 연합회)	2003 - 109종목 (3,847개 연합회)
2004 - 46종목	2004 - 67종목 (548개 연합회)	2004 - 109종목 (4,479개 연합회)
2005 - 46종목	2005 - 67종목 (565개 연합회)	2005 - 109종목 (4,814개 연합회)
2006 - 46종목	2006 - 69종목 (586개 연합회)	2006 - 109종목 (5,075개 연합회)
2007 - 46종목	2007 - 68종목 (582개 연합회)	2007 - 109종목 (5,089개 연합회)
2008 - 46종목	2008 - 72종목 (605개 연합회)	2008 - 115종목 (5,134개 연합회)
2009 - 59종목 (인정단체 9개 종목 포함)	2009 - 76종목 (628개 연합회)	2009 - 115종목 (5,603개 연합회)
2010 - 65종목 (인정단체 15개 종목 포함)	2010 - 76종목 (630개 연합회)	2010 - 115종목 (5,613개 연합회)
2011 - 66종목 (인정단체 16개 종목 포함)	2011 - 78종목 (688개 연합회)	2011 - 115종목 (6,327개 연합회)

셋째, 직장체육활동 육성 사업이다. 직장체육은 구성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여 노사화합과 생산성 제고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주요 영역이 되고 있다. 직장체육은 운동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근로자 개인의 건강증진과 여

가선용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노사 간 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권장되어 왔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지정하여 직장체육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직장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장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2011년 12월 말 현재 등록된 직장체육 동호인 클럽 수는 3,919개이며 회원 수는 430,71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수치는 70,865개 클럽에 회원 수가 2,650,705명인 지역체육동호인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직장체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넷째,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사업이다. 1975년 유럽 각국 체육부장관 회의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유럽 헌장’을 채택했는데, 이 헌장에서는 스포츠 활동 참여가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인종, 성, 연령, 경제적 수준, 사회적 계층, 신체적 능력 등에 의해서 체육활동 참여가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사회적인 안정과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 지원 없이도 스스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도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체육활동 소외계층에 초점을 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운동용구 지원과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다섯째,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사업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시설, 프로그램과 함께 생활체육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생활체육 참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도·관리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본적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의 보급을 위해 1974년부터 경기지도자 1·2급을, 1986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2·3급을, 1998년부터 운동처방사인 생활체육지도자 1급을 양성해 왔다. 국가 자격증인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의무고용제도와 자격 증명의 공신력에 의해 관련 분야 채용 및 개업에 활용도가 높다. 다만 유소년 및 노인·장애인에 대한 체육지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로 개편·시행 예정에 있다. 2011년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발급되는 종목은 모두 42개 종목으로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권투,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리듬체조,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이 이에 해당한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취득과정에서 연수와 필기·실기·구술 등의 검정이 이루어지며, 연수는 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학교, 체육·경기단체 등에서, 자격검정은 장관이

지정한 학교, 체육경기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1년 12월말까지 정부가 배출한 생활체육 지도자는 1급 826명, 2급 7,933명, 3급 148,588명 등 총 157,347명이다.

표 3-4 등록·신고체육시설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구분	2007			2009			2011		
	시설 개수	배치 대상	배치 인원	시설 개수	배치 대상	배치 인원	시설 개수	배치 대상	배치 인원
등록	295	246	287	361	282	339	439	303	411
신고	45,505	19,913	23,594	53,490	20,151	24,433	56,368	20,906	24,385

여섯째,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 사업이다. 생활체육에서 홍보사업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하여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 사업에서는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생활체육 홍보와 정보 서비스 사업은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정보전달 매체로서 대중화된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한 홍보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 사업의 운영 방향도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 동기 유발 위주에서 생활체육 참여를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추진되고 있다. 특히 IT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활용 사업 분야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일곱째,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 사업이다. 글로벌 시대에서 세계 도처에 진출해 있는 수백만 해외동포들에게 조국에 대한 긍지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계한민족축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축전은 체육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며 해외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한민족을 단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제2절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제공

1. 시·도 생활체육교실

시·도 생활체육교실은 「스포츠교실」운영 1만 개소 확대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선호 종목을 중심으로 학교체육시설, 체육공원 등 근린생활체육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활체육교실은 소규모 지역단위로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의 일상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활체육교실은 2002년 3,208개소를 시작으로 2011년 3,901개소가 운영되었다.

시·도 생활체육교실사업 예산은 2009년까지 정부에서 30%, 지방자치단체에서 70%를 분담하며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실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기에 2010년부터는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관되었다. 따라서 2010년 시·도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은 2009년까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2009년 운영 현황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2011년 시·도 생활체육교실은 3,901개소가 운영되었는데, 이는 2009년 대비 8%, 2010년 대비 6%가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부터 생활체육교실사업이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011년 충청남도에서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수

연도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2	3,208	561	110	80	90	127	98	81	564	145	164	176	290	195	217	234	76
2003	3,261	561	151	76	85	132	98	81	575	145	164	176	299	195	217	234	72
2004	3,374	561	220	80	92	125	98	80	544	145	165	209	316	198	217	248	77
2005	4,241	1,172	227	270	107	125	144	82	539	156	192	209	248	195	217	300	58
2006	3,915	745	252	270	83	113	98	80	562	168	207	209	248	195	233	377	75
2007	3,946	808	154	277	97	109	116	87	595	180	186	236	248	195	194	396	68
2008	3,886	599	227	286	96	113	158	87	509	154	206	212	359	195	237	395	53
2009	4,205	975	276	263	97	154	107	87	607	143	203	137	309	186	233	380	48
2010	4,146	1,272	204	187	285	126	126	87	403	153	226	-	320	64	271	377	45
2011	3,901	961	195	162	367	122	150	86	245	117	213	-	550	48	285	381	19

2. 생활체육광장

생활체육광장은 지역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기초적인 참여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육활동의 생활화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며, 지역 주민의 체력향상 및 이웃 간 이해증진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의 화합과 건전한 여가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광장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체육광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11년 9월까지 전국 518개소에 생활체육광장 지도자가 배치되어, 매일 아침 또는 저녁시간대에 약수터, 공원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현장에서 약 6개월(4월~9월) 동안 지속 운영되었다. 2011년 생활체육광장은 518개소에서 56,644회가 추진되었으며, 180만 명이 넘게 참여하였다. 2010년부터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2009년까지는 정부의 예산과 지방비를 통해 추진된 사업실적이 모두 포함된 반면, 2010년부터는 지방비로 추진된 사업실적은 제외하고 정부의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실적만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생활체육광장은 2010년 520개소에서 74,924회 운영되었으며 총 280만 명이상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518개소에서 56,644회 운영되었으며 총 180만 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2011년 사업추진 실적이 2010년보다 저조한 이유는 예산 축소(1억 8천만 원)에 따른 생활체육광장 운영 개소수와 사업 기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생활체육광장의 기본 프로그램은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준비체조와 선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체조로는 태권, 스트레칭, 민속생활체조(가슴을 열자, 덩더꿍 체조, 민속 에어로빅스)를 지도하고 있으며, 선택 프로그램으로는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 에어로빅, 족구, 테니스 등 지역실정 및 장소에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 중 참여자가 희망하는 종목을 지도하고 있다. 생활체육광장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마나 태풍 등 기후에 따라 참여 인원이 유동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생활체육 참여 확산의 중심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 3-6 생활체육광장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업실적	개소 수	500개소	500개소	500개소	500개소	520개소	520개소	520개소	520개소	518개소
	회수	142,816회	137,074회	140,892회	142,672회	157,322회	166,180회	88,609회	86,363회	74,924회
	참가인원	5,370,996명	4,703,464명	4,943,438명	5,029,846명	5,452,284명	5,955,670명	4,818,484명	4,750,232명	2,822,325명

※ 2010년도부터는 지방비로 운영된 사업실적 제외

3. 국민체력인증 시범사업 운영

1) 추진배경 및 경과

국민체력인증사업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하고 체력이 인증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공인된 인증기관이 체력을 인증(award)하는 체육복지 서비스이다. 국민체력인증사업은 ‘인증(체력상)’이라는 도전적 모티브를 체육활동 참여 유인책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증대시키고, 건강한 체력에 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해 주며 개인 체력수준 맞춤형으로 전문가가 처방해 준 운동처방 프로그램에 기반 해 체육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체력 및 건강증진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민체력인증사업은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체력수준이 저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초단기 고령사회 진입 및 국민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등 사회간접비용의 지속적 증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과학적 체력관리 비율이 4.6%에 불과하며, 국가에서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율이 80%로 매우 높고 국민의 68.6%가 체력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는 국민의 요구에 입각해 추진되었다.

국민체력인증사업의 시초는 2005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입각해 청소년의 체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청소년체력인증제 운영 및 기준개발 연구이다. 이후 국민체력인증제라는 명칭으로 사업의 기본계획 등의 연구가 수행되다가 국민생활체육진흥의 정책 사업으로 2010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2010년 만 19세~64세 성인 대상 체력인증기준 및 운동처방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국민체력인증사업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가 수행되어 국민체력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1년 국민체력인증 시범사업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2011년 12월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에 ‘국민체력사업팀’을 신설하여 국민의 국민체력인증사업 참여 기회 확대와 참여의 질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사업 운영 현황

국민체력인증 시범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거주 지역의 거점센터 홈페이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한 후 거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체력측정에 임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다만, 단체 체력측정 등의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체력을 측정하는 방식도 운영되었다. 체력 측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자신의 체력평가 결과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에 의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이 처방되었으며, 처방된 프로그램은 인쇄물과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제공되었다.

국민체력인증 시범사업은 2011년 8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개월간 서울종로구구민회관, 부산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광주북구국민체육센터, 대전구죽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되었다. 시범사업 4개월 간 사업 준비 및 사업 정리 기간 1개월을 제외하고 실제 체력측정이 이루어진 3개월간 4,583명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국민체력인증사업의 체력 측정항목은 신체조성, 건강체력, 운동체력 분야의 8개 항목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건강체력 요인과 운동수행에 필요한 운동체력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표 3-7 국민체력인증 시범사업의 체력측정 요인, 측정항목, 측정방법

구 분	요 인	측정항목	측 정 방 법
체 격	신체조성	신체질량지수, 체지방률	신장, 체중 측정
체 력	건강체력	근 력	상대악력
		근지구력	교차윗몸일으키기/윗몸말아올리기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운동체력	민첩성	왕복달리기
		순발력	제자리멀리뛰기

국민체력인증사업은 국민이 체력 및 건강상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속적 체육 활동 참여와 체력 및 건강 증진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 국민체력 인증사업의 참여 유인을 위한 기재로서 체력측정 결과를 토대로 인증단계별 인증상을 수여하였으며, 참여 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인 이외에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뿐 아니라 참여의 질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3-8 국민체력인증사업의 인증단계 및 수상기준

구 분	인증단계	수 상 기 준
체력인증수상	금 상	5개 검사기록이 모두 상위 30% 이내(신체조성 제외)
	은 상	5개 검사기록이 모두 상위 50% 이내(신체조성 제외)
	동 상	4개 검사기록이 모두 상위 70% 이내 (체지방률 또는 BMI가 건강 권장 범위일 때)
	참가증	기타 참가자 (위 수상기준 미달자)
신체조성건강 권장범위	남 자	7% < 체지방률 < 25% 또는 18 < BMI < 25
	여 자	16% < 체지방률 < 32% 또는 18 < BMI < 25

4.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1) 어린이체능교실 및 청소년체력교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과 발달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6개 시도와 해당 지역 생활체육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2011 어린이체능교실은 서울, 경기, 경북, 제주 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231,489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청소년체력교실은 서울, 대전, 경기, 경북, 제주 지역을 제외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123,394명이 참가하였다(표 3-9 참조).

2) 장수체육대학 및 여성생활체육강좌

스포츠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인과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방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장수체육대학은 서울, 경기, 대전, 경북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466,854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여성생활체육강좌는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충남, 경북을 제외한 10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445,953명이 참가하였다(표 3-9 참조).

3) 레크리에이션교실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에 놀이적 요소를 가미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건강한 신체와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수용시설 및 복지관 등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생활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보급함으로써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1년 레크리에이션교실은 부산,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249,983명이 참가하였다(표 3-9 참조).

4)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이 사업은 클럽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하고 상호우의를 증진하며 협동심을 배양함과 동시에 대회참가를 통한 성취감과 사회성 발달을 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종목별연합회 주관으로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선수등록 사실이 없는 만 13세~19세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학생 및 근로청소년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여 청소년이 선호하는 종목 중 2종목을 선정하여 클럽 간 대항전을 개최하고 있다. 2011

년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18,505명이 참가하였다(표 3-9 참조).

5)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직장의 체육담당자에게 직장체육 운영방법 등과 같은 전문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직장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직장, 지역체육지도자, 직장체육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종목의 개발과 체험 등을 통해 체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11년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는 부산, 인천, 충북, 전남 등 4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212명이 참가하였다(표 3-9 참조).

표 3-9 2011년 지역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 현황

(단위 : 명)

프로그램 지 역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체육대학	여성생활 체육 강좌	레크리 에이션 교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직장체육 지도자 강습회
부 산	16,811	6,612	60,884	-	202	1,360	70
대 구	32,184	13,624	1,349	1,287	-	1,570	-
인 천	27,856	3,005	115,222	265,584	73,126	1,071	11
광 주	1,690	2,630	10,358	24,747	1,500	-	-
대 전	6,240	-	-	19,726	-	2,130	-
울 산	1,236	1,363	6,426	-	-	-	-
강 원	69,110	20,726	107,399	35,125	-	-	-
충 북	5,834	2,268	30,344	21,888	920	3,960	100
충 남	2,290	1,760	3,240	-	-	1,340	-
전 북	3,410	8,547	10,714	24,780	151,493	3,140	-
전 남	12,384	13,265	12,131	5,732	21,357	1,500	31
경 남	52,444	49,594	99,537	33,434	1,325	2,434	
제 주	-	-	9,250	13,650	60	-	
합 계	231,489	123,394	466,854	445,953	249,983	18,505	212

6) 기타 생활체육 프로그램

2010년부터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전액 지방비로 추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서울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종목별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며, 걷기, 게이트볼, 농구, 수영, 태권도 등 35개 종목에 걸쳐 총 1,714,328명이 참가하였다.

표 3-10 서울시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 현황

(단위 : 명)

종목	참가인원	종목	참가인원	종목	참가인원
걷기	3,162	배구	35,910	전통무예	8,414
검도	7,745	배드민턴	36,260	족구	4,448
게이트볼	35,777	밸리댄스	16,798	차밍스쿨	26,580
골프	7,696	볼링	7,435	축구	79,400
국선도	40,820	생활체조	121,891	탁구	24,261
농구	6,961	수상스키	30	태권도	19,965
단전호흡	76,354	수영	4,412	테니스	11,690
단학기공	64,922	스쿼시	0	포켓볼	1,215
당구	5,896	에어로빅	905,188	풋살	53,427
레슬링	88	요가	57,469	헬스	2,810
마라톤	3,852	인라인	11,235	스키	160
발레	17,708	자전거	14,349		
운영 종목 수(개)	35				
참가 인원(명)	1,714,328				



제3절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

1.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동호인클럽은 생활체육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를 효율화하며 합리적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핵심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동호인클럽 육성을 위해 전국종목별연합회를 지원 및 육성하고 있다. 전국종목별연합회는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의 연합체로서 지역 간 및 클럽 간 체육교류활동을 가능케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종목별연합회 발전은 동호인클럽 육성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인구를 확대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사업은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동의 구심체인 전국연합회를 육성·지원하여 「국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구심단체로서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사업의 운영 방침은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클럽 활동의 구심체를 확대하고, 신규종목별연합회 결성을 유도하며, 동호인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전국규모대회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동호인클럽의 체계적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전국연합회가 재정 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52개 단체(축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자전거, 스케이팅, 윈드서핑, 탁구, 테니스, 족구, 배구, 사격, 궁도, 스키, 스킨스쿠버, 볼링, 태권, 생활체조, 풋살, 합기도, 패러글라이딩, 정구, 보디빌딩, 승마, 줄다리기, 야구, 농구, 국무도, 골프, 당구, 검도, 태권도, 국학기공, 등산, 씨름, 인라인스케이팅, 낚시, 철인3종, 수영, 우슈, 스쿼시, 종합무술, 라켓볼, 하키, 익스트림게임즈, 인라인하키, 그라운드골프, 줄넘기, 핸드볼, 파크골프 외 향후 추가될 2개 단체)이며, 주요 지원 사업은 종목별연합회의 사무처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이며, 신규 전국종목별연합회 결성 확대 및 활성화 지원 등이다.

주요 지원 사업은 종목별연합회의 전국규모대회, 종목별 초보자 및 지도자 강습회 등이다. 또한 전국종목별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지도사업으로 전국연합회 결성 종목의 시도연합회 확대 결성 유도, 전국연합회 사무처직원 실무교육 실시, 전국연합회에 대한 업무지도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신규 동호인클럽 결성 확대를 위해 국민 참여도가 높은 종목, 향후 동호인 확산이 충분히 예상되는 종목, 자연친화 및 극기 종목, 레저스포츠를 확대 지원하여 육성해 나가고 있다.

이 사업의 지속적 운영으로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의 중심체인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행·재정적인 측면에서 크게 발전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동호인클럽이나 종목별연합회는 선진국의 스포츠클럽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자생력이 미흡하고 그 역할과 기능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2. 생활체육대회 개최

1)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체육활동 참여자에게 자신의 기량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체력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 만족스러운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유인책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은 생활체육의 지속적 참여를 격려하는 강력한 동기부여 사업이 되고 있다.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사업은 전국종목별 동호인 행사를 지원하여 체육의 생활화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종목별 동호인 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동호인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전국 대회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사업은 전국연합회별 동호인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지방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지역 분산 개최를 권장하며, 종목별 지역동호인클럽의 신규 육성 및 친선 교류 기회가 확대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은 전국 일원에서 종목별로 연중 개최되며 전국종목별연합회가 주관하여 대회를 운영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대회운영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종목별 장관기 대회는 시도 지역예선을 거쳐 시도 대항전 경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종목 특성상 시도 대항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클럽대항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은 48개 종목 127개 대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규모는 122,613명 이었다.

표 3-11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사업추진 실적

구 분 \ 년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회 종목 수	21종목	40종목	42종목	43종목	43종목	45종목	46종목	46종목	50종목	48종목
대회 수	21회	121회	124회	123회	128회	129회	124회	133회	122회	127회
참가규모	21,067명	82,236명	87,031명	99,547명	118,789	125,113명	132,754명	110,635명	124,520명	122,613명

2)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은 16개 시·도가 함께 하는 축제로서 2001년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축전’이란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1년에 한번 전국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서 동호인 개개인의 명예와 성취감 고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및 계층 간 우정과 화합을 통한 국민통합 기회를 마련하며 생활체육 실천으로 개인적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은 체육,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종합축전으로 개최되며, 언론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국제 생활체육 교류행사와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추진되고 있다. 매년 각 시도별로 순회 개최되며 체육경기 외에 다양한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한 지역문화행사와 지역문화축제, 내 고향 특산물 전시회, 뉴스포츠 체험, 온가족 함께 걷기대회, 지역 명소 탐방, 이동건강검진센터 등 각종 부대행사가 열린다. 이외에도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생활체육 세미나가 개최된다.

표 3-12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현황

장소	기간	참가인원	실시종목
인천광역시	10.28~10.30	6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27,055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종목(41개) : 축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정구, 탁구, 테니스, 볼링, 족구, 배구, 검도, 생활체조, 자전거, 야구, 농구, 당구, 합기도, 풋살,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보디빌딩, 태권도, 등산, 인라인스케이팅, 국학기공, 낚시, 씨름, 택견, 줄다리기, 궁도, 철인3종, 골프, 사격, 승마, 윈드서핑, 라켓볼, 스쿼시, 국무도, 그라운드골프, 축구(대학), 농구(대학) - 장애우종목(6개) : 탁구, 배드민턴, 볼링, 테니스, 게이트볼, 당구 - 전시종목(4개) : 우수, 론볼, 파크골프(장애인 종목), e-스포츠경기

3)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대회로서 2007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대한노인회 노인건강축제와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16개 시도에서 참가한 종목별 동호인 경기와 통합하여 게이트볼 등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회의 목적은 노인의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견인함으로써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 대회는 생활체육,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종합대회로 추진되며, 시도 대항전으로 진행되

는 종목별 경기를 비롯해 문화·부대행사와 연계된 예술단체 공연, 지역문화 축제(풍물놀이, 예술제 등), 내고향 특산물 전시회 및 먹거리 장터, 실버용품 전시회, 지역 명소탐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3-13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 현황

년도	기간/장소	참가인원	실시종목
2007	9.18~20 (경북 경주시)	1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5,207명 포함)	-10종목 • 게이트볼,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2008	9.8~10 (경기도 수원)	1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7,243명 포함)	-13종목 • 게이트볼 I, II,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장기, 바둑
2009	9.9~11 (인천광역시)	1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8,023명 포함)	-15종목 • 게이트볼 I, II,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당구, 등산, 장기, 바둑
2010	9.29~10.1 (전라북도 익산시)	1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8,00명 포함)	-17종목 • 게이트볼 I, II,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당구, 등산, 장기, 바둑, 낚시, 그라운드골프
2011	9.21~23 (대전광역시)	10,000여명 (16개 시도 선수 및 임원 8,000명 포함)	-17종목 • 게이트볼 I, II,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당구, 등산, 장기, 바둑, 낚시, 그라운드골프

3. 동호인 리그

1)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

이 사업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다세대·다계층이 참여하는 동호인스포츠클럽을 조직·운영함으로써 국내 스포츠시스템 선진화 및 평생체육 기틀을 마련하고, 학교스포츠클럽과 기존 동호인클럽 간 연계를 통한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선진화된 종합형 스포츠클럽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1년 신규로 시작된 이 사업은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동호인클럽 선정 및 운영, 스포츠클럽 인력풀 구성 및 운영, 각종 대회 및 리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4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실적

운영개소	운영횟수	참가인원	지도자수	동호인 등록 현황
80개소	43,616회	1,083,504명	509명	74,784개 클럽 3,081,448명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시도 종목별대회 지원과 동호인클럽 등록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호인클럽 등록 업무는 지역에 배치된 동호인클럽 전담지도자가 시·군·구 생활체육회 및 시·군·구 종목별연합회에 등록된 클럽현황을 취합하여 매월 중앙협의회 주전산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11년 인구 대비 동호인클럽 회원 수는 6.3%이며, 축구가 521,2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체조 165,027명, 배드민턴 152,523명, 테니스 122,022명, 게이트볼 119,973명, 탁구 101,799명 순으로 많았다.

표 3-15 시도 종목별대회 지원 실적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 회 수(회)	409	385	376	441	592	738	385	458	482
참가인원(명)	175,861	179,433	180,767	208,834	303,862	325,868	249,929	236,332	152,691

표 3-16 인구 대비 동호인클럽 현황

(단위 : 명, 개)

지역	구분	인구수	계		지 역		직 장	
			클럽 수	회원 수(%)	클럽 수	회원 수	클럽 수	회원 수
계		48,988,833	74,784	3,081,448(6.3)	70,865	2,650,700	3,919	430,718
서울		10,038,905	6,685	422,341(4.2)	6,285	354,825	400	67,516
부산		3,420,679	3,295	156,352(4.6)	3,013	101,666	282	54,686
대구		2,417,943	3,846	129,627(5.4)	3,566	114,047	280	15,580
인천		2,675,476	3,735	173,684(6.5)	3,693	163,823	42	9,861
광주		1,451,394	4,532	208,651(14.4)	4,394	188,603	138	20,043
대전		1,523,840	1,931	237,472(15.6)	1,882	163,948	49	73,524
울산		1,097,354	3,062	99,083(9.0)	2,965	87,330	97	11,753
경기		11,817,528	10,702	322,976(2.7)	10,233	299,884	469	45,092
강원		1,433,625	4,896	153,790(10.7)	4,589	126,685	307	27,105
충북		1,477,089	4,988	144,838(9.8)	4,780	135,668	208	9,170
충남		1,965,578	3,600	160,298(8.2)	3,293	140,929	307	19,369
전북		1,682,992	3,386	225,539(13.4)	3,124	206,763	262	18,776
전남		1,718,450	5,320	135,511(7.9)	4,839	114,889	481	20,622
경북		2,576,901	5,011	173,303(6.7)	4,773	149,982	238	23,321
경남		3,143,687	7,363	241,931(7.7)	7,086	232,816	277	9,090
제주		547,392	2,432	74,052(13.5)	2,350	68,842	82	5,210

※ 인구수는 2011년 말 기준 추계인구수이며, 괄호 안은 인구대비 회원 수 비율임.

표 3-17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현황

종목	클럽 수(개)	회원 수(명)	종목	클럽 수(개)	회원 수(명)
계	74,784	3,081,448	택견	582	20,916
검도	1,512	60,046	테니스	3,348	122,022
경당	26	516	패러글라이딩	414	9,731
게이트볼	4,473	119,973	풋살	1,647	53,690
골프	692	18,255	피구	141	5,775
궁도	610	21,985	필드하키	45	2,041
그라운드골프	585	19,721	합기도	1,495	85,768
기공	108	3,078	항공스포츠	17	1,509
낚시	369	9,597	핸드볼	29	1,027
농구	1,704	33,807	헬스	0	0
단전호흡	99	4,978	행글라이딩	24	1,308
단학기공/법륜공	0	0	MTB	201	10,128
당구	855	29,346	X-게임	93	4,308
댄스 스포츠	1,373	43,139	스포츠글라이딩	15	125
등산	1,149	53,747	캠핑	42	3,446
라켓볼	117	4,114	인라인하키	26	1,549
력비	20	837	국무도	166	5,794
레크리에이션	146	11,723	아이스하키	16	444
롤러스케이팅	17	284	철인3종	0	0
무에타이	67	2,361	부메랑던지기	5	125
미식축구	23	440	레포츠	39	2,048
배구	2,582	57,028	레슬링	7	441
배드민턴	3,468	152,523	론볼링	21	1,130
보디빌딩	773	39,678	민속경기	157	11,923
복싱	244	6,047	생활무술기공	10	230
볼링	3,464	73,924	전통무예	21	1,004
사격	186	4,357	우드볼	31	1,468
사이클	40	3,098	열기구	6	314
생활체조	4,331	165,027	양궁	31	516
석궁	5	147	해동검도	24	1,390
소프트볼	110	4,223	레저복싱	5	195
수상스키	63	3,461	클라이밍	50	1,396
수영	1,198	56,213	격투기	122	4,940
스케이팅/빙상	97	3,867	기천문	6	239
스쿠버다이빙	0	0	킥복싱	52	1,015
스쿼시	406	19,513	활기도	5	247

종목	클럽 수(개)	회원 수(명)	종목	클럽 수(개)	회원 수(명)
스키	226	10,506	오리엔티어링	0	0
스킨스쿠버	254	6,890	파크골프	265	6,697
승마	219	7,228	보치아	3	79
서바이벌	57	2,877	경비행기	4	112
씨름	415	19,241	걷기	371	37,356
야구	2,728	70,992	법률대법	28	899
에어로빅	888	29,168	프리테니스	125	3,183
역도	23	485	인라인스케이팅	796	25,242
요가	937	38,315	펜싱	25	1,335
요트	59	1,212	특공무술	88	5,278
우슈/궁포	307	9,687	경호무술	56	1,845
윈드서핑	94	1,893	무예24기	0	0
유도	249	9,222	궁수도	23	2,727
육상/조깅마라톤	387	25,314	아쿠아빅스	0	0
자전거	780	26,783	건강달리기	1,498	67,903
전통무용	302	9,327	국선도	50	3,494
정구	507	14,589	모터스포츠	14	346
족구	3,201	60,849	바둑	212	8,471
줄넘기	586	22,084	스포츠마사지	4	76
줄다리기	214	7,524	국학기공	1,453	68,551
종합무술	277	10,105	벨리댄스	135	4,133
철인3종	161	5,890	세팍타크로	5	47
축구	9,354	521,243	싱크로빅스	6	169
카누	113	5,293	열기구	0	0
탁구	3,355	101,799	음악줄넘기	43	2,266
태권도	2,380	81,557	기타	1,615	351,496
태극권	87	4,415			

2)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은 생활체육의 지속적 참여를 보장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자발적 생활체육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종목 간 연계와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종목별 클럽리그제 사업의 목적은 종목별 동호인 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직장 간 교류 활동의 정례화와 종목별 동호인클럽의 지속적인 교류 촉진을 통한 동호인 참여 확산에 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운영종목의 확대를 유도하고 전국 종목별 동호인이 참가하는 동호인 축제로 운영되고 있다.

종목별 클럽리그제에는 10종목(축구, 탁구, 족구, 야구, 볼링, 풋살, 농구, 당구, 스쿼시, 라켓볼)이 포함되어 있다. 리그운영은 각 종목별 시도 리그 후 결승전을 치루는 방식으로 2011년에는 14,539개 클럽, 316,669명의 동호인이 참가했다.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은 해당 종목 동호인의 저변확대, 클럽활동 활성화, 지역 클럽간의 교류 정례화 등으로 생활체육 붐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생활체육 종목별 클럽리그가 전문체육의 정규리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기단체의 관심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전문체육의 종목별 정규리그와의 연계 운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정규리그를 1부, 2부, 3부 리그 등으로 구분하여 동호인클럽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직장리그와 동호인 한마음리그는 2006년부터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에 통합되어 가고 있다.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각 단위사업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체육의 구심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국민체육진흥정책은 국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체육진흥을 도모해 나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체육진흥정책 방향에 비추어볼 때,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은 국민들에게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를 통해 자율적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구심점이 되고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은 생활체육진흥의 핵심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4절 직장체육활동 육성

1.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은 전국의 직장·단체 등을 지도자가 직접 순회 방문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함으로써 직장체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직장·단체를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도·보급함으로써 생활체육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생활체육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참여방법을 알려주고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해주며, 개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권장·지도하여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의 지도내용은 생활체조(가슴을 열자, 덩더꿍 체조, 민속에어로빅스, 태권, 스트레칭), 레크리에이션 체조(차차차, 포크댄스, 자이브 등), 직장 및 가정 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 및 체조, 배드민턴, 탁구, 배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직장·단체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과 여성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보급되고 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시도별로 고정 배치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순회 지도를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각 시·도의 직장·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직장·단체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직장·단체를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체육활동 서비스를 전개함으로써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직장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직장·단체의 자발적 참여 의사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체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홍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은 2003년까지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제도가 없어지고, 이 사업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에 통합 및 운영되고 있다.

표 3-18 2011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실적

(2011년 12월말 기준)

시 · 도	운영개소	참여인원(명)	지도횟수(회)
합 계	24,746 개소	11,040,994	587,887
서 울	서대문구문화체육관 등 712개소)	1,003,420	45,869
부 산	시민체력센터 등 368개소	714,206	32,004
대 구	성서실내게이트볼구장 등 274개소	395,580	23,448
인 천	신포동 주민자치센터 등 3,687개소	358,424	21,931
광 주	전남대학교체육관 등 246개소	416,859	21,640
대 전	국민생활관 등 359개소	555,293	38,255
울 산	항교게이트볼구장 등 175개소	459,734	18,972
경 기	팔달구민센터 등 10,498개소	1,469,485	68,084
강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339개소	758,787	41,202
충 북	충주체육관 등 2,617개소	532,104	25,525
충 남	수정아동센터 등 572개소	555,922	33,701
전 북	인봉초등학교 등 2,619개소	548,426	27,318
전 남	올림픽기념관 등 428개소	1,008,452	82,659
경 북	국민체육센터 등 329개소	966,077	44,324
경 남	마산주민자치센터 등 541개소	1,124,714	55,583
제 주	전천후게이트볼구장 등 982개소	173,511	7,372

2.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직장체육진흥의 핵심 과제는 직장 동호인클럽을 육성 및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직장 내 동호인클럽 육성은 연중 지속되는 직장 동호인클럽 전국리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는 2005년까지 ‘직장 동호인클럽 전국리그’ 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06년부터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사업의 목적은 직장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유도하고 동호인 클럽간의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직장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은 직장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시·군·구 리그 → 시·도 리그(풀 리그전) → 결승전으로 운영을 유도하며, 전국 또는 지역 스폰서십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절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생활체육 나눔 운동)

1.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사업은 소외계층의 건전한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지도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2005년까지 ‘소외계층 운동용구 보내기’와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06년부터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 통합 및 운영되고 있다. 2009년도에는 불우청소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불우청소년생활체육 체험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불우청소년 대상 ‘행복 나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 소외계층 운동용구 보내기

정부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소외계층에게 운동용구를 지원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여가선용 여건을 조성해 주고, 명량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운동용구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단체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근거로 선정하고 있다. 운동용품 지원 품목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거나, 대상별 희망 용품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및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운동용품 지원 대상 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지원 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순회 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표 3-19 소외계층 용구지원 추진 실적

연 도	지원 대상	지 원 내 용
2011	지역아동센터	400개소 6종 8,800점
	노인시설	426개소 4종 3,408점
	중증장애인작업시설	180개소 4종 667점
	부랑인시설	37개소 5종 185점
	사회복지시설	125개소 7종 1,255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8개소 4종 632점

2011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1,326개소(지역아동센터 400개소, 노인시설 426개소, 중증장애인 작업시설 180개소, 부랑인시설 37개소, 사회복지시설 125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8개소)에 운동용구가 지원되었으며, 그 동안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2)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생활체육 활동 대상에서 소외되기 쉬운 불우청소년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생활체육 소외계층에게 폭넓은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이 사업은 시도 생활체육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종목과 쉽게 배울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참여자가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시·군·구 생활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스키(캠프), 축구, 스케이트, 탁구, 야구, 농구, 인라인스케이팅, 핸드볼, 인라인하키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종목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일정은 시도 및 시·군·구 실정에 따라 정해지며, 동계 방학기간에 집중 운영되고 기간은 2박 3일 일정으로 4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2.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사업은 우리사회 구성원 중 하나인 다문화 가정의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다민족 및 다문화 사회의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과 일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인 융화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2006년에 시작되어 2008년까지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 체육행사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이 지속 확대되고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2009년부터는 다문화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1년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이 130개소에서 5,841회 운영되었고, 어울림축제가 16회 개최되어 9,460명이 참가하였으며, 어울림캠프가 130회 개최되어 6,320명이 참가하였다.

표 3-20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실적

연 도	사 업 추 진 실 적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운영 : 16개소 299회 7,228명 • 생활체육캠프 개최 : 16회 1,106명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운영 : 100개소 4,790회 78,426명 • 어울림축제 개최 : 15회 7,590명 • 다문화지도자교육 : '10.6.30~7.1, 189명(천안상록리조트)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운영 : 130개소 5,841회 108,630명 • 어울림축제 개최 : 16회 9,460명 • 다문화교실 지도자교육 : 260명('11.05.26~27, 덕산스파캐슬) • 어울림캠프 개최 : 130회 6,320명



제6절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1.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란 일종의 체육지도자 뱅크(bank)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각급 연수원을 통하여 정부에서 배출한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와 지역 내 체육지도 가능 인력들의 정보를 수집 보관하여, 체육지도자가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에 적절한 지도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의 수요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다.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 사업은 체육지도 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방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기관과 지도자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등록된 지도자의 현장 배치를 주선하며 생활체육지도자 개별등록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 언론매체(소식지, 인터넷)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생활체육 지도자 구직 구인란)를 지도자 관리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연중 지속 운영되며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고 있다.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 등록대상은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 현장지도자, 경기지도자, 체육 관련학과 학생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의 전국적 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체육지도가 가능한 인력을 파악하여 부족한 지도 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양질의 지도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및 배치의 효율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12월말까지 체육지도자 자격 검증 시험에 합격하여 2012년 4월말까지 자격증을 수령한 체육지도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표 3-21)과 같다.

표 3-21 체육지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1급	2급	3급
생활체육지도자	157,347	826	7,933	148,588
경기지도자	26,462	910	25,552	

※ 자료 : 체육과학연구원(2011), 경기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2.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각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육성할 유자격 지도자를 행정 구역별로 배치 운영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국민의 생활체육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며 청년층 체육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관련 업무는 시·도 생활체육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공정한 채용 계획과 절차를 통해 우수한 지도자원을 확보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근무지는 시·군·구 생활체육회가 관리·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도자 관리 및 활동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정식 유급 직원으로 연중 배치되어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생활체육 현장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년 단위로 고용 계약을 하는 지도자 외에도 시간제(Part-Time) 생활체육지도자 등을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다(지역별 배치 현황은 제10장 참조). 이 사업은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젊은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3.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노인들이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활력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2006년부터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보수교육을 수료한 지도자를 전국에 배치하고 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은 2006년 250명, 2007년 300명, 2008년 346명, 2009년 474명, 2010년 500명, 2011년 550명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이는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체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배치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들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며 시·도별 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노인의 지속적 생활체육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별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방문 지도·보급하고 있으며, 지역 체육동호인 조직 가입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도는 지도자가 방문 시설의 운동여건 및 대상자의 운동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종목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실시종목은 생활체조, 요가, 스트레칭, 에어로빅, 게이트볼, 댄스스포츠, 수영, 재활운동, 필라테

스, 근력운동, 탁구 등이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관련 업무는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시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은 (표 3-22)와 같다.

표 3-22 시·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

시도	기 간	장 소	참가규모 (명)	행 사 운 영		
				일반경기	번외경기	부대행사
서울	6.16	88체육관	2,500	3종목	—	—
부산	5.12	부산실내운동장 외	1,600	7종목	—	—
대구	4.29	대구시 일원	1,500	9종목	—	—
인천	5.13	인천시 일원	500	5종목	—	—
광주	6.28	염주종합체육관	5,000	—	공굴리기, 줄다리기 등	—
대전	5.4	국민생활관 운동장	900	8종목	—	—
울산	4.9	울산시 일원	1,056	7종목	—	—
경기	9.29	이천 시민회관	2,500	11종목	—	—
강원	5.12~13	양구 종합운동장	2,000	13종목	—	—
충북	4.29	진천군 일원(진천화랑관)	1,500	11종목	—	—
충남	5.13	청양군 일원	2,000	5종목	투호, 윷놀이 등	건강상담 등
전북	9.28	익산시 일원	1,500	4종목	4종목	—
전남	5.24	화순군 일원	2,000	6종목	레크리에이션 3종목	—
경북	5.27~28	경산실내체육관 외	5,000	6종목	—	—
경남	4.21~22	고성군 일원	3,000	8종목	시범2종목	태권도시범 건강체조
제주	6.21	한라체육관 외	3,000	9종목	시범3종목	—



제7절 생활체육 홍보

생활체육 홍보는 규칙적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를 유인하고 비참여자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 촉진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핵심 홍보 사업은 스포츠 7330으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는 취지아래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우리사회의 구조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계획적 홍보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스포츠 7330 캠페인 전개

1) 스포츠 7330 정책 태동 배경

가. 생산적인 여가문화로의 전환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여가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가형태는 TV시청, 낮잠 등 단순휴식과 외식, 쇼핑 등 소비형 여가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많다. 이에 국민여가시간을 저비용 고효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생산적인 문화로 전환할 정책적 대안이 필요했다.

나. 운동방법에 대한 가이드 제시

스포츠 활동이 가장 생산적인 여가문화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보다는 ‘보는 스포츠’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보는 스포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인하고 스포츠 활동 직접 참여자의 운동 상해 예방과 참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동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다. 생활체육 향유계층의 양극화 해소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32%(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2010)에 불과하다. 또한 생활체육 참여계층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경향이 짙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생활체육 참여를 적극 유인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라. 국민의 체력지수 향상

과학 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 대비 건강수명이 10년 이상 낮아 노인의료비 부담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미래 국가의 주역인 청소년의 체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참여 유인 홍보 정책이 필요하다.

2) 스포츠 7330의 과학적 의미

스포츠 7330은 스포츠 참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검증에 기반 해 채택된 캠페인이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가 갖는 과학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운동을 해야 하는가?

스포츠생리학적으로 우리 인체는 신체 활동 등 외부자극에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영향이 지속 되는 시간은 약 2일(48시간)정도이다. 따라서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운동을 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일주일에 5일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 했을 때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3~4일의 운동이 투자한 시간에 비해 최대의 건강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야 운동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나. 왜 30분 이상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가?

선행 연구결과 5~10분 동안 지구성 운동만 하더라도 심폐지구력이 증가하지만 운동효과 측면에서는 30분 이상이 유효하다고 한다. 여기서 유효하다는 말은 투자 시간에 비해 가장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운동에너지 소모와 관련이 있다. 운동할 때 사용되는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이다. 이 중 탄수화물은 낮은 중강도 운동 때 주요기질로 작용한다. 그러나 장시간(30분 이상) 운동 시에는 탄수화물 대사로부터 점차 지방으로 기질대사의 의존율이 증가한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동 후 30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방이 분해·소모되는 것이다. 따라서 30분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운동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 운동은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운동의 강도 결정의 주요 표준은 최대운동능력을 100으로 했을 때 약 몇 %의 강도로 할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최대운동 심박 수의 약 60%~70% 내외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의 경우, 특히 중장년층은 60% 이내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60% 정도의 운동 강도는 통상 목표 심박수 130 정도이며, 목표 심박수는 $\{(220 - \text{본인나이}) \times 0.6\}$ 이다. 독일의 생활체육 슬로건인 ‘Trimming 130’은 바로 심박수를 130이상으로 올리는 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이 정도의 운동을 하고 나면 대체로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축축하게 난다.

3) 스포츠 7330 정책 경과

정부는 스포츠 7330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참여 계몽을 위한 로고 개발과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7330 정책 추진 경과는 (표 3-23)과 같다.

표 3-23 스포츠 7330 정책 추진 경과

정책개발 및 적용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의 운동참여방법에 관한 스포츠 과학적 가이드 마련 • 운동 참여 계몽을 위한 로고 개발 • 스포츠 7330 선포식 및 범국민 가두캠페인 전개
다양한 캠페인 전개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브랜드로 선정하고 비전 및 미션 설정 • 언론과 연계하여 기획보도·각종 광고, 직접홍보 등 캠페인의 다원화 • 동영상 프로그램 보급,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직접홍보 강화
맞춤형 캠페인 전개 (2007년 이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Tool의 다변화(온-오프라인 병행, 틈새광고 시행) •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스포츠 7330 캠페인’ 전개 • 인지도 조사를 토대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캠페인 정책방향을 설정 • 공모전을 통하여 스포츠 7330 캠페인에 대한 국민관심 유도

4) 스포츠 7330의 단계별 로드맵

스포츠 7330은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에 목표를 두고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40% 목표 달성을 위해 스포츠 7330 선포식과 로드맵을 설정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40~50% 목표 달성을 위해 홍보기법을 다양화하고 스포츠 7330 아젠다를 형성하였고, 3단계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50% 목표 달성을 위해 스포츠 7330 생활화와 브랜드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3-24 스포츠 7330 단계별 목표와 내용

구 분	1단계(시범사업-도입)	2단계(정착사업-확산)	3단계(강화)
목표	생활체육 참여율 40%	생활체육 참여율 40~50%	생활체육 참여율 50% 이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7330 선포식 - 로드맵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기법의 다양화 - 스포츠 7330 아젠다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7330 생활화 - 브랜드의 국제화

표 3-25 스포츠 7330 대중언론매체 캠페인실적

1단계 (2005~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명칭 확정, 브랜드 알리기 위한 전략수립 - 스포츠 7330 선포식 및 퍼레이드 전개
2단계 (2007~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Tool의 다변화(온-오프라인 병행, 틈새광고 시행) - 학교기관과 연계(세미나, 학술대회, 교과과정에 편성) - 관공서 및 사회단체 집회 시 스포츠 7330의 이슈화 - 종목별 동영상 프로그램 보급 확산 - 지역문화 축제 및 각종 행사시 스포츠 7330 캠페인과 연계 - 생명보험사 및 기업체와 연계 공동 프로젝트 추진 - 체계적인 스포츠 인프라 구축, 스포츠클럽 활성화
3단계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7330 노래 제정, 확산 - 브랜드 상품개발(캐릭터개발, 브랜드의 상품화 등) - 브랜드의 해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국제교류, 세계한민족축전 참가자들을 통한 홍보 • 각종 국제대회 시 한국선수단을 통한 노출 • 재외공관, 한인회, 한국관광공사, 문화원 등을 통해 적극홍보

2.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 전개

정부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하고자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은 TV·라디오, 주요 일간지 및 기타 간행물, 지하철, 전광판, 인터넷, 극장 등에 생활체육에 관한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고, 생활체육정책,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방법 및 효과, 외국의 사례, 뉴스포츠, 동호인 활동사항 등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해 국민생활체육지를 제작하여 지역별,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소식과 생활체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3-26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 추진실적

구분	보도실적	신문광고	TV광고	라디오광고
2002	210회	29회	27회, 545회(CA)	25회
2003	232회	37회	47회	71회
2004	268회	23회	24회	56회
2005	874회	14회	-	182회
2006	958회	38회	25회	182회
2007	1,190회	31회	26회	180회
2008	1,190회	28회	37회	186회
2009	1,380회	41회	594회	217회
2010	1,490회	45회	30회	248회
2011	1,680회	32회	31회	181회

표 3-27 국민생활체육지 발간 연도별 추진실적

항 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발행부수	72,000	72,000	48,000	96,000	96,000	96,000	96,000	120,000	120,000	120,000
발행회수	6회	6회	6회	12회	12회	12회	12회	12회	12회	12회
간 별	격월간	격월간	격월간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면 수	52면	52면	52면	56면	56면	60면	60면	60면	60면	60면

3.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전달 및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21세기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각종 통신기기와 정보통신망이 새롭게 등장하고 인터넷이 정보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생활체육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는 e비즈니스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정보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제11장 참조).



제8절 세계한민족축전

1. 개최배경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축적된 우리나라의 힘을 밖으로 표출시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수백만 해외동포들에게 조국에 대한 긍지를 드높이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는 해외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중국과 구소련 거주 동포들에게 당시 이념의 장벽에 가려져 있던 조국 땅을 밟고 싶은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서울올림픽 개최를 두 달 앞둔 1988년 7월 마련된 「세계한민족체육대회 추진 기본계획」은 바로 이러한 재외동포들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일환으로 착안되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 중국과 소련을 비롯한 30여개 미수교국의 참가가 확실시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체육행사를 통해 세계 도처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단결시키고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둔 동 계획에 따라 1988년 10월말부터 당시 체육부 관계자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미주 및 유럽지역에 파견하였다. 조사단은 현지 대사관과 교민단체와 교섭을 갖고 세계한민족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동포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동 대회의 개최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대회 개최 계획이 확정된 이후, 체육부는 1989년 4월 「세계한민족체육대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988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1주년 기념행사로 1989년 9월, 50개국에서 1,326명의 재외동포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수원시에서 개최된 제70회 전국체전과 함께 개막식을 갖게 되었다.

2. 변천과정 및 축전 특징

1989년 제1회 대회가 시작된 이래 문화·예술행사와 청소년축제가 함께 포함되었으며, 1995년부터 「세계한민족축전」으로 공식대회 명칭이 변경되었다. 처음에는 2년 주기로 행사가 열렸으나,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동 축전은 체육행사 등 다양한 문화축전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으며 국민생활체육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표 3-28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특징

회 차	축전 개최 특징
11회 2002	• 생활체육 및 문화체험 행사
12회 2003	• 생활체육 및 문화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8개국 61명 참가
13회 2004	• 생활체육 및 문화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6개국 56명 참가
14회 2005	• 생활체육 및 문화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24명 참가
15회 2006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5개국 17명 참가
16회 2007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3개국 11명 참가
17회 2008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4개국 25명 참가
18회 2009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2개국 4명 참가
19회 2010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7개국 17명 참가
20회 2011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5명 참가

3. 개최현황

초창기에 행사가 대규모로 개최되었지만 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참가국과 참가인원을 대폭 축소하였다. 개최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다양한 행사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의미 있는 한민족 생활체육축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 3-29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현황

구 분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 가 인 원
2002	2002세계한민족축전	2002. 9. 13~19(7일)	서울, 경기, 충청 일원	32개국 668명
2003	2003세계한민족축전	2003. 8. 29~9. 4(7일)	서울, 경기, 제주 일원	42개국 601명
2004	2004세계한민족축전	2004. 9. 17~9. 23(7일)	서울, 경기, 제주 일원	41개국 623명
2005	2005세계한민족축전	2005. 9. 9~9. 15(7일)	서울, 경기, 충청, 제주 일원	45개국 501명
2006	2006세계한민족축전	2006. 9. 2~9. 27(7일)	서울, 제주 일원	35개국 483명
2007	2007세계한민족축전	2007. 10. 10~16(7일)	서울, 제주 일원	47개국 473명
2008	2008세계한민족축전	2008. 9. 18~24(7일)	서울, 경기 및 경주 일원	44개국 430명
2009	2009세계한민족축전	2009. 9. 23~29(7일)	서울 및 경주 일원	38개국 421명
2010	2010세계한민족축전	2010. 10. 6~11(6일)	서울 및 경주 일원	42개국 383명
2011	2011세계한민족축전	2011.10. 26~11. 1(7일)	인천, 서울, 경주 일원	42개국 399명

Section

04

학교체육

- 제1절 개 관
- 제2절 현 황
- 제3절 일반학생 지원사업
- 제4절 학생선수 지원사업
- 제5절 학교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



Section

04

학교체육



제1절 개 관

한국사회에서 체육은 19세기 말에 근대식 학교의 도입과 함께 학교 교육제도 내에서 교과목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는 당시에 학교체육이 학생들의 균형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고가 사회전반에 거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체육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지칭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구한말과 일제시대에는 ‘체조’, 제 2차세계대전기에는 한동안 ‘체련’이라고도 했다. 이후 해방을 맞아 ‘체육(體育, Physical Education)’이라는 교과명으로 정착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교과명의 변천은 당대의 체육의 목적에 대한 시대적 인식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일제시대의 ‘체조’와 ‘체련’이라는 용어는 체육을 통해 건강한 황국신민을 육성하고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적 목적을 강조한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더불어 국가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면서 체육은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자·덕·체를 겸비한 ‘전인의 육성’이라는 교육적 목적 아래, 학교교육에서 교육적 가치와 의미가 인정되는 교과목으로서 변화, 발전해 왔다.

정부조직에서 학교체육 업무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었는데, 이는 크게 교육부처 존치기, 체육부처 이양기, 양부처 협력기로 구분된다. 해방이후부터 4공화국까지의 시기에 교육부처가 학교체육업무를 전담한 반면, 체육부와 체육청소년부가 있던 1982년부터 1994년 초기까지 체육부, 체육청소년부 등의 체육부서가 담당 업무를 관장했다. 이후 1994년부터 지금까지 체육부처와 교육부처의 협조체계 하에 업무를 공유하는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표 4-1 정부 내 학교체육 담당 부서의 변천

구 분	교육부처 존치기	체육부처 이양기	양부처 협력기	
시 기	해방이후 - 4공화국 (1946. 7. 10→ 1982. 3. 20)	5공화국→6공화국→문민정부초기 (1982. 3. 20~1994. 5. 16)	문민정부→ 현재 (1994. 5. 16~현재)	
세 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6 문교부 교화국 체육과 ▶ 1948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 ▶ 1961 문교부 체육국 학교체육과 ▶ 1981 문교부 체육국제국 학교체육과 ▶ 1982. 3. 20 학교체육업무 체육부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 체육부 체육진흥국 학교 체육과 ▶ 1990. 9. 10~1993. 3. 5 (체육청소년부) 1993. 3. 6~1994. 5. 15 (문화관광부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 5. 16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학교보건체육과 ▶ 1999. 1. 29 교육부 학교시설환경과 ▶ 2001. 2. 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정책실 학교정책과 ▶ 2005. 3. 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체육보건급식과 ▶ 2008. 3. 1~현재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 5. 16~현재 체육국 체육정책과
* 중앙부처에 학교체육 전담부서 폐지 : 1990. 9 ~ 2004. 2. 28 * 학교체육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학교체육보건급식과 신설 : 2005. 3. 1 * 학교체육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학생건강안전과 신설 : 2008. 3. 1				

제2절 현 황

1. 체육교육과정

체육교육과정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수렴하고 시대에 맞는 교육을 모색하기 위해, 해방 이후 7차에 걸친 전면 개정과 수차례의 수시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1년 현재 현장에 적용되는 체육교육과정은 2009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한 2007년 개정 체육교육과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체육교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필수교과로 고등학교는 선택교과로 지정되어 있다.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즐거운 생활'에 예체능교과 통합교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3학년부터 '체육'이라는 독립교과로 연간 204시간(주당 3시간) 배정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중학교의 경우 총 272시간이 일률적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학교는 최소 10단위, 기타 특목계, 특성화, 창의 경영 학교 등은 5단위만 배정 할 수 있다.

표 4-2 초·중·고등학교 체육과목 및 시간의 변천

구분	제1차 (1954)	제2차 (1963)	제3차 (1973)	제4차 (1981)	제5차 (1987)	제6차 (1992)	제7차 (1997)
초등학교	보건(3)	체육(3)	체육 (2-3)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7)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7)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7)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6)
				3-6학년 체육(3)	3-6학년 체육(3)	3-6학년 체육(3)	3-6학년 체육(3)
중학교	체육(2)	체육 (2-4)	체육(3)	체육(3)	체육(3)	체육(3)	1,2학년 체육(3) 3학년 체육(2)
고등학교	체육 (24단위)	체육 (24단위)	체육 (14-18 단위)	체육: 필수 (6-8단위) 체육: 선택 (8-10단위)	체육: 필수 (6-8단위) 체육: 선택 (8-10단위)	체육: 필수 (6-8단위) 체육: 선택 (8-10단위)	1학년 필수 체육(4단위) 2-3학년 선택 체육과건강(4단위) 체육이론(4단위) 체육실기(4단위 이상)

※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체육교과는 1~6차 교육과정을 통해 필수교과로 인정받으며 주당 약 3시간씩 배정되었는데, 7차 체육교육과정의 적용을 통해 시수가 감소했으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외형적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육수업의 절대시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2009년 개정 체육교육과정을 통해 일선학교에 도입된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학교 자율화’로 인해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학년에서 체육과목이 집중되는 파행성을 초래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교 과 영 역		필수이수단위		학교자율과정
필수 (7차)	기초	 국어	15(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10)	
		 영어	15(10)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5(10)	
		 과학	15(10)	
	체육·예술	 체육	10(5)	
		 예술(음악/미술)	10(5)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16(12)	
		소계		
				64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활동/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진로 활동	24	
총 이수 단위		204		

그림 4-1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편재와 체육수업 이수단위

2. 초·중등체육 담당교원

2011년 현재 초등학교의 체육전담교사는 4,196명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체육교사는 총 14,092명으로 일반교사 10,111명과 선발종목에 뛰어난 기능을 지니고 임용된 특기교사 3,981명이 있다. 초, 중, 고등학교의 체육교원은 교당 약 1.8명, 교사 1명당 학생 약 500명, 전체 교원의 약 5.0%이다.

표 4-3 2011년 중고등학교 체육교원 현황 1(성별)('11.3월 현재)

(단위 : 명)

구분	남			여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일반	4,937	3,588	8,525	1,105	481	1,586	6,042	4,069	10,111
특기	1,841	1,555	3,396	359	226	585	2,200	1,781	3,981
계	6,778	5,143	11,921	1,464	707	2,171	8,242	5,850	14,092

표 4-4 2011년 중고등학교 체육교원 현황 2(설립별)('11.3월 현재)

(단위 : 명)

국립			공립			사립			총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38	48	86	6,675	3,314	9,989	1,525	2,492	4,017	14,092

표 4-5 2011년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현황('11.3월 현재)

(단위 : 명)

구분	국립	공립	사립	총계
계	14	4,136	46	4,196

중·고등학교 체육교원의 정원은 중·고등학생수의 감소와 학급별 정원축소로 인한 분반의 증대, 체육수업시수 감소 등으로 인해 축소해왔으며, 향후 수업시수의 절대적 감소와 학급당 정원의 안정화로 인해 점진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3. 학교체육시설 현황

체육시설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활동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학교만의 시설이 아닌, 사회전반의 체육수준을 견인하는 시설인프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체육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체육의 목표 성취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까지 학교체육시설은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근래에 들어 다양한 사업전개를 통해 학교시설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대표적 사업으로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 ‘다목적 체육관건립 사업’, ‘야간 조명등 설치 사업’ 등이 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은 학교운동장을 현대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운동장의 바닥을 첨단물질로 바꾸는 사업으로서 학교운동장을 잔디(천연·인조)운동장, 우레탄 시설(다목적구장, 트랙 등), 흙 운동장(감람석 파쇄토, 황토, 마사토 등) 등으로 조성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1,0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총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실제로 현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잔디(천연 및 인조 포함)운동장의 경우, 2011년 기준 전체 초·중·고 11,492개교 중 1,932개교(16.8%)가 조성되었는데 이는 2010년 11,387개교 중 1,727개교(15.2%)보다 205개교가 늘어났다(표 4-7 참조).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학생의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의 생활체육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단위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2009~2012년까지 매년 25개교씩 총 100개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소요 재원은 문화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1 : 2 : 1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표 4-6 참조).

표 4-6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의 연도별 목표 및 소요예산

(교, 백만원)

구 분		'09	'10	'11	'12	계	
건립 목표		25	25	25	25	100	
소요예산	계	40,000	40,000	40,000	40,000	160,000	(100%)
	문화부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25%)
	교육청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50%)
	지자체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25%)

표 4-7 2011년 학교체육시설 현황

종 류 연 도		2010. 12월					2011. 8월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특수	계
전체 학교 수		5,854	3,130	2,253	150	11,387	5,905	3,149	2,283	155	11,492
잔디 운동장	인조	552	337	281	14	1,184	635	376	332	17	1,360
		9.4%	10.8%	12.5%	9.3%	10.4%	10.8%	11.9%	14.5%	11.0%	11.8%
	천연	227	110	170	36	543	243	112	178	39	572
		3.9%	3.5%	7.5%	24.0%	4.8%	4.1%	3.6%	7.8%	25.2%	5.0%
	계	779	447	451	50	1,727	878	488	510	56	1,932
		13.3%	14.3%	20.0%	33.3%	15.2%	14.9%	15.5%	22.3%	36.1%	16.8%
탄성 (우레탄) 시설	구장	274	367	366	14	1,021	406	386	364	24	1,180
		4.7%	11.7%	16.2%	9.3%	9.0%	6.9%	12.3%	15.9%	15.5%	10.3%
	트랙	731	433	381	34	1,579	803	480	436	29	1,748
		12.5%	13.8%	16.9%	22.7%	13.9%	13.6%	15.2%	19.1%	18.7%	15.2%
	계	1,005	800	747	48	2,600	1,209	866	800	53	2,928
		17.2%	25.6%	33.2%	32.0%	22.8%	20.5%	27.5%	35.0%	34.2%	25.5%
체육관	전용(정규) 체육관	213	197	280	4	694	303	259	335	9	906
		3.6%	6.3%	12.4%	2.7%	6.1%	5.1%	8.2%	14.7%	5.8%	7.9%
	강당겸용 체육관	2,697	1,389	1,373	77	5,536	2,974	1,531	1,387	89	5,981
		46.1%	44.4%	60.9%	51.3%	48.6%	50.4%	48.6%	60.8%	57.4%	52.0%
	간이체육실	1,093	771	438	47	2,349	759	562	265	25	1,611
		18.7%	24.6%	19.4%	31.3%	20.6%	12.9%	17.8%	11.6%	16.1%	14.0%
	계	4,003	2,357	2,091	128	8,579	4,036	2,352	1,987	123	8,498
		68.4%	75.3%	92.8%	85.3%	75.3%	68.4%	74.7%	87.0%	79.4%	73.9%
전용 강당		346	132	200	17	695	421	191	262	14	888
		5.9%	4.2%	8.9%	11.3%	6.1%	7.1%	6.1%	11.5%	9.0%	7.7%
수영장		76	27	33	1	137	94	34	44	4	176
		1.3%	0.9%	1.5%	0.7%	1.2%	1.6%	1.1%	1.9%	2.6%	1.5%
스프링클러		930	371	279	16	1,596	754	445	360	33	1,592
		15.9%	11.9%	12.4%	10.7%	14.0%	12.8%	14.1%	15.8%	21.3%	13.9%
탈의실		1,440	1,533	935	55	3,963	1,359	1,704	929	42	4,034
		24.6%	49.0%	41.5%	36.7%	34.8%	23.0%	54.1%	40.7%	27.1%	35.1%
골프연습장		267	253	372	6	898	265	280	390	10	945
		4.6%	8.1%	16.5%	4.0%	7.9%	4.5%	8.9%	17.1%	6.5%	8.2%
헬스시설		294	670	845	45	1,854	268	677	860	41	1,846
		5.0%	21.4%	37.5%	30.0%	16.3%	4.5%	21.5%	37.7%	26.5%	16.1%
인공암장		83	18	24	9	134	71	45	60	10	186
		1.4%	0.6%	1.1%	6.0%	1.2%	1.2%	1.4%	2.6%	6.5%	1.6%
야간조명등		1,251	614	582	25	2,472	1,629	890	1,078	24	3,621
		21.4%	19.6%	25.8%	16.7%	21.7%	27.6%	28.3%	47.2%	15.5%	31.5%

4. 학생체력현황

2008년까지 초·중·고등학생의 기초체력을 검사하는 학생신체능력검사가 실시되었으나, 2009년도 이후 이를 대체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가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0년도에 중학교까지 실시되었고 2011년도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었다. 새로운 체력척도의 적용에 따라 학생체력에 대한 누적된 통계가 부족하여 최근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자료에 따르면 학생의 전반적 체력저하현상이 심화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2008년도 학생신체능력검사의 종목별 점수는 표 4-8과 같다. 각 종목별로 최근 8년간의 결과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모든 종목에서 체력수준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0년에 대비하여 ‘오래달리기-걷기’의 경우 +37초, ‘제자리멀리뛰기’ -6.59cm, ‘팔굽혀매달리기(여)’ -2.75초 등 6개 종목 모두 감소했으며, 전년도인 2007년에 대비하면 ‘50m달리기’는 -0.02초, ‘팔굽혀펴기’ +0.5초, ‘팔굽혀매달리기’ +0.11초, ‘제자리멀리뛰기’ +1.21cm, ‘오래달리기-걷기’ -3초등 총 5개 종목에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유연성 검사인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만 기록이 -0.11cm감소했다.

표 4-8 연도별 학생신체능력검사 결과

종 목 \ 연 도	2008	2007		2006		2000	
		기록	2008년 대비편차	기록	2008년 대비편차	기록	2008년 대비편차
50m달리기(초)	9.39	9.41	-0.02	9.39	0	9.22	0.17
팔굽혀펴기(남)/(회)	30.00	29.5	0.5	30.67	-0.67	31.27	-1.27
팔굽혀매달리기(여)/(초)	5.88	5.77	0.11	5.62	0.26	8.63	-2.75
윗몸일으키기(회/분당)	34.00	33.75	0.25	33.88	0.12	35.44	-1.44
제자리멀리뛰기(cm)	174.06	172.85	1.21	173.37	0.69	180.65	-6.59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12.72	12.83	-0.11	13.28	-0.56	13.84	-1.12
오래달리기-걷기(분·초)	8.09	8.12	-0.03	8.02	0.07	7.32	0.37

1) 초등학생 체력검사 현황

2011년도 현재, 학생건강체력검사 대상학생 1,196,254명 중 1등급 29,948명(2.5%), 2등급 414,068명(34.6%), 3등급 625,424명(52.3%), 4등급 119,270명(10.0%), 5등급 7,544명(0.6%)이다. 이는 2010년도 결과와 비교하여 1, 2등급은 '10년 비해 4.9% 증가, 4, 5등급은 3.7% 감소 증가된 추세로 전체적으로 체력상태가 우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표 4-9 2011년도 초등학생 건강체력평가 결과

(%, 명)

구 분		1등급 (80~100)		2등급 (60~79)		3등급 (40~59)		4등급 (20~39)		5등급 (0~19)		검사 인원수	
학년	성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초	5	남	7,817	2.5	103,602	33.0	166,541	53.0	34,180	10.9	2,123	0.7	314,263
		여	6,684	2.3	106,327	37.2	148,271	51.8	23,263	8.1	1,520	0.5	286,065
	6	남	9,262	3.0	107,349	34.5	158,374	50.9	34,006	10.9	2,249	0.7	311,240
		여	6,185	2.2	96,790	34.0	152,238	53.5	27,821	9.8	1,652	0.6	284,686
전체	남	17,079	2.7	210,951	33.7	324,915	51.9	68,186	10.9	4,372	0.7	625,503	
	여	12,869	2.3	203,117	35.6	300,509	52.7	51,084	9.0	3,172	0.6	570,751	
	평균	29,948	2.5	414,068	34.6	625,424	52.3	119,270	10.0	7,544	0.6	1,196,254	

표 4-10 초등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의 연도별 비교(2009~2011)

(%, 명)

학년	성별	1등급 (80~100)		2등급 (60~79)		3등급 (40~59)		4등급 (20~39)		5등급 (0~19)		검사 인원수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09	남	16,170	2.7	195,523	32.2	301,640	49.6	88,714	14.6	5,723	0.9	607,770
	여	9,298	1.7	182,180	32.6	295,470	52.9	67,370	12.1	3,970	0.7	558,288
	평균	25,468	2.2	377,703	32.4	597,110	51.2	156,084	13.4	9,693	0.8	1,166,058
'10	남	11,629	1.9	189,550	30.2	329,456	52.5	91,504	14.6	5,835	0.9	627,974
	여	7,831	1.4	178,257	31.1	312,938	54.6	70,361	12.3	4,116	0.7	573,503
	평균	19,460	1.6	367,807	30.6	642,394	53.5	161,865	13.5	9,951	0.8	1,201,477
'11	남	17,079	2.7	210,951	33.7	324,915	51.9	68,186	10.9	4,372	0.7	625,503
	여	12,869	2.3	203,117	35.6	300,509	52.7	51,084	9.0	3,172	0.6	570,751
	합계	27,291	2.5	546,064	34.6	955,332	52.3	119,270	10.0	7,544	0.6	1,196,254

2) 중학생 체력검사 현황

2011년도 현재 검사학생 1,881,193명 중 1등급 55,184명(2.9%), 2등급 610,014명(32.4%), 3등급 933,930명(49.6%), 4등급 260,936명(13.9%), 5등급 21,129명(1.1%)이다. 이는 1, 2등급의 경우 2010년에 비해 3.4% 증가, 4, 5등급의 경우 0.7% 감소된 수치로서 전체적으로 체력수준이 우수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1 2011년 중학생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 명)

구 분		1등급 (80~100)		2등급 (60~79)		3등급 (40~59)		4등급 (20~39)		5등급 (0~19)		검사 인원수	
학년	성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중	1	남	8,208	2.6	92,085	29.0	158,977	50.1	53,202	16.8	4,707	1.5	317,179
		여	6,947	2.4	94,022	32.5	149,683	51.7	36,428	12.6	2,540	0.9	289,620
	2	남	12,982	4.0	108,717	33.1	154,096	46.9	48,708	14.8	4,114	1.3	328,617
		여	7,311	2.4	101,498	33.3	156,172	51.2	37,433	12.3	2,789	0.9	305,203
	3	남	12,395	3.7	113,773	33.8	158,831	47.2	47,447	14.1	4,085	1.2	336,531
		여	7,341	2.4	99,919	32.9	156,171	51.4	37,718	12.4	2,894	1.0	304,043
전체	남	33,585	3.4	314,575	32.0	471,904	48.0	149,357	15.2	12,906	1.3	982,327	
	여	21,599	2.4	295,439	32.9	462,026	51.4	111,579	12.4	8,223	0.9	898,866	
	평균	55,184	2.9	610,014	32.4	933,930	49.6	260,936	13.9	21,129	1.1	1,881,193	

표 4-12 중학생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의 연도별 비교(2010~2011)

학년	성별	1등급 (80~100)		2등급 (60~79)		3등급 (40~59)		4등급 (20~39)		5등급 (0~19)		검사 인원수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10	남	28,725	2.8	299,069	29.4	492,327	48.4	181,763	17.9	15,531	1.5	1,017,415
	여	17,900	1.9	275,725	29.9	484,996	52.6	134,588	14.6	9,148	1.0	922,357
	합계	46,625	2.4	574,794	29.6	977,323	50.4	316,351	16.3	24,679	1.3	1,939,772
'11	남	33,585	3.4	314,575	32.0	471,904	48.0	149,357	15.2	12,906	1.3	982,327
	여	21,599	2.4	295,439	32.9	462,026	51.4	111,579	12.4	8,223	0.9	898,866
	합계	55,184	2.9	610,014	32.4	933,930	49.6	260,936	13.9	21,129	1.1	1,881,193

3) 고등학생 체력검사 현황

고등학생의 학생건강체력평가는 2011년도에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비교는 할 수 없다. 2011년에 검사학생 1,882,436명 중 1등급 64,474명(3.4%), 2등급 615,522명(32.7%), 3등급 891,306명(47.3%), 4등급 281,548명(15.0%), 5등급 29,586명(1.6%)로 나타났다.

표 4-13 2011년 고등학생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명, %)

구 분		1급 (23이상)		2급 (20-22)		3급 (17-19)		4급 (14-16)		5급 (13 이하)		검 사 인원수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1	남	883	18.2	1,086	22.4	1,173	24.2	815	16.8	885	18.3	4,842
	여	686	15.2	896	19.8	1,195	26.4	907	20.0	844	18.6	4,528
2	남	935	19.7	1,090	22.9	1,192	25.1	806	16.9	734	15.4	4,757
	여	798	16.9	1,037	22.0	1,212	25.7	901	19.1	764	16.2	4,712
3	남	690	14.7	949	20.2	1,064	22.6	820	17.4	1,182	25.1	4,705
	여	527	11.8	837	18.7	1,124	25.1	1,009	22.5	982	21.9	4,479
전체	남	2,508	17.5	3,125	21.8	3,429	24.0	2,441	17.1	2,801	19.6	14,304
	여	2,011	14.7	2,770	20.2	3,531	25.7	2,817	20.5	2,590	18.9	13,719
	계	4,519	16.1	5,895	21.0	6,960	24.9	5,258	18.8	5,391	19.2	28,023

4) 건강체력 우려학생 현황

2011년도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중 저체력 학생은 10.1%, 비만 학생은 10.4%, 두 가지(저체력+비만)를 모두 지닌 학생은 3.3%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에 비해 각각 저체력은 3.4%, 비만은 1.2%, 저체력+비만은 0.9% 감소된 수치로 지속적으로 건강체력 우려 학생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학생은 저체력 14.6%, 비만 13.4%, 두 가지(저체력+비만)를 모두 지닌 학생이 5.7%로 전년대비 각각 2.0%, 0.7%, 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2011년 건강체력 우려학생 현황

(% , 명)

학년		저체력				비만				저체력+비만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초	5	34,509	23,280	57,789	4.8	32,771	27,779	60,550	5.1	11,910	6,610	18,520	1.5
	6	34,687	28,059	62,746	5.2	36,060	27,488	63,548	5.3	13,070	7,895	20,965	1.8
	계	69,196	51,339	120,535	10.0	68,831	55,267	124,098	10.4	24,980	14,505	39,485	3.3
중	1	56,443	37,709	94,152	5.0	45,394	26,105	71,499	3.8	23,155	9,881	33,036	1.8
	2	51,430	38,718	90,148	4.8	55,669	30,701	86,370	4.6	24,580	11,418	35,998	1.9
	3	50,380	39,392	89,772	4.8	61,774	33,098	94,872	5.0	26,122	12,336	38,458	2.0
	계	158,253	115,819	274,072	14.6	162,837	89,904	252,741	13.4	73,857	33,635	107,492	5.7

※ 저체력 : 건강체력 4~5등급, 비만 : 체지방(BMI)이 4~5등급,
저체력 + 비만 : 건강체력과 BMI가 모두 4~5등급

5. 학교운동부 현황

2011년도 현재 전국의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는 5,603개교로서 전체 학교의 49.7%이며, 운동부 팀수는 8,777팀,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 선수수는 6,089,819명으로 2010년 대비 감소되었다. 그러나 전체 학생(초3~고3)의 대비 학생선수수는 1.2%로 2010년 1.1%대비 소폭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선수수의 감소가 전체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자연적 현상임을 의미한다.

표 4-15 연도별 학교운동부 현황 비교(2010~2011)

(교, 팀, 명, %)

연도	급별	학교수	학교운동부 육성학교수	전체 학생수 (초3~고3)	학생 선수수 (초3~고3)	학교운동부 팀수 (남+여)
2010	초	5,829	2,427	2,471,894	22,230	3,650
	중	3,106	2,173	2,006,972	24,014	3,301
	고	2,225	1,461	1,965,792	22,390	2,204
	계	11,160	6,061 (54.3%)	6,444,658	68,634 (1.1%)	9,155
2011	초	5,869	2,217	2,346,610	26,740	3,392
	중	3,138	2,277	1,890,270	26,422	3,189
	고	2,262	1,574	1,852,939	22,304	2,196
	계	11,269	5,603 (49.7%)	6,089,819	75,466 (1.2%)	8,777

한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시·도교육청이 임용한 전임코치와 단위학교에서 자체 임용한 일반 코치로 구분되는데, 2011년에 전임코치의 수는 4,105명, 일반코치는 1,625명으로 총 5,730명이다. 이는 2010년 대비 전임코치의 수는 471명 증대되는 반면 일반코치는 216명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6 연도별 학교운동부 지도자 현황 비교(2010~2011)

연도	전체 학교수	운동부 운영 학교수	학교운동부지도자수(명)											
			전임코치				일반코치				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계
2010	11,160	6,061 54.3%	1,305	1,445	884	3,634 66.4%	560	585	696	1,841 33.6%	1,865	2,030	1,580	5,475 100%
2011	11,269	5,603 49.7%	1,375	1,597	1,133	4,105 71.6%	501	564	560	1,625 28.4%	1,876	2,161	1,693	5,730 100%

6.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현황

체육계열 중·고등학교는 2011년 신설된 경기체육중학교를 포함 체육중학교 8개교 및 체육고등학교 14개교와 더불어 1개 반을 특기 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특수목적고인 제주 남녕고를 포함하여 총 23개가 있다. 2011년 현재 체육계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수는 체육중학교 922명, 고등학교 3,698명을 포함하여 총 4,620명이며, 소속코치는 총 311명의 규모이다.

체육계열 중·고등학교는 전문체육 선수양성의 산실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2011년 현재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소속 선수 중 국가대표 60명, 후보선수 235명으로 총 295명의 대표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10년 대비 43명 증대한 수치인데, 특히 국가대표선수의 증대가 두드러져 체육계열 중·고등학교가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7 2011년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현황

(단위 : 명, 개)

학교명	설립년월	학생수	코치수	육성종목수	졸업생수	비고
합계	23개교	4,620	311		37,332	
중학교	소계	8개교	922		6,261	
	서울체육중	2004.3	176		1,256	중고 병설 운영
	광주체육중	1983.11	194		1,548	
	대전체육중	1993.3	136		947	
	*경기체육중	2011.3	29			
	강원체육중	2005.3	84		121	
	전북체육중	2007.3	76		81	
	전남체육중	2000.3	128		397	
	경북체육중	1973.6	99		1,911	
고등학교	소계	15개교	3,698	311	31,071	
	서울체육고	1971.1	428	47	22	4,003
	부산체육고	1972.11	300	23	18	2,653
	대구체육고	2003.1	161	15	10	327
	인천체육고	1993.11	278	20	13	6,872
	광주체육고	1972.12	287	17	14	3,016
	대전체육고	1973.3	274	27	16	2,767
	경기체육고	1995.3	287	23	13	1,156
	강원체육고	1991.3	208	18	16	1,151
	충북체육고	1991.3	251	15	12	1,404
	충남체육고	1992.1	224	14	12	57
	전북체육고	1975.11	238	19	16	2,468
	전남체육고	2002.12	167	22	17	322
	경북체육고	1972.11	227	25	16	2,456
	경남체육고	1984.12	259	20	14	2,015
	제주남녕고	1997.3	109	6	16	404

표 4-18 연도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대표선수 보유 현황 비교

연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0	국가대표	9	1	4	0	2	2	4	2	1	0	1	0	1	1	1	29
	후보선수	43	25	18	19	11	18	0	0	0	8	24	12	23	15	7	223
	계	52	26	22	19	13	20	4	2	1	8	25	12	24	16	8	252
	비율(%)	21	10	9	8	5	8	2	1	0	3	10	5	10	6	3	100
2011	국가대표	5	2	3	0	16	1	2	3	0	0	23	1	3	0	1	60
	후보선수	42	17	27	15	0	16	25	15	12	13	0	16	19	16	2	235
	계	47	19	30	15	16	17	27	18	12	13	23	17	22	16	3	295
	비율(%)	16	6	10	5	5	6	9	6	4	4	8	6	7	5	1	100



제3절 일반학생 지원사업

청소년기의 체육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체력강화 뿐만 아니라, 스포츠맨십, 공동체의식 등 인성 함양과 인지적 발달에도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육활동여건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미비한 상태로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1. 초·중등학교체육활성화 방안

앞서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2010년 9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즐거운 학교 및 학생 체력증진을 위한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초, 중등 학교체육활성화 방안은 학교체육의 양주무부처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개별 사업을 연동시켜 시너지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철저한 예산확보를 통한 계획적 사업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관련 정책에 비해 획기적 성격을 지녔다 할 수 있다.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은 ‘재미있는 체육수업,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스포츠’를 모토로 2015년까지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을 50%, 신체활동 7560+실천율을 30%로 증진시키는 것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2011년도 계획을 보면 정과체육영역에서 ‘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과외자율체육활동영역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 리그 활성화’,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등의 6개 중심과제와 그 하위에 16대 실행과제를 두고 있다(그림 4-2 참조).

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분담하여 총 5,127억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향후 양 주무부서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른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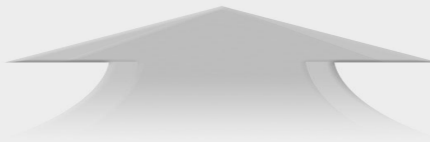
재미있는 체육수업,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스포츠

—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

*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 : 27.4%('09) → 50%('15)

* 신체활동 7560+(주5일 60분 이상 운동하기) 실천율 : 13.4%('09) → 30%('15)

*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율(%) : 69.9%('07) → 90%('15)



6대 중점과제

1. 교과 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 (PAPS) 내실 운영

4.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5. 학교운동부 선진화
(엘리트 체육)

6.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인적·물적 지원)

16대 실행과제

1-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체육수업 질제고
1-2. 체육(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및 연구대회 활성화
1-3.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확대

2-1.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2-2.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연계 강화

3-1.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확대 시행
3-2. 신체활동 7560+ 운동 전개

4-1. 1인 1운동 즐기기, 1교 1기 실천 강화
4-2.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4-3. 체육활동 우수교, 우수학생·교직원 포상

5-1.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5-2.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5-3.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활동 강화

6-1. 스포츠 자원봉사제 확대 및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운영
6-2.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및 대회지원회 구성·운영
6-3. 학생 체육활동 시설·환경 개선

그림 4-2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의 개요

2.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 사업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은 초등학교에 일정 자격 이상의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 정규수업의 보조와 함께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2008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1년에 전국적으로 1,500명의 스포츠 강사를 일선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는 2010년 대비 277명 증대한 수치이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기금)와 지역 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이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총 264억 9천만 원의 재원이 투자되었다.

표 4-19 2011년 시도 교육청별 스포츠 강사 배치인원 및 인건비 소요예산

시도	초등학교수 (교)	'11년 정원 (명)	소요예산(천원)		'10년 배치 정원(명)	증원
			문화부	교육청		
서울	587	158	1,395,140	1,395,140	129	29
부산	298	81	715,230	715,230	67	14
대구	214	58	512,140	512,140	47	11
인천	226	61	538,630	538,630	50	11
광주	145	63	556,290	556,290	51	12
대전	138	50	441,500	441,500	41	9
울산	118	32	282,560	282,560	26	6
경기	1,145	144	1,271,520	1,271,520	117	27
강원	353	112	988,960	988,960	91	21
충북	259	82	724,060	724,060	67	15
충남	430	118	1,041,940	1,041,940	96	22
전북	413	115	1,015,450	1,015,450	94	21
전남	433	124	1,094,920	1,094,920	101	23
경북	494	136	1,200,880	1,200,880	111	25
경남	495	136	1,200,880	1,200,880	111	25
제주	106	30	264,900	264,900	24	6
계	5,854	1,500	13,245,000	13,245,000	1,223	277

3.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 사업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최근 일반학생의 체력 저하가 심화됨에 따라 정기적인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체력 증진과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

성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되었다. 이는 학교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체육동아리 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세부사업은 학교스포츠클럽을 교육청에 등록·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학교스포츠클럽 등록·관리사업’과 정기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사업’으로 구분된다.

1) 학교스포츠 클럽 등록 현황

20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청 등록률은 45.0%로서 등록학생수도 293만 7천52명으로 2007년도 460,591명에 대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계획초기 목표였던 2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등록 학생수, 등록률, 종목 현황은 표 4-20, 21과 같다.

표 4-20 2011년 급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11.12.1.)

(명, 팀)

급별	학생 등록률			클럽수
	전체 학생수 (초2~고3)	등록 학생수 (초2~고3)	등록률(%)	
초	2,675,451	1,661,005	62.1%	46,884
중	1,910,572	777,318	40.7%	24,084
고	1,943,798	498,729	25.7%	15,786
계	6,529,821	2,937,052	45.0%	86,754

표 4-21 2011년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11.12.1. 기준)

순	종 목	전체		초		중		고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전 체		86,754	2,937,052	46,884	1,661,005	24,084	777,318	15,786	498,729
1	줄넘기	19,982	819,202	16,206	641,863	2,602	124,074	1,174	53,265
2	축 구	11,724	365,131	5,094	157,985	4,061	129,943	2,569	77,203
3	배드민턴	7,533	261,985	3,058	99,964	2,491	88,256	1,984	73,765
4	피 구	5,673	207,377	3,760	134,453	1,239	48,009	674	24,915
5	건 기	5,640	254,909	3,681	166,418	1,154	51,732	805	36,759
6	농 구	5,474	142,316	1,136	30,222	2,410	63,464	1,928	48,630
7	육 상	3,537	102,411	2,747	83,324	615	14,049	175	5,038
8	탁 구	3,144	81,383	854	20,487	1,402	37,134	888	23,762
9	티 볼	1,310	44,557	927	29,443	286	10,658	97	4,456
10	맨손체조	1,292	50,184	881	36,125	323	11,186	88	2,873

순	종 목	전체		초		중		고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11	야 구	1,292	33,923	353	8,772	626	16,380	313	8,771
12	발아구	1,239	37,980	768	24,149	309	9,376	162	4,455
13	풋 살	1,157	28,551	449	12,236	386	9,718	322	6,597
14	댄스 스포츠	1,127	27,846	490	11,392	346	8,200	291	8,254
15	배 구	967	28,848	373	11,471	292	8,052	302	9,325
16	요 가	826	22,154	258	6,075	368	8,956	200	7,123
17	Extreme games	796	23,578	520	15,229	172	5,532	104	2,817
18	태권도	644	34,641	346	22,216	145	5,842	153	6,583
19	볼 링	609	16,351	14	372	381	10,377	214	5,602
20	골 프	550	11,446	161	3,240	197	3,540	192	4,666
21	수 영	536	13,404	291	8,195	162	3,487	83	1,722
22	힙 합	503	11,553	47	1,041	253	5,431	203	5,081
23	당 구	487	11,843	4	64	206	5,245	277	6,534
24	자전거	479	15,950	209	7,303	141	4,602	129	4,045
25	테니스	475	10,234	73	1,535	199	3,534	203	5,165
26	씨 림	472	11,494	334	8,414	103	2,000	35	1,080
27	제기차기	435	14,717	345	12,234	52	1,820	38	663
28	바 독	435	10,413	230	5,586	119	2,804	86	2,023
29	족 구	419	11,311	37	1,176	132	3,164	250	6,971
30	마라톤	379	20,191	203	11,907	84	4,518	92	3,766
31	산 악	377	10,058	22	1,390	211	5,286	144	3,382
32	등 산	371	10,234	48	1,968	207	5,188	116	3,078
33	플라잉디스크	282	9,370	131	4,331	79	3,012	72	2,027
34	인라인롤러	281	7,861	167	5,121	67	1,508	47	1,232
35	보디빌딩	281	6,847	6	221	104	2,623	171	4,003
36	핸드볼	265	5,875	117	2,170	84	2,246	64	1,459
37	창작무용	252	7,836	112	3,255	100	3,501	40	1,080
38	소프트볼	252	6,877	41	1,190	144	3,761	67	1,926
39	현대무용	232	5,776	172	4,487	35	732	25	557
40	검 도	224	7,592	69	1,657	73	2,209	82	3,726
41	플로어볼	216	7,497	110	3,832	76	2,775	30	890
42	넷 볼	165	3,692	14	328	120	2,578	31	786
43	빙 상	143	3,939	24	850	102	2,746	17	343
44	줄다리기	139	6,779	33	1,537	78	3,623	28	1,619
45	치어리딩	116	3,324	36	800	42	1,621	38	903
46	발 레	115	1,773	99	1,456	7	110	9	207
47	유 도	106	3,268	28	383	38	849	40	2,036
48	한국무용	103	2,112	51	1,169	27	378	25	565
49	리듬체조	99	3,343	74	1,849	22	1,251	3	243

순	종 목	전체		초		중		고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50	복 싱	97	2,068	6	50	60	1,293	31	725
51	승 마	77	1,711	43	1,123	25	433	9	155
52	스쿼시	74	1,960	1	10	47	1,137	26	813
53	사이클	73	1,841	9	388	23	430	41	1,023
54	사 격	61	1,064	5	29	43	817	13	218
55	합기도	61	1,021	27	470	14	265	20	286
56	프리테니스	59	2,320	42	1,952	7	139	10	229
57	필라테스	59	1,536	11	227	19	429	29	880
58	킨 볼	58	1,642	19	498	30	917	9	227
59	기계체조	50	752	30	435	15	243	5	74
60	체 스	47	1,084	37	866	5	80	5	138
61	게이트볼	46	941	15	277	14	248	17	416
62	호신술	45	1,654	4	101	21	695	20	858
63	츄크볼	44	993	8	155	9	308	27	530
64	정 구	42	801	25	577	7	95	10	129
65	양 궁	38	479	26	326	9	113	3	40
66	장 기	37	875	18	395	11	320	8	160
67	스 키	35	1,514	10	415	13	316	12	783
68	궁 도	32	584	3	40	4	151	25	393
69	역 도	29	301	7	71	18	202	4	28
70	캠 핑	28	1,053	1	74	16	692	11	287
71	레슬링	27	309	1	19	20	217	6	73
72	택 건	26	1,242	9	337	14	788	3	117
73	럭 비	25	599	3	61	12	252	10	286
74	세팍	25	304	-	-	18	246	7	58
75	철인3종	24	812	19	723	3	49	2	40
76	낙 시	24	592	2	13	6	245	16	334
77	피 겨	24	462	9	137	14	295	1	30
78	하 키	23	706	13	501	6	89	4	116
79	종합무술	16	393	2	52	2	68	12	273
80	카 누	15	423	1	11	8	231	6	181
81	오리엔티어링	15	350	3	158	5	97	7	95
82	국학기공	14	365	8	231	3	74	3	60
83	우 슈	13	724	5	617	6	97	2	10
84	조 정	13	116	2	48	4	21	7	47
85	요 트	12	235	4	113	4	48	4	74
86	라켓볼	11	298	-	-	9	232	2	66
87	국선도	11	269	1	28	8	203	2	38
88	스케이트	10	334	2	160	8	174	-	-
89	스네이크보드	10	164	7	114	2	32	1	18

순	종 목	전체		초		중		고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90	윈드서핑	9	248	1	17	8	231	-	-
91	특공무술	9	137	1	1	2	45	6	91
92	아이스하키	8	99	4	60	1	9	3	30
93	근대5종	7	292	3	243	2	4	2	45
94	컬 링	7	100	1	14	4	50	2	36
95	수상스키	6	107	2	8	2	52	2	47
96	드레곤보트	5	130	2	39	-	-	3	91
97	공수도	5	69	-	-	1	24	4	45
98	수중	5	49	1	29	3	19	1	1
99	우드볼	4	141	-	-	1	31	3	110
100	페러글라이딩	2	58	-	-	-	-	2	58
101	트라이애슬론	1	37	-	-	-	-	1	37
102	스랙라인	1	30	-	-	-	-	1	30
103	기타(其他)	2,100	60,728	1,228	37,907	626	16,992	246	5,829

2) 학교스포츠클럽의 등록·관리

단위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동일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담당 지도교사(초등학교는 스포츠강사도 가능) 1명을 지정하여 종목별로 등록되고 있다. 동일 학교의 학생만으로 편성, 방과후 학교, 계발활동 등에 참가한 학생을 관할 교육청에 등록케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초중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생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3)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지원 사업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수업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방과 후 및 주말·방학을 이용하여 진행되며, 종목별로 교내 대회, 교육지원청 대회, 시·도교육청 대회, 전국대회의 순으로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4-3과 같다.

대회 종류	운영방식	출전 팀수	시 상	예 산	일 정
전국대회	토너먼트방식 (왕중왕전)	시·도 1~2위 (16~32팀)	교과부/ 문화부장관상 체육단체장상	문화부 체육단체 등	2학기 (10~12월)
시·도대회	토너먼트방식 (시·도 대표팀 선발)	시·군·구 1~2위	교육감상/ 광역자치단체장상 시·도체육단체장상	교과부(교육청) 광역자치단체 체육단체 등	2학기 (9~10월)
시·군·구대회	리그+토너먼트방식 (시·군·구 대표팀 선발)	학교 1위	교육장상/ 기초자치단체장상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체육단체 등	1학기 (6~8월)
교내 대회	리그+토너먼트방식 (학교 대표팀 선발)		학교장상	해당 학교 (자체예산)	1학기 (3~5월)

그림 4-3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요

2011년에 학교스포츠클럽을 위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참가한 팀수는 총 500개이며, 참가인원은 총 6,224명이다.

표 4-22 2011년 종목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현황

(팀, 명)

종목별	급별	초		중		고		계	
	팀수	참가인원	팀수	참가인원	팀수	참가인원	팀수	참가인원	
축구		25	380	25	444	16	288	66	1,112
야구		7	96	11	177	8	138	26	411
농구		22	243	24	268	21	240	67	751
배구		8	130	16	215	14	210	38	555
배드민턴		27	209	29	236	29	252	85	697
소프트볼		4	61	11	188	5	82	20	331
탁구		27	224	22	180	22	183	71	587
핸드볼		18	248	10	132	11	106	39	486
피구		12	187	20	302	15	233	47	722
줄넘기		14	195	19	266	8	111	41	572
계		164	1,973	187	2,408	149	1,843	500	6,224



제4절 학생선수 지원사업

학교운동부는 지금까지 한국전문체육의 산실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는 각종 사업을 통해 이 분야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체육특기자제도’가 본격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학생선수의 학력저하 및 인권침해 등의 각종 부작용이 존재해왔다. 최근 이에 대한 사회적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단순지원형태의 사업에서 벗어나 다각적 조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2010년 1월에 발표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이다.

이는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 상위 입상에 학교운동부가 기여하고 있으나, 학생선수의 학력저하,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합동으로 내놓은 종합적 학생선수 지원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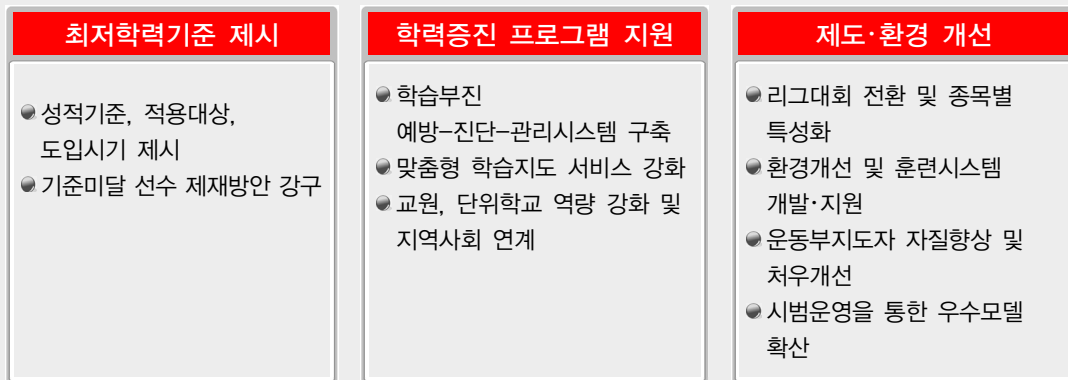
상기계획은 선진형 학생선수 학력향상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및 전인적 체육인재 육성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저학력기준제시, 학력증진프로그램지원, 제도 및 환경개선을 3대 하위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9개의 실천과제를 두고 있다 (그림 4-4 참조)

추진 목표

선진형 학생선수 학력향상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및 전인적 체육인재 육성

*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율(%) : 69.9%('07) → 80%('12)

* 학생선수·학부모의 학교운동부활동 만족도 '12년까지 80%이상 도달



학교체육진흥위원회(중앙, 지방) 구성 및 단위학교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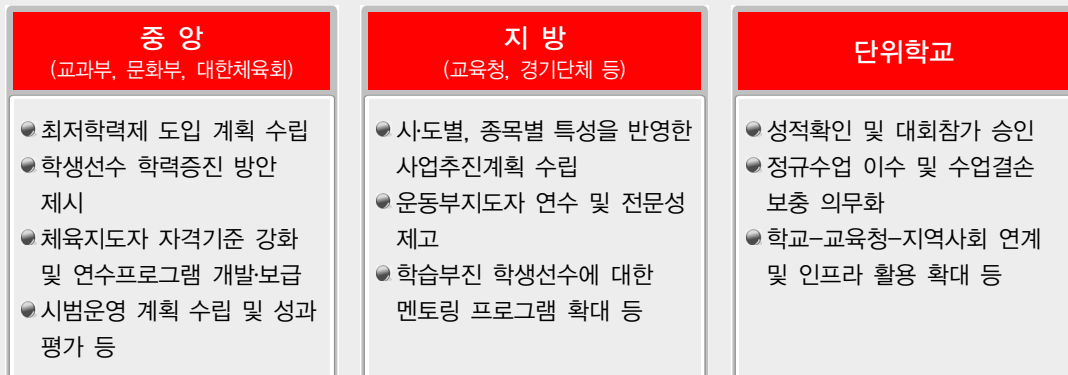


그림 4-4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

2.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해 사회적 우려 심화됨에 따라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제도화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하며,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여 학생선수가 이에 미달한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0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2011년도에 초등학교 4~6학년까지 시행하며, 2017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단계별로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표 4-23 참조).

표 4-23 최저학력기준의 단계별 적용 계획

적용연도 학교급	'10	'11	'12	'13	'14	'15	'16	'17
초	시범	초4~6						
중	시범		중1	중2	중3			
고	시범					고1	고2	고3

이 사업을 통해 학생선수는 단위학교에서 시행하는 1,2 학기말 고사에서 지정된 일부 과목에 대하여, 그 성적이 전교생 평균성과와 비교하여 초등학교는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에 미치지 못한 경우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1,2학기말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차기 중간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 이상이면 도달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4-24 연도별 최저학력기준미달률 조사 결과

연 도	급 별	초	중	고	계
'10년	조사인원	572	642	624	1,838
	기준미달자	8	139	88	235
	(%)	(1.4%)	(21.7%)	(14.1%)	(12.8%)
'11년	조사인원	907	916	998	2,821
	기준미달자	7	127	113	247
	(%)	(0.8%)	(13.9%)	(11.3%)	(8.8%)

학생선수 최저학력 기준 미달률 조사에 의하면 2010년에 조사인원 대비 12.8%에서 2011년에는 8.8%로 4% 감소되었다. 이는 일선학교 운동부가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서서히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각종 대회의 리그대회 전환

학기 중 전국단위의 토너먼트대회를 폐지하고 기존의 대회를 주말리그대회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2009년 초·중·고 축구리그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정착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축구리그 참여 팀 수가 2008년 대비 104팀(초등학교 83팀, 중학교 13팀, 고등학교 8팀) 증가하여, 총 627개 팀이 3~10월에 권역리그제, 10~11월에 왕중왕전의 일정을 마치면서 성공적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0년 11월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선수 84.2%, 학부모 78.2%, 지도자 79.3%가 만족하고 있어 현장에서 호응을 받으면서 정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학교 운동부 현장에서 정규수업 후 훈련하고 대회는 주말·공휴일·방과 후에 개최되는 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표 4-25 연도별 초·중·고 축구리그 참여팀 수 현황

연도	초			중			고			전체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계
'08 (리그시작전)	221	0	221	173	0	173	129	0	129	523	0	523
'09	210	56	266	169	6	175	135	0	135	514	62	576
'10	205	78	283	173	19	192	134	0	134	512	97	609
'11	202	102	304	172	14	186	137	0	137	511	116	627
증감 ('11-'08)	△19	102	83	△1	14	13	8	0	8	△12	116	104

2010년에는 새롭게 고교아이스하키에 리그제가 도입되었다. 총 8개 고교가 참가하고 있는 고교아이스하키리그는 연간 3차 리그와 왕중왕전을 실시하여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는 동시에 학업병행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2011년에는 고등학교 야구도 주말리그로 전환하여 실시했는데, 8개 권역 53개 팀으로 구성하여 전후기로 분리하여 3월에서 8월까지 총 372게임을 소화했다. 전기리그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치러지며 동일권역별리그와 24개 팀으로 왕중왕전이 토너먼트로 열렸다. 후기리그는 6월~8월간에 행해지며, 권역별 인터리그와 후반기 왕중왕전이 열렸다.

표 4-26 2011년도 고등학교 야구 주말리그 참여팀의 리그별 구성

구 분	1	2	3	4	5	6	7
서울 A	휘문고	배재고	신일고	중앙고	총암고	선린인터넷고	경기고
서울 B	장충고	배명고	성남고	경동고	서울고	청원고	덕수고
경상 A	제주고	경남고	개성고	울산공고	부산공고	부산고	부경고
경상 B	용마고	대구고	김해고	상원고	포철공고	마산고	경북고
전라권	군산상고	동성고	효천고	광주일고	진흥고	전주고	화순고
중부권	북일고	세광고	청주고	공주고	충주성심학교	대전고	
경기권	부천고	안산공고	유신고	인창고	아탑고	충훈고	
강인권	설악고	동산고	인천고	원주고	제물포고	강릉고	

※ 경상권 A : 부산, 울산, 제주 / 경상권 B : 대구, 경남, 경북 / 전라권 : 광주, 전남, 전북 / 중부권 : 대전, 충남, 충북 / 강인권 : 인천, 강원

4.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학력증진 방안 사업

학생선수의 학습권보호 및 학력증진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는 모든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내 시설이 없어 정규수업 후 운동이 불가능한 빙상, 조정, 골프 등 종목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계획 등으로 학교장 결재 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2,3학년)의 경우 예·체능계열 별도 반을 편성·운영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위 학교별 학생선수 학업성적 관리 대책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학력 부진아반’에 성적저하 학생선수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수업결손에 대한 수업보충 방안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별 학생선수 학습도우미, 대학생 멘토링제 등을 통해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에 대한 학생 학습도우미(동료, 또래)에 대한 봉사활동시간 인정하고 있으며, 운동부 지도교사가 봉사활동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대학생 멘토링제 등 순회 학습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5.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은 우수선수 발굴·육성의 근간인 학교운동부를 지원·육성하여 우수선수 저변확대 및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동·하계 올림픽대회 종목인 33개 종목의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나, 선수 개인에 대한 실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11년부터 대상자를 선수개인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초·중·고 학생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씩 1,132명을 대상으로 총 11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유망 학생선수의 지속적 운동동기 부여 및 경기력 제고에 이바지 하였다.

6.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육성지원 사업

체육계학교 육성지원사업은 전문선수 양성의 산실인 체육계학교의 훈련여건 개선 지원을 통하여 우수선수의 체계적 육성과 경기력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1년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지원 예산은 표 4-28과 같다. 2011년 현재 총 16억 4,324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연구학교운영비 1천만 원, 대회개최비 8천만원, 훈련비 9억 3,324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표 4-27 2011년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지원내역

(단위 : 천원, 명, 개)

학 교 명	학생수 (중고 합계)	'11년 지원 소요예산								비고 ('10)
		합 계	연구 학교 운영	대회 개최비	훈련비 (훈련경비, 훈련용품 등)	훈련시설 · 장비비				
						소 계	일률 지원	학생수 비례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수 비례	
계	4,620	1,643,240	10,000	80,000	933,240	620,000	270,000	288,000	62,000	2,233,000
서울체중 · 고	604	187,538			122,008	65,530	18,000	37,652	9,878	425,417
부산체육고	300	101,294			60,600	40,694	18,000	18,701	3,993	130,550
대구체육고	161	66,863			32,522	34,341	18,000	10,036	6,305	95,334
인천체육고	278	94,638			56,156	38,482	18,000	17,330	3,152	132,445
광주체육중 · 고	481	148,510			97,162	51,348	18,000	29,985	3,363	182,994
대전체육중 · 고	410	129,952			82,820	47,132	18,000	25,559	3,573	173,119
경기체육중 · 고	316	117,205	10,000		63,832	43,373	18,000	19,698	5,675	130,144
강원체육중 · 고	292	98,969			58,984	39,985	18,000	18,202	3,783	125,688
충북체육고	251	86,871			50,702	36,169	18,000	15,647	2,522	110,974
충남체육고	224	79,944			45,248	34,696	18,000	13,964	2,732	103,429
전북체육고	314	105,836			63,428	42,408	18,000	19,574	4,834	143,139
전남체육중 · 고	295	179,552		80,000	59,590	39,962	18,000	18,389	3,573	136,648
경북체육중 · 고	326	108,798			65,852	42,946	18,000	20,322	4,624	149,734
경남체육고	259	89,827			52,318	37,509	18,000	16,146	3,363	124,917
제주남녕고	109	47,443			22,018	25,425	18,000	6,795	630	68,468

7. 대학스포츠 정상화 및 활성화 도모

현재 대학스포츠는 일부 인기 구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 지나친 경기 및 훈련일정 소화 등으로 인한 선수의 혹사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한국대학스포츠 총장협의회 창립, 축구·농구·배구 리그제 도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대학스포츠 총장협의회는 운동부 보유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로서 2010년 7월에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를 모델로 하여 선수대상 학사관리, 대학스포츠 브랜드화 전략 등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구성되었다. 현재 운동부 보유 대학 102개중 50%인 51개 대학이 가입되어 있으며, 17개 대학 총장을 임원으로 하고 있다.

한편 대학축구, 농구, 배구 종목에 대해 리그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미 2009년부터 리그제를 실시하고 있는 축구의 경우 2011년에 69개팀이 참가하여 권역별리그 613경기, 챔피언십과 프렌드십 경기 75개를 포함하여 총 688경기를 실시했으며, 농구는 12개팀이 참가하여 정규리그 132경기(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각 대학이 22경기를 실시함), 챔피언 결정전 9경기를 포함하여 총 141개 경기를 실시했다. 한편 배구는 8개팀이 참가하여 전후반기로 분류하여 정규리그 60경기과 챔피언 결정전 6경기를 실시했다.

제5절 학교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

학교체육 시설은 학생체육활동의 물적 토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서도 기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중요한 체육인프라로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인 학교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다목적 체육관 건립, 야간조명등 설치 등이 있다.

1.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다양한 학교 운동장 사업은 학교운동장을 현대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9~2012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이 합동으로 5,000억원을 투자하여 총 1,000개교에 조성할 계획이다(표 4-28 참조).

표 4-28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의 예산투여 현황

(백만원)

연도 사업기관	'06	'07	'08	'09	'10	'11	계
교과부	56	62	64	100	88	91	461
문화부(공단)	27	29	29	147	103	132	467
계 (누계)	83 (83)	91 (174)	93 (267)	247 (514)	191 (705)	223 (928)	928

학교의 여건에 따라 선진화된 운동장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조성하고자 하는 운동장의 재질은 잔디(천연인조)운동장, 우레탄 시설(다목적구장, 트랙 등), 흙운동장(감람석 파쇄토, 황토, 마사토 등) 등으로 구분된다. 2003년부터 2011년 7월 현재까지 전체 2,083개교를 조성했다(표 4-29 참조).

표 4-29 2003~2011년도 부문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의 성과

시도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학교수					천연잔디운동장 조성학교수					흙운동장 조성학교수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특수	계	감람석	마사토	기타	계
서울	77	60	51	0	188	5	4	10	0	19	1	16	0	17
부산	30	28	33	0	91	1	1	8	4	14	1	0	0	1
대구	37	17	16	1	71	1	2	7	1	11	0	0	0	0
인천	29	12	9	1	51	0	1	5	1	7	0	2	0	2
광주	13	12	17	1	43	1	2	6	1	10	0	0	0	0
대전	17	17	12	1	47	8	2	10	2	22	0	1	0	1
울산	21	20	13	1	55	0	1	5	2	8	0	0	0	0
경기	126	78	67	3	274	13	9	10	6	38	5	0	0	5
강원	33	21	22	0	76	13	2	6	1	22	0	0	0	0
충북	36	16	13	0	65	5	4	2	2	13	0	0	0	0
충남	47	27	18	0	92	18	4	7	1	30	3	1	0	4
전북	28	11	23	0	62	65	18	19	3	105	1	0	0	1
전남	49	20	16	2	87	19	18	19	2	58	3	0	0	3
경북	57	25	24	1	107	4	3	9	2	18	0	4	0	4
경남	65	31	28	2	126	33	10	19	2	64	6	13	0	19
제주	23	13	8	0	44	71	18	16	3	108	0	0	0	0
합계	688	408	370	13	1479	257	99	158	33	547	20	37	0	57

2. 다목적 체육관 건립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지역주민 공동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9~2012년까지 매년 25개교씩 총 100개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청, 지자체가 1 : 2 : 1 비율로 분담하여 총 1,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표 4-30 참조).

표 4-30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의 예산소요

(교, 백만원)

구 분		'09	'10	'11	'12	계
건립 목표		25	25	25	25	100
소요예산	계	40,000	40,000	40,000	40,000	160,000(100%)
	문화부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25%)
	교육청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50%)
	지자체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25%)



Section

05

전문체육

- 제1절 개 관
- 제2절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 제3절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대회
운영 및 훈련시설 확충



Section

05

전문체육



제1절 개 관

2011년 정부는 체육정책의 기조로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라고 발표하였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7위,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5위, 광저우아시안게임 2위 및 FIFA U-17 여자월드컵 우승, 2011년 에르주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2위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그리고 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 3위 등 국제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발휘하였다.

또한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들의 훈련여건 개선을 지원, 국제대회 참가지원, 스포츠과학 지원, 우수 지도인력 투입,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동계종목 집중지원 등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전문체육은 개인의 경기력 향상 및 기록 달성 등 개인적 성취에서부터 국가를 대표하여 자국의 위상제고, 국민통합 및 자긍심 고취, 생활체육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도모,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로 인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하에 꾸준히 발전·성장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문체육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한 해 정부의 전문체육을 위한 육성정책과 지원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체계(꿈나무선수, 청소년대표선수, 후보선수, 국가대표선수)

둘째,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대회(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운영 및 훈련시설 현황

셋째, 스포츠과학 지원이다.

제2절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체육특기자제도, 병역특례제도, 국군체육부대, 태릉·진천·태백선수촌, 주말리그제, 학생선수 학업능력 향상 지원사업 등 정부는 엘리트스포츠지원 정책 중에서도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후보선수, 청소년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 육성은 스포츠경쟁력의 근간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 체육영재 및 지역체육인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육영재는 스포츠과학을 도입하여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기초종목 분야의 선수 수급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육영재의 선발 및 육성은 전국적으로 지정된 체육영재센터를 통해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표 5-1 체육영재

(단위 : 명)

권역	센터명	육상	수영	체조	계
서울	서울대('09~)	30	10	10	50
	이화여대('10~)	29	11	10	50
	한국체대('09~)	26	12	12	50
경인	인하대('09~)	24	12	14	50
	경희대('11~) * '09~'10 성대	30	10	10	50
	용인대('09~)	35	6	9	50
강원, 충청	강원대('09~)	10	10	10	30
	충남대('09~)	30	10	10	50
	충북대('11~)	20	10	10	40
전라, 제주	전북대('09~)	20	10	10	40
	조선대('09~)	28	11	11	50
	제주대('10~)	10	10	10	30
경상	경북대('09~)	27	11	12	50
	경남대('11~)	20	10	10	40
	부산대('09~)	30	10	10	50
	안동대('11~)	11	9	10	30
총계	16개소	380	162	168	710

※ 출처 : 체육인재육성재단(2011), 내부자료

2009년 11개소 530명, 2010년 13개소 600명, 2011년 현재 16개소 체육영재센터에서 초등학교 2~6학년을 대상으로 KOSTASS(체육영재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육상(380명), 수영(162명), 체조(168명) 등 3개 종목에서 710명을 선발하여 육성하고 있다.

지역체육인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전략종목의 우수선수로서, 지역 체육인재의 육성을 위해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종목의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과학적·체계적 교육 및 훈련 지원을 하고 있다. 2011년에는 14개 광역시·도에서 지역별로 선정된 주관사업자 22곳을 통해 사격, 육상, 유도, 테니스, 탁구, 양궁, 태권도, 럭비, 배드민턴, 레슬링, 펜싱, 사이클, 수영, 하키, 배구, 인라인 등 16개 종목 550명의 인재를 선발·육성하였다.

아울러 2011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학생선수 통합지원 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우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진로, 학업 및 심리 상담, 스포츠과학 및 기술훈련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표 5-2 지역체육인재

순 번	지 역	주관사업자	사 업 명	종목/인원
1	강원	강원대	차세대 강원체육인재 사업	사격/25명
2	경기	한양대	경기도 육상 중장거리 인재양성사업	육상/19명
3		용인대	경기 청소년유도선수 스포츠과학 사업	유도/30명
4		명지대	경기도 테니스인재 육성사업	테니스/31명
5		성결대	경기도 육상 단거리 인재양성사업	육상/20명
6	경남	영산대	경남 탁구 스포츠과학 융합 지원사업	탁구/23명
7	경북	안동대	경북 맞춤형 엘리트 스포츠리더 사업	양궁,탁구/16명
8	광주	광주체육회	빛고를 글로벌리더 육성사업	태권도/30명
9	대구	계명대	대구 전략종목 꿈나무 육성사업	육상,테니스/28명
10	서울	연세대	서울 학생선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럭비/30명
11		한국체대	서울 배드민턴 선수 멘토링 프로그램	배드민턴/17명
12		서울체육회	서울 청소년전략종목 육성사업	육상,레슬링/30명
13	인천	가천대	중고등 학생 레슬링 우수선수 육성	레슬링/18명
14	울산	울산대	울산 펜싱 일류화 사업	펜싱/25명
15	전남	동신대	전남 사이클 우수선수 선도사업	사이클/24명
16	전북	전주대	전북 엘리트선수 인재육성 사업	태권도/38명
17	제주	제주체육회	제주 레슬링 인재육성 사업	레슬링/17명
18	충남	충남체육회	지역 전략종목 육성	양궁/11명
19		상명대	충남 수영인재 육성사업	수영/28명
20		순천향대	충남 하키인재 육성사업	하키/29명
21		단국대	충남 배구 드림팀 육성사업	배구/31명
22	충북	충북대	충북 인라인롤러 인재육성 사업	인라인/30명
총 계			22개 사업	16종목/550명

※ 출처 : 체육인재육성재단(2011), 내부자료

표 5-3 학생선수 통합지원센터 현황(신규)

순번	지역	주관사업자	공동사업자	사업명	종목/인원
1	대전	대전체육회	충남대	대전 학생선수 통합지원 센터	16종목/300명
2	전북	전북체육회	전북대	전북 학생선수 통합지원 센터	6종목/300명
3	부산	부산체육회	동아대	부산 학생선수 통합지원 센터	4종목/300명

2. 꿈나무선수

꿈나무선수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선수 저변 확대, 차세대 대표선수 충원 기반확충,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관리 등을 통해 엘리트체육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011년에는 8종목(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핸드볼, 탁구, 유도)을 대상으로 총 370명의 꿈나무선수들을 선발하여 육성하였다.

1) 신인선수 발굴사업

꿈나무선수 발굴사업은 1993년 신인선수 발굴사업으로 시작되어 후보선수 발굴사업과 통폐합되는 1995년까지 3년 동안 총 9개 종목 1,204명을 선발·육성하였다.

표 5-4 신인선수(꿈나무) 육성사업 추진 현황

연도	종목수	종목현황	인원
1993	3	육상, 수영, 체조	200
1994	8	육상, 수영, 체조, 양궁, 사격, 탁구, 빙상, 스키	485
1995	9	육상, 수영, 체조, 양궁, 사격, 탁구, 빙상, 스키, 배드민턴	519

2) 기본종목 꿈나무선수 육성

가. 개요

꿈나무선수 사업은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풍부한 어린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 과학적 훈련과 관리를 통해 차세대 국가대표선수로 육성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존 사업이었던 신인선수 선발·육성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부터 ‘꿈나무선수 제도’로 개편되었다. 이에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고 여타 종목 선수확보에 파급효과가 크

다고 인정받는 육상, 수영, 체조 3개 종목을 대상으로 “기본종목 꿈나무 발굴사업”을 실시하였다. 2003년부터 동계올림픽경기대회를 대비하여 빙상, 스키종목을 추가하였고, 2008년부터 핸드볼, 탁구, 유도 등을 포함하여 총 8개 종목으로 확대하였다.

나. 꿈나무선수 선발·훈련

① 선발과정

꿈나무선수선발은 종목별로 시·도에서 추천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체격(30~50%), 체력(30~40%), 경기력(20~30%) 3개 요인을 종합 측정하고, 점수화한 평가결과와 특성불안과 집중력 등 심리검사결과를 합산하여 종목별 선발위원회에서 최종선발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이상의 절차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5-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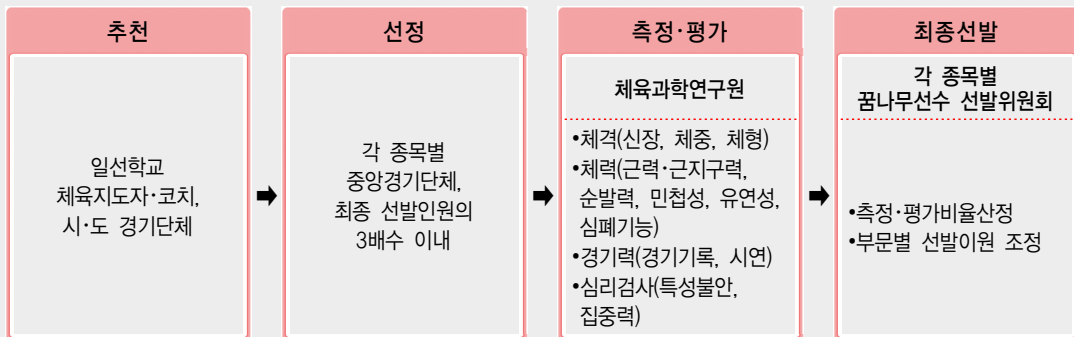


그림 5-1 꿈나무선수 선발 과정

꿈나무선수 선발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1단계는 ‘꿈나무선수 후보자 추천’ 과정으로서 일선학교 체육지도자·체육단체 코치, 스포츠클럽지도자 등이 꿈나무선수 후보자를 해당 종목 시·도 협회에 추천하고, 시·도 협회의 자체평가를 거쳐 중앙경기단체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2단계는 각 종목별 중앙단체가 선발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대상자를 선정하고, 3단계는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선발대상자의 측정·평가가 실시된다. 체육과학연구원은 기초검사, 정밀검사, 심리검사를 통해 선수의 경기력 및 체형(체력) 등을 측정하고 종목별, 연령별, 평가 항목별 표준점수 및 가중점수 등을 계산,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이외 해당 종목단체, 대한체육회, 전문가 등과 협의에 의해 단계들이 추진된다. 4단계는 각 종목별 꿈나무선수선발위원회가 해당종목의 꿈나무선수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이다. 체육과학연구원의 측정·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각 종목별 꿈나무선수선발위원회에서 위원 협의를 거쳐 꿈나무선수를 최종 확정한다.

2011년도에는 기존 8개 종목 753명을 측정·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5>와 같다.

표 5-5 종목별·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선발 현황

종목	세부 종목	최종 선발인원		측정·평가 참가인원	측정·평가 일정	장소
		기존	신규			
육상	단거리	—	36	326	5.1(일)~4(수)	대전한밭운동장
	중·장거리	—	32			
	도약	—	29			
	투척	—	23			
	소계	—	120			
수영	경영	15	10	45	5.19(목), 20(금)	체육과학연구원
	다이빙	9	2			
	싱크로	2	2			
	소계	26	14			
체조	기계(남)	9	4	42	5.18(수)	체육과학연구원
	기계(여)	8	7			
	리듬	9	3			
	소계	26	14			
빙상	스피드	9	9	48	5.12(목), 13(금)	체육과학연구원
	쇼트트랙	15	3			
	피겨	8	6			
	소계	32	18			
스키	크로스컨트리	—	12	120	5.16(월)	체육과학연구원
	스키점프	—	5			
	프리스타일	—	5			
	알파인	—	12			
	스노보드	—	6		5.17(화)	
	소계	—	40			
핸드볼	남자	—	15	65	4.19(화), 20(수)	체육과학연구원
	여자	—	15			
	소계	—	30			
탁구	남자	—	15	51	5.9(월), 11(수)	체육과학연구원
	여자	—	15			
	소계	—	30			
유도	남자	—	12	56	4.26(화), 27(수)	체육과학연구원
	여자	—	8			
	소계	—	20			
총계			370	753		

② 훈련 및 관리

2011년도 선발된 꿈나무선수의 훈련·관리 프로그램은 동·하계 합숙훈련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다만, 훈련 중 부상과 중도 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충원은 재선발 과정을 거치는데 측정과 평가를 거쳐서 종목별 선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 순위 선수가 선발된다.

선발된 꿈나무선수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운영의 주요내용은 첫째, 연간 24일 이내의 동·하계 합숙 훈련을 지원한다. 둘째, 꿈나무전담지도자 정책연구비로 종목당 1명을 기준으로 9개월 동안 월 500,000원을 지급하여 선수지도에 대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꿈나무선수 합숙 훈련시 상해보험을 가입한다. 넷째, 꿈나무선수 지방순회 지도제도로서 연중 3회에 걸쳐 종목별 꿈나무선수 육성 담당지도자가 전국(꿈나무선수 소재지)을 순회하며 선수 개인별 훈련현황 파악 및 지도,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을 실시한다. 다섯째, 꿈나무선수의 경기력, 체형 등의 개인별 분석 자료를 정리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기록을 관리함으로서 매년 자료를 축적하여 꿈나무선수 관련 자료의 지속적 보존·관리에 기여하는 것이다.

③ 합숙훈련 현황

동·하계 방학을 통해 이루어지는 합숙훈련은 해당 종목별로 실시되며, 해당 종목별 꿈나무선수 합숙 훈련의 내용은 <표 5-6>과 같다.

표 5-6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합숙훈련 현황

종목	훈련명	기간	장소	참가인원			비고
				선수	지도자	계	
육상	하계합숙훈련	2011.8.2-8.13	충북 보은 종합운동장	120	22	142	-
	동계합숙훈련	2011.12.28-1.9	충북 보은 종합운동장	120	22	142	-
수영	하계합숙훈련	2011.8.9-8.20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	40	10	50	-
	동계합숙훈련	2011.12.12-12.21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	40	10	50	-
체조	하계합숙훈련	2011.8.14-8.25	서울 창천초등학교	40	10	50	남
		2011.8.9-8.20	부산 사직체조장				여
		2011.7.20-7.31	용인 이동초등학교				리듬
	동계합숙훈련	2011.12.22-12.31	서울 창천초등학교	40	10	50	남
		2011.12.22-12.31	부산 부산체고				여
		2011.12.19-12.28	용인 이동초등학교				리듬
빙상	하계합숙훈련	2011.7.21-8.1	강원도 오대산 일대	50	10	60	스피드
		2011.7.27-8.9	강원 춘천 의암빙상장				쇼트트랙
		2011.8.1-8.12	인천 동남스피아				피겨
	동계합숙훈련	2011.12.15-12.24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팅장	50	10	60	스피드
		2011.12.22-12.31	강원 춘천 의암 실내빙상장				쇼트트랙
		2011.12.12-12.21	서울 태릉 실내빙상장				피겨
스키	하계합숙훈련	2011.9.18-9.29	베어스타운 리조트	40	10	50	알파인
		2011.7.29-8.9	강원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
		2011.7.9-7.20	강원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2011.9.18-9.29	경기 포천 베어스타운				스노보드
		2011.8.2-8.13	경기 이천 지산리조트				프리스타일
	동계합숙훈련	2011.12.7-12.16	강원 용평 알펜시아	40	10	50	알파인
		2011.12.22-12.31	강원 용평 알펜시아				크로스
		2011.12.10-12.19	강원 용평 알펜시아				스키점프
		2011.12.11-12.20	하이원 리조트				스노보드
		2011.12.14-12.23	지산 리조트				프리스타일
핸드볼	하계합숙훈련	2011.7.27-8.7	경북 구미 선산체육관	30	6	36	-
	동계합숙훈련	2011.12.14-12.23	제주 서귀포 효돈체육관	30	6	36	-
탁구	하계합숙훈련	2011.8.16-8.27	전남 진도 진도체육관	30	6	36	-
	동계합숙훈련	2011.12.20-12.29	충북 단양문화센터	30	6	36	-
유도	하계합숙훈련	2011.7.17-7.28	경북 고령 고령중학교	20	6	26	-
	동계합숙훈련	2012.1.8-1.17	광주광역시 유도회관	20	6	26	-
계				740	160	900	-

3. 청소년대표선수

1) 개요

청소년대표선수는 기존 꿈나무선수 — 후보선수 — 국가대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선수공급체계를 4단계로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초기만 해도 비인기종목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2011년에는 꿈나무선수와 후보선수 간 간극을 채우고, 중간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대표선수 사업이 시작되었다. 대상 종목은 우선 프로종목이 없고, 국내 훈련 및 경기 여건이 열악하며, 올림픽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있거나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올림픽경기대회나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23개 종목(배드민턴, 복싱, 카누, 사이클, 펜싱,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근대5종, 조정, 요트, 사격, 수영, 탁구, 테니스, 역도, 레슬링,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이 속한다.

2) 청소년대표선수 선발·훈련

가. 현황 및 선발기준

2011년 청소년대표 육성사업을 살펴보면 동계종목(빙상, 스키)은 열악한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엔트리 수만큼 반영하였던 2010년과 달리 빙상(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10개 세부종목으로 확대·조정하였다. 청소년대표선수 선발육성과 선발기준은 <표 5-7>과 같다.

청소년대표 선발기준은 각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령은 14세부터 19세 선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협회가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회나 국제대회의 입상성적 그리고 각종 전국대회의 입상성적과 기록 및 성장가능성 등을 참고하여 평가·선발하였다.

표 5-7 청소년대표선수 선발육성 및 선발기준 현황

종목	종목			대상 연령	선수선발		훈련기간	물리 치료사
	선수	지도자	계		기준	기간		
배드민턴	40	6	46	14-18세	• 각종 국내·외 대회성적, 신체조건 및 경기력이 우수한 자 중 주니어대표 감독이 추천 • 잠재력, 경기력등을 통합분석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발 (후보선수 차순위 선발)	종 목 별 1 월 3 월	8.13-9.1	
복싱	22	3	25	15-16세(유소년) 17-18세(청소년)	•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성적 • 경기기록, 잠재력분석 및 시도추천		8.1-20	
카누	26	4	30	14-16세	• 선발전기록순위 또는 소년체전상위 입상자 선발 예정		8.7-26	1
사이클	35	5	40	15-19세	• 대한사이클연맹선발규정에 따름 • 최근3개대회성적순 선발 • 선수선발위원회회의 반영		7.28-8.16	
펜싱	44	6	50	14-17세	• 전국대회, 국제대회입상 성적 • 신체조건 및 자질 등 성장가능성 • 경기기록 및 잠재력분석기록		12.10-29	1
체조	44	8	52	14-19세	• 전국대회 입상성적		12.8-27	1
핸드볼	42	5	47	16세	• 전국대회 입상성적 • 성장가능성이 있는 선수, 포지션 및 신체 조건이 우수한 선수		7.29-8.17	
하키	48	6	54	14-17세	• 국내대회성적, 잠재력 및 장래성이 있는 우수선수		10.23-11.11	
유도	32	4	36	16-17세	• 전년도 경기성적 및 전임지도자점수합산 선발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7.4-23	
근대5종	15	2	17	14-18세	• 전국대회(회장배, 문광부, 선수권, 체전) 성적 - 4개 공인대회 평균기록 - 국내대회 성적		7.18-8.6	1
조정	30	5	35	13-15세	• 소년체전 성적기준우선선발 • 일반대회 성적감안고등학생위주선발		8.2-17	
요트	29	5	34	12-18세	• 국내대회 랭킹순 선발		7.23-8.11	1
사격	44	5	49	14-15세	• 4개 공인대회중 상위2개 본선험산 기록순 (문광부장관기, 중고연맹회장기, 봉황기, 경찰청장기)		8.7-25	1
수 영	경영	50	8	58	14-18세		7.17-8.21	
	수구				• 개인종목 기록을 기준으로 선발 (경영, 다이빙, 싱크로나이즈) • 포지션별 평가를 기준으로 선발(수구)		8.12-29	
탁구	30	4	34	만 15세 이하	• 주니어상비군 선발 성적순		6.28-7.17	
테니스	12	4	16	14-16세	• 국내랭킹+국제랭킹순으로 선발 • 가능성고려 주니어위원회 추천		6.26-7.15	1

종목		종목		대상 연령	선수선발		훈련기간	물리 치료사		
		선수	지도자		계	기준			기간	
역도		30	4	34	14-18세	• 전국대회기록 및 잠재력이 있는 선수 선발 (후보선수 차순위 선발)	총 목 별 1 월 3 월	8.5-24	1	
레슬링		42	6	48	15세-16세	• 2011회장기대회 및 2010경기실적을 평가 하여 선발		10.16-11.4		
빙 상	스피드	40	7	47	14-18세	• 전국대회성적 및 해당대회 랭킹순 (후보선수와 중복되지 않는 선수)		7.18-8.6		
	쇼트트랙							7.17-8.5		
	피겨							8.1-20		
스 키	알파인	43	8	51	14-17세	• 선수강화 위원회 회의		7.9-28	1	
	크로스 컨트리							7.29-8.17		
	스키점프							7.9-28		
	스노보드							7.9-28		
	프리 스타일							7.9-28		
아이스하키		23	3	26	14-16세	• 경기력(게임운영능력, 각 포지션별 대처 능력, 스피드 및 파워) 우수선수		7.8-8.9	1	
바이애슬론		18	3	21	14-18세	• 국제 및 국내대회 성적합산(해당년도시즌) • 현재경기기록 및 잠재력 분석기록 등 (후보선수와 중복되지 않도록 연령예정)		7.21-8.9	1	
컬링		10	2	12	만21세이하	• 한국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선발전		9.1-10.8		
계		749	113	862						

나. 청소년대표선수 훈련

청소년대표선수를 위한 훈련은 동·하계 합숙훈련으로 구분된다. 동·하계 합숙훈련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우수 선수층의 저변확대 및 엘리트체육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대표선수 결원 시 충원이 가능한 경기력을 상시 보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훈련기간은 아이스하키와 컬링(약 한달 정도)을 제외하고, 28개 종목은 방학을 이용하여 약 20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단체에 따라 동계 또는 하계로 정하여 한 번 실시하고 있어 일회성 단기 훈련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합숙훈련기간 동안 지원되는 훈련비는 <표 5-8>과 같다.

한편 청소년대표선수 사업은 스포츠선진국 선수들과의 실전경험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과 자신감 배양, 국제대회 참가와 합동훈련, 기술개발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국제 경기력과 각국의 전력탐색 등 외국의 스포츠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외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표 5-8 동·하계 합숙훈련 지원내용

구분	항목	내용
훈련비	숙박비	1인 1박 22,000원
	식비, 간식비	1인 1일 23,000원
	지도자 수당	1인 1일 100,000원
	훈련복 구입	1인당 250,000원 내외
	훈련용구비	1인당 100,000원
	시설 사용료	1인당 100,000원
	약품 구입비	1인당 5,000원
	지도자 활동비	1인당 50,000원
	목욕비	1인당 20,000원
	현수막	1세부종목당 200,000원
	스포츠상해보험	1인당 20,000원
	교통비	1인당 40,000원
	강습비	1세부종목당 200,000원

15개 경기단체에서는 각 종목별로 20명 내외로 국외전지훈련 선수를 배정하도록 하여 10~15일 이내로 국제경쟁력이 입증된 메달획득 가능 종목에 우선지원(유도, 역도, 레슬링 등)하였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정부에서는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해 전년 보다 많은 동계종목(바이애슬론, 빙상(스피드), 컬링, 아이스하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수정예 유망주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특성화 훈련지원(사이클), 단체종목은 전년(순환배정)과 달리 하키, 핸드볼 등을 지원하고 있고, 올림픽 경기대회 다메달 종목으로 향후 장기전략 육성종목의 경우 우선지원(조정, 카누, 요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5-9>와 같다.

표 5-9 청소년대표선수 국외전지훈련 현황

종목		인원(임원, 선수)	기간	장소	금액(원)
사이클		4(0, 4)	6.20-8.25(67일)	스위스 애글르	47,960,000
핸드볼		15(3,12)	6.26-7.10(15일)	이탈리아, 스페인	49,940,000
요트		10(3,7)	7.6-16(10일)	크로아티아 자다	33,111,000
아이스하키		26(3,23)	7.21-31 (11일)	일본홋카이도	54,355,600
유도		12(2,10)	7.27-8.6(11일)	체코 프라하	46,320,000
스키	알파인	5(1,4)	8.3-18(16일)	뉴질랜드	54,815,900
	스노보드	3(1,2)	7. 31-8. 15(16일)	뉴질랜드	
	프리스타일	3(1,2)	8. 14-28(15일)	일본 (고류)	
	크로스컨트리	4(1,3)	10.31-11.14(15일)	러시아 (마가단)	
근대5종		12(2,10)	8.8-22(15일)	터키 이스탄불	44,005,200
역도		16(4,12)	9.1-15(15일)	태국 파타야	42,848,000
빙상(스피드)		16(2,14)	9.5-19(15일)	일본오비히로	38,739,000
배드민턴		15(2,13)	9.16-30(15일)	중국 쑤저우	38,046,000
탁구		15(3,12)	10.20-31(12일)	독일 퉁클리지	46,028,550
수영		15(2,13)	11.21-12. 5(15일)	괌	41,505,000
카누		13(2,11)	11. 7-17(11일)	호주 선샤인코스트	47,200,900
펜싱		22(4,18)	11.20-29(10일)	홍콩	45,452,000
레슬링		15(3,12)	12.5-19(15일)	기르기스탄, 비스켓	61,328,000
복싱		16(3,13)	11.25-12. 9(15일)	태국 파타야	43,075,200
바이애슬론		13(2,11)	12.7-22 (16일)	독일 루폴딩	71,476,000
컬링		12(2,10)	11.11-12.10(남) /10.19-11.2(여)	캐나다 토론토, 캄프스	48,612,000
하키		22(4,18)	11.16-29(14일)	중국 광저우	49,351,200

4. 후보선수

1) 후보선수 관리운영 개요

후보선수 육성사업의 목적은 첫째, 잠재력 있는 우수인재를 조기에 육성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수선수 공급을 원활히 하고 둘째, 국가대표선수와 의 상호경쟁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며 셋째, 국가대표선수 결원시 우수한 기량을 갖춘 후보선수를 즉시 대표선수로 충원하는 등 국가대표선수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후보선수 육성사업은 1982년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잠재력이 우수한 선수 4,359명을 선발하는 것이 시초가 되었고, 1983년부터 각 경기단체가 매년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에 이어 변동 없이 2011년도 28종목에 1,300명의 후보선수를 육성하였다.

표 5-10 후보선수 발굴 및 최종선발 인원 수

연도별	발굴	탈락	(육성인원) 최종선발	대표선수배출	비율(%)
2005	1,300	—	1,300	104	8
2006	1,300	—	1,300	62	4.8
2007	1,300	—	1,300	108	8
2008	1,300	—	1,300	115	8.8
2009	1,300	—	1,300	64	4.9
2010	1,300	—	1,300	82	6.3
2011	1,300	—	1,300	67	5.1

<표 5-10>에서 대표선수 배출비율은 당해 연도에 대표선수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정요건을 충족한 후보선수가 대표선수로 발탁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아래 <표 5-11>은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5-11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비율

종목	후보선수수	대표선수수	후보선수출신 대표	비 후보선수출신 대표
육상	135	59	46(77.97%)	13
수영	118	59	59(100%)	0
체조	60	26	24(92.31%)	2
복싱	30	20	20(100%)	0
레슬링	50	34	34(100%)	0
역도	30	29	23(79.31%)	6
유도	48	40	34(85%)	6
태권도	48	26	25(96.15%)	1
양궁	40	16	12(75%)	4
사격	84	64	54(84.38%)	10
배구	36	24	19(79.17%)	5
핸드볼	48	40	34(86%)	6
하키	48	44	40(90.91%)	4
탁구	30	34	30(88.24%)	4
근대5종	15	14	10(71.43%)	4
펜싱	48	44	39(88.64%)	5
테니스	24	12	11(91.67%)	1
사이클	40	22	22(100%)	0
조정	30	20	19(95%)	1
요트	29	18	15(83.33%)	3
카누	26	15	13(86.67%)	2
배드민턴	60	48	43(89.58%)	5
축구	36	21	19(90.48%)	2
소프트볼	17	17	15(88.24%)	2
아이스하키	25	22	20(90.91%)	2
바이애슬론	18	12	12(100%)	0
빙상	78	34	33(97.06%)	1
스키	49	30	30(100%)	0
합계	1,300	844	755(89.45%)	89

2) 후보선수

후보선수를 육성하는 종목은 하계 24종목, 동계 4종목으로 총 28종목이다. 후보선수의 훈련 육성과 관련된 세부사업은 첫째, 후보선수가 소속된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에 훈련용품 구입·비·대회참가비 등의 지원 둘째, 동·하계 합숙훈련지원 사업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중적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평시 훈련 및 경기력 향상 정도 등을 평가 셋째, 국외전지훈련 지원사업으로 아시아경기대회 및 올림픽경기대회에 대비하여 후보선수 중 우수선수를 경기단체별로 선발하여 전임 및 전문지도자에 의한 기술훈련과 해외훈련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데에 있다.

표 5-12 후보선수 훈련종목과 정원

(단위 : 명)

종 목		선 수			지도자	계	비 고
		남	여	계			
육 상	단 · 허 들	18	15	33	5	38	
	중·장 거 리	22	16	38	5	43	
	도 약·훈 성	20	15	35	5	40	
	투 척	15	14	29	4	33	
수 영	경 영	33	33	66	6	72	
	다 이 빙	15	12	27	3	30	
	수 구	15	-	15	2	17	
	싱 크 로	-	10	10	2	12	
체 조	기 계	27	21	48	6	54	
	리 듬	-	12	12	2	14	
레 슬	자 유 형	21	9	30	3	33	
	그 레 고	20	-	20	2	22	
복	싱	30	-	30	4	34	
역	도	18	12	30	4	34	
유	도	24	24	48	4	52	
양	궁	20	20	40	4	44	
사	격	51	33	84	10	94	
배	구	18	18	36	4	40	
핸 드	볼	24	24	48	4	52	
하	키	24	24	48	4	52	
탁	구	15	15	30	4	34	
펜	싱	24	24	48	5	53	
테 니	스	12	12	24	4	28	
사 이	클	26	14	40	6	46	
조	정	17	13	30	5	35	
요	트	25	4	29	4	33	
카	누	17	9	26	4	30	
소 프 트	볼	-	17	17	2	19	
배 드	민 턴	31	29	60	6	66	
태 권	도	24	24	48	4	52	
근 대 5	종	15	-	15	2	17	
축	구	-	36	36	3	39	
아 이	스 하 키	25	-	25	3	28	
빙 상	스 피 드	15	15	30	4	34	
	피 겨	-	12	12	2	14	
	슛 트 랙	24	12	36	4	40	
바 이	애 슬 론	12	6	18	2	20	
스 키	알 파 인	12	6	18	2	20	
	크 로 스	12	7	19	2	21	
	스 키 점 프	4	-	4	1	5	
	스노우보드	3	1	4	1	5	
	프리스타일	3	1	4	-	4	
총 계		731	569	1,300	153	1,453	

표 5-13 후보선수의 훈련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기금보조 사업	동하계 합숙훈련	3,431,594(훈련관리 포함)
	국외전지훈련	295,370
	전임지도자 운영	1,587,805
계		5,314,769

3) 전임지도자 제도 운영

1983년부터 시작된 전임지도자 제도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한체육회에 13종목 20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종목별로 월 20일 이상 전국단위 순회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제도는 1985년 대한체육회 회장이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임기 1년인 전임지도자를 임명하면서 사업이 본격화 되었으며, 2005년부터 이들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처우를 보장해주는 각종 조치가 이루어졌다. 2009년부터는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였고, 임금도 대폭 인상되었다.

전임지도자의 주요업무는 첫째, 후보선수의 발굴·추천 및 선발관리 둘째, 후보선수 동·하계 합숙훈련과 국외훈련 계획 수립 및 추진·평가 관리 셋째, 후보선수 소재 지방순회지도 넷째, 후보선수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경기력 향상도 평가 및 자료관리 다섯째, 대표선수 훈련지원 여섯째, 연간 및 월별 업무활동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일곱째, 각종 강습회 및 세미나 참석 여덟째, 기타 우수선수의 양성 및 경기력 향상에 있다. 2011년 12월 말 기준 22종목에 30명의 전임지도자가 임명되었으며 미임용 종목은 테니스, 탁구, 배구, 빙상 등 4종목이다.

이들 후보선수 전임지도자들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유망 엘리트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가대표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종목에서 공금유용 등 회계문란을 야기한 사례가 있고, 전임지도자의 지도능력이 검증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전임지도자의 지도 및 관리업적 등을 연 1회, 4등급(A등급: 10%, B등급: 40%, C등급: 40%, D등급: 10%)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했다. 이는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의 지도 및 관리업적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 시 평가결과를 반영(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4년 임기 중 3회 이상 기록했을 시 재임용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임지도자의 자기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고 전임지도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 5-14 전임지도자 종목과 정원

(단위 : 명)

종 목		정 원	현 원	종 목	정 원	현 원
육 상	단 거 리	1	1	하 키	1	1
	중·장거리	1	1	조 정	1	1
	도 약	1	1	사 이 클	1	1
	투 척	1	1	테 니 스	1	-
수 영	경 영	1	1	탁 구	1	-
	다 이 빙	1	1	배 구	1	-
	싱 크 로	1	1	배 드 민 턴	1	1
체 조	남 자	1	1	펜 싱	1	1
	여 자	1	1	요 트	1	1
레슬링	자 유 형	1	1	카 누	1	1
	그 레 꼬	1	1	근 대 5 종	1	1
복 싱		1	1	여 자 축 구	1	1
유 도		1	1	빙 상	1	-
역 도		1	1	스 키	1	1
양 궁		1	1	아 이 스 하 키	1	1
사 격	공 기 총	1	1	바 이 애 슬 론	1	1
	화 약 총	1	1	계 (26종목)	34	30
핸 드 볼		1	1			

5. 국가대표선수

1) 국가대표선수 훈련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사업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는 중점지원종목의 경우 엔트리의 1.5~2배수로 선발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의 경우에는 엔트리 범위 내에서 적정인원을 책정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국가대표 코치는 훈련에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하며 세부종목 수 및 종목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는 <표 5-15>, <표 5-16>, <표 5-17>과 같다.

표 5-15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

(단위 : 명)

구분	종목수	인원				계
		코치	선수			
			남	여	소계	
하계종목	35	171	565	431	996	1,167
동계종목	7	24	86	61	147	171
계	42	195	651	492	1,143	1,338

표 5-16 연도별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

(단위 : 명)

연도	종목수		인원			계	총계
			코치	남자선수	여자선수		
2005	하계	39	143	521	378	1,042	1,203
	동계	6	20	83	58	161	
2006	하계	38	157	532	356	1,045	1,175
	동계	6	19	53	58	130	
2007	하계	38	156	510	354	1,020	1,171
	동계	6	21	74	56	151	
2008	하계	39	157	542	327	1,026	1,187
	동계	6	23	77	61	161	
2009	하계	39	173	611	410	1,194	1,365
	동계	7	27	85	59	171	
2010	하계	39	152	463	354	969	1,137
	동계	7	25	85	58	168	
2011	하계	35	171	565	431	1,167	1,338
	동계	7	24	86	61	171	

표 5-17 국가대표선수 훈련인원

(단위 : 명)

구분	종 목	훈 련 인 원							합계
		선수			코치	트레이너			
		남	여	소계		체력,심리	물리치료	소계	
하계 종목 (35)	양 궁	8	8	16	5		1	1	22
	육 상	42	35	77	11			0	88
	배드민턴	25	23	48	7		1	1	56
	야 구	24		24	3			0	27
	농 구	12	12	24	4			0	28
	볼 링	8	8	16	4			0	20
	복 싱	20	3	23	3	1	1	2	28

구분	종 목	훈 련 인 원							합계
		선수			코치	트레이너			
		남	여	소계		체력,심리	물리치료	소계	
하계 종목 (35)	카 누	13	4	17	3			0	20
	사 이 클	14	12	26	6	1		1	33
	승 마	12		12	3			0	15
	펜 싱	22	22	44	6		1	1	51
	축 구	20	18	38	4			0	42
	골 프	6	6	12	2			0	14
	체 조	14	22	36	10		1	1	47
	핸 드 볼	24	24	48	6		1	1	55
	하 키	22	22	44	6		1	1	51
	유 도	20	20	40	6		2	2	48
	카 바 디	10	10	20	2			0	22
	공 수 도	7	6	13	3			0	16
	근대 5종	8	6	14	5			0	19
	조 정	10	10	20	3			0	23
	력 비	18	12	30	4			0	34
	요 트	13	5	18	5	1		1	24
	세팍타크로	12	12	24	3			0	27
	사 격	36	28	64	12		1	1	77
	스 퀴 시	5	5	10	2			0	12
	수 영	36	23	59	10		1	1	70
	탁 구	10	10	20	4		1	1	25
	태 권 도	16	16	32	4		1	1	37
	테 니 스	6	6	12	2			0	14
	트라이애슬론	4	4	8	2			0	10
	배 구	14	14	28	4	2		2	34
	역 도	17	13	30	6		2	2	38
	레 슬 링	28	6	34	8		1	1	43
	우 슈	9	6	15	3			0	18
소계	35종목	565	431	996	171	5	16	21	1,188
동계 종목 (7)	빙 상	17	19	36	6	1	1	2	44
	스 키	23	7	30	6			0	36
	아이스하키	22	21	43	4			0	47
	바이애슬론	6	6	12	3			0	15
	컬 링	5	5	10	2			0	12
	루 지	3	3	6	1			0	7
	봅슬레이,스켈레톤	10		10	2	1		1	13
소계	7종목	86	61	147	24	2	1	3	174
합계	42종목	651	492	1,143	195	7	17	24	1,362

국가대표선수 훈련기간은 연간 200일 이내로 1월에서 6월까지의 전문체력 육성 및 기술연마를 하고, 7월에서 12월까지의 개인 및 단체 특기개발 훈련을 실시한다. 대표선수 훈련은 태릉선수촌 및 태백선수촌에서 실시되는 촌내훈련과 종목별 전용훈련장에서 행해지는 촌외훈련으로 구분되는데, 촌내훈련은 촌내 및 인근지역 훈련시설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촌외훈련은 훈련여건상 불가피한 종목이나 자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국내전지훈련은 태백선수촌에서 하며 특별훈련으로 파트너 훈련, 크로스컨트리 훈련,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 등이 수행되었다. 파트너 훈련은 메달유망종목 및 상대성 훈련이 필요한 종목을 중심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크로스컨트리훈련은 선수촌 입촌 종목을 대상으로 주 1회 실시하며,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은 종목별 특성에 맞는 훈련프로그램 위주이다. 세부 훈련종목은 <표 5-18>과 같다.

표 5-18 국가대표선수 세부 훈련종목

구 분		종목수	종 목
하계 종목	올림픽경기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26	양궁, 육상, 배드민턴, 농구, 복싱, 카누, 사이클, 승마, 펜싱, 축구,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근대5종, 조정, 요트, 사격, 수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철인3종, 배구, 역도, 레슬링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9	야구, 볼링, 골프, 카바디, 공수도, 럭비, 세팍타크로, 스쿼시, 우슈,
	소 계	35	
동계종목		7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총 계		42	-

2) 경기력향상 지원사업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은 훈련을 통한 실전경험 축적, 외국인 코치 초청을 통한 선진 경기기술 습득, 스포츠선진국에 지도자 파견을 통한 국외 정보수집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가. 국외전지훈련

국외전지훈련은 실전경험을 통한 선진기술의 습득과 상대의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훈련 참가 종목의 임원 및 선수의 엔트리 범위 내에서 참가하게 된다. 국외전지훈련 기간은 메달 획득 유망종목의 경우 연중 2~3회, 1회당 30일 이내이며 기타 종목은 1회 20일 이내이다. 2011년에는 31종목 1,216명(임원 263명, 선수 953명)이 참가하였다.

표 5-19 연도별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 및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종목수 (세부종목)	인원			지원금액		
		계	임원	선수	계	국고	기금
2005	14(29)	376	67	309	964,025	964,025	-
2006	26(57)	909	181	728	2,357,304	2,357,304	-
2007	27(56)	1,375	252	1,233	929,398	3,929,398	-
2008	33(94)	1,344	260	1,084	4,321,300	2,016,084	2,305,246
2009	29(74)	1,063	212	851	3,212,547	359,136	2,853,411
2010	34(55)	1,052	207	845	2,905,821	456,263	2,449,558
2011	31(91)	1,216	263	953	3,856,329	624,026	3,232,303

나. 외국인코치 초청사업

외국인코치 초청사업은 스포츠선진국의 경기기술 습득 및 취약한 전술전략 습득을 목적으로 1982년부터 도입되었다. 대상종목은 메달획득 유망종목 및 경기력 취약종목, 경기력 향상과 지도자 자질향상에 효과가 큰 종목,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이다. 초청대상 외국인 코치는 세계 정상급 선수경력보유자, 세계 정상급 선수지도 유경험자 및 지도자인데 2011년도에는 5종목에서 9명이 초청되었다.

표 5-20 외국인코치 초청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종목수 (세부종목)	인원수	국가수	지원금액		
				계	국고	기금
2005	1(1)	1	1	29,944	29,944	-
2006	5(8)	8	7	244,892	244,892	-
2007	6(7)	8	6	203,012	36,321	166,691
2008	4(6)	9	4	192,370	60,786	131,584
2009	4(4)	5	4	203,445	66,007	137,438
2010	4(4)	4	4	237,051	61,522	175,529
2011	5(9)	9	6	212,285	84,877	127,408

다. 지도자 해외연수(국외정보수집) 사업

지도자 해외연수(국외정보수집) 사업은 각종 세미나 및 강습회 참가를 통해 지도자 자질 향상, 주요 국제대회파견 상대국 전력 탐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종목은 메달획득 유망종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대상자는 종목별 국가대표코치와 훈련필수 지원요원(행정, 지도위원 등)이다. 정보수집 대상은 세계 정상급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대회, 각종 국제스포츠세미나 및 강습회 개최지, 체육선진국의 스포츠과학, 훈련지원체계, 훈련시설 등이며 기간은 종목별 10일 이내이다. 2011년에는 23종목 60명이 파견되었다.

표 5-21 지도자 해외연수사업(국외정보수집)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종목수 (회)	인원수	국가수	지원금액		
				계	국고	기금
2005	19(24)	40	14	92,574	92,574	-
2006	18(21)	35	12	70,446	70,446	-
2007	15(17)	27	13	70,738	70,738	-
2008	18(24)	33	17	87,065	87,065	-
2009	17(23)	42	15	131,948	63,768	68,180
2010	17(24)	44	16	163,340	38,211	125,129
2011	23(51)	60	25	191,177	61,187	129,990

3) 국가대표선수 훈련의 과학적 지원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과학적 훈련지원은 체육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다. 2011년 체육과학연구원은 국가대표선수 지원을 스포츠과학 지원체계 구축(체력단련실 과학적 시스템 도입 등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종목별 훈련장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의무실 강화(선수 개인별 의무·체력 측정카드제 도입, 운동처방실 강화를 통한 운동능력 평가, 재활 훈련 기능강화 등), 체육과학연구원과의 연계훈련강화(훈련과학협의회·스포츠과학 세미나, 스포츠과학교실 등), 국가대표 선발시 의·과학화 기초자료 작성(연2회 국가대표선수 “체력측정의 날” 운영, 종목별 담당연구원과 체력측정 주기적 실시, 건강검진 의무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 런던 하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메달획득이 유망한 종목 11개를 중점·전략 종목으로 선정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훈련, 체력훈련, 심리훈련을 지원하였다. 기술지원 훈련은 실

시간 기술 분석 프로그램 개발, 기술·동작의 즉각적 분석시스템 운영지원 등을 통해 선수 및 팀의 기술 향상을 도모했으며, 종목별 체력측정 및 훈련처방제공, 주기별 체력평가에 의한 향상도 평가지원 등을 통해 체력훈련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기장에서 선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적 요인 진단 연구, 심리 기술 훈련을 실시하였다.

둘째, 스포츠과학 교실운영, 스포츠과학세미나 개최, 연구발표회 등 훈련과학화를 위한 정보 제공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도자와 연구원간 공동으로 경기력을 분석하여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선진화된 종목별 특성화 훈련방법을 개발하여 적용시켰다. 종목별 체력진단 평가설명회, 대표팀 전체 스포츠과학교실 운영을 통해 대표팀 코치 및 선수 개인의 스포츠과학에 대한 인식 제고, 자율훈련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지도자 선수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셋째, 정보분석·제공을 위해 선수의 실전 적응력을 제공하고, 종합적이고 입체적 기술 분석을 통해 선수 및 코치의 기술, 전략 이해도를 증대하였으며 정보분석·관리시스템 강화, 대표팀 동행 현지조사 활동 실시, 연구원 해외파견 정보수집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가대표선수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선수촌 내 의무실 및 물리치료실의 적극적 활용과 강화훈련 참가 전, 건강진단과 영양관리(교육, 상담, 지도)를 지원하였다. 또한 약물복용 검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종목별 팀닥터와 물리치료를 두어 부상방지와 재활을 돕고 있으며, 종목별 체력강화 훈련과 체력측정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과학적 훈련을 도모하였다.

4) 국가대표선수 복지 개선

가. 편안한 선수촌 환경 조성

대한체육회는 태릉선수촌 입촌선수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훈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수촌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선수들의 심신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챔피언 하우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사회저명인사 및 체육계 인사 또는 오리엔테이션 강사 및 연예인 등을 초청하여 월1회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국가관, 사명감, 자신감을 고취하고, 기본교양을 함양하며 정서순화 및 긴장감 해소를 도모하였다. 셋째, 종교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집회시설을 제공하였다.

나. 학생선수 학업증대

학생선수들의 학업손실을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내 거주 학생의 오전수업 참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결손의 가능성이 높은 지방 중·고교 소속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기 위하여 훈련장 인근 학교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다. 국가대표선수를 위한 지원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단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하여 대표선수와 코치에 대해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도 선수수당은 1인 1일 30,000원이며 코치수당은 1인 1월 3,300,000원(무직장 코치: 3,800,000원, 트레이너: 2,200,000원)이다.

표 5-22 국가대표선수 · 코치 훈련여건 개선 현황

(단위 : 원)

연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급식 (1일)	21,000	24,000	24,000	24,000	26,000	26,000	26,000	26,000
숙박 (1일)	11,000	18,000	18,000	18,000	20,000	20,000	20,000	20,000
선수수당 (1일)	20,000	25,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코치수당 (1월)	2,021천원→ 2,800천원	3,000천원	3,300천원	3,300천원	3,300천원	3,300천원 (유직장) 3,800천원 (무직장)	3,300천원 (유직장) 3,800천원 (무직장)	3,300천원 (유직장) 3,800천원 (무직장)



제3절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대회 운영 및 훈련시설 확충

국내체육대회 개최는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며 일반 국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동·하계 전국체육대회가 192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개최되어 우수선수 선발과 지방체육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이외에도 국내대회로는 종목별 전국대회, 종목별 시도대회, 시도별 종합대회, 협회장기, 시도지사기 대회 등이 있다.

1. 전국체육대회

1) 역사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는 1920년 11월 개최된 전조선야구대회가 시초이고, 1934년 전조선종합경기대회가 전국체육대회의 효시라 할 수 있다. 1948년 조선종합경기대회가 전국체육대회로 개칭되면서 시도 대항제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1950년 제31회 전국체전은 중단되었으나 다음해 제32회 대회는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개최되었다. 1952년 제33회 대회부터 5회에 걸쳐 서울에서 대회가 개최되다가 1957년도 제38회 대회부터 지방순회 개최원칙을 도입하여 지방의 체육시설 확충, 시도민의 체육에 대한 인식보급 향상 등 전국적으로 체육이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1966년 제47회 대회부터 매년 대회 표어를 채택하다가 제51회 대회에서 채택한 ‘굳센 체력, 알찬 단결, 빛나는 전진’이 이후 계속 사용되었다. 1967년 제48회 대회부터 체전사상 처음으로 카드섹션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1972년 제53회 전국체전부터 초등부와 중학부가 분리되어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별도로 개최되었고, 해외동포선수단이 전국체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재미동포가 최초로 해외동포선수단으로 참가하였고, 이후 국내·외 동포의 성대한 체육제전으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여 해마다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오랜 시간동안 성장·발전하면서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주축인 꿈나무들을 선발하는 중추적인 기능과 시·군·구팀이 존속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순위경쟁에 따른 지방도시들의 위화감 조성, 종목간 불균형 육성, 철새운동선수 증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 심판관정시비, 국민의 무관심 등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2) 제92회 전국체육대회(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는 2011년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꿈을 안고 경기로! 손을 잡고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989년 개최 후 23년 만에 경기도에서 개최된 대회였다. 정식종목 42개와 시범종목 3개 그리고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총 23,871명(선수 17,983명, 임원 5,888명)이 참가하였으며 해외동포선수단은 16개국 1,073명(선수 524명, 임원 449명)이 참가하였다.

종합시상 1위는 대통령배, 2위는 국무총리배, 3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상을 수여하는데 종합 1위는 경기도(85,082점), 2위는 서울특별시(52,944점), 3위는 경상남도(44,182점)가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롤러, 역도, 수영 등에서 한국신기록(20개)이 작성되었고, 한국J신기록(3개), 한국J타이(1개), 대회신기록(83개), 대회타이(15개)등 총 122개의 신기록이 수립되었다. 특히 역도 사재혁 선수는 대회 첫날부터 인상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용상은 물론, 합계까지 우승해 3관왕을 차지하며 2012년 런던올림픽 2연패 도전에 청신호를 알렸다.

제92회 전국체전은 사상 최초로 스타디움이 아닌 야외에서 개·폐회식이 치루어져 획기적인 진행이 이루어졌으며, 폐회식에는 이색 카퍼레이드와 K-POP 콘서트 등이 펼쳐져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결합된 ‘종합 스포츠 문화제전’으로 진화한 대회로 기록되고 있다.

표 5-23 연도별 전국체육대회 개최 현황

회수	개최연도	개최지	참가종목	참가인원	순위		
					1위	2위	3위
88회	2007.10. 8-14	광주	41	23,637	경기	서울	광주
89회	2008.10.10-16	전남	42	24,954	경기	서울	전남
90회	2009.10.20-26	대전	44	24,541	경기	서울	대전
91회	2010.10. 6-12	경남	44	23,876	경기	경남	서울
92회	2011.10. 6-12	경기	45	23,871	경기	서울	경남

2. 전국동계체육대회

1) 역사

전국동계체육대회는 1923년 1월 대동강에서 개최된 빙상대회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2년 뒤 조선체육회 주최로 제1회 전조선 빙상경기대회가 개최되었고, 그 밖에 조선학생 빙상경기연맹을 비롯하여 조선빙상경기연맹 등 경기단체에 의해 크고 작은 빙상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스키대회의 효시는 1930년 2월 원산시 신평리 스키장에서 원산체육협회가 주최하였고, 조선체육협회 등의 후원으로 제1회 조선스키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일본인 단체가 중심이 되었다. 광복 이후 1946년 1월 한강특설링크에서 빙상대회는 오늘날의 빙상경기대회로 이어졌다.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링크인 동대문실내링크가 개장되어 1967년 동계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스키를 제외한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3개 종목 경기를 한자리에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86년 제67회 대회부터 빙상대회와 스키대회를 동계대회로 통합하고, 종합채점제를 실시하여 동계 종합대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보여준 한국성적은 하계올림픽경기대회보다도 그 발전속도가 두드러진다. 90년대부터 시작된 10위권 진입은 1994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6위, 1998 나가노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9위,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7위 그리고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5위를 차지하면서 하계올림픽경기대회에 이어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의 한국의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동계스포츠의 효자종목인 쇼트트랙에서 배출된 우수선수들과 지도자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한국식 쇼트트랙’을 전파하고 있다.

전국동계체육대회는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팅장을 포함한 실내 스케이트장 개장, 10여개에 이르는 스키장 개장, 스키인구의 점진적인 증가 등 시설확충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2018 동계올림픽경기대회 평창유치에 대한 정부와 전 국민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

2) 제92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11년)

제92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011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서울, 강원 전북에서 총 3,563명(선수 2,366명, 임원 1,197명)이 참가하였는데 전년도보다 9명이 감소하였다. 경기종목은 빙상(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컬링 5종목이며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대학부, 일반부로 구분된다.

종합 1위는 경기도(1,320점), 2위는 강원도(1,041.5점), 3위는 서울특별시(908.5점)가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빙상종목인 쇼트트랙(3개), 스피드스케이팅(24개) 총 27개의 대회신기록이 수립되어 질적 경기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빙상종목에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목별 1위를 보면 빙상종목(서울, 경기), 설상종목(강원), 바이애슬론(전북)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별 특화종목으로 선수 육성이 잘 이루어졌지만, 수도권과 강원권에만 집중적으로 위치한 동계인프라로 인해 동계종목 선수저변확대 및 일반인들의 참여에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개최국으로 선수저변확대 및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해 우수선수의 육성 및 동계시설 인프라 확충 등 장기플랜이 요구된다.

표 5-24 연도별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 현황

회수	개최년월일	개최지	참가 종목	참가인원	순위		
					1위	2위	3위
88회	2007. 2.21-24	서울, 경기, 강원, 경북	5	3,293	경기	강원	서울
89회	2008. 2.19-22	서울, 경기, 강원	5	3,381	경기	강원	서울
90회	2009. 2.10-13	서울, 경기, 강원	5	3,434	경기	강원	서울
91회	2010. 2. 2- 5	서울, 강원, 경남, 전북	5	3,572	경기	서울	강원
92회	2011. 2.15-18	서울, 강원, 전북	5	3,563	경기	강원	서울

3. 전국소년체육대회

1) 약사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개최된 전국 규모의 주니어종합대회이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표어 아래 자·덕·체를 연마하는 전인교육의 무대로 대한체육회가 주관하여 해마다 봄에 거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소년·소녀 체육대회이다. 성장기에 있는 소년·소녀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며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을 통한 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972년 전국체육대회와 분리되면서 제1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로 칭해지다가 1975년 제4회 부산대회 때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로 개칭되었다. 제1회 서울대회에서는 육상·수영·축구 등 19

개 종목이 실시, 제2회 대전대회에서는 중학교부에 사격종목이, 제3회 서울대회에서는 중학교부에 사이클과 궁도종목이 추가되었다. 제12회 대회에서는 경기력 향상과 경기인구의 저변확대라는 취지 아래 각 경기의 세부종목을 대폭 개선하여 초등학교부 10개 경기를 포함하여 23개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실시되었다.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사·도간 과열경쟁, 선수혹사, 수업결손, 진로문제 등 대회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종합채점제 폐지(1980~1981), 메달집계 시상(1982), 종합채점제 부활(1983~1988)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단행하였으나 끝내 1989년부터 소년체전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국가체육의 미래와 꿈나무선수 육성을 위한 대회의 개최 여부가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1992년 다시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4년부터 소년체전은 전국체전을 개최한 사·도에서 이듬해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4일간 개최하고, 개인시상만 실시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제39회 소년체전에서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5~6월에 열리던 대회를 “방학중에 개최한다는 지침”에 따라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렸으나, 무더위 속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2011년 제40회 소년체전부터는 이전 방식대로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하였다.

그 동안 소년체전은 지방순회개최를 통해 지방의 학교운동부 육성확대, 우수선수의 조기발굴에 기여한 바 있으나 사·도간 과열경쟁이 심화되고, 정부의 ‘공부하는 운동선수상 정립’과 역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어 정부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소년체전을 둘러싼 관계기관들은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11년)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11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경상남도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체육회의 주최와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주관으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대회 구호아래 16,879명(선수 12,004명, 임원 4,875명)이 참가하였다. 종목 수는 33개 종목으로 전년도와 규모에서 차이점은 없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경기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경기가 필요한 5개 종목의 초등부 경기(배구, 핸드볼,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를 전국 3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였고, 역대 최초로 개회식과 폐회식을 생략하였다.

대회신기록은 총 67개로 롤러(4), 사격(1), 사이클(21), 수영(13), 양궁(3), 역도(24), 육상필드(1)에서 성과를 얻었다. 특히 여자 혼계영 200m에서는 1998년 이후 13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아울러 양궁에서 강채영(울산), 이승불(대구)이 각각 4관왕을 차지하였다.

표 5-25 연도별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현황

회수	대회기간	장소	참가인원	순위			종목수 (정식/시범)	비고
				1위	2위	3위		
34	2005. 5.29 - 6. 1	충북	16,524	개인시상			30	-
35	2006. 6.17 - 6.20	울산	16,670	개인시상			30	-
36	2007. 5.26 - 5.29	경북	16,581	개인시상			31	시범종목(1) : 소프트볼
37	2008. 5.31 - 6. 3	광주	16,816	개인시상			30/2	시범종목(2) : 소프트볼, 요트
38	2009. 5.30 - 6. 2	전남	16,988	개인시상			30/3	시범종목(3) : 소프트볼, 요트, 트라이애슬론
39	2010. 8.11 - 8.14	대전	16,998	개인시상			33/3	시범종목(3) : 소프트볼, 요트, 트라이애슬론
40	2011. 5.28 - 5.31	경남	16,879	개인시상			33	시범종목 명칭 삭제

4. 국가대표 훈련시설

1) 선수촌 현황

국가대표선수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 훈련은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태릉선수촌, 태백선수촌, 진천선수촌, 무주합숙소가 마련되어 있다.

가. 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은 총 93,983평의 부지 위에 연건평 3만여 평의 각종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양궁, 역도, 탁구, 필드하키, 농구, 배구, 축구, 유도, 레슬링, 육상, 수영, 펜싱, 체조, 복싱, 배드민턴, 핸드볼, 태권도 등 하계올림픽경기대회 종목을 비롯하여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 동계올림픽경기대회 종목의 선수를 수용하고 있다. 입촌 대상자는 올림픽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종합대회와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예정선수이다.

① 숙소

남성전용 숙소동은 수용인원이 500명으로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1996년에 건립하였으며, 여성전용 숙소동은 기존의 올림픽경기대회의 집과 외국인 숙소를 철거한 후 2003년에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210명을 수용하고 있다.

② 체육관

선수촌 내의 체육관은 모두 11개가 있다. 체력단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상 1층의 월계관은 1978년 건립, 2001년 전면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다. 개선관과 연수관은 철거 후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탁구, 역도, 체조, 펜싱, 태권도 등 5종목을 훈련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으로 2003년에 신축하였다. 배구, 유도 종목의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승리관은 1973년에 지상 3층으로 건립하였으며, 농구 훈련장으로 이용되는 다목적 체육관은 1983년에 건립,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이다. 경영, 수구, 싱크로나이즈 등의 훈련장인 실내수영장은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1985년에 건립하였다. 특히 육상, 핸드볼, 배드민턴의 훈련을 위해 2000년에 건립한 오륜관은 지상 1층으로 3,056평의 규모이다.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의 훈련을 위해 2005년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실내빙상장을 신축하였다. 필승체육관 A는 우수 종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1978년에 건립되었다. 필승관은 유도, 레슬링, 복싱, 볼링 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2005년 리모델링하여 사용 중이다.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팅의 훈련을 위해 2000년 태릉국제스케이팅장이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건립되었다. 이는 세계 8번째 400m 실내링크이며 국내 유일한 국제규모의 시설로서 동·하계 스포츠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문선수의 지속적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력증진을 위해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운영하며, 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 학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빙상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③ 옥외시설

태릉선수촌의 옥외시설에는 양궁장, 크로스컨트리코스, 인조잔디구장이 있다. 110 × 50m 규격의 양궁장은 2005년에 새로 단장되어 양궁국가대표선수를 위해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6년에 만들어진 크로스컨트리 코스는 입촌선수의 기초체력훈련 용도로도 사용되는데 1.6km × 3m의 규격으로 부상방지를 위해 톱밥이 포설되어 있다. 그리고 육상, 하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는 인조잔디구장은 400m 트랙 6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다.

④ 부대시설

태릉선수촌의 부대시설로는 선수회관(챔피언 하우스), 행정동, 수위실, 양궁장 부속시설(창고, 사선대)이 있다. 이 가운데 영화관, 음악감상실, 당구장, 임원실, 미용실 등 위락시설과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수회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1986년에 건립되었다. 행정업무 공간과 기계실이 있는 행정동은 지상 2층, 지하 2층의 규모이다.

나. 태백선수촌 및 무주합숙소

① 태백선수촌

태백시 함백산 고지대에 위치한 태백선수촌은 국가대표선수들의 고지대 훈련을 통한 심폐기능 강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1996년 6월에 개촌되었으며, 6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와 사우나실, 휴게실, 관리동 등의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다. 태백선수촌 훈련시설은 총 면적 9,761평(32,267m²)으로 120평의 간이실내체육관, 400m 우레탄트랙 및 운동장이 있으며 육상, 수영, 레슬링, 빙상 등 21개 종목 훈련이 가능하다.

표 5-26 국가대표 선수촌 시설 현황

(태릉선수촌 : 306,153m², 태백분촌 : 61,486m²)

지역	구분	건물명	용도 및 수용	규모	건립연도
태릉	숙소 (2)	올림픽의 집	250실	지상4, 지하2(13,906m ²)	1996
		영광의 집	102실	지상4, 지하1(5,639m ²)	2003
	훈련 시설 (14)	월계관	체력단련장	지상1(1,697m ²)	1978
		개선관	체조, 탁구, 역도	지상2, 지하1(7,792m ²)	2003
		승리관	배구, 유도	지상3(2,075m ²)	1973
		다목적체육관	농구	지상2, 지하1(1,593m ²)	1983
		실내수영장	경영, 수영, 싱크로	지상1, 지하1(2,644m ²)	1985
		오륜관	육상, 핸드볼, 배드민턴	지상1(10,102m ²)	2000
		김래관	29실	지상4, 지하2(1,877m ²)	2008
		태릉국제스케이팅장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지상3, 지하1(27,067m ²)	2000
		필승주체육관	리듬체조, 레슬링	지상3, 지하1(4,402m ²)	1978
		필승보조체육관	유도, 레슬링, 복싱, 볼링	지상2, 지하1(5,056m ²)	2005
		실내빙상장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지상4, 지하1(5,477m ²)	2005
		양궁장	양궁	110×50m	2005
		크로스컨트리	기초체력훈련	1.6km×3m 톱밥포설	1986
		인조잔디구장	육상, 하키, 축구	400m트랙6레인, 인조잔디	1984
		챔피언하우스	편의시설(영화관, 북카페, 당구장)	지상2, 지하1(2,523m ²)	1986
		행정동	행정업무, 기계실	지상2, 지하2(1,917m ²)	1987
태릉 (22)	부대 시설 (6)	수위실(정문)	수위실	지상1(31,36m ²)	2003
		수위실(연구원)	수위실	지상1(62,28m ²)	1966
		양궁장부속시설(사선대)	사대	지상2(408m ²)	2005
	태백	숙소, 체육관	68명(17실~4명)	지상2(2,538m ² , 행정동 포함)	1997
		행정동	-	지상2, 지하1	
무주	숙소	무주합숙소	60명 38평 : 3실×8명 28명 : 4실×6명 19명 : 3실×4명	무주리조트	1997.8 ~ 2022.7

② 무주합숙소

무주합숙소는 국가대표선수의 동계훈련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숙박이 가능한 19평 4인용 3실, 28평형 6인용 4실, “38”평형 8인용 3실을 1997년부터 2022년까지 분양받아 스키, 바이애슬론 종목의 훈련에 활용되고 있다.

2) 선수촌 훈련시설 확충 지원

태릉선수촌은 시설의 노후화로 훈련시설을 현대화·첨단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 노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월계관 증축 및 보수, 대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스탠드 조성, 선수회관 내부 보수 등 기존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선수들의 훈련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제스케이트장, 오륜관, 개선관, 실내빙상장, 필승관 등의 신규시설을 확충하였다.

가. 기존시설의 개보수(2011년)

노후시설물에 대한 경제적 유지를 도모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선수와 코치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노후시설물을 우선적으로 부분 개·보수하였는데 연도별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27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시설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계	9,914	10,539	7,894	11,945	9,755	2,092	1,700	4,937	1,022	1,100	1,400
	국고	9,914	10,539	7,894	11,945	9,755	2,092	1,700	2,500	1,022	1,100	1,400
	기금	0	0	0	0	0	0	0	2,437	0	0	0
1. 기존시설 개보수	국고	1,305	834	1,293	3,445	694	2,092	1,700	1,500	658	1,100	1,400
2. 신규시설 확충	소계	8,609	9,705	6,601	8,500	9,061	0	0	3,437	364	0	0
	국고	8,609	9,705	6,601	8,500	9,061	0	0	1,000	364	0	0
	기금	0	0	0	0	0	0	0	2,437	0	0	0

나. 신규시설의 확충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촌 내 노후시설 철거 후 현대식 훈련 시설을 도입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에 대한 연도별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28 국가대표 선수촌 연도별 시설 확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금액
2003	• 종합체육관 건립	3,070
	• 실내빙상경기장 신축	2,439
	•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	1,000
소계	-	6,509
2004	• 실내빙상경기장 신축	5,000
	•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	3,500
소계	-	8,500
2005	• 실내빙상경기장 신축	4,561
	•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	4,500
소계	-	9,061
2006	• 선수회관 리모델링	750
소계	-	750
2007	• 선수회관 외장공사	345
	• 올림픽의 집 화장실 리모델링	135
	• 필승기숙사(A,B,C)동 철거 후 부지정리	452
소계	-	932
2008	• 감래관 보수 및 증축공사	2,437
	• 태백선수촌 다목적 체육관 건립	1,000
2009	• 올림픽의 집 환경개선	364
2010	• 국제스케이트장 냉동설비보강 및 전기승압공사	267
2011	• 국제스케이트장 링크복도 및 환경개선	300

다. 국가대표종합훈련원(제2선수촌) 1단계 조성

국가대표종합훈련원(제2선수촌)이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산 35-2번지 일원에 조성되었다. 이는 국가대표 훈련시설인 현 태릉선수촌의 노후화와 대표선수 수용한계를 극복하고, 훈련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화로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한체육회는 2005년 11월, 현상공모를 통해 국가대표종합훈련원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였으며, 1단계 사업은 연면적 56,124m²로서 2009년 2월 5일 착공 31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1년 8월 18일 공사가 완료되었다. 1단계 사업은 1966년에 건립된 태릉선수촌의 면적이 협소하고 추가 개발이 불가하여 추진되었으며, 주로 태릉선수촌에 훈련시설이 없는 종목 및 노후 시설을 중심으로 건립되어 2012년 런던올림픽을 대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사격장, 육상,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정구장(14면), 야구/소프트볼장, 축구/럭비장, 선수숙소(350명 수용), 행정동/체력단련장, 선수회관 등 최첨단의 실내외 훈련장, 숙박 및 편의/위락시설을 갖추었다.

특히 수영장은 경영, 수구,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다이빙 전용의 개별훈련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격장은 10m, 25m, 50m의 실내사격장과 클레이사격장이 조성되었으며 각각의 시설에는 전자측정장비가 설치되어 과학적인 훈련이 가능해졌다. 선수숙소는 1인실과 2인실로 구성되었으며 여가시간 활용을 위하여 선수회관내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산책로를 많이 조성하였다. 또한 인접한 무이산 정상(해발 463m)까지 크로스컨트리 코스를 만들었으며 파트너 훈련이 필요한 종목을 위하여 파트너하우스(200명 규모)도 건립하였다. 이 밖에도 체력단련장, 의무, 물리치료실과 함께 스포츠의과학이 접목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의학실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진천선수촌 1단계 사업완성과 더불어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를 통해 2012년부터 제2단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단계 공사가 완공되는 2017년 이후에는 총 37개 종목의 훈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계별 추진계획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29 국가대표종합훈련원(제2선수촌) 조성 연도별 추진 현황

연도	사업내용	비고
2001.06	• 문화재복원정비 관련 선수촌 이전요구(3회)	문화재청
2003.03	• 선수촌 장기이전 계획안 수립	대한체육회
2003.06	• 국민체육진흥5개년 계획 반영	문화관광부
2003.08	• 2003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출	문화관광부
2003.11	• 2003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획예산처
2004.03	•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	한국개발연구원
2004.09	•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	한국개발연구원
2004.12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 통보(사업승인) - 조사결과 : 단계별 사업추진 • 1단계 : 현 태릉선수촌에 없는 시설물 건립 제2선수촌 형태로 부분이전(2005~2010) • 2단계 : 향후 태릉선수촌 사용불가능여부, 체육정책, 엘리트스포츠 육성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여 추진(2011~2015)	기획예산처
2004.12	• 제2선수촌 이전 대상지 선정 - 13개 후보지 중 2개 우수후보지 선정(음성, 진천) - 2개 우수후보지 평가를 위한 용역 의뢰 - 선수촌이전 추진자문위원회(6차회의/진천군 선정)	대한체육회
2005.11	• 선수촌이전 사업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당선작선정	대한체육회
2006.03	• 선수촌이전 마스터플랜 각계 의견수렴 및 최종확정	대한체육회
2006.05~	•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진천군, 대한체육회
2007.01~2008.10	• 기본·실시 설계	대한체육회
2008.11.28	• 공사계약(던키 방식)	대한체육회
2009.02.05	• 진입도로공사 착공	대한체육회
2009.05.18	• 본공사 착공	대한체육회
2010	• 공사중	대한체육회
2011.08.18	• 공사완공	대한체육회
2012~2017	• 2단계 사업 계획	대한체육회

- 주요시설 : 지원시설, 실내훈련시설, 실외훈련시설 등 12개 종목

구분	건립시설명
지원시설	행정동, 선수교육회관, 체력훈련장, 방문자센터, 스포츠의/과학실, 선수숙소(350명), 게스트하우스
실내 훈련시설	수영센터,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정구장, 사격장, 조정/카누 연습장
실외 훈련시설	종합훈련장, 투척필드, 다목적필드(소프트볼, 럭비, 야구), 테니스/정구장, 클레이사격장, 크로스컨트리코스

A large red abstract graphic element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featuring a white chevron shape pointing right, which contains the text 'Section 06' and '국제체육'.

Section

06

국제체육

- 제1절 국제체육계 동향
- 제2절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역량
- 제3절 국제교류 현황



Section

06

국제체육

우리나라의 스포츠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영역 중의 하나인 국제 체육 활동은 문화·정치·경제 및 외교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 체육계는 세계 여러 문화의 변화 속에 발맞추어 인본주의와 환경보전의 추세로 도핑방지 및 환경친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글로벌 체제에 부합되는 상업화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체육의 중요성과 시대적 조류 변화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제스포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사업으로 국가간·NOC간 체육교류협정 체결,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국제 체육기구 임원 진출 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제스포츠교류 증진을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파견과 국내유치개최, 국제회의 참석 등 많은 국제체육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1절 국제체육계 동향

우리나라의 스포츠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영역 중의 하나인 국제 체육 활동은 문화·정치·경제 및 외교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 체육계는 세계 여러 문화의 변화 속에 발맞추어 인본주의와 환경보전의 추세로 도핑방지 및 환경친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글로벌 체제에 부합되는 상업화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체육의 중요성과 시대적 조류 변화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제스포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사업으로 국가간·NOC간 체육교류협정 체결, 국제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국제체육기구 임원으로의 진출 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도 국제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파견과 국내유치개최, 국제회의 참석 등 많은 국제체육활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1. 국제체육기구 현황

국제체육기구는 전 세계국가가 참가하는 종합대회를 관장하는 기구와 대륙별 종합대회를 관장하는 기구, 그리고 종목별 세계대회 및 대륙별 대회 등을 관장하는 기구로 구분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동아시아대회협의회(EAGA) 등은 종합대회를 관장하는 국제적·대륙별·지역별 기구이며, 종목별 국제연맹(ISF)과 아시아경기연맹(ASF)은 해당 종목에 대한 세계대회와 아시아대회를 관장하고 있는 기구이다.

국제체육기구 가운데 대표적 기관인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는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회원으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주관·조정·감독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체육단체(표 6-1, 표 6-2)이다. 현재 가맹국 204개 국가 중 IOC 위원은 106명이며 이외에 28명의 명예위원과 1명의 영예위원이 있다. 현재 한국은 이견희, 문대성 2명의 IOC위원이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표 6-1 IOC 위원 국가별 배출 인원수 현황

인원수(국가수)	국 가	주요 대륙
5명(1개국)	스위스	유럽(1)
4명(2개국)	이탈리아, 영국	유럽(2)
3명(3개국)	러시아, 미국, 스페인	유럽(2), 아메리카(1)
2명(15개국)	프랑스,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멕시코, 쿠바, 모로코, 캐나다, 한국, 중국, 이집트, 우크라이나,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유럽(6), 아시아(2), 아메리카(3), 아프리카(2), 오세아니아(2)
1명(54개국)	헝가리, 필리핀, 과테말라, 남아공 외	유럽(14), 아시아(18), 아메리카(11), 아프리카(10), 오세아니아(1)
0명(129개국)	자메이카,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외	제3세계 국가

※ 자료 : IOC홈페이지(www.olympic.org)

표 6-2 IOC 위원 대륙별 배출 인원수 현황

(2011. 12. 현재)

대 륙	인 원	구 성 비 율 (%)	
아 시 아	22	21	21
오세아니아	5	5	66
유 럽	45	42	
아메리카	20	19	
아프리카	14	13	13
합 계	106	100.0	

※ 자료 : IOC홈페이지(www.olympic.org)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구성하고, 종목별 권위 있는 세계대회를 주관하는 국제경기연맹의 회장국가를 살펴보면 (표 6-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스위스가 6개 종목, 이탈리아가 4개 종목, 대한민국, 미국, 스페인, 캐나다, 독일이 각각 2개 종목을 회장국을 맡고 있으며(표 6-3, 표 6-4), 특히 전체 국제 33개 종목별 연맹(협회)중 유럽국가가 21개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5개로 15%를 점유하고 있다.

표 6-3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연맹의 회장국적

(2011. 12. 현재)

구 분	종 목	회 장 명	회장국적	국제경기연맹/홈페이지
하계 (26종목)	육상	Lamine Diack	세네갈 (SE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www.iaaf.org
	조정	Denis Oswald	스위스 (SUI)	International Rowing Federation www.worldrowing.com
	배드민턴	Young Joong Kang	대한민국 (KOR)	Badminton World Federation www.internationalbadminton.org.
	농구	Bob Elphinston	호주 (AUS)	International Basketball Federation www.fiba.com
	복싱	Ching Kuo Wu	대만 (TPE)	International Boxing Association www.aiba.net
	카누	Jose Perurena Lopez	스페인 (ESP)	International Canoe Federation www.canoeicf.com
	사이클	Patrick McQuaid	아일랜드 (IRL)	International Cycling Union www.uci.ch
	펜싱	Alisher Usmanov	러시아 (RUS)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grime www.fie.ch
	승마	HRH Princess Haya Bint Al Hussein	요르단 (JOR)	Federation Equestre Internationale www.horsesport.org
	축구	Joseph S. Blatter	스위스 (SUI)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www.fifa.com
	체조	Bruno Grandi	이태리 (ITA)	International Gymnastics Federation www.fig-gymnastics.com
	역도	Tamas Ajan	헝가리 (HUN)	International Weightlifting Federation www.iwf.net
	핸드볼	Hassan Moustafa	이집트 (EGY)	International Handball Federation www.ihf.info
	하키	Leandro Negre	스페인 (ESP)	International Hockey Federation www.fihockey.org
	유도	Marius VIZER	오스트리아 (AUT)	International Judo Federation www.ijf.org

구 분	종 목	회 장 명	회장국적	국제경기연맹/홈페이지
하계 (26종목)	근대5종	Klaus Schormann	독일 (GER)	Union Internationale de Pentathlon Moderne www.pentathlon.org
	레슬링	Raphaël Martinetti	스위스 (SUI)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sociated Wrestling Styles www.fila-wrestling.org
	수영	Julio C. Maglione	우루과이 (ULU)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 www.fina.org
	태권도	Chung Won Choue	대한민국 (KOR)	World Taekwondo Federation www.wtf.org
	테니스	Francesco Ricci Bitti	이태리 (ITA)	International Tennis Federation www.itftennis.com
	탁구	Adham Sharara	캐나다 (CAN)	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 www.ittf.com
	사격	Olegario Vazquez Rana	멕시코 (MEX)	International Shooting Sport Federation www.issf-shooting.org
	양궁	Ugur Erdener	스위스 (SUI)	International Archery Federation www.archery.org
	트라이애슬론	Marisol Casado	스웨덴 (SWE)	International Triathlon Union www.triathlon.org
	요트	Goran Petersson	스웨덴 (SWE)	International Sailing Federation www.sailing.org
	배구	Jizhong Wei	중국 (CHN)	International Volleyball Federation www.fivb.ch
동계 (7종목)	바이애슬론	Anders Besseberg	노르웨이 (NOR)	International Biathlon Union www.biathlonworld.com
	봅슬레이	Ivo Ferriani	이태리 (ITA)	International Bobsleigh and Tobogganing Federation www.bobsleigh.com
	컬링	Lester M. Harrison	캐나다 (CAN)	World Curling Federation www.worldcurling.org
	아이스하키	Rene Fasel	스위스 (SUI)	International Ice Hockey Federation www.iihf.com
	루지	Josef Fendt	독일 (GER)	International Luge Federation www.fil-luge.org
	빙상	Ottavio Cinquanta	이태리 (ITA)	International Skating Union www.isu.org
	스키	Gian Franco Kasper	스위스 (SUI)	International Ski Federation www.fis-ski.com

표 6-4 올림픽 정식종목 국제경기연맹 회장의 대륙별·국가별 분포

(2011. 12. 현재)

대륙	국가	국가별 회장 수	대륙별 회장 수	대륙별 구성비율(%)
아시아	대한민국	2	5	15.0
	대만	1		
	요르단	1		
	중국	1		
아프리카	세네갈	1	2	6.0
	이집트	1		
유럽	스위스	6	20	64.0
	이태리	4		
	독일	2		
	스웨덴	2		
	스페인	2		
	아일랜드	1		
	헝가리	1		
	노르웨이	1		
	러시아	1		
	오스트리아	1		
북미	캐나다	2	3	6.0
중남미	멕시코	1	2	6.0
	우루과이	1		
오세아니아	호주	1	1	3.0
합계		33	33	100.0

※ 자료 : www.olympic.org

이들 국제경기연맹의 본부 소재지는 태권도(한국 소재), 트라이애슬론, 컬링(캐나다 소재), 배드민턴(말레이시아)을 제외한 29개의 올림픽 정식 종목의 본부가 유럽에 있다(표 6-5). 한국은 태권도와 배드민턴 국제경기연맹 회장국이지만 이 중 배드민턴은 말레이시아에 있다. 특히 19개 종목의 본부가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제스포츠계의 중심은 근대 스포츠의 근원지인 유럽에 있으며, 특히 국제경기연맹 본부 소재지는 회장국가에 본부를 두는 일부 종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부 소재지 이동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유럽 중심의 국제스포츠 역학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5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연맹 본부 소재지

(2011. 12. 현재)

국 가	본부 수	종 목
스위스	19	조정, 농구, 복싱, 카누, 사이클, 펜싱, 승마, 축구, 체조, 배구, 핸드볼, 하키, 레슬링, 수영, 탁구, 양궁, 아이스하키, 빙상, 스키
영국	2	테니스, 요트
캐나다	2	트라이애슬론, 컬링
헝가리	2	역도, 유도
모나코	2	육상, 근대5종
독일	2	루지, 사격
대한민국	1	태권도
오스트리아	1	바이애슬론
말레이시아	1	배드민턴
이탈리아	1	봅슬레이
합계 (11개국)	33	33종목

※ 자료 : 각 종목 국제경기연맹 홈페이지

또한, 국가 위상 및 이미지 제공에 크게 작용하는 국제체육기구 및 경기연맹, 아시아체육기구 및 경기연맹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위원수를 연도별로 제시하면 표 6-6과 같다.

표 6-6 국제기구 각종 위원회 활동의 연도별 인원 수

국 제 기 구 명		연 도 별 위 원 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 제 체 육 기 구	IOC(국제올림픽위원회)	10	10	9	9	6	5	7	5	6	6
	ANOC(국제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	-	-	-	1	1	1	1	1	-	-
	GAISF(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1	1	1	-	-	-	-	-	-	-
	AIPS(국제체육기자연맹)	1	1	1	1	1	1	1	1	1	1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4	5	5	5	6	7	6	6	6	8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6	6	7	6	6	4	6	6	6	8
	EAGA(동아시아대회협의회)	2	2	3	4	3	3	4	4	4	4
	GAASF(아시아경기연맹총연합회)	1	1	-	-	-	-	-	-	-	-
	ASPU(아시아체육기자연맹)	1	1	1	3	3	3	3	3	3	2
	IANOS(국제생활체육단체총연합회)	1	1	1	1	1	1	1	1	※	※
	APOSA(아시아-오세아니아연합회)	-	-	-	1	1	1	1	1	※	※
	TAFISA(세계사회체육연맹)	-	-	-	1	1	1	4	4	4	4
	ASFAA(아시아오세아니아체육연맹)	2	2	2	2	2	2	2	2	2	2
	소 계	29	30	29	31	31	36	38	36	32	35
경기 연맹	국 제(SF)	63	69	79	79	86	90	69	97	114	107
	아시아(ASF)	122	119	140	142	146	151	189	170	190	183
	소 계	185	187	219	221	232	241	258	267	304	290
	계	214	218	249	253	263	272	296	303	336	325

※ IANOS와 IANOS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부인 APOSA는 2010년 TAFISA 및 TAFISA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부인 ASFAA에 흡수 통합됨

2. 스포츠에서의 도핑방지 강화

스포츠 분야에서 “도핑”은 선수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스포츠 페어플레이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고, 약물의 습관성 및 마약 사용으로의 진전,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 등 사회적으로 해가 된다는 관점에서 도핑방지 활동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금지약물 사용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스포츠가 줄 수 있는 혜택의 거의 모든 부분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유럽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도핑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유럽은 1990년에 이미 국내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도핑방지협정(Anti-Doping Convention: ADC)을 가동시켜왔으며, 국제도핑방지협정(International Anti-Doping Arrangement : IADA) 등 도핑방지 관련 여러 기구들이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유럽 지역의 이러한 활동들에 기초하여, 그리고 올림픽대회 등 국제 경기에서처럼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국제적 도핑방지 활동의 필요성에서, 또한 경기 기간의 검사(Out Of Competition Test: OOC)나 적혈구생성촉진인자(erythropoietin : EPO)검사, 유전자 조작 등을 포함하여 점점 복잡해지는 도핑방지활동에 세계 각국 정부의 힘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함으로써, 1999년 IOC와 세계 각국 정부가 함께하는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를 주도하여 결성하게 되었다. WADA는 국제스포츠기구에 적용되는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WADC)을 제정하여, 2004년 아테네 올림픽까지 세계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대부분의 종목별 국제연맹(IF)의 서명을 받았고 이행 의무를 약속받았다. 그리고 UNESCO에서는 스포츠반도핑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을 추진하여 2005년 제33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총 41개국이 비준하여 2007. 2. 1 공식발효하게 되었으며 2008년 5월 11일 이를 재확인하였다.

1)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ADA는 스포츠에서 금지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 조성을 추구하고 있다. WADA는 스포츠 관련 기구와 각국 정부의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선수들에게 도핑의 해악을 교육하고, 자기 자신과 스포츠를 속인 선수들을 제재하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WADA는 로잔 선언문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이며 비정부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두었다. WADA가 수행하는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마추어 선수에 대한 도핑 검사 실시

- 세계 도핑방지 규약 개발 및 이행
- 새로운 적발 방법에 관한 학문적 연구 지원
- 주요 대회의 도핑검사와 결과 관리 프로그램 감시
- 선수와 코치 그리고 관련 관리자들에게 도핑방지 교육 제공
- 국가도핑방지기구의 설립 촉진

WADA는 이사회(Foundation Board)와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그리고 몇 개의 실무위원회(Working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표 6-7 WADA Foundation Board 구성

구 분		인 원	합 계	비 고
회장단	의장	1	2	John FAHEY (2000년 시드니올림픽 준비위원회 위원장 역임, 호주)
	부의장	1		Arne LJUNGQVIST (IOC 부위원장, IOC 의무분과 위원회 위원장, 스웨덴)
올림픽운동대표 Olympic Movement Representation	IOC 대표	4	18	15명이 IOC 위원
	ANOC 대표	4		
	ASOIF 대표	3		
	SPORTACCORD 대표	1		
	AIOWF 대표	1		
	IOC 선수분과위 대표	4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IPC) 대표	1		
정부대표 Government Representation	유럽연합	3	18	폴란드, 키프로스, 덴마크
	유럽회의	2		프랑스, 세르비아
	아프리카	3		이집트, 모잠비크, 세이셸
	미주	4		파나마, 캐나다, 미국, 볼리비아
	아시아	4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오세아니아	2		호주, 뉴질랜드
			38	

※ WADA(2011). www.wada-ama.org

3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WADA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이사회는 올림픽운동(Olympic Movement) 측과 세계 각국 정부 측 대표가 동수로 구성하며, 12인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도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까지 WADA의 각국 정부 측을 대표하는 17개 이사국 중 하나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와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사국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WADA는 18개 이사

국이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WADA의 실무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하며 WADA의 주요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2011년 현재 활동 중인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선수위원회(Athlete Committee)
-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
- 윤리위원회(Ethical Issues Expert Group)
- 재정 및 행정위원회(Finance & Administration Committee)
- 건강, 의료 및 연구위원회(Health, Medical & Research Committee)

WADA는 IOC로부터 처음 2년간의 운영 자금(US\$ 18,300,000)을 지원받았다. 2002년부터 WADA의 운영 자금은 세계 각국 정부가 납부하는 분담금에 더하여 동일한 액수를 IOC가 중심이 된 올림픽운동 관련기관 측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국의 분담금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아시아 대륙에서 20.4%를 부담하도록 책정되어 있다. 42개 아시아 국가의 분담금은 1인당국민소득(GNI per Capita)과 스포츠지수(하계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선수 규모)를 각각 85%, 15%로 고려하되 \$5000을 최소 분담금으로 한다.

2011년에 각국 정부에게 청구된 총 분담금은 \$13,210,049이었으며, 아시아 대륙이 \$2,702,776를 납부하였다. 2011년 아시아 분담금은 2010년에 비하여 2% 상승하였으나, 아시아에서 3번째 많은 분담금을 납부하는 우리나라는 2010년과 동일한 금액인 \$115,150의 분담금이 청구되어 이를 납부하였다. 이는 아시아 분담금의 4.26%, 세계 분담금의 0.87%, WADA 전체 예산의 0.43%에 달하는 금액이다.

2)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WADA는 도핑에 관련하여 모든 스포츠기구를 동일한 질서 아래 규율하기 위해 세계도핑방지 규약을 제정하였다. 2003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세계반도핑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에서 WADA 이사회가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WADC)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이후 승인 및 서명이 추진되어 2010년 현재 204개 NOC와 모든 국제경기연맹이 이에 서명을 완료하였다.

WADC는 세 가지 수준(levels)으로 이루어져 있다. WADC 본문과 다섯 가지의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그리고 최상의 실행 모델(Models of Best Practices)이며 이 중 WADC 본문과 국제표준은 의무적인 규정들이며 최상의 실행 모델은 권장하는 수준이 된다. 다섯

가지 국제표준은 각각, 검사 국제표준, 실험실 국제표준, 금지목록 국제표준, 치료목적 예외적 허용(TUE: Therapeutic Use Exemption)국제표준, 그리고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이다.

표 6-8 WADA 금지약물 목록

분 류	성 분 · 물 질
S1. 동화작용제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nabolic androgenic steroids)로서 외생성, 내인성 및 기타 동화작용제 포함
S2.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및 관련약물	적혈구형성자극제, 옴모성 고나도트로핀 및 황체형성호르몬, 인슐린, 부신피질자극호르몬, 성장호르몬 등
S3. 베타-2 작용제	흡입 salbutamol 및 salmeterol을 제외한 모든 베타-2 촉진제류
S4. 호르몬 및 변조제	aromatase 억제제류, 에스트로겐 수용체 변조물질류 중 일부, 항 에스트로겐 물질들, myostatin 기능조절 제제
S5.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	이뇨제류, 데스모프레신, 프로베네시드, 혈장확장제
S6. 흥분제	국소성 imidazole 유도체 및 2011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된 물질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흥분제
S7. 마약류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fentanyl 등
S8. 카나비노이드	천연 또는 합성 Δ9-tetrahydrocannabinol (THC) 및 THC와 마리화나 유사성분
S9. 부신피질호르몬	경구복용, 정맥주사, 근육주사, 좌약 등을 통하여 투여하는 모든 부신피질호르몬제

※ 자료 : WADA(2011). <http://www.wada-ama.org/en/Science-Medicine/Prohibited-List/>

3) UNESCO스포츠반도핑국제협약

WADA는 스위스 지방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국제 민간기구로 각국 정부를 직접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1990년대 유럽지역 내에서 도핑방지의 국제협정(ADC)을 맺어 그의 법적 구속을 받아온 유럽 국가들은, WADC의 국제협약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UNESCO의 세계 체육/스포츠담당 장관 및 고위공직자회의인 MINEPS와 CIGEPS를 이용해 세계 각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3년 3월 세계 100여 국이 모인 파리 UNESCO 체육/스포츠담당장관 원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WADC의 국제협약화에 대한 UNESCO의 지원을 주장했고, 이 안건을 UNESCO총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2003년 10월 UNESCO총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고, 참가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스포츠 도핑에 관해 국내외적 법적 구속력을 갖는 UNESCO반도핑국제협약의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004년에는 UNESCO반도핑국제협약의 초안 작성 회의들이 진행되었고,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2004년 12월에 아테네에서 열린 MINEPS IV에서 정치적 타결을 보아 정리되었다. 2005년 1월 협약최종안이 완성되어 각국이 회람과정에 들어갔으며 2005년 10월 제33

차 UNES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05년 11월 UNESCO반도핑국제협약은 각국 정부의 비준과정에 들어갔으며 30번째 비준 완료국의 서류가 UNESCO 사무국에 기탁된 후 30일이 지난 다음달 1일인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2010년 11월 17일 피지가 150번째로 반도핑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되었다.

4) 국내 도핑방지 활동

2004년 1월 1일부터, 도핑시험실 국제 공인의 권한이 IOC MC(의무위원회)에서 WADA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WADA 공인 도핑시험실(WADA Accredited Lab)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이며, 2004년 4월 WADA로부터 스테로이드 검사에 대해 6개월간 효력 정지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기보장을 통해 기자재 및 검사 건수가 증가하였고, KIST의 자체인력보장을 통해 2004년 11월 다시 전체 공인(full-accreditation)을 획득하였다.

2004년 국내용의 도핑방지 교육자료(DVD)가 제작되었고, 전국에 걸쳐 교육 사업이 진행되었다. 2006년 1,851의 경기기간 중 경기기간 외 도핑검사를 시행하여 국고에서 지원하였으며, 경륜과 경쟁선수에 대한 도핑검사도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도핑컨트롤센터에서 년도별로 검사건수 횡수와 년도별 양성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표 6-9, 표 6-10) 2011년도에는 기존에 실시하여 왔던 소변시료 5,213건과 함께 혈액시료가 처음으로 195건 시행되었다.

표 6-9 도핑컨트롤센터 년도별 시료 현황

분기(소변시료)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2008	2009	2010	2011
1/4분기	63	83	113	104	148	241	160	562	717	489	858
2/4분기	264	257	70	510	671	700	355	625	893	520	941
3/4분기	102	442	734	376	723	1,181	1,541	1,518	1,090	1,330	2,204
4/4분기	170	1,006	617	698	985	1,457	777	823	1,265	1,800	1,210
소변시료 계	599	1,788	1,534	1,688	2,527	3,579	2,833	3,528	3,965	4,139	5,213
혈액시료 계											195

※ 자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2011)

또한, 2006년 11월 13일에는 도핑검사 및 결과 관리를 전담하는 국내 최초의 국가도핑방지기구인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설립(2006년 11월 13일: 민법 제 32조)되었으며, 2006년 12월 22일에는 국가의 도핑방지 의무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6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제 35조에 근거

하여 재창립되었다. 한국도핑방지기구인 KADA의 활동 내용은 ①도핑방지 교육, 홍보 정보수집 및 연구 ② 도핑검사 계획수립 및 집행 ③ 도핑검사 결과 관리 ④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⑤ 치료목적사용면책(TUE) 허용기준 수립 및 시행 등이 있다.

2007년 6월 재창립 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활동을 요약하면 WADA 회원국 및 국가도핑방지기구연합회(ANADO : 2010년 말 폐지)에 가입하였고,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제정하여 WADA의 인준을 받았으며, 매년 도핑검사관(DCO) 모집을 통하여 2011년 12월 현재 229명의 도핑검사관과 29명의 혈액채취요원을 배출하였다. 선수, 지도자, 연맹 임직원 대상의 도핑방지 교육을 연 100회 10,000여 명 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관계자들의 도핑방지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도핑방지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140여개 체육단체에 매년 40,000개의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또한 금지약물검색 사이트 및 도핑검사의 ISO 9001:2008(국제품질인증) 획득과 함께 WADA 국제심포지움 등 각종 국제회의의 참가를 통하여 세계도핑방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 6-10 도핑방지컨트롤센터 년도별 양성건수

(2011. 12월)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10	47	23	29	15	26	43	36
경기/비경기	5/5	43/4	20/3	26/3	8/7	21/5	39/4	22/14
종목	보디빌딩(4) 복싱(3) 사이클, 빙상, 육상(각1)	보디빌딩(33), 육상, 사이클, 역도(각 2) 펜싱, 태권도, 레슬링, 모터보트, 양궁, 야구, 근대5종, 핀수영(각 1)	보디빌딩(11) 레슬링(4) 육상, 역도(각2) 빙상, 모터보트, 사이클, 태권도(각 1)	보디빌딩(13) 역도(4) 사이클(3) 야구(2) 빙상, 스키, 레슬링, 수영, 육상, 유도, 배구(각1)	보디빌딩(8) 사이클(3) 스키, 모터보트, 역도, 장애인역도 (각1)	보디빌딩(10) 사이클(3) 궁도, 레슬링, 야구(각2) 근대5종, 스쿼시, 양궁, 웨이크보드, 축구, 유도, 장애인축구 (각1)	보디빌딩(18) 농구(3) 복싱, 론볼, 파워리프팅, 핀수영, 장애인농구 (각2) 궁도, 사격, 근대5종, 아이스하키, 야구, 역도, 장애인역도, 장애인탁구, 장애인양궁, 장애인배구(각1)	보디빌딩 (15) 육상 (5) 사이클 양궁 (각3) 골프 레슬링 (각2) 야구, 컬링, 요트, 사격, 테니스, 역도 (각1)
약물	스테로이드제(4) 베타2작용제(2) 이노제(2) 호르몬길항제(1) 흥분제(1)	스테로이드제(36) 베타2작용제(10) 이노제(7) 호르몬길항제(5) 흥분제(4) 부신피질호르몬(1) 베타차단제(1)	스테로이드제(17) 베타2작용제(3) 이노제(2) 호르몬길항제(5) 흥분제(4)	스테로이드제(31) 베타2작용제(2) 이노제(2) 흥분제(4) 부신피질호르몬(2)	스테로이드제(7) 이노제(6) 흥분제(2)	스테로이드제(11) 이노제(8) 호르몬조절제(2) 흥분제(2) 부신피질호르몬(2) 카나비노이드(1)	스테로이드제(11) 베타2작용제(2) 이노제(17) 흥분제(10) 부신피질호르몬(1) 베타차단제(2)	단백동화스테로 이드제 (17) 기타호르몬(2) 이노제 (8) 흥분제 (7) 베타차단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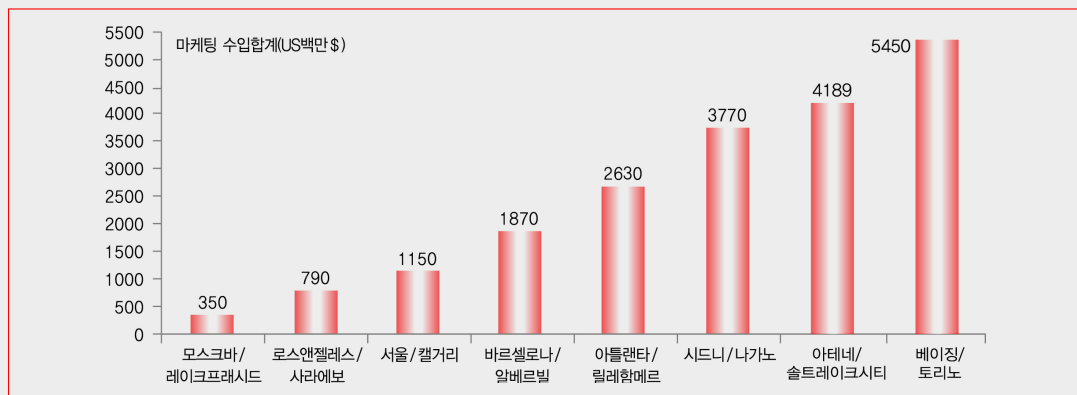
※ 참고 : 단일 양성건에서 다수의 약물이 검출되기도 하므로 약물건수의 합이 양성건수보다 클 수 있음

※ 자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2011)

3. 스포츠의 상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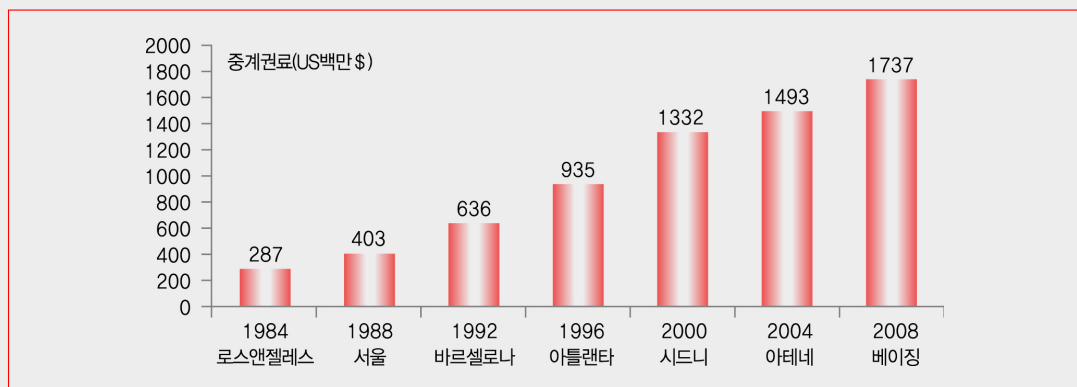
스포츠이벤트가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 수단이 되면서 스포츠경기의 상업화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전개되어가고 있다. 특히 TV중계권료 상승과 기업으로부터의 스폰서십 증가는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스포츠 상업화의 대표적 사례인 올림픽의 경우 TV중계권료, 후원금, 라이선스비 등의 마케팅 수입이 1980년 동·하계올림픽 당시 3.5억 US\$에서 20년 후인 1998년과 2000년 동·하계올림픽에서는 37.7억 US\$로 10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8년 후인 2006년과 2008년 동·하계올림픽에서는 54.5억 US\$로 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6-1>. 마케팅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TV중계권료는 올림픽의 상업적 가치가 크게 부각된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비하여 2008년 베이징올림픽은 6배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6-2>.



※ 자료 : IOC 홈페이지(www.olympic.org)

그림 6-1 동·하계올림픽대회 합산 마케팅수입



※ 자료 : IOC 홈페이지(www.olympic.org)

그림 6-2 하계올림픽대회 TV중계권료

또한 IOC가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 후원하는 기업의 후원금도 제5기(2001~2004)에는 제1기보다 6.8배가 증가하여 기업 스폰서십을 통한 스포츠의 상업화가 크게 전개되고 있다(표 6-11).

표 6-11 올림픽 공식후원업체의 기별 올림픽 후원금액

구 분	1985-1988	1989-1992	1993-1996	1997-2000	2001-2004	2005-2008	2009-2012
올림픽 게임	1988캘거리 1988서울	1992알베르빌 1992바르셀로나	1994릴레함메르 1996아틀란타	1998나가노 2000시드니	2002솔트레이크 2004아테네	2006토리노 2008베이징	2010밴쿠버 2012런던
참가국 수	159	169	197	199	202	205	-
업체수	9	12	10	11	11	13	11
후원금 (US백만\$)	95	175	279	579	663	866	953(추정)

※ 자료 : IOC홈페이지(www.olympic.org)



제2절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역량

1. 국제스포츠 정책과 조직

1) 국제스포츠 정책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 1998~2002)과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2003~2007)’에 이어 문화비전(2008~2012)의 주요 과제로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과 국가간·국제체육기구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그리고 국제경기의 효율적 추진과 파견 활성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긍정적 파급효과와 국가 이미지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통한 중주국으로서의 역량 확대를 시도하고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민간교류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며 스포츠반도핑의 국제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표 6-12).

표 6-12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2003~2007)의 국제스포츠 정책

주요 정책	내 용	세 부 내 용
체육외교 역량강화 및 협력 내실화	체육외교 기반 강화	체육외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국제체육기구 임원진출 및 인적교류 확대
		주요 국제회의 유치 및 능동적 참여
	국가지역 간 체육협력 강화	국가 간 체육교류·협력 내실화
		제3세계국가 체육발전 지원
		동북아지역 체육협력 강화
	생활체육 국제교류 증대	생활체육 국제회의 참가 및 민간교류 협력 증대
국제경기대회의 효율적 추진	태권도를 통한 국가 이미지 선양	태권도 공원 조성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한 지도자 파견
		해외 태권도 지도자 네트워크 구축 및 초청연수
		태권도 시범단 파견 및 용품 지원
	주요 국제경기대회 적극 유치	2014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세계선수권대회 유치 및 각종 국제대회의 합리적 유치 국제 스포츠·관광행사 활성화
스포츠 반도핑 활동 활성화	국제대회 파견 활성화	국제대회 파견 활성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세계 반 도핑기구 등과의 교류 활성화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3),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표 6-13 문화비전(2008~2012)

주요 정책	중점 과제	세 부 내 용
세계 속의 스포츠 한국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 강국 이미지 지속	2011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국제스포츠인력 양성 및 국제 활동 강화	대륙별 맞춤형 스포츠교류 프로그램 실시
	태권도 세계화	태권도공원조성
		대한민국 태권도 시범단 창단
		태권도 용품지원, 시범파견 등 태권도 한류 확산
	선진 스포츠도핑 방지시스템 확립	선진도핑검사 및 관리시스템 확립 반 도핑 교육 및 홍보확대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8), 문화비전

2) 조직과 인력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 담당 조직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정부부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내의 국제체육과가 주무부서로서 국제체육교류 즉 각종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참가에 관한 사항과 국제체육기구와의 협력 그리고 스포츠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국가 간 체육교류협정 체결 및 체육교류사업의 추진 및 국제스포츠인력 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 12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의 주요 업무는 (표 6-14)와 같다.

표 6-14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요 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정책개발 및 정보화	국제체육교류(스포츠 한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스포츠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지원
	국제체육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
국제스포츠인재양성 및 국제교류	국제스포츠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
	국가 간 체육협정 체결 및 후속 조치
	개도국 체육활동 지원
	스포츠 외교력 강화 및 올림픽인 국제 스포츠 활동 지원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지원

구 분	주 요 업 무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국제경기대회 유치 심사 및 지원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 2013 충주 조정 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지원 -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지원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지원 - F1 대회 개최 지원 -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국제경기대회 참가 지원 - 국제종합경기대회 및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 국제 친선경기대회 지원
	국제경기대회 개최 후속 지원 사업 - 대구육상진흥센터 건립 및 운영
태권도 진흥 및 세계화	태권도 진흥 및 활성화 관련 업무
	태권도원 조성·운영 지원
	태권도 세계화 사업 추진 -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 태권도 평화봉사단 파견, 시범단, 사범 파견 등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지원 및 감독
남북체육교류	남북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 내부자료.

민간부문에서는 체육단체(KOC, 대한체육회, 각 경기단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임시조직으로서 주요 국제대회 조직위원회가 있다. KOC의 주요 업무는 대한체육회 국제교류팀과 국제경기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생활체육팀에서도 국제생활체육 교류 관련 업무(APOSA, IANOSA, TAFISA 등)를 일부 수행하고 있다(표 6-15).

표 6-15 대한체육회 국제교류팀과 국제경기팀의 주요업무

국 제 교 류 팀	국 제 경 기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경기운영요원 양성 업무 • 스포츠외교 관련 업무 •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업무 • 국제대회 및 국제회의의 유치관련 업무 • NOC, 국제체육기구와 교류 및 협력(협정 체결 등) 업무 • 국제종합대회 코리아하우스 운영업무 • 남북체육교류 및 협력업무 • KOC 영문홈페이지 관련업무 • 국제심판 및 임원육성(현황 파악) 업무 • 올림픽 운동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달리기대회 - 올림픽솔리다리티 • 국제체육유공자 포상업무 • 국제위원회, 문화·환경·교육위원회 운영 • IOA 및 KOA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종합대회(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U대회 등)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단 구성 및 파견, 예산관련 업무 - 단장회의 및 사전조사단 파견 관한 업무 •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AUSF) 관련업무 •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USB 임원구성 - KUSB 총회 및 상임위원회 등 각종회의 개최 및 주관 업무 -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대학선수권대회 국내유치 업무

각 경기단체에서는 이사회에서 국제체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사무국 내에서 외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와 국제이사의 책임 하에 사무국에서 행정 지원을 수행하는 형태가 있다 <그림 6-3>. 특히 후자의 경우 원활하고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국제스포츠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사업 협력부 국제협력팀에서 생활체육 국제교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경우 국제협력본부 내의 국제경기팀 및 국제교류팀에서 KOC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많은 국제경기 업무와 다양한 스포츠국제기구 관련 업무 등 국제스포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대회조직위원회는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국제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전담당관과 국제협력관을 포함하는 국제담당사무차장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과 사무총장 하위에 있는 사무차장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의 경우에는 기획부 내의 국제협력팀이 국제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 경기단체의 경우 국제 업무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2008년부터 정책적으로 국제 업무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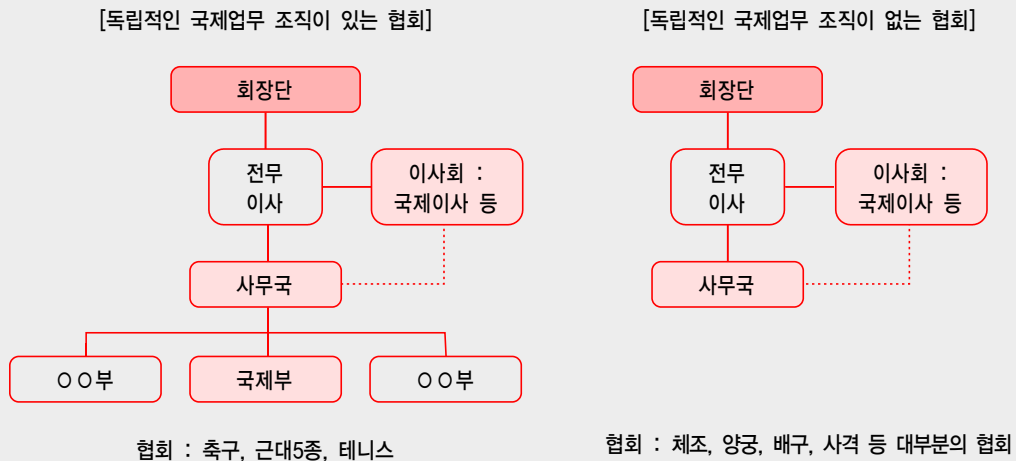


그림 6-3 경기단체(협회) 국제업무 기구(운영 부분)

2. 체육교류협정 체결

국가간 스포츠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로서 국가간 또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간의 체육교류협정 체결이 있다. 1979년 이후 2011년 12월까지 31개 국가와 정부간, 그리고 50개국과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체육교류협정이 체결되어 국가 간의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 6-16). 특히 1988서울올림픽 이후 25개국 정부와 32개국 국가올림픽위원회와 협정체결을 이루어 올림픽 개최 이후 높아진 우리나라의 스포츠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 간 체육교류협정을 맺은 30개국 및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맺은 50개국 가운데 각각 28개국, 42개국이 서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소위 ‘AAA’ (Asia, Africa, Central & South America)국가와 동구권 국가로서, 외교의 다변화 전략과 함께 추진되어 외교적 관계가 소원한 국가와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다.

표 6-16 체육교류협정 체결 현황

(2011. 12. 31 현재)

구 분	정 부 간	국 가 올 림 픽 위 원 회 간
1979		대만
1980		바레인
1983	도미니카	미국, 쿠웨이트, 서독, 영국, 스웨덴
1984	이라크	이태리, 일본, 캐나다, 튀니지
1985		코스타리카, 프랑스
1986		탄자니아
1987		페루
1988	카타르, 이란, 스페인	베냉
1989	폴란드	
1990	말리, 유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모로코	멕시코
1991	체코	라오스, 베트남
1992	헝가리, CIS	몽골
1993	태국, 캐나다	카자흐스탄, 중국, 러시아
1994		칠레,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호주, 슬로바키아
1995	중국, 베트남	예멘,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카타르,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카메룬, 레바논
1996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리비아
1997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1999	몽골, 에티오피아	시리아, 이집트
2001	알제리	
2002	멕시코	
2004	수단	
2005	이집트	
2006		우크라이나, 과테말라 ※재체결(이탈리아, 멕시코)
2007		스웨덴, 알제리
2008	쿠웨이트	루마니아, 방글라데시
2009		
2010		
2011	우루과이, 벨라루스	뉴질랜드
계	31개국	50개 NOC

※ 중복체결국(11) : 몽골, 멕시코, 베트남,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알제리, 이라크, 이집트, 중국, 카타르, 캐나다

3. 국제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1) 국민체육진흥5개년 계획의 전문 인력 양성 방안

국제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에서 입안되어 추진되었다.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체육지도자, 선수, 국제심판, 공무원, 경기단체 및 KOC와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자 등을 대상으로 KOC가 주관하여 근무시간 후 6개월 또는 어학연수기관의 교육이수를 통해 매년 10~100명씩 양성한다는 것이었다(표 6-17). 그러나 근무시간 후 교육에 따른 교육시간의 부족, 집중교육의 어려움 그리고 외국어 연수교육의 한계, 예산 부족 등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단기 어학교육과 소양교육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외교실무, 정치외교관계론, 체육학 관련 분야(스포츠외교론, 스포츠마케팅, 체육행정 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참여정부 5개년계획에서 국제스포츠에 관한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권위 있고 교육양성분야에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 주관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요원을 양성을 위해 1~5년의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표 6-17 국민체육진흥5개년 계획의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방안

구 분	추천 대상자	인 원	주관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제1차 5개년계획 (1993~1997)	체육지도자, 선수, 국제심판, KOC직원, 경기단체 및 KOC 추천자	년10명	KOC	6개월	외국어교육 소양교육
제2차 5개년계획 (1998~2002)	체육지도자, 선수, 국제심판, KOC위원, 공무원, 대학생	년100명	KOC	어학 연수원 교육기간	외국어교육 소양교육
참여정부 5개년 계획 (2003~2007)	우수 체육인(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년 10명	KOC	1~5년	외국어교육 국제스포츠 관련 분야 교육

2) 국제스포츠인력 강화 방안

국제스포츠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에서는 「스포츠외교력강화방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스포츠 인력의 전문성과 활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장·단기별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표 6-18 국제스포츠인력 강화 방안

구 분	사 업 명	대 상
단기정책	인력 풀 구성	국제체육기구 임원, 전현직 외교관, 대학교수, 기업체 임원 등
	외국어능력 향상 지원	심판, 코치, 국가 대표급 선수
중장기 대책	어학연수 프로그램 개설	체육단체 임직원, 메달리스트, 국제심판 등
	인력 고급화를 위한 학위과정 지원	메달리스트 및 국가대표 선수
	외교 전문성 배양 프로그램(국제스포츠기구 파견)	체육단체 임직원
	외국어능력 향상 지원	심판, 코치, 국가대표급 선수

이에 따라 2003년과 2004년에는 국외 어학연수와 국제기구 파견 등 ‘전문성배양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올림픽메달리스트인 전이경 외 2명을 선발하여 미국 세인트마이클대학 및 미국올림픽 위원회, 아테네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견하였으며, 2005년에는 과거에 추진하다 중단되었던 국내 어학연수 사업을 재개하여 사설 어학과정 수강 지원, 전화영어 수강 지원 외국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어학연수 과정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스포츠 외교 인력의 관련분야 적재적소 배치, 국제행사유치단 구성, 국제회의 참석 등 국제스포츠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첫 단계로서 초기데이터를 입력하였다. 2007년에는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이 처음으로 경기대학교에 개설된 이후 2008년 제 2기는 경기대학교, 2009년 제 3기는 경희대학교, 2010년 제 4기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였다.

2008년부터는 기존에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여온 사업에 더하여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도 차세대 국제스포츠인재양성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규모가 확대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기존에 추진되어 온 국내 및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어학연수와 학위과정 지원, 국제스포츠기구 파견 이외에 경기지도자 및 국제심판 등 국제자격 취득 지원,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스포츠 전문인력 지원 사업이 2008년부터 새로이 실시되고 있다.

2011년 사업 실적을 보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한 국내 어학연수과정에 65명,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한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에 23명, 미국 테네시대학교에서 실시된 국외 어학연수과정에 19명이 각각 참가하여 과정을 수료하였고, 해외 학위과정과 국제기구 인턴사원 파견 사업으로 각각 2명과 14명이 선정되어 사업에 참가하였다. 또한 국제자격 취득으로 국제경기단체 지도자 25명, 국제심판 52명이 양성되었으며, 국내 체육단체에 32명의 인력 근무를 지원하였다.

표 6-19 국제스포츠인력 양성사업 운영실적

(단위 : 명, 2011년 12월 현재)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사업명	전화영어	-	-	135	100	134	46	38	-		453
	사설어학과정	-	-	-	21	158	-	59(59)	-		238(59)
	한국외대과정	-	-	13	7	-	3	-	48(48)	44(44)	115(92)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	-				24	17	21	23	폐지	85
국외어학연수		1	1	6	4	4	20(16)	13(9)	19(19)	16(16)	84(60)
해외학위과정		-			2	1	16(15)	10(9)	2(2)		31(26)
국제자격취득		-						46(46)	77(77)	53(53)	176(176)
국제기구파견		2	2	4	2	2	4(2)	14(11)	14(14)	7(7)	51(34)
국제전문인력지원		-					13(13)	35(35)	40(40)	32	120(88)
연도별 계		3	3	158	136	323	119	236	223	152	1353(509)

※ 정책수혜자 수는 대한체육회 및 체육인재육성재단 사업 대상자 합계이며, 체육인재육성재단 사업 대상자는 괄호 속 인원수로 표시함

※ 다년간 수혜자의 경우 선정연도에만 인원을 표시하였음

4.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

국제체육기구의 주요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국제스포츠에 있어 영향력 확대는 물론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국가 경쟁력이기도 하다. 특히 IOC위원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장 혹은 위원이 되는 것은 IOC에서 한 국가의 스포츠 위상은 물론 정치적·경제적 위상을 반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의 회장단과 집행위원 또는 이사로 진출하는 것은 해당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기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현재 2명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비롯하여 국제스포츠기구와 국제경기연맹, 아시아경기연맹에 다수의 임원이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위원, 분과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 인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표 6-20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활동 현황

(2011. 12.)

직 위	성 명	피선년도	임기	국내직위	비 고
위 원	이건희	1996. 7	80세	대한체육회 이사	
선수위원	문대성	2008. 8.21	8년	대한체육회 이사	

IOC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진출은 국제 스포츠의 국가간 관계로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있는 시도이다. 2011년 12월 현재 25여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3개의 분과에 4명이 분과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표 6-21).

표 6-21 IOC 산하 분과위원회(commissions) 위원 진출 현황

(2011. 12. 현재)

직 위	성 명	피선년도	임기	국내직위	비 고
국제관계분과위원	박용성	10. 3.31	4년	대한체육회장	
생활체육분과위원	최종준	10. 3.31	4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문대성	09. 6.19	4년	대한체육회 이사	
선수분과위원	문대성	08. 8.21	8년		

※ IOC, www.olympic.org

한편 국제경기연맹에 진출한 회장단과 사무총장, 또는 집행위원은 2011년 12월 현재 2개 종목의 회장, 10개 종목의 부회장, 4개 종목의 사무총장, 36개 종목의 집행위원, 54개 종목의 분과위원 등 총 42개 종목(올림픽 종목 29개, 그 외 종목 13개)에 총 107명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표 6-22).

표 6-22 국제경기연맹 임원 진출 현황

(2011. 12.)

직 위	올림픽 종목	인원(명)	그 외 종목	인원(명)
회장	태권도, 배드민턴	2		0
부회장	사이클, 바이애슬론, 태권도,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봅슬레이, 루지	7	정구, 검도, 세팍타크로	3
사무총장	복싱, 태권도	2	정구, 카바디	2
집행위원	육상, 탁구, 배구, 레슬링(2), 스키, 사격, 펜싱, 태권도(8), 카누, 근대5종, 컬링	19	정구(4), 야구, 검도, 인라인롤러, 산악,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수중, 댄스스포츠, 오리엔티어링	13
분과위원	육상(6), 축구, 탁구(2), 핸드볼, 역도, 복싱(3), 빙상(2), 유도, 체조, 농구, 스키(6), 승마, 사격(3), 바이애슬론, 펜싱(2), 조정(3), 요트(4), 양궁(4),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2)	46	정구(3), 야구, 수상웨이크보드, 산악(2), 소프트볼	8
기타	축구, 탁구, 빙상, 배구, 양궁	5		-
소계		81		26
합계				107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아시아경기연맹에서의 집행부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현재 16개 종목 회장, 18개 종목 부회장, 16개 종목의 사무총장, 15개 종목의 집행위원, 83개 종목의 분과위원 등 총 41개 종목(아시안게임 종목 38개, 그 외 종목 3개)에 총 154명이 선임되어 아시아권에 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표 6-23).

표 6-23 아시아경기연맹 임원 진출 현황

(2011. 12.)

직 위	아시안게임 종목	인원(명)	그 외 종목	인원(명)
회 장	사이클, 농구, 레슬링, 야구, 승마, 태권도, 조정, 인라인롤러, 양궁, 골프,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바둑, 빙상, 스키	15	산악	1
부회장	정구, 탁구, 역도, 유도, 레슬링, 수영, 하키(3), 펜싱, 태권도(3), 배드민턴,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당구, 컬링	18		
사무총장	역도, 사이클, 레슬링, 야구, 승마, 태권도(2), 조정, 양궁(2), 근대5종, 바둑, 빙상, 스키	14	산악, 수중	2
집행위원	육상, 정구(2), 탁구, 체조, 배구, 럭비, 태권도(3), 근대5종, 보디빌딩, 우슈, 댄스스포츠, 빙상	15		
분과위원	육상(4), 축구(12), 탁구(3), 핸드볼(4), 역도, 유도(2), 배구(4), 수영(7), 야구, 하키(10), 사격(2), 펜싱(3), 태권도(6), 조정(2), 배드민턴(2), 인라인롤러(2), 양궁(4), 우슈, 트라이애슬론(5), 댄스스포츠(2), 스쿼시, 빙상	79	수상웨이크보드(4)	4
기타	육상, 핸드볼, 역도, 유도, 당구, 카바디	6		
소계		147		7
합계				154

※ 보디빌딩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는 포함되지 않음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한편, 우리나라의 IOC 이외의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현황은 표 6-24와 같다.

표 6-24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 현황(IOC 제외)

(2011. 12.)

기구	직 위	성 명	파선년도	임기	국내직위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OCA 부회장	박용성	2011. 7 선임	4년	KOC 위원장
	스포츠위원	최종준	2011. 7 선임	4년	KOC 사무총장
	스포츠와환경분과 위원장(집행위원)	유경선	2011. 7 재선임	4년	KOC 문화환경교육위원장
	의무위원	박원하	2011. 7 선임	4년	의무위원장
	교육위원	김동환	2011. 7 선임	4년	문화환경교육위원

기구	직 위	성 명	피선년도	임기	국내직위
	국제관계분과위원	문희중	2011. 7 선임	4년	국제위원, KOC 부속실장
	선수위원회	전이경	2011. 7 선임	4년	선수위원
	여성과 스포츠 위원회	김소희	2011. 7 선임	4년	국제위원
	고문위원	문대성	2011. 7 선임	4년	IOC위원
동아시아대회 협의회 (EAGA)	협의회위원	최종준	2010. 9	4년	KOC 사무총장
	협의회위원	김지영		4년	KOC 국제위원장
	규정기술분과위원	백성일	2009. 8	4년	KOC 국제협력본부장
	의무분과위원	박원하	2010. 9	4년	
국제대학스포츠연맹 (FISU)	FISU집행위원	김종량	2011. 8 재선임	4년	前 KUSB 위원장 한양대학교총장
	FISU명예위원	장철희	2011. 11 선임	4년	KUSB 상임위원
	CTI(기술위원회)	박남환	2011. 11 선임	4년	대학빙상경기연맹 부회장
	CIC(조정위원회)	유병진	2011. 11 재선임	4년	KUSB 위원장
	CM(의무위원회)	윤택림	2011. 11 선임	4년	전남대 의대 교수
	CESU(대학스포츠연구 위원회)	홍양자	2011. 11 재선임	4년	KUSB 상임위원
	CEC(성평등위원회)	원영신	2011. 11 선임	4년	KUSB 상임위원
	SC(학생위원회)	추영	2011. 11 선임	4년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 (AUSF)	상임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장호성	2010. 9	4년	KUSB 부위원장
	감사	하웅용	2010. 9	4년	KUSB 상임위원
세계체육기자연맹 (AIPS)	집행위원	박갑철	2010. 5	4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아시아체육기자연맹 (ASPU)	회장	박갑철	2006. 11 (선거연기 '12. 9~10월)	4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재무위원	방준식	2006. 11 (미정)	4년	

※ 자료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제3절 국제교류 현황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한 IOC의 일정은 대회개최 9년전부터 시작되었다. 각 NOC에서는 자국내의 1개 도시를 선정하여 IOC에 개최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를 “신청도시”단계라고 한다. IOC에서는 이들 신청도시를 대상으로 1차 평가하여 대회개최 8년전에 2단계로 후보도시를 선정하게 되고 이들 도시가 개최지로 결정될 때까지 IOC의 최종적인 공식후보도시가 된다. 또한 IOC에서는 이들 후보도시를 대상으로 IOC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대회개최 7년전에 이들 도시를 대상으로 IOC총회를 개최하여 IOC위원의 투표로 최종 개최지를 결정하게 된다.

표 6-25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일정

일 정	절 차	비 고
2009. 7.31~10.15	대회유치 신청서 제출	문서, KOC → IOC, '09. 9.24
2009.11. 1	신청도시절차 서명제출 및 부담금 납부	15만불, '09.10.27
2009.12. 2~12. 5	신청도시를 위한 IOC 정보세미나	스위스 로잔
2010. 2.12~2.28	2010밴쿠버 오피버 프로그램	캐나다 밴쿠버
2010. 3.15	신청도시파일 제출	9개 분야 25개 항목
2010. 4.23	비디오 컨퍼런스	IOC 워킹그룹 주관
2010. 6.30~7. 2	공식후보도시 선정(IOC집행위원회)	
2010. 7.	후보도시 부담금 납부	50만불
2011. 1.11	후보도시파일 제출	17개 주제 234개항목
2011. 2~3.	IOC조사평가위원회 현지실사	도시별 3박4일
2011. 5.	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 공개	
2011. 5.	IOC 테크니컬 브리핑	스위스 로잔
2011. 7. 6	개최지 선정 투표(제123회 IOC총회, 남아공 더반)	무기명 투표

※ 자료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성공 종합백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체계는 2014동계올림픽 유치 당시의 경험과 유치활동 등의 제 반사항을 고려하여 유치활동 주체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와 「정부·국회·KOC·강원도·의회·기업체」 등을 기본 축으로 운영되었다. 정부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그리고 국회 차원의 국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강원도 차원에서는 강원도행정지원본부와 강원도의회 특별위원회, 범도민후원회, 3개시·군 및 2개 리조트의 전담기구, 시군추진위원회 및 유치지원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구체적인 범국가적 유치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09년 4월 23일 KOC에서 강원도 평창을 국내후보도시로 결정한 후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앞서 유치신청도시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식 유치위원회 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IOC 등 올림픽 관련인사, 동계스포츠 경기단체장, 2014년 유치도전 당시 국제 스포츠계 관련인사, 국내외 언론·학계 인사, 올림픽관련 기업인, 개최지 자치단체장 등의 인사를 대상으로 하여 총 77명의 유치위원을 선임하였다.

유치위원회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되고 기본재산은 유치위원회 설립자본금 등이 해당되며, 운영재산은 유치분 조성과 유치활동 등 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 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 정부·지자체 출연금 및 보조금, 기업체의 후원금 등으로 충당되었다. 3년간 총 재정규모는 44,424백만원으로 연도별 수입은 다음과 같다.

표 6-26 평창동계올림픽 재정 운용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국 비(기 금)	10,600		3,000	7,600
강 원 도(출연금)	10,600	2,000	4,000	4,600
후 원 금	22,330	1,004	9,997	11,329
기 타	894	3	66	825
합 계	44,424	3,007	17,063	24,354

※ 자료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성공 종합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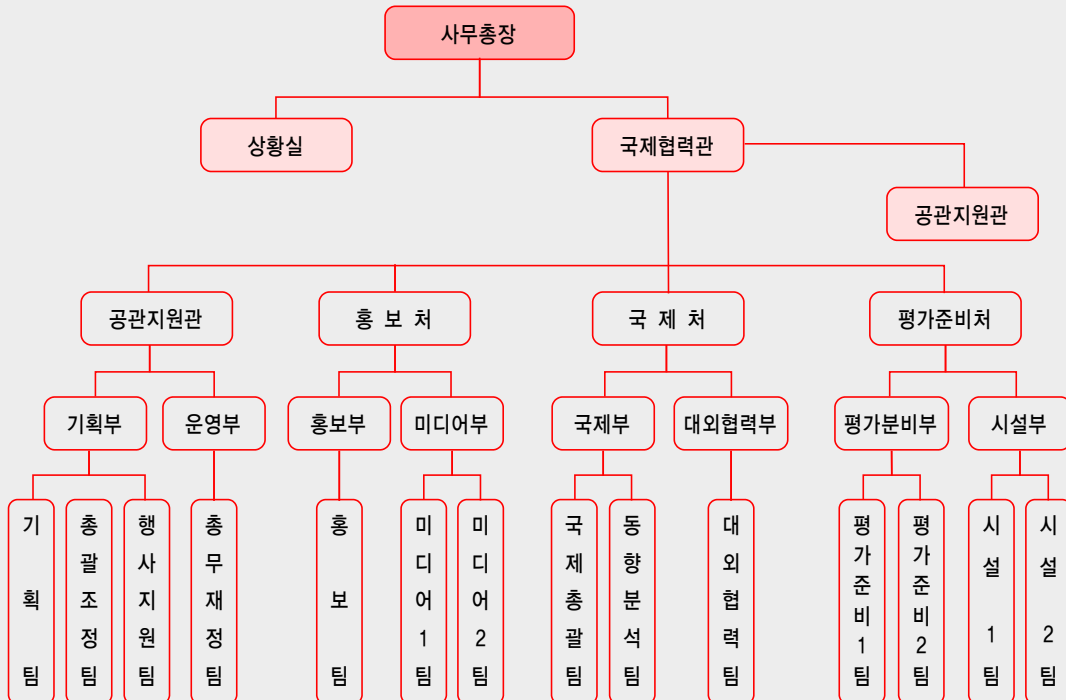
이 중 총 지출액은 43,383백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IOC후보도시 부담금 1,112백만원, 국제대회 행사관련 유치홍보활동 7,836백만원, 국내외 광고 및 홍보 6,964백만원, 국제대회 참가 및 홍보활동 지원 17,523백만원, 유치활동 대외협력비 1,613백만원, 유치위원회 사무처 운영 8,335백만원 등을 집행하고 잔액 1,041백만원은 일부 청산경비(970백만원) 사용 후 최종잔액은 새로운 법인(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귀속시켰다.

정부에서는 유치활동 초기단계에서부터 유치활동과 재정지원 등 원활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위원회 창립에 맞추어 2009년 9월 14일 「2018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규정(국

무총리 훈령 제539호)」을 제정하여 2018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지원을 위한 「고위전략회의」와 「실무점검회의」를 수시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2009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18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기구 및 인력 66명이 승인됨에 따라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처」가 정식 발족되었다. 유치위원회 창립이후 2010·2014유치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IOC가 요구하는 기준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후보도시와 차별화된 비전과 명분으로 신청과일작성을 위한 1차개편이 진행되었고, IOC 현지실사 준비 및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2차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IOC 총회 참가 및 성공유치 총력, 유치위원회 활동 정리를 위한 3차개편이 이루어졌다. 4차개편에서는 유치위원회 청산 및 이양 준비가 운영되었고 2011년 10월 5일 해산총회 이후에는 자체채용 계약직 해지로 36명의 청산단이 운영되었다.

표 6-27 평창조직위원회 사무처 현황



국제 업무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IOC 현지실사를 통하여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결과 더반(남아공)에서 개최된 제12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평창과 독일의 뮌헨, 프랑스 안시의 개최지 결정 투표를 통해 평창이 최종 선정되었다.

평창의 승리요인은 지난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경기장 및 올림픽 관련시설 투자,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완벽하게 준비해 온 모습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설득한 점이 주효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강원도, KOC, 삼성, 재계 등 각계각층의 전방위적 유치활동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88서울올림픽, 2002FIFA월드컵,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4대 국제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위업 달성에 이은 ‘한국올림픽의 완성’으로 명실상부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진입함은 물론, 평창 올림픽을 통해 국가브랜드 및 이미지 향상 등 국가발전의 획기적 계기 부여, 대회 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 국내경제 활성화, IT·환경·녹색산업 등 최첨단 산업발전 촉진 및 세계시장 선도, 국민통합 및 자긍심 고양을 통한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참가한 국제종합경기대회는 4개 대회로 2011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제 7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2011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제 2회 뉴질랜드동계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4개의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장소 및 일시, 그리고 참가한 한국 대표 팀의 선수단 구성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6-28 2010년도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현황

대 회 명	개최일	개최지	경기 종목	참가국 인원	한 국 참 가 현 황		
					인 원 (임원/선수)	메달획득	순위
2011 제25회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1.27~2. 6	터키 에르주룸	5 종목	57개국 1,500명	125 (34/91)	금 7 은 3 동 5	2
제7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1.30~2. 6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10 종목	26개국 1,100명	149 (43/106)	금 13 은 12 동 13	3
제 26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8. 2~23	중국, 선전	18 종목	179개국 13,000명	382 (25/357)	금 28 은 21 동 30	3
제 2회 뉴질랜드 동계대회	8.11~28	뉴질랜드 퀸스타운	5 종목	36개국 887명	63 (20/43)	금 19 은 9 동 3	순위 집계 없음

1) 2011 제 25회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 터키 에르주룸에서 개최된 제 25회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5개 종목 12개 세부종목의 경기에 58개국에서 2,700명의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였다. <표 6-29>은 역대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이번 터키 에르주룸 대회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대회에서 금7, 은3, 동 5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러시아에 이어 종합 2위의 경기성적을 거두었다.

표 6-29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및 한국의 참가 현황

회수	개최년.월.일	개최지	참가국(인원)	한 국 참 가 현 황		순위
				인원 (임원/선수)	매 달 획득	
1회	1960. 2. 28 ~ 3. 6	프랑스(샤모니)	15개국(145)	불 참		
2회	1962 3. 6 ~ 3. 12	스위스(빌라스)	22개국(343)	불 참		
3회	1964. 2. 11 ~ 2. 17	체코(슈펜들레루프린)	21개국(404)	불 참		
4회	1966. 2. 5 ~ 2. 13	이탈리아 (코리노세스트리에)	30개국(434)	불 참		
5회	1968. 1. 18 ~ 1. 28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26개국(589)	2종목15(7/8)	-	-
6회	1970. 4. 3 ~ 4. 9	핀란드(로바니에미 외)	23개국(497)	2종목14(8/6)	-	-
7회	1972. 2. 26 ~ 3. 5	미국 (레이크플레시드)	16개국(257)	1종목5(2/3)	금1, 은2, 동1	7
8회	1975. 4. 6 ~ 4. 13	이탈리아(리비그노)	15개국(191)	불 참		
9회	1978. 2. 5 ~ 2. 12	체코(슈펜들레루프린)	21개국(347)	불 참		
10회	1981. 2. 23 ~ 3. 4	스페인(하카)	28개국(583)	3종목29(7/22)	-	-
11회	1983. 2. 17 ~ 2. 27	불가리아(소피아)	31개국(812)	3종목32(8/24)	-	-
12회	1985. 2. 16 ~ 2. 24	이탈리아(벨루노)	29개국(844)	3종목47(13/34)	-	-
13회	1987. 2. 21 ~ 2. 28	체코 (스트르브스케플레소)	28개국(941)	2종목52(20/32)	-	-
14회	1989. 3. 2 ~ 3. 12	불가리아(소피아)	32개국(1,079)	3종목64(20/44)	금4, 은3, 동1	4
15회	1991. 3. 2 ~ 3. 10	일본(삿쵸)	34개국(1,073)	3종목69(22/47)	금5, 은2, 동2	3
16회	1993. 2. 5 ~ 2. 14	폴란드(자코파네)	41개국(1,040)	3종목62(20/42)	금5, 은2, 동3	5
17회	1995. 2. 18 ~ 2. 26	스페인(하카)	41개국(1,209)	3종목60(18/42)	금6, 은4, 동4	2
18회	1997. 1. 24 ~ 2. 2	한국(무주전주)	48개국(1,350)	4종목111(32/79)	금5, 은2, 동5	6
19회	1999. 1. 22 ~ 1. 30	슬로바키아 (포프라드-타트리)	40개국(1,412)	8종목77(13/53)		
20회	2001. 2. 7 ~ 2. 17	폴란드(자코파네)	44개국(2,000)	9종목79(13/54)	금8, 은4, 동3	2
21회	2003. 1. 16 ~ 1. 26	이탈리아(타르비시오)	46개국(1,935)	9종목106(32/74)	금5, 은3, 동4	5
22회	2005. 1. 12 ~ 1. 26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50개국(1,500)	10종목124(36/88)	금10, 은7, 동6	2
23회	2007. 1. 17 ~ 1. 17	이탈리아(토리노)	52개국(2,067)	11종목123(34/89)	금10, 은11, 동9	1
24회	2009. 2. 18 ~ 2. 28	중국(하얼빈)	50개국(1,500)	12종목124(33/91)	금12, 은7, 동9	3
25회	2011. 1. 27 ~ 2. 6	터키(에르주룸)	58개국(2,729)	9종목(34/91)	금7, 은3, 동 9	2

가.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이번 대회에서 러시아는 금 14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지난 대회 제24회 중국 하얼빈 대회에서 3위를 한 한국은 2위를 차지하여 동계 스포츠 대회 국제 경쟁력의 우수성을 과시하였다. 우크라이나, 미국, 프랑스가 각각 3, 4, 5위를 차지하였으며 상위 입상국과 메달획득 현황 및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6-30 국가별 메달획득 및 종합성적 현황

순위	국 가 명	금	은	동	계
1	러시아	14	14	11	39
2	한 국	7	3	5	15
3	우크라이나	6	5	4	15
4	미 국	5	2		7
5	프랑스	4	4	4	12
6	일 본	4	3	3	10
7	슬로바키아	4		3	7
8	중 국	3	3	4	10
9	독 일	3	3	1	7
10	체 코	3	2	4	9
11	슬로베니아	2	2	3	7
12	스위스	2	1	2	5
13	오스트리아	2	1	1	4
14	이탈리아	1	3	4	8
15	캐나다	1	3	1	5
16	핀란드	1	2		3
17	카자흐스탄	1		5	6
18	영 국	1			1
19	폴란드		6	3	9
20	불가리아		2	2	4
20	스웨덴		2	2	4
22	벨라루스		1	1	2
23	터 키		1		1
23	스페인		1		1
25	헝가리			1	1

이번 제25회 터키 에르주룸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승한 러시아는 선수 176명을 파견하여 금 14개, 은 14개, 동 11개의 메달을 획득, 종합 우승하여 동계 스포츠강국임을 확인하였다. 한국 팀은 이 대회에서 쇼트트랙 종목에 집중되었던 메달획득 양상이 설상 종목인 스키 스노보드와 컬링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패턴을 이룩하였다. 특히 스키 스노보드 3개 종목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1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아시아 선수들에게도 이 종목이 유망한 종목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나.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 팀은 금 7, 은 3, 동 5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2위를 차지하였으며 메달획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31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종류	종 목	세부 종목	선 수 명	기 록
금	빙 상	쇼트트랙 남자 1,500m	김환이	2:24.046
		쇼트트랙 여자 1,500m	이은별	2:43.677
		쇼트트랙 남자 1,000m	이승훈	1:32.425
		쇼트트랙 여자 1,000m	이승훈	1:33.338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최정원	4:18.097
	스 키	스노보드 남자평행대회전	김성경	320 point
	컬 링	남자단체전	김창민, 김민찬, 성세현, 서영선, 오은수	10:6(승) 대 스위스
은	빙 상	쇼트트랙 남자 1,500m	김태훈	2:24.169
		쇼트트랙 여자 1,500m	정바라	2:43.985
		쇼트트랙 남자 1,000m	김민정	1:33.563
동		쇼트트랙 남자 1,500m	김성일	2:24.419
		쇼트트랙 여자 500m	이은별	59.793
		쇼트트랙 남자 1,000m	김성일	1:32.720
	스키	스노보드 하프파이브	김호준	26.2
	컬 링	여자 단체	김지선, 이슬비 김은지, 이혜수	8:5(승) 대 일본

2) 제 7회 동계 아시아경기대회

제 7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는 2011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와 경제도시 알마티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1986년 일본 삿포로에서 제 1회 대회가 개최되면서 하계 아시아경기대회와의 일정상 한 해가 겹치는 문제 때문에 4회 대회부터 홀수 년에 개최하도록 합의가 되어 1999년 제 4회 대회부터는 매년 4년 주기로 홀수 년에 개최하고 있다.

가. 대회 개요

이번 카자흐스탄 국가의 아스타나-알마티 동계 아시아경기대회는 제 7회 대회로 26개 국가팀의 1,100명이 총 10개 종목의 경기에 참가하였다. 한국 팀은 5개 종목에 선수 106명이 참가하여 금13, 은 12, 동 13개로 종합 순위 3위를 달성하였다. 이 성적은 지난 2007년 중국 장춘에서 개최된 제6회 대회와 동일한 종합순위를 기록하였으나 동계 아시아 대회 참가 사상 가장 많은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표 6-32 역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참가현황 및 경기성적

회	개최기간	개최지	참가규모	한국참가현황		순위
				선수단	메달획득	
1	1986. 3. 1 ~ 3. 8	일본 (삿포로)	7개국 (425명)	8종목 91(28/63)	금1, 은5, 동12	3
2	1990. 3. 9 ~ 3.14	일본 (삿포로)	10개국 (441명)	7종목 92(29/63)	금6, 은7, 동8	3
3	1996. 2. 4 ~ 2.11	중국 (하얼빈)	16개국 (660명)	9종목 90(27/63)	금8, 은10, 동8	4
4	1999. 1.30 ~ 2. 6	한국 (용평)	21개국 (799명)	7종목 130(29/101)	금11, 은10, 동14	2
5	2003. 2. 1 ~ 2. 8	일본 (아오모리)	29개국 (1,016명)	6종목 172(44/128)	금10, 은8, 동10	2
6	2007. 1.28 ~ 2. 4	중국 (장춘)	26개국 (1,100명)	9종목 163(41/122)	금9, 은13, 동11	3
7	2011. 1.30 ~ 2. 6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알마티)	26개국 (1,100명)	5종목 149(43/106)	금13, 은12, 동13	3

나. 각 국가별 메달 집계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국가는 참가국 26개 국가 중 8개 국가만이 메달 획득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아시아 지역은 주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만이 겨울 스포츠를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 획득한 각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메달 207개 중 카자흐스탄이 70개로 33.86%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4위 내 입상한 4개국의 메달 획득이 총 197개로 전체 메달의 95.2%의 메달을 획득하여 동계 아시안대회의 향후 발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준 경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력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표 6-33 장춘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의 각국 메달 획득

순 위	국가명	금	은	동	합계
1	카자흐스탄	32	21	17	70
2	일 본	13	24	17	54
3	한 국	13	12	13	38
4	중 국	11	10	14	35
5	몽 고		1	4	5
6	이 란		1	2	3
7	북 한			1	1
7	키르기즈스탄			1	1
계		69	69	69	207

이번 대회의 국가별 메달획득 상황을 분석하면 개최국인 카자흐스탄 국가의 독주로 인해 아시아 지역의 동계 종목 강국인 한국, 일본, 중국간의 2~3위 다툼이 예상한 가운데 지난 대회 우승한 중국이 11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13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예측이 어려운 경기가 진행되면서 일본이 은메달수에서 앞서면서 한국팀은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한국 팀은 지난 대회까지 빙상의 쇼트트랙과 스피드에 편중되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설상종목인 스키 알파인 종목과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메달 종목 다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 이은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부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대회에서 북한은 피겨의 페어부문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여 종합 7위를 차지하였다.

다.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현황

이번 대회에서 한국 팀은 금 13, 은 12, 동 1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3위를 차지하였으며 각 선수별 메달획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34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종류	종 목	세부 종목	선 수 명	기 록
금	빙 상	쇼트트랙 남자 1,500m	노진규	2:18.998
		쇼트트랙 여자 1,500m	조해리	2:38.442
		쇼트트랙 여자 1,000m	박승희	1:33.343
		쇼트트랙 남자 5,000m계주	이호석, 노진규, 성시백, 김병준, 엄천호	6:44.705
		스피드 남자 5000m	이승훈	6:25.55
		스피드 여자 Mass Start	노선영	18:07.05
		스피드 남자 Mass Start	이승훈	20:18:09
		스피드 남자 10,000m	이승훈	13:09:74(아시아신기록)
		스피드 여자 팀추월	이주연, 노선영, 박도영	3:04.35(아시아신기록)
	스 키	알파인 여활강	김선주	1:37.61
		알파인 여 슈퍼대회전	김선주	1:10.83
		알파인 슈퍼컴파인드	정동현	1:45.70
	크로스컨트리	여 프리	이채원	36:34.60
은	빙 상	쇼트트랙 남자 1,500m	엄천호	2:19.337
		쇼트트랙 여자 1,500m	박승희	3:38.621
		쇼트트랙 여자 1,000m	조해리	1:33.622
		쇼트트랙 여자 3,500m계주	박승희, 조해리, 양신영, 황현선, 감담민	4:30.010
		스피드 여자 3,000m	김보름	4:10.54
		스피드 남자 500m	이강석	70.35(2회)
		스피드 여자 1,500m	노선영	1:59.27
		스피드 여자 5,000m	박도영	7:15.63
		스피드 남자 1,500m	모태범	1:47.71
		스피드 남자 팀추월	이규혁, 이승훈, 모태범	3:49.21
	스 키	알파인 슈퍼컴파인드	정소라	2:03.64
	오리엔티어링	여자 리플레이	김자연, 최슬비, 이하나	1:18:00
동	빙 상	스피드 여자 Mass Start	이주연	18:07.378
		스피드 남자 1,500m	이규혁	1:48.66
		스피드 여자 500m	이상화	76:58(2회)
		쇼트트랙 남자 1,000	성비백	2:41.236
	스 키	알파인 남자 활강	정동현	1:29.78
		알파인 여자 슈퍼대회전	정혜미	1:12.31
		알파인 남자슈퍼컴바인드	김우성	1:47.74
		점 프	최흥철, 강철구, 최용직, 김현기	770.3
	크로스컨트리	남자 팀 스프린트	정의명, 박병주	19:58.4
		남 계주	하태복, 임의규, 박병주, 이준길	2:08:07.4
	오리엔티어링	Long	김자연	1:12:56
	피겨	여 프리	곽민정	147.95
	아이스하키	남단체전	권태완 외	대 중국(11:1)

이번 2011 아스타나-알마티 동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 13개, 은 12개, 동 1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참가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여 일본과 동일 개수의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나 은메달 수에서 밀려 종합 3위를 차지하며 대회 참가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프리스타일 등 3종목은 경기력 수준이 맞아 대회 참가만으로 만족하는 아쉬움은 있었으나 알파인과 크로스컨트리에서의 금메달 획득은 향후 지속적인 투자 가능성과 강화훈련의 당위성을 보여준 대회였다고 할 수 있다.

3) 제26회 중국 선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FISU에서 주최하여 2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로서 우리 선수단은 이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성적을 거양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스포츠 및 문화교류를 통한 대학생 선수들의 세계화에 목적을 두고 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대회의 FISU 본부는 Wuzhou 호텔을 거점으로 FISU 게스트 호텔은 Air-International 호텔이 이용되었다.

이번 대회의 선수단 숙소는 선수숙소로 활용한 시설은 경기 후 아파트 분양으로 시설사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국 대표단은 선수단 숙소시설 중 C2동 1인실 6실용, 3인실 155실을 사용하였다. 조직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선수단은 3인 1실로 배방하여 운영하였다.

가. 대회 개요

2012년 제 26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 전 세계 170개 국가에서 선수 및 임원 약 13,000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 선수단은 19개 종목에 382명(임원 93명, 선수 289명)이 참가하여 종합 3위에 입상하였다.

표 6-35 중국 선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및 한국의 참가 현황

회수	개최년.월.일	개최지	참가국(인원)	한 국 참 가 현 황		순위
				인원(임원/선수)	매 달 획득	
1회	1959. 8. 26 ~ 9. 7	이탈리아(토리노)	45개국(1,407)	1종목12(1/11)		
2회	1961. 8. 25 ~ 9. 3	불가리아(소피아)	32개국(1,627)	불 참		
3회	1963. 8. 30 ~ 9. 8	브라질(포트알레그레)	27개국(988)	불 참		
4회	1965. 8. 20 ~ 8. 30	헝가리(부다페스트)	32개국(2,366)	불 참		
5회	1967. 8. 27 ~ 9. 4	일본(동경)	30개국(1,272)	8종목111(31/81)	금1, 은9, 동1	10
6회	1970. 8. 26 ~ 9. 6	이탈리아(토리노)	58개국(2,808)	4종목41(14/27)	동1	23
7회	1973. 8. 15 ~ 8. 25	소련(모스크바)	70개국(3,634)	3종목35(11/24)	동2	23
8회	1975. 9. 18 ~ 9. 21	이탈리아(로마)	38개국(617)	불참(세계대학생육상대회)		
9회	1977. 8. 17 ~ 8. 28	불가리아(소피아)	78개국(4,391)	2종목24(8/16)	동1	22
10회	1979. 9. 2 ~ 9. 13	멕시코(멕시코시티)	94개국(4,381)	5종목60(17/43)	금1, 동1	17
11회	1981. 7. 19 ~ 7. 30	루마니아(부가레스트)	86개국(4,369)	7종목70(20/50)	은1, 동4	20
12회	1983. 7. 1 ~ 7. 12	캐나다(에드먼튼)	73개국(3,471)	8종목81(25/56)	동1	20
13회	1985. 8. 24 ~ 9. 4	일본(고베)	106개국(3,946)	11종목144(37/107)	금3, 동5	12
14회	1987. 7. 8 ~ 7. 19	유고(자그레브)	121개국(5,573)	12종목168(46/122)	은1, 동1	28
15회	1989. 8. 22 ~ 8. 30	서독(뒤스부르크)	79개국(2,619)	3종목28(10/18)	동1	27
16회	1991. 7. 14 ~ 7. 25	영국(셰필드)	101개국(4,622)	11종목151(40/111)	금5, 은1, 동3	6
17회	1993. 7. 8 ~ 7. 18	미국(버팔로)	118개국(5,145)	10종목134(35/99)	금3, 은4, 동4	13
18회	1995. 8. 23 ~ 9. 3	일본(후쿠오카)	162개국(5,740)	12종목204(52/152)	금10, 은7, 동10	5
19회	1997. 8. 19 ~ 8. 31	이탈리아(시실리)	124개국(5,286)	9종목150(44/106)	금5, 은2, 동3	9
20회	1999. 7. 3 ~ 7. 13	스페인(팔마)	125개국(6,009)	10종목148(43/105)	금5, 은4, 동3	13
21회	2001. 8. 22 ~ 9. 1	중국(북경)	165개국(6,757)	12종목191(49/142)	금3, 은10, 동14	10
22회	2003. 8. 21 ~ 8. 31	대한민국(대구)	174개국(6,643)	13종목379(99/280)	금26, 은11, 동15	3
23회	2005. 8. 11 ~ 8. 21	터키(이즈미르)	131개국(7,805)	13종목198(50/148)	금11, 은14, 동9	7
24회	2007. 8. 8 ~ 8. 18	태국(방콕)	152개국(8,900)	16종목287(66/221)	금15, 은18, 동18	5
25회	2009. 7.1 ~ 7. 12	세르비아(베오그라드)	145(10,000명)	12종목246(66/180)	금21, 은11, 동15	3
26회	2011.8.12 ~ 8. 23	중국(선진)	170개국(13,000)	19종목382(93/289)	금28, 은21, 동30	3

나. 각 국가별 메달 집계

이번 중국의 선전에서 개최된 제 26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종합 순위 10위권에 진입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표 6-36 중국 선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각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순위	국 가 명	금	은	동	계
1	중 국	75	39	31	145
2	러 시 아	42	45	45	132
3	한 국	28	21	30	79
4	일 본	23	26	38	87
5	미 국	17	22	11	50
6	이탈리아	12	5	13	30
7	우크라이나	11	19	14	44
8	대 만	7	9	16	32
9	터 키	7	7	8	22
10	태 국	7	2	9	18
11	북 한	2	2	1	5

(표 6-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국은 금메달 75개를 획득하면서 다시 한번 스포츠 강국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어 러시아, 한국, 일본 미국이 각각 2, 3, 4, 5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 28개, 은 21개, 동 30개로 총 79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순위 3위를 차지하여 하계유니버시아드 참가사상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다.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현황

이번 대회에서 한국 팀은 금 13, 은 12, 동 1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3위를 차지하였는데 종목별로 메달획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양궁 6개, 배드민턴 2개, 사이클 1개, 체조 1개, 유도 5개, 사격 3개, 태권도 7개, 테니스 2개, 에어로빅 1개로 총 28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한편 은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수영 1개, 양궁 3개, 사이클 2개, 펜싱 2개, 유도 4개, 사격 4개, 태권도 3개, 역도 2개로 총 21개의 은메달을 획득하였으며, 동메달은 수영 1개, 양궁 1개, 사격 3개, 펜싱 5개, 골프 1개, 유도 3개, 요트 1개, 사격 3개, 탁구 2개, 태권도 4개, 테니스 2개, 역도 2개, 에어로빅 2개로 총 21개의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이에 다른 각 개인별 메달획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37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종류	종 목	세부 종목	선 수 명	기 록
금	양 구	남자 리커브	임동현	
		여자 리커브	기보배	
		여자 단체 컴파운드	김효선, 석지현, 서정희	
		혼성 단체 컴파운드	민리홍, 서정희	
		여 단체 리커브	한경희, 정다소미, 기보배	
		혼성단체 리커브	기보배, 김법민	
	배드민턴	혼합 복식	신백철, 엄혜원	
		여자 복식	엄혜원, 장혜나	
	사이클	도로(여) 120km	구성은	3:31:42
	체 조	여자 도마	조현주	14.087
	유 도	남자 100kg	김수완	
		남자 -66kg	황보배	
		남자 오픈	김성민	
		여자 오픈	김지윤	
		남-60kg	김원진	
	사 격	남 50m 권총	이대명	663.2
		남 10m 공기권총	이대명	685.7
		남 단체 10m 공기권총	이대명, 김근복, 김의중	1748
	태권도	남 단체 품세	안재성, 장준희, 이상목	8.75(4.17)
		여 단체 품세	조성예, 정스민, 강유진	8.67(4.09)
		혼성 단체 품세	이진호, 강수지	8.67(4.13)
		남자 -68kg	김 훈	
		남자 -74kg	김선욱	
		여자 -62kg	노은실	
	테니스	남 단식	임용규	
		남 단체	임용규, 오대성, 설재민	
	에어로빅	남 트리오	긴균택, 이경호, 류주선	21.400
은	수 영	개인혼영 200m	최혜라	2:14.17
	양 구	남자 컴파운드	최용희	144
		남자 리커브	김우진	
		여자 리커브	정다소미	
	사이클	도로(여) 120km	손희정	
		여 30km 단체 도로독주	손희정, 이애정, 유선희	
	펜 싱	남자 사브르	구본길	
		여자 플러레	전희숙	
	유 도	여자 -52kg	서하나	
		여자 -57kg	김잔디	
		남자 -73kg	김원중	
		여자 +78kg	김나영	
	사 격	남자 10m 공기소총	류재철	696
		남자 단체 50m 권총	이대명, 김양섭, 장하림	1670-26x
		여자 단체 10m 공기소총	최윤정, 김선화, 정경숙	1,181-90x
		여자 단체 25m 권총	이호림, 김지혜, 조수영	
	태권도	남 품새	영주민	8.53(4.05)
		여 -49kg	김재아	
		여 -73kg	박미연	
	역 도	남 69kg	원정식	318kg
		여 69kg	문유라	238kg

종류	종 목	세부 종목	선 수 명	기 록
동	수 영	여 접영 200m	최혜라	2:09.35
	양 궁	남 리커브	김법민	
	사이클	남 4km 개인추발	장선재	4:26.229
		남 30km 포인트레이스	최승우	26점
		남 50km 단체 도로 독주	장찬재, 장선재, 박성백, 임재연	58:34.19
	펜 싱	여자 에페	신아람	
		여자 사브르	김지연	
		남자 플러레	허 준	
		남자 사브르 단체	구본길, 황병열, 허영구	
		여자 사브르 단체	김지연, 이라진, 최수연	
	골 프	여 개인	고민정	281타
	유 도	여 -78kg	정경미	
		남 -100kg	김경태	
		남 단체	홍석웅, 황보배, 송수근, 김원중, 김성민	
	요 트	RS:X	이태훈	
	사 격	여 트랩	강지은	
		남 10m 공기권총	김근복	684.7
		남 더블트랙	황성진	191
	탁 구	혼합복식	이제훈, 김소리	
		여 복식	문미라, 지민형	
	태권도	여 품새	박지영	8.42(3.94)
		남 -54kg	박용한	
		여 -57kg	김소희	
		여 -67kg	우스미	
	테니스	남 복식	이용규, 설재민	
		여 단식	유 미	
	역 도	여 75kg	이애라	226kg
		남 85kg	유준호	
	에어로빅	남 단체댄스	황인찬, 김응수, 김성호, 이준규, 이경호, 류주선, 송성규, 윤창일, 윤광석, 윤태희,	18,950
		여 스텝	최하늘, 조예란, 김지연, 이사랑, 심미현, 신현경	17,520

4) 제2회 뉴질랜드 동계대회

제 2회 뉴질랜드 동계대회는 2009년에 환태평양 초청 동계대회란 이름으로 대회가 개최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뉴질랜드 동계대회로 개칭하여 8월 11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뉴질랜드 퀸즈랜드의 3곳(와나카, 나스비, 더니든)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팀은 3종목(스키, 빙상, 컬링)에 인원 20명, 선수 43명으로 63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 대회는 뉴질랜드 NOC가 매 2년마다 개최하고 북반부가 여름인 기간 중 대회를 개최하여 환태평양 지역의 동계종목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대회이다.

가. 경기 종목별 경기장

총 77개의 메달이 수여되는 뉴질랜드에서 퀸즈랜드 외 3곳에서 개최되는 대회 개최지와 세부 종목별 경기장과 이동거리는 다음과 같다.

표 6-38 뉴질랜드 동계 대회 종목별 개최지 현황(4개 지역)

종 목 명		세부종목	경기장	위치	대회 기간
스 키	알파인	슬라롬, 자이언트 슬라롬	코로넛피크	퀸스타운	8.22-28
		슈퍼 G	마운트헛	와나카	
	크로스컨트리	5/10km 프리스타일 10/15km 클래식, 스프린트	스노우 팜	와나카	8.13-16
	스노보드	빅에어, 하프파이프, 스노우보드크로스	카드로나	와나카	8.19-28
		슬로프스타일	스노우 파크	퀸스타운	
	프리스키	빅에어, 하프파이프, 스키크로스	카드로나	와나카	8.15-26
		슬로프스타일	스노우 파크	퀸스타운	
빙 상	피겨	모지스, 주니어, 시니어	더니든 아이스링크	더니든	8.11-14
	쇼트트랙	시니어, 그룹B, C, D	더니든 아이스링크	더니든	8.27-28
컬 링		남자팀, 여자팀	마니오토 킬링링크	나즈비	8.19-28
아이스하키		남자팀	더니든 아이스링크	더니든	8.17-21

표 6-39 뉴질랜드 동계 대회 세부종목별 경기장

종 목	세부종목	경기장	위 치
알파인	슬라롬, 자이언트 슬라롬	코로넛 피크	퀸스타운
크로스컨트리	5/10km 프리스타일 10/15km 클래식, 스프린트	스노우 팜	와나카
스노보드	빅에어, 하프파이프, 스노우보드크로스	카드로나	와나카
	슬로프스타일	스노우 파크	퀸스타운
프리스키	빅에어, 하프파이프, 스키크로스	카드로나	와나카
	슬로프스키	스노우 파크	퀸스타운

표 6-40 각 세부경기장의 이동거리

경기장 장소	코로넛피크	카드로나	스노우팜	스노우파크
퀸스타운	18km 25min	58km 60min	57km 1:10hr	55km 60min
와나카	86km 1:15hr	34km 35min	33km 45min	35km 35min
아로우타운		37km 45min		

나. 한국 선수단의 경기성적

뉴질랜드 남섬 남부에 위치한 퀸스타운과 와나카, 더니든, 나스비에서 개최되는 제 2회 뉴질랜드 동계대회는 경기장 중 빙상/피겨경기 장소가 국제규격이 아닌 경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각 종목에서의 경기내용이 기록경신보다는 경기력 향상과 친선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 경기성적에 주안점을 두고 경쟁을 하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가국의 종합성적도 발표를 하지 않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팀은 금 19개, 은 9개, 동 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메달 획득에 참가한 각 선수의 명단과 종목은 다음과 같다.

표 6-41 제 2회 뉴질랜드 동계대회의 한국선수단의 메달획득 현황

구분	종 목	세부종목	성별	선수명
금	빙 상	쇼트트랙 Relay	남	김태훈 외
		쇼트트랙 Relay	여	정은주 외
		쇼트트랙-시니어 500m	남	이동환
		쇼트트랙-시니어 500m	여	정은주
		쇼트트랙 -시니어 1,500m	남	서이라
		쇼트트랙 -시니어 1,500m	여	정바라
		쇼트트랙 -주니어 500m	남	박세영
		쇼트트랙 -주니어 500m	여	최지현
		쇼트트랙 -주니어 1,000m	남	박세영
		쇼트트랙 -주니어 1,000m	여	이소연
		쇼트트랙 -주니어 1,500m	남	박세영
		쇼트트랙 -주니어 1,500m	여	최지현
		쇼트트랙 -시니어 1,000m	남	김태훈
		쇼트트랙 -시니어 1,000m	여	정은주
		피겨-시니어	여	곽민정
		피겨- 주니어	남	이동원
		피겨-주니어	여	김해진
	컬 링	컬링 -남자부	남	김창민 외
		컬링-여자부	여	신미성 외
은	빙 상	쇼트트랙 -시니어 500m	남	서이라
		쇼트트랙 -시니어 500m	여	정바라
		쇼트트랙 -시니어 1,500m	남	이동환
		쇼트트랙 -시니어 1,500m	여	정은주
		쇼트트랙 -주니어 500m	여	이소연
		쇼트트랙 -주니어 1,000m	여	최지현
		쇼트트랙 -주니어 1,500m	여	이소연
		쇼트트랙 -시니어 1,000m	남	이동환
		쇼트트랙 -시니어 1,000m	여	정바라
동	빙 상	쇼트트랙 -시니어 1,500m	남	김태훈
		쇼트트랙 -시니어 1,000m	남	서이라
	스 키	크로스컨트리-여자 10km 클래식	여	남슬기

3.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세계 육상선수권대회는 1983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처음 열렸으며 3회 대회까지는 올림픽과 월드컵 대회처럼 4년마다 열리다가 4회 대회부터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2009년 베를린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2011년 제 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으며 2013년 대회는 모스크바에서, 2015년에는 베이징에서 각각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제 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까지 13회 대회 중 9차례가 유럽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유럽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캐나다, 일본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 개최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독일에 이어 월드컵, 하계 올림픽,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즉 3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됨으로써 세계적 스포츠 강국임을 입증하였다. 특히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수단을 위한 선수촌 아파트를 건립하였으며 미디어를 위한 온라인 등록시스템 운영 그리고 대회 공식주제가가 처음 제작된 대회를 개최하여 대회운영의 우수성을 과시하였다.

표 6-42 IAAF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현황

회수(년도)	개최국 (도시, 경기장)	대회기간	참가 규모	세 계 신 기 록
제1회 (1983년)	· 핀란드(헬싱키) · 올림픽스타디움	8. 7~8.14	153개국 1,365명	· 남자 4*100mR/37.86/USA · 여자 400m/47.99/크래토프필로퍼(CZE)
제2회 (1987년)	· 이탈리아(로마) · 올림픽스타디움	8.29~9. 6	159개국 1,451명	· 남자 100m/9.92/루이스(USA) · 여자 높이뛰기/2.09m/코스타니노바(BUL)
제3회 (1991년)	· 일본(도쿄) · 국립경기장	8.23~9. 1	167개국 1,517명	· 남자 100m/9.92/루이스(USA) · 남자 4*100R/37.50/USA · 남자 멀리뛰기/8.95m/M 파웰(USA)
제4회 (1993년)	· 독일(슈트가르트) · 고트리브다임무라 스타디움	8.13~8.22	187개국 1,689명	· 남자 110mH/12.91/C 잭슨(GBR) · 남자 4*400mR/2:54.29/USA · 여자 400mH/52.74/S. 가넬(RUS) · 여자 세단뛰기/15.09m/L 크라베츠(UKR)
제5회 (1995년)	· 스웨덴(예테보리) · 우레비스타디움	8. 4~8.13	191개국 1,804명	· 남자 세단뛰기/18.29m/J. 에드워드(GBR) · 여자 400mH/52.61//K. 버튼(USA) · 여자 세단뛰기/15.50m/L. 크라베츠(UKR)
제6회 (1997년)	· 그리스(아테네) · 스피리든 루이스 올림픽스타디움	8. 1~8.10	198개국 1,882명	
제7회 (1999년)	· 스페인(세비아) · 라 카르타하 올림픽 스타디움	8.20~8.29	201개국 1,821명	· 남자 400m/43.18/M. 존슨(USA)
제8회 (2001년)	· 캐나다(에드먼턴) · 커먼웰스스타디움	8. 3~8.12	189개국 1,677명	

회수(년도)	개최국 (도시, 경기장)	대회기간	참가 규모	세 계 신 기 록
제9회 (2003년)	· 프랑스(파리) · 프랑스경기장	8.23~8.31	198개국 1,679명	· 남자 20km 경보/1:17.21/J. 페레스(ECU) · 남자 50km 경보/3:36:03/R. 코제뇨프스키(POL)
제10회 (2005년)	· 핀란드(헬싱키) · 올림픽 경기장	8. 6~8.14	191개국 1,891명	· 여자 장대높이뛰기/5.01m/Y. 이신바예바(RUS) · 여자 창던지기/71.70m/O.메넨데스(CUB) · 여자 20km 경보/1:25:41/O.이바노바(RUS)
제11회 (2007년)	· 일 본(오사카) · 나가이육상경기장	8.25~9. 2	200개국 1,981명	
제12회 (2009년)	· 독일(베를린) · 올림픽아 스타디움	8.15~8.23	202개국 2,101명	· 남자 100m/9.58/U.볼트(JAM) · 남자 200m/19.19/U.볼트(JAM) · 여자 해머던지기/77.96m/L.블루다르치크(POL)
제13회 (2011년)	· 대한민국(대구) · 대구스타디움	8.27~9. 4	202개국 1,945명	· 남자 4*100mR/37.04/JAM

1) 대회 개요 및 일정 기준

대회의 공식명칭은 “IAAF세계육상선수권 대구대회”로 202개 국가에서 1945명의 선수(남자 1046명, 여자 899명)와 1817명의 임원이 47개 종목(남자 24개 종목, 여자 23개 종목)에 참가하였으며 대회 관람객은 총 446,305명으로 집계되었다.

경기일정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내 육상경기의 인기종목, 주요 종목의 결승경기를 지상과 방송의 저녁뉴스 이전에 종료되도록 편성하였으며 특히 마라톤 경기는 도심교통 혼잡도와 시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이에 따른 경기일정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47개 종목을 9일간, 14세션에 걸쳐서 편성
- 오후 세션경기는 가급적 3시간 이내로 제한
- 모든 종목의 경기는 3라운드 이내 편성
- 대회 중 1일(5일째)은 휴식일로 운영
- 모든 준결승과 결승경기는 오후 세션에 편성

2) 경기결과

IAAF세계육상선수권 대구대회에 참가한 202개 국가 중 41개 국가가 메달 획득에 참여하였다. 각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25개 메달을 획득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러시아 19개, 케냐 17개, 자메이카 9개, 독일 7개, 영국 7개, 중국 4개, 호주 3, 에티오피아 5개, 우크라이나 2개 순으로 나타났다. 메달 획득에 참여한 각 국가별 획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43 IAAF세계육상선수권 대구대회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순	국가명	금	은	동	계
1	미국(USA)	12	8	5	25
2	러시아(RUS)	9	4	6	19
3	케냐(KEN)	7	6	4	17
4	자메이카(JAM)	4	4	1	9
5	독일(GER)	3	3	1	7
6	영국(GBR)	2	4	1	7
7	중국(CHN)	1	2	1	4
8	호주(AUS)	1	1	1	3
9	에티오피아(ETH)	1	0	4	5
10	우크라이나(UKR)	1	0	1	2
11	보츠와나(BOT)	1	0	0	1
11	브라질(BRA)	1	0	0	1
11	그레나다(GRE)	1	0	0	1
11	일본(JPN)	1	0	0	1
11	뉴질랜드(NZL)	1	0	0	1
11	폴란드(POL)	1	0	0	1
17	남아프리카공화국(RSA)	0	2	2	4
18	쿠바(CUB)	0	1	3	4
18	프랑스(FRI)	0	1	3	4
20	벨라루스(BEL)	0	1	1	2
21	캐나다(CAN)	0	1	0	1
21	크로아티아(CRO)	0	1	0	1
21	체코(CZE)	0	1	0	1
21	에스토니아(EST)	0	1	0	1
21	헝가리(HUN)	0	1	0	1
21	카자흐스탄(KAZ)	0	1	0	1
21	노르웨이(NOR)	0	1	0	1
21	푸에르토리코(PUE)	0	1	0	1
21	수단(SUD)	0	1	0	1
21	튀니지(TUN)	0	1	0	1
31	콜롬비아(COL)	0	0	2	2
31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SKN)	0	0	2	2
33	바하마(BAH)	0	0	1	1
33	벨기에(BEL)	0	0	1	1
33	이란(IRA)	0	0	1	1
33	이탈리아(ITA)	0	0	1	1
33	라트비아(LAT)	0	0	1	1
33	슬로베니아(SLO)	0	0	1	1
33	스페인(ESP)	0	0	1	1
33	트리니다드토바고(TRI)	0	0	1	1
33	짐바브웨(ZIM)	0	0	1	1

4.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F1 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이벤트로 분류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다른 스포츠 종목이 1년에 한 번만 개최되는 형식과는 달리 한 나라에서 최소 7년, 최장 12년 개최되어 세계적으로 마케팅 측면에서 많은 가능성이 있는 대회이다.

경기당 평균 관람객 20만명, 전 세계 TV 시청자수 6억명 그리고 F1대회 스폰서십 약 2조원(약 300개 메이저 기업 참여)이 추산되는 현존하는 스포츠 중 가장 마케팅 규모와 상업적 가치가 큰 이 대회는 지난 2010년에 한국에서 19개국이 참가한 대회가 처음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영암에서 개최하였다. 2011년 대회 역시 19차 대회를 19개국에서 개최하였으며 한국은 16차 대회를 2011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영암에서 개최하였다.

표 6-44 2011년 F1대회 개최일정 및 대회 타이틀

순	개최국(개최지역)		대회 타이틀	개최일
1	호 주	멜버른	Australian Grand Prix	3.25~3.27
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Petronas Malaysian Grand Prix	4. 8~4.10
3	중 국	상하이	Chinese Grand Prix	4.15~4.17
4	터 키	이스탄불	Turkish Grand Prix	5. 6~5. 8
5	스페인	바르셀로나	Gran Premio de Espana Telefonica	5.20~5.22
6	모나코	몬테카를로	Grand Prix de Monaco	5.27~5.29
7	캐나다	몬트리올	Grand Prix du Canada	6.10~6.12
8	스페인	발렌시아	Telefonica Grand Prix of Europe	6.24~6.26
9	영 국	실버스톤	Santander British Grand Prix	7. 8~7.10
10	독 일	호켄하임	Groß er Preis Santander von Deutschland	7.22~7.24
11	헝가리	부다페스트	Magyar Nagydij	7.29~7.31
12	벨기에	스파	Belgian Grand Prix	8.26~8.28
13	이탈리아	몬자	Grand Premio Santander d'Italia	9. 9~9.11
14	싱가포르	싱가포르	Singtel Singapore Grand Prix	9.23~9.25
15	일 본	스즈카	Fuji Television Japanese Grand Prix	10. 7~10. 9
16	대한민국	영암	Korean Grand Prix	10.14~10.16
17	인 도	뉴델리	Indian Grand Prix	10.28~10.30
18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야스)	Etihad Airways Abu Dhabi Grand Prix	11.11~11.13
19	브라질	상파울로	Grande Premio Petrobras do Brasil	11.25~11.27

1) 2011 F1 참가팀

2011년 F1대회에 참가한 팀은 12개 팀으로 12명의 컨스트럭터와 24명의 드라이버가 경기에 참가하였다. 이들 참가팀 드라이버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14개 국가로서 독일이 6명으로 가장 많으며 영국 3명,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가 각각 2명이며 나머지 국가는 각 1명씩의 드라이버가 팀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표 6-45 2011년 F1대회 참가팀

순	팀		드라이버(출신국)
	팀 명	컨스트럭터	
1	Red Bull Racing	레드불	세바스찬 베델(독일)
			마크 웨버(호주)
2	Vodafone McLaren-Mercedes	맥라렌	루이스 해밀톤(영국)
			젠슨 버튼(영국)
3	Scuderia Ferrari Marlboro	페라리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
			펠리페 마사(브라질)
4	Mercedes GP Petronas F1 Team	메르세데스	미하엘 슈마허(독일)
			니코 로즈베르그(독일)
5	Lotos Renault GP	르노	닉하이트펠드(독일)
			비탈리 페트로브(러시아)
6	AT&T Williams	윌리엄스	루벤스 베르첼로(브라질)
			파스토 말도나도(베네추엘라)
7	Force India F1 Team	포스인디아	아드라안 수틸(독일)
			폴디 페스타(영국)
8	Sauber F1 Team	자우버	카미 고바야시(일본)
			세르지오 페레즈(멕시코)
9	Scuderia Toro Rosso	토로 로소	세바스찬 부에미(스위스)
			하이메 알퀘수아리(스페인)
10	Team Lotus	로터스	야노 투투리(이탈리아)
			헤키 코발라이넨(핀란드)
11	Hispania Racing F1 Team(HRT)	에이치알티	나레인 카디키안(인도)
			비탄토니오 라우치(이탈리아)
12	Maussia Virgin Racing	버진	티모 글로크(독일)
			제롬 댐보로시오(벨기에)

2)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2011년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대회명칭이 “FIA 포뮬러원(Formula 1) 코리아 그랑프리”로 2011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영암군(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최되었다. 서킷 길이 5.6km, 55랩, 총거리 308km로 경주대회인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12개팀과 대회 관계자 2,000여명 그리고 관람객 16만명이 참가하였다. 이 대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46 2011년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결과

순위	드라이버(출신국)	컨스트럭터(team)	Grid	Record	Pts
1	세바스찬 베텔(독일)	RBR-Renault(레드불)	2	1:38:01.994	24
2	루이스 해밀톤(영국)	McLaren-Mercedes(맥라렌)	1	+12.0 secs	18
3	마크 웨버(호주)	RBR-Renault(레드불)	4	+12.4 secs	15
4	젠슨 버튼(영국)	McLaren-Mercedes(맥라렌)	3	+14.6 secs	12
5	페르난도 알폰소(스페인)	Ferrari(페라리)	6	+15.6 secs	10
6	펠리페 마사(브라질)	Ferrari(페라리)	5	+25.1 secs	8
7	하이메 알퀴수아리(스페인)	STR-Ferrari(토로 로소)	11	+49.5 secs	6
8	니코 로즈베르그(독일)	Mercedes GP(메르세데스)	7	+54.0 secs	4
9	세바스티앙 부에미(스위스)	STR-Ferrari(토로 로소)	13	+62.7 secs	2
10	폴 디 레스타(영국)	Force India-Mercedes(포스 인디아)	9	+68.6 secs	1

5.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파견

국가 간 체육교류증진을 위해 실시된 2011년도 종목별 국제경기대회(대한체육회 가맹 및 등록단체 종목 대회) 개최 및 파견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 국제대회개최 지원

2011년도 대한체육회 가맹 및 등록단체의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대회는 총 28건으로, 세계선수권대회 1건, 올림픽 제패기념대회 3건 그리고 기타 국제대회 24건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세계선수권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종목간 국가 교류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 및 기술 향상을 도모하며, 국제대회를 국내에 개최함으로써 해당 종목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에 지원된 집행액은 총 2,162,000,000 원이며, 구체적 내용은 (표 6-47, 48, 49)과 같다.

표 6-47 2011년도 국내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 대회 지원사업

연번	대 회 명	대회기간	장소	참가 규모
1	2011 세계정구선수권대회	10.27~11. 1	문경	35개국 400명

표 6-48 2011년도 올림픽제패기념 지원사업

연번	대 회 명	대회기간	장소	참가 규모
1	2011 국제 그랑프리 펜싱선수권대회	5.20~5.22	서울	20개국 240명
2	2011 코리아오픈배드민턴슈퍼시리즈	1.25~1.30	서울	25개국 350명
3	2011 ISSF 월드컵 사격대회	4. 8~4.14	창원	58개국 700명

표 6-49 2011년도 국내에서 개최된 종목별 국제대회 지원사업(24건)

연번	대 회 명	대회기간	장소	참가 규모
1	2011 코리아유도월드컵대회	12. 2~12. 3	제주	30개국 300명
2	아시안컵 산악스키대회	2.19~2.20	강원	3개국 300명
3	KRA컵 CSI서울 2011(승마)	4.14~4.18	과천	12개국 120명
4	2011 수원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8.29~9. 4	수원	15개국 128명
5	아시안게임제패기념 국제세탁타크로대회	4.21~4.27	고양	3개국 100명
6	IDSF 그램드스램 Standard/IDSF International Open Latin & Standard	4.20~5. 1	서울	25개국 900명
7	통영 ISU 트라이애슬론 선수권시리즈대회	10.13~10.16	통영	30개국 1000명
8	HSBC 아시아 5개국 디비전	5.31~6. 5	안산	4개국 120명

연번	대 회 명	대회기간	장소	참가 규모
9	제7회 코리아오픈 국제공수도선수권대회	6.22~6.27	부산	18개국 600명
10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6.29~7. 3	인천	18개국 150명
11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1-2012	9.17~12.31	고양, 안양, 춘천	3개국 210명
12	2011 그랑프리세계여자배구대회	8. 3~8. 7	부산	4개국 90명
13	한국아시아 14세 주니어시리즈테니스대회	8.27~9. 2	문경	6개국 100명
14	2011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10.13~10.17	강원	20개국 400명
15	런던 올림픽 아시아남자예선대회(핸드볼)	10.23~11. 2	서울	11개국 300명
16	2011 아시아복싱선수권대회	8. 3~8.12	인천	22개국 400명
17	2011 서귀포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10.30~11. 6	제주	17개국 150명
18	코리아골드그랑프리대회	12. 6~12.11	화순	25개국 350명
19	제6회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10.20~10.25	포항	69개국 90명
20	2011 FIS 스키점프대회	1.12~1.13	평창	10개국 200명
21	2011 FIS 스노보드월드컵	2. 7~2. 9	용평	19개국 500명
22	세계인라인롤러선수권대회	8. 29~9. 5	전주	50개국 700명
23	강릉 ISU세계주니어피겨스케이팅대회	2.28~3. 6	강릉	50개국 600명
24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5. 1~5. 6	경주	120개국 1000명

2)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및 국제대회 파견

2011년도에는 종목별 세계선수권 및 국제대회 참가 확대를 통한 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선진 기술 습득과 국가간 우의증진을 목적으로 총 51건의 종목별 세계선수권 및 국제대회에 대표 팀을 파견하였다.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에 따른 688,119,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종목별 파견내용은 (표 6-50)과 같다.

표 6-50 2011년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및 국제대회 파견

번호	종목	구분	대회명	기 간	개최지
1	컬링	기타	아시아태평양컬링선수권대회	1. 9~1.15	뉴질랜드, 오타고
2	볼링	아시아	제21회 아시아볼링선수권대회	1.14~1.24	UAE
3	사이클	기타	월드컵 3차대회	1.17~1.24	중국, 북경
4	테니스	세계	세계여자테니스선수권대회	1.31~2. 6	태국
5	스키	세계	FIS 세계선수권대회	2.25~3. 5	노르웨이, 오슬로
6	산악	기타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퍼연십	2. 3~2. 7	루마니아
7	바이애슬론	세계	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	3. 1~3.13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8	빙상	세계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3.11~3.20	영국, 런던
9	요트	기타	요트선수권대회	4.16~4.28	네덜란드, 로테르담
10	아이스하키	세계	세계선수권 디비전 2	4.17~4.23	헝가리, 부다페스트
11	승마	기타	CDI3 시드니 승마선수권대회	4.25~5. 1	호주, 시드니

번호	종목	구분	대회명	기 간	개최지
12	탁구	세계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개인전)	5. 8~5.15	네덜란드, 로테르담
13	바둑	세계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5.26~6. 3	일본
14	스쿼시	아시아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6.21~6.25	요르단
15	하키	기타	제19회 챔피언스트로피 국제여자하키대회	6.25~7. 3	네덜란드, 로테르담
16	농구	세계	제10회 FIBA세계남자농구선수권대회	6.30~7.10	라트비아
17	양궁	세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7. 3~7. 7	이탈리아
18	인라인롤러	세계	세계인라인하키선수권대회	7.10~7.16	이탈리아
19	당구	세계	세계3쿠션 선수권대회	7.11~7.17	페루
20	수영	세계	제14회 FINA 세계선수권대회	7.16~7.31	중국, 상해
21	수영	세계	제16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7.28~8. 4	헝가리
22	골프	기타	아시아태평양아마추어선수권대회	8. 6~8.19	피지
23	배드민턴	세계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개인전)	8. 4~8.14	영국, 런던
24	정구	기타	헝가리안컵 국제정구대회	8.18~8.24	헝가리
25	배구	아시아	제16회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대회	9.13~9.24	대만, 타이페이
26	야구	아시아	2011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8.20~9. 2	일본
27	세팍타크로	세계	2011 세계 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	8.22~8.28	태국
28	유도	세계	2011 세계유도선수권대회	8.23~8.26	프랑스, 파리
29	조정	세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8.24~9. 4	슬로베니아, 루블리나
30	공수도	기타	제10회 아시아공수도선수권대회	8.31~9. 5	중국
31	근대5종	세계	2011 세계시니어선수권대회	9. 6~9.14	이집트
32	트라이애슬론	아시아	대만아시아선수권대회	9. 7~9.12	대만, 남두
33	레슬링	세계	세계시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	9.12~9.18	터키
34	복싱	세계	세계복싱선수권대회	9.16~10. 1	아제르바이잔, 바쿠
35	체조	세계	제31회 세계리듬체조선수권대회	9.19~9.26	프랑스, 파리
36	댄스	아시아	ISDF 아시아챔피언스탠다드 & 라틴	9.24~9.25	중국, 베이징
37	소프트볼	아시아	아시아소프트볼선수권대회	9.20~9.28	대만, 남두
38	우슈	세계	세계우슈선수권대회	10.6~10.15	터키
39	하키	아시아	제3회 18세이하 아시아여자하키선수권대회	9.18~9.26	태국
40	수상스키	아시아	아시아수상스키웨이크보드선수권대회	10. 5~10. 9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41	축구	기타	AFC U-19 여자축구선수권대회	10. 5~10.1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42	펜싱	세계	세계펜싱선수권대회	10.5~10.18	호주, 시드니
43	카누	아시아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10.13~10.17	이탈리아, 카타니아
44	력비	아시아	아시아세븐시리즈 7인제 력비대회	9.24~9.25	이란, 테헤란
45	역도	세계	세계 남·여역도선수권대회	11.11~11.2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46	보디빌딩	세계	제65회 세계남자보디빌딩선수권대회	11. 3~11. 7	프랑스, 파리
47	핸드볼	세계	제20회 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12. 3~12.18	브라질
48	루지	아시아	2011 루지아시아컵대회	12. 6~12.20	인도
49	봅슬레이	세계	아메리카스컵선수권대회	10.29~12.17	태국
50	빙상	기타	러시아스피드스케이팅월드컵	11.18~11.20	러시아
51	컬링	기타	아시아태평양컬링선수권대회	11.18~11.26	중국, 난징

6. 국제 체육교류 지원

2011년도의 국제 체육교류 지원 사업으로는 국제 친선 및 교류 사업으로서 국가간 친선경기 대회 개최(29건), 개도국 활동지원(16건), 체육교류 후속지원사업(14건), 태권도시범단 파견(2건) 등 61건이 추진되었고, 국제기구 및 연맹 교류사업으로서 국제기구 파견·초청사업 및 올림픽 픽운동증진사업(27건), 국제연맹총회 참가지원사업(52건), KOC 올림픽 아카데미 정규과정(1건) 등으로 80건의 사업이 수행되었다.

1) 국제 친선 및 교류사업

가. 국가간 친선경기대회 초청 및 파견사업

2011년에 국가간 친선경기대회 초청 및 파견사업으로 추진된 대회는 (표 6-51)와 같으며 총 33개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국가간 친선경기사업에 편성된 169,738,000원이 집행되었다.

표 6-51 2011년도 국가간 친선경기대회 초청 및 파견사업(33건)

번호	종목	구분	대회명	기 간	개최지
1	스키	초청	2011 유럽 북미국가 초청스키스포츠 교류	2. 5~2.10	강원도
2	바둑	파견	바둑 Go goowill 토너먼트	2. 6~2.10	태국 치앙마이
3	정구	파견	제24회 다까마스컵 고교정구 친선대회	2.10~2.15	일본 다까마스
4	세팍타크로	파견	한·중 세팍친선교환경기대회	6.10~6.16	중국, 진안도
5	스쿼시	초청	한·홍 스쿼시정기교류전	5.17~5.21	한국
6	레슬링	초청	한·키르기지스탄 친선레슬링경기대회	7.12~7.26	키르기지스탄
7	핸드볼	파견	한·일본여핸드볼정기교류전	4.23~4.25	서울
8	배드민턴	초청	한·일배드민턴교류전	8.17~8.21	한국
9	수상스키	파견	한중일수상스키친선교환경기	8.18~8.22	중국, 북경
10	보디빌딩	초청	한·일친선보디빌딩경기대회	6.22~6.29	한국, 서울
11	골프	파견	제12회 네이버스컵 3개국 친선골프대회	6.14~6.16	대만, 타이페이
12	조정	파견	한·중친선교류조정경기대회	6.17~6.19	중국, 광저우
13	소프트볼	초청	한·중소프트볼교류	7.25~8. 3	한국
14	하키	파견	한·프랑스 하키친선대회	7.22~8. 2	프랑스, 파리
15	야구	파견	칼라켄 월드시리즈	8.13~8.21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16	사격	파견	박종규안자이미노루배 2011 한·일친선사격경기대회	9.12	일본, 구마모토
17	아이스하키	파견	한·일 여자아이스하키친선경기대회	8.8~9.13	일본, 삿포르
18	트라이애슬론	초청	한·일 트라이애슬론교류전	8.26~8.29	한국, 인천
19	펜싱	파견	한·중 친선펜싱경기대회	10.25~11.2	중국, 운남성

번호	종목	구분	대회명	기 간	개최지
20	요트	파견	한중일 친선킬보트요트대회	9. 1~9. 6	중국, 리자오
21	유도	파견	몽골월드컵친선유도대회	9.10~9.11	몽골, 울란바토르
22	역도	파견	한중일 친선역도대회	9.15~9.20	일본, 삿포르
23	당구	파견	APBU 친선당구경기대회	10월 중	대만, 타이페이
24	산악	파견	한중일 친선구조경기대회	11월 중	일본
25	배구	초청	2011 월드리그국제남자배구대회	5.28~6.19	수원, 인천, 광주
26	사이클	초청	한·일 국가대항사이클대회	10.31~11. 6	한국, 전남
27	빙상	파견	한·일 친선고교빙상경기대회	12. 1~12.5	일본, 오비히로
28	공수도	초청	국제초청친선공수도대회	12. 8~12.12	부산
29	인라인	파견	한·대만 인라인친선경기대회	11월 중	대만, 타이페이
30	승마	초청	한중일 승마친선대회	10.26~10.30	한국, 과천
31	카누	파견	한·호 친선카누대회	12월 중	호주
32	카바디	초청	한·일 정기교류전	11.11~11.14	한국, 부산
33	스키	파견	스노보드 월드컵대회	10.24~11. 5	스위스

나. 개도국 활동지원 사업

2011년에 수행된 국제체육교류 사업 중 개도국 활동지원 사업은 총 9건이 수행되었으며 1억 7천만원이 집행되었다. 이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표 6-52)과 같다.

표 6-52 2011년도 개도국 활동지원사업

연번	사업명	종목	구분	기간	지원국
1	태권도사범파견 및 용품지원	태권도	지도자(용품)	4. 5~12.31	요르단
2	축구지도자파견 및 용품지원	축구	지도자(용품)	1. 1~6.31	캄보디아
3	축구 용품 및 축구공지원	축구	용품지원	8. 1~10.1	토고
4	태권도 용품지원	태권도, 복싱	용품지원	10.1~12.31	잠비아
5	지도자파견 및 용품지원	양궁	지도자(용품)	10.1~12.31	인도네시아
6	태권도 사범 파견 및 용품지원	태권도	지도자	12.5~12.31	나이지리아
7	태권도 사범 파견 및 용품지원	태권도	지도자	11.5~12.31	베네수엘라/페루
8	농구 용품지원	농구	용품지원	12월중	부탄
9	개도국 용품지원	태권도, 정구	용품지원	12월중	베트남 외

다. 체육교류 후속지원 사업

이와 함께 2011년에 수행된 국가간 체육교류 후속지원 사업으로 총 8건이 수행되었다. 이들 사업은 1억 9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표 6-53)과 같다.

표 6-53 국가간 체육교류 후속지원사업

연번	사업명	종목명	구분	기간	지원국
1	태권도사범파견 및 용품지원	태권도	지도자(용품)	9. 8~12.31	이집트
2	피지 지도자 파견	배구	지도자	8.11~10.11	피지
3	용품지원 및 단기 지도자 파견	빙상	용품지원	10~12월	뉴질랜드
4	코치파견 및 용품지원	농구	지도자	7. 1~12.31	부탄
5	사범파견 및 용품지원	태권도	지도자	11.30~12.31	호주
6	우크라이나 합동훈련	아이스하키	파견	12. 7~12.18	우크라이나
7	대회파견 및 용품지원	철인3종	파견	11.23~11.28	남아공 외
8	용품지원	배드민턴	용품지원	12. 6~12.31	중국 외

2) 국제스포츠기구 교류사업

가. 국제스포츠기구 파견 사업

2011년도에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강화, 선진체육행정 체험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국제연맹(IF)와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인 국제스포츠기구에 파견한 사업은 국제스포츠기구 파견 7건, 국제스포츠인재 국제회의파견 3건으로 총 2억5천 예산중 249,095,000원이 집행되었다.

표 6-54 2011년도 국제스포츠기구 파견사업(7건)

연번	기구명	기 간	장 소	파견자
1	국제보슬레이연맹(FIBT)	4.17~7.16(3개월)	스위스, 로잔	유윤지
2	국제사이클연맹(UCI)	5.28~12. 3.27(10개월)	스위스, 앵글르	윤희태
3	싱가폴요트협회(SSF)	6.28~12.27(6개월)	싱가폴	방은준
4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LOCOG)	9. 7~12. 9. 6(1년)	영국, 런던	김세화
5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ITU)	9. 8~12. 3.27(6개월)	캐나다, 밴쿠버	이경언
6	국제바이애슬론연맹(IBU)	10. 2~12. 4.1(6개월)	오스트리아, 찰즈부르크	김태미
7	미국올림픽위원회	10. 4~12.10. 3(1년)	미국, 콜로라도	김두일

나. 국제 스포츠인재 국제회의 파견 사업

국제 스포츠계 흐름과 정보 파악 및 국제 스포츠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 스포츠인재 회의에 파견한 사업은 3건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표 6-55 2011년도 국제스포츠인재 회의 파견사업(3건)

연번	회의명	기 간	장 소	파견자
1	제3회 IOA 올림픽 메달리스트 연수회	6.21~6.27	그리스, 올림피아	최민경
2	제51차 IOA 정기연수회	6.25~7.10	그리스, 올림피아	김현지
3	제14회 IOC 생활체육총회	9.20~9.24	중국, 베이징	김성환, 김종철

다. 국제 체육교류 지원 및 국제회의파견 사업

국제 스포츠계 흐름과 정보파악 그리고 국제스포츠계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기구파견 및 올림픽 운동 증진사업이 24건, 국제연맹 총회 초청 및 파견 사업이 54건이 이루어졌으며 3억 사업예산 중 298,113,000원이 집행되었다.

표 6-56 2011년도 국제기구 파견 · 초청 및 올림픽운동 증진사업(24건)

연번	회의명	기 간	장 소
1	FISU 학술분과위원회	1.23~1.28	터키
2	동계U대회 국제체육교류활동	1.24~1.29	터키
3	CISA 회의	3.15~3.20	모로코
4	제2차 OCA 조정위원회	4.12	인천
5	IOA 올림픽 학술회의	4.29~6.28	그리스
6	제9차 스포츠와 환경 컨퍼런스	4.28~5. 3	카타르
7	IOC 국제관계위원회	5. 9	스위스
8	스포츠, 평화, 개발 포럼	5.10~5.11	스위스
9	IOA 임직원연수회	5.11~5.18	그리스
10	2011 AUSF 집행위원회	5.21~5.25	카자흐스탄
11	IOA 정기연수회	6.25~7. 9	그리스
12	OCA 총회	7.11~7.17	일본
13	FISU 집행위원회 및 총회	8. 6~8.12	중국
14	제18차 IOA 대학원생 세미나	9. 2~9.30	그리스
15	IOC 세계생활체육컨퍼런스	9.21~9.22	중국
16	OCA 지역포럼	10.20~10.23	태국
17	AUSF 집행위원회	5.20~5.25	카자흐스탄
18	IOC 불법스포츠도박근절세미나	11.16	스위스
19	EAGA 총회	9. 7~9. 9	중국
20	IOC MEMOS(스포츠행정아카데미) 2차	1.16~11.23	케냐
21	IOC MEMOS(스포츠행정아카데미) 3차	4.17~4.24	프랑스
22	IOC MEMOS(스포츠행정아카데미) 4차	9.13~9.19	스위스
23	OCA 집행위원회	10.16	투르크메니스탄
24	RIOU 국제관계세미나	11.14~11.23	러시아

표 6-57 국제연맹총회 초청 및 파견 사업(54건)

연번	종 목	사업명	기 간	장 소
1	볼링	아시아볼링연맹총회	1.15	UAE, 아부다비
2	하키	아시아하키연맹총회	1.16	말레이시아, 쿠아라룸프
3	스쿼시	아시아스쿼시연맹총회	1.25~1.30	스리랑카, 콜롬보
4	바이애슬론	세계바이애슬론연맹총회	2. 1~2. 3	카자흐스탄, 알마티
5	역도	아시아역도연맹총회	3. 8~3.12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6	빙상	아시아빙상연맹총회	3.10~3.14	대만, 타이페이
7	컬링	국제컬링연맹총회	3.18~3.27	덴마크
8	복싱	아시아복싱연맹총회	4. 8~4. 9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9	유도	아시아유도연맹총회	4.20	쿠웨이트
10	수중	34차 수중연맹총회	5.19~5.21	이탈리아, 로마
11	핸드볼	제33회 국제핸드볼연맹총회	5. 2~5. 5	모로코, 메라캐쉬
12	탁구	국제탁구연맹총회	5.10	네덜란드, 로테르담
13	레슬링	2011아시아연맹총회	5.17~5.23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14	체조	제10차 FIG 평의원총회	5.21~5.22	미국, 세너제이
15	배드민턴	세계배드민턴연맹총회	5.28	중국, 칭타오
16	스키	FIS 카렌다회의	5.31~6. 7	슬로베니아
17	축구	국제연맹총회	5.31~6. 1	스위스
18	댄스스포츠	2011 국제연맹총회	6.17~6.19	룩셈부르크
19	럭비	아시아럭비연맹집행위원회	11.26~11.27	라오스
20	양궁	2011 국제연맹총회	7. 1~7. 2	이탈리아, 토리노
21	봅슬레이	국제연맹총회	7. 9~7.18	한국, 평창
22	수영	2011 국제수영연맹총회	7.21	중국, 상해
23	오리엔티어링	세계연맹총회	8.14~8.21	프랑스, 챔버리
24	골프	아시아퍼시픽골프연맹총회	8.15	피지
25	세팍타크로	국제세팍타크로연맹총회	8.22~8.24	태국, 방콕
26	공수도	아시아공수도연맹총회	7.16~7.19	중국, 광저우
27	우슈	국제연맹총회	8.17	중국
28	조정	국제조정연맹총회	9. 5	슬로베니아, 브레드
29	트라이애슬론	국제연맹총회	9. 8	중국, 베이징
30	사이클	180회 세계사이클연맹총회	9.18	덴마크, 코펜하겐
31	테니스	국제테니스연맹총회	9.21~9.23	태국, 방콕
32	아이스하키	국제아이스하키연맹정기총회	9.21~9.25	터기, 이스탄불
33	배구	19차 아시아배구연맹총회	9.21~9.25	이란, 테헤란
34	트라이애슬론	아시아트라이애슬론연맹총회	9.23	대만, 타이페이
35	산악	국제산악연맹총회	10. 5~10. 8	네팔, 카트만두
36	수상스키	2011 아시아연맹총회	10. 5~10. 9	말레이시아, 포트리자야
37	카누	아시아카누연맹총회	10.13~10.17	이란, 테헤란
38	소프트볼	제25차 소프트볼연맹총회	10.26~10.31	미국, 플로리다
39	요트	세계요트연맹총회	11. 3~11.13	프에르토리코

연번	종 목	사업명	기 간	장 소
40	근대5종	국제근대5종연맹총회	11.11~11.13	프랑스, 니스
41	역도	국제역도연맹총회	11. 5~11.11	프랑스, 파리
42	승마	2011국제승마협회정기총회	11.14~11.19	유럽
43	보디빌딩	제65차 세계연맹총회	11. 6	인도, 뭄바이
44	펜싱	국제펜싱연맹총회	12. 1~12. 6	브라질
45	당구	세계빌리어드스누커연맹총회	12. 1	이집트
46	댄스스포츠	아시아연맹총회	10. 1	대만, 타이베이
47	승마	아시아승마협회 정기총회	11.11~11.14	브라질
48	볼링	세계볼링연맹총회	9.12~9.14	홍콩
49	배드민턴	아시아배드민턴연맹임시총회	9.24	일본, 시마네
50	양궁	아시아양궁연맹총회	10.17~10.25	이란, 테헤란
51	야구	국제야구연맹총회	12. 1~12. 4	미국
52	컬링	국제컬링연맹총회	12. 2~12.10	러시아
53	스키	국제스키연맹총회	10. 5~10. 9	스위스
54	정구	국제정구연맹총회	10.25~10.28	문경

라. 바둑 종주국화 사업

국내 바둑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주 및 유럽지역 내 지도자를 파견하고 바둑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20,000,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58 바둑의 종주국화 사업

사 업 명	세부 실적
온라인 바둑강좌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3,000문항제작 • 강좌 3,000문항 제작 • 동영상 50강좌 제작 • 모바일 서비스 구축(애플리케이션 제작 및 구축) • 인공지능 대국실 개발 • 강좌 DB 및 커리큘럼 구축 • 서비스개발용 장비 구입 • 웹사이트 유지관리
해외 참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콩그레스(7월) 참관 • 미국 콩그레스(7월) 참관 • 기타 외국바둑대회 및 바둑캠프 참관
바둑용품 해외보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둑용품 해외보급(11개국)
국제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이사파견(10명) : 미국 외 7개국 • 국제바둑지도자 파견(10명) : 스페인 9개국

A large red abstract graphic element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featuring a white arrow-like shape pointing right, which contains the text 'Section 07' and '장애인체육'.

Section

07

장애인체육

- 제1절 개 관
- 제2절 장애인체육 조직 및 재정
- 제3절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Section

07

장애인체육



제1절 개 관

장애인체육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상처로 인한 전상자들의 재활과정에서 체육활동의 접목을 통한 장애인스포츠 활동과 교육의 수단으로서 특수교육 교과목의 하나로 시작된 체육교육이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은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와 1989년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라는 장애인체육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결성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장애인체육은 일반체육에 비교하였을 때 전문적인 체육 행정 시스템이 아닌 장애인복지차원에서 행정 시스템이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국민체육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였다. 이에 국민체육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논의가 학계와 장애인선수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한 법·제도적 기반구축이 이루어졌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시·도장애인체육회 등의 장애인체육 전문 행정조직 설립을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국민체육의 동일 수준 영역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2005년 7월)과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년 4월)과 동법 시행령의 시행(2008년 4월) 등 법적 뒷받침과 문화체육관광부 내 장애인체육과 설치(2005년 12월)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2005년 11월)과 같은 조직 기반이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체육의 본질인 건강 유지와 삶의 질 제고라는 가치가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구조는 일반체육과 동일하게 생활체육, 전문체육(국제체육 포함), 학교체육의 구분을 가지지만, 이에 더하여 재활체육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체육에서는 연령별·성별 스포츠 경험(스포츠로의 사회화)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체육에서는 연

령과 성별 외 장애유형별 스포츠 경험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종목별 지원을 통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표 7-1 참조). 이는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의 한계, 정책 및 사업지원의 중복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향후 조직 개편 및 관련 사업의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로의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타자(준거집단)인 가족, 친구(동료),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와 더불어 병원 및 복지관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표 7-1 체육구조별 정부 및 민간조직

체육구조	장애인체육	일반체육
생활체육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국민생활체육회
전문체육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학교체육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재활체육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없음

2011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체육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이래 6년차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도지부, 가맹경기단체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포함)과 전문체육(국제교류 포함)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장애청소년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전통종목 육성,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축제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체육인재육성재단 지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등 기존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장애인생활체육의 지속 성장과 안정을 꾀하였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국내대회 지원을 통해 가맹단체별 전국규모의 국내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경기력 향상을 꾀하였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국내 등급분류사 및 심판 경기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제전문체육 교류 지원을 통해 해외우수지도자 및 국제심판 초청 강습 등 국제 전문인력 양성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09년 개관한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종목별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한 결과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성적 거양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장애인국가대표선수 훈련지원의 메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 및 지방체육업무편람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 체육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절 장애인체육 조직 및 재정

1. 국내 장애인체육 조직 변천과정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의 역사는 국제장애인스포츠 역사와 마찬가지로 전쟁과의 관련이 깊다. 즉, 1950년 한국전쟁, 1960년대 월남전에 참전한 상이용사들에게 재활수단으로서의 체육활동이 시초가 되었고, 특수학교에서 교과목 또는 운동부 창설, 대회 개최 및 참가 등과 함께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활수단으로 시작한 장애인체육으로 인하여 초기에는 치료나 재활측면에서의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부족, 정부 지원의 취약 등으로 장애인체육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체육관련 업무와 사업 비전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현재 재활체육 영역을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가 담당하는 비합리적 구조를 정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정부는 장애인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장애인체육업무를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하여 2005년 7월 29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공포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내에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여 장애인체육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 일부 시·도에 장애인체육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기초 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전담 부서 및 공무원이 없거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민간조직 분야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2005년 11월) 이후로 장애인생활체육과 전문부서를 총괄하여 추진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16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설립 완료(2008년 2월) 후 최근에는 시도별로 원활한 장애인체육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군·구 지부를 일부 승인(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7-2 국내 장애인체육 발전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이전 (1960~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스포츠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원호청 창설(1961) • 국제척수장애인경기대회 참가(1965~) • 제1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개최(1967) - 특수학교 체육활동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학생 야구 및 유도, 탁구대회(1960~70년대) • 서울농학교 배구부 창단 (1962) - 국내 장애인체육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건립(1975) • 전국지체부자유 대학생연합체육대회 개최(1978)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1981~) • 국제뇌성마비경기대회(육상) 참가(1982)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이후 (1988~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 장애인체육 조직 창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개편(1999) ⇒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개편(2008) - 학문적 토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특수체육학회 창립(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창간(1993)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순회 개최 시작(2000년 인천) •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시작(2003)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이관 이후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05. 7) • 대한장애인체육회(2005.11) 및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2006. 5)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시도지부 설립 완료(2008. 2) -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체육과(현 장애인문화체육과) 신설(2005.12) -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및 발표(2007. 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명문화, 동법 시행령 제정(2008. 4)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부활(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2008. 10)

2. 대한장애인체육회

1) 설립배경 및 목적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 분야의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설립(2005년 11월 25일)된 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임무가 있다(표 7-3).

표 7-3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주요 임무(기능)

구분	내용
주요 임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 국내·외 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 개최참가와 국제스포츠교류 • 장애인 선수 양성,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 장애인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장애인 선수·체육지도자·유공자의 복지향상 • 장애인 체육시설·경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조직 및 인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 사무총장 1인, 이사 17인, 감사 2인 등 총 2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이사 3인 결원 제외), 사무처는 감사실을 포함한 1원 1실 8부(이천 훈련원 포함)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그림 7-1 참조).

3) 시·도지부 운영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정관 제54조에 근거하여 전국의 균형 있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 또는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는 16개 시·도지부 설립을 완료(표 7-4 참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 각 가맹단체와 각급 장애인체육회의 육성 및 지도 감독
-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장애인체육 생활화 사업 전개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훈련 및 참가
-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
-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육성
-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체육의 육성
- 장애인체육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등

그러나 각 시도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처를 구성하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팀과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팀으로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통일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운영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건에 따라 승인(2011년 12월 현재 29개 지부, 표 7-4 참조) 및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향후 시·군·구 장애인체육지회의 설립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해 연계성의 원칙, 자율성 확보의 원칙, 지방화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설립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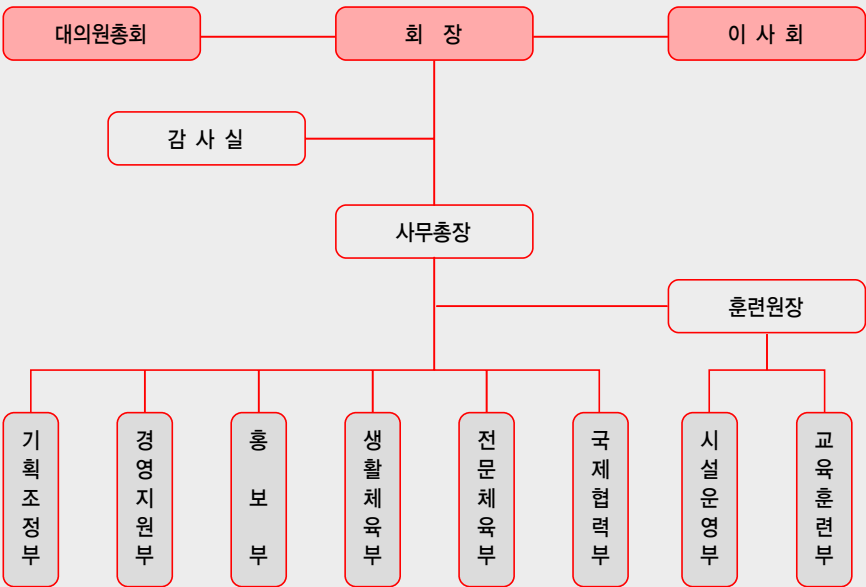


그림 7-1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직도('11. 12월 기준)

표 7-4 시도장애인체육회 현황('12. 4월 기준)

연번	지부승인	단 체 명	소 재 지	설립일	시군구 지부
1	06.09.27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06.07.27	-
2	06.12.29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 창원시	06.07.18	-
3	06.12.29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수원시	06.11.20	구리시, 부천시, 시흥시, 이천시, 양주시, 김포시, 평택시, 용인시, 의정부시
4	06.12.29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충청북도 청주시	06.12.18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보은군
5	06.12.29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전라북도 전주시	06.12.26	남원시, 정읍시
6	07.04.05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대전광역시 중구	07.01.17	서산시, 공주시, 홍성군, 연기군, 보령시
7	07.04.0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7.02.14	-
8	07.04.05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07.03.30	노원구
9	07.05.03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 경산시	07.04.10	포항시
10	07.05.22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06.12.07	-
11	07.05.22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전광역시 서구	07.05.04	서구
12	07.06.07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 동구	07.04.11	-
13	07.08.27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강원도 춘천시	07.05.30	속초시, 양양군
14	07.08.27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광주광역시 서구	07.07.18	-
15	07.12.28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전라남도 목포시	07.11.02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16	08.02.01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울산광역시 중구	08.01.17	-

3. 가맹경기단체 및 등록선수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는 종목별 경기단체 27개, 유형별 체육단체 4개로 총 31개이며, 별도의 인정단체 10개를 포함할 경우 총 41개이다. 각 가맹경기단체는 각각의 시도지부(총 377개 지부)를 두어 활동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7-5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12. 5월 현재)

구 분	가맹경기단체명	창립일	가맹일	시도지부	비고
1	대한장애인축구협회	2007. 07. 16	20008. 03. 14	8	종목별 경기단체
2	대한장애인골볼협회	2006. 02. 03	2006. 04. 27	12	
3	대한장애인농구협회	1997. 04. 25	2006. 04. 27	9	
4	대한장애인력비협회	2006. 04. 27	2006. 04. 27	12	
5	대한장애인론볼연맹	2006. 04. 27	2006. 04. 27	16	
6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2000. 02. 15	2003. 04. 03	16	
7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2006. 03. 18	2006. 04. 27	13	
8	대한장애인볼링협회	2002. 12. 12	2006. 04. 27	15	
9	대한장애인사격연맹	1997. 04. 15	2006. 04. 27	12	
10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1993. 07. 10	2006. 04. 27	11	
11	대한장애인수영연맹	2003. 03. 22	2006. 04. 27	9	
12	대한장애인스키협회	2001. 10. 20	2001. 12. 27	4	
13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2003. 02. 21	2006. 04. 27	4	
14	대한장애인양궁협회	2004. 04. 04	2007. 01. __	10	
15	대한장애인역도연맹	1995. 03. 20	1996. 03. 20	12	
16	대한장애인육상연맹	2002. 02. 25	2006. 04. 27	9	
17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1993. 09. __	2006. 04. 27	13	
18	대한장애인펜싱협회	2006. 04. 26	2006. 04. 26	10	
19	대한장애인배구협회	2006. 02. 26	2006. 04. 27	12	
20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2002. 07. 28	2006. 04. 27	11	
21	대한장애인조정연맹	2006. 07. 08	2006. 07. 31	9	
22	대한장애인탁구협회	1993. 08. 20	2006. 07. 31	16	
23	대한장애인컬링협회	2007. 05. 28	2007. 10. 16	6	
24	대한장애인요트연맹	2006. 12. 15	2007. 10. 16	7	
25	대한장애인유도협회	2008. 03. __	2009. 09. 18	4	
26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2006. 04. 02	2009. 09. 18	16	
27	대한장애인승마협회	-	-	-	
28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1978. 05. 01	2008. 01. 25	-	유형별 체육단체
29	대한농아인체육연맹	1982. 12. 30	2006. 07. 31	16	
30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2006. 02. __	2006. 07. 31	13	
31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	2005. 08. 20	2006. 04. 28	4	
32	대한장애인검도협회	2005. 10. 23	2009. 05. 18	1	인정단체
33	대한장애인골프협회	2004. 09. 19	2007. 10. 16	16	
34	대한장애인바둑협회	1999. 07. 25	2007. 10. 16	5	
35	대한장애인다트연맹	2007. 04. 13	2007. 10. 16	7	
36	대한장애인소프트볼협회	2007. 11. 27	2008. 03. __	13	
37	대한장애인 e-스포츠연맹	2008. 09. 24	2009. 05. 18	2	
38	대한장애인당구연맹	2008. 12. 27	2009. 05. 18	8	
39	대한장애인게이트볼연맹	2008. 11. 11	2010. 02. 19	16	
40	대한장애인수상스키협회	-	-	-	
41	대한장애인궁도협회	-	-	-	

※ 인정단체의 경우 시도지부 현황 제외(일부 단체의 창립일 및 가맹일 편차 발생)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08년 2월부터 선수등록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각 경기단체별 선수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선수는 (표 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0개 단체에 12,318명(남 9,528명, 여 2,790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는 전년도 10,158명에 비해 약 21.3%(2,160명)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10년도에 비하여 가맹경기단체 수 증가 및 해당 선수 수 증가, 일부 인정단체 등록 선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종목별 등록 선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탁구(총 1,505명: 남 1,110명, 여 395명)이며, 그 다음으로는 축구(총 1,343명: 남 1,310명, 여 33명), 론볼(총 1,217명: 남 843명, 여 374명), 육상(1,115명: 남 790명, 여 325명), 볼링(768명: 남 525명, 여 243명)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 참가 위주 종목의 선수 수가 많았다(축구의 경우 청각장애인 영향). 또한, 등록 선수를 남녀별로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남자선수들에 비해 여자선수들의 비율(약 23.2%)이 여전히 낮지만 전년도 대비 약 30%(72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총 1,641명: 남 1,288명, 여 353명)와 서울특별시(총 1,340명: 남 1,061명, 여 279명)의 등록 선수가 가장 많아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하였으며, 경남(총 1,044명: 남 791명, 여 253명), 인천(총 827명: 남 639명, 여 188명)과 대구(총 775명: 남 579명, 여 196명)으로서 시도별 평균 약 770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위 5개 시도를 제외한 11개 시도 모두 평균 이하인 500-600명 내외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어 지역별 편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된 결과가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선수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표 7-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단/기타장애(총 4,265명: 남 3,223명, 여 1,042명)와 지적장애(총 3,259: 남 2,587, 여 672)가 가장 많고, 척수장애(총 1,355명: 남 1,126, 여 229)와 청각장애(총 1,378명: 남 1,000, 여 378), 시각장애(총 1,100명: 남 813, 여 287), 뇌성마비(총 961명: 남 779, 여 182)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장애선수가 총 370명(남 216, 여 154) 등록되어 있고, 종목별로 남녀혼성인 종목은 사이클 44명(남 31, 여 13), 론볼 94명(남 36, 여 58), 댄스스포츠 129명(남 48, 여 81)이고, 육상 17명, 축구 30명, 농구 41명, 요트 8명, 스키 4명 등은 종목 특성에 따라 남성만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선수등록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6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가맹된 경기단체나 인정단체의 경우 선수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가맹경기단체의 적극적인 선수 등록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표 7-6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

(단위 : 명)

시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종목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양궁	5	4	9	4	0	4	4	1	5	2	1	3	10	3	13	6	0	6
육상	115	29	144	46	16	59	49	30	79	49	9	58	17	8	25	34	12	46
배드민턴	19	10	29	25	13	38	23	7	30	32	15	47	40	16	56	25	25	50
보치아	65	23	88	24	6	30	8	2	10	29	8	37	18	12	30	9	7	16
사이클	17	3	20	12	3	15	27	4	31	0	0	0	3	0	3	8	3	11
휠체어펜싱	7	1	8	0	0	0	3	0	3	0	0	0	7	0	7	0	0	0
골볼	13	9	22	6	3	9	13	9	22	12	0	12	0	0	0	6	0	6
유도	9	3	12	15	0	15	6	2	8	1	6	7	1	0	1	14	1	15
론볼	114	33	147	74	26	100	77	13	90	48	33	81	45	20	65	47	33	80
역도	43	14	57	28	4	32	32	12	44	20	13	33	18	3	21	39	15	54
사격	18	4	22	5	3	8	13	4	17	13	1	14	8	2	10	7	0	7
축구	133	2	135	68	3	71	98	4	102	52	0	52	52	0	52	79	2	81
수영	71	20	91	35	14	49	31	6	37	27	7	34	32	16	48	32	11	43
탁구	101	30	131	27	6	33	57	18	75	75	26	101	81	28	109	52	27	79
배구	23	8	31	0	0	0	18	10	28	13	0	13	18	11	29	0	0	0
농구	81	0	81	26	0	26	27	0	27	38	0	38	10	0	10	36	0	36
휠체어테니스	13	3	16	2	0	2	14	2	16	10	0	10	4	2	6	5	0	5
볼링	55	19	74	34	19	53	39	25	64	41	19	60	32	12	44	25	18	43
휠체어럭비	21	1	22	14	3	17	13	1	14	7	1	8	5	1	6	18	3	21
파크골프	39	15	54	19	10	29	18	9	27	27	10	37	27	11	38	9	1	10
조정	21	15	36	9	4	13	12	7	19	21	15	36	6	6	12	17	13	30
댄스스포츠	6	8	14	4	5	9	5	7	12	12	14	26	0	0	0	6	4	10
요트	0	0	0	10	3	13	0	0	0	0	0	0	0	0	0	0	0	0
스키	21	11	32	4	4	8	14	5	19	6	5	11	5	0	5	3	0	3
아이스하키	12	0	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휠체어컬링	9	1	10	4	1	5	5	1	6	4	1	5	4	2	6	4	2	6
당구	6	2	8	3	0	3	3	0	3	0	0	0	10	0	10	1	0	1
태권도	6	5	11	4	1	5	2	0	2	0	0	0	2	0	2	14	7	21
e스포츠	11	1	12	10	0	10	6	1	7	18	1	19	4	0	4	6	0	6
게이트볼	7	5	12	19	9	28	22	8	30	22	11	33	22	7	29	0	0	0
소계	1,061	279	1,340	531	156	684	639	188	827	579	196	775	481	160	641	502	184	686

표 7-6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계속)

(단위 : 명)

시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종목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양궁	3	1	4	7	2	9	3	1	4	2	0	2	4	0	4	6	0	6
육상	29	15	44	91	30	121	44	14	58	31	28	59	32	9	41	79	34	113
배드민턴	8	4	12	72	23	95	14	7	21	15	0	15	18	7	25	14	8	22
보치아	11	4	15	30	8	38	30	6	36	21	7	28	13	5	18	28	7	35
사이클	6	3	9	16	2	18	16	11	27	14	3	17	3	0	3	4	0	4
휠체어펜싱	3	1	4	6	3	9	6	1	7	7	4	11	6	3	9	2	0	2
골볼	7	0	7	6	0	6	0	0	0	14	5	19	9	8	17	53	0	53
유도	3	0	3	12	8	20	2	0	2	2	5	7	4	1	5	0	0	0
론볼	56	23	79	74	35	109	23	10	33	56	18	74	48	35	83	58	42	100
역도	29	25	54	72	15	87	18	8	26	36	21	57	27	10	37	13	5	18
사격	4	0	4	25	5	30	12	4	16	8	1	9	5	4	9	28	6	34
축구	104	2	106	152	8	160	115	2	117	91	0	91	43	0	43	77	2	79
수영	19	8	27	91	24	115	5	3	8	21	5	26	8	3	11	13	5	18
탁구	28	13	41	169	59	228	58	22	80	24	9	33	152	72	224	19	3	22
배구	0	0	0	20	0	20	21	0	21	11	0	11	10	0	10	32	0	32
농구	36	2	38	51	0	51	58	1	59	30	0	30	40	0	40	20	0	20
휠체어테니스	5	0	5	20	3	23	3	0	3	6	4	10	2	0	2	6	0	6
볼링	20	17	37	84	33	117	18	9	27	37	10	47	28	13	41	12	5	17
휠체어력비	0	0	0	15	2	17	5	3	8	5	0	5	8	1	9	6	0	6
파크골프	10	5	15	73	14	87	16	3	19	15	7	22	16	4	20	14	13	27
조정	7	8	15	38	17	55	2	1	3	25	12	37	20	15	35	3	0	3
댄스스포츠	9	9	18	31	35	66	11	8	19	0	0	0	3	3	6	3	3	6
요트	3	0	3	3	1	4	2	0	2	0	0	0	5	1	6	0	0	0
스키	4	2	6	10	0	10	10	3	13	4	5	9	3	0	3	4	0	4
아이스하키	0	0	0	13	0	13	12	0	12	0	0	0	0	0	0	0	0	0
휠체어컬링	0	0	0	9	2	11	6	2	8	4	1	5	3	3	6	5	1	6
당구	2	0	2	43	8	51	3	0	3	6	1	7	13	0	13	11	0	11
태권도	2	0	2	4	0	4	2	0	2	0	1	1	12	3	15	2	0	2
e스포츠	4	0	4	16	1	17	10	1	11	9	4	13	6	0	6	10	1	11
게이트볼	0	0	0	35	15	50	0	0	0	6	0	6	8	1	9	46	7	53
소계	412	142	554	1,288	353	1,641	525	120	645	500	151	651	549	201	750	568	142	710

표 7-6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계속)

(단위 : 명)

종목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양궁	3	1	4	4	1	5	5	2	7	0	0	0	68	17	85
육상	37	22	59	48	26	74	69	29	98	18	14	32	773	325	1,098
배드민턴	32	5	37	23	8	31	20	6	26	6	3	9	386	157	543
보치아	18	4	22	10	2	12	22	3	25	8	5	13	344	109	453
사이클	8	0	8	3	0	3	8	5	13	8	3	11	126	33	159
휠체어펜싱	4	0	4	2	0	2	1	1	2	0	0	0	54	14	68
골볼	7	0	7	6	0	6	8	13	21	0	0	0	160	47	207
유도	5	0	5	12	5	17	6	1	7	0	0	0	92	32	124
론볼	49	21	70	31	10	41	21	7	28	22	15	37	807	316	1,123
역도	40	22	62	30	31	61	33	13	46	5	1	6	483	212	695
사격	7	2	9	3	1	4	16	5	21	5	0	5	177	42	219
축구	50	0	50	81	2	83	84	3	87	29	3	32	1,280	33	1,313
수영	20	4	24	18	5	23	53	16	69	22	7	29	498	154	652
탁구	64	8	72	73	23	96	109	44	153	21	7	28	1,109	394	1,503
배구	24	0	24	0	0	0	11	12	23	12	0	12	213	41	254
농구	10	0	10	32	0	32	26	0	26	22	0	22	502	3	505
휠체어테니스	0	0	0	0	0	0	4	2	6	2	0	2	96	16	112
볼링	16	9	25	29	15	44	35	11	46	20	9	29	525	243	768
휠체어력비	8	2	10	13	3	16	14	1	15	0	0	0	152	22	174
파크골프	7	4	11	53	18	71	16	6	22	24	14	38	383	144	527
조정	13	10	23	5	2	7	13	7	20	10	3	13	222	135	357
댄스스포츠	4	4	8	6	6	12	5	3	8	1	1	2	63	38	101
요트	0	0	0	0	0	0	13	1	14	4	0	4	35	6	41
스키	5	0	5	7	4	11	0	4	4	0	0	0	96	42	138
아이스하키	0	0	0	0	0	0	0	0	0	0	0	0	37	0	37
휠체어컬링	3	1	4	4	2	6	4	2	6	4	2	6	72	24	96
당구	42	8	50	7	0	7	13	7	20	2	0	2	165	26	191
태권도	2	0	2	1	0	1	1	0	1	17	10	27	71	27	98
e스포츠	15	0	15	3	0	3	26	1	27	8	2	10	162	13	175
게이트볼	0	0	0	18	5	23	155	48	203	17	9	26	377	125	502
소계	493	127	620	522	169	691	791	253	1,044	287	108	395	9,528	2,790	12,318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선수등록시스템(2011년 12월 기준)

표 7-7 장애유형별 가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절단/기타		시각		척수		뇌성		지적		청각		비장애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양궁	68	17	85	42	15	0	0	26	2	0	0	0	0	0	0	0	0
육상	790	325	1,115	39	5	89	27	43	10	130	49	357	163	115	71	17	0
배드민턴	386	157	543	202	72	0	0	38	8	5	1	111	49	30	27	0	0
보치아	344	109	453	7	4	0	0	9	2	328	103	0	0	0	0	0	0
사이클	157	46	203	33	6	36	16	6	0	7	0	30	11	14	0	31	13
휠체어펜싱	54	14	68	38	11	0	0	16	3	0	0	0	0	0	0	0	0
골볼	160	47	207	0	0	160	47	0	0	0	0	0	0	0	0	0	0
유도	92	32	124	0	0	47	1	0	0	0	0	0	0	45	31	0	0
론볼	843	374	1,217	544	256	0	1	242	54	19	4	2	1	0	0	36	58
역도	483	212	695	119	37	61	7	9	0	1	0	229	138	64	30	0	0
사격	177	42	219	98	25	0	0	76	17	2	0	0	0	1	0	0	0
축구	1,310	33	1,343	0	0	112	0	0	0	176	1	660	32	332	0	30	0
수영	498	154	652	135	54	22	10	14	7	13	5	294	57	20	21	0	0
탁구	1,110	395	1,505	446	127	92	60	292	63	20	2	160	68	99	74	1	1
배구	213	41	254	177	41	0	0	0	0	0	0	0	0	36	0	0	0
농구	543	3	546	142	1	0	0	30	0	0	0	330	2	0	0	41	0
휠체어테니스	96	16	112	28	7	0	0	68	9	0	0	0	0	0	0	0	0
볼링	525	243	768	106	48	114	64	42	7	43	11	78	30	142	83	0	0
휠체어럭비	152	22	174	29	6	0	0	122	16	1	0	0	0	0	0	0	0
파크골프	383	144	527	346	129	0	1	13	3	8	2	15	7	1	2	0	0
조정	222	135	357	30	17	48	36	10	3	0	0	134	79	0	0	0	0
댄스스포츠	111	119	230	25	12	8	9	17	6	3	1	7	4	3	6	48	81
요트	43	6	49	20	3	0	0	15	3	0	0	0	0	0	0	8	0
스키	100	43	143	14	3	14	6	2	2	0	0	36	11	30	20	4	1
아이스 슬레지하키	37	0	37	32	0	0	0	5	0	0	0	0	0	0	0	0	0
휠체어컬링	72	24	96	52	15	0	0	20	9	0	0	0	0	0	0	0	0
당구	165	26	191	140	19	3	0	11	5	3	0	1	0	7	2	0	0
태권도	71	27	98	16	2	2	0	0	0	1	0	27	15	25	10	0	0
e스포츠	162	13	175	22	5	0	0	0	0	7	3	115	5	18	0	0	0
게이트볼	377	125	502	341	122	5	2	0	0	12	0	1	0	18	1	0	0
계	9,744	2,944	12,688	3,223	1,042	813	287	1,126	229	779	182	2,587	672	1,000	378	216	154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선수등록시스템(2011년 12월 기준)

※ 27개 가맹경기단체 중 승마를 제외한 26개 가맹경기단체 선수등록 포함

※ 10개 인정단체 중 (파크)골프, 당구, e스포츠, 게이트볼 선수등록만 포함

※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선수들은 종목별 가맹경기단체 선수등록 자료에 포함

4.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는 국제장애인올림픽헌장 제3장 제1항에 의거하여 설립된(2006년 5월) 한국의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National Paralympic Committee)로서 외국에 대하여는 Korean Paralympic Committee(KPC)라 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8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구분	내용
설립 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올림픽사업에 관하여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대외적 교섭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올림픽정신의 함양보급, 스포츠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적·신체적 자질의 발전 도모, 국제친선, 세계평화 및 장애인의 지위와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 2. 스포츠윤리의 증진, 반도핑 및 장애인올림픽운동(Paralympic Movement)을 전개하는 사업을 수행 3. 목적수행을 위해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 협력할 수 있으나, 장애인올림픽헌장에 부합하여야 하며 독립을 유지
사업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에 대해 한국을 대표 2. 장애인올림픽대회, 장애인아시아게임 등 IPC의 후원을 받는 세계선수권대회, 지역대회, 대륙대회, 대륙간대회 등에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을 파견·관리 3. 국내에 있어서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장애인올림픽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올림픽표장 등을 관리 4. 대회 이외의 학술연구지원사업 등 IPC, APC 및 장애인아시아게임 사업에 대표자 선정파견 및 주관 5. 장애인스포츠의학의 진흥과 IPC 및 국제장애인경기연맹이 금지한 약물의 사용 금지 활동 6. 장애인올림픽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7. 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의 스포츠 교류 8. 제 2 호에 해당하는 대회의 국내 개최 시 개최도시 지명권 및 장애인올림픽헌장에 근거한 대회조직의 책임 9. 국제심판, 기술임원, 국제등급분류위원, 스포츠행정가 연수 및 국제장애인체육 관련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10. 기타 본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재 정

장애인체육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표 7-9 참조), 2010년에는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완공에 따른 예산 축소 등으로 감소를 보였다가 2011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2011년과 2012년 장애인체육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10)과 같다.

표 7-9 장애인체육 예산의 연도별 증가추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계		10,936	19,634	26,018	36,387	30,560	34,393	46,761
장애인 체육예산	소계	9,731	18,308	23,729	34,579	27,769	32,293	43,961
	국고	3,898	8,513	4,110	6,610	5,500	5,401	7,747
	기금	5,833	9,795	19,619	27,969	20,269	26,892	36,214
장애인체육인 복지사업		1,205	1,326	2,289	1,808	2,791	2,100	2,800
전년비 증가액			8,698	6,384	10,369	△ 5,827	3,833	12,368
전년비 증가율			79.5%	32.5%	39.9%	△ 16.0%	12.5%	35.9%

표 7-10 2011년 및 2012년도 장애인체육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2011	2012
국 고	• 장애인체육육성지원	4,401	6,568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지원	1,000	1,100
	소 계	5,401	7,668
기 금	• 대한장애인체육회운영	3,173	4,754
	• 장애인생활체육	7,537	7,762
	• 장애인전문체육	5,733	6,015
	• 장애인종합체육시설운영 및 건립지원	7,347	11,483
	• 시도장애인체육지원	1,900	1,900
	• 2013스페셜동계올림픽 개최지원	1,202	3,500
	• 장애인실업팀 육성	-	800
	소 계	26,892	36,214
계		32,293	43,882

※ 체육인복지사업 관련 예산 미포함(표 7-19 및 7-20 참조)



제3절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1. 생활체육부문

1)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장애인에게 있어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는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운동 경험이 없는) 장애인들을 생활체육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꾸준히 참여시키는 것이다. 특히, 89%에 이르는 대다수의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저변확대의 방법적 접근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실제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 부지사의회의 및 시도체육정책평가회의 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장애인생활체육 관련 사업은 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교실 및 전통종목 육성,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생활체육기초조사 연구,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지원,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지원, 전국장애학생대회 개최, 종목별생활체육축제 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교육 등이 있으며, 그에 따른 2011년도 세부사업 현황 및 실적은 다음의 (표 7-11)과 같다.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지표라 할 수 있는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매년 증가추세이며, 2011년은 9.6%로 2010년의 8.3%보다 1.3% 증가하였다.

2) 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

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우리나라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2000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개칭)에서 1993년부터 지도자양성을 시작하여 2005년까지 총 569명의 지도자가 배출되었고, 이후로 국가공인 자격제도에 대해 논의가 확정되어 법안 제출 시점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지도자 강습회의 교과목은 장애인 체육의 현장에서 필요한 기초이론 및 실

기종목으로 편성하였으며, 실기 종목은 국내 미 보급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개하여 현장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1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향후에는 지도자의 배치 활용 및 사후관리(보수교육)에 대한 대비가 우선 필요하다.

표 7-11 장애인생활체육 사업영역 및 사업실적 현황('11. 12월 대한장애인체육회)

사 업 영 역		사 업 실 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 조정, 컬링, 레이스러너(3종목) 동영상자료집 개발 제작 보급(500세트) • 18개 특수학교, 16개시도 장애인체육회 등 보급
	장애인스포츠백과 개발	- 뉴스포츠 등 59종목 수록 장애인스포츠백과 제작 보급(2,000부) • 전국 도서관, 대학 관련 학과, 16개시도 장애인체육회 등 보급
	장애인생활체육관련 연구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 - 생활체육 지원사업 평가지표 개선 및 적용방안 연구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종목 강습회	- 16개시·도, 총30회 운영
장애 청소년 체육 활동 지원	장애청소년체육활동	- 장애청소년체육교실 (196개소) - 장애유소년체육캠프 (16개소) - 장애어울림청소년캠프(5개소)
생활체육 교실 및 전통 종목 육성	시도지부 생활체육교실 지원	- 초보자교실 41개소 - 신규종목체험교실 18개소 - 계절스포츠교실 32개소 - 종목별 교실 94개소 - 장애유형별교실 45개소 - 시군구교실 19개소 - 전통종목강습회 32개소 - 가맹경기단체교실 15개소
	동·하계 캠프 지원	- 동·하계 캠프 2개소 지원
생활 체육 동호인 지원	시도지부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 시도지부 생활체육동호인 135개소 지원
	클럽매니저 교육 7회	- 클럽매니저 교육 7회(555명 참가)
생활체육 기초 조사 연구	생활체육참여율 실태조사	- 기 간 : 2011. 9~12 - 조사대상 : 전국장애인 1,500명 - 조사내용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실태,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등 - 조사결과 : 참여율 9.6%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 기간 : 2011.10~12 - 27개 장애인전용체육시설 관리, 운영 실태조사 및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4개 시설은 조사 거부로 인해 미실시)
	2011어울림생활체육 학술대회지원	- 일시 : 2011. 4.23(토) 13:00 - 장소 : 영남대학교 인문관 강당 - 참여인원 : 250명

사업영역	사업실적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담당자 배치(총 1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장애인체육회 3명, 시·도 장애인체육회 16명 - 상담 및 신규생활체육참여인구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2,489건 (전화 870건, 인터넷 71건, 방문 1,538건) • 신규생활체육참여인구 3,667명 발굴 - 차량지원: 특장버스 1대, 승합차량 11대 - 장애인스포츠용품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15대, 컬링 1세트, 요트 1세트, 칸스키 5대, 뉴스포츠 60점 등 - 장애인생활체육 홍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플렛 10,000부, 스크린볼펜 15,000개 배포 -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B.I 개발 - 운영 담당자 간담회 2회 실시(7월/12월)
어울림 생활체육 대회	전국 / 지역 어울림생활 체육대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8개, 지역 37개
전국국민 생활체육 대축전	전국 국민 생활 체육 대축전 참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0/28(금)~30(일), 3일간 - 장소 : 인천광역시 일원 - 참가종목 : 8종목 - 참가인원 : 82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 530명, 임원·보호자 294명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지원	전국/지역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1개, 지역 67개
전국장애 학생체육 대회개최	제5회 전국장애학생체육 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1. 5.24(화)~27(금), 4일간 - 장소 : 경남 진주시 일원 - 참가종목 : 13종목(정식 11, 시범 2) - 참가인원 : 16개 시·도 2,73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 1,701명, 임원 및 보호자 1,030명
종목별 생활체육 축제지원	각종 생활체육축제 대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생활체육축제 15개, 유형별 생활체육대회 5개,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배 4개, 기타종합생활체육대회 7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대회 1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교육	전일제장애인체육 지도자 배치 및 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제장애인체육지도자 16개 시도에 172명 배치 - 지도자 지도인원(521,333명) - 지도횟수(54,603회) - 지도자 교육 3회(3월/10월/12월)

나. 경기지도자 양성(국가대표 전임지도자 포함)

장애인 체육분야에 있어서 비장애인 경기지도자에 상응하는 전문체육지도자 자격제도는 2011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양성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대표 전임 지도자의 경우에는 기존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임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국가공인으로 양성되는 자에 한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애인 전문체육의 경우에도 비

장애인 전문체육의 경우와 같이 쿼터 시스템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질적으로 잘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 특수체육 관련학과 현황

198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유도대학(현 용인대학교)에 특수체육학과가 설치되었고, 1990년 비로소 특수체육교사 자격증의 발급이 인정되었으며, 2011년 기준 12개 대학에서 중등 특수체육교사 및 특수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특수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용인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 등 10개 대학이며, 기타 체육 부전공 중등 특수교원 자격증 소지자, 일반체육자격증 소지자의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특수교육전공 졸업자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표 7-12 특수체육 관련학과 현황 - ()은 교사자격증 발급 인원('11. 12월 현재)

구 분	학 교 명	학 과 명	양성 정원(명)	설치년도
1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30(30)	1988
2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40(4)	1994
3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30(30)	1998
4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30(30)	2002
5	중부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20(20)	2003
6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40(40)	2004
7	한국국제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20(20)	2005
8	가야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20(20)	2005
9	경주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	20(20)	2005
10	신라대학교	체육학부(특수체육전공)	30(3)	2006
11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과	30	2008
계			310(217)	-

※ 2007년 신설된 동의대학교 특수체육학과는 2011년 체육학과로 통합

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용

생활체육지도자는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각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지정된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실제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실제

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현장의 지도 수준을 일정 수준 확보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장애인체육(스포츠)지도자의 경우에는 자격증 자체가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배치와 활용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실제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의 활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유사 자격증의 증가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장애인체육(스포츠)지도자 자격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증 제도의 국가공인 취득과 더불어 일선 장애인생활체육현장에 공인자격증 취득자의 채용을 의무화하여 현장 지도의 질을 높여 날로 높아 가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2007년부터 장애인체육분야의 생활체육지도자 수요 충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 20명의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사도 11명, 경기단체 4명, 총 15명) 및 보조생활체육지도자(사도 5명)를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시도장애인체육회 지원으로 총 39명(대한장애인체육회 15명, 시도 24명), 2009년 시도와의 매칭 펀드 방식에 의해 총 101명을 배치 활용하였다(대한장애인체육회 54, 시도 47). 2010년에는 16개 시도에 총 138명(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 68명, 시도지원 70명)이 배치되었고, 2011년에는 총 172명(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 86명, 시도지원 86명)이 배치되었다.

한편, 재가 및 중증 장애인에게 체육활동 상담,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현장방문 생활체육 지도 등을 통한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즉 체육 경험 단계에서 재활에 효과적인 운동처방을 통한 장애인들의 건강유지 및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운동 참여 경험을 누린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울림체육 단계로 변화를 주기 위하여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2011년 현재 16개 시도별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팀」을 설치 운영하고, 대표전화(1577-7976)를 통하여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행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수화’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체육활동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1년 12월 국가공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양성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2015년부터 시행), 장애인체육시설에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확대배치, 장애인 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체육(스포츠)지도자 의무 채용에 관한 법률적 강제 등 세부 배치기준을 동시에 마련하여 공인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7-13 2011년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11. 12. 31 현재)

(단위 : 명)

연 번	구분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	시도 지원	총 계	비 고
1	서울	19	19	38	
2	부산	5	5	10	
3	인천	3	3	6	
4	대구	8	8	16	
5	광주	4	4	8	
6	대전	4	4	8	
7	울산	2	2	4	
8	경기	7	6	13	
9	강원	4	4	8	
10	충북	4	4	8	
11	충남	6	6	12	
12	경북	5	6	11	
13	경남	4	4	8	
14	전북	5	5	10	
15	전남	6	6	12	
16	제주	3	3	6	
계		89	89	178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1). 내부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 매칭 방식

2. 전문체육

1) 국내대회 개최

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체육인의 경기력 향상 및 지방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육 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환경 조성과 장애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을 위하여 매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981년 유엔(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제5회 대회부터 1987년 제7회 대회까지는 1988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였다. 제8회 대회는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로 인하여 열리지 않았으며, 제9회 대회부터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현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최로 매년 개최되었다. 2000년 제20회 인천대회부터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장소에서 다음해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여는 방식으로 규정을 변경하였으며(2002년은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로 미개최), 2005년 제25회 대회부터 종합점수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2007년 대회는 광역시도에서 벗어나 김천시에서 대회를 주관하여 경상북도 일원 7개 지역 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렀다. 2008년 광주광역시 대회는 16개 시도지부가 모두 설립되어 치러진 첫 대회로서 전년대비 25%의 참가 증가율을 보였고, 전산화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대진추첨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대회였다. 2009년 전라남도 여수대회에서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9개 종목 참가자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중복참가를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향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11년부터 일반대회와 동반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201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도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미개최와 더불어 2015년부터 동반 개최될 예정이다(표 7-14 참조).

표 7-14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예정 현황

구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전국체육대회	경남진주 (제91회)	경기고양 (제92회)	대구 (제93회)	인천 (제94회)	제주 (제95회)	●● (제9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전 (제30회)	경남진주 (제31회)	경기고양 (제32회)	대구 (제33회)	(인천) (제34회)	●● (제35회)

* 201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도는 201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2015년부터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동일시도에서 동일년도에 개최될 예정임

* 2014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경우 개최여부는 인천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 1988년 서울올림픽 및 서울장애인올림픽으로 제8회 대회 미개최

-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및 아태 장애인경기대회로 제22회 대회 미개최

표 7-15 연도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2000년 순회개최 이후)

회수	개 최 기 간	개최지	개최 종목	참가선수단(명)			순 위		
				계	선수	임원	1위	2위	3위
20회	2000. 6.13~6. 15	인천	17	1,867	1,375	492	경기	서울	충북
21회	2001. 5. 9~5. 11	부산	17	2,020	1,500	520	경기	서울	부산
22회	제22회 대회는 FIFA한일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및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등으로 개최하지 않음								
23회	2003. 5. 14~5. 16	충남	17	2,020	1,500	520	경기	서울	충남
24회	2004. 5. 11~5. 14	전북	17	2,291	1,656	635	경기	서울	충남
25회	2005. 5. 10~5. 13	충북	18	2,586	1,885	701	서울	경기	충남
26회	2006. 9. 12~9. 15	울산	19(시범1)	3,272	2,462	810	경기	서울	부산
27회	2007. 9. 10~9. 14	경북 (김천)	22 (시범1,전시1)	4,031	2,991	1,040	경기	서울	경북
28회	2008. 10. 5~10. 9	광주	23(전시2)	5,459	3,987	1,472	경기	서울	광주
29회	2009. 9. 21~9. 25	전남(여수)	24	6,350	4,692	1,653	경기	서울	충북
30회	2010. 9. 6~9.10	대전	24(전시1)	6,746	4,825	1,013	경기	서울	-
31회	2011. 10. 17~10.21	경남(진주)	27 (시범1,전시2)	7,905	4,964	2,131	경기	서울	경남
32회	2012. 10. 8~10.12	고양	예정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0), 제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보고서

나.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장애인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국대회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 및 신인선수 발굴 육성, 장애인 동계스포츠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2004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대회 개최 현황은 다음의 (표7-16)과 같다.

표 7-16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최 현황

회수	개최기간	개최장소	참가종목	참가선수단(명)			참 가 대 상	주 최
				계	선수	임원		
1회	2004. 2.24(화) ~2.25(수)	용평스키장 춘천의암 빙상장	알파인스키 컬링 아이스슬레지하키 빙상	150	100	50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관 : 각 경기연맹
2회	2005. 2.17(목) ~2.18(금)	용평스키장 춘천의암 빙상장	알파인스키 컬링 아이스슬레지하키	150	80	70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관 : 각 경기연맹
3회	2006. 2.22(수) ~2.24(금)	보광휘닉스파크 춘천의암 빙상장	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시범종목)	209	102	107	척수장애, 절단 및 기 타장애, 시각장애, 정 신지체,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한국장애인스키협회 대한장애인아이스슬레지 하키협회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4회	2007. 2.21(수) ~2.24(토)	강원랜드 춘천의암 빙상장	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크로스컨트리(시범)	224	117	107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종목별 경기단체
5회	2008. 2.19(화) ~2.22(금)	하이원 스키장 춘천의암 빙상장 울산과학대학 빙상장	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크로스컨트리	446	215	231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한국장애인스키협회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대한장애인컬링협회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6회	2009. 2.10(화) ~2.13(금)	하이원스키장 춘천의암 빙상장 의성컬링경기장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429	304	125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종목별 경기단체
7회	2010. 1.26(화) ~1.29(금)	하이원스키장 이천장애인체육 종합훈련원 동천빙상장 춘천의암 빙상장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660	330	330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종목별 경기단체
8회	2011. 2.15(화) ~18(금)	하이원스키장 동천빙상장 창원서부 스포츠센터 춘천의암 빙상장	스키 빙상 휠체어컬링 아이스슬레지하키	685	338	347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종목별 경기단체
9회	2012. 2.28(화) ~3.2(금)	전라북도 전주시, 무주리조트	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크로스컨트리	731	365	366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전라북도,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회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2), 제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결과보고서

2) 경기력 향상 지원

2011년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대표 32개 세부종목의 상시훈련을 지원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13개 종목의 출전권을 획득하였으며, 종목별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선수 훈련지원 관련 세부 내역은 다음의 (표 7-17)과 같다.

표 7-17 2011년도 장애인선수 훈련지원

구 분		종목/인원	훈련일수	비 고
국가대표 상시훈련		29개 종목 435명(선수 300, 임원 135)	1,812일	종목당 평균 62일
국가대표 동계종목 훈련		3개 종목 40명(선수 25, 임원 15)	180일	종목당 평균 60일
후보선수 지원	후보선수 상시훈련	15개 종목 167명(선수 112, 임원 55)	450일	종목당 30일 균등지원

※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2011). 내부자료

또한, 경기력 향상과 관련해서 선수 훈련지원과 더불어 경기단체별 추천 지도자를 국가대표 전임지도자로 배치, 지도자 수당을 지원하였다. 총 12개 종목별 1인을 지원하였고, 종목별 배치 현황은 다음의 (표 7-18)과 같다.

표 7-18 2011년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현황

종목	인원	종목	인원
골볼	1	양궁	1
농구	1	육상	1
보치아	1	조정	1
사격	1	(시각)축구	1
사이클	1	탁구	1
수영	1	테니스	1

※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2011). 내부자료

3) 체육인복지사업

체육인복지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와 육성)와 제22조(기금의 사용 등)에 의거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과 국가대표선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력향상연금 등 총 8개 분야에 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체육 선수의 경우 2005년까지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정관 제22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우수선수연금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고, 2006년부터는 일반체육선수 경기력향상연금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일반선수 연금지급액의 60%(2005년) 수준에서 80% (2007년)로 지급 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100% 동일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장애인선수연금의 경우 월정액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 경기력향상연구연금으로 전환되어 비장애인선수와 마찬가지로 일시불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졌다(2008년 일시금 수령자 1명). 지급대상 대회는 장애인올림픽대회와 세계농아인올림픽대회이며, 연금지급액은 선수 월정금의 경우 평가점수 30점까지는 10점당 15만원씩, 평가점수 30점 초과부터 100점까지는 초과점수 10점당 7만5천원씩, 평가점수 100점 초과부터 110점까지는 초과점수 10점당 2만5천원씩 부가하여 산출 지급하되, 장애인올림픽 금메달에 한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초과점수가 장애인올림픽대회 금메달인 경우에는 10점당 500만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한다. 2011년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관련 지급인원 및 지급액(연차별 규모 포함)은 다음의 (표 7-19)와 같다. 또한,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에는 올림픽 금·은·동메달의 격차를 현행 100:45:30에서 100:75:52.5로 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이전 올림픽메달리스트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표 7-19 경기력향상연구연금(2005년 이전 명칭 '장애인선수연금') 지급 현황

(지급액 단위: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비고(지급대상)
지급 인원	152명	160명	168명	168명	165명	180명	199명	204명	210명	219명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 메달획득자
지급액	923	1,062	1,004	1,205	1,196	1,829	1,808	1,515	1,540	1,580	

※ 자료 : 보건복지부(2003년~2004년) 및 국민체육진흥공단(2005년~2012년), 2012년은 5월 현재 지급 기준임

또한, 2007년부터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외에 선수·지도자보호 지원금(상해보험), 복지후생금(생활보조비), 체육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경가지도자연구비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20)과 같다.

표 7-20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외 체육인복지사업 지급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선수·지도자보호 지원금 (상해보험)	250명 24,586천원	236명 14,300천원	289명 12,281천원	385명 11,372천원	462명 30,000원	450명 30,000원
복지후생금(생활보조비)	16명 32,000천원 (연인원 192명)	16명→11명 69,500천원 (연인원 139명)	11명 60,500천원 (연인원 121명)	20명 46,000천원 (연인원92명)	20명 74,000천원 (연인원148명)	17명 102,000천원 (연인원204)
체육장학금	50명 65,000천원	11명 12,000천원	40명 52,000천원	36명 50,000천원	36명 50,000천원	56명 80,000천원
대학원진학장학금	-	-	-	5명 15,000천원	4명 15,165천원	1명 1,655천원 (상반기)
경기지도자연구비	-	21명 362,100천원	14명 505,400천원	18명 525,600천원	-	-

※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2007년~2012년) / 2012년 경기지도자연구비는 올림픽 이후 지급 예정

4) 실업팀 지원

장애인체육 실업팀은 장애인체육에 참여하는 선수와 지도자의 직업적 안정 도모와 선수생활을 그만 둔 이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 배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애인선수의 훈련 여건 보장의 일환으로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실업팀 육성 지원은 2012년 5월 현재 13개 시도, 14개 종목 27개 팀, 117명의 선수(표 7-21 참조)가 활동하고 있으며(일부 창단 예정 포함), 향후 장애인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기량을 발휘하고 평소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기업 등의 후원을 통한 적극적인 실업팀 육성책이 필요하다. 2012년도부터 장애인스포츠실업팀 육성 지원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 8억이 배정되어 신규 창단 및 기존 팀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장애인체육 실업팀에 대한 창단 및 운영지원 육성 정책이 더욱 확산될 예정이다.

5)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운영

장애인 전문체육시설(국가대표선수 선수촌) 확보와 장애인 생활체육진흥 기반시설 확보의 목적으로 추진 중인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장애인체육계의 숙원사업으로서, 2006년 장애인체육업무의 문화관광부 이관을 계기로 정식 정부정책사업차원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 10월 15일 개원한 훈련원은 향후 전문체육 상시훈련장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표준화, 지도자 양성 및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2009년 개원 첫해에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을 대비해 수영장을 활용한 아이스링크에서 컬링 종목의 집중 훈련 결과 동계종목 최초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의 건립내역(표 7-22)과 활용계획(표 7-23)은 다음과 같다. 2011년 2단계 공사 착공으로 생활관은 2인실과 4인실 규모의 28실을 증설을 완료하고, 양궁장, 다기능 체육관, 교육동 등의 건축시설, 보조구장 등 옥외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을 추가 증설할 예정이다.

표 7-21 장애인체육 실업팀 현황('12. 5월 현재)

구분	시도	팀수	소속	종목	인원					창단년도
					계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	
1	서울	3	서울시청	W 농구	12	1		1	10	2010. 3. 4
			스포츠도토	W 테니스	6	1	1		4	2011.11.15
			장애인체육회	탁 구	5	1			4	2012. 7(예정)
2	부산	3	부산동구청	역 도	6	1	1		4	2011. 1. 1
			부산지방공단 SPO1	사이클(텐덤)	1					2010. 3
			장애인체육회	수 영	3		1		2	2011. 6. 1
3	인천	2	장애인체육회	배드민턴	5		1		4	2010. 4.29
			장애인체육회	역 도	5		1		4	2010. 4.29
4	대구	3	달성군청	W 테니스	4		1		3	2006
			장애인체육회	탁 구	6		1		5	2012. 2.10
			대구전석재단	W 농구	11	1	1		9	1996. 1
5	대전	3	장애인체육회	양 궁	5	1			4	2010. 1
			장애인체육회	탁 구	7	1	1		5	2011.12.27
			장애인체육회	육상(예정)	6	1			5	2012. 9(예정)
6	광주	1	광주광역시청	탁 구	6	1	1		4	2011. 3. 9
7	울산	1	울산광역시청	육 상	5	1			4	2007. 1
8	경기	2	양평군	유도(시각)	1				1	2012. 4
			신체장애인복지회	펜싱	5	1			4	2012. 5
9	강원	3	강원도청	아이스하키	14	1	1		12	2006
			강릉시청	사 격	3				3	2008
			하이원리조트	스 키	3		1		2	2008
10	충북	2	청주시청	사 격	8		1	1	6	2004
			장애인체육회	수 영	7	1			6	2012. 2. 8
11	충남	2	천안시청	좌식배구	8	1			7	2011. 4.19
			한국수자원공사	조정	3		1		2	2011.11. 9
12	경남	1	거창군	탁구(농아)	1				1	2012. 4
13	제주	1	제주시청	육상/수영	2				2	2011. 3
계	13	27	-	14종목	148	14	14	2	117	-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2). 내부자료

※ 운영형태 : 지자체및지자체에서시도장애인체육회에위탁운영 / W펜싱은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직접운영

표 7-22 이천장애인체육종합체육시설 건립 및 2단계 계획

구 분		시설 주요내역 및 규격(규모)	비 고
건 축 면 적		24,127㎡(7,229평 / 지하1층, 지상4층)	
종합체육관	제1체육 (종합플로어)	농구코트 3면 크기	14,708㎡ (4,449평)
	제2체육관 (실내수영장)	50m × 8레인	
	제3체육관 (테니스장)	테니스코트 2면 크기	
	제4체육관 (개별종목실)	역도·펜싱·탁구·유도·골볼장 체력단련실	
생활관 (숙소, 식당, 사무실)		2인 84실 168명, 4인 16실 64명(총 100실 232명 이용) 식당, 주방, 관리사무실	8,940㎡ (2,704평)
운동장 (육상장, 축구장)		육상장 : 트랙, 투척·도약장 축구장 : 훈련용 잔디	23,800㎡ (7,200평)
기타시설		조경, 정문	479㎡ (145평)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1)

표 7-23 이천장애인체육종합체육훈련원의 종목별 공간사용계획(14개 종목 활용)

시 설 명	사 용 종 목	비 고
제1체육관	휠체어농구,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휠체어력비	5개 종목
제2체육관	수영 / 타종목 기초 체력훈련	1개 종목
제3체육관	테니스 / 타종목 공동사용	1개 종목
제4체육관	역도, 펜싱, 탁구, 유도, 골볼 / 체력단련실(공동사용)	5개 종목
운 동 장	육상, 축구 / 타종목 기초 체력훈련	2개 종목

※ 사격, 양궁, 론볼, 사이클 종목은 지자체 시설을 활용한 촌외시설로 운영

※ 2010년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 대비 컬링 종목의 경우 훈련시설의 섭외 어려움으로 수영장시설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하여 훈련

3.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건강증진,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전국 순회 개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누구나 시도별 참가접수를 통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특히 순회개최를 통한 개최지역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체육축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1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장애청소년체육대회’라는 명칭으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의 공동 주최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진행되었다. 물론 기존에도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가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하여 개최되어 왔지만, 2005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부터는 장애학생의 체육참여증진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와 장애청소년체육대회의 개최 여건 문제로 2007년 제 1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국 4개 시·도의 해당 장애인체육회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지역별 분담 개최되었다.

표 7-24 2007 제 1회 장애청소년체육대회 개최 현황

시·도	대회명	개최일	주최	인원
경기	경기도 장애청소년체육대회	10/6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교육청	300
부산	부산시 장애청소년체육대회	11/1	부산시장래인체육회, 부산시교육청	700
대구	대구시 장애청소년체육대회	11/6	대구시장래인체육회, 대구시교육청	600
서울	서울시 장애청소년체육대회	12/1	서울시장래인체육회, 서울시교육청	500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07) 내부자료.

제2회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는 제1회 대회와는 다르게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제로 공동 주최하여 광주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제3회 대회부터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정관(제4조) 개정을 통하여 단독으로 주최하게 되었고, 대회명칭도 기존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에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운영 주체를 맡게 된 제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부터 장애학생 체육활동 참여 유도를 통한 건강증진 및 평생체육의 기틀 마련,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극복 의지와 사회적응능력 신장 도모, 지역사회 문화체험과 비장애학생과의 교류증진을 통한 조기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대회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대회 방향성으로 인하여 대회 참가인원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장애학생 인구 82,665명(특수교육실태조사, 2011) 대비 2.5% 정도의 참여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은 앞으로의 대회 운영 효율성과 참여 학생 증가를 제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표 7-25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개최 현황

회수	개최기간	개최 장소	참가종목	참가현황								참가장애	주 최
				계	선수	단장	총감독	감독	코치	임원	보호자		
2회	2008. 10. 28~10. 31	광주	골볼,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e스포츠(시범), 실내조정(전시)	1,479	912	15	15	131	89	206	111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문화체육 관광부 교육과학 기술부
3회	2009. 5. 12~5. 15	전남	골볼, 농구, 배구,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e스포츠, 실내조정(전시)	2,006	1,315	16	14	163	135	198	165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대한장애인 체육회
4회	2010. 5. 17~5. 20	대전	골볼, 농구, 배구, 보치아, 수영, 실내조정, 씨름, 육상, 역도, 축구, 탁구, e스포츠, 배구(시범), 테니스(전시)	2,437	1,570	16	16	183	176	249	227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대한장애인 체육회
5회	2011. 5. 24~5. 27	경남	육상, 보치아, 골볼, 역도, 축구, 수영, 탁구, 농구, 배구, 조정, e스포츠, 볼링(시범), 배드민턴(시범)	2,731	1,701	15	16	183	272	252	292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발달장애	대한장애인 체육회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2), <http://youth.kosad.or.kr>

4. 국제교류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전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등 각종 국제장애인체육기구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가입하여 장애인체육 관련 교류 활동을 하였으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보교류가 부족하여 변화하는 국제장애인체육계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 요구에 따라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2006년 5월 12일)가 설립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KPC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등 국제스포츠기구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며, 국제교류 및 국제대회·회의 참가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표 7-26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가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가입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 • 국제뇌성마비인경기연맹(CP-IS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단체 가입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농아인체육연맹 •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한국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농아인스포츠경기연맹(ICSD) • 국제시각장애인경기연맹(IBSA) • 국제휠체어및절단장애인스포츠협회(IWAS) • 국제지적장애인경기연맹(INAS-FID)

※ ISMWSF와 ISOD는 2004년 IWAS(국제휠체어및절단장애인스포츠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통합

※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FESPIC)은 2006년 APC로 통합출범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1), 내부자료

1) 장애인올림픽대회(Paralympics)

장애인올림픽의 기본 이념은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의 우정과 이해의 증진을 바탕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올림픽 이념과 장애인 복지의 개념을 조화시킨 것이다. 즉, 올림픽이 인종, 국가, 정치, 문화 및 이념을 초월한 인간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화합, 나아가 인간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범세계적인 축제로서 세계 젊은이들의 힘과 기력의 제전이라면, 장애인올림픽대회는 인간의 평등을 확인하는 대회이며, 인간능력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감격의 대축제이다.

가. 하계장애인올림픽대회

1960년 로마 올림픽대회 때부터 시작된 장애인올림픽(Paralympics)은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일반 올림픽 개최 도시의 동반 개최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동반 개최는 이후 국제관례로 이어져 오다가 모든 장애인스포츠를 조직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인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설립(1997년)된 이후, 2000년 시드니 장애인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IOC와 IPC간의 대회 개최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올림픽을 유치한 국가는 반드시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협약 내용에 따라 장애인올림픽대회를 동반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8년 텔아비브(이스라엘) 장애인올림픽대회에 처음 참가한 이후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을 통해 지난 2008년 베이징(중국) 장애인올림픽대회에는 다양한 종목에 걸쳐 메달을 획득하였고,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의 개원에 맞추어 향후 과학적인 훈련시스템의 도입으로 2012년 런던(영국)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는 더 많은 메달과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는 1976년 스웨덴 외른셰르스비크(Sweden-Ornskoldsvik)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하계 장애인올림픽이 올림픽 개최국가에서 관례적으로 개최되는데 비해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는 환경적 요인으로 주로 유럽지역에서 개최되어 왔다. 그러나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Tignes-Albertville)에서 열린 제5회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동계올림픽 개최 국가에서 동반 개최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Lillehammer), 1998년 일본 나가노(Nagano)장애인올림픽대회는 동계 올림픽대회 개최지에서 개최되었다.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와 2006년 이태리 토리노에서 개최된 제8회와 제9회 동계 장애인올림픽대회는 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통하여 동일 조직 안에서 조직, 인력, 물자, 시설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반 개최하는 것이 의무화됨으로써 동계 장애인올림픽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게 되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장애인올림픽에서는 컬링 종목에서 최초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는 향후 지속적인 해외 전지훈련을 통한 연중 기술 강화 훈련, 선수 저변 확대 및 최신 장비 보급 등의 필요성을 입증한 대회라 할 수 있다. 차기 2014년 소치 대회 이후 2018년 평창 동계장애인올림픽은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표 7-27 하계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회수	연도	개최장소	참가장애	규모	한국 선수단 입상 현황			비고
					종목	임원/선수	결과	
1	1960	로마 (이탈리아)	척수장애	23개국 (550명)	-	-	-	
2	1964	동경 (일본)	척수장애	22개국 (515명)	-	-	-	
3	1968	텔아비브 (이스라엘)	척수장애	29개국 (1,100명)	2	10 (4/6)	-	처음 참가
4	1972	하이델베르크 (독일)	척수장애	44개국 (1,400명)	2	16 (6/10)	금4/은2/동1	첫 메달 획득
5	1976	토론토 (캐나다)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시각장애	42개국 (2,660명)	2	11 (4/7)	금1/은2/동1	종합27위
6	1980	안헴 (네덜란드)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시각장애 뇌성마비	42개국 (3,406명)	2	15 (5/10)	금2/은2/동1	종합26위
7	1984	뉴욕 (미국)	뇌성마비/시각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45개국 (2,500명)	6	25 (11/14)	동1	동반개최 종합37위
		에일즈버리 (영국)	척수장애	45개국 (1,422명)	2	24 (12/12)	은2/동1	

회수	연도	개최장소	참가장애	규모	한국 선수단 입상 현황			비고
					종목	임원/선수	결과	
8	1988	서울 (한국)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	61개국 (4,103명)	16	366 (130/236)	금40/은35/동19	종합 7위
9	1992	바르셀로나 (스페인)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	82개국 (4,242명)	10	92 (27/65)	금11/은15/동18	종합 12위
10	1996	애틀랜타 (미국)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	103개국 (4,750명)	13	92 (28/64)	금13/은2/동15	종합 12위
11	2000	시드니 (호주)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정신지체	123개국 (6,032명)	13	119 (30/89)	금18/은7/동7	종합 9위
12	2004	그리스 (아테네)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정신지체	136개국 (6,274명)	13	123 (41/82)	금11/은11/동6	종합 16위
13	2008	베이징 (중국)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정신지체	147개국 (7,000여명)	13	131 (54/77)	금10/은8/동13	종합 13위
14	2012	런던 (영국)	개최 예정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09).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보고서, 대한장애인체육회(2011). 내부자료

표 7-28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회수	연도	개최지	참가장애	참가국가	대회규모 (선수)	한국선수단		비고
						선수 (여자)	성적	
1	1976	외른실드스비크(스웨덴)	시각 기타장애	14	250	-	-	
2	1980	게일로(노르웨이)	전 장애인	18	350	-	-	
3	1984	인스부르크(오스트리아)	전 장애인	22	457	-	-	
4	1988	인스부르크(오스트리아)	전 장애인	22	397	-	-	
5	1992	티뉴-알베르빌(프랑스)	전 장애인	25	475	2	-	첫 참가
6	1994	릴리함메르(노르웨이)	전 장애인	31	492	2	-	
7	1998	나가노(일본)	전 장애인	32	571	4(1)	-	
8	2002	솔트레이크시티(미국)	전 장애인	36	416	6(1)	은1	알파인스키 개인 첫 메달
9	2006	토리노(이탈리아)	전 장애인	39	486	3	-	
10	2010	밴쿠버(캐나다)	전 장애인	44	505	25 (2)	은1	컬링 단체전 첫 메달
11	2014	소치(러시아)	개최 예정					

※ 자료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공식홈페이지(2011). <http://www.paralympic.org>

2) 아시아 장애인경기대회

극동 및 아시아남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FESPIC Games ; The Far East and South Pacific Games for the Disabled)는 아시아 지역과 남태평양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4년마다 개최하는 스포츠 행사였다. 1970년 인도네시아 YPOC단체는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을 회원으로 하여 장애인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가칭 ASSOD(아시아장애인스포츠기구) 설립을 관계국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일본 오이타의 유다카 나카무라 박사는 설립될 장애인스포츠 기구의 회원을 아세안 5개국뿐만 아니라 극동 및 남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여 이에 대한 최종합의를 하고 1974년 10월 8일 일본 오이타에 본부를 둔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연맹(FESPIC Federation)을 정식 발족하였다. 그러나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추구하는 지역위원회 설립에 따라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로 병합(2006)되면서 2010년 12월 개최된 광저우(중국) 대회부터는 아시아 장애인경기대회로 새롭게 명칭을 바꾸었다. 동 대회에서는 총 3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금메달 27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33개로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표 7-29 역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회수	개최년도	개최지	대회규모 (국가/선수)	한국선수단 참가 현황		
				인원 (선수/임원)	메달획득 (금/은/동)	종합순위
1	1975	오이타(일본)	18/973	—	—	
2	1977	파라마타(호주)	16/430	6	6/·/1	
3	1982	홍콩(홍콩)	23/744	11	8/4/3	
4	1986	수라카르타(인도네시아)	19/834	76 (62/14)	40/19/9	
5	1989	고베(일본)	41/1,648	114 (78/36)	73/29/29	4위
6	1994	북경(중국)	45/2,081	131 (93/38)	48/28/17	3위
7	1999	방콕(태국)	42/2,500	137 (104/33)	31/26/27	4위
8	2002	부산(한국)	40/2,268	425 (303/122)	63/67/60	2위
9	2006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47/3,000	256 (166/90)	58/42/43	3위
10	2010	광저우(중국)	41/5,000	300 (198/102)	27/43/33	3위
11	2014	인천(한국)	개최 예정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1) 내부자료, 2006년까지 아태장애인경기대회 / 2010년부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개편

3) 종목별세계선수권대회

종목별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는 장애인올림픽대회 다음으로 가장 큰 국제대회이다. 기록적 측면에서도 장애인올림픽을 능가하고 있다. 종목별세계선수권대회는 대부분 장애인올림픽 중간년도에 개최된다.

2011년 국제대회 국내개최는 2011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등 총 7개 대회였으며, 국제대회 참가는 IPC 월드컵알파인스키대회 등 총 18개 대회에 참가하여 장애인올림픽 출전권 획득 및 경기력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 7-30 2011년도 국제대회 국내개최 및 국제대회 참가 현황

구분	대 회 명	대회기간	대회장소	대회규모 총인원(선수/임원) (결과)
개최	1 2011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5. 5~5. 8	서울	25명(20/5)
	2 제3회 농아인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10.27~11. 7	경기도 부천	2종목(8)
	3 2011 ITF 휠체어테니스시리즈대회	5.24~6. 9	인천, 대구, 부산	25명(20/5)
	4 2011 APC 수원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10. 1~10. 7	경기도 수원	25명(20/5)
	5 2011 수원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10.29~11. 4	경기도 수원	30명(24/6)
	6 2011휠체어럭비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선수권대회	11. 2~11.10	이천훈련원	25명(20/5)
	7 2011휠체어농구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선수권대회	11. 3~11.12	경기도 고양	30명(24/6)
참가	1 IPC 월드컵알파인스키대회	1.12~1.24	이탈리아 세쉴프리에르	4명(2/2)
	2 IPC 육상세계선수권대회	1.15~1.31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11명(7/4)
	3 APC 크로스컨트리선수권대회	2. 3~2. 7	일본 아사히카와	2명(1/1)
	4 WCF 휠체어컬링세계선수권대회	2.21~3. 1	체코 프라하	9명(5/4)
	5 IPC 노르딕스키대륙간컵대회	8. 7~8.20	뉴질랜드	2명(1/1)
	6 IBD 론볼세계선수권대회	4.30~5.14	남아공	12명(10/2)
	7 IWAS 휠체어펜싱세계선수권대회	6.22~6.27	폴란드 바르샤바	10명(8/2)
	8 FITA 양궁세계선수권대회	7. 8~7.17	이탈리아	20명(16/4)
	9 CPISRA 보치아월드컵선수권대회	8.18~8.26	북아일랜드	16명(10/6)
	10 FISA 조정세계선수권대회	8.27~9. 5	슬로베니아	7명(5/2)
	11 UCI 사이클세계선수권대회	9. 8~9.11	덴마크	8명(6/2)
	12 IBD 배드민턴세계선수권대회	11.19~11.26	과테말라	8명(6/2)
	13 ITTF 탁구AOZ선수권대회	12.14~12.22	홍콩	20명(16/4)
	14 IBSA 축구지역선수권대회	12.20~12.26	중국	12명(10/2)
	15 IPC 호주사격월드컵대회	11.11~11.21	호주 시드니	14명(10/4)
	16 CP-ISRA 뇌성마비축구대회	6.15~7. 2	네덜란드	15명(12/3)
	17 ITF 휠체어테니스선수권	4.25~5. 1	남아공 프리토리아	10명(7/3)
	18 IFDS 요트선수권대회	7. 1~7. 8	영국	7명(5/2)

4) 농아인올림픽대회(데플림픽 대회)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기구는 여러 국가에서 1차 대전 이전에 조직되었지만(독일의 경우 1888년 베를린에서 최초의 청각장애인스포츠기구가 발족됨) 1924년 이전까지는 그다지 큰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국제청각장애인경기대회(International Games for the Deaf / International Silent Games)로 시작된 농아인올림픽대회(Deaflympics)는 1969년 제11회 유고 베오그라드(Belgrade) 대회부터 청각장애인월드게임(World Games for the Deaf)으로 개최되던 것이 2001년 제19회 이탈리아 로마 대회부터 지금의 Deaflympics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1949년 시작된 동계 대회는 1949년 4회 스위스 몬타나(Montana) 대회부터 하계 대회 개최년도 중간년도에 개최되고 있다. 동·하계 농아인올림픽대회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청각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올림픽으로서 스포츠를 통한 심신 단련과 친목 도모 및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15회 대회에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하였고, 제16회 대회에서는 29명(선수 21, 임원 8)의 선수단 참가, 제17회 대회에는 육상, 축구, 사이클, 탁구 4개 종목 36명(선수 25, 임원 11)의 선수단을 파견하였으나 입상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8회 대회에는 육상, 축구, 탁구, 볼링,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 4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대회 참가 처음으로 육상 남자 100m 채정완선수와 배드민턴 여자단식의 박혜연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회원국은 2009년 현재 104개국이며, 한국은 1984년 6월 1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경기종목으로는 육상, 배드민턴, 농구, 비치발리볼, 볼링, 사이클, 축구, 유도, 가라데, 산악자전거, 오리엔티어링, 사격, 수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배구, 레슬링 자유형,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등 19개 종목(동계 -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컬링, 아이스하키, 스노보드 등 5개 종목)이 있고, 참가 자격은 국제 연맹의 규정에 따른 아마추어로서 잘 들리는 쪽의 귀의 청력상실 정도가 55데시벨(dB) 이상인 청각장애인만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 제한은 없다.

우리나라는 2009년 제21회 타이베이 하계대회에 총 94명(선수 63, 임원 31)이 참가하여 금 14, 은 13, 동 7의 메달을 획득, 종합 3위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한편, 2011년 동계대회는 체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개최되지 않았고, 2013년 제22회 하계대회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표 7-31 역대 농아인올림픽대회(하계) 개최 및 참가 현황

회수	개최년도	개 최 지	대회규모 (국가/선수)	한국선수단 참가현황		
				인 원 (임원/선수)	메달획득 (금/은/동)	종합 순위
1회	1924	파리(프랑스)	9/145	—	—	—
2회	1928	암스테르담(네덜란드)	10/210	—	—	—
3회	1931	뉴렌베르그(독일)	14/316	—	—	—
4회	1935	런던(영국)	12/293	—	—	—
5회	1939	스톡홀름(스웨덴)	13/264	—	—	—
6회	1949	코펜하겐(덴마크)	14/405	—	—	—
7회	1953	브뤼셀(벨기에)	16/524	—	—	—
8회	1957	밀라노(이탈리아)	25/625	—	—	—
9회	1961	헬싱키(핀란드)	24/595	—	—	—
10회	1965	워싱턴(미국)	27/697	—	—	—
11회	1969	베오그라드(유고슬라비아)	33/1183	—	—	—
12회	1973	말뫼(스웨덴)	32/1061	—	—	—
13회	1977	부쿠레슈티(루마니아)	32/1118	—	—	—
14회	1981	쾰른(독일)	32/1213	—	—	—
15회	1985	로스앤젤레스(미국)	29/1053	19(9/10)	—	—
16회	1989	크라이스트처치(뉴질랜드)	30/959	30(8/22)	—	—
17회	1993	소피아(불가리아)	51/1705	36(11/25)	—	—
18회	1997	코펜하겐(덴마크)	62/2068	40(11/29)	·-/2	38위
19회	2001	로마(이탈리아)	71/2405	44(16/28)	4/ 4/ 4	11위
20회	2005	멜버른(호주)	80/4000	50(15/35)	6/ 5/ 5	10위
21회	2009	타이페이(대만)	77/2493	94(31/63)	14/13/7	3위
22회	2013	소피아(불가리아)	개최예정	참가예정		

※ 자료 : Deaflympics (<http://www.deaflympics.com>) / 대한장애인체육회(2011)

5) 스페셜올림픽대회

1963년 Eunice Kennedy Shriver가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5주간 여름 캠프를 시작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스페셜올림픽대회는 1968년 7월 20일 Joseph P. Kennedy, Jr. 재단과 시카고 공원지구 공동 후원으로 제1회 하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미국 26개 주와 캐나다 선수 1,000명이 육상과 수영 경기대회에 참가하였고, 이듬해 비영리기구인 스페셜올림픽 법인이 설립되어 미국의 모든 주와 캐나다, 프랑스에서 스페셜올림픽 현장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스페셜올림픽대회는 다른 스포츠 관련 대회와 다르게 참가선수들을 연령과 성별로 구분하여 편성한 후 디비전 경기를 통하여 수준별 결선 경기 조를 편성한다. 기록경기를 중심으로 디비전 경기의 기록과 수준별 결선 경기 기록을 비교하여 10%이상 초과한 경우 실격 처리한다. 모든 선수들 중 결선 경기의 1-3위를 한 선수들에게는 메달을 수여하며, 4-8위의 선수들에게는 리본을 수여한다. 등외나 실격 처리 당한 선수들에게도 참가 리본을 제공한다. 현재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도 스페셜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미국 내에서는 각 주별로 스페셜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170여개국 3만명 이상의 선수와 코치, 자원봉사자들이 스페셜올림픽대회에 참가하며, 하계와 동계에 걸쳐 4년에 한 번씩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 제5회 뉴욕(미국) 하계대회에 처음 참가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참가를 하고 있다. 2011년 아테네(그리스)에서 개최된 제13회 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에는 육상, 수영, 보체 등 11개 종목에 총 111명(선수 8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고, 차기 동계대회인 2013 스페셜올림픽대회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105개국 3,3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계획이다.

표 7-32 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회수	개최 년도	개 최 지	대회 구분	대회규모 (국가/선수)	한국선수단 참가현황
					인 원 (임원/선수)
1회	1968	시카고(미국)	하계	2/1,000	-
2회	1970	시카고(미국)	하계	4/2,000	-
3회	1972	로스앤젤레스(미국)	하계	-/2,500	-
4회	1975	미시건(미국)	하계	-/3,200	-
5회	1979	뉴욕(미국)	하계	20/3,500	-
6회	1983	루이지애나(미국)	하계	-/4,000	-
7회	1987	인디애나(미국)	하계	70/4,700	-
8회	1991	미네아폴리스(미국)	하계	100/6,000	-
9회	1995	코네티컷(미국)	하계	143/7,000	-
10회	1999	노스캐롤라이나(미국)	하계	150/7,000	30(8/22)
11회	2003	더블린(아일랜드)	하계	150/6,500	40(11/29)
12회	2007	상하이(중국)	하계	164/7,500	50(15/35)
13회	2011	아테네(그리스)	하계	170/7,000	111(31/80)
14회	2015	로스앤젤레스(미국)	하계	예정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1), Special Olympics(<http://www.specialolympics.org>)

※ 일부 대회의 경우 참가국 및 참가선수단 규모 미확인

표 7-33 스페셜올림픽 동계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회수	개최 년도	개 최 지	대회 구분	대회규모 (국가/선수)	한국선수단 참가현황
					인 원 (임원/선수)
1회	1977	콜로라도(미국)	동계	-/500	-
2회	1981	버몬트(미국)	동계	-/600	-
3회	1985	유타(미국)	동계	14/-	-
4회	1989	네바다(미국)	동계	18/1,000	-
5회	1993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	동계	50/1,600	-
6회	1997	토론토(캐나다)	동계	73/2,000	19(9/10)
7회	2001	앵커리지(미국)	동계	70/1,800	36(11/25)
8회	2005	나가노(일본)	동계	84/2,600	44(16/28)
9회	2009	아이다호(미국)	동계	100/2,750	94(31/63)
10회	2013	평창(대한민국)	동계	개최 예정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1), Special Olympics(<http://www.specialolympics.org>)

※ 일부 대회의 경우 참가국 및 참가선수단 규모 미확인

5.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2008년 시작된 스포츠 외교 인재 육성을 위한 IPC 인턴십 파견(체육인재육성재단 지원) 사업은 독일 본 소재 IPC 본부에 1명을 파견하여 향후 국제 외교 인력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표 7-34 참조). 또한, 2011년 장애인체육스포츠아카데미는 KPC 장애인체육행정·정책 실무자 양성교육으로 총 60시간에 걸쳐 국내외 장애인스포츠 변천과정, 스포츠영어, 스포츠등급분류, 스포츠대회, 스포츠행사기획론, 스포츠정책론 등의 교육을 시행하였다.

표 7-34 2011년 장애인체육스포츠아카데미

구분	일반과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체육행정기관 임직원 : 가맹단체, 사도지부 장애인스포츠선수, 지도자, 체육행정가 등 스포츠관계자 특수체육 등 체육관련 학과 학부·학위 전공학생 등
교육기간	2011. 9.26~10. 1(40시간)
교육장소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외교 : 스포츠외교론, 국제스포츠산업론, 국제스포츠정책론, 국제스포츠행사 기획론, 국제스포츠행사 프레젠테이션 방법론 장애인스포츠전문교육 : 장애인스포츠변천사,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국제장애인경기대회, 국제장애인스포츠분류 외국어교육 : 원어민생활회화, 스포츠영어, 생활영어 특강 : 한국 스포츠외교의 현황과 뉴 패러다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나아가 할 방향
수료인원	15명(16명)

구분	전문과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C 상임위원회 위원 및 스포츠 외교전문가 등 • 기타 장애인스포츠외교 전문 인력으로 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교육기간	2011.10.10~10.13 (20시간)
교육장소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 전문교육 : 세계화와 스포츠외교, 국제경기대회유치 및 운영, 국제스포츠기구(IOC, OCA, IPC, APC)와 KPC와의 인적 인프라 구축, 고급국제스포츠회의 영어 • 특강 : 스포츠외교관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 대회유치와 지역사회 발전, 국제외교 에티켓
수료인원	13명(16명)

한편, 2011년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사업 또한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등 6개 권역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되었고,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말 위주 80여 시간의 연수교육을 진행하였고, 총 306명이 수료하였다.

표 7-35 2011년도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

순	시·도	연계대학	연수기간	연수과목(시간)			수료인원(명)
				계	이론	실기	
				계			306
1	서울	한국체육대학교	2011. 7.16~8.14	17 (82)	10 (42)	7 (40)	52
2	부산	동의대학교	2011. 6.27~7. 9	23 (80)	14 (40)	9 (40)	43
3	인천	가천의과학대학교 (가천대학교)	2011. 6.25~8.20	17 (82)	11 (42)	6 (40)	51
4	대구	영남대학교	2011. 8.20~10. 1	25 (82)	13 (42)	12 (40)	50
5	광주	호남대학교	2011. 6.20~7.15	21 (80)	11 (40)	10 (40)	55
6	경기	한신대학교	2011. 7. 2~7.31	17 (80)	10 (40)	7 (40)	55

2011년 국제심판 및 등급분류사 양성사업은 휠체어농구, 사격, 스키, 육상, 켈링, 탁구, 펜싱 등 18개 종목 관련 214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등급분류사 169명, 심판 45명), 향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양성 및 지원 로드맵을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7-36 2011년도 국제심판등급분류사 양성사업 현황

종목	등급분류사	국제심판	계
휠체어농구	2	7	9
사격	3	12	15
스키	5	—	5
육상	3	—	3
컬링	7	—	7
탁구	89	10	99
펜싱	1	—	1
보치아	1	2	3
볼링	2	—	2
배드민턴	1	—	1
축구	24	1	25
테니스	—	2	2
조정	2	1	3
럭비	3	1	4
요트	1	—	1
골볼	6	7	13
역도	—	2	2
수영	19	—	19
계	169	45	214

A large red abstract graphic element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featuring a white arrow-like shape pointing right, which contains the text 'Section 08' and '스포츠산업'.

Section

08

스포츠산업

- 제1절 개 관
- 제2절 스포츠소비 현황
- 제3절 스포츠산업 현황
- 제4절 프로스포츠산업 현황
- 제5절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Section

08

스포츠산업



제1절 개 관

1. 스포츠산업의 개념과 특성

1) 개 념

스포츠의 가치는 전통적으로 교육적 가치, 사회적 조화에의 기여, 개인의 건강 증진 및 개인적 오락 기회제공 등에 있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사회문화의 환경변화에 따라 여가 중시적 라이프스타일이 보편화되고 몸과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적 경향이 짙게 나타나면서 스포츠는 스포츠 자체로의 역할을 넘어서 산업적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국가주도의 수출 지향적 성장전략이 지배하던 1970년대에는 산업적인 의미에서의 스포츠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스포츠의류와 스포츠신발류의 생산과 수출 등을 기초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스포츠 관련 산업은 1980년대 초 프로스포츠가 소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스포츠 자체가 스포츠산업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스포츠를 핵심 상품으로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와 관련된 용품시장을 형성하고, 해당시설의 건설 및 운영하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또 이와 관련된 스폰서십 시장과 마케팅 시장이라는 파생상품을 생성하게 된다.

오늘날 세계의 공통된 경향은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전체 산업구조 속에서 스포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스포츠산업의 전체적인 규모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2010년 기준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연간매출규모와 소비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때 33조 9,339억 원으로서 국내총생산(GDP)의 2.8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09년의 33조

4,560억 원보다 약 1.4% 증가한 규모이다.

스포츠비즈니스의 성장으로 촉진된 관련 학문의 발달에 따라 스포츠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스포츠활동과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관련하여 정의된다. 또한 스포츠활동에 참가한 스포츠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종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단체와 기업의 생산 활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은 스포츠활동에 필요한 용품과 설비, 그리고 스포츠경기, 이벤트, 강습 등과 같은 유·무형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유통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은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나로 묶은 것이므로 그 정점에는 스포츠활동이 자리한다. 관람스포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스포츠구단, 개인종목의 프로 및 세미프로 선수 등 스포츠활동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나 단체가 스포츠산업의 핵심부문이다. 또한 스포츠센터의 강습, 골프장의 골프라운딩, 마라톤대회 완주 등 직접적으로 고객이 참가하는 활동 자체를 생산하는 업체도 스포츠산업의 핵심부문이다.

한편 이러한 핵심부문에 속한 업체(단체)가 스포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원 및 보조부문이 필요하다.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스포츠활동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면 스포츠용품이 필요하고 체육시설도 요구되며, 선수 등 경기인력의 양성 및 공급, 스포츠스폰서십 수주 등의 재원조달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과 경제활동 주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의 대상 영역은 스포츠활동과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거나 스포츠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확장시키려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것이다.

2) 스포츠산업의 법적 근거

스포츠산업의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스포츠산업진흥법”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체육(운동경기, 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과의 관련성이 스포츠산업에 속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수 용구 생산 장려조항은 스포츠용품제조업 육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외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시설운영에 관계된 스포츠시설운영업의 법적 근거이다. 반면에 스포츠를 오락과 여흥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낼 수 있는 스포츠이벤트업이나 각종 스포츠정보를 생산 가공 유통시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스포츠정보업, 스포츠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려는 스포츠마케팅업의 법적 근거는 없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을 준비하였다.

3)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

스포츠산업 내에 다양한 분야의 진흥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대안 및 지원조직 제도화를 위한 법제정이 매우 시급하면서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마침내 2007년 4월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지원정책의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의 체육용구의 생산 장려 조항에 의거 체육용구제조업, 체육시설업의 육성 등에 한정하고 있을 뿐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과 육성은 불가능한 현실이 이 법의 제정을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으로 스포츠산업 진흥기본 계획의 수립,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양성,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자금 지원, 스포츠산업 사업자단체 설립, 스포츠산업 지원센터 지정, 국내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진출 지원, 프로스포츠 육성 등의 사업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제정은 국내 스포츠산업 발전의 지속적,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지역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흥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특성화 및 지방분권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며 스포츠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스포츠산업의 분류

가. 스포츠산업분류 적용 변화

2011년 체육백서에서는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문화체육관광부, 2011)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를 적용하였다.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321호) 지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적용하였고 2010년 기준조사는 4개의 대분류, 15개의 중분류, 46개의 하위분류인 「산업특수분류」를 근거로 실시하되 스포츠산업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분류에 항목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항목은 스포츠미디어분야로써 특수분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스포츠산업 진흥 기반에 필요한 분야이며 2차자료를 활용한 정확한 통계산출이 가능하기에 스포츠방송업, 스포츠신문업 등이 포함되었다.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중분류4, 소분류17)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중분류7, 소분류22)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중분류3, 소분류5)
-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중분류1, 소분류2)

※ 출처 : 박영옥(2004), 스포츠산업의 실태분석

표 8-1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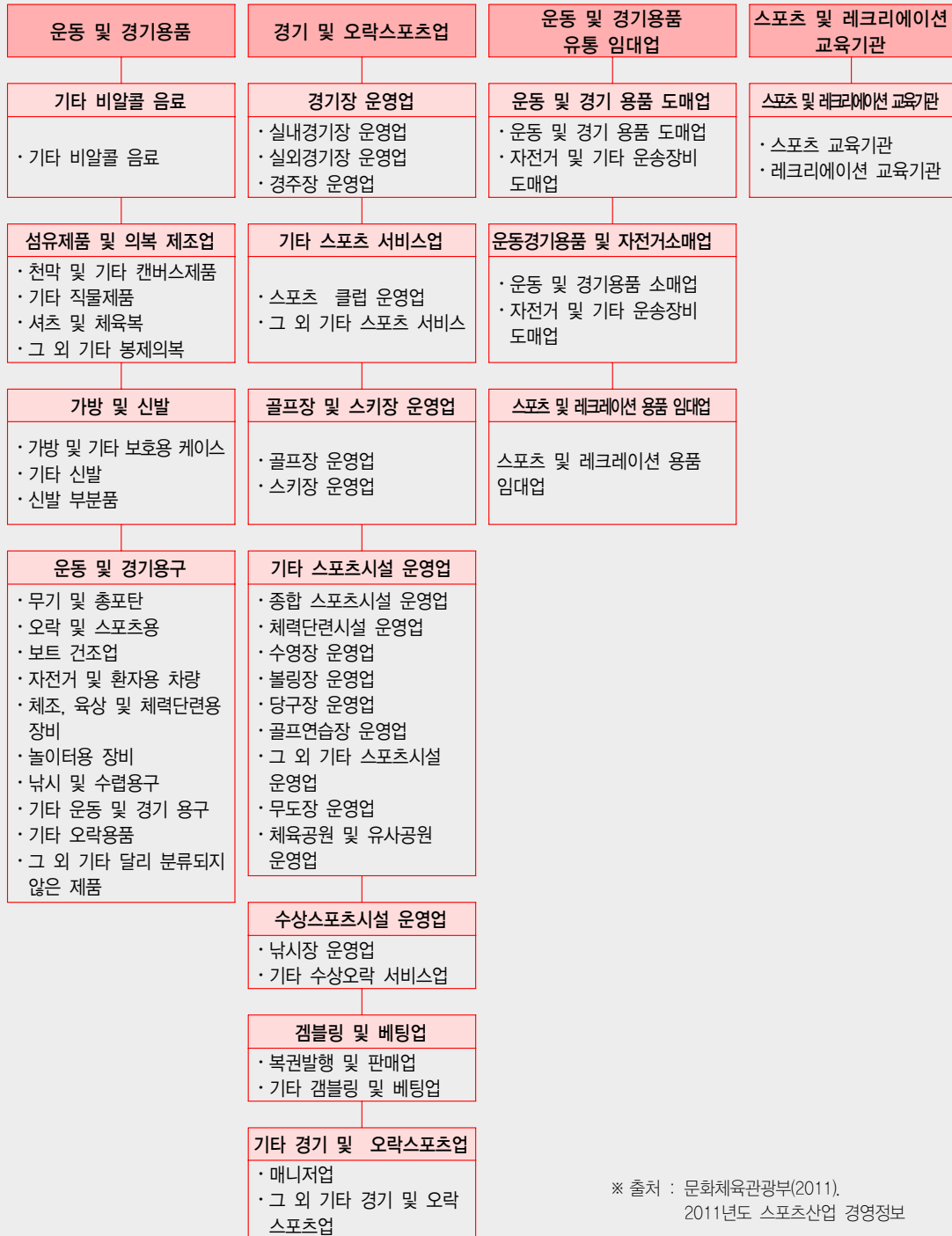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명	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품목명
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1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1-1-1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스포츠음료(알카리성 이온음료)
	1-2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1-2-1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캠핑용 직물제품
			1-2-2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구명자켓, 구명벨트
			1-2-3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스포츠의류 제조
			1-2-4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스포츠의류 부분품
	1-3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3-1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등산용 배낭
			1-3-2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경기용 및 특수용 신발 제조
			1-3-3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경기용 운동화 부분품
	1-4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4-1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수렵용 공기총, 경기용 총포탄
			1-4-2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범선, 요트, 카누, 카약
			1-4-3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스포츠용 자전거, 자전거 부품
			1-4-4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1-4-5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1-4-6	33303	낚시 및 수렵용품 제조업	
			1-4-7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4-8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볼링용구, 당구용구
			1-4-9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회전목마, 기타 흥행장용품
2.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2-1	경기장 운영업	2-1-1	91111	실내경기장 운영업	
			2-1-2	91112	실외경기장 운영업	
			2-1-3	91113	경주장 운영업	
	2-2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2-1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2-2-2	91199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미디어(방송, 신문)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명	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품목명
2.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2-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2-3-1	91121	골프장 운영업	
			2-3-2	91122	스키장 운영업	
	2-4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2-4-1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2-4-2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2-4-3	91133	수영장 운영업	
			2-4-4	91134	볼링장 운영업	
			2-4-5	91135	당구장 운영업	
			2-4-6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2-4-7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2-4-8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2-4-9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체육공원 운영
	2-5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2-5-1	91231	낚시장 운영업	
			2-5-2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
	2-6	캠블링 및 베팅업	2-6-1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스포츠토토
			2-6-2	91249	기타 캠블링 및 베팅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베팅시설
	2-9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9-1	73901	매니저업	스포츠인 매니저
			2-9-2		그 외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3-1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3-1-1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3-1-2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스포츠용 자전거 및 부품 도매
	3-2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3-2-1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3-2-2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스포츠용 자전거 소매
	3-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3-3-1	69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1-1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4-1-2	85612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댄스교습

※ 주 : 스포츠미디어(방송, 신문)는 특수분류에 미포함부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에 따라 포함시킴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르면 스포츠산업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으로 대분류된다.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은 크게 기타 비알코올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경기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gambling 및 베팅업,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으로 분류된다.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은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그림 8-1 국내 스포츠 산업 분류

4) 스포츠산업의 특성

스포츠산업은 구성하고 있는 각 분야마다 서로 다른 산업분류에 속하는 업종의 집합체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스포츠산업은 복합적인 산업분류 구조를 가진 산업이다. C.G.클라크가 ‘경제진보의 조건’에서 사용한 산업구조의 분류를 살펴보면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은 2차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각종 스포츠시설운영업과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은 3차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점에서 보면 스포츠산업은 각기 다른 산업분류를 복합적으로 통합한 형태를 갖는데, 예를 들어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에서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은 스포츠산업이기보다는 각각 상품에 해당하는 제조업에 해당되기도 하고 운동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은 다른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산업분류가 통합된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이러한 특성으로 종래의 산업분류에서 그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산업분류 구조를 가진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공간입지 중시형 산업이다. 스포츠 참여활동에는 적절한 장소와 입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포츠 산업분야의 서비스는 입지조건이나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예를 들어, 월드컵 주 경기장, 스키장 그리고 골프장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어느 정도의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가 소비자들에게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해양스포츠나 스키 등은 제한된 장소에서만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의 입지조건에 크게 의존한다.

셋째, 시간 소비형 산업이다. 스포츠산업은 산업의 발달에 따른 노동시간의 감소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가활동의 증대로(예: 주 40시간 근무제) 발전한 산업이다. 관람스포츠와 참여스포츠가 활성화되는 것은 체육 및 스포츠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넷째, 오락성이 중심 개념인 산업이다. 스포츠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필요’보다는 ‘재미’와 관련이 있는 ‘오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중들은 의식주와 관련된 것보다는 여유 있는 삶, 혹은 삶 속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스포츠활동을 한다. 행하는 것도 재미있고, 관전하는 것도 재미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한다.

다섯째, 감동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산업이다. 영화나 연극같이 각본에 의한 감동과는 달리 스포츠는 각본 없는 감동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로 전달된다. 또한 다른 산업에서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도 건강과 감동을 함께 가져다주는 산업은 스포츠산업뿐이다. 스포츠산업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정신적 만족과 함께 육체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스포츠산업의 전망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체육·스포츠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식정보사회의 진전과 함께 그 동안 체육·스포츠 발전의 중심 원리로 작용하여 오던 전인교육, 국위선양, 국민건강 및 복지증진의 전통적 스포츠 패러다임에서 미디어가치 개발, 고부가가치 창출, 생산적 국민복지 등과 같은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다.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는 스포츠를 소비지향적 문화·오락활동으로 간주하는 일상적이고 편협된 시각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지향적 산업활동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박세리, 김미현 등 골프스타와 이승엽, 박지성 등 야구, 축구스타는 민간 외교사절로서 뿐만 아니라 연간 수십·수백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제인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선린 우호 및 세계 평화와 축제의 한마당으로만 인식되어 오던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제스포츠이벤트의 경우 이벤트 자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나 관광경제적 가치가 크게 고려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스포츠산업은 전 세계적인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제조업, 서비스, 유통업 등 기존 산업과 연계된 복합산업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산업이다. 특히 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기술과 규칙을 공유하고 있는 전지구적인 공통문화로서 광범위한 시장기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IT분야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중요한 비즈니스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 관련 직·간접적인 소비 증대로 문화·관광 등 스포츠 연관 산업과 스포츠 서비스산업의 빠른 발전이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아마추어 및 프로스포츠 팀, 선수 등이 생산해 낸 스포츠산업의 규모만 2,130억 달러로 자동차 산업의 2배 이상, 영상산업의 거의 7배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은 통산성 산하 산업구조심의회에서 스포츠산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선정하여 이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은 타산업과 연관되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발을 통해 스포츠에이전트, 스포츠 이벤트 기획 등 신규직종에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복지 부문에 있어서도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으로 감성적 여가 및 오락지향 사회를 건전하게 선도함으로써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를 매개로 한 재화와 스포츠 서비스의 생산·유통·분배의 축진을 가져와 국내 스포츠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는데 기여 할 것이고 민간 기업의 마인드를 스포츠 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스포츠산업은 우수한 경기력 및 국제 체육계에서의 높은 위상 등 유리한 세계시

장 진출 여건과 발전가능성에 비해 이를 상품화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기술, 인력, 정보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여타 산업 영역에 비하여 낙후된 상태이다. 따라서 기술축적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스포츠산업 환경

1) 대외 환경변화

가.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4년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2005년 7월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2006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2007년 7월부터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2008년 7월부터는 2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2012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제는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어 정착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으로 인해 주2일간의 휴일이 발생하면 여가 활동이 종전에 비해 다양화되며 각 문화활동이 대중화·보편화되어 자기개발 및 취미활동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취미, 교육, 게임 등과 관련된 시장이 확대될 것이며, 기업 노동 대체사업, 자기 개발과 사회성 개발, 가사노동 대체 사업, 그리고 체험형 여가산업, 관광산업 등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각종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의 발전도 가져오게 된다. 참여스포츠 시장은 더욱 세분화될 것이며, 프로스포츠는 관중 수의 증대로 인해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체육활동의 증가에 따라 스포츠용품의 수요증가, 스포츠용품의 다양화 및 첨단화도 전개될 것이다. 또한 여타 서비스 산업과 연계된 스포츠산업(예 : 가족형·체험형 참여스포츠 등)의 등장도 예상된다.

나. 산업의 IT화

우리나라의 IT관련 산업 기업투자는 1995~1999년 동안 연평균 3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1998년 이래 40%이상 높은 투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IT산업이 실질 GDP에 대한 성장

기여율 또한 매년 증가하여 2001년 현재 40%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IT산업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는 인터넷에 대한 급속한 수요확대로 인해 관련 장비 및 서비스산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4년 인터넷 이용자수는 약 13만 8,000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2,000만 명을 넘어서 2,438만 명 선이었으며 2004년에는 3,000만 명 선을 넘어섰고 2005년에는 3,301만 명을 넘었으며, 2007년에는 3,482만 명을 넘었으며 2008년에는 3,536만 명 2009년에는 3,658만 명, 2010년에는 3,701만 명, 2011년에는 3,718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의 경우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010년 기준으로 약 570만 명, 2011년에는 2,500만 명을 넘었는데, 이는 2년여 만에 2,000만 명을 넘어선 수치로 확인되었다.

표 8-2 국내 인터넷 사용자 추이

(단위 : 만명)

년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용자수	310	1,086	1,904	2,438	2,627	2,922	3,158	3,301	3,412	3,482	3,536	3,658	3,701	3,718

※ 출처 : www.nic.or.kr

IT산업의 발전, 여타 산업의 IT화 가속, 그리고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인해 스포츠산업의 e-business화가 전개되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e-business화 기존 산업의 e-business화와 신규 산업(산업)의 e-business화로 구분될 수 있다.

기존 산업의 e-business화의 경우 스포츠용품 산업, 참여스포츠 관련업체 그리고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활용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신규 산업에서의 e-business화는 스포츠로 특화된 인터넷 콘텐츠를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한 모바일 형태로 제공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스포츠산업의 발전은 방송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의 디지털화는 스포츠산업의 IT화 및 e-business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폰, SNS, 공동구매방식의 소셜커머스,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와 같이 IT기술을 융합한 e-business를 통한 스포츠산업의 수익 모델 또한 새롭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위성방송, 유선방송, 인터넷 등이 등장함으로써 과거와는 크게 다른 다양한 매체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매체 수의 증가와 함께 디지털 기술, 휴대통신기술, 동영상기술 등의 개발은 기존 산업의 구조변화를 촉진하고 있고 스포츠산업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신, 라디오, TV 등 새로운 매체가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스포츠산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했다는 점으로 볼 때 종편확대에 따른 방송 매체 수의 증가와 인터넷을 활용한 스포츠중계의 증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체 수의 증가는 각 매체가 수용할 콘텐츠 수요의 급증을 동반하게 되고 이는 스포츠가 미디어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특히 IOC, FIFA 및 프로구단 등의 경기에 관한 제반권리를 소유한 스포츠조직은 뉴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콘텐츠 공급업체로서의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미디어의 콘텐츠 확보경쟁은 국내 방송사 간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방송중계권료가 대폭 인상되는 현상은 이러한 콘텐츠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을 한 개의 공중과 방송이 독점한 적이 있었으며 2005년에는 공중과 방송이 아닌 케이블방송에서 메이저리그의 방송중계권을 확보하여 방영하고 있으며 국가대표 축구의 아시안컵 예선 등의 중계권을 케이블방송이 구매함으로써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라. 스포츠의 세계화와 경쟁의 심화

스포츠의 세계화란 스포츠영역에서 일어난 세계화이다. 세계화란 일종의 동질화이자 세계의 각 사회간에 상호의존성의 증대과정이기도 하다. 스포츠의 세계화란 스포츠의 세계에서 각국이 보여준 동질화가 심화되는 것이자 각국의 스포츠 간에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스포츠의 동질화는 올림픽스포츠의 권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것에서 발견된다. 전 세계 국가들이 올림픽 스포츠를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변화는 올림픽 참가국 수의 증가에서 관찰된다. 1960년 100개가 넘어서면서 주춤하던 참가국수가 2000년이 되면서 200개로 2배가 된 것이다. 1972년 몬트리올올림픽에 123개 국가가 참가하였고 이후 이념대립으로 반쪽짜리 대회가 열리면서 참가국수가 100개 미만으로 떨어졌던 것이 1988년 서울올림픽에는 140개국,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는 172개국, 1996년 애틀란타올림픽에는 197개국,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는 200개국,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는 202개국,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는 205개국이 참가하였다.

각 나라들이 올림픽스포츠를 수용해가는 과정은 사실 스포츠부문 세계화의 토대이지만 본격적인 스포츠의 세계화 현상은 각국의 스포츠가 함께 소비되는 것, 각국의 스포츠에 다른 나라 선수나 감독, 코치 등 경기인력이 이동하는 것, 스포츠사업에 투자되는 자본이 이동하는 것이다.

스포츠의 세계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월드컵 시청인구를 들 수 있다. 프랑스월드컵을 시청한 인구는 370억 명이었고 2002년 한일월드컵을 시청한 인구는 420억 명 이상으로 2006년 독일월드컵을 시청한 인구는 500억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스포츠의 세계화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자본 및 상품시장의 세계화에 따른 미디어와 스포츠와의 결속력강화에 의해서 더욱 진전될 것이다. 즉 스포츠세계화는 특정 스포츠대회나 특정 스포츠선수가 일시에 TV, 라디오, 신문, 잡지 및 디지털 매체에 의해서 수백억 명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됨으로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포츠의 세계화는 스포츠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스포츠의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특정 유명대회나 스타선수의 미디어가치가 커질 것이다. 스포츠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지원 외에도 높아진 관심 때문에 개인 소비자가 지출하게 될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스포츠세계화에 따라서 세계 스포츠산업 시장에서의 각국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은 다른 나라의 스포츠산업과 경쟁을 해야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2) 대내 환경변화

가. 참여·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대

참여·레저스포츠는 소득수준 및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소비자의 차별적인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 1997년 IMF관리체제에 들어선 이후 많은 레저스포츠 시설들이 부도나거나 신규개발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995~2000년 기간 동안 레저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약 13.7%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렀고, 주 40시간 근무제, 가족 중심의 문화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레저스포츠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참여·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아스포츠, 실버스포츠 등이 새롭게 늘어날 것이며, 신세대를 위한 익스트림스포츠, 장년층을 위한 시니어게임, 암벽 등반 등 모험 스포츠 및 자연친화적 스포츠 그리고 이러한 분야들이 상호 결합된 스포츠 등에 대한 소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소비지출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나. 스포츠용품업의 경쟁 심화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 주 40시간 근무제 등은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여가시간의 증대를 가져와 관련 스포츠용품의 소비를 증대시키게 된다. 국내 스포츠용품 시장은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극심한 경쟁에 처해 있다. 기존 스포츠용품은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인 방식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90년대 이후 국내 노동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스포츠용품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가동 중단, 연쇄

도산,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국내 스포츠용품업체들의 시장(내수,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표 8-3) 운동용구의 수출입현황 및 무역수지 증가의 둔화 추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표 8-3 운동용구 수출입 현황

(단위 : 천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11	113,978	594,700	△480,722
2010	114,886	592,137	△477,251
2009	91,785	501,618	△409,833
2008	90,559	580,402	△489,843
2007	114,227	587,015	△472,788
2006	120,141	503,542	△383,401
2005	105,096	436,217	△331,121
2004	105,762	442,660	△336,899
2003	90,676	438,523	△347,846
2002	83,074	359,389	△276,315
2001	90,226	272,442	△180,216
2000	85,189	230,232	△145,044
1999	73,797	173,806	△100,009
1998	82,033	88,611	△ 6,578
1997	111,461	246,162	△134,701

※ 출처 : 관세청(2011), 무역통계-품목별(HS4단위 9506)수출입실적

스포츠용품의 부가가치는 생산공정에서 보다는 디자인 및 마케팅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특히 세계적 스포츠용품 회사들은 스포츠 스폰서십과 같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디다스사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에서 공식 스폰서로 참여했으며, 경쟁사인 나이키는 각종 대표팀 유니폼 스폰서로 참여했다. 이 밖에 FILA, 푸마, 아식스 등도 각종 국제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 마케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 스포츠용품사의 이러한 활동은 자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기 위함이다. 즉 국내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은 선진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스포츠용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용품업체들은 극심한 경쟁과 영

세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공정 부문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 경쟁력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에서는 선진국의 기술·디자인 경쟁력에 크게 뒤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스포츠용품 업계는 ‘소재의 첨단화’ 및 ‘새로운 디자인 개발’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

스포츠분야에서의 패러다임이 과거 엘리트체육 중심의 스포츠에서 생활체육 확대와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베이징 올림픽 7위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세계 10권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한 것에 비하여 스포츠 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스포츠는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참여율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2010년도 우리나라 생활체육 참여율이 41.5%로 2008년 대비 7.3% 증가하였다. 이렇게 스포츠 참여인구의 증가 및 다양화와 건강 및 여가 문화로서의 스포츠 활동이 확산되어가면서 새로운 스포츠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스포츠의 역할도 국가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통합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을 거쳐 현재는 스포츠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인식하고 육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주요 국가는 스포츠산업을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해 관심과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다.



제2절 스포츠소비 현황

1. 스포츠소비 정의

소비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재화를 소모하는 것이며 스포츠소비는 스포츠와 관련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를 소모하는 것이다. 스포츠소비는 상업적 시장에서 조달되는 스포츠재화와 서비스의 구입비용을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비상업적 스포츠활동(예: 동호인회 회비, 스포츠교실 참가비 등)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부문에 의해서 제공되는 스포츠참여 기회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 혹은 참여자 개인의 부담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소비라 할 수 있다.

스포츠소비의 규모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체육정책의 기초 자료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스포츠소비는 국민이 스포츠활동의 재원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특정 사회의 스포츠시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소비규모는 운동참여율 지표와 더불어 체육진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스포츠소비의 특징을 종목별, 소비자의 특성별로 파악하는 것은 스포츠산업을 진단하고 성장을 전망하는 데 기초적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 일본의 경우 자유시간디자인센터에서 스포츠소비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해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가개발센터 조사는 스포츠활동에 쓰는 연간 총 비용은 물론 종목별, 참가형태별로 소요된 비용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년 주기로 조사 발표되는 국민생활참여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월평균 운동경비를 조사하는 항목이 있으나 이 비용이 어떤 종목에 쓰였는지 혹은 용품구입에 쓰였는지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밝힐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자료에 기초한 스포츠소비 현황 추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2. 스포츠소비의 특성

스포츠소비는 운동용품 소비, 스포츠시설서비스지출, 그리고 운동경기관람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스포츠시설서비스 이용료와 운동경기관람료는 서비스 구입에 해당되며 운동용품은 재화의 구입에 소요된 비용이다.

국내 스포츠에 대한 소비통계는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한 가계조사연보의 가구당 소비현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가계조사연보의 도시가구 스포츠용품 및 서비스 품목별 소비는 2008년부터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07년까지의 도시 가구당 스포츠용품 및 서비스 소비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2007년의 국내 스포츠소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운동화와 운동복으로 각각 가구당 전체 스포츠소비의 23.8%를 차지하였고 태권도 학원비가 22.9%로 그 다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경기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서 지출된 관람료는 가구당 연평균 1,000원으로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가계조사연보」의 도시가구 스포츠 소비지출 자료에 의하면 스포츠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가구당 연간 111,000원, 스포츠용품에 대한 지출이 149,000원으로 나타나 스포츠용품 지출이 스포츠서비스 지출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소비의 내부 구성은 스포츠용품과 시설서비스 교습은 직접 스포츠참가로 파생된 소비인데 반해서 관람료는 간접적 스포츠참여에 대응되는 소비이다. 스포츠소비의 내부 비율이 우리 사회의 스포츠활동 여건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서비스소비 즉 운동시설 이용료와 교습비 등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자료에 근거할 때 관람스포츠를 보기 위해서 지출하는 소비는 매우 적다. 전체 소비의 0.004%에 불과하므로 우리나라의 관람스포츠의 시장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스포츠소비 지출

여가보다 일을 우선 시하는 전통적인 사회 인식이 변화되어 여가생활의 중요성이 넓게 확산되었다. 여가를 중시하는 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여가생활의 여건도 여가활성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을 거친 이후 2000년부터 국내 경제성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향후 경제 성장도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불황과 위축된 가계소비로 인해서 여가관련 지출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2010년 이후 서서히 회복되어가고 있다. 여가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여가시간의 증가에도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직장인 수가 늘어나고 있고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직장인수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활동의 활성화는 스포츠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연간 스포츠소비의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민간 소비의 주체인 가계나 기관(기업 등) 단위의 스포츠소비 즉 스포츠활동과 관련해서 파생된 경비를 합산해야한다. 그러나

기업의 스포츠관련 지출 자료는 공식 통계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고 관련 조사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스포츠소비는 가계단위 소비의 총량으로 대신하였다.

스포츠관련 소비통계로 활용 가능한 자료는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가계조사연보」를 들 수 있다. 동 자료 중에서 교양·오락비 항목 지출이 여가부문 가계 소비규모의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 우리나라 가구의 연간 스포츠소비는 가계조사연보의 전 가구지출 통계치 중 스포츠용품 구입과 스포츠시설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든 비용과, 그리고 운동경기 관람료를 합산하여 이를 연간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표 8-4 도시가구 스포츠용품 및 서비스 품목별 소비

(단위 : 천원)

구분	품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스포츠 용품	이온음료	3.6	3.6	3.6	-1)	-	-		-
	운동화	32.4	32.4	37.2	-1)	-	51.6	51.6	53.0
	자전거	4.8	4.8	6.0	4.8	8.4	8.4	6.0	6.0
	등산낚시용품	7.2	8.4	9.6	9.6	15.6	15.6	16.8	15.0
	운동기구	8.4	7.2	7.2	32.4	26.4	25.2	26.4	22.0
	운동용품	12.0	10.8	13.2					
	운동복	32.4	33.6	42.0	46.8	51.6	56.4	57.6	53.0
	소 계	100.8	100.8	118.8	93.6	102.0	157.2	157.2	149.0
스포츠 서비스	운동경기 관람료	-	1.2	2.4	1.2	1.2	1.2	1.2	1.0
	수영장이용료	6.0	4.8	6.0	-1)	61.2	63.6	64.8	28.0
	볼링장이용료	4.8	3.6	6.0	52.8				
	운동오락시설기구이용료	68.4	70.8	70.8	-1)				
	운동강습료	36.0	39.6	38.4	40.8	44.4	43.2	34.8	32.0
	교양오락강습료	13.2	14.4	12.0	-1)	-	-	-	-
	태권도학원	38.4	46.8	50.4	-1)	-	52.8	55.2	51.0
	기타 체육학원	19.2	20.4	20.4	-1)	-	-	-	-
	소 계	186.0	201.6	206.4	94.8	106.8	160.8	156.0	111.0
합 계		286.8	302.4	325.2	188.4	208.8	318.0	313.3	223.0

※ 출처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9~2002」, 「가계조사연보 2003~2007」, 체육과학연구원 「한국의 체육지표 1999~2007」

※ 주 : 1) 이온음료가 타음료 및 주류에, 교양오락강습료가 기타강습료, 기타체육비가 예체능계 학원비에 포함되어 지표항목에서 제외
2) 2008년부터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가계조사연보 품목별 지출 중에서 이온음료, 운동복, 운동화, 어린이자전거(98년 이후로는 어린이 승용물), 자전거, 등산낚시도구, 운동기구(97년부터 운동기구, 운동용품으로 항목이 분리되었음), 스포츠관람료(97년부터 운동경기관람료로 용어변경), 스포츠오락시설이용료(97년부터 수영장이용료, 볼링장이용료, 운동오락시설기구이용료로 구분), 교양오락강습료의 일부(97년부터 운동강습료와 운동 외 교양오락강습료가 1:2인 점을 반영해서 교양오락강습료의 2/3을 운동강습료로 가정하고 계산함)를 합산한 것이다.

품목별 스포츠소비를 연간으로 합산하면 2007년 연간 가구당 평균 223,000원으로 2006년 가구당 연간 스포츠소비인 313,300원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스포츠 소비지출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가구의 스포츠소비를 스포츠용품소비와 서비스소비로 구분해 보면 스포츠용품 소비는 149,000원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했으며 스포츠서비스 소비는 111,000원으로 전체 스포츠소비의 33.2%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스포츠소비는 1996년 연간 207,600원이던 것이 97년 243,000원으로 증가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불황으로 1998년 207,600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경향은 1999년에 238,800원으로 1997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가 2000년에는 연간 286,800원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302,400원, 2002년에는 325,200원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에는 188,400원, 2004년 208,800원으로 감소하였다. 2005년 318,000원, 2006년 313,300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가 2007년 223,000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표 8-5 교양오락비와 스포츠소비

년 도	가구교양오락비(A) (연)(원)	교양오락비 비율(%)	가구스포츠소비(B) (연)(원)	스포츠소비/교양오락비 비율 (B/A)(%)
1998	703,200	4.5	207,600	29.5
1999	865,100	4.9	238,800	27.5
2000	1,023,600	5.2	286,800	28.0
2001	1,028,400	4.9	302,400	29.4
2002	1,059,600	4.8	325,200	30.7
2003	1,072,800	4.8	188,400	17.6
2004	1,126,800	4.8	208,800	19.0
2005	1,179,600	4.8	318,000	27.0
2006	1,303,200	4.9	313,300	24.0
2007	1,293,600	4.7	223,000	17.2
2008	1,265,268	3.8	-	-

※ 출처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해당 연도

A : 각년도 도시가계연보 중 교양오락비 지출 × 12

B : 각년도 도시가계연보 중 스포츠소비 품목 합산 총액 × 12

※ 주 : 2008년부터 품목별 스포츠소비는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스포츠소비가 가구 교양오락비 지출 총액 대비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 24.1%이던 것이 1997년에는 26.8%, 1998년에는 29.5%, 1999년에는 27.5%, 2000년에는 28%로 시기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25%에서 30%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3년 17.6%, 2004년 19.0%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2005년 27.0%, 2006년 24.0%로 증가하였다가 2007년 다시 17.2%로 감소하여 그 변동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첫째, 통계항목의 변화에서 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둘째, 스포츠소비가 경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지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스포츠산업 현황

스포츠산업 경영정보(문화체육관광부, 2011)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스포츠산업 현황으로 스포츠산업 사업체수는 6만 9,315개로 추정되고,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33조 934십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매출액 중 내수가 32조 79십억 원, 수출이 1조 855십억 원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 33조 934십억 원 중 영업비용 29조 637십억 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3조 930십억으로 11.7%로 2009년 기준 14.9%의 이익률 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을 기준으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전년대비 7,131개 증가한 6만 9,315개로 추정되었다. 스포츠산업 종사자수는 23만 3천명으로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스포츠 교육서비스업의 종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6 2010년 기준 스포츠산업 전체 현황

구 분	업체수 (개)	종사자 (천명)	매출액 (십억원)	내수 (십억원)	수출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2010년 기준	69,315	233	33,934	32,079	1,855	3,930
2009년 기준	62,184	210	33,456	32,575	874	4,994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1. 스포츠 사업체 현황

1) 스포츠 사업체 수

2010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기준으로 총 73,659개 사업체 중에서 스포츠산업 관련 재화, 용역, 생산 등과 관련이 없는 사업체와 유고 및 업종 변경 등의 사업체들을 제외하였을 때, <표 8-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69,315개(추정)의 스포츠 산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를 보면,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인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캠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업체가 전체의 49.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은 29.3%, 유통임대업이 14.4%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기타스포츠 시설운영업(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시설 등)이 전체 스포츠산업 사업체 중 46.1%를 차지하고 있다.

표 8-7 스포츠산업 내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 %)

대분류	중분류	사업체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4	0.01
	섬유제품 및 의복제조업	3,071	4.4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20	1.3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819	1.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장 운영업	181	0.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424	0.6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26	0.5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2,001	46.1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1,205	1.7
	캐블링 및 베팅업	53	0.1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7	0.02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1,071	1.5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8,186	11.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	734	1.1
스포츠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20,304	29.3
합계		69,315	10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2) 종사자수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1~4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 중 89.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이 높으며, 다음으로 5~9인 사업체가 6.3%로 10인 미만 사업체가 95.7%를 차지하고 있다. 20인 이상 사업체는 1.4%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스포츠산업체가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표 8-8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구 분	대분류	사업체수	비중
1~4명	운 동 및 경 기 용 품 제 조 업	2,896	4.2
	경 기 및 오 락 스 포 츠 업	29,950	43.2
	운 동 및 경 기 용 품 유 통 업	9,213	13.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9,869	28.7
5~9명	운 동 및 경 기 용 품 제 조 업	1,041	1.5
	경 기 및 오 락 스 포 츠 업	2,422	3.5
	운 동 및 경 기 용 품 유 통 업	515	0.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33	0.6
10~19명	운 동 및 경 기 용 품 제 조 업	509	0.7
	경 기 및 오 락 스 포 츠 업	982	1.4
	운 동 및 경 기 용 품 유 통 업	101	0.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
20~49명	운 동 및 경 기 용 품 제 조 업	291	0.4
	경 기 및 오 락 스 포 츠 업	524	0.8
	운 동 및 경 기 용 품 유 통 업	130	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2	0.002
50명이상	운 동 · 경 기 용 품 제 조 업	76	0.1
	경 기 · 오 락 스 포 츠 업	329	0.5
	운 동 · 경 기 용 품 유 통 업	32	0.0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
합 계		69,315	10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2. 스포츠산업 종사자 및 고용 현황

1) 부문별 종사자 현황

표 8-9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 수

(단위 : 백명, %)

대분류	중분류	종사자수	비율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48(100.0)	15.0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9(2.6)	0.4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198(56.9)	8.5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5(15.8)	2.4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86(24.7)	3.7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324(100.0)	56.8
	경기장 운영업	70(5.3)	3.0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45(3.4)	1.9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219(16.5)	9.4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88(67.1)	38.1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44(3.3)	1.9
	캠핑 및 베틱업	57(4.3)	2.4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0.1)	0.1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289(100.0)	12.4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86(29.8)	3.7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183(63.3)	7.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20(6.9)	0.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68(100.0)	15.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68(100.0)	15.8
총합계		2,329	10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전체 스포츠산업 종사자수는 23만 3천 명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문화산업 종사자 44만6천 명(2009년 기준)에 약 절반에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종류별 종사자수는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이 13만 2천 명, 5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사업에 종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의 비율이 5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은 구명자켓, 구명벨트, 스포츠의류

제조 및 부분품으로 의류 제조 및 부분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경우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종사자 비율이 과반수가 넘는 67.1%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으로 가장 보편적인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의 경우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의 종사자 비율이 63.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2) 부문별 고용 현황

스포츠산업 부문별 고용 현황은 상용종사자를 기준으로 2010년도에 1만 3,600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도에는 32% 감소한 9천 3여백 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별로 소폭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전반에 걸쳐 경기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고 전망된다.

표 8-10 부문별 고용 현황

(단위 : 백명, %)

구 분		인력충원*	
		2010년	2011년
합 계		136	93
사업종류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4	20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67	54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28	1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7	3

※ 인력충원 : 해당년도에 신규 또는 보충된 상용종사자의 수(퇴직자 결원 보충 포함)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조직형태별 고용 현황은 상용종사자를 기준으로 2010년도에 약1만3,600여명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도에는 32% 감소한 9천3백여명을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2011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약 32% 감소한 2천 9백여명을 충원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개인사업체의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회사법인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이외법인의 경우 고용이 2011년도 기준으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1 조직형태별 고용 현황

(단위 : 백명, %)

구 분		2010	2011
합 계		136	93
조직형태	개 인 사 업 체	58	29
	회 사 법 인	69	57
	회 사 이 외 법 인	5	5
	비 법 인 단 체	1	1
	국 가 · 지 자 체	2	1

※ 주 : 고용은 해당년도에 신규 또는 보충된 상용종사자의 수(퇴직자 결원 보충 포함)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3. 스포츠 산업 규모

1) 국내 스포츠산업의 전체 규모

2010년도 국내 스포츠산업은 33조 934십억 원 규모로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89% 수준이다. 이러한 스포츠산업 규모는 총 연간출하(매출) 규모, 소비시장 규모로 산정하였다. 국가 GDP 대비 스포츠산업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 2.24%에서 2010년 2.89%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스포츠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11.4%로 높게 나타났다으나 2009년 기준조사에서 모집단과 분류체계 적용 변화 등의 이유로 다소 높은 증가율이 나타난다. 그러나 2009년 기준 대비 2010년 기준 스포츠산업규모 성장률이 1.4%로 나타났다.

표 8-12 GDP대비 스포츠산업규모 비율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스포츠산업 규모(원)	19조6507억	22조3642억	23조2698억	26조3,614억	33조4,439억	33조9,339억
GDP(원)	847조9천억	915조9천억	901조2천억	1,023조9천억	1,050조	1,172조
GDP대비 스포츠산업비율	2.24%	2.44%	2.58%	2.57%	3.18%	2.89%
증가율(%)		13.81%	4.05%	13.29%	26.86%	1.4%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2) 스포츠산업 부문별 규모

2009년 기준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1.4%로 33조4,439억 원에서 33조9,339억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 기준 대비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은 2010년도에 13.5%증가하였으며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14.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1.2%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경우 4.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경기 불황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13 연도별 스포츠산업 규모

(단위 : 십억원, %)

분류	2009		2010		증감률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4,929	14.9	5,593	16.5	13.5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2,570	67.5	21,531	63.5	△4.6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5,124	15.5	5,888	17.3	14.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33	2.5	926	2.7	11.2
합계	33,456	100.0	33,934	100.0	1.4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3)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근거로 산출하였다.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0년 이후 차츰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2009년도에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산업 역시 같은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분류별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단, 스포츠산업(0.791) 전반적으로 전체산업(0.687)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기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643으로 2008년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0.904 로서 2008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스포츠산업 전체가 국내 전체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이 높고 분류별 비교 역시 스포츠산업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4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 추이

대분류	중분류	2000	2005	2007	2008	2009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0.718	0.700	0.652	0.603	0.643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0.839	0.755	0.738	0.690	-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0.688	0.746	0.734	0.701	0.749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621	0.641	0.584	0.529	0.652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0.724	0.659	0.551	0.493	0.514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0.906	0.922	0.918	0.891	0.904
	경기장 운영업	0.883	0.908	0.905	0.874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0.916	0.921	0.914	0.886	0.89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캠핑 및 베팅업	0.918	0.937	0.934	0.913	0.915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0.91	0.907	0.899	0.876	0.893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0.889	0.893	0.887	0.864	0.865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0.931	0.920	0.911	0.888	0.89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	-	-	-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0.862	0.893	0.877	0.845	0.85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0.862	0.893	0.877	0.845	0.851
스포츠산업(평균)		0.827	0.827	0.803	0.768	0.791
전체산업(평균)		0.754	0.741	0.722	0.666	0.687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4. 스포츠산업 부문별 매출 및 실적 현황

1) 부문별 매출 현황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및 오락서비스의 매출이 전체 63.5%를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산업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이 17.3%,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이 16.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이 2.7%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 및 오락서비스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동 업종에 경륜, 경정, 경마 및 스포츠 복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2009년 기준조사 보다 약 0.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8-15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

(단위 : 억원, %)

대분류	중분류	매출액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55,932(100.0)	(16.5)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2,244(4.0)	0.7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33,249(59.4)	9.8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107(11.0)	1.8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4,332(25.6)	4.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5,314(100.0)	(63.5)
	경기장 운영업	34,005(15.8)	10.0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5,226(7.1)	4.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3,111(15.3)	9.8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7,320(17.3)	11.0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804(0.4)	0.2
	캠핑 및 베팅업	94,523(43.9)	27.9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25(0.2)	0.1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58,837(100.0)	(17.3)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34,618(58.8)	10.2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23,740(40.3)	7.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480(0.9)	0.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55(100.0)	(2.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55(100)	2.7
총 합 계		339,339	10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매출액 비중의 변화는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이 2009년 기준조사에 비해 14.8% 증가하였으며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13.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1.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경우 4.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서비스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기불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스포츠산업 전체 실적

표 8-16 스포츠산업 전체실적

(단위 : 십억원, %)

대분류	중분류	내수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4,335	13.7	4,852	16.4	741	18.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221	0.7	215	0.7	10	0.3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2,810	8.9	2,796	9.4	529	13.4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77	1.5	572	1.8	38	1.0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847	2.6	1,269	4.3	164	4.2
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529	66.7	19,081	64.4	2,085	53.0
	경기장 운영업	3,401	10.7	3,308	11.2	92	2.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521	3.6	1,112	3.8	45	1.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311	10.4	2,813	9.5	498	12.7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732	11.8	2,986	10.1	746	19.0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80	0.3	54	0.2	27	0.7
	캠핑 및 베테업	9,452	29.8	8,776	29.5	676	17.2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3	0.1	32	0.1	1	0.0
3.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5,269	16.6	5,192	17.5	691	17.6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3,059	9.6	3,214	10.8	248	6.3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2,162	6.8	1,947	6.6	427	10.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임대업	48	0.2	31	0.1	17	0.4
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6	2.9	512	1.7	414	10.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6	2.9	512	1.7	414	10.5
총합계		32,079	100.0	29,637	100.0	3,931	10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33조 9,34십억 원으로 영업비용 29조 6,37십억 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3조 9,31십억 원으로 11.7%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액 중 내수가 차지하는비중이 94.5%로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수출비중이 5.5%에 불과

하여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내수시장의 비중이 2009년 대비 1.5% 감소한 것은 수출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불균형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 지원, 투자 등과 동시에 프로스포츠 및 생활 스포츠 등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체 스포츠산업의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스포츠 산업 사업실적은 2009년 대비 매출액 규모는 1.4% 증가하였고, 특히 수출은 112.2% 향상되어 비록 수출비중은 낮지만 성장면에서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영업이익의 측면에서 전년대비 21.3%의 감소하여 기업들의 고용 확대와 투자 등이 위축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사업종류별 내수 · 수출실적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 중 내수비율은 94.5%에 이르며 특히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의 경우 2009년과 동일하게 10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의 경우 22.1%의 수출비중은 국내 전체 제조업 수출비중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지만 전년대비 증가를 보이고 있어 스포츠용품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지원과 관심을 통해 지속적 증가율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8-17 사업종류별 내수 · 수출실적

(단위 : 십억원, %)

구 분	매출액					
	(A)		내수		수출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4,929	5,593	4,232	4,355	697	1,238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2,570	21,531	22,567	21,529	3	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5,124	5,884	4,950	5,269	174	61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33	926	833	926	-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4) 운동 및 경기 용품제조업의 내수 및 수입 현황

운동 및 경기 용품제조업의 내수판매 매출은 4조335십억 원으로 비중이 77.9%를 차지하여 여전히 내수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스포츠의류의 내수(매출) 비중이 5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2009년 기준조사에서도 스포츠의류 내수(매출) 비중이 49.6%를 차지하여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 내수비중이 24.6%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입의 경우 56.5%에 이르고 있다. 이는 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18 운동·경기용품제조업 상품별 구성비

(단위 : 십억원, %)

구 분		금액	비 중					
			스포츠 음료	스포츠 의류	스포츠 신발	공 류	라켓류	기타
운동·경기 용품제조업	내수	4,335	5.1	57.8	10.4	2.2	0.1	24.6
	수입	74	0.0	6.5	0.0	37.1	0.0	56.5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5. 스포츠시설업 현황

스포츠시설운영업은 2003년 5조 623억 원으로 스포츠시설업의 88.1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6년에는 8조 3,135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9조 5,378억 원으로 증가, 2009년에는 9조 7,35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스포츠시설운영업은 스포츠시설 이용 및 강습료와 골프장 이용료로 구분되어 작성되었으며 2005년에는 스포츠시설 이용 및 강습료가 4조 8,317억 원, 골프장 이용료가 2조 3,078억 원이었고 2006년에는 시설이용 및 강습료가 5조 8,605억 원, 골프장 이용료가 2조 4,53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시설이용 및 강습료가 5조 9,450억 원, 골프장 이용료가 2조 5,370억 원으로 2008년에는 시설이용 및 강습료가 3조 5,451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리조트형 체육시설 중 2009년도 골프장 내장객수는 약 25,908,986명, 스키장 내장객수는 6,563,571명에 달한다.

1) 등록체육시설

등록체육시설의 경우 2008년 332개소, 2009년 361개소, 2010년 407개소, 2011년 439개소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업소수 7.8% 증가, 면적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의 경우 전체 업소수는 2010년 386개소에서 2011년 416개소로 7.7% 증가하였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4.6% 증가하였으나, 정규 대중골프장의 경우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 골프장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9 등록체육시설업 현황

(단위 : 개소, 천㎡)

업종별	구분	2008		2009		2010		2011	
		업소수	면적	업소수	면적	업소수	면적	업소수	면적
합계		332	325,829	361	351,006	407	386,879	439	413,774
골프장	소계	311	299,658	339	324,601	386	360,269	416	385,364
	회원제	183	223,927	193	237,063	215	258,246	225	269,470
	정규대중	42	48,671	146	87,538	171	102,023	191	115,893
	일반대중	74	25,315	—	—	—	—	—	—
	간이	12	1,744	—	—	—	—	—	—
스키장		19	25,758	20	25,886	19	26,092	20	26,193
자동차 경주장	소계	2	411	2	518	—	—	3	2,216
	2륜차	—	—	—	—	—	—	—	—
	4륜차	2	411	2	518	2	518	3	2,216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전국 등록·신고체육시설업 현황

2) 신고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의 경우 2008년 50,280개소, 2009년 53,490개소, 2010년 55,241개소, 2011년 56,368개소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업소수 2.0% 증가, 면적5.3%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과 비교했을 때 50,280개소에서 56,368개소로 12.1% 증가하였다.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한 추세에 있으나, 수영장의 경우 2008년 606개소에서 2011년 567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골프연습장의 경우 2008년 6,356개소에서 2011년 9,033개소로 42.1%로 증가하였다.

표 8-20 신고체육시설업 현황

(단위 : 개소, 천㎡)

업종별	구분		2008		2009		2010		2011	
			업소수	면적	업소수	면적	업소수	면적	업소수	면적
합계			50,280	24,545	53,490	26,409	55,241	26,830	56,368	28,254
요트장			4	41	13	74	15	120	19	187
조정장			—	—	—	—	—	—	—	—
카누장			—	—	—	—	—	—	—	—
빙상장			38	251	43	345	41	339	40	334
승마장			70	2,425	73	3,223	82	2,544	116	3,760
종합 체육시설	소계		203	891	201	792	212	890	230	1,099
	회원제		87	286	—	—	—	—	66	282
	대중		116	604	—	—	—	—	164	816
수영장	소계		606	1,324	581	1,334	574	1,257	567	1,272
	실내		424	727	415	706	399	683	399	687
	실외		182	597	166	628	175	574	168	585
체육도장	소계		13,026	1,903	13,112	2,045	13,263	2,527	13,485	2,889
	권투		347	71	389	81	477	95	589	121
	레슬링		3	1	3	1	7	1	8	1
	유도		410	64	404	61	391	58	407	69
	검도		931	187	892	179	877	185	871	181
	태권도		11,176	1,553	11,272	1,697	11,364	2,162	11,446	2,489
	우슈		159	26	152	23	147	23	164	25
골프 연습장	소계		6,356	10,811	7,446	11,307	8,186	11,729	9,033	12,148
	실내	소계	5,136	1,864	—	—	6,897	2,606	7,738	3,272
		일반	—	—	4,118	1,597	—	—	—	—
		스크린	—	—	2,393	824	—	—	—	—
	실외		1,220	8,947	1,235	8,885	1,289	9,122	1,295	8,875
체력단련장			6,064	1,837	6,128	1,959	6,240	2,051	6,449	2,150
에어로빅장			—	—	—	—	—	—	—	—
당구장			22,519	3,774	24,568	4,220	25,317	4,281	25,159	3,419
썰매장			135	1,110	124	931	126	930	122	815,460
무도장			53	18	64	24	66	27	72	32,955
무도학원			1,206	154	1,137	148	1,119	143	1,076	143,371

※ 주 : 시설규모 항목의 수치는 요트장의 경우 요트척수, 빙상장은 빙판면적, 승마장은 마장면적, 수영장장은 수영조 면적, 체육도장은 면적, 골프연습장은 타석수, 체력단련장은 바닥면적, 당구장은 당구대수, 썰매장은 슬로프 길이,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바닥면적을 각각 말함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전국 등록·신고체육시설업 현황

국내 골프장 수는 지난 2000년의 150개소에서 2011년에는 416개소로 177% 늘어났으며, 골프장 이용객수는 같은 기간에 1,200만 명에서 2,690만 명으로 124% 증가하였다. 미국은 14천 명, 일본은 52천 명당 18홀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260천 명당 18홀을 갖고 있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골프장의 홀당 이용객수를 보면, 회원제 골프장이 3,354명인데 반해 대중 골프장은 3,959명으로 회원제 골프장보다 대중 골프장 홀당 이용객수가 더 많았다. 그러나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회원제 골프장 이용인원은 2.2% 감소하였으나 대중 골프장 이용인원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회원제 골프장 이용인원은 1.2% 증가하였고, 대중 골프장 이용인원은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1 연도별 전국 골프장 이용객 현황

구 분	합 계		회 원 제		대 중	
	개소수	이용인원	개소수	이용인원	개소수	이용인원
1993	86	6,334,182	69	5,276,663	17	1,057,519
1994	88	7,060,534	72	5,965,151	16	1,095,383
1995	96	8,063,010	79	6,851,311	17	1,211,699
1996	104	8,772,650	82	7,387,806	22	1,384,844
1997	111	9,516,751	87	7,925,654	24	1,591,097
1998	120	8,175,799	92	6,827,235	29	1,348,564
1999	134	10,370,798	107	8,617,665	31	1,753,133
2000	150	12,005,610	107	9,642,953	43	2,362,657
2001	154	12,902,526	110	10,046,055	44	2,856,471
2002	161	14,117,369	113	10,745,795	48	3,371,574
2003	175	15,115,577	122	11,454,576	53	3,661,001
2004	194	16,179,740	136	12,205,437	58	3,974,303
2005	224	17,766,976	147	12,741,012	77	5,025,964
2006	250	19,653,359	157	13,507,219	93	6,146,140
2007	277	22,343,079	175	14,923,213	102	7,419,866
2008	311	23,982,666	183	15,654,098	128	8,328,568
2009	339	25,908,986	193	16,940,101	146	8,968,885
2010	386	25,725,404	213	16,572,739	169	9,152,665
2011	416	26,904,953	225	16,784,857	191	10,120,096

※ 출처 :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내부자료

또한 레저스포츠시설인 스키장업은 외국인 관광수입을 유발할 스포츠관광의 대표 상품이 되고 있다. 2010년 시즌(2009년 11월~2010년 4월)에 국내 스키장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26만 8천명으로 전년 24만 2천명에 비해 10%가량 증가하였다.

6. 경기 및 오락스포츠서비스업

1) 규모, 연간 영업개월 및 이용인원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2010년도 기준으로 그 규모가 21조5,314억 원으로 전체 스포츠산업의 63.5%를 차지하며,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나 스포츠경기업의 경마, 경륜, 경정의 게임링 및 베팅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3.9%로 스포츠서비스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이 부분을 제외한 여타 스포츠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큰 업종이다.

경기 및 오락스포츠서비스업의 평균 영업 개월 수는 년 간 10개월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인원수는 5억5,468만 명으로 조사 되었다. 종합스포츠시설, 수영장, 당구장 등 기타스포츠시설 이용 인원이 전년 대비 35.4% 증가한 4억4,25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게임링 및 베팅업을 이용한 인원도 2천713만 명으로 나타난다.

표 8-22 경기 및 오락스포츠 서비스업 연간 운영기간 및 이용인원

구 분	평균 운영기간(월)		연간이용인원수(천명)		증감률
	2009	2010	2009	2010	
합 계	10	10	448,725	554,688	23.6
경기장 운영업	12	12	37,825	41,699	10.2
골프장 운영업	11	11	28,691	29,775	3.8
스키장 운영업	4	4	8,924	8,775	△1.7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11	11	326,900	442,520	35.4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7	7	3,717	4,794	29.0
게임링 및 베팅업	12	12	42,668	27,125	△36.4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프로스포츠를 비롯한 관람스포츠분야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산업의 핵심 부문이다.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성장은 스포츠산업 전체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는 스포츠산업의 선도 분야라고도 일컬을 수 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규모가 미흡한 실정이지만 향후 스포츠산업의 산업적 성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경주스포츠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주요 경주스포츠업 이용자수는 2002년 2천225만 명, 2003년 2천361만 명, 2004년 2천256만 명, 2005년 2천306만 명, 2006년 2천406만 명, 2007년 3천318만 명, 2008년 3천349만 명, 2009년 3천461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다 2010년에는 경정장 입장객과 경륜장 입장객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 이용자수가 3천451만 명으로 3%감소하였다.

표 8-23 2002~2010년도 스포츠서비스업 주요업종 이용자 수

(단위 : 만 명)

종 목 \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마장 입장객(서울+제주+김해 경마장)	1,628	1,674	1,541	1,618	1,645	2,045	2,080	2,168	2181
경륜장 입장객(잠실+창원+금정경륜장)	552	565	572	545	564	905	914	943	941
경정장 입장객	45	122	143	191	197	298	343	350	329
합 계	2,225	2,361	2,256	2,306	2,406	3,318	3,349	3,461	3,451

※ 출처 : 체육과학연구원(2011), 2011 한국의 체육지표.

3)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마케팅업은 스포츠마케팅대행업, 스포츠에이전트업, 선수양성업 등으로 시장규모는 2,723억 원이며 스포츠서비스업 가운데 2.1%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은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람스포츠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해외진출선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마케팅대행 및 컨설팅업, 스포츠에이전트업 등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시장을 겨냥한 해외 선진스포츠마케팅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스포츠서비스업분야에서 IMG, ISL, 옥타곤 등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에이전트업에 있어서 관람스포츠의 핵심요소인 우수선수들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표 8-24 체육계학과 학생 및 스포츠산업 관련학과 현황

(단위 : 명)

연 도	대학생 총 수	체육학과 학 생 수	체육계 학 과	스포츠산업관련학과		비 고
				대학	대학원	
1996	1,266,876	23,777	146	1		
1997	1,368,461	25,689	172		5	
1998	1,477,715	28,229	200	3	5	
1999	1,587,667	31,555	200	4	7	
2000	1,665,398	34,891	216	7	7	
2001	1,699,293	38,563	236	8	12	
2002	1,771,738	42,957	245	7	17	
2003	1,808,539	46,653	267	7	17	
2004	1,836,649	44,387	234	7	17	
2005	1,859,639	45,745	234	7	17	
2006	1,888,436	50,042	295	7	18	
2007	1,943,437	53,863	261	6	7	
2008	1,984,043	55,649	283	6	7	
2009	1,984,043	60,882	283	6	7	
2010	2,028,841	63,093	283	6	7	
2011	2,065,451	80,693	358	6	7	

※ 출처 : 교육부(1995~2010), 교육통계연보

스포츠마케팅업은 전문가의 부재로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뒤쳐지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경영 및 마케팅 전문가를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220여개 대학에서 학부 및 대학원과정으로 스포츠산업, 경영, 마케팅전공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전문대학을 포함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358개 체육관련 학과가 개설되었으나, 스포츠산업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은 6개, 대학원은 7개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산업스포츠학과, 스포츠경영전공 등의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었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표 8-25 연도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년 도	회장찬조금	기타찬조금	자체수입	기 타	합 계
2000	144	20	190	16	370
2001	100	13	382	142	637
2002	113	122	276	260	771
2003	133	17	367	429	946
2004	148	18	357	256	780
2005	144	19	456	324	943
2006	179	16	938	160	1,293
2007	161	19	948	264	1,392
2008	171	18	1,143	267	1,599
2009	155	15	941	406	1,517
2010	178	17	938	234	1510*
2011	232	13	1,025	436	1,706

※ 주 : 정부 보조금 제외, 2010년 합계는 이월금액 및 적립금 과실금이 미포함.

※ 출처 : 대한체육회(1988~2011), 대한체육회 예산 및 결산서

국내 아마추어 체육단체는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국고보조나 회장협찬금으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기준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수입 중 자체수입은 평균 45%로 나타났다.

4) 스포츠미디어업(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스포츠미디어업(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2009년도 기준으로 매출액 규모가 1조 2,926 억 원으로 스포츠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이며,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에서는 5.6%로 규모면에서 지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스포츠미디어업은 스포츠신문, 출판과 방송업, 스포츠여행업, 스포츠의학, 스포츠게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스포츠정보업은 위성채널, 인터넷방송 등 매체의 다양성에 따른 스포츠서비스업의 발전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특화된 스포츠 전문 방송채널을 통해 격투기, 유렵축구, 자동차경주 등의 새로운 인기콘텐츠가 등장하고 지상파 3사에 국한된 시장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다양한 채널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스포츠신문 3사의 전체매출은 매년 감소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8-26 스포츠신문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신문사명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2006		356	298	427
2007		377	382	413
2008		280	355	433
2009		283	178	384
2010		282	183	409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전자공시

7.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은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을 포함한다. 2010년도 기준 내수판매 매출은 5조 269십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91.0%의 비중을 차지하여 운동경기용품제조업과 같이 내수판매 위주의 산업으로 판단된다. 기타 품목(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의류의 내수(매출) 비중 역시 32.7%로 신발, 공류, 라켓류 등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 품목(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비중이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스포츠의류의 수입비중이 높은 것은 스포츠의류 시장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 스포츠의류(등산, 골프의류 등)를 남녀노소가 구분하지 않고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8-27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상품별 구성비

(단위 : 십억원, %)

구 분		총액	상품별 비중					
			스포츠음료	스포츠의류	스포츠신발	공 류	라켓류	기타
운동·경기 용품유통업	내수	5,269	0.0	32.7	13.8	4.4	6.9	42.2
	수입	518	0.0	29.0	2.6	2.9	10.2	55.3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8.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8~13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업의 매출이 전체의 49.0%를 차지하였다. 태권도, 수영 등 유아체육의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그 외 연령대 매출은 6.1~16.6% 사이로 조사되었다. 이는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 등이 부족하여 8~13세 연령대에 매출이 집중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교육서비스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므로 각 연령대별 잠재수요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표 8-28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고객유형	7세 이하	8~13세	14~9세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100.0%	6.7%	49.0%	12.3%	9.4%	16.6%	6.1%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제4절 프로스포츠산업

1. 개요

초기의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복싱과 레슬링을 시작으로 1982년 6개 팀으로 구성된 프로야구가 탄생하면서부터 정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5년 프로축구, 1996년 프로농구, 2004년 프로배구가 설립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4개 리그를 중심으로 프로스포츠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에서의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선전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야구의 선전으로 축구, 야구를 비롯한 국내 프로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더욱 증가하였다.

국내 대부분 프로스포츠는 지역연고제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연고제는 일반적으로 홈구장이 위치한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연고제를 의미하며 각 프로리그들은 2천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을 최대의 마케팅 시장으로 판단하고 소속팀의 연고지로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주5일 근무 및 수업, 국민들의 스포츠작간접 참여의식 성장, 미디어 발달 등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프로스포츠의 기능을 더욱 확대시켜 스포츠대중화와 스포츠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 프로스포츠는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및 스포츠산업과의 연계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적 효과, 국민들의 여가선용 기회와 지역화합 도모, 아마추어 선수들의 진로 개척에 중추적 역할로서 프로스포츠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2. 프로스포츠 관람객 현황

프로스포츠 관람객은 야구, 축구, 농구, 배구의 관람객을 합하여 2006년 약 713만명, 2007년 약 886만명, 2008년 약 1,018만명, 2009년 약 1,082만명, 2010년 약 1,048만명, 2011년 1,187만명으로 증가하였다. 2008년부터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4개 프로종목 총 관람인원은 1,000만 명을 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산업의 발전은 프로스포츠가 주도하기 때문에 팬 및 선수 층이 두터운 종목은 프로화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경기장입장료, 구장부대수입, 방송중계 권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프로구단을 비롯하여 아마추어 스포츠단체의 매출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스포츠경기업의 성장은 스폰서십, 라이선싱, 선수관리 및 계약,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마케팅기획 등의 활동을 통해 크게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29 주요 프로스포츠 관중 추이

(단위 : 명)

구 분	야 구	축 구	농 구(남)	농 구(여)	배 구	합 계
2005	3,640,690	2,873,351	1,109,793	169,518	101,436/159,716	7,894,788/7,953,068
2006	3,240,992	2,448,128	1,104,503	106,999	227,954	7,128,576
2007	4,410,340	2,746,749	1,160,113	311,934	234,308	8,863,444
2008	5,636,191	2,945,400	1,191,242	129,835	278,106	10,180,774
2009	6,347,538	2,811,648	1,228,992	156,780	278,019	10,822,977
2010	6,236,626	2,703,323	1,133,841	91,584	317,943	10,483,319
2011	7,154,378	3,030,586	1,154,948	166,227	372,592	11,878,731

※ 프로배구 : 2011년도- 2012년 상반기 / 2011년~2012년 시즌

※ 프로농구(남) : 2012년 '12 4.23 현재 기준(이하 동일)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 경기단체 자료)

표 8-30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 수 및 경기당 평균 관중 수

(단위 : 회, 명)

구 분	야 구		축 구		농 구(남)		농 구(여)		배 구	
	경기수	평균관중	경기수	평균관중	경기수	평균관중	경기수	평균관중	경기수	평균관중
2004년	548	4,813	240	10,123	290	3,626	80	687		
2005년	517	7,042	240	11,972	289	3,840	138	1,228	112/191	906/836
2006년	518	6,257	278	8,806	288	3,835	123	869	163	1,398
2007년	517	8,531	254	10,814	291	3,987	267	1,164	187	1,253
2008년	518	10,881	253	11,642	292	4,080	118	1,100	189	1,472
2009년	549	11,562	256	10,983	296	4,152	130	1,206	189	1,471
2010년	547	11,402	210	12,873	293	3,870	130	705	216	1,479
2011년	548	13,055	283	10,709	292	3,955	115	1,445	210	1,774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 경기단체 자료)

표 8-31 주요 프로스포츠 수용규모 및 좌석점유율

(단위 : 명, %)

구 분	야 구		축 구		농 구(남)		농 구(여)		배 구	
	수용 규모	좌석 점유율	수용 규모	좌석 점유율	수용 규모	좌석 점유율	수용 규모	좌석 점유율	수용 규모	좌석 점유율
2002	21,934	22.0	31,008	47.3	5,039	74.8	3,776	26.7		
2003	21,934	24.7	37,468	24.7	6,298	57.3	3,776	30.6		
2004	21,934	21.9	42,173	24.0	6,283	57.7	3,776	18.2		
2005	21,934	32.1	42,173	28.4	6,283	61.3	3,776	32.5		
2006	20,429	30.6	40,255	21.9	5,899	65.0	3,230	25.6	5,129	16.3
2007	20,429	41.8	40,574	26.7	6,347	62.8	2,756	38.0	5,129	27.3
2008	20,429	53.3	40,574	28.7	6,354	64.2	2,756	39.1	5,089	24.6
2009	20,429	56.6	37,865	29.0	6,354	65.2	2,756	43.8	4,843	30.4
2010	19,675	58.0	36,592	29.4	6,354	60.9	2,066	34.1	5,093	28.9
2011	19,450	65.7	33,314	34.9	6,653	59.5	2,732	52.9	4,598	38.6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 경기단체 자료)

3. 프로스포츠 단체 및 운영 현황

프로스포츠는 1982년 프로야구리그가 출범한 이후 국내 스포츠산업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었다. 2011년 12월 기준 축구, 야구, 농구(남·여), 배구(남·여), 골프(남·여), 권투, 바둑 등 7개 종목에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사)한국야구위원회, (사)한국농구연맹, (사)한국여자농구연맹, (사)한국배구연맹,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재)한국권투협회, (사)한국권투위원회, (재)한국기원 등 10개 프로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종목별로는 축구 15개 구단, 야구 8개 구단, 배구 12개 구단(남 7, 여 5), 남자농구 10개 구단, 여자농구 6개 구단 등 총 51개 구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8-32 프로단체 현황('11. 12월 기준)

종목 구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단체명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사)한국야구위원회	(사)한국농구연맹	(사)한국여자농구연맹	(사)한국배구연맹	
대표	정몽규 회장	구본능 총재	한선교 총재	김원길 총재	이동호 총재	
구단수	16	8	10	6	7	5
구단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유나이티드FC • 울산 현대 호랑이 • 수원 삼성 블루윙즈 • 성남 일화 • 부산 아이파크 • FC 서울 • 광주 FC • 전북 현대모터스 • 전남 드래곤즈 • 포항 스틸러스 • 대전 시티즌 • 대구 FC • 상주 상무 불사조 • 인천 유나이티드 FC • 경남 FC • 강원 F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두산 베어스 • 서울 LG 트윈스 • 광주 KIA 타이거즈 • 대구 삼성 라이온즈 • 부산 롯데 자이언츠 • 대전 한화 이글스 • 서울 넥센 히어로즈 • 인천SK 와이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삼성 썬더스 • 서울 SK 나이츠 • 인천 전자랜드 블랙슬래머 • 대구 오리온스 • 울산 모비스 피버스 • 원주 동부프로미 • 안양KT&G카이츠 • 전주 KCC이지스 • KTF 매직윙스 • 창원 LG세이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 신세계컬레트 • 안산 신한은행 에스버드 • 용인 삼성생명 비추미 • 천안 KB세이비스 • 춘천 우리은행 한새 • 구리 금호생명 레드윙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대한항공 • 대전 삼성화재 • 구미 LG화재 • 천안 현대 캐피탈 • 신탄상무 • 수원 한국전력 • 서울 우리캐피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GS칼텍스 • 대전 KT&G • 구미 한국도로공사 • 수원 현대 그린폭스 • 천안 흥국생명

구분 \ 종목	골프		권투		바둑
단체명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사)한국권투인협회	(사)한국권투위원회	(재)한국기원
대표	전윤철 회장	구자용 회장	염동균 회장	홍수환 회장	허동수 이사장

1) 한국프로축구연맹

(사)한국프로축구연맹(Korea League)은 1983년 2월 대한축구협회 내에서 슈퍼리그위원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당시 슈퍼리그위원회는 1983년 5월 슈퍼리그라는 명칭으로 프로리그를 시작하였는데 그때까지 다각적으로 프로화를 모색했던 한국축구의 전폭적인 지지로부터 출발한 슈퍼리그는 프로 2팀(할렐루야, 유공), 실업팀 3팀(포항제철, 대우, 국민은행)으로 출범하였다. 프로화성화를 위한 프로축구위원회 출범(1987), 심판전임제도 실시(1987), 2군리그 시행(1990, 한해만 실시), 경기당 1만명 이상 평균 관중 기록(1991), 한국프로축구연맹 출범(1994), 완전지역연고지제도 실시(1996), 프로축구 총 관중 수 200만 돌파 및 K-리그 프로축구 명칭 확정(1998) 하는 등 국내 프로축구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0년대는 한국축구가 국제적 무대를 배경으로 활약한 시기로 국내 우수선수들이 대거 진출하는 성과를 보였다. 게다가 각 구단의 유소년클럽 운영이 의무화되고, 시민구단과 관중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한국축구의 밝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관중수의 추이에서만 봐도 확인이 된다. 2002년 FIFA 월드컵 이후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동년 K-리그에 총 12만 3천여명이 입장, 역대 일일 최다관중수를 기록하였고, 2008년에는 2,945,400명, 그리고 2010년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역대 1경기 최다 관중 60,747명을 기록하였다. 2011년에는 경기당 평균관중수 10,709명, 총 관중수 303만 명을 기록하여 전년도 대비 12.1%p 증가하였다.

2) 한국야구위원회

1981년 12월, (사)한국야구위원회(Korea Baseball Organization)가 창립된 이후 1년 후 3월에는 (사)한국야구위원회로 법인허가를 받았다. 1981년 고교 및 대학야구와 실업야구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해로 삼성, 롯데, MBC, OB, 해태, 삼미 등 6개 구단을 중심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에게 밝고 건강한 여가선용을” 이란 기치아래 프로야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82년 3월, 첫 경기개최를 시작으로 프로야구시대가 열렸는데 지역연고제 도입, 홈 앤드 어웨이제 실시, 일년 시즌의 장기 레이스 등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현대적 프로스포츠의 운영방식을 최초로 접목시켰다.

프로야구 개막 초기만해도 일년 동안 총 240경기에 불과했지만 28시즌을 넘기 지금은 총 549경기가 벌어질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팀의 수도 최초로 6개 팀에 불과했으나 1986년 빙그레(현재의 한화구단)가 충청권을 연고로 제7구단을 창단했고, 1991년 쌍방울이 창단, 2000년 SK 와이번스 창단 이후 2010년 12월 현재 8개구단(한화 이글스, 넥센 히어로즈, LG 트윈스, KIA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 두산 베어스, 삼성 라이온즈, SK 와이번스)이 있다. 야구 관중수를 살펴보면 개막해인 1982년에 1,438,768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도에는 7,154,378명으로 해마다 관중 수 최고의 흥행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는 한국야구국가대표팀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우승과 2009년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16개국 중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야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기가 국내프로야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한국농구연맹

1995년 10월 한국농구연맹설립준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1996년 10월 한국농구연맹을 창립, 그해 11월 문화체육부로부터 (사)한국농구연맹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다음 해인 1997년 2월 프로농구 첫 리그를 시작하였다. 프로농구는 어느 종목과는 달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일찍부터 다양한 선수선발 방식과 규정 및 규칙을 통해 다이내믹한 경기진행과 용병선수들을 통한 화려하고 재미를 유도하는 경기를 운영하였다. 최근에는 귀화혼혈 선수들과 국내 신인선수들의 활약 그리고 유소년 농구캠프를 통해 한국농구선수들의 경기력이 더욱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농구연맹은 미국식 스포츠마케팅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국내농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농구의 국민적 관심은 아래 남겨 프로농구 관중수에서는 확인된다.

4) 한국배구연맹

2004년 4월, 프로배구를 출범하기 위해 한국배구연맹창립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그해 10월 한국배구연맹이 창립총회를 갖고면서 다음 달인 11월,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었다. 2005년 2월, 한국배구연맹이 출범되었고, 동월,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 실시와 KT&G V-리그가 개막되면서 배구 또한 프로화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배구에 대한 팬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도 시즌 관중수 317,945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역사가 짧은 프로리그로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5) 한국프로골프협회

1958년 한국프로골프선수권대회,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가 개최된 후 1963년 프로골프회가 창설되었다. 그러던 중 1968년 11월 12일, 문교부의 정식 설립 인가를 받은 후 현재 한국프로골프협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1976년에는 국내 최초 스폰서 경기인 “오란씨오픈골프대회”가 개최되는 등 다양한 골프대회가 국내에 개최되었고, 이후 레슨프로제도 도입(1983), 골프코치스쿨 및 세미프로 선발전 실시(1988), 2부 투어대회 출범(1999) 등 골프지도와 우수골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들을 조성하였다. 2005년에는 SBS Korean Tour가 공식 출범하면서 PGA투어, 유러피언투어, 일본골프투어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내 골프계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한일 프로골프 국가대항전은 양국 대표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비교하고, 세계에 국내 우수선수들의 경기력과 팀을 동시에 선보이는 대회로 자리잡고 있다.

6)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1978년 한국프로골프협회 내 여자프로부가 창설되었다. 동년 프로테스트를 통해 한국여자프로골퍼 8명이 탄생되었으며 국내에서 여자프로골프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1988년 2월 2일,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분리되면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로 공식 창립되면서 1991년 문화체육부에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로 등록되었다. 경기분과위원회 창설(1991), 경기기록 전산화 도입(1992), 협회내규 제정(1993), 준회원 선발제 신설(1998), 프로입문 나이제한 철폐(1999) 등 제도적 구축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무대에서 한국여성프로골퍼들의 우수한 실력과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7) 한국기원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1954년 1월 8일, 바둑문화의 창달과 보급, 전문기사의 기예 향상을 목적으로 사단법인체로 공식 출범하였다. 1967년 8월, 월간 『기계』(월간 『바둑』의 전신)를 창간, 출판사업을 통해 바둑문화 창달을 모색하였고, 1968년 8월, 종로 관철동에 한국기원 회관을 건립하였다. 1969년 3월, 이후락 총재 취임 후 1970년 4월, 재단법인체(서울지법 제34호)로 변경하였다. 1994년 흥익동으로 회관을 이전하여 한국바둑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건전한 생활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4. 프로스포츠 정책 지원

프로경기에 참여하는 프로구단은 대부분 대기업을 구단주로 하는 영리 단체로 정부예산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프로스포츠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여 한층 강화된 국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2011년 정부의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프로스포츠진흥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다. 협의회를 통해 프로스포츠 현안에 관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경기장 장기임대, 아시아선수 쿼터제 도입, 프로선수 도핑 검사, 국방부의 국군체육부대 종목 감축, 프로스포츠 관중중대 방안 등을 토론했으며 선진적인 프로스포츠 발전안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심의·논의하고 있다.

둘째,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이다. 경기장 장기임대를 구현하고(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문화부), 경기장 수익시설 설치기준을 완화(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국토부)시키며 노후 된 경기장을 개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문화부)하였다. 특히 프로스포츠 경기장 관련법령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과 수익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였고, 지자체 소유의 프로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익계약으로 25년 이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셋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프로스포츠 발전 도모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수익금의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를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10%를 주최단체에 배분하고, 주최단체지원금 집행지침 제8조(지원금의 배분 및 집행단체)를 통해 주최단체는 배분받은 지원금을 해당 아마추어단체에 15% 이상 배분하도록 하였다. 2011년 주최단체 지원금 배분액은 총 542억원으로 축구 315억원, 야구 101억원, 농구 74억원, 여자농구 42억원, 배구 8억원, 여자골프 0.9억원, 골프 1억원이며, 유소년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배분비율은 60%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제5절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1. 스포츠산업 정책의 제도적 기반

국내 스포츠산업은 1980년대에서 1990년 초반까지 체육산업이라는 용어로 불려졌다. 체육시설업체와 용품제조업체 그리고 체육관련 각종 서비스업체가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로 운영되었으며 정부로부터의 정책적 지원은 미미하였다. 정부가 스포츠산업을 정책대상으로 파악하고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 특히, 한·일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과 박지성, 김연아, 최경주, 박세리, 김미현, 박찬호 등 한국선수들의 국제적인 활약이 어우러지면서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정부도 스포츠산업을 보다 과학적으로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하고 인력·기술·정보 및 제도적 기반마련 등의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비교적 소외되어왔던 스포츠산업 부문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을 펴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제개편을 통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체육국내 신설하고 스포츠산업의 진흥의 정책적 기반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1) 스포츠산업 정책의 변천

종전까지 스포츠는 여가선용을 위한 소비활동의 대상으로 비생산적인 측면만 부각되었기 때문에 경제활력과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이라는 인식을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 환경 하에서 스포츠는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적절한 투자를 통한 이윤창출과 함께 첨단산업,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국가 산업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가. 1990년 이전의 육성 정책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등장한 것은 1965년 6월 14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법률 제1698호)으로 체육용구의 생산장려와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보조 및 면세 규정이 마련되면서부터

터다. 동법 제14조의2는 “국가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각종 운동용구의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1966. 2. 7. 대통령령 제2404호)에서는 “운동용구 생산업자에 대한 용자의 알선과 외국의 운동용구 생산기술의 도입과 보급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용품업의 육성과 외국 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 발전을 추진하였다.

또한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체육시설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시설 소요 경비가 1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규격이 국제 공인 기준에 적합한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민간체육시설업 자체의 육성이라기보다는 부족한 국제경기대회 시설의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82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체육용구와 기자재”로 생산 장려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용구 생산우수업체를 지정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 설치 자금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융자 제도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하고 1991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6개 체육용구생산 업체에 9억 7,900만원이 지원되었다.

1989년 3월 31일에는 문교부, 보사부, 교통부, 농림수산부 등에 분산 관리되어 효율적인 관리와 육성이 곤란하였던 체육시설 관련업무를 일원화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민간 체육시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나.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는 체육용구의 품질수준향상과 체육활동에 필요한 용구의 적정한 공급을 목표로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전시회 개최 지원, 국산 체육용기구 구매·사용을 적극 장려하였으며, 대한체육회와 한국체육과학연구원으로 하여금 품질향상 및 표준화 기술지도를 하게 함으로써 공인 제품의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우수체육용구업체 지정 대상과 융자규모를 확대하여 스포츠용품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민간스포츠시설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체육시설 설치·운영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1996년 60개 스포츠시설업체에 51억8,000만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8~2002)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처음으로 ‘스포츠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스포츠를 산업적 시각에서 다루었다. 이 계획은 민간체육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용품업체에 대한 지원, 우수생활 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산업적 지원, 경륜·경정 등 여가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소비자의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라. 스포츠산업육성대책(2001)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21세기 핵심산업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2001년 8월 「스포츠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스포츠자원의 상품가치 개발, 스포츠서비스업 중점 지원,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지식정보 기반 구축,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장·단기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스포츠용품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 : 스포츠용품인증제도 시행, 우수체육용구 생산장려 및 융자지원 확대, 국제스포츠산업박람회 정기 개최
- ② 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선 :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체육시설 경영 전문인력 양성
- ③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스포츠서비스업 집중 육성 :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정보화 지원, 스포츠마케터 등 전문인력 양성
- ④ 장기발전과제 : 스포츠산업육성재단 설립, 스포츠산업지원법령 제정

마. 스포츠산업 비전 2010(2005)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국의 직제개편을 통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2004년 11월 신설하고 스포츠산업을 21세기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스포츠산업 비전 201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스포츠산업을 지원하여 국가 전략 산업의 하나로 성장시키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동 발표 주요내용은 스포츠산업 진흥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향후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 분야를 집중지원하는 태세를 마련하고 있다.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스포츠산업 진흥 추진기반 구축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정,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조직 설립,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대상·스포츠서비스업 공모전 확대,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체계 구축
- ② 고부가가치 스포츠용품 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 : IT 활용 첨단 스포츠용품 개발, 국제수

준의 품질인증제(KISS) 시행 및 해외 유명 인증 획득 지원, 투자유인 및 마케팅 촉진

- ③ 레저스포츠산업 기반 확대 : 레저스포츠인구 1,000만 대비 제도 완비,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등으로 시설확충, 값싸고 접근이 용이한 대중골프장 확충
- ④ 프로스포츠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 프로스포츠 마케팅 역량 제고, 야구돔구장 건설 지원 및 프로경기 단체의 운영여건 개선, 기존 국제대회 육성 및 전략종목 국제대회 유치

바. 2009~2013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2008)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강국에 걸맞는 스포츠산업 선진국 도약’을 비전으로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표적 융·복합 산업으로서 신성장 동력화’, ‘선순환구조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3대 목표 아래 5대 추진전략 및 15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선진국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 ① 스포츠용품 대표 브랜드 육성 : 중소 브랜드 유통망 및 내수 기반 확대, 10대 글로벌브랜드 육성 및 수출 촉진, 인증 지원체계 확립 및 상품화 지원
- ② 스포츠 융합 신서비스 창출 : 미래형 신규 스포츠콘텐츠 기술개발, u-스포츠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활성화, 모태펀드 조성으로 마케팅회사 육성 및 창업 지원
- ③ 프로스포츠 경쟁력 제고 : 프로구단 지역연고제 및 경기장 장기임대 도입, 시장확대를 위한 아시아리그제 등 도입, 프로구단 마케팅 및 경영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④ 지역 스포츠산업 수요창출 및 인프라 구축 : 한류 스포츠 관광상품 육성, 지역 스포츠관광 인프라 조성, 민간 체육시설 경영 활성화
- ⑤ 스포츠산업 진흥기반 구축 : 스포츠산업 진흥 조직체계 구축, 스포츠산업 통합정보망 구축,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2) 스포츠산업 관련조직의 변천

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관련 조직

① 설치 배경

정부는 스포츠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임을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적 대상에서 소외되어왔던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자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내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006년 초 스포츠여가산업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의 팀제로 전환하는 개편을 맞이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스포츠산업팀으로 개칭하고 담당업무를 스포츠산업에 한정하여 업무의 집중도를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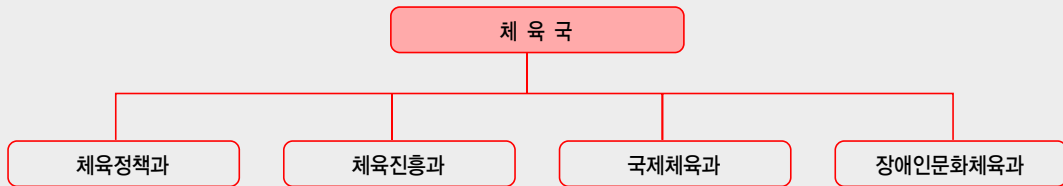


그림 8-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조직도

스포츠산업팀은 스포츠산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국민의 스포츠관련 소비 증대에 대비함과 더불어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스포츠산업을 국내 경제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성장기반을 조성을 실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② 주요업무

정부가 스포츠산업을 전담할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주40시간 근무제 확산 등 새롭게 제기되는 스포츠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포츠산업을 21세기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였다.

특히 스포츠산업의 근간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국가기술자격제 “스포츠경영관리사”를 시행, 스포츠마케터 등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산업 정책 추진기반인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스포츠산업진흥법에는 스포츠산업의 종합적·체계적 기틀마련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용어정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육성지원 의무규정, 거점조직 설치, 전문인력 양성공급 및 육성관련 시책 등이 규정되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스포츠산업진흥시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산업의 정책 및 지원대상을 기존의 전통적 스포츠산업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정책적 대상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왔던 신종 여가스포츠산업도 포함시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대상으로 하여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신종여가스포츠는 그 활동인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상당 부분의 장비가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즐기기에 비용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안전검사를 획득한 질 높고 저렴한 장비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고 고품질의 국내브랜드를 외국에 수출하여 외화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레저스포츠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패러글라이딩 장비는 국내업체가 유럽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가이미지 제고와 외화획득에도 큰 몫을 하고 있어 향후 신종여가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경우 국내 스포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종여가스포츠분야와 신종여가스포츠분야 산업에 걸린 각종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

이다. 관광과 관련된 레저스포츠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여가체육의 개념정립 등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래프팅장·활공장 등 신종 레저스포츠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레저스포츠 소비자와 관련업체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도 관련 단체 등과 적극 협의 추진하는 등 레저스포츠 관련사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관련 조직

①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과학·산업연구실

정부는 스포츠산업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스포츠산업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01년 9월 30일 기존의 체육과학연구원 정책개발연구실과 시스템개발팀에서 담당하던 스포츠산업 관련 업무를 별도의 전문성을 지닌 스포츠산업연구실로 확대 개편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업무 및 연구개발을 전담하도록 했다.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연구실의 규정상 업무내용은 스포츠산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개발 및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기획업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각종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하는 것과 스포츠용품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증관련 업무를 지원·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육과학연구원의 조직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스포츠산업연구실은 스포츠용품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증관련 업무를 주로 전담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험소를 설치·운영하였다. 2011년부터 스포츠산업연구실이 스포츠과학·산업연구실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표 8-33 체육과학연구원의 스포츠산업 연구 조직구조 변화

연 도	1999	2000	2001~2002	2003~2010	2011~2012
연구조직 (팀/실)	정책개발팀 생활체육팀 전문체육팀 시스템개발팀 정보전산팀 국민체력센터 (5개팀 1센터)	정책연구팀 전문체육팀 시스템개발팀 정보전산팀 (4개팀)	정책개발연구실 전문체육연구실 정보전산연구실 스포츠산업연구실 (4개연구실)	정책개발연구실 스포츠과학연구실 스포츠산업연구실 (3개연구실)	스포츠 과학/산업 연구실 정책개발 연구실 (2개 연구실)

② 스포츠산업본부 신설

스포츠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공단내 스포츠산업부를 2005년 2월 신설하고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관련

업계를 지원하고 스포츠산업의 신규 영역을 창출하여 산업 규모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적 틀을 준비하였다. 스포츠산업부의 주요업무는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제도 개발과 우수 체육용구, 기자재 생산 및 장려와 용자지원, 체육시설업 용자지원, 스포츠서비스업 용자지원 등 스포츠산업체를 직접 지원하며 스포츠박람회 개최 및 참가업체 지원, 우수 스포츠산업체 마케팅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스포츠산업체를 지원한다. 한편 스포츠산업대상 및 스포츠서비스업사업공모전을 통해 업체를 격려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더불어 신규사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 및 운영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업무를 통하여 스포츠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스포츠용품업 지원정책

1)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가. 인증제의 개념 및 필요성

정부는 국내 스포츠용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용품 인증제도는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운동용품에 대하여 품질과 운동기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제품을 공인하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의한 무역자유화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산업, 무역, 금융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산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국에서는 WTO의 무역기술장벽(TBT) 규제원칙을 준수하면서 표준·인증제도를 자국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른바 표준, 기술, 무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준·인증제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유인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나.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사업의 구성

스포츠용품 인증사업은 스포츠용품 인증제도의 도입, 제품의 과학적 시험을 위한 국가공인(KOLAS) 시험소의 설치 운영, 스포츠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ISO 인증기관 지정 운영, 스포츠산업 정보와 자료를 서비스하는 인증자료센터의 설립 운영 등 네 분야로 구성된다. 스포츠용품 인증제 사업의 구성도는 <그림 8-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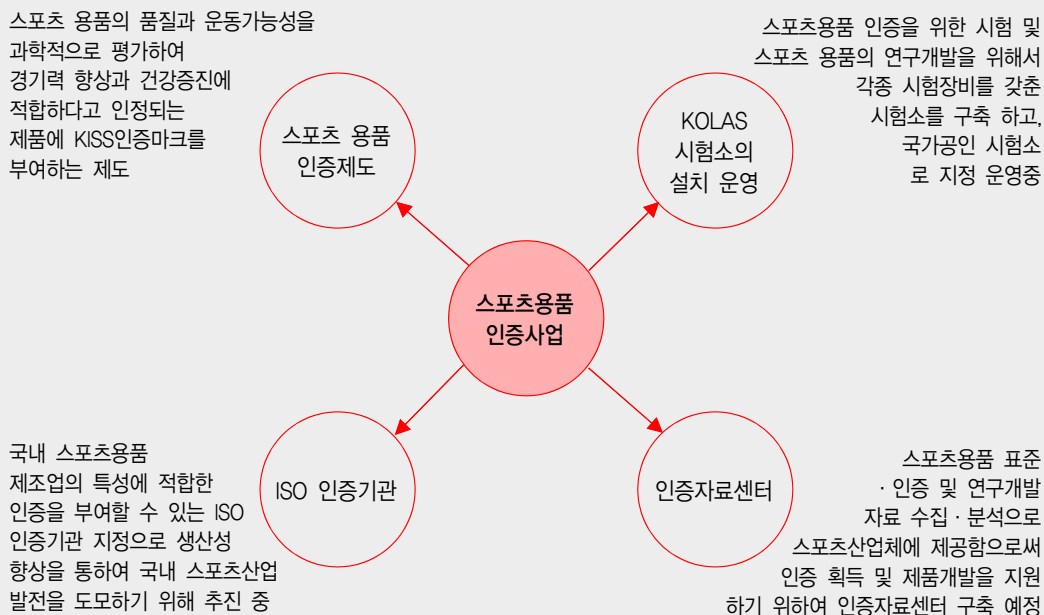


그림 8-3 인증제사업 구성도

다. 인증제사업 추진현황

정부는 국내 스포츠용품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총 90.2억원을 투자하여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1년 말 현재까지 학교체육시설 등 78종의 인증규격을 개발하였으며, 인증 전산시스템 개발과 인증마크(KISS)를 제정하여 스포츠용품인증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험·검사를 위한 장비(만능재료시험기, 삼차원측정기, 로크웰경도기 등 84종, 2011년말 현재) 도입을 통해 스포츠용품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2001년부터 인증제 운영 전반의 컨설팅, 인증서류, 인증패, 홍보물 제작 등 인증제 도입 기반 마련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을 통한 인증사업의 기반 조성, 국내 공인 시험·검사기관 지정,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인증기관 지정과 공인시험·검사업무 등을 시행하였다.

표 8-34 스포츠용품 인증제도를 위한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3까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금 액	90.2	25	10	8.5	7.2	7.5	5	9	9	9

※ 출처 : 체육과학연구원(2011), 내부자료

표 8-35 인증 시험 · 검사장비 도입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품 목(총 119개)		
2001	4	· 동적재료시험기(INSTRON) · 정밀충정선반(제일정밀)	· 삼차원측정기	· 로크웰경도시험기
2002	3	· 브리빌경도기	· 정적재료시험기	· 정적재료시험기
2003	17	· 회전굽힘피로시험기 · 반발탄서시험기 · 공구입체현미경 · 하중측정시스템 · 광택기 · 커팅기 · Autoclave System	· 공기압축측정기 · 자동비중계 · 영상분석시스템 · 영상분석시스템 · 진공백 누출검사기	· 디지털소음계 · 비틀림시험기 · 온도조절챔버 · 성형기 · 6축하중측정기
2004	23	· 항온항습기(Dry Oven) · 전자저울(Electronic Balance) · 인장시험편조기 · 유압액추에이터 · 수평충격시험기 · 마찰계수측정장비 · 비커스경도기 · 속도측정기	· 혼합기(Mixer) · 고무경도계 · 긴변형신장율기 · 스포츠인증자재스트레인측정시스템 · 낙하식충격시험기 · 비파괴검사기 · 충격시험용임팩트업 · 복합재료시험절단기	· 로타테가름시험기(Sieve Shaker) · 온습도계 · 디지털오일로스코프 · 초음파검사기 · 낙하식반력측정기 · 자료처리및영상녹화기기 · 매트반발력시험기
2005	13	· 사피충격시험기 · 비접촉식변위측정기 · 복사용품 충격시험기 · 진자형마찰시험기 · 자전거에르고미터내구성시험기	· 인라인스케이트내구성시험기 · 스윙분석기 · 인체두부모형 · 머리모형충격흡수시험기	· 마찰시험기 · 인라인스케이트측정기 · 충격시험기온도조절챔버 · 전자저울
2006	19	· 속도측정장치 제어보드 · 헤드관성측정기 · 로프트 · 라이벤딩기구 · 클럽헤드각측정기 · 진동수측정기 · 런치모니터(골프관련) · 사이클운동량측정기	· 정밀충격및가공기기 · 클럽관성측정기 · 벨트센더 · 헤드-샤프트분리기 · 충격전달용 고강성 스프링 · 스포츠화 피로시험기	· Golf Projectile Dynamic · 무게중심측정기 · 스윙웨이트측정기 · 그립조립기구 · 자전거측정장비 · 자전거 시험모듈
2007	19	· 골프클럽 내구성시험기 · 골프클럽 성능측정시스템 · 자전거부품 시험모듈 · 퍼팅 시뮬레이터 · 흡수하중측정장치 · 축구공구름길이측정기 · 축구공속도측정기	· 공압용 콤프레서 · 스포츠바닥재 시험기 · 체중분포분석기 · 기상관측기 · 이동형 인조잔디 충격시험기 · 인조잔디회전저항측정기	· 음향식 반발높이 계측장치 · 표면형상 측정기 · 경사형 축구공 발사시험기 · 하중편차측정기 · 샤프트토크측정기 · 골프스윙분석기
2008	8	· 휴대형 다기능 측정기 · 인조잔디감속모듈 · 육상트랙 성능측정기	· 자전거구동저항측정기 · 골프공 역학측정시스템 · 자전거부품 충격시험기	· 자전거프레임배열측정기 · 스포츠 다기능 측정기
2009	2	· 공랭식 스크루 공기압축기	· 자전거제동주행시험기	
2010	7	· 환경측정기 · MEMS 시그널컨디셔너 · 축구공 수분흡수율 측정기	· 3d 구조해석용 컴퓨터 · 파워측정기	· 가속도측정기 · 궁도시험기쇼어경도측정기
2011	4	· 사이클링 시뮬레이터 · 바닥재 내구성 시험기	· 사이클 피팅시스템 시험기	· 골프 퍼팅동작 분석기

※ 출처 : 체육과학연구원(2011), 내부자료

2005년에는 그간 추진해온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기반 구축사업을 바탕으로 스포츠용품 품질 인증 마크인 KISS 마크를 복싱관련 3개 업체의 3개 품목에 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1년말 까지 신도상사, 프로사이클 등 44개업체의 복싱글러브, 자전거 프레임, 인라인스케이트 등 99개 모델에 대하여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였다.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 받은 업체는 3년간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국내 스포츠산업체의 수출판로 개척과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2009년부터 스포츠용품 해외인증획득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2년간 엑스골프 등 26개 업체에게 CE, ETL, TUV 등 36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라. 향후 추진과제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육용기구 관련 표준과 인증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체육용기구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가 있어야 한다. 법제도화에는 새로운 법의 제정, 기존 관련법의 활용, 단체 내규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법제도화 방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를 활용하고 그에 따른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제도 등 유사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체육용기구 인증제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시험과 검사가 필수적이다. 공인 시험·검사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전문기술 요원, 시험장비 뿐만 아니라 시험 환경조건, 시험 결과의 숙련도, 시험 실적, 시험·검사업무의 규정화 등이 준비되어야 하므로 연차적으로 공인 시험·검사 기관화를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체육용기구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규격 개발이 필요하므로 국내외 표준, 인증 관련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규격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들 자료를 스포츠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화하고 필요할 경우 표준,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할 표준, 인증 관련자료 센터화가 요구된다. 이렇게 되면 스포츠산업체와 상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어 전반적인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스포츠산업 박람회 개최

가. 개최 목적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인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스포츠용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스포츠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나. 2011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개최

2001년 5월1일부터 5월6일까지 올림픽공원 한얼광장에서 국내·외 28개국 139개 스포츠용품 업체가 참가하여 제1회 서울국제올림픽(스포츠산업) 박람회(International Olympic Fair Seoul

2001)를 개최하였다. 이 박람회는 국제스포츠용품 전시회, 국제올림픽기념품 전시회,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로 구성되었다.

국제스포츠용품 전시회에는 11개국 139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28개국 1,272명의 바이어가 참가하였다. 박람회를 통해서 진행된 스포츠산업 관련 상담건수는 850건에 이르고 그 중 2002년까지 25건(12개 업체) 1,736만 달러(220억원)의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에는 IOC 문화교육 및 수집가분과위원회의, WFSGI(세계스포츠용품산업연맹) 이사회 및 3개 분과위원회의, WFSGI 이사회 아시아지역 특별회의를 비롯한 각종 학술세미나가 동시에 개최됨으로서 이론과 실재를 병용한 종합 박람회로 개최되었다.

2003년 박람회에는 11개국 182개 업체가 참가하여 내수부문에 1,479건과 수출부문에 190건의 상담실적과 내수 25,030백만원과 수출 86,612천 달러의 계약실적을 기록하였다.

2004년에 들어서는 박람회의 명칭을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eoul International Sports & Leisure Industry Show)으로 개칭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형식으로 진행 주체의 변화를 시도했으며 그 내용도 내실화를 꾀했다. 2004년 박람회에는 16개국, 190개 업체가 참가하여 내수 3,566건과 수출 418건의 상담과 내수 15,667백만원, 수출 191,923천 달러의 계약을 성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 박람회는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업체는 국내 134개 업체와 해외 69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203개 사가 참여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609부스, 해외업체가 170개 부스를 사용하여 2004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2006년 박람회에는 2월 23일부터 일정을 앞당겨 2월 26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어 212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내수 부문에 4,325건과 수출부문에 450건의 상담실적과 내수 28,303백만원과 수출 93,350천달러의 계약실적을 기록하였다.

2007년 박람회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업체는 국내 143개 업체와 해외 73개 업체를 포함해 총 216개 사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608부스, 해외업체가 142부스를 사용하였다.

2008년 박람회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고, 참가업체는 국내 148개 업체와 해외 76개 업체를 포함해 총 224개 사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616부스, 해외업체가 140부스를 사용하였다.

2009년 박람회는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고, 국내 193개 업체와 해외 71개 업체 총 264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682부스, 해외업체가 138부스를 사용하였다.

2010년 박람회는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었고, 국내 237개 업체와 해외 72개 업체 총 309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765부스, 해외업체가 140부스를 사용하였다.

2011년 박람회는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업체는 국

내 230개 업체와 해외 개 81업체 총311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810부스, 해외업체가 142부스를 사용하였다. 박람회의 규모, 참가국, 바이어 내한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표 8-36 2011 서울국제스포츠박람회 전시규모 현황

구 분	국 내		해 외		계
	업 체	부 스	업 체	부 스	
2011년	236개사	810부스	75개사	142부스	311개사 952부스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2011). 2011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표 8-37 지역별 해외 바이어 참가비율(38개국)

구 분	아시아	유럽	북미	아프리카	북미	중동	중남미	오세아니아	기타
비율	60.4%	11.3%	15.4%	2.2%	15.4%	0.8%	0.5%	1.6%	7.7%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2011). 2011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표 8-38 품목별 참가비율

계	피트니스/헬스	아웃도어/캠핑	수중/수상스포츠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바이크/보드	기능성 신발	팀/인도어 스포츠	기관 및 단체	기타 스포츠 레저용품
100%	18.7%	17.7%	23.8%	12.5%	10.6%	3.5%	6.1%	2.6%	4.5%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2011). 2011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표 8-39 상담 및 계약실적

구 분 (년도/증감)	내 수		수 출		비 고
	금액(백만원)	건수(건)	금액(천달러)	건수(건)	
2004	15,667	3,566	191,923(220,711백만원)	418	
증 감	△37.4%	141.1%	121.5%	△120.0%	
2005	32,287	4,567	92,252(106,090백만원)	433	
증 감	106.1%	28.1%	△51.9%	△3.6%	
2006	28,303	4,325	93,350(백만원)	450	
증 감	△12.3%	△5.3%	1.2%	3.9%	
2007	26,940	4,129	94,710(백만원)	472	
증 감	△4.8%	△19.7%	1.4%	4.8%	
2008	25,890	4,216	95,840	480	
증 감	△4.0%	2.1%	1.2%	1.7%	
2009	25,553	4,325	86,448	468	
증 감	△1.31%	2.1%	△9.79%	△2.5%	
2010	26,549	4,501	96,995	486	
증 감	3.9%	4.1%	12.2%	△3.8%	
2011	28,919	4,725	125,300	526	
증 감	8.9%	5.0%	29.1%	8.2%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2011). 2011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다. 스포츠산업박람회 종합 평가

2011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은 25개국 311개사 952개 부스가 설치되어 2010년 309개사 905부스에 비해 참가업체수는 0.6% 증가, 부스규모는 5.2% 증가하였다. 수상·수중 스포츠와 아웃도어스포츠가 감소하였고, 헬스 및 피트니스와 기능성 신발품목이 증가하였다. 우수해외박람회와 차별화 전략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헬스 및 피트니스 부문은 매년 제품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참가업체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박람회의 특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참가업체 규모는 2010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이전보다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참가하였고 신규 출품 제품도 다양화되었다. 특히, 자전거, 아웃도어업체들의 참여 증가로 인하여 관련업계의 관심이 증가되었다. 해외 바이어 부문에 있어서 일본, 중국, 홍콩 등 25개국에서 보다 구매력 있는 바이어가 내방하여 상담이 주어졌다. 특히, 참가업체가 직접 추천 바이어를 적극 유치, 초청하여 실질적인 구매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2011년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은 국내 최대 스포츠레저산업 전문 전시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전시규모 성장에 따른 중소 스포츠용품기업 유통망 확장에 기여하였다. 더불어 아웃도어 전문전시회인 'Preview Outdoor Show' 흡수 통합으로 전시회의 지속적 확대개최 및 전시콘텐츠 다양화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동종 군소 전문전시회 통합 및 최신 트렌드 품목 유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SPOEX 박람회는 스포츠용품분야 UFI(국제전시연맹) 인증을 획득으로 국제전시회로써 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05년~'11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식경제부 '유망전시회' 선정(총 5회)될 정도로 많은 성장을 하였으며 참가업체 지원 및 전시회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바이어·마케팅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술행사, 사업설명회, 패션쇼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라. 개선방향

스포츠산업박람회는 일천한 역사로 인해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미약한 면이 있지만 국내 스포츠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박람회라고 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유사 스포츠산업박람회의 통합 또는 동시개최를 통해 박람회 부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신제품을 적극 유치하는 등 전시품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대형 박람회와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피트니스, 아웃도어, 인라인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박람회의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으며 무역 상담을 위한 소음규제, 외국어 통역서비스 제공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급 비즈니스 전문전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으로 박람회의 질적이며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적 기구 등과 연계하여 전시를 갖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해외 국가관

을 활성화하고 박람회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아웃소싱을 확대한다면 좀 더 성공적인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시회 참가 동기 중 국내시장 개척(25%)이 해외시장 개척(6%)보다 높아 국내바이어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으나, 국제전시회의 위상공고화를 위해 내방 해외바이어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규모면에서 중국, 미국, 독일 등 세계 유명 전시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이 사실이며 종목별 전시관의 구성도 미흡한 편이다. 또, 인지도가 높은 해외 대형 종합브랜드 업체의 참여도 미미한 점, 헬스 및 피트니스 종목에 편중되어 종합전시회로써의 신제품 및 전시품목의 다양성이 부족한 점, 참관객 중 실질구매 상담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아직은 미미한 것 등은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기금용자 확대

가. 사업 개요

국내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생산장려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생산장려 품목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용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생산장려 체육용품 및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생산을 장려하는 체육용구·기자재는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 학교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 및 기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 등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장려 체육용구를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업체를 지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원자재 구입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수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생산장려품목 및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절차는 <그림 8-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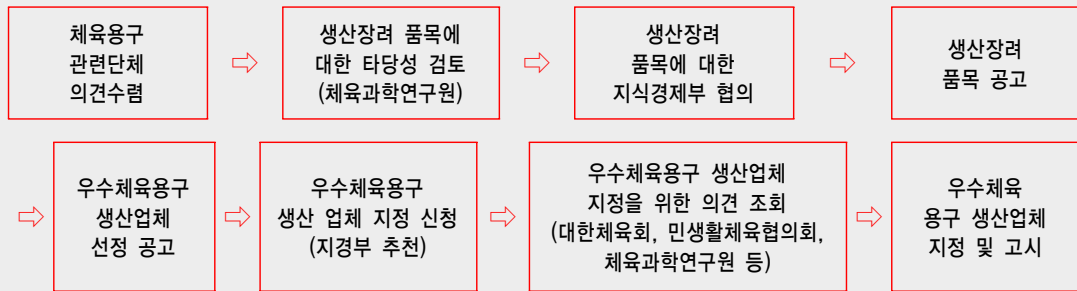


그림 8-4 생산장려품목 및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절차

2011년 12월 현재 생산장려 품목으로 지정된 체육용구는 모두 578개 품목이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는 112개 업체이다. 생산장려품목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현황은 (표 8-40), (표 8-41)와 같다.

표 8-40 생산장려 체육용구 지정 현황

종목(분야)	품 목
검 도	죽도, 목검, 호구, 도복, 전통도검 (5)
게 이 트 볼	게이트용구 (1)
골 볼	공, 골대 (2)
골 프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장갑, 골프채, 골프하드커버, 골프카트, 퍼팅연습기, 골프연습용구, 그린볼과 티, 만능클럽, 볼하우스, 골프그립, 골프화, 그린경사측정기, 스윙파워측정기, 거리측정기 (16)
공 수 도	경기용글러브, 샷보대, 마우스피스, 도복, 보호대(가슴, 팔, 정강이, 발, 안면, 몸통), 심판깃발, 심판화 (12)
국 무 도	코브라장갑, 치마, 보호대(몸통, 발목, 발등, 머리, 낭심, 정강이), 암미트(타켓), 막대미트(타켓), 만능미트(타켓), 스폰지 검 (12)
궁 도	화살(카본화살, 전통화살), 활(카본활, 전통활), 화살통, 각지 (6)
그라운드골프	홀 포스트, 클럽, 공 (3)
근력단련기구	기계식체력단련기구, 근력단련보조용구, 체력단련시스템, 야외용체력단련기구, 고관절운동기구 (5)
낙 시	안전모, 안전화, 구명복, 낙시복, 선글라스, 텐트, 낙시대, 릴, 낙시가방 및 보조가방, 쿨러, 낙시바늘 (11)
농 구	농구네트, 농구대, 농구공, 농구링, 경기용 휠체어 (5)
당 구	당구대(포켓, 캐롬), 당구큐, 쿠션고무, 당구나사지, 큐장[스코어보드검], 스코어보드, 공, 초크 (9)
동력스포츠	헬멧, 원동기(스쿠터) (2)
등 산	등산복, 등산화, 배낭, 아이스엑스, 안전벨트, 프렌드, 카라비너, 텐트, 안전모, 슬링/테이프, 빙벽용 아이젠, 가스버너, 코펠, 경기등반(인공패널, 인공홀드), 암벽화 (16)
라 켓 볼	라켓, 안경(보호안경), 공, 장갑 (4)
력 비	력비공, 헤드기어, 골대, 력비골대보호대, 스크럼머신, 태클머신, 마우스가드, 솔더패드, 콘택머더, 태클백, 킥킹티 (11)

종목(분야)	품 목
레슬링	레슬링경기화, 레슬링인형, 레슬링 로프, 매트 (4)
미식축구	미식축구공, 의류, 보호장비 (3)
바둑	바둑판, 바둑통, 바둑알, 계시기 (4)
바운드볼	배트, 공 (2)
바이애슬론	롤로스키(스케이팅), 폴(스케이팅) (2)
배구	배구네트, 배구공(O185LSTF), 비치발리볼(M 185A), 배구공(VB205), 칼라배구공(VB205-34), 지주, 지주궁구, 배구심판대, 배구용전광판, 배구지주보호대, 공(시각장애인용) (11)
배드민턴	배드민턴네트, 배드민턴라켓, 셔틀콕, 지주, 스트링거, 심판대, 배드민턴 전용화 (7)
보치아	볼, 작전판, 홀통, 레이저 빔 (4)
복싱	복싱글러브, 컴퓨터득점기, 헤드기어, 복싱링, 샌드백, 샌드백설치대, 펀치볼 (7)
볼링	레인, 볼링공, 볼링핀, 볼회수기, 손목보호대, 컴퓨터득점기, 핀세터, 볼링공지공기, 볼링화 (9)
사격	사격표적지, 전자표적장치 (2)
사이클	경기용사이클, 산악자전거, 레저용자전거, 헬멧, 자전거부품, 경기복, 롤러, 스텝보드 자전거, 사이클화 (9)
생활체조	줄넘기, 생활체조복(민속체조, 에어로빅), 다리펴기, 에어로빅매트, 홀라우프, 밴드 (7)
세팍타크로	포스트 (1)
소프트볼	글러브, 배트, 볼, 안전모, 포수장비, 소프트볼경기화, 선수보호망(펜스,백네트) (8)
수영	논슬립매트, 다이빙보드, 배수그레이트, 수구골대, 수영복, 수위조절판, 수중창, 심판대, 스타트대, 코스라인, 코스로프, 핸드레일, 안전감시대, 수영장치동청소기, 핀수영용구(모노핀, 일반핀, 스노쿨, 버선, 공기통, 공기통연결구, 호흡기) (21)
빙상	스케이트(쇼트트랙, 스피드, 크랩, 휘겨), 헬멧, 장갑, 방한모, 쇼트트랙블레이드 (8)
스쿼시	스쿼시화, 라켓, 공 (3)
스키	고글, 스노우보드, 스키장갑, 스키플레이트, 폴, 스노우보드 바인딩, 스노우보드 부츠, 스노우보드 장갑, 알파인 모노스키, 알파인 바이스키, 모노스키용 아웃리거, 절단장애인용 아웃리거 (12)
스크린골프	스크린골프시스템, 스윙분석시스템 (2)
스포츠평	검, 방패, 호면 (3)
스포츠 IT	운동 관리·처방·운영·지도 관련 프로그램 (1)
스킨스쿠버	물안경, 부력조절기, 잠수복, 호흡용공기압축기, 핀(오리발), 호흡기, 마스크, 잠수복, 다이빙 칼, 다이빙용 킨 튜브 (10)
승마	바지, 부츠, 장갑, 헬멧, 장구(안전조끼) (5)
수상스키	투스키, 점프스키, 트릭스키, 웨이크보드 (4)
수상레저스포츠	구멍조끼, 구명환 (2)
씨름	살바, 팬티, 씨름경기장 (3)
아이스링크	아이스링크패널(조립식 포함) (1)
아이스하키	프레임, 슬레지(셀매), 블레이드, 펙 (4)

종목(분야)		품 목
야 구		야구공, 야구글러브, 야구배트, 보호장구(케처보호구), 모자, 헬멧 (6)
양 궁		화살, 활, 화살통, 핸들, 날개, 표적지, 조준기, 쿠션, 스타비라이저 (9)
역 도		역도바벨원판, 경기대, 연습대, 하체대, 역도바벨 (5)
요 트		딩기(Dinghy)요트, 크루징요트, 모터요트(보트), 구조정, 돛, 리깅, 스파, 피팅 (8)
우 슈		투로용구(카페트, 신발, 유니폼, 도, 검, 창, 곤), 산타용구(산타경기장, 글러브, 헤드기어, 가슴보호대, 낭심보호대, 정강이보호대, 마우스피스, 유니폼) (15)
유 도		유도복, 매트 (2)
유 산 소 운 동 기 구		자전거에르고미터, 계단오르기운동기구, 전동식러닝머신, 엘립티컬(타원궤도 보행체력 단련기),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상·하지연동운동기 (7)
육 상		사진판정기, 스타팅블록, 원반, 투창, 풍향풍속계, 포환, 해머, 허들, 디지털 줄자, 무인카, 높이뛰기 지주, 장대높이뛰기 지주, 해머 원반 그물망, 장대높이뛰기매트, 높이뛰기용매트, 마라톤 전자계측 시계(차량부착용), 3000SC 이동장애물, 주회표시기(디지털식 및 수동식), 스타트용 확장장치, 멀리뛰기 구름판(세트), 높이뛰기 고도계, 높이뛰기 바, 장대높이뛰기 고도계, 장대높이뛰기 바, 장대높이뛰기 상자, 포환 이동레일, 레이싱용 휠체어 (27)
인라인롤러		경기복, 인라인스케이트, 바퀴(휠), 신발, 지지대, 무릎보호대, 장갑, 헬멧, 팔꿈치 보호대, 베어링, 프레임, 고글, 콘(고깔), 펍 (14)
윈 드 서 핑		보드, 세일, 붓, 마스트, 라이프 자켓, 헬멧, 하니스 (7)
재활운동기구		보행연습기, 평행봉연습기, 휠체어, 암에르고미터, 재활 로잉머신, 플라이 에르고미터 (6)
정 구		고무공, 정구라켓, 정구넷, 정구라인테이프, 지주, 정구라인청소기 (6)
족 구		족구지주넷(지주, 넷, 라인), 점수판, 경기용 족구공, 전용족구화 (6)
조 정		경기정, 노, 자세지지의자(장애용) (3)
종 합 무 술		도복, 보호대(머리, 몸통, 팔, 다리, 낭심), 장갑, 위·장 운동기계 (8)
주 행 식 운 동 기 구		스케이트보드, 킥보드(핸들브레이크, 바퀴, 핸들) (4)
줄 다 리 기		로프, 매트, 경기화, 보호대(앵커선수용 보호조끼), 안전모(앵커선수용 안전모), 보호대(선수용 요대) (6)
체력측정장비		체성분분석기, 악력측정시스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시스템, 제자리멀리뛰기 측정시스템, 50m 달리기 측정시스템, 왕복달리기 측정시스템, 윗몸일으키기 측정시스템, 심박측정기기, 복합체력측정기 (9)
체육계측장비		레이저스톱워치, RFID계측장비(수신기) (2)
체 육 시 설		바닥재(고무블록), 인조잔디, 전광스코어판(휴대용 포함), 매트(공수도, 단학기공, 배드민턴, 체조), 의자(운동장 및 체육관), 컬팅(경기장) (9)
체 조		뽀뽀, 철봉, 체조복, 평행봉, 트램플린(체조경기 일종), 안마,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링, 체조착지매트, 에어매트, 구름판, 프로텍터, 마루매트 (15)
축 구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구(발목보호대), 축구골넷, 골대, 임원선수벤치, 경기복, 골키퍼장갑, 동계축구니트장갑, 공(시각장애인용), 보호대(시각장애인용) (11)
츄 크 볼		넷 (1)
카 누		경기정, 패들(노) (2)
컬 링		발판, 브러쉬, 슈즈, 컬링스톤, 스틱 (5)

종목(분야)	품 목
탁 구	탁구공, 탁구네트, 탁구대, 탁구라바, 라지볼, 라지볼용네트, 라지볼용지주, 라지볼용러버 (8)
태 권 도	도복, 보호대(다리, 머리, 몸통, 팔, 손등, 발등), 살보대, 전자호구, 매트 (10)
택 건	택견수련복(철릭, 대자, 행전, 버선), 택견경기복, 경기용 매트, 심판복(노랑), 택견수련화 (8)
테 니 스	테니스공, 테니스네트, 테니스라켓, 지주, 스트링거, 경기용 휠체어 (6)
티 볼	배트, 공, 배팅티, 베이스 (4)
파 크 골프	클럽, 공, 신발, 홀컵, 티박스(티잉그라운드), 볼 스탠드, 추첨기(출발추첨기) (7)
패러글라이딩	기체(리스폰스, 밀레니엄, 컨피던스, 콘트롤, 프라임, 프로미스), 보조낙하산, 비행복, 산줄, 웨빙, 하네스(선수용, 아크로, 연습자용, 코로나), 헬멧 (15)
펜 싱	심판기, 펜싱검, 전기심판기, 메탈피스트, 릴, 릴선, 휠체어펜싱 프레임 (7)
풋 살	풋살볼, 풋살화, 풋살골대 (3)
프리테니스	공, 라켓, 지주, 네트 (4)
플라잉디스크	디스크캐처, 원반, 번호판타켓, 우산트레블러, 미니디스크/마커, 링트레블러, 원형트레블러 (7)
하 키	필드하키네트, 골대 (2)
핸 드 볼	핸드볼공, 핸드볼네트, 골대, 왁스 (4)
핸 들 러	라켓 (1)
휠체어력비	휠체어 (1)
기 타	건강시계(심박측정기능 포함), 종목별 전문신발(댄스스포츠화), 운동보조영상장치, 라인마커, 기능성신발, 운동화, 진동운동기, 어린이 놀이기구(조합놀이대, Fun Climber), 오십견예방운동기, 고령자용 운동기구(체력단련용, 재활치료용, 정신훈련겸용, 스트레칭용), 맞춤깎창, 낙상위험도측정시스템, 균형감각훈련시스템, 신체보호대, 스포츠화 살균기 (19)

표 8-41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현황

(2011. 12. 23)

업 체 명	품 목 명
(주)낫소	축구공, 테니스공
동화에스엔티(주)	농구대, 기계식체력단련기구, 평행봉 허들, 포환, 원반
동구산업개발	농구대
(주)삼익스포츠	양궁활
(주)낫소골프	골프공
수풍산업(주)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용운체육산업(주)	허들, 스타팅블록, 뿔틀, 체조매트, 레슬링매트 켄파스, 높이뛰기지지주, 높이뛰기 매트, 장대높이뛰기 지지주, 장대높이뛰기매트
원앤원스포츠	양궁활
주식회사 참피온	탁구대
파트너스교역상사	복싱글러브, 복싱헤드기어, 복싱컴퓨터채점기, 복싱링
풍국레포츠	농구대, 허들, 스타팅블록, 역도바벨, 철봉, 포환, 해머, 축구골대, 축구임원선수벤치, 장대높이뛰기지지주, 높이뛰기지지주, 해머원반그물망, 럭비골대
한국체육산업	역도바벨
한아스포츠	허들, 스타팅블록, 포환, 해머, 원반, 높이뛰기 지지주, 해머그물망, 3000SC이동장애통, 멀리뛰기 구름판, 높이뛰기 고도계, 장대높이뛰기 고도계
현대체육산업(주)	매트(체조, 유도, 레슬링용),นอน슬립매트, 다이빙보드, 수구골대, 수위조절판, 수중창, 출발대, 코스로프, 농구대, 투로용구,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개선스포츠	기계식 체력단련기구
김해산업사	야구글러브
(주)에스피레저	수영코스로프 및 권치기, 스타트대, 배수그레이트, 안전감시대, 수위조절판, 수영장 자동청소기
오성체육산업주식회사	농구대
주식회사 키카	축구화, 축구공
(주)허리우드	포켓당구대, 캐롬당구대
태하메카트로닉스(주)	전동식러닝머신
와타엔지니어링	러닝머신
(주)범우티엔씨	นอน슬립매트, 배수그레이팅, 수구골대, 수위조절판, 수중창, 심판대, 출발대, 코스로프, 핸드레일
(주)알티뷰텍	전광스코어판
삼성포리머(주)	바닥재
(주)평화산업	탁구공, 탁구라바
클라임코리아(주)	경기등반(인공패널, 인공홀드)
한일스포렉스	포환, 원반, 스타팅블록, 높이뛰기지지주
(주)디자인파크개발	야외용체력, 단련기구

업 체 명	품 목 명
(주)다이나포스	기계식체력, 단련기구
대우스포츠산업(주)	농구대, 허들, 스타팅블록, 장대높이뛰기지지주, 배구지지주, 배구심판대, 배드민턴 지주, 핸드볼 골대, 축구 골대, 축구 임원용벤취
(주)한국오리온	기계식체력, 단련기구
(주)동방데이터 테크놀로지	전광스코어판
(주)흥진HJC	동력스포츠헬멧
탐드림	댄스스포츠화
(주)모투스	전동식러닝머신, 엘립티컬
삼익전자공업(주)	스코어보드전광판
(주)오투런	체력진단시스템
승경체육산업(주)	기계식체력단련기구, 농구대, 배구지지주, 배구지지금구, 배구심판대, 배구지지보호대, 축구 골대
(주)시즈글로벌	스키장갑
디스커버리씨에스(주)	인공패널, 인공홀드
(주)이심기술	스쿠터
(주)바이오스페이스	체성분석석기, 운동관리 · 처방 · 운영 · 지도관련 프로그램
(주)이다에스엔티	배수그레이팅, 수위조절판, 코스로프, 농구대
(주)케이엘에스	야외용체력, 단련기구
(주)티에스코리아	전동운동기
(주)재영엠엔씨	의자(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하나산업사	골프채
(주)승리체육산업	장대높이뛰기 매트, 높이뛰기용 매트
(주)컬처메이커	도복(태권도), 보호대(태권도)
트로이	롤러스키(프레임/휠)(바이애슬론)
(주)대원포티스	헬스용승마용, 운동기구(유산소운동기구)
신광바둑	바둑알
광신스포츠	농구대,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주)와룡산업	줄넘기, 훌라후프
(주)하림	낚시대
(주)이랜드체육산업	조립식아이스링크패널
에이뉴배트	야구배트(알루미늄)
(주)에스엠골프기기산업	골프연습용구
(주)트렉스타	등산화

업 체 명	품 목 명
(주)휴즈	야구배트(나무)
태영산업	런닝머신(유산소운동기구)
(주)INS102	경기복, 스포츠의류
(주)자이로	바퀴(인라인롤러스케이트)
맥스SN(주)	야구배트
시원교구	라인 마커
하드스포츠	야구공
(주)중앙카스포	농구대, 배구지주, 배구심판대, 배구지주금구, 배구지주보호대, 배드민턴지주, 복싱링, 에어로빅메트,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허들, 높이뛰기지주, 장대높이뛰기지주, 높이뛰기용매트, 정구지주, 족구지주, 점수판, 매트, 뒹툼, 철봉, 평행봉, 이단평행봉, 평균대, 구름판, 프로텍터, 축구골대, 선수벤취, 테니스지주, 풋살골대, 필드하키골대, 필드하키골대·네트(하키), 핸드볼골대
가야스포츠	개량활
(주)제일체육공사	야외용체력단련기구, 농구대, 축구골대, 족구지주네트
경일산업(주)	야외용체력단련기구
G.K SAIL	요트세일
동화체육(주)	농구대
파이빅스 스포츠	양궁표적지
(주)자원메디칼	체성분분석기
(주)디엠비에이치	3차원 골프센서
한별체육산업	농구대, 근력단련기구
이글아이드	기능성골프화
(주)스포닉스	스포츠IT(심폐지구력측정용 무선심박동 평가시스템)
(주)티에스메디텍	음파진동운동기
(주)사루스	진동운동기
테크웨이브(주)	RFID TAG
(주)라저스트스포츠	태권도 전자호구
(주)다트피쉬코리아	스포츠IT(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자세평가도우미)
(주)조인조경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파마스포츠	테니스라켓
(주)구보코포레이션	파크골프클럽
(주)한발	당구큐
PSV	인라인스케이트
(주)카이로스	기계식체력단련기구
(주)슬로비	스케이트보드, 퀵보드

업 체 명	품 목 명
제맥스코리아	탁구대
연무산업	활(개량활)
(주)트랑고	안전벨트, 프렌드, 카라비너, 슬링/테이프, 빙벽용아이젠, 아이스엑스, 안전모
송무궁	활(개량활)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골프채
프리원	디스캐처, 우산트레블러, 링트레블러, 원형트레블러
(주)휠라인	휠체어(재활운동기구), 휠체어펜싱, 프레임, 휠체어(휠체어력비)
(주)볼빅	골프공
대성체육산업	농구대, 배구지주, 축구골대, 테니스지주, 배드민턴지주
(주)두성기술	심박측정기기
(주)골프앤코	골프채
블랙야크	등산복, 배낭
마하무역(주)	스포츠화살균기
(주)조은프로텍	보호장구(발목보호대)
파이온시스템	전자표적장치
금호조침	낚시바늘

다. 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 융자 사업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기금 융자 사업은 1991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 현재 16억 9,7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융자 대상 업체는 2011년 12월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117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이며, 생산업체의 신청을 받아 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원자재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설비자금은 5억원, 연구개발자금은 3억원, 원자재구입 자금은 1억원을 한도로 융자하고 있으며, 융자이율은 2001년 6%에서 2002년과 2004년 5%와 4%로 인하하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 대상 및 조건은 (표 8-42)과 같다.

표 8-42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융자 사업개요

용 자 대 상	융자분야	융자한도액	용 자 기 간	융자이율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설비투자	5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4%
	연구개발	3억원	5년 (거치기간2년)	
	원자재구입	1억원	3년 (거치기간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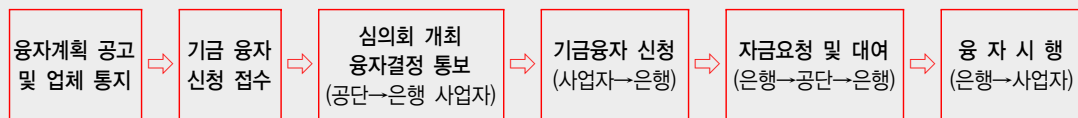


그림 8-5 기금 융자 시행절차

1991년 6개 업체에 설비투자 6억원, 연구개발 3억7,900만원 등 총 9억7,900만원을 처음으로 융자한 이후 이후 2011년까지 128개 업체에 총 212억 5,800만원을 융자하였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연도별 기금융자현황은 (표 8-43)과 같다.

표 8-43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기금융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융자분야	신 청		결 정		시 행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합 계	총 계	221	46,294	196	37,765	128	21,258
	설 비 투 자	74	22,335	65	17,450	33	7,451
	연 구 개 발	97	19,229	85	16,150	62	10,961
	원 자 재 구 입	50	4,730	46	4,165	33	2,846
'04	계	10	1,960	10	1,960	8	1,107
	설 비 투 자	2	560	2	560	1	60
	연 구 개 발	4	1,000	4	1,000	3	700
	원 자 재 구 입	4	400	4	400	4	347
'05	계	7	1,842	7	1,842	-	-
	설 비 투 자	4	1,339	4	1,339	-	-
	연 구 개 발	2	403	2	403	-	-
	원 자 재 구 입	1	100	1	100	-	-

구 분	용자분야	신 청		결 정		시 행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06	계	7	2,100	7	2,100	4	1,050
	설 비 투 자	2	1,000	2	1,000	1	500
	연 구 개 발	3	900	3	900	2	450
	원 자 재 구 입	2	200	2	200	1	100
'07	계	12	2,038	10	1,638	5	857
	설 비 투 자	2	494	2	494	1	63
	연 구 개 발	5	1,050	4	750	2	600
	원 자 재 구 입	5	494	4	394	2	194
'08	계	30	5,841	25	2,599	17	1,488
	설 비 투 자	10	3,162	9	1,219	6	752
	연 구 개 발	12	2,080	10	1,146	6	541
	원 자 재 구 입	8	599	6	234	5	195
'09	계	21	4,330	15	3,180	8	1,350
	설 비 투 자	3	1,180	2	880	0	0
	연 구 개 발	12	2,550	8	1,800	5	1,100
	원 자 재 구 입	6	600	5	500	3	250
'10	계	11	2,973	11	2,973	10	2,283
	설 비 투 자	2	980	2	980	1	480
	연 구 개 발	7	1,793	7	1,793	7	1,603
	원 자 재 구 입	2	200	2	200	2	200
'11	계	9	2,900	9	2,790	7	1,697
	설 비 투 자	4	2,000	4	1,890	3	1,097
	연 구 개 발	3	700	3	700	2	400
	원 자 재 구 입	2	200	2	200	2	200

※ 주 : 합계는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합계임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3. 체육시설업 및 스포츠서비스업 지원정책

1)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기금융자

가. 목 적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체육시설업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1996년부터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 융자 대상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융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등록 체육시설(단, 회원제체육시설은 제외), 신고 체육시설 중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설치자금과 개·보수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체육시설업체 융자제도는 연간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부가금 대상 시설이었던 수영장(시설설치 및 개·보수), 볼링장, 골프연습장(시설 개·보수)으로 제한하였으나 1997년 종합체육시설, 1998년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개·보수 융자를 확대하였으며, 2004년 체력단련장까지 추가하였다. 융자이율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와 같이 2004년도에 4%로 인하하였다.

표 8-44 체육시설업체 기금융자 기준

용 자 대 상		융자분야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융자이율
체육 시설 업체	①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 장업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회원제체육시설은 제외)	시설설치 자 금	30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 종목 중 ①을 제외한 종목(골프연습장,수영장,볼링장,테 니스장,체력단련장 등)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5억원		
	①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 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개·보수 자 금	5억원	5년 (거치기간2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 종목 중 ①을 제외한 종목(골프연습장,수영장,볼링장,테 니스장,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		3억원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시설설치자금은 등록체육시설의 경우 30억원(융자기간 10년), 수영장·볼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은 5억원(융자기간 10년)이며, 개·보수자금은 등록체육시설 5억원(융자기간 3년), 수영장·볼

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은 3억원(용자기간 3년)을 한도로 용자하고 있다.

다. 용자 현황

1996년 이후 총 1,058개 업체에서 4,800억 3,7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472개 업체에 1,361억 7,200만원이 용자되었다. 용자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골프연습장으로 201개 업체에 440억 6,300만원이 용자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종합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62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그 중 24개 업체에 245억 2,400만원이 용자되었다. 이밖에도 2005년부터는 체력단련장업체에 대한 용자를 개시하여 시설설치에 26개 업체가 96억 2,400만원을 신청하였고 개보수에 25개 업체가 51억 3,5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시설설치 7개 업체에 16억 3,000만원, 개보수 9개 업체에 17억 2,800만원을 실제로 시행하였다.

향후 용자산업은 스포츠시설업체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온 제한을 벗어나 그 대상을 스포츠서비스업체로 확대하여 스포츠산업의 고른 분야에 용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 8-45 체육시설업체 자금용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괄호는 업체수

연도	업종	계	볼링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스키/ 빙상/ 승마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기타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계	신청	480,037 (1,058)	46,460 (275)	119,990 (391)	18,233 (34)	12,207 (63)	126,906 (62)	8,867 (42)	63,000 (24)	7,898 (30)	43,670 (36)	3,540 (9)	360 (2)	9,624 (26)	5,135 (25)	12,897 (33)	1,250 (6)
	결정	247,570 (877)	24,538 (249)	72,517 (320)	10,396 (28)	8,026 (54)	52,687 (46)	6,352 (33)	26,220 (19)	6,392 (27)	19,107 (25)	2,830 (9)	360 (2)	6,109 (20)	3,135 (17)	7,951 (23)	950 (5)
	시행	136,172 (472)	11,004 (112)	44,063 (201)	4,134 (12)	3,242 (22)	24,524 (24)	3,061 (16)	19,640 (17)	4,053 (16)	12,093 (13)	2,020 (6)	-	1,630 (7)	1,728 (9)	4,330 (13)	650 (4)
'05	신청	29,110 (47)	400 (2)	9,260 (23)	500 (1)	510 (2)	6,000 (2)	200 (1)	6,000 (2)	1,000 (2)	2,200 (1)	650 (2)	-	1,820 (5)	570 (4)	-	-
	결정	13,950 (35)	195 (1)	5,295 (21)	300 (1)	350 (2)	1,900 (1)	150 (1)	2,922 (1)	-	1,400 (1)	400 (2)	-	887 (3)	151 (1)	-	-
	시행	8,972 (20)	-	3,950 (14)	-	100 (1)	-	-	2,922 (1)	-	1,400 (1)	400 (2)	-	200 (1)	-	-	-
'06	신청	39,480 (56)	850 (3)	10,170 (27)	1,670 (4)	-	4,000 (2)	-	18,000 (6)	-	900 (2)	500 (1)	-	2,760 (7)	630 (4)	-	-
	결정	15,334 (44)	190 (1)	2,955 (20)	1,430 (4)	-	2,880 (2)	-	4,494 (6)	-	570 (2)	500 (1)	-	2,040 (6)	275 (2)	-	-
	시행	5,671 (20)	30 (1)	1,226 (11)	-	-	-	-	3,745 (5)	-	-	500 (1)	-	85 (1)	85 (1)	-	-
'07	신청	40,591 (56)	300 (1)	10,497 (27)	500 (1)	469 (2)	3,200 (2)	800 (2)	15,000 (5)	-	6,200 (4)	770 (2)	-	1,100 (3)	1,115 (5)	640 (2)	-

연도	업종	계	볼링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스키/ 빙상/ 승마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기타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결정	12,137 (45)	162 (1)	1,956 (19)	271 (1)	92 (1)	1,200 (2)	433 (2)	2,044 (4)	-	3,357 (4)	541 (2)	-	862 (3)	579 (4)	640 (2)	-
	시행	8,830 (32)	162 (1)	1,542 (15)	271 (1)	92 (1)	200 (1)	271 (1)	2,033 (4)	-	3,195 (3)	270 (1)	-	135 (1)	162 (1)	497 (2)	-
	신청	32,571 (65)	100 (1)	10,680 (27)	500 (1)	-	800 (1)	380 (2)	-	-	10,100 (8)	770 (2)	-	2,114 (5)	1,260 (5)	5,567 (12)	300 (1)
'08	결정	17,116 (46)	70 (1)	6,596 (20)	350 (1)	-	800 (1)	140 (1)	-	-	3,640 (4)	539 (2)	-	990 (3)	570 (3)	3,121 (9)	300 (1)
	시행	9,394 (25)	70 (1)	4,338 (13)	-	-	-	-	-	-	1,900 (1)	-	-	500 (1)	570 (4)	1,576 (4)	300 (1)
	신청	22,953 (52)	600 (2)	9,400 (22)	353 (1)	900 (3)	-	1300 (3)	-	-	4,730 (4)	350 (1)	270 (1)	620 (2)	200 (2)	3,930 (11)	300 (1)
'09	결정	15,123 (39)	600 (2)	6,300 (17)	353 (1)	600 (2)	-	1,300 (3)	-	-	2,500 (3)	350 (1)	270 (1)	620 (2)	200 (2)	2,030 (5)	-
	시행	7,550 (19)	300 (1)	3,200 (9)	-	300 (1)	-	500 (1)	-	-	1,500 (2)	350 (1)	-	-	100 (1)	1,300 (3)	-
	신청	13,774 (29)	200 (1)	7,850 (15)	300 (1)	300 (1)	-	354 (2)	-	-	2,800 (2)	500 (1)	-	-	500 (2)	650 (2)	320 (2)
'10	결정	12,549 (28)	200 (1)	6,625 (14)	300 (1)	300 (1)	-	354 (2)	-	-	2,800 (2)	500 (1)	-	-	500 (2)	650 (2)	320 (2)
	시행	5,490 (17)	100 (1)	2,160 (9)	-	300 (1)	-	260 (1)	-	-	1,700 (1)	500 (1)	-	-	-	150 (1)	320 (2)
	신청	22,525 (41)	800 (2)	5,725 (13)	-	-	-	90	-	500 (1)	10,900 (9)	-	-	1,210 (4)	860 (3)	2,110 (6)	330 (2)
'11	결정	9,590 (30)	800 (2)	3,010 (10)	-	-	-	1	-	370 (1)	2,000 (4)	-	-	710 (3)	860 (3)	1,510 (5)	330 (2)
	시행	5,444 (19)	300 (1)	1,416 (5)	-	-	-	-	-	370 (1)	1,000 (2)	-	-	710 (3)	811 (3)	807 (3)	30 (1)

※ 주 : 합계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의 합계임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2) 체육시설 관련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체육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고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규제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민간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만으로는 부족한 국민의 체육시설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민간 체육시설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골프장내 금지 시설물이었던 숙박시설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2000년에는 준조세 폐지 정책에 따라 운동장·체육관·수영장·대중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부과하던 부가금을 폐지하는 한편, 급증하고 있는 골프 수요를 충족하고 대중 골프장의 확충을 위해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대중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시군구별 회원제골프장 총량제한을 폐지하고 골프장 면적산정 시 쓰레기매립지, 폐염전부지, 간척지의 면적은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2005년도에는 골프장 부지면적 및 클럽하우스 면적 제한 규정 등을 폐지하였고, 2006년에는 대중골프장과 스키장에 대하여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골프장 입지기준 및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관계 법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8년에는 해외여행 등과 연관된 서비스 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지방 골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등 세 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했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시설 성격상 위탁관리가 어려운 시설인 전문체육시설 등은 시설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제9장 체육시설 참조).

또한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2002년 월드컵경기장 및 아시아경기대회시설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00년 8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스포츠센터, 유스호스텔, 공연장 등 문화시설, 대형할인점, 복합영상관, 게임제공 업소 등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장 시설의 민간위탁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사용기간을 3~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료 지불도 보증금과 월납입 방식 등으로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다.

2009년에는 골프장 외 체육시설 업소 숙박시설 및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규정을 폐지 및 완화하였으며, 골프장 입지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였다.

2010년에는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 등 신고전환 업종에 대한 총투자범위 내 회원모집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골프장 입지에 대한 입지 허용 및 오염총량제 실시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실시하였다.

2011년에는 승마·골프연습장 시설기준을 완화하였고, 골프장 농약 사용 검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스키장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을 폐지하였다.

표 8-46 연도별 스포츠시설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

연 도	규 제 명	개 선 내 용
1999	신고체육시설업종 일부 자유업종화	탁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자유업종화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금지 → 제한적 허용
	스키장 이용자에 대한 특소세 부과	특소세 면제
2000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	6년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완화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금제도	운동장·체육관·수영장·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제도 폐지 → 회원제골프장은 부과
	체육시설의 수익시설 설치	월드컵·부산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시설에 수익시설 설치 가능토록 개정
	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특소세 부과	대중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2001~2003	골프장의 지역별 총량제한	시군구별 회원제골프장 총량제한(임야면적의 3% 규제) → 폐지
2005	골프장 부지면적 제한	골프장 규모에 따라 제한 → 폐지
	골프장 클럽하우스 면적제한	골프장 규모에 따라 제한 → 폐지
2006	골프장시설 규제	골프코스길이 제한 → 폐지 회원제골프장 홀규모 제한 → 폐지
	골프장 및 스키장 세제	대중골프장, 스키장 세제 인하 → 별도 합산 0.8%
2007	골프장시설 규제	골프장내 숙박시설의 총 규모 제한(5층) 폐지 자연보전권역일지라도 수질오염 총량제도시행지역은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기준 및 대상 완화
2008	골프장시설 규제	수질기준 Ⅱ 등급 하천 상류방향 유하거리 20km이내 지역 골프장 부지내 숙박시설 설치 금지 규정 폐지 시·도기준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5% 초과금지 폐지 골프장 부지 내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 폐지
	사업계획 변경	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
	골프장 세제	지방회원제 골프장 세제 경감 - 개별보유세→면제, 체육진흥기금→면제 - 보유세 및 취득세 →경감
2009	시설규제	- 골프장 외 체육시설 업소 숙박시설 제한 폐지 -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정 완화 - 체력단련장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완화
	골프장 입지	- 10mm이상 조정지 설치·운영시 취수지점 상류방향 유하거리 7km밖 대중 골프장 입지 허용 - 특별대책지역 Ⅱ 권역(팔당호 상수원 제외) 중 오염총량 관리제 실시지역 대중골프장 입지허용
2010	회원모집규제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 등 신고전환업종에 대하여 총투자범위 내 회원모집 제한 규정 폐지
	골프장입지	- 취수지점 상류방향 유하거리 7km 밖 입지 허용 - 특별대책지역 Ⅱ 권역(팔당호 포함) 중 오염총량제 실시지역 허용
2011	승마장·골프연습장 시설기준	- 마장 실외 3,000㎡, 실내 1,500㎡, 말 10두 이상 → 실외 또는 실내 500㎡, 말 3두 이상 - 퍼팅·피칭 연습용 코스의 경우 타석 설치 의무규정 완화
	신고체육시설업 시설	면적기준 폐지
	골프장의 농약 사용 검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중복하여 부과하고 있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 검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3)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기금용자

가. 목 적

그간 스포츠산업내의 다양한 하위분야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이 되어온 반면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다. 정부는 스포츠서비스업체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용자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균형적 육성을 도모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을 두고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용자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여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나. 추진배경

지금까지 체육산업 용자사업은 체육용구생산업체 및 체육시설업체에 대하여 용자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군인 관람스포츠 및 기타 스포츠에 대응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산업 활동인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하여 용자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스포츠가 중요한 비즈니스 콘텐츠로 부각됨에 따라 스포츠관련 직·간접적인 소비증대로 문화·관광 등 스포츠 연관 산업과 스포츠 서비스 사업의 빠른 발전이 예상되므로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지원으로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실시하게 되었다.

다. 용자대상

스포츠서비스업체 용자사업의 용자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스포츠서비스업 관련 회사를 설립 후 만 1년 경과하였으며 설립 이래 스포츠서비스업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 현재 스포츠 단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 획득한 업체, 공고일 현재 대회조직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기업, 공고일 현재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 획득한 업체, 기타 스포츠 단체 및 대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용자규모는 연 40억 원이며 10억 이내의 용자한도 내에서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용자이율은 연 4%이다.

표 8-47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용자 기준

용 자 대 상		용자분야	용자한도액	용자기간	용자이율
스포츠 서비스 업체	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설비자금	10억	10년 (거치기간 4년)	4%
		연구개발 자금	3억	5년 (거치기간 2년)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라. 융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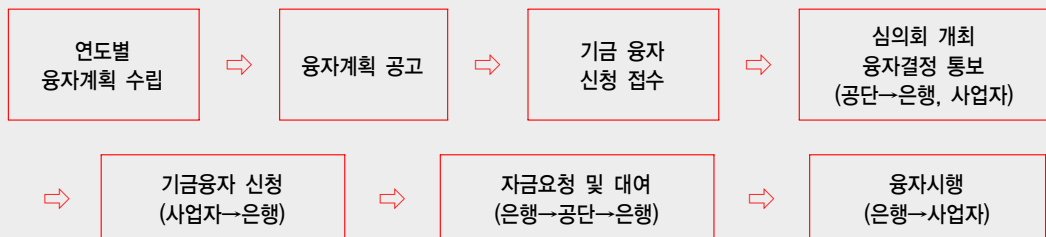
2011년 스포츠서비스업체 융자사업에는 총 2개 업체에서 3.5억여원을 신청하였으며, 2개 업체에 총3.5억여원이 융자되었다. 2개 업체 모두 연구개발자금에 총3.5억여원을 신청하였고 심사를 거쳐 신청한 2개 업체에 융자를 시행하였다.

표 8-48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융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구 분	융자분야	신 청		결 정		시 행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합 계	총 계	21	6,264	19	5,464	14	3,575
	설비투자	6	2,939	5	2,239	3	1,250
	연구개발	15	3,325	14	3,225	11	2,325
'06	계	6	1,280	6	1,280	2	490
	설비투자	2	590	2	590	1	100
	연구개발	4	690	4	690	3	390
'07	계	5	1,285	5	1,285	4	985
	설비투자	-	-	-	-	-	-
	연구개발	5	1,285	5	1,285	4	985
'08	계	2	1,300	2	1,300	2	1,300
	설비투자	1	1,000	1	1,000	1	1,000
	연구개발	1	300	1	300	1	300
'09	계	5	1,749	3	949	1	150
	설비투자	3	1,349	2	649	1	150
	연구개발	2	400	1	300	0	0
'10	계	1	300	1	300	1	300
	설비투자	0	0	0	0	0	0
	연구개발	1	300	1	300	1	300
'11	계	2	350	2	350	2	350
	설비투자	0	0	0	0	0	0
	연구개발	2	350	2	350	2	350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 융자취급기관 : 국민은행 외 15개 시중은행

그림 8-6 스포츠서비스업 기금 융자 시행절차

4)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가. 목적

스포츠활동의 가치 재조명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가운데 스포츠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스포츠과학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적 수준의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분야 전략기술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며 스포츠용품 대표브랜드를 육성하여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 지원대상과제

지원대상과제는 자유공모과제, 지정공모과제, 정책과제로 나누는데 자유공모과제는 과제 수행기간이 1~2년 이내의 단기과제로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기관, 업체가 스스로 제안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지정공모과제는 수행기간이 1~2년 이내의 단기과제로 정부가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수립된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의 제안서를 제시하여 이를 수행할 기관, 업체를 선정·지원하고, 정책과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적정한 기관, 업체에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과제는 스포츠과학에 기반을 둔 기술로서 고부가가치의 상품성과 실용화가 가능한 연구·개발 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8년도에는 2009년도부터 3년 이상의 장기 수행과제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여기에서 선정된 스포츠과학기반 인체모델 구축 및 인체영향 평가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고회전율의 퍼스널 트레이닝 시스템개발,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스포츠 시스템개발, 스포츠과학기반 고기능성 경기용 자전거 개발 과제를 선정하였다.

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스포츠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 관련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라. 지원현황

2007년 정책과제 2건, 지정과제 4건, 자유과제 6건 총 12건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정부지원금 1,737,400천 원을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계속사업 2건과 신규사업 22건에 정부지원금 2,811,600천 원, 2009년에는 계속사업 12건과 신규사업 12건에 정부지원금 5,752,950천 원, 2010년에는 계속사업 8건과 신규사업 8건에 정부지원금 6,747,498천 원, 2011년도에는 계속사업 8건과 신규사업 8건에 정부지원금 6,541,500천 원을 지원하였다.

표 8-49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협약체결과제		정부보조금	합계
2007년	신규	12건(정책 2건, 지정 4건, 자유 6건)	1,737,400	1,737,400
2008년	계속	2건(정책 2건)	400,000	2,811,600
	신규	22건(정책 1건, 지정 3건, 자유 18건)	2,411,600	
2009년	계속	12건(정책 3건, 지정 3건, 자유 5건)	1,726,000	5,752,950
	신규	12건(정책 1건, 지정 4건, 자유 7건)	4,026,950	
2010년	계속	8건(정책 1건, 지정 4건, 자유 3건)	4,617,498	6,747,498
	신규	8건(정책 1건, 지정 1건, 자유 6건)	2,130,000	
2011년	계속	8건(정책 1건, 지정 4건, 자유 2건)	4,292,000	6,541,500
	신규	8건(정책 1건, 지정 1건, 자유 6건)	2,249,000	

표 8-50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 과제 현황

연도	과제명	기관명
2007년	첨단체력측정 및 평가 기반기술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령자용 스포츠용품 기반기술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보급형 장애인 스포츠 보조기구 핵심기술 개발	재활공학연구소
	고령자 음파진동 레그프레스 시스템 개발	티에스메디텍
	고령자용 신종 운동기구 핵심기술개발	에스앤에스케어
	스포츠인조잔디용 소재 신뢰성 평가기술개발	대종체육건설
	등속성 근력운동기능을 갖는 지능형 전자식 헬스 운동기기 개발	휴모닉
	감성골프시스템 구현을 위한 3차원 센서기술 개발	디엠비에이치
	이중 충격드라이버 개발	리임코리아
	인조잔디구장 충격성능 자동 평가 시스템 개발	택트
	스포츠헬스케어를 위한 암밴드형 생체신호 측정 및 분석 시스템	연세대산학협력단
	아마추어용 경정 모터보트 개발	에이원마린테크

연도	과제명	기관명
2008년	한국형 경기용 휠체어 개발연구	대한장애인체육회
	아동용 야외운동시설(헬스기구)기반기술 개발	(주)디자인파크개발
	척추 운동 및 근력측정시스템 개발	재활공학연구소
	등속성 메커니즘을 활용한 근력 트레이닝 시스템개발	(주)두비원
	원호궤적을 가지는 새로운 운동기구의 개발	(주)모투스
	연속수평 메커니즘의 가변속 트레이닝장치	(주)제너럴로터
	호환성을 갖춘 Isolateral 3차원 운동기구	CYS-SYSTEM
	시각장애인의 독립적 체육활동을 위한 다중센서 기반 시각대체 정보인식 시스템의 개발	동국대 산학협력단
	스마트 카드 기반의 유비쿼터스 동적 운동 처방 시스템 개발	(주)엑스포웰
	디지털기술 기반의 고령친화 세대용 스포츠 기구 및 콘텐츠 개발	동신대 산학협력단부설 디지털콘텐츠협동연구센터
	스마트 모션센서를 이용한 디지털 휘트니스 퍼스널 트레이닝 기술개발	위즈정보기술
	신체와 정신의 균형적인 발달을 위한 지능형 바이오피드백게임 휘트니스시스템 개발	(주)더힘스
	1:1 맞춤형 헬스 트레이닝 시스템 기술 개발	(주)프림포
	퍼터그립시스템(양손잡이그립)개발	(주)리임코리아
	최적 골프 퍼팅을 위한 사용자 친화형 스마트 퍼터시스템 개발	건국대 산학협력단
	노약자용 나비골프클럽 개발	(주)나비월드
	'RF 무선망 상에 위치추적기술을 이용한 LBS 골프장 경기위치 관제시스템' 개발	(주)리지시스
	골프클럽 다용도 복합기 개발	(주)엠에프에스코리아
	고탄성 inner-tire system을 이용한 레이싱용 인라인 스케이트 wheel 개발	(주)자이로
	영상추적기술을 이용한 수영 분석 시스템	(주)비주얼스포츠
2009년	유도 경기력향상을 위한 다기능 유도 인형시스템개발	용인대 산학협력단
	스포츠 무릎손상 예방 및 무통치료용 고탄성 섬유강화 복합재료 무릎보호기의 개발	(주)트리플씨메디칼
	3차원 골프볼 탄도 및 골프클럽 피팅프로그램 개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세계공인 전자호구 훈련용 디지털 태권도 트레이너 개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상하지 융복합 지능형 전신 운동기기 개발	(주)휴모닉
	유비쿼터스 환경의 이동형 퍼스널 트레이닝 로봇개발	(주)로보코
	축구경기의 전략 분석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평가시스템 및 이를 지원하는 초광대역망내 선수위치추적 시스템 개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스포츠수행향상과 부상방지를 위한 원터치식 레이싱 시스템개발 및 스노우보드 부츠 적용	(주)엘림코퍼레이션
	관절충격 방지 및 진동/소음 저감 런닝머신 개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고효율 반도핑 약물검사를 위한 다성분 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포츠과학 기반 인체모델 구축 및 인체영향 평가기술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도	과제명	기관명
2009년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스포츠 시스템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포츠과학과 첨단 IT 및 양방향 미디어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퍼스널 트레이닝 시스템	(주)오투런
	스포츠과학기반 고기능성 경기용 자전거 개발	건국대학교 충주산학협력단
2010년	스포츠활동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에너지 변환 시스템 개발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친환경 노인 야외 스포츠시설 및 운동기구 개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MEMS 기반의 디지털 퍼팅 칼리메이터 기술개발	(주)로보메이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인라인스케이팅 개발 및 정량적 측정방법 개발	PSV
	균형(Balance)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파도타기 장치 개발	(주)라이더텍
	Extreme performance를 발현하는 테니스용 String 국산화 기술 개발	(주)해성엔터프라이즈
	자기력기술을 활용한 USN 기반의 차세대 C머신 개발	(주)개선스포츠
	스포츠재활치료용 이종제어 음파 진동 시스템 개발	(주)소닉월드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대비한 국산 경기용 컴파운드 보우 개발	(주)원엔원
2011년	골프 비거리 증가를 위한 착용형 보조기어의 개발	건국대학교충주산학협력단
	생체신호 및 동작분석 기반 바이오 피드백 심리 훈련시스템 개발	(주)스포닉스
	IT 융합 야외 아동용 스포테인먼트 운동기기 개발	(주)디자인파크개발
	스포츠과학기반 다기능 소형 포터블 보트 및 IT 융합 라이프 자켓 개발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싸이클 개발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재활 훈련을 위한 4점점 리프트 제어용 체중 부하감소 트레드밀 개발	싸이버메딕
	스포츠 과학적 검증을 통한 스포츠용 소아 전동 운동기 개발	에스엔에스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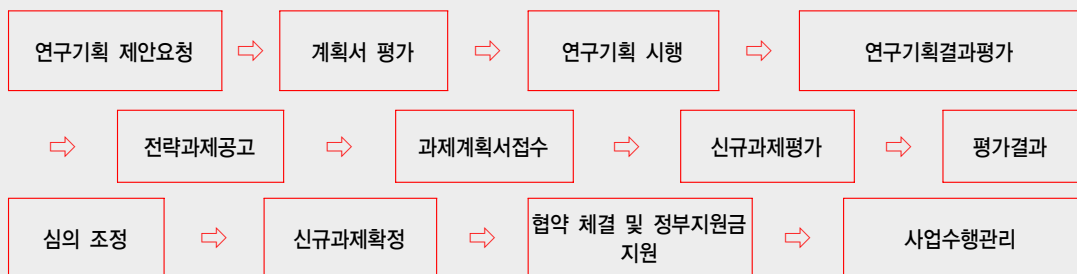


그림 8-7 전략과제(중·장기 과제)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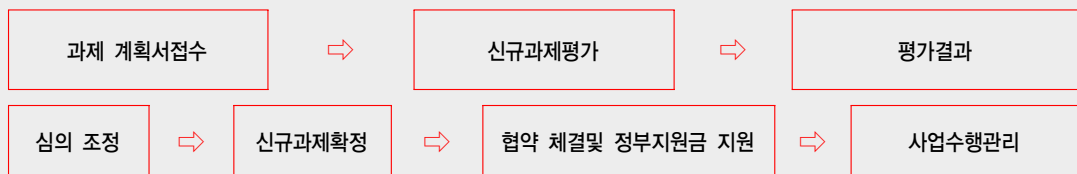


그림 8-8 자유공모 과제 선정절차

4. 스포츠산업전문인력 양성

1)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현재 우리사회는 각 분야가 빠르게 전문화되고 있다. 전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의 활용성에 있다. 특히 지역적 이동성이 현저히 증가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해 각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체육분야가 공공체육시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스포츠산업체에서의 경영활동까지 확대되면서 체육활동 전반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할 전문가 양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또한 기존 스포츠산업체 및 체육단체 사무인력들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무능력 구비를 위한 재교육 및 새로운 창업기회 확대에 따른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희망자에 대한 지원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 및 교육과정

정부는 스포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체육시설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용역을 실시(2000년 8월~2001년 1월)하였으며, 전국 공공체육시설을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시설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2001년 11월, 총96명의 전국 체육시설 관리 공무원)하여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이해하고 실용화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02년부터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스포츠마케터, 스포츠시설업경영관리자과정 등을 운영 2011년까지 4,463명을 양성하였다. 2002년부터 시작되어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관심 증가로 스포츠마케터 등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교육수요가 초기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 및 대학원에서 스포츠경영학과 등 신설로 안정적인 교육체계 운영 및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 도입(2005년 1회 348명, 2006년 2회 285명, 2007년 96명, 2008년 111명, 2009년 267명, 2010년 116명 합격), 스포츠아카데미 운영,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으로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스포츠산업아카데미 과정의 중단으로 양성인원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9년부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운영으로 지역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2010년에는 산업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스포츠마케터과정을 장기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등 다수의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육의 전문성은 강화되었으나 양성인원은 다소 감소되었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은 산업계의 수요와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창의적이고 수준높은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산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8-51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스 포 츠 마 케 터	39	129	171	199	198	188	185	209	40	79	1,437
스 포 츠 시 설 경 영 관 리 자	30	82	107	106	126	92	54	62	61	70	790
공 공 체 육 시 설 관 리 자	37	63	46	53	48	39	51	45	47	44	473
스 포 츠 산 업 해 외 연 수	-	-	-	16	25	33	20	20	20	20	154
특 별 과 정	-	-	24	79	-	-	-	-	-	-	103
스 포 츠 산 업 아 카 데 미	-	-	-	-	240	373	-	-	-	-	613
스 포 츠 경 영 관 리 사 인 턴 십	-	-	-	-	19	23	22	21	25	25	135
프로스포츠 마케팅현장체험학습	-	-	-	-	-	-	119	88	-	-	207
체 육 행 정 공 무 원	31	52	47	36	46	53	46	36	50	38	435
스포츠 경영관리사 역량교육	-	-	-	-	-	-	-	-	25	18	43
체 육 단 체 임 직 원 스 포 츠 비 즈 니 스 교 육	-	-	-	-	-	-	-	22	24	27	73
합 계	137	326	395	489	702	801	497	503	292	321	4,463

※ 출처 : 체육과학연구원

2005년도부터는 전문스포츠마케터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과정을 개설하여 미국과 일본의 선진체육시설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그 인원과 지역을 확대하여 유럽 지역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2005년부터 시작된 국가기술자격인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들의 전문교육을 위한 과정 등도 도입하여 자격증 취득자들로 하여금 스포츠산업체에 인턴사원으로서 현장의 실무를 익힐 수 있는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스포츠마케팅 등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스포츠산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으며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2008년부터는 스포츠산업해외연수 프로그램과 프로스포츠 마케팅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으로 스포츠 전문인력의 현장경험을 쌓아 실무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2009년부터 체육단체 임직원

스포츠비즈니스 교육, 2010년부터 스포츠경영관리사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총 321명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교육과정별로는 스포츠 마케터 79명, 스포츠시설 경영관리자 70명, 공공체육시설관리자 44명, 스포츠산업 해외연수 20명, 스포츠경영관리사 인턴쉽 25명, 체육행정 공무원 38명, 스포츠 경영관리사 역량교육 18명, 체육단체임직원 스포츠비즈니스 교육 27명이 양성되었다.

3) 스포츠산업 해외연수 실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02년 이후 스포츠마케터과정과 스포츠시설업 경영관리사 과정에 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면서 스포츠산업 현장의 산업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2005년도에서부터 이들 인력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 스포츠마케팅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전문스포츠마케터 해외연수 과정을 신설 운영하여 2011년까지 154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교육대상자는 체육관계 공무원, 공공체육시설 종사자,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마케팅 업체 직원들로 선발하였으며 이들은 미국과 일본의 선진 체육시설 및 스포츠마케팅 현장을 방문하여 9박 10일간 선진 스포츠 현장을 체험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교육의 실시는 국제경쟁력 있는 스포츠마케터를 양성하기 위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며 향후 개설될 전문 스포츠마케터의 전 과정의 일부로 실시되었다. 이 교육을 통하여 교육대상자들은 선진 스포츠마케팅 기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향후 전문 스포츠마케터과정의 전면적인 실시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다.

4) 프로스포츠 마케팅 현장체험 학습

프로스포츠 마케팅 현장체험 학습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마케팅 방법에 대한 현장체험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 첫 시행 되었다. 교육대상자는 스포츠관련 전공 대학생들로 각 차수별 15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선정된 스포츠구단의 스포츠마케팅 방법을 보고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문으로만 배우던 마케팅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며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전문인력 양성사업 방향

국내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교육을 담당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교수 인력 선정과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관련 교재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제도를 국가자격제도로 연계·정착시켜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5. 스포츠산업 정보망 및 연구활성화

정부는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해 스포츠마케팅 기법·첨단기술·특허 등 산업정보 DB 구축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국내외 첨단정보의 체계적 수집, 가공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포털사이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간 스포츠 정보 제공업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경기기록조사·가공업, 선수기량 등 평가업, 스포츠판 성향조사업 등을 활성화하며 스포츠 에이전트 활동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별산업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대행,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과학연구원의 스포츠산업연구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스포츠마케팅 등 스포츠산업관련 핵심과제의 중점 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과학연구원 내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도별 스포츠산업관련 중점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A large red abstract graphic element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featuring a white arrow-like shape pointing right, which contains the text 'Section 09' and '체육시설'.

Section

09

체육시설

- 제1절 개 관
- 제2절 체육시설 조성정책
- 제3절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 제4절 태권도공원 조성
- 제5절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관리 · 운영 효율화



Section

09

체육시설



제1절 개 관

1. 체육시설의 개념

체육시설은 국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현대생활에 있어 체육시설은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터전이 될 뿐 아니라 행복을 실현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객체라고 볼 수 있다. 체육시설은 시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강력한 유인동기로 작용하며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하여 사회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주고 또한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도 한다. 이렇듯 체육시설은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관계되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 내며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사회 간접자본(SOC)이자 직접 생산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다.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 포괄적으로 접근하자면 체육시설은 ‘운동에 필요한 물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인공적으로 정비한 시설과 용기구 및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로 정의함으로써 단순히 운동을 하는 장소라는 공간적 개념만이 아닌 용구와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까지로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운동학습을 위한 각종의 장소’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그 자체의 공간적 개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은 ‘효과적이며, 보다 쾌활하고, 적합하며, 안전한 운동 활동을 전제로 설치·관리되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가지는 물적 환경’으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체육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개념으로서 체육시설은 ‘건강한 신체·정신함양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운동경기·야외운동 등의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운동에 대한 개념을 법령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체시법 시행령 별표 1에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여 법적 보호와 규제가 필요한 운동종목과 체육시설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다.

2. 체육시설의 종류

체시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을 통해 체육시설을 운동종목 및 시설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운동종목으로는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등 45개의 시설과 그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개최되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설형태별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운동종목과 시설형태별 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표 9-1)과 같다.

표 9-1 운동종목별·시설형태별 체육시설의 종류

구 분	체 육 시 설 의 종 류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출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은 설치주체와 운영주체에 따라 분류하여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크게 구분하였는데 공공체육시설이라는 용어는 1994년 체시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개정된 체시법은 공공체육시설을 세분화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와 시설 목적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등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은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참가선수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운동장·체육관 등의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체육시설이며 이와 같은 전문체육시설은 체시법 제5조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체시법 제5조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는 국내 전국단위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과 국제경기대회를 개최·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군에는 각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체시법시행령 제3조).

생활체육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는 생활환경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행정구역별로 시·군·구에는 해당 지역주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마련하여야 하고, 읍·면·동에는 해당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 체육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체시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표 9-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구 분	설치 기준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읍 · 면 · 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팅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출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직장체육시설은 직장인이 건강 및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직장의 장이 설치하는 체육시설로서 근로자 500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직장에는 체시법시행령 별표1의 체육시설의 종류 중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체시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별표3). 정부는 공공체육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체시법 제8조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중 직장체육시설을 제외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하고, 더불어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해 공적 이용이라는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성격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하였다. 전국에 위치한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표 9-3)과 같다.

표 9-3 전국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수)

종목 \ 시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계	16,127	2,642	795	358	771	372	338	249	2,756	1,324	618	827	919	1,214	1,259	1,391	294
육상경기장	216	3	3	4	2	2	3	5	35	26	14	12	14	24	28	29	12
축구경기장	649	61	24	17	18	12	11	27	123	40	21	16	56	62	37	106	18
하 키 장	13	1	1	1	1	-	-	-	2	1	1	1	-	2	1	1	-
야 구 장	101	12	5	3	5	2	1	1	19	14	5	1	7	7	9	7	3
싸이클경기장	11	1	1	1	1	-	1	-	1	1	1	-	1	1	-	1	-
테니스장	565	56	10	16	15	15	8	5	113	62	24	29	50	50	39	66	7
씨름장	34	-	1	1	-	-	1	1	6	4	-	1	5	4	6	3	1
간이운동장 (동네체육시설)	12,194	2,250	703	274	683	297	263	179	2,082	945	410	516	584	820	1,011	972	205
체 육 관	681	112	19	15	15	16	17	11	132	50	29	35	47	49	44	67	23
전천후 게이트볼장	818	4	1	1	4	4	7	5	103	106	68	183	114	123	24	57	14
수영장	292	86	5	13	10	8	16	9	59	11	8	4	14	14	17	16	2
롤러스케이팅장	124	16	11	3	7	2	2	1	17	10	8	4	6	7	10	18	2
사격장	21	-	1	1	1	-	-	1	1	4	3	1	1	1	4	2	-
국궁장	236	8	1	3	7	3	5	3	41	31	14	21	13	37	14	30	5
양궁장	19	1	1	2	1	1	1	1	3	2	3	-	1	1	1	-	-
승마장	16	1	2	2	-	1	1	-	1	3	-	-	2	-	3	-	-
골프연습장	56	27	1	-	1	4	-	-	5	5	1	-	-	4	3	4	1
조정카누장	10	-	1	-	-	-	-	-	2	1	3	-	-	2	-	1	-
요트장	17	-	1	-	-	-	-	-	1	2	1	1	1	2	1	7	-
빙상장	20	3	1	1	-	1	1	-	7	2	-	-	1	-	1	2	-
설상경기장	3	-	-	-	-	-	-	-	-	3	-	-	-	-	-	-	-
기타시설	31	-	2	-	-	4	-	-	3	1	4	2	2	4	6	2	1

※ 2011. 12월말 기준

체육시설 중 민간체육시설은 체육단체·민간단체·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체육활동 또는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모든 비영리 체육시설과 개인·영리단체 또는 기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모든 상업용 체육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다. 체시법 제2조에서는 ‘체육시설업’이라는 별도의 용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과거 체육시설업은 9개의 등록체육시설업과 11개의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총 20종류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7월 29일 법률을 개정하여 당초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로 되어 있던 등록체육시설업 중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 등 6개 시설을 시·군·구 사무인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체육시설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2006년 3월 24일 개정법률(법률 제7913호)을 통해서 상기 등록체육시설업에서 신고체육시설로 전환된 6개 업종을 포함한 17개 신고체육시설업종 중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이러한 체육시설업은 회원모집·시설규모·운영형태 등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회원제 체육시설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대중 체육시설업으로 나눠 세분화 하고 있다(체시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체육시설업 현황은 (표 9-4)와 같다.

표 9-4 전국 시도별 체육시설업 현황

(단위 : 개소)

종 목	시 도	전 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총 계		56,807	11,717	3,243	2,468	3,126	1,790	1,564	1,475
등록시설계		439	0	8	2	6	2	3	4
골프장		416		8	2	6	2	3	4
스키장		20							
자동차경주장		3							
신고시설계		56,368	11,717	3,235	2,466	3,120	1,788	1,561	1,471
요트장		19	1						
빙상장		40	12	4	2		1	2	
승마장		116		1					
종합체육시설		230	87	18	9	4	6	7	3
수영장		567	77	28	22	18	11	24	16
체육도장		13,485	2,371	873	772	801	411	381	345
골프연습장		9,033	1,930	503	433	368	202	240	340
체력단련장		6,449	1,696	492	344	317	220	225	148
당구장		25,159	5,375	1,254	756	1,573	873	629	587
썰매장		122	5		3	2	1	2	1
무도장		72	13	1	2	4			
무도학원		1,076	150	61	123	33	63	51	31

종 목	시 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총 계		13,591	1,999	1,743	2,214	2,181	2,142	3,112	3,631	811
등 록 시 설 계		140	61	34	19	20	32	40	28	40
골 프 장		133	49	33	19	19	31	40	27	40
스 키 장		6	11	1		1			1	
자 동 차 경 주 장		1	1				1			
신 고 시 설 계		13,451	1,938	1,709	2,195	2,161	2,110	3,072	3,603	771
요 트 장							2	1	13	2
빙 상 장		4	4	1	2	1	2	3		2
승 마 장		36	3	2	10	8	9	13	5	29
종 합 체 육 시 설		59	5	6	4	5		13	3	1
수 영 장		153	48	12	30	17	26	34	32	19
체 육 도 장		3,384	383	373	540	526	442	775	951	157
골 프 연 습 장		2,366	333	277	304	281	276	494	527	159
체 력 단 련 장		1,323	175	183	208	193	145	327	378	75
당 구 장		5,854	923	833	1,049	1,091	1,152	1,330	1,609	271
썰 매 장		33	32	5	9	6	6	9	7	1
무 도 장		37	1	1	1	1	2	3	3	3
무 도 학 원		202	31	16	38	32	48	70	75	52

※ 2011. 12월말 기준



제2절 체육시설 조성정책

1. 체육시설 조성정책의 전개과정

우리나라는 19세기 후반 국내로 입국한 외국의 외교관들이나 계몽주의적 서구교육을 기초로 세운 민간학교를 중심으로 축구, 사이클, 정구, 체조, 육상 등의 스포츠가 대중에게 소개되었고 이를 통해 체육시설이 점차 확대 되었다. 그 결과 각 급 학교의 운동장이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체육시설은 현재와 같이 잘 정비되어진 체육시설이 아닌 자연 상태에 가까운 환경을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1897년 2월 영어 학교에 근무했던 영국인 교사 허치슨(Hutchison)이 탁지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지원된 학생들의 식비 예산 1,000원 가운데 일부를 운동장 확장과 운동기구 구입에 충당한 것을 적극적 체육시설 조성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후 1916년 5월 YMCA가 회관 옆에 실내체육관을 완공하면서 그간 야외에서 한정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체육활동이 실내 스포츠 활동의 전개로 확장되었고 1923년 7월 전조선 육상경기대회 준비를 위하여 휘문의숙 교주(校主)인 민영휘(閔泳徽)가 계동궁의 절반을 매입해 넓이를 측정하여 경기장 중간에 100m 직선주로를 만들고 주변에 333m의 트랙을 설치함으로써 최초로 우리나라 정규 육상경기시설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과 설치가 고조되던 즈음에 1926년 경성부가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인 형태를 갖춘 최초의 체육시설인 경성운동장(옛 동대문운동장)을 건립하였다. 광복 후인 1957년에 전국체육대회가 서울과 지방의 균등한 체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지방 순회개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에 각종 근대적인 경기장 시설이 건립되었다. 이 시기에 효창운동장(1959년)과 장충체육관(1960년)등이 건립되었다.

우리나라 체육시설 조성 정책은 도입초기부터 1950년대까지는 민간부분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1960년대부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 국내 체육시설의 상당 부분이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주도되어 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법률 제114호로 제정, 발효되었으며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민간으로부터 도입된 체육은 학교와 교육의 영역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체육이 가지고 있던 한정적인 범위가 아닌 전 국민의 생활영역으로 확대·발전시키고자 하였고, 체육진흥을 국가와 지방의 중요한 정

책요소로 명문화한 계기가 되었다. 1966년에는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통한 우수선수 양성으로 국위선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릉선수촌을 건립하였고, 1970년대 이후 전국 주요 도시마다 운동장과 체육관 등의 대형 체육시설 건립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81년에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대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이듬해인 1982년 체육부가 신설되었고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다. 대회를 치러내는 과정을 통해 체육시설이 획기적으로 확충되게 되었는데 대회가 치러지는 도시인 서울에 체육시설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건립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1986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 체육시설사업을 국고보조대상사업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이듬해인 1989년 3월 31일 정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권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목적을 가지고 체시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그 당시 교통부가 골프장과 스키장, 보사부가 수영장, 문교부가 체육도장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체육시설의 관리업무를 체육부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체육지도자 배치와 피해보상제를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개최한 이후 기존 엘리트체육 육성정책에서 전환하여 생활체육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환경과 공간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생활체육 보급률을 높일 수 있었고 전국 15개 시·도에 올림픽기념생활관이 건립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역사회 체육시설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1990년 수립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과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은 체육시설이 확충되고 개선되는 데 있어 정책적 토대가 되었다.

2.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

정부는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수행됨으로 인해 고조된 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생활체육으로 이어가고자 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함께 1990년 3월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을 수립하였고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간 추진하였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은 국민생활체육진흥을 이뤄내 복지사회의 실현과 국민의 축적된 에너지의 합리적 활용을 통한 국가·사회발전의 가속화, 여가생활의 건전화를 통한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두었다. 국민생활체육

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의 기본적인 진행방향은 평생체육의 실현과 국민의 체력·정신력 강화를 통한 국력 배양 그리고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에서 체육시설부분을 보자면 신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단계적으로 확충·조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신규 확충 대상은 운동장, 체육관 등 기본체육시설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동계체육시설, 체육인 올림픽동산, 직장체육시설 등으로 하여 민간투자 촉진, 체육시설 설치지역의 확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전략적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생활체육장화, 올림픽시설 활용, 직장체육시설 개방, 학교체육시설의 주민생활체육장화 등의 실천 방안을 수립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1990년에 수립되어 3년간 추진되었던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통해 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열기가 고조되었으며, 그 영역 또한 넓어졌다. 정부는 체육이 사회·경제학 분야에서 개인과 사회의 건전성을 높이고 활력을 더해주는 점에 주목했고 따라서 정부는 체육 분야에 대한 정책 제시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1993년-1997년),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1998년-2002년), 제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2003년-2007년)으로 총3차례에 걸쳐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1993년-1997년)은 모든 국민의 체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체육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체육시설 확충과 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부족한 동계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지역의 기본체육시설로서 운동장과 체육관, 수영장을 설치하였고, 국민의 생활 환경에 맞춘 생활권 체육시설인 동네체육시설, 종합체육회관, 구민문화체육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자연 친화적인 체육공원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공립학교 운동장, 관공서의 체육관을 개방하고 공공기관 테니스장 혹은 배드민턴장을 설치·개방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더불어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대비하기 위해 동계체육시설을 정비하였고 실내빙상장, 실외빙상장, 스키 점프대, 크로스컨트리 코스 등의 설치를 지원하였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1998년-2002년)은 꾸준히 증가하는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

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별시·광역시·도와 같은 광역단위가 아닌 시·군·구와 같은 지역의 부족한 기본체육시설과 근린체육공간 조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체육시설이 단순히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성과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었고, 운동장, 체육관, 실내빙상장, 지방스포츠센터(국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마을체육시설 등의 체육시설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의 확충 뿐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체육활동 향유기회 확대, 시설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등 관리운영의 다양성 확대 정책을 병행하여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전문체육단체의 육성과 자생력 강화를 통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생활체육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육시설과 관련된 스포츠산업의 지원을 확대해 지역과 사회발전에 대한 체육의 기능을 제고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2003년-2007년)은 참여, 분권, 자율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으로 2003년 수립되었다.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은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체육시설 공급수준을 초과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시설수가 수요수준에 비교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지표를 토대로 수립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체육활동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주민의 생활권내에서 언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정책의 방향으로서는 체육시설을 정부의 정책적 선택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해당 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다목적 체육활동 공간 조성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단위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게이트볼 경기장,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기존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함께 개인 건강기능을 중시한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였다. 전문체육시설 부분에서는 기본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더불어 체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던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시·군 기본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지원, 관리·운영실적 우수 공공체육시설 인센티브 부여, 종목별 전문체육시설과 전국체전시설 등의 확보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추진하였다. 더불어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주5일 근무제 시행, 지방분권의 확대 등의 정책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지역별 환경의 차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춰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성·연령·계층·지역의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체육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4.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우리 부는 증가하고 있는 건강유지와 체력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충족시키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에 목표연도를 2025년까지로 설정하고, 2015년까지의 사업계획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은 건강 환경의 창조와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제고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체육활동 참여율 제고를 통한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 체육시설 보급률 확대를 통한 쾌적하고 여유로운 체육활동 공간 조성,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을 통한 10분내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정기적 참여율 60%, 체육시설 보급률 100%, 체육시설 평균 접근거리 700m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추진전략으로는 지역특성별 확충전략의 차별화, 생활권 위계별 기본 체육시설 설정, 유관시설과의 기능·형태적 복합화, 재원의 다원화 및 다양성 확대, 주체 간 역할체계 정비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9-1 공공체육시설 확충 비전 체계도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은 우리 국민이 쾌적한 체육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적정 체육시설 면적을 1인당 5.7㎡로 규정하고, 체육시설 보급률 61.8%(3.5㎡/인), 참여율 50%, 접근거리 830m 등을 중기목표로 설정, 2015년까지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5.7㎡/인은 월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자 비율이 75%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되었으며, 2015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1인당 체육시설 면적 3.5㎡(보급율 61.8%)는 독일의 예를 참조하여 클럽 활동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산정되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시·군·구를 인구와 면적, 공간구조, 산업구조, 인구구조, 재정상태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역 특성별로 차별화된 확충 방향을 제시하였다. 생활권별로는 실내와 옥외시설을 구분하였고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근린형복합체육시설, 운동장생활체육시설 등을 기본체육시설로 설정하여 학교나 청소년시설 등 유관시설과의 형태적·기능적 복합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 배치방식에 있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정구역별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생활권역 및 인구 수,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화, 시설의 복합화, 재원의 다양화 지향 등을 통해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였다.



제3절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우리나라 체육시설은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양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체육시설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와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경기대회,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등을 개최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 생활체육 활동, 선수훈련, 국내·외 경기 개최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체육시설의 확충을 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대상 및 기준은 다음 (표 9-5)와 같다.

표 9-5 공공체육시설 지원 대상 및 기준

재원명	시 설 명		목 표	지원금액 지원기준	주 요 시 설
일반회계	전 국 체 전 시 설		전국체전 개최 시·도의 경기장 확보	•국고 30%, 지방비 70%	미보유 및 규격 미달 경기장 등
광특회계	시군기본 체육시설	운동장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국고 30%, 지방비 70%	필드(축구장), 육상트랙 등
		체육관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국고 30%, 지방비 70%	구기 가능 시설
광특회계	동계체육시설 (실내빙상장)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국고 30%, 지방비 70%	피겨,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가능 시설
광특회계	종목별체육시설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국고 30%, 지방비 70%	수영장, 테니스장, 사이클장, 승마 장, 야구장, 하키장, 씨름장, 양궁장 등
광특회계	체육시설리모델링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국고 30%, 지방비 70%	1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 개보수
광특회계	생활체육공원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국고 30%, 지방비 70%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롤러스 케이팅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체 력단련장, 산책로, 휴게실, 녹지공간 등
광특회계	노인건강 체육시설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국고 30%, 지방비 70%	노인계층 선호 체육 활동레저시설, 게 이트볼장,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등
체육기금	국민체육센터		시·군·구 단위에 1개소 확충 목표	•개소당 30억원 내외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체력측정실, 체력단련장 등 민간 스포츠센터 수준 의 종합체육시설
체육기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2009~2012년 500개 초·중·고 학교 조성 목표	•개소당 3.5억원	토사 또는 잔디(천연, 인조) 운동장, 탄 성포장, 다목적구장, 야간조명시설 등
체육기금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읍·면 지역 대상 (국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등 미지원 지역)	•개소당 6억원	다목적구장, 실내형 복합시설(커뮤니 티센터, 운동센터)
체육기금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2009~2012년 100개 초·중·고 학교 조성 목표	•개소당 4.8~9억원(인구 30만 이상 최대 9억원, 인 구 30만 미만 최대 4.8억 원)으로 최대 30% •지방비+교육청 70% 부담	강당 겸 체육관 또는 다목적 전용 체육 관 중 선택

1.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

정부는 매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을 위해 유치가 확정된 시·도의 미보유(규격미달 등) 경기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된 경기도에는 고양 실내체육관 93억 원, 고양 야구장 12억 원, 고양 종합운동장 12억 원, 용인 조정경기장 33억 원, 의정부 사이클 경기장 17억 원, 경기도 사격장 개보수 등 6개소 12억 원 등 총 180억 원이 지원되었다.

표 9-6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개최년도	지 역	지원금액	지 원 대 상
'82	경 남	1,200	마산야구장(1,200)
'83	인 천	200	종합운동장(200)
'84	대 구	2,000	종합운동장(500), 수영장(1,500)
'85	강 원	4,500	춘천종합운동장(3,000), 벨로드롬(500), 원주운동장(500), 강릉운동장(500)
'87	광주·전남	7,000	광주체육관(2,800), 목포운동장(400), 체육관(600), 수영장(1,700), 나주사격장(700), 벨로드롬(800)
'89	경 기	3,000	성남로울러장(300), 의정부벨로드롬(700), 안양수영장(2,000)
'90	충 북	7,000	청주수영장(3,600), 로울러장(1,430), 궁도장(170), 사격장(1,100), 음성벨로드롬(600)
'91	전 북	8,000	전주수영장(2,500), 벨로드롬(1,500), 롤러스케이팅장(1,000), 승마장(500), 군산체육관(1,500), 이리운동장(1,000)
'92	대 구	3,843	사격장(360), 로울러장(1,010), 다이빙장(250), 테니스장(505), 승마장(1,168), 궁도장(300), 조정카누장(250)
'93	광 주	4,000	수영장(4,000)
'94	대 전	4,913	수영장(2,736), 벨로드롬(2,177)
'98	제 주	5,500	제주체육관 4개소(2,300), 동흥, 조천, 한경, 안덕, 표선체육관(2,000), 서귀포궁도장(600), 서귀포테니스장(600)
'01	충 남	14,537	천안종합운동장(12,750), 천안실내체육관(750), 보령요트장(750), 예산운동장(500)
'02	제 주	2,500	제주시 주경기장 및 야구장보수(1,250), 서귀포 롤러스케이팅장(750), 제주유도체육관(500)
'03	전 북	19,200	전북임실도립사격장(6,000), 전주실내수영장(11,200), 전주롤러스케이팅장(1,000), 부안요트장(1,000)
'04	충 북	12,100	청주운동장(2,500), 청주유도회관(2,000), 청주다이빙장(1,000), 충주체육관(2,500), 충주요트장(500), 제천하키장(1,100), 제천정구장(500), 진천운동장(1,500), 진천카누장(500),
'05	울 산	31,100	종합운동장(17,000), 수영장(11,000), 테니스장(1,000), 롤러스케이팅장(1,400), 사격장(700)
'06	경 북	15,000	실내수영장(2,800), 실내체육관(7,550), 테니스장(900), 롤러스케이팅장(710), 종합운동장 조명탑(670), 태권도경기장(1,500), 종합스포츠허브(870)
'07	광 주	14,200	핸드볼경기장(4,877), 정구장(349), 하키장(500), 사격장(475), 월드컵경기장증축(1,724), 수영장보수(1,800), 태권도장보수(1,768), 승마장 보수 등 10개소(2,707)
'08	전 남	23,000	사격장(3,967), 나주인라인롤러장(1,905), 여수종합경기장보수(7,387), 망마경기장보수(2,797), 목포하키장(1,316), 목포수영장보수(1,181), 사이클경기장 보수 등 18개소(4,437)
'09	대 전	19,600	한밭 종합운동장 리모델링(19,600)
'10	경 남	21,000	진주 종합운동장(17,000), 창원 종합사격장 리모델링(3,000), 김해 카누조정장(1,000)
'11	경 기	18,000	고양 실내체육관(9,300), 고양 야구장(1,220), 고양 종합운동장(1,230), 용인 조정경기장(3,300), 의정부 사이클경기장(1,700), 경기도 사격장 개보수 등 6개소(1,250)

2. 체육진흥시설 지원(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운동장, 체육관 등 시·군 기본체육시설, 종목별 체육시설,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 생활체육공원 등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었고, 2009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면서 포괄보조사업인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특별회계로의 전환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운동장,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전지훈련시설 등 각종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011년에는 서울 1개소 20억 원, 부산 1개소 27억 원, 대구 6개소 21억 원, 인천 1개소 69억 원, 광주 3개소 33억 원, 대전 1개소 1천5백만 원, 경기 18개소 113억 원, 강원 13개소 115억 원, 충북 11개소 55억 원, 충남 7개소 63억 원, 전북 8개소 48억 원, 전남 15개소 150억 원, 경북 12개소 108억 원, 경남 19개소 122억 원, 제주 5개소 13억 원 등 총 121개소 957억 원이 지원되었다.

표 9-7 2011년 체육진흥시설 예산 지원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	예산액
합 계		121개소	95,653
서울특별시		1개소	2,000
서울	중구	중구 훈원공원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신규)	2,000
부산광역시		1개소	2,700
부산	본청	북구 청소년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계속)	2,700
대구광역시		6개소	2,130
대구	본청	U대회스포츠헤터 건립(계속)	720
대구	본청	안병근유도관 리모델링(신규)	210
대구	본청	대구 실내빙상장 개보수(신규)	250
대구	본청	서구 상리양궁장 조성(신규)	300
대구	본청	울하체육공원내 체육시설 설치(신규)	150
대구	북구	북구 다목적스포츠헤터 건립(계속)	500
인천광역시		1개소	6,850
인천	본청	인천 국제빙상경기장 건립(신규)	6,850
광주광역시		3개소	3,300
광주	북구	우산 수영장 건립(신규)	3,000
광주	북구	북구 다목적체육관 건립(계속)	150
광주	본청	진월 국제테니스장 건립(계속)	150
대전광역시		1개소	15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	예산액
대전	본청	대전 용운국제수영장 보수공사(신규)	15
경기도		18개소	11,278
경기	광주시	광주 문화스포츠크터 건립(계속)	559
경기	안산시	안산 상록수다목적체육관(계속)	700
경기	구리시	구리 다목적체육관 건립(신규)	800
경기	포천시	포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신규)	300
경기	김포시	김포 생활체육관 건립(계속)	700
경기	수원시	수원 제2체육관 건립(계속)	700
경기	안양시	안양 호계동 복합청사 체육시설 건립(계속)	500
경기	이천시	이천 인라인장 조성(신규)	150
경기	파주시	파주 교하체육공원 리모델링(신규)	400
경기	성남시	성남 종합스포츠크터 건립(신규)	2,234
경기	가평군	가평 배드민턴장 및 수영장 건립(신규)	500
경기	양평군	양평 양평정(국궁장) 설치(신규)	200
경기	양주시	양주 오산 생활체육공원 조성(계속)	743
경기	양평군	양평 강하 생활체육공원 조성(계속)	709
경기	여주군	여주 오학 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450
경기	가평군	가평 설악 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800
경기	안성시	안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200
경기	안산시	안산 성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신규)	633
강원도		13개소	11,470
강원	원주시	원주 종합체육관 건립(계속)	3,000
강원	원주시	원주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신규)	500
강원	동해시	동해 전용축구장 조성(계속)	1,000
강원	동해시	동해 전천둔치 체육공원 조성(계속)	820
강원	동해시	동해 필드하키장 조성(신규)	500
강원	횡성군	횡성 둔내체육공원 조성(계속)	1,000
강원	평창군	평창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계속)	1,400
강원	정선군	정선 고한 풋살장 조성(신규)	150
강원	화천군	화천 실내체육관 건립(계속)	500
강원	양구군	양구 실내테니스장 건립(신규)	100
강원	고성군	고성 거진스포츠타운 조성(계속)	600
강원	양양군	양양 사이클경기장 건립(계속)	1,600
강원	영월군	영월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신규)	300
충청북도		11개소	5,481
충북	청원군	청원 생활체육공원 조성(계속)	600
충북	충주시	충주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계속)	640
충북	본청	충청북도 장애인스포츠크터 건립(신규)	900
충북	본청	충청북도 근대5종훈련장 건립(신규)	600
충북	충주시	충주 배드민턴전용경기장 건립(계속)	375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	예산액
충북	제천시	제천 실내테니스장 건립(계속)	746
충북	제천시	제천 산악 자전거경기장 조성(계속)	300
충북	영동군	영동 실내테니스장 건립(신규)	420
충북	진천군	진천 야구장 조성(신규)	240
충북	증평군	증평 씨름장 정비(신규)	420
충북	옥천군	옥천 청산 국궁장건립(신규)	240
충청남도		7개소	6,261
충남	계룡시	계룡 종합운동장 건립(계속)	1,961
충남	천안시	천안 전천후테니스장 건립(신규)	1,350
충남	부여군	부여 군민체육관 리모델링(신규)	150
충남	부여군	부여 종합운동장 시설보강(신규)	150
충남	보령시	보령 종합경기장 시설보강(신규)	450
충남	서천군	서천 종합운동장 건립(신규)	1,000
충남	예산군	예산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신규)	1,200
전라북도		8개소	4,834
전북	전주시	전주 완산·덕진 체련공원 시설정비(신규)	400
전북	남원시	남원 론볼경기장 조성(신규)	360
전북	무주군	무주 자전거공원 조성(신규)	1,000
전북	장수군	장수 면단위 작은체육공원 조성(신규)	530
전북	장수군	장수 씨름훈련장 건립(신규)	600
전북	장수군	장수 다목적체육관 건립(신규)	560
전북	장수군	장수 생활체육시설 조성(신규)	368
전북	고창군	고창 체육관 건립(계속)	1,016
전라남도		15개소	15,028
전남	곡성군	곡성 옥과 생활체육공원 조성(계속)	1,300
전남	진도군	진도 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500
전남	본청	전라남도 주니어골프아카데미 건립(계속)	400
전남	본청	전라남도 종합스포츠허브 건립(신규)	3,800
전남	여수시	여수 엑스포종합테니스장 건립(신규)	1,000
전남	여수시	여수 진남체육관 및 돌산체육관 지붕교체(신규)	200
전남	나주시	나주 웨이트트레이닝센터 건립(계속)	300
전남	나주시	나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계속)	2,000
전남	광양시	광양 실내수영장 건립(계속)	900
전남	곡성군	곡성 다목적운동장 조성(계속)	500
전남	강진군	강진 중남부권 웨이트트레이닝장 건립(계속)	300
전남	해남군	해남 우슬 다목적체육관 건립(신규)	1,528
전남	영암군	영암 궁도장 및 주변체육시설 조성(계속)	400
전남	영광군	영광 실내수영장 건립(계속)	1,300
전남	영광군	영광 천년의 빛 영광선수촌 건립(신규)	600
경상북도		12개소	10,840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	예산액
경북	영양군	영양 생활체육공원 조성(계속)	160
경북	칠곡군	칠곡 북삼 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300
경북	포항시	포항 야구장 건립(계속)	950
경북	상주시	상주 실내체육관 건립(계속)	1,730
경북	구미시	구미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계속)	2,150
경북	군위군	군위 실내테니스장 건립(계속)	1,089
경북	예천군	예천 육상경기장 비가림시설 설치(신규)	300
경북	영양군	영양 군민회관 리모델링(계속)	90
경북	울릉군	울릉 공설운동장 건립(계속)	2,151
경북	안동시	안동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신규)	1,150
경북	구미시	구미 장애인체육관 건립(신규)	500
경북	성주군	성주 국제하키장 제2구장 조성(신규)	270
경상남도		19개소	12,166
경남	진주시	진주 모덕지구 생활체육공원(계속)	1,000
경남	고성군	고성 생활체육공원 조성(계속)	400
경남	남해군	남해 창선 생활체육공원 조성(계속)	1,100
경남	산청군	산청 남부 생활체육공원 조성(계속)	1,000
경남	양산시	양산 웅상 생활체육공원 조성(계속)	1,000
경남	거제시	거제 둔덕 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310
경남	밀양시	밀양 단장 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135
경남	하동군	하동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900
경남	합천군	합천 아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300
경남	사천시	삼천포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계속)	600
경남	의령군	의령 부림운동장 보조구장 건립(신규)	210
경남	거제시	거제 스포츠파크 조성(계속)	751
경남	고성군	고성 역도경기장 건립(계속)	500
경남	진주시	진주 론볼경기장 조성(신규)	360
경남	사천시	삼천포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신규)	500
경남	함안군	함안 축구전용구장 조성(신규)	1,700
경남	남해군	남해 이동 공설운동장 조성(신규)	600
경남	통영시	통영 야구장 조성(신규)	500
경남	합천군	합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신규)	300
제주특별자치도		5개소	1,300
제주	제주시	삼양운동장 조성(계속)	410
제주	서귀포시	읍면종합운동장 시설보강(계속)	240
제주	제주시	애월 동부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계속)	140
제주	서귀포시	제주 월드컵경기장 전광판 보강(신규)	240
제주	서귀포시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신규)	270

3. 생활체육시설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정부는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을 지원한다. 지원의 목적은 생활체육공간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주요 추진전략은 체육시설 신규조성과 함께 기존시설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현재 국민체육센터와 운동장생활체육시설(구 천연잔디구장 및 우레탄 시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등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1) 국민체육센터 확충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여 서민 체육공간을 확충하여 사회복지기반 구축에 기여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복지에 환원하여 생활체육시설의 전국적인 확대 건립을 통하여 체육서비스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고자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해오고 있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시행한 국민생활관 사업을 초석으로 1997년부터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스포츠센터로부터 출발하여 1999년에는 보급형스포츠센터로, 다시 2001년부터는 국민체육센터로 그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생활체육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도별로 각 1개소씩 연차적으로 착공, 2001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2001년 8월 문화관광부의 ‘생활체육활성화 대책’에서는 일반 대중이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형 종합 체육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각 1개소씩 기존의 35개소를 포함하여 85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목표를 확대하였으며, 다시 시·군·구에 각 1개소씩 건립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 시행주체가 되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기본형(4레인×25m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력측정실 등), 체육관복합(기본형+체육관), 다목적 체육관형(체육관복합형에서 수영장 제외) 등 3개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지원되고 있다. 다음 (표 9-8)은 국민체육센터 연도별·지역별 건립 지원 현황이다.

표 9-8 국민체육센터 연도별·지역별 건립 지원 현황

구분	국민 생활관	'97	'99	'00	'01	'02	'03	'04	'05	
서울 (3/25)	종로	강서(90) 〈00.7〉				성동(30) 〈04.3〉				
부산 (14/16)	해운대		서구(37.5) 〈01.11〉			사하(30) 〈06.4〉	금정(30) 〈07.11〉	영도(30) 〈09.10〉		
대구 (7/8)	달서구		동구(37.5) 〈03.11〉				북구(30) 〈05.12〉	달서(30) 〈07.4〉	서구(30) 〈09.1〉	
인천 (6/10)	남동구		계양(37.5) 〈01.12〉		부평(30) 〈04.11〉		남동(30) 〈06.7〉	서구(30) 〈08.10〉		
광주 (5/5)	서구		광산(37.5) 〈03.7〉		서구(30) 〈04.11〉		북구(30) 〈06.8〉	남구(30) 〈09.02〉		
대전 (5/5)	서구		유성(22) 〈02.9〉			서구(30) 〈06.8〉			대덕(30) 〈09.6〉	
울산 (4/5)			중구(30) 〈04.9〉		동구(30) 〈05.10〉				북구(30) 〈09.11〉	
경기(24/31)	안산		의왕(30) 〈02.12〉 부천(30) 〈02.5〉			광명(30) 〈08.7〉 평택(30) 〈05.7〉	가평(30) 〈08.05〉	시흥(30) 〈07.5〉 하남(30) 〈07.6〉	화성(30) 〈10.11〉 오산(30)	
								인제(30) 〈09.6〉 동해(30) 〈07.3〉	강릉(30) 〈09.4〉	
강원 (14/18)	춘천		춘천(30) 〈02.9〉	원주(30) 〈06.7〉			고성(30) 〈06.7〉			
충북 (12/12)	청주	제천(45) 〈99.5〉		충주(30) 〈05.10〉		보은(30) 〈06.8〉	청원(30) 〈05.10〉	음성(30) 〈09.6〉	증평(30) 〈08.04〉	
충남 (14/16)	아산		천안(30) 〈01.7〉	공주(30) 〈03.3〉	금산(30) 〈06.4〉	연기(30) 〈05.12〉	서산(30) 〈06.7〉	보령(30) 〈06.6〉	논산(30) 〈09.07〉	
전북 (14/14)	익산	익산(45) 〈00.10〉		전주(30) 〈05.11〉	군산(30) 〈04.7〉	정읍(30) 〈06.7〉	완주(30) 〈06.9〉	남원(30) 〈07.1〉	장수(30) 〈09.04〉	
전남 (19/22)	순천		강진(30) 〈02.3〉 목포(30) 〈02.12〉		무안(30) 〈09.12〉		영광(30) 〈07.10〉 곡성(30) 〈07.6〉	나주(30) 〈11.3〉	해남(30) 〈08.06〉	
경북 (20/23)	구미		영주(30) 〈05.10〉 군위(20) 〈03.4〉			문경(30) 〈04.10〉 경주(30) 〈05.12〉	안동(30) 〈06.2〉	포항(30) 〈08.12〉	상주(30) 〈09.10〉	
경남 (20/18)	마산		진해(30) 〈02.12〉 밀양(20) 〈03.11〉		함안(30) 〈04.8〉		의령(30) 〈07.4〉	양산(30) 〈09.12〉 진주(30) 〈08.9〉	거제(30) 〈11.5〉	
제주 (5/2)	서귀포		제주(30) 〈01.10〉	서귀포(22) 〈05.12〉				북제주(30) 〈08.5〉		
계	183(177) (5,440)	15 (-)	3 (180)	17 (512)	5 (142)	7 (210)	10 (300)	13 (390)	16 (480)	12 (360)
	결산액	4,318	276		63	123	228	175	274	269

구분		'06	'07	'08	'09	'10	'11
서울 (3/25)							-
부산 (14/16)		남구(30) 〈10.3〉		기장(29)	연제(30) 사상(30) 동래구(31) 북구(31) 〈11.9〉	강서구 (30)	동구(32)
대구 (7/8)					달성(29)		중구(30)
인천 (6/10)						중구(29)	강화군(32)
광주 (5/5)					동구(31) 〈11.8〉		-
대전 (5/5)				중구(30) 〈10.09〉			-
울산 (4/5)				남구(29) 〈10.11〉			-
경기 (24/31)			양평(29) 〈10.12〉	포천(29) 〈10.9〉 안성(29) 〈11.6〉	남양주(28) 〈11.7〉 김포(27) 성남(27) 여주(28) 고양(27)	이천(29) 파주(28) 양주(28)	구리시(29) 수원시(27)
강원 (14/18)		평창(30) 〈10.12〉	태백(28) 〈11.5〉	속초(30) 횡성(31)	양구(31) 〈10.8〉 홍천(31) 〈11.11〉 정선(31) 〈11.12〉	영월(32)	-
충북 (12/12)			영동(30) 〈09.10〉		옥천(31) 단양(31)	진천(31) 괴산(32)	-
충남 (14/16)		서천(30)		태안(30)	예산(31) 당진(29)	부여(32) 청양(32)	-
전북 (14/14)				부안(32) 〈10.4〉	김제(31) 〈11.9〉 진안(31)	무주(32) 순창(33) 임실(33)	고창군 (33)
전남 (19/22)		구례(30) 〈09.07〉	진도(36) 〈11.7〉 여수(27) 〈10.06〉	장흥(32) 〈10.11〉	영암(31) 화순(30) 〈11.7〉	신안(33) 광양(29) 〈11.12〉 완도(33)	-
경북 (20/23)		경산(30) 〈10.3〉	청도(30) 〈10.6〉	칠곡(29)	고령(31) 울릉(32)		김천시(31), 의성군(32), 영양군(32), 성주군(32)
경남 (20/18)		거창(30) 〈11.1〉	김해(30) 〈09.9〉	통영(31) 〈10.3〉	사천(31) 〈11.11〉 고성(31) 하동(31) 산청(31) 〈11.5〉 창원(27) 〈11.12〉	창녕(32) 합천(32) 남해(32) 함양(32)	-
제주 (5/2)				남제주(30) 〈09.12〉			-
계	183(168) (5,160)	6 (180)	7 (210)	13 (391)	29 (871)	20 (624)	10 (310)
	결산액	515	464	460	531	409	530

※ 푸른색 : 미완공 / <일자> : 완공일

2) 운동장 생활체육시설(구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축구발전종합대책(1997년 9월)과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1998년-2002년)에 의거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학교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유망주 육성 등을 통한 전문체육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체육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8년부터 공설운동장과 학교 운동장을 대상으로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였고, 1999년에 공설운동장 34개소를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하였다. 이후 2000년에는 천연잔디구장과 잔디·우레탄 설치 지원사업으로 이원화 되어 추진하였으며, 2003년에는 종합운동장 조성지원사업, 2004년에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지원사업이 추가되었다. 2005년부터는 사업명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로 개칭하여 초·중·고·대학교와 공설운동장의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까지 매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초·중·고교 운동장 132개소, 대학(교) 10개소, 지자체 33개소 등 총 175개소를 지원하여 현재까지 1,406개소(천연잔디구장 및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를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획」 발표 및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간 협약 체결(2008년 10월 15일)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2009년~2012년 기간에 총1,000개 초·중·고교에 다양한 학교운동장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 (내용) 학생들의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운동장을 천연잔디,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 다목적구장 등으로 조성 지원
- (계획) 2009년~2012년 기간 총 1,000개교의 학교운동장 조성(문체부, 교과부 각 500개교)
※ 200개교(2009년)→200개교(2010년)→300개교(2011년)→300개교(2012년)

표 9-9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 개소수)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천 연 잔 디 구 장	'98	37		1		2			5	4	3	1	4	3	7	6	1
	'99	34		1	1	2	1	1	2	2	2	2	6	5	4	3	2
	'00	13	1						1	2			1	2	1	3	2
	'01	11			1				1	2	1		1	2		1	2
	합계	95	1	2	2	-	4	1	1	9	10	6	3	12	12	13	7

(단위 : 개소수)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00~'03	227	27	17	14	6	9	10	7	28	11	8	13	19	13	18	19	8
	'04	104	11	13	8	4	5	4	3	9	4	6	6	5	6	9	9	2
	'05	116	10	11	8	4	6	5	5	11	6	6	7	6	8	10	9	4
	'06	100	11	10	6	3	4	4	3	13	3	4	5	6	5	8	10	4
	'07	141	16	14	8	6	6	5	4	18	9	5	8	5	10	12	12	3
	'08	108	10	10	7	5	4	5	4	15	5	5	6	4	8	9	9	2
	'09	200	18	17	12	7	10	11	5	19	15	8	14	14	12	18	17	3
	'10	140	10	14	11	6	7	6	3	17	8	7	9	8	8	11	12	3
	'11	175	16	14	10	7	5	6	4	21	14	7	10	10	13	18	17	3
	합계	1,311	129	120	84	48	56	56	38	151	75	56	78	77	83	113	114	32

※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3)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양과 질적인 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주요 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투자 대부분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편중되어 추진되었다. 따라서 지역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체육복지 실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면 단위이하 지역의 체육시설 보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은 기존 한국마사회 경마수익금으로 지원되던 농어민문화체육센터(2004년 종료)의 대안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어지는데 이는 조성된 기금을 국민체육복지에 환원함과 동시에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농어촌 체육복지 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도·농간 지역 격차 완화를 통한 국민 화합과 삶의 질의 균형발전 도모, 국민체육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읍 지역(199개소)이며 그 중 국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기타 유사 공공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한다. 2011년 말 현재 총 38개소를 지원하였고 그 중 24개소가 건설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14개소가 건설 추진 중에 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의 구성은 레크리에이션센터, 커뮤니티센터, 아쿠아센터, 다목적구장 등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 중에서 지자체가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9-10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연도별·지역별 지원실적

() : 지원금액 (단위 : 개/억원)

사도	개소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서 울	-						
부 산	-						
대 구	-						
인 천	-						
광 주	-						
대 전	-						
울 산	-						
경 기	6	남양주(3.5), 포천(5)	양주(5), 여주(5)	파주(5)			여주군(6)
강 원	7	삼척(6)		영월(6)	홍천(4.5) 화천(5), 고성(6)	춘천시(6)	영월군(6)
충 북	1				음성(6)		
충 남	3					서천군(6) 예산군(6)	부여군(6)
전 북	4	순창(5)		정읍(5)		부안군(6)	무주군(6)
전 남	4	고흥(6)	영암군(6)	강진(4.5), 신안(6)			
경 북	6		구미(4.5), 포항(5), 영주(6)	봉화(6)	청도(5)		의성군(6)
경 남	6	사천(6), 산청(6)	하동(6)	창녕(4.5)	함안(6)	거창군(6)	
제 주	1				제주(5)		
계	38 (210)	7 (37.5)	7 (37.5)	7 (37.5)	7 (37.5)	5(30)	5(30)

4)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각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건립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체육관을 건립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지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학생 및 일반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시범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2009년도에는 지방재정자립도 30% 이하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25개 초·중·고교를 지원하였고, 2010년부터는 재정자립도 30% 이하 조건을 완화하여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중 30%는 체육기금, 20%는 지자체, 50%는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용(정규) 체육관(바닥면적 600㎡ 이상, 천장높이 6m 이상), 강당 겸용 체육관(평상 시 : 체육활동, 행사 시 : 입학식, 졸업식, 각종 발표회 등) 2개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사업은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획」 발표 및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간 협약 체결(2008년 10월 15일)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2009년~2012년 기간에 매년 25개교씩 총 100개 초·중·고교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비 및 지방교육청 예산 확보 등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표 9-11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 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지 역	수량	금액	'09	'10	'11
계	77	37,617	25개소 9,750백만원	27개소 14,597백만원 (대도시 8, 소도시 19)	25개소 13,270백만원 (대도시 8, 소도시 17)
서울	1	900	-	동작 동작초 900	-
부산	2	1,166	-	북구 가람중 686	동신중(480)
인천	1	480	-	강화 교동중 480	-
대구	-	-	-	-	-
광주	1	900	-	-	광주체고(900)
대전	2	1,800	-	서구 서원초 900	서중(900)
울산	-	-	-	-	-
경기	8	4,751	양평 개군초 410 가평 상면초 400	성남 이매중 900 고양 화정초 600 안산 미디여고 900	현산초(600) 삼송중(461) 갈매중(480)
강원	7	2,845	홍천 팔월고 315 횡성 강림중 220	인제 용대초 480 영월 옥동초 480	귀래초(390) 춘천초(480) 화계초(480)
충북	4	1,820	진천 이월중 410 영동 황간고 450	청원 미원초 480	진천고(480)
충남	7	3,164	부여 백제중 400 홍성 광동초 400	공주 정보고 480 금산 금산여고 480	천안초(444) 웅천중고(480) 서야고(480)
전북	8	4,020	완주 구이중 400 무주 무주초 400 정읍 이평초 400	남원 용북중 480 장수 개남초 480	원광여중(900) 한국한방고(480) 산서초(480)
전남	16	6,531	장흥 관산초 400 보성 예당고 400 진도 군내북초 400 영암 도포중 270 강진 강진여중 400 해남 송지중고 400 순천 매산중 400	목포 대연초 375 목포 임성초 375 담양 고서초 465 강진 중앙초 480 장흥 장평초 351 완도 노화고 480	대불초(375) 도사초(480) 금일초(480)
경북	13	5,790	상주 중모중 400 예천 감천초 420 고령 대가야고 400 영주 대영고 415 의성 의성초 400 영천 전자고 415 영양 영양초 425	구미 선주초 480 안동 경덕중 480 상주 화령초 465	이동중(530) 경일고(480) 영동중고(480)
경남	6	2,970	-	밀양 흥제중 480 창녕 길곡초 480 함양 서하초 480	진해여중(570) 대성일고(480) 남지중(480)
제주	1	480	-	제주 귀일중 480	-

4.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2010년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사용용도에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전문체육시설(실내시설은 500석, 실외시설은 1000석 이상 관람석을 갖춘 시설만 해당)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개수·보수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사업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준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여 개수·보수지원을 추진하였다. 지원체계는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교부 신청할 경우, 그 중 선발하여 지원하는 “선 결정, 후 지원”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2011년에는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울 장충체육관, 목동야구장, 수원 야구장, 포항 실내수영장 등 총 25개소 279억원의 지원 결정되었다.

표 9-12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금액단위 : 백만원)

지 역	사 업 명	지원금액	비 고
계	20개 사업	27,838	
서 울	3개소	5,823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4,523	
"	잠실실내체육관 개수·보수	300	
"	잠실제1수영장 보수·보강	1,000	
광주	광주 야구장 개수·보수	1,900	
경기	4개소	4,960	
"	안산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565	
"	성남 종합운동장 시설정비	555	
"	남양주 금곡체육관 보수	90	
"	수원 야구장 리모델링	3,750	
강원	양구 종합운동장 개수·보수	600	
충북	4개소	3,225	
"	청주 종합경기장 시설 개선	780	
"	청주 야구장 개수·보수	840	
"	충주 종합운동장 개수·보수	675	
"	음성 종합운동장 개수·보수	930	
전남	여수 진남운동장 개수·보수	210	
경북	2개소	1,980	
"	문경 시민운동장 개수·보수	1,080	
"	포항 실내수영장 개수·보수	900	
경남	3개소	4,640	
"	사천 삼천포운동장 리모델링	2,000	
"	창원 마산야구장 리모델링	2,340	
"	통영 공설운동장 개수·보수	300	
제주	제주 종합경기장 개수·보수	4,500	



제4절 태권도공원 조성

1. 태권도공원 조성의 의의

1) 태권도공원 조성의 배경 및 의의

태권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대 브랜드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200개의 회원국과 7천여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가라테와 우슈 같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무도 종목뿐만 아니라, 영미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전통적 스포츠 종목과 비교해도 태권도와 같이 40여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사례는 근대체육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태권도가 단기간에 양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경기에 기초한 세계화 추진전략”(윤상화, 2005)이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계는 1960년대부터 태권도 사범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세계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모든 역량을 외연확대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전 세계에 10만 여개의 태권도장이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의 디딤돌 역할을 해 왔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10대 문화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국외의 수많은 수련생들이 자신들이 수련하고 있는 태권도에 대한 역사와 철학, 이론을 배우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을 정도이다. 이렇듯 태권도는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미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주국으로서 대한민국 태권도는 해외 태권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비교할 때, 국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해외 태권도계의 한국인 비중 역시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기위주의 단순성과 무도 및 생활태권도로서의 기능약화, 태권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저하 등 국내적 요인과 이종격투기 등과 같은 각종 무술종목과의 경쟁심화 등 국외적 요인 때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에 도래한 국내외적 위기와 관련하여 태권도는 중주국으로서의 문화원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많은 태권도 관계자들은 중주국 태권도의 문화브랜드화를 통하여 21세기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발전 원동력을 확보하고, 세계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태권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1997년 7월 대한체육회의 태권도성전 건립 건의 등을 계기로 태권도공원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1999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태권도 관련 시설물 조성에 대한 필요성 및 사업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2001년 9월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3년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과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2)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선정

태권도공원의 조성목적은 태권도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 그리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태권도인과 세계 태권도인들의 순례와 수련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결과 태권도공원은 단순한 공원 개념에서 탈피하여 세계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태권도와 관련된 교육·문화·연구개발 등의 다양한 기능적 핵심 기반시설을 동시에 갖추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5월 정부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개년 간 계획부지 70만평, 조성부지 20만평에 명예의 전당, 종주국 도장, 종합수련원 등의 공공투자 부문과 세계문화촌, 숙박촌, 전통한방요양원 등 민간투자 부문의 시설물을 2단계에 걸쳐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선정을 위하여 15개 분야 19명으로 구성된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위원회’와 11개 분야 총 13명으로 구성된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후보지 신청기간(2004년 10월 7일-1월 6일) 중 접수된 총 17개 지역(부산시 기장, 광주시 광산구, 인천시 강화, 경기도-양주·양평·여주·포천, 전북도-무주, 전남도-여수, 경북도-경주)을 심사한 결과, 1차적으로 3개 지역(춘천, 무주, 경주)을 선정하였고, 2004년 12월 30일 3개 지역 가운데 전북 무주(설천면)를 태권도공원 조성부지로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2.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경과

1)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준비단 발족

정부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5년 2월 14일 ‘태권도공원조성추진준비단’을 발족,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준비단은 단장 이외에 4급 1명, 5급 1명, 6~7급 2명, 업무보조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로드

맵 수립, 태권도공원 해외홍보, 태권도공원 명칭공모,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민제안, 태권도공원 조성을 담당할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2)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홍보방안 마련

태권도공원조성추진준비단은 2005년 3월 세계태권도연맹 이상철(미국) 부총재, 박선재(이태리) 부총재, 이태은(캐나다) 감사, 정화(미국) 집행위원 등 5명을 태권도공원 조성지인 무주로 초청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설명 및 협조를 요청하였고, 2005년 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연맹 총회에 준비단장 및 무주군수 등이 참석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세계태권도연맹 각국 태권도지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또한 2005년 7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등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 37명을 전북 무주로 초청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 태권도공원에 대한 명칭 공모 및 국민제안, 세미나 실시, 명칭 결정

태권도공원조성추진준비단에서는 2005년 3월 국내 및 세계태권도연맹 산하 179개국 태권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태권도공원 명칭공모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402명이 응모한 178편의 명칭 중 우수작 3편(세계태권도광장, 태권도센터, 태권도월드)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태권도공원 명칭공모에 제안된 명칭은 다음과 같다.

표 9-13 태권도공원 명칭공모 결과

구 분	제 안 된 명 칭
국내 공모 결과 (10건)	세계태권도광장, 태권도센터, 태권도월드, 태권도공원, 태권도본전, 태권터전, 태권타운, 태권도누리, 태권도랜드, 태권도밸리
해외 태권도지도자 제안(5건)	세계태권도전당, 태권랜드, 태권도밸리, 태권궁, 태권도토피아
국내 태권도지도자 의견 등(7건)	세계태권도피아, 태권시티, 태권신시, 태권세상, 태권세계, 태권도산, 태권도맥

또한 준비단에서는 2005년 6월과 7월 태권도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국민 제안을 공모하여 총 20건 중 최우수 제안자 1명, 우수 제안자 3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표 9-14 태권도공원 조성 방향 국민제안 공모 결과

구 분	제 안 내 용
최우수 제안	태권도 세분화를 통한 홍보전략과 공원의 조성방안
우수 제안	태권도역사관, 명예의 전당, 전시관, 체험관 건립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 세계태권도인들의 체계적 관리(이메일, 아이디 등)
	태권도공원 발전 프로그램에 관한 제안

준비단은 태권도공원의 기본개념 정립과 향후 태권도공원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성격의 태권도공원 기본개념 정립 연구를 2005년 3월부터 7월까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을 추진하였다. 또한, 태권도공원 기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5년 7월 22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태권도계, 관광계, 건축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0여명을 초청하여 태권도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편, 국내외 태권도인(특히, 해외진출 사범·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태권도공원」명칭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재검토 요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태권도 성지와 순례의 장으로서의 느낌이 부족하고 오히려 놀이공원(테마파크)의 이미지가 강하게 풍긴다는 것이 태권도인 다수의 의견이었다.

이에 태권도의 교육적·정신적 가치를 세계 속에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중심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립취지와 태권도인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새로운 명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명칭변경이 추진되었다. 「태권도공원」명칭변경을 위해 지난 2011년 3월에 태권도 주요 4단체 사무총장·부원장 등 4명, 주무부처 담당과장, 학계 및 해외사범 출신 3명 등 총 8명으로 「태권도공원 명칭변경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켜 심도 있는 논의를 3차례 가졌고 아울러 국내 주요단체, 시도협회, 도장, 대학 등 217개 단체(개인)와 해외 주요태권도단체 및 지도자 등 175개 단체(개인)를 대상으로 후보명칭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는데 노력하였다. 4차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압축된 3개의 후보명칭을 대상으로 태권도계 분야별(학계, 언론 등)로 12명을 추가 추천하여 심층토론 및 투표를 통해 「태권도원(Taekwondowon)」을 최종안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결과를 주무부처에 1차 보고를 완료하고, 추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4) 태권도공원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설립

태권도공원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태권도계와 문화·관광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005년 6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창립이사회를 개최하였고, 7월 1일 문화관광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태권도진흥재단이 설립되었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문화관광부 태권도공원조성추진위원장을 맡아 태권도공원 조성지 선정에 참여한 이대순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이 선출되었다. 이후 2대 이사장으로 연임되어 업무를 수행하다, 임기만료인 2011년 11월에 제3대 이사장으로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자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배종신 사무총장이 선출되었다. 태권도진흥재단에 조직구성인 이사 23명과 감사 1명 등 총 25명의 임원 및 2국 5팀 총 35명의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태권도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사업 이외에도 태권도 관련 연구·조사·홍보사업, 태권도 연수사업 및 태권도지도자 양성 지원사업, 태권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5)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등 4개 컨소시엄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을 2005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8개월간 추진하였다. 동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태권도공원 기본개념 정립, 공간구성 등 건축프로그램 설정, 총사업비 산출, 운영프로그램 개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국제설계경기 운영계획수립, 설계지침서 작성 등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태권도공원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초점은 태권도공원 이용자를 지도자, 일반인(고단자, 태권도인, 일반인), 수련자 등으로 구분하고 각 이용자별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세계 태권도인의 중심본부, 세계 태권도 발전의 중추적 공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명소 공간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아울러 이용자를 고려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태권도인에게는 전문교육과 수련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인에게는 태권도의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도입시설 계획은 태권도 종주국의 대표시설로서 태권도공원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었으며, 지형 순응형 자연친화적 건축계획을 통해 태권도의 기본정신을 거양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들여다보면 공공부분 상징지구에는 태권전과 명인관을 비롯한 추모공원과 전망대 등이 들어서고 교육·수련 지구에는 태권도연구소를 비롯한 연수원과 운영센터, 다목적운동장 등이, 문화·관광공간에는 태권도국제경기장과 방문자센터, 전시장 및 체험장, 세계태권도마을 등이 들어선다. 민자 지구에는 산학협력시설을 비롯한 학원중심 교육시설과 숙박시설, 의료보양시설, 상업시설을 갖추 예정이다.

동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을 의뢰(2006년 11월)하였고, 2007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총사업비 6,009억원: 민자 포함 시)되었으며, 2009년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동년 12월에는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최종적으로 득하였다.

6) 관련 법체계 정비 및 마스터 플랜 수립

2007년 12월 21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 6월 22일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공원 조성을 위한 법체계가 완성되었다. 2008년 2월에는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의해 태권도공원 입찰방법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2008년 5월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태권도 공원 감리 및 턴키사업자 선정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였다.

2008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태권도 공원 마스터 플랜 국제지명초정 설계경기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8년 9월 태권도공원 마스터 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 12월 태권도공원 건설사업관리(CM, 감리)사업자를 선정, 계약 체결하였으며, 태권도 공원 건립공사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공고하였다.

2009년 태권도공원 건립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에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2009년 8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2009년 9월 4일 ‘태권도의 날’에 맞춰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태권도공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승인을 득하였다.

7) 건립공사 시행

2010년부터 건립공사가 본격화되었다. 무주 현장사무소가 개설되었고, 2010년 3월 31일 매입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등기가 완료되었다. 무장골 등 일부지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되었고, 법정보호종에 대한 정밀조사가 완료되었다. 임목벌채와 대상수목 787주 중 359주에 대한 이식이 진행되었고, 침사지 3개소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토목사업이 시작되었다.

2011년 단지조성을 위한 토공사와 태권도 경기장, 연수원 등 기초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공사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아 환경부로부터 ‘친환경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2012년에는 건축물 골조공사와 내·외장 공사를 완료해 2013년 9월 개장(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5절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관리·운영 효율화

1. 체육활동공간의 효율적 활용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었다. 그로 인해 건강유지와 체력증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욕구는 자연스럽게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게 되었다.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정부는 여러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활동 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나 그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민들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공급을 진행하다보니 공공체육시설의 수와 규모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증가한 체육시설들이 국민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설치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공공체육시설은 증가하였지만 설치 후 홍보가 미흡해 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건립 후 꾸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시설활용도와 만족도가 민간체육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 부는 공공체육시설의 건립뿐만 아니라 이미 건립된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체육시설의 활용도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활용도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정책적 방향을 통해 개선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노후화된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최신식의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모델링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체육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것에 비해 적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대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로 학교운동장 등과 같은 공공체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공공개발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한 경비 소요가 부담스러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개정하여 개방된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소요 경비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운동장·체육관과 같은 대형 체육시설은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다목적·다용도의 복합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설을 직접 이용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 지방체육시설 개수·보수

다중체육시설인 대형운동장과 야구장 등이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체육활동 및 경기관람 환경저하로 인한 개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나 기존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로는 시설 개수·보수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 필요성과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0년 국민체육진흥법(2010년 1월 27일) 및 동법 시행령(2010년 9월 17일)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사용용도에 신설하였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시설 개수·보수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대상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실내시설은 500석 이상, 실외시설은 1,000석 이상 관람석을 갖춘 시설로 제한)로 제한했다.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5%이며, 개수·보수에 들어가는 시설비용의 30%를 지원하도록 정해졌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정부는 2010년부터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노후화된 많은 체육시설들이 편의성을 갖춘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공공체육시설 민간투자 여건 조성 및 수익시설 설치기준 완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프로구단이 사용하는 경기장 시설의 단기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12월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을 통해 기존 3년간 단기임대에서 25년간 장기임대가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프로경기단체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투자, 공공체육시설의 현대화 작업 및 다양한 문화체육 복합 시설 조성 등을 위한 민간투자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2010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종합운동장의 공간·기능적 다양성을 적극 활용하고 체육시설 고유의 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다양한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시설활용도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하였다. 종래 수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체육시설은 운동장의 규모가 100만㎡ 이상이거나 6종목 이상의 국제규격 경기장을 갖춘 체육시설이었다. 하지만 개정 후 10만㎡ 이상이거나 3종목 이상의 국제규격 경기장을 갖춘 체육시설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약 20여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운동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3)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운영

국민들의 체육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체육시설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 부족으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1년 7월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당해 년도 10월에 인터넷 홈페이지(www.sportsmap.or.kr)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정보안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공공체육시설 정보안내 서비스는 공공체육시설의 위치나 사진, 동영상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와 지도자, 홈페이지, 셔틀버스 정보, 각 공공체육시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보, 운영요금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장애인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번에 구축된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은 국민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안내 뿐만 아니라 정책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구축하여 공공체육시설 및 기금지원시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체육시설 지역별 균형배치 등 지역설정에 맞는 주민 참여형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정책 자료로써 활용하고 있다.

4) 공공체육시설(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공공체육시설 중 학교체육시설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은 공공체육시설의 신규 공급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건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좋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원한 학교의 공공체육시설 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야간에도 생활체육이 가능하도록 야간조명시설 의무설치) 및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은 일반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개방하는 학교체육시설에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지역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해 주민의 이용편의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공공체육시설을 시설보호 위주에서 활용 위주로 관리·운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시설관리주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범위 내에서 시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소외계층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및 장애인 이용편의 확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소외계층에 대해 일정부분 이용

료를 감면해 주거나 장애인에게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편의시설 설치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및 장애인 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를 근거로 하여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그밖에 지방조례 등을 통하여 할인 대상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할인된 이용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 제25조」에 의한 편의제공(2010·2012년 단계적 시행)은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한 경사로, 승강기와 같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장애를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배제·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2.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효율화

1)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국내외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내 스포츠 환경에서도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에 정책방향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통한 규제, 행정적·기술적 지원, 제도, 참여유도 등의 행정적 방안과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 생활의 실천적 방안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총 건축공사비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환경과 관련한 여러 정책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이 시행되면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응원문화 및 경기운영 방식의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하는 그린스포츠(Green Sports)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5개 프로단체의 경우에는 2010년 3월 ‘그린스포츠 업무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실천행사로 관중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쓰레기 분리수거 유도, 응원문화의 개선 등을 통한 자원 절약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수·보수 등을 추진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조명설치, 조명시설 자동제어기 설치, 물 절약 시설 설치 등 에너지 효율화 장치를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 지자체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강화

체육과학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체육행정공무원 및 지방체육시설관리자 대상으로 경영마인드의 도입과 시설운영개선을 유도하고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중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과목을 개설하여 체육시설의 시간적·공간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연간 약 80여명의 지방 체육행정공무원 및 체육시설관리 실무자들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변화된 체육환경과 체육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실무를 이해함으로써 지방체육행정의 선진화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도 체육시설업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배치, 안전·위생 기준 등의 안전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되, 시설의 특성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동장, 체육관, 야구장, 수영장, 빙상장 등 일시에 다중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 및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프로경기 개최시설 등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체육활동 외 공연 행사 등으로 대관시에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관리자 선임, 작업자 안전관리수칙 준수 등)하도록 하고 있다.

A large red abstract graphic element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featuring a white arrow-like shape pointing right, which contains the text 'Section 10'.

Section

10

체육전문인력

- 제1절 개 관
- 제2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 제3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Section

10

체육전문인력



제1절 개 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인적 자원의 가치가 삶의 질과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는 체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체육분야 전문인력의 효과적 양성 및 활용이 국민체육 진흥의 성패와 국격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체육전문인력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국제체육, 스포츠산업, 학교체육 등 체육의 각 하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교사·교수, 학생 등을 말한다. 이들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선발·임용되며, 해당 종목에서 선수로 활동하거나 각 분야에서 체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전문체육은 우수선수를 선발·양성하고 각종 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체육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선수, 경기지도자, 심판 등이 있다.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이 건강 유지 및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다. 장애인체육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재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체육은 국가 간 체육교류 등 체육외교와 여러 국제체육기구에서 활동하여 국익을 증진하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국제체육과 관련된 전문인력은 국제체육기구의 임원 등을 비롯한 체육외교인력을 들 수 있다. 스포츠산업은 스포츠 용품제조업, 시설업, 서비스업 등 체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은 스포츠용품제조업 종사자, 시설업 종사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들 수 있다. 학교체육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평생체육의 토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학생선수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부문이다. 학교체육과 관련된 전문인력은 체육교사, 체육계학과 학생, 교수 등이 있다. 본 백서에서는 체육전문인력 중 전문체육분야의 선수지도자 생활체육분야의 생활체육지도자, 학교체육분야의 체육교사, 교수 및 체육계학과 학생 등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실태와 주요 변화 등을 다루었다.



제2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1. 선수·코치

1) 등록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한 자를 말하며, 종목별 등록선수 현황은 (표 10-1)과 같다. 2011년 현재 등록선수는 138,576명으로 2010년 139,468명에 비하여 892명(0.6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인 인구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며, 기존 선수의 퇴출과 신규 선수의 유입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급격한 선수자원 고갈과 그에 따른 국가 스포츠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문 선수들의 직업시장 확대를 위해서 프로구단뿐만 아니라 실업팀 창단 및 육성 활성화를 통해 운동을 직업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운동선수 시장의 신규 유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목별 등록선수는 축구가 24,00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궁도(13,233명), 야구(9,767명), 태권도(8,935명), 육상(6,329명)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 이는 최근 4년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종목에 대한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루지(24명), 카바디(49명), 트라이애슬론(182명), 바이애슬론(186명), 수상스키(219명), 봅슬레이(245명), 세팍타크로(258명), 수중(330명), 오리엔티어링(390명), 승마(397명), 소프트볼(439명), 근대5종(489명) 등의 종목은 전체 등록선수가 500명 미만으로 저변이 취약한 실정이다. 2009년까지 등록선수가 500명 미만이었던 바둑(228명)은 2010년의 경우 1,377명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1년도에는 1,27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등록선수가 많은 상위종목들의 연도별 변화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반면 하위종목들의 경우에는 특성상 절대적인 수치는 작지만 변화율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동계종목들의 선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2018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유치에 동계 비인기종목 활성화의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선수를 성별로 구분할 경우 상위종목에서 남자선수는 전체 종목별 선수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여자선수는 육상(2,421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태권도(2,004명), 수영(1,584명), 궁도(1,552명), 축구(1,5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의 경우 수영보다 많

있던 체조는 상대적으로 선수수가 많이 감소함으로써 최상위권에 속하지 못하였다. 하위종목은 남자선수의 경우 소프트볼(1명), 루지(15명), 항공스포츠클(28명), 카바디(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선수의 경우에는 씨름(0명), 항공스포츠클(1명), 야구(4명), 루지(9명), 카바디(19명), 럭비(2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선호 종목이 차이가 있으며, 연도별로 선수수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1 종목별 등록선수 수

(단위 : 명)

구분	전 체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 반							
												실 업		군		시 도 군청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138,576	107,760	30,816	23,966	7,160	23,901	7,347	21,636	6,611	11,752	3,001	9,168	2,798	369	7	16,968	3,892		
육상	6,329	3,908	2,421	1,192	844	1,090	669	938	492	321	148	75	56	32	0	260	212		
축구	24,001	22,467	1,534	6,803	408	6,007	421	5,290	535	2,746	155	1,621	197	0	0	0	0		
테니스	1,652	1,013	639	368	249	205	137	220	114	140	77	24	19	0	0	56	43		
정구	1,578	924	654	341	263	185	152	147	137	107	12	8	23	0	0	136	67		
탁구	1,810	905	905	429	413	450	172	138	156	76	74	34	42	7	0	71	48		
핸드볼	2,414	1,270	1,144	431	357	255	249	202	221	309	190	28	14	17	0	28	113		
역도	1,278	901	377	0	0	402	158	271	128	86	23	46	9	12	0	84	59		
복싱	2,431	2,293	138	0	0	828	2	670	52	210	23	496	60	22	0	67	1		
빙상	1,559	725	834	285	488	127	151	96	89	67	40	53	21	0	0	97	45		
유도	3,699	2,805	894	579	114	891	315	854	251	312	130	76	31	31	0	62	53		
체조	2,021	706	1,315	213	353	120	192	112	173	116	90	85	441	9	0	51	66		
사이클	756	542	214	0	0	168	60	200	78	44	2	55	29	17	0	58	45		
농구	2,643	1,690	953	468	389	465	225	414	178	325	105	0	32	18	0	0	24		
배구	2,357	1,505	852	468	327	372	230	330	165	199	62	76	19	0	0	60	49		
씨름	1,735	1,735	0	568	0	434	0	318	0	223	0	31	0	0	0	161	0		
럭비	1,506	1,477	29	0	0	538	0	501	0	321	7	91	22	26	0	0	0		
레슬링	1,861	1,680	181	2	2	774	21	470	85	260	25	31	0	0	0	161	0		
수영	3,768	2,184	1,584	944	785	522	416	352	212	143	69	74	16	12	0	137	86		
야구	9,767	9,763	4	4,401	4	2,829	0	1,498	0	1,002	0	0	0	33	0	0	0		
스키	871	614	257	199	84	125	60	110	53	74	22	103	35	0	0	3	3		
승마	397	293	104	11	4	6	11	38	22	34	23	11	1	5	0	188	43		
아이스하키	1,814	1,675	139	1,054	119	347	20	123	0	103	0	48	0	0	0	0	0		
하키	1,478	819	659	0	0	287	258	254	233	159	76	42	19	20	0	57	73		
검도	3,436	2,922	514	351	48	497	62	472	68	418	63	159	9	0	0	1,025	264		
궁도	13,233	11,681	1,552	0	0	0	0	128	67	1	2	57	1	0	0	11,495	1,482		
항공스포츠클	29	28	1	0	0	0	0	1	1	1	1	28	1	0	0	0	0		
사격	4,002	2,723	1,279	15	8	462	445	408	345	159	122	34	33	36	5	1,609	321		

구분	전 체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 반							
												실 업		군		시 도 군청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펜싱	1,555	881	674	0	0	319	297	293	190	123	71	35	13	8	0	103	103		
태권도	8,935	6,931	2,004	1,206	209	2,141	668	2,249	667	1,178	335	80	39	14	2	63	84		
배드민턴	2,160	1,218	942	529	431	286	192	161	133	127	88	30	28	8	0	77	70		
조정	708	454	254	0	0	38	44	171	97	170	46	25	13	4	0	46	54		
인라인롤러	681	406	275	100	73	97	71	82	61	33	23	49	10	0	0	45	37		
요트	573	454	119	39	19	78	30	76	13	97	43	64	7	1	0	99	7		
볼링	1,702	939	763	31	22	225	165	241	181	170	105	172	182	0	0	100	108		
양궁	1,711	911	800	342	296	210	215	123	136	70	66	126	45	8	0	32	42		
카누	647	444	203	0	0	145	72	154	63	72	23	10	10	4	0	59	35		
골프	3,634	2,490	1,144	286	208	628	377	1,178	461	380	97	18	1	0	0	0	0		
근대 5종	489	348	141	2	3	130	30	119	56	38	20	35	28	8	0	16	4		
수상스키	219	165	54	7	4	25	7	18	10	23	6	91	27	0	0	1	0		
산악	1,993	1,511	482	21	31	16	21	180	44	78	28	1,216	358	0	0	0	0		
보디빌딩	1,567	1,429	138	0	0	1	0	184	0	93	7	1,070	129	0	0	81	2		
세팍타크로	258	167	91	0	0	10	8	88	45	38	12	5	17	0	0	26	9		
수중	330	224	106	0	0	33	17	77	26	48	25	55	20	0	0	11	18		
우슈	1,692	1,365	327	313	86	248	83	353	72	114	51	314	35	0	0	23	0		
소프트볼	439	1	438	0	0	0	152	1	153	0	8	0	49	0	0	0	0		
봅슬레이	245	215	30	0	0	4	4	7	0	24	5	180	21	0	0	0	0		
컬링	627	333	294	32	39	82	73	69	76	9	4	21	25	0	0	120	77		
트라이 애슬론	182	106	76	0	0	46	28	3	1	4	3	53	44	0	0	0	0		
바이애슬론	186	120	66	43	25	35	15	19	17	7	1	10	8	0	0	6	0		
스쿼시	796	541	255	34	12	73	27	103	57	166	71	130	61	0	0	35	27		
당구	855	787	68	1	0	12	6	35	12	1	0	738	50	0	0	0	0		
택견	1,907	1,443	464	480	142	365	126	201	72	78	22	319	102	0	0	0	0		
공수도	3,527	2,859	668	737	146	383	90	720	156	541	172	478	104	0	0	0	0		
댄스스포츠	791	313	478	20	100	41	80	79	121	41	30	113	137	0	0	19	10		
루지	24	15	9	0	0	0	0	3	2	10	4	2	3	0	0	0	0		
오리엔 티어링	390	297	93	0	0	0	1	8	0	18	6	99	29	0	0	172	5		
바둑	1,279	1,115	164	621	55	144	22	72	13	39	5	236	66	0	0	3	73		
카바디	49	30	19	0	0	0	0	15	4	7	8	8	7	0	0	0	0		

※ 대한체육회(2011). 내부자료

한편, 연도별 선수수의 변화추이는 (표 10-2)와 같다. 2010년 등록선수수의 증가와는 달리 2011년에는 감소추세로 역전되었으며, 주로 일반선수의 대폭적인 감소(1,954명, 5.56%)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수 감소 현상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의 영향인지, 선수로서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하는지 또는 학교체육 부실 및 선수양성시스템 등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인지를 규명하고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생선수들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초등학생 선수 921명(3.05%), 고등학생 선수 290명(1.04%), 대학선수는 338명(2.34%)이 증가한 반면, 중학생 선수만 161명(0.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에 감소했던 대학선수는 증가한 반면 증가했던 중학생 선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선수층 및 구조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선수도 1,954명(5.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증가에서 감소로 역전되었고 전체 선수수 감소에 중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10-2 연도별 선수 수의 변화

연도	구분	계	초	중	고	대	일 반
2006		116,832	24,102	28,475	27,697	13,764	22,794
2007		132,815	28,373	30,398	29,006	14,503	30,535
2008		129,242	25,232	29,209	26,567	14,142	34,092
2009		136,557	29,030	31,108	27,507	14,617	34,295
2010		139,142	30,205	31,409	27,957	14,415	35,156
2011		138,576 (▽0.41%)	31,126 (△3.05%)	31,248 (▽0.51%)	28,247 (△1.04%)	14,753 (△2.34%)	33,202 (▽5.56%)

※ 대한체육회, 각 년도, 내부자료

2) 꿈나무 선수

꿈나무 선수 제도는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시기의 선수들을 선발하여 우수선수로 육성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꿈나무 선수를 육성하는 목적은 첫째, 재능 있는 꿈나무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써 우수선수의 저변을 확대하고, 둘째, 조기에 과학적 훈련을 지원하여 차세대 대표선수로서 양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엘리트체육의 장기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꿈나무 선수 양성은 1993년 전국에서 초등학생 20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1996년에는 후보선수와 통합되어 운영되었으며 2002년에는 육상, 수영, 체조의 세 종목으로 분리 육성되었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의 5종목 20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기존의 5개 종목에서 핸드볼, 탁구, 유도 등 3개 종목이 추가되어 8개 종목으로 증가하였으며, 선발인원도 총 200명에서 300명으로 100명이 증가하였다. 2009년은 2008년과 마찬가지로 8개 종목 300명의 선수를 선발하여 육성하였고 2010년에는 꿈나무 선수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종목은 8개로 유지하였지만 선발인원은 70명

을 증원하여 총 370명을 선발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과 동일하게 8종목, 370명의 꿈나무선수들을 선발하여 육성하고 있다.

선발된 꿈나무선수에 대한 지원 및 관리운영의 주요내용은 첫째, 연간 24일 이내의 동·하계합숙훈련을 지원하고, 둘째, 꿈나무전담지도자 정책연구비로 종목당 1명에 대해 9개월 동안 500,000원씩 지급하여 선수들을 지도하는데 책임감과 일관성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꿈나무선수 상해보험(연중)을 가입하며, 넷째, 꿈나무선수 지방순회지도로서 연중 3회에 걸쳐 종목별 꿈나무선수 육성 담당지도자가 전국(꿈나무선수 소재지)을 순회하며 선수 개인별 훈련현황 파악 및 지도,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을 실시한다. 다섯째, 꿈나무 선수의 경기력, 체형 등의 개인별 분석 자료를 정리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기록을 관리하고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꿈나무선수 관련 자료의 지속적 보존·관리에 기여하게 된다.

표 10-3 꿈나무 선수 육성 현황

구 분	종목수	육 성 종 목 현 황	인원(명)
1995	9	육상, 수영, 체조, 양궁, 사격, 탁구, 빙상, 스키, 배드민턴	519
'96~'01	-	후보선수와 통합운영	-
2002	3	육상, 수영, 체조	163
2003	5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200
2004	5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200
2005	5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200
2006	5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200
2007	5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200
2008	8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핸드볼, 탁구, 유도	300
2009	8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핸드볼, 탁구, 유도	300
2010	8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핸드볼, 탁구, 유도	370
2011	8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핸드볼, 탁구, 유도	370

※ 대한체육회(2011). 내부자료

세부 종목별 꿈나무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10-4)와 같다. 꿈나무선수 최종 선발은 선발위원의 3배수를 해당종목의 중앙경기단체에서 추천 받아 경기력, 기초체력, 심리검사의 종합 측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기 중에는 소속팀에서 훈련을 실시(훈련비 및 지도자 순회 점검·자문 등)하고 동·하계 방학에는 합숙을 하면서 집중훈련과 지도를 받고 있다. 선수의 훈련 중 부상과 중도 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충원은 재 선발 과정을 거치는데, 측정·평가를 거쳐서 종목별 선발위원회의 결정으로 차 순위 선수가 선발된다.

표 10-4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현황

(단위 : 명)

종 목	세부종목	최종선발인원	종 목	세부종목	최종선발인원
육 상	단 거 리	33	스 키	크로스, 스키점프, 프리스타일	22
	중장거리	30		알파인 스노보드	18
	도 약	29		소계	40
	투 척	28			
수 영	소계	120	빙 상	스 피 드	18
	경 영	25		쇼트트랙	18
	다 이 빙	11		피 겨	14
	싱 크 로	4		소계	50
체 조	소계	40	핸드볼	남자	15
	남자기체체조	13		여자	15
	여자기체체조	15		소계	30
	리듬체조	12			
유 도	소계	40	탁 구	남자	15
	남자	12		여자	15
	여자	8		소계	30
	소계	20	총 계	370	

※ 대한체육회(2011). 내부자료

3) 후보선수

후보선수 제도는 향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종목별로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여 집중 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후보선수 제도를 운영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종목별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둘째, 국가대표선수와의 상호경쟁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며, 셋째, 국가대표 선수 결원을 대비하여 상시 우수한 경기력을 보유한 선수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선수의 훈련육성과 관련된 세부사업은 첫째, 후보선수가 소속된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에 훈련용품 구입비·대회참가비 등의 지원이며, 둘째, 동·하계 합숙훈련 지원사업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중적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평시 훈련 및 경기력 향상 정도 등의 평가를 한다. 셋째, 국외전지훈련 지원사업으로 아시아경기대회 및 올림픽대회에 대비하여 경기단체별로 후보선수 중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전임 및 전문지도자에 의한 기술훈련과 해외파견훈련을 통해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이다.

2011년 현재 하계 24종목, 동계 4종목 등 총 28개 종목에 1,300명의 후보선수를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후보선수 선발은 경기력, 체력, 체형 및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경기단체의 선수선발위원회(강화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후보선수 관리·운영은 전임 지도자 152명을 배치하여 동·하계합숙훈련(종목별 20일 내외)과 국외전지훈련(종목별 15일 이내)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후보선수의 종목별 정원은 (표 10-5)와 같다.

표 10-5 종목별 후보선수 및 지도자 수

(단위 : 명)

종목	지도자	선수			계	종목	지도자	선수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양궁	4	20	20	40	44	태권도	4	24	24	48	52		
육상	19	75	60	135	154	테니스	4	12	12	24	28		
배드민턴	6	31	29	60	66	배구	4	18	18	36	40		
복싱	4	30	—	30	34	역도	4	18	12	30	34		
카누	4	17	9	26	30	레슬링	그레코	2	20	—	20	22	
사이클	6	26	14	40	46		자유형	3	21	9	30	33	
펜싱	5	24	24	48	53		소계	5	41	9	50	55	
축구	3	—	36	36	39	요트		4	25	4	29	33	
체조	기계	6	27	21	48	54	빙상	스피드	4	15	15	30	34
	리듬	2	—	12	12	14		쇼트트랙	4	24	12	36	40
	소계	8	27	33	60	68		피겨	2	—	12	12	14
핸드볼	4	24	24	48	52	소계		10	39	39	78	88	
하키	4	24	24	48	52	스키	알파인	2	12	6	18	20	
유도	4	24	24	48	52		크로스	2	12	7	19	21	
근대5종	2	15	—	15	17		스키점프	1	4	—	4	5	
조정	5	17	13	30	35		스노보드	1	3	1	4	5	
사격	10	51	33	84	94		프리스타일	—	3	1	4	4	
소프트볼	2	—	17	17	19	소계		6	34	15	49	55	
탁구	4	15	15	30	34	바이애슬론		2	12	6	18	20	
수영	경영	6	33	33	66	72	아이스하키		3	25	—	25	28
	다이빙	3	15	12	27	30	계(28종목)	153	731	569	1,300	1,453	
	싱크로	2	—	10	10	12							
	수구	2	15	—	15	17							
	소계	13	63	55	118	131							

※ 대한체육회(2011). 내부자료

4)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

국가대표 선수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하기 위하여 각 경기단체가 선발·확정한 선수를 말한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경기단체에서 국내·외 대회성적 및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 발전가능성, 기초체력 및 기술, 대표코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협회의 강화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고 있다.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는 (표 10-6)과 같다. 2011년 현재 국가대표 선수는 하계 35개 종목, 동계 7개 종목 등 총 42개 종목에 1,338명이며, 코치는 195명이다. 2010년에 비해 종목은 4개(9% 감소, 하계종목 4종목 감소) 감소하였고, 선수 27명(3.0%, 남자선수 감소 31명(4.55%)), 코치 8명(3.94%)이 감소한 반면, 여자선수는 전체적인 종목 감소에도 불구하고 4명(1.0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타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체육분야에서도 여자선수들의 역할과 비중이 보다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6 종목별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 수

(단위 : 명)

구분	종목	코치	인원			계
			선수		계	
			남	여		
하계 (35)	양궁	5	8	8	16	21
	육상	11	42	35	77	88
	배드민턴	7	25	23	48	55
	야구	3	24	-	24	27
	농구	4	12	12	24	28
	볼링	4	8	8	16	20
	복싱	3	20	3	23	26
	카누	3	13	4	17	20
	사이클	6	14	12	26	32
	승마	3	12	-	12	15
	펜싱	6	22	22	44	50
	축구	4	20	18	38	42
	골프	2	6	6	12	14
	체조	10	14	22	36	46
	핸드볼	6	24	24	48	54
	하키	6	22	22	44	50
	유도	6	20	20	40	46
	카바디	2	10	10	20	22
	공수도	3	7	6	13	16
	근대5종	5	8	6	14	19
	조정	3	10	10	20	23
	력비	4	18	12	30	34
	요트	5	13	5	18	23
	세팍타크로	3	12	12	24	27
	사격	12	36	28	64	76
	스쿼시	2	5	5	10	12
	수영	10	36	23	59	69
	탁구	4	10	10	20	24
	태권도	4	16	16	32	36
	테니스	2	6	6	12	16
	트라이애슬론	2	4	4	8	10
	배구	4	14	14	28	32
	역도	6	17	13	30	36
	레슬링	8	28	6	34	42
	우슈	3	9	6	15	18
소계	35종목	171	565	431	996	1,167
동계 (7)	빙상	6	17	19	36	42
	스키	6	23	7	30	36
	아이스하키	4	22	21	43	47
	바이애슬론	3	6	6	12	15
	컬링	2	5	5	10	12
	루지	1	3	3	6	7
	봅슬레이/스켈레톤	2	10	-	10	12
소계	7종목	24	86	61	147	171
합계	42종목	195	651	492	1,143	1,338

※ 대한체육회(2011). 내부자료

2. 심판

심판은 경기단체에서 종목별 자격조건을 가진 자 중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종목별 협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선수출신자 또는 체육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과정과 실기 및 필기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2011년 현재 양성된 종목별 국내 심판 현황은 (표 10-7)과 같다. 국내 심판수는 총 62,888명으로 태권도(21,191명), 수영(11,636명), 축구(5,855명), 육상(2,7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볼링,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등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심판수는 총 2,839명으로 태권도(1,082명), 탁구(260명), 역도(170명), 사격(146명), 체조(13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야구, 승마,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등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심판은 전년의 51,317명에 비해 11,571명(22.6%)이 증가한 반면 국제심판은 전년의 4,021명에 비해 1,182명(29.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심판 양성을 위한 지원 및 노력이 시급하다. 한편, 국내심판수 대비 국제심판수의 비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해당 종목 심판의 수준이 국제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국내심판수 대비 국제심판수의 비율은 레슬링(276%), 사격(116%), 근대5종(105%), 아이스하키(53%), 역도(52%)의 순으로 나타나 해당 종목 심판들의 역량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국제심판이 선정되는 절차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축구의 경우 대한축구협회가 국내 1급 심판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추천을 하게 되면 아시아축구연맹은 서류심사와 소정의 절차를 거쳐 3급 국제심판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제심판은 언어, 체력, 규정이해도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지만 국제대회 심판경력과 심판능력에 대한 기존 심판들의 정성평가, 구전, 개인의 커리어에 대한 평가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심판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0-7 종목별 심판

(단위 : 명)

구분	국내심판						국제심판				
	계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종목	65,727	4,971	9,164	46,662	2,091	62,888	415	637	1,096	691	2,839
육상	2,743	726	588	1,426	-	2,740	-	3	-	-	3
축구	5,883	590	504	4,761	-	5,855	24	-	-	4	28
테니스(사)	705	29	83	227	355	694	-	1	1	9	11
정구(사)	577	32	300	150	-	482	3	50	42	-	95
탁구(사)	1,449	241	164	784	-	1,189	-	-	-	260	260
핸드볼(사)	327	108	209	-	-	317	4	6	-	-	10
역도(사)	498	123	90	115	-	328	91	79	-	-	170
복싱	218	202	-	-	-	202	-	6	10	-	16
빙상(사)	280	5	219	6	4	234	7	39	-	-	46

구분 종목	계	국내심판					국제심판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65,727	4,971	9,164	46,662	2,091	62,888	415	637	1,096	691	2,839
유도(사)	280	211	-	-	-	211	39	30	-	-	69
체조(사)	533	-	-	-	400	400	1	13	11	108	133
사이클(사)	115	110	-	-	-	110	5	-	-	-	5
농구	2,181	248	993	831	-	2,072	-	-	-	109	109
배구	845	66	149	613	-	828	-	-	-	17	17
씨름	287	69	37	181	-	287	-	-	-	-	-
럭비(사)	54	8	20	20	-	48	-	1	5	-	6
레슬링	94	-	-	25	-	25	13	7	47	2	69
수영(사)	11,690	233	924	10,479	-	11,636	1	1	3	49	54
야구(사)	29	-	-	-	29	29	-	-	-	-	-
스키(사)	597	21	99	467	-	587	5	5	-	-	10
승마(사)	9	-	-	-	9	9	-	-	-	-	-
아이스하키(사)	78	-	-	-	51	51	-	21	6	-	27
하키	80	-	-	-	70	70	2	2	6	-	10
검도(사)	1,656	-	265	1,369	-	1,634	22	-	-	-	22
궁도	2,314	262	359	1,693	-	2,314	-	-	-	-	-
사격(사)	272	126	-	-	-	126	30	116	-	-	146
펜싱(사)	186	-	81	53	-	134	1	51	-	-	52
태권도(사)	22,273	787	2,258	18,146	-	21,191	41	117	910	14	1,082
배드민턴(사)	1,293	26	114	329	808	1,277	4	7	5	-	16
조정(사)	168	-	-	-	165	165	-	-	-	3	3
인라인롤러(사)	197	61	46	64	-	171	8	4	1	13	26
요트	62	3	4	53	-	60	2	-	-	-	2
볼링(사)	-	-	-	-	-	-	-	-	-	-	-
양궁	497	106	122	265	-	493	-	-	-	4	4
카누(사)	225	57	30	125	-	212	-	-	-	13	13
골프(사)	-	-	-	-	17	17	2	-	-	-	2
근대5종(사)	88	10	24	9	-	43	15	20	10	-	45
수상스키(사)	1,174	11	89	1,026	-	1,126	2	6	-	40	48
산악(사)	272	123	133	10	-	266	6	-	-	-	6
보디빌딩(사)	554	233	275	-	-	508	11	18	17	-	46
세팍타크로	642	26	50	532	-	608	34	-	-	-	34
수중(사)	477	-	-	462	-	462	15	-	-	-	15
우슈	678	47	110	488	-	645	5	16	12	-	33
소프트볼	82	14	9	44	-	67	-	-	-	15	15
봅슬레이/스켈레톤	-	-	-	-	-	-	-	-	-	-	-
컬링	100	-	-	-	100	100	-	-	-	-	-
트라이애슬론(사)	1,397	3	596	789	-	1,388	2	5	2	-	9
바이애슬론(사)	67	6	25	17	-	48	19	-	-	-	19
스쿼시	482	-	28	443	-	471	-	11	-	-	11
당구	13	-	-	-	10	10	-	-	-	3	3
택견	484	-	79	405	-	484	-	-	-	-	-
공수도	285	29	55	190	-	274	1	2	8	-	11
댄스스포츠	218	19	33	65	73	190	-	-	-	28	28
바둑	-	-	-	-	-	-	-	-	-	-	-
루지	-	-	-	-	-	-	-	-	-	-	-

※ 대한체육회(2011). 내부자료

3. 체육계 고등학교 및 대학(원)

1) 전문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2011년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 체육계 학과와 학생 수는 각각 55개 학과 1,428명이다. 이 중 897명(63%)이 남학생이고 531명(37%)이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골프관리과 13개(304명), 관광골프관리과 6개(149명), 골프환경과 2개(62명), 골프경영관리과 3개(86명), 필드매니저과 2개(40명), 골프산업관리과 3개(72명) 등 29개과(53%) 766명(54%)이 골프와 관련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종목의 학과가 개설되고 체육 전문 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려 우수한 선수 및 전문 지도자 등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10-8 체육계 학과 및 학생 수(전문계 고등학교)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계	남	여
계	55	1,428	897	531
골프경영관리과	3	86	68	18
골프관리과	13	304	211	93
골프산업관리과	3	72	55	17
골프환경과	2	62	38	24
관광골프관리과	6	149	100	49
레저생명산업과	3	80	43	37
레저스포츠경영과	3	53	10	43
레저스포츠과	5	123	67	56
레저웰빙코스	2	59	0	59
마필관리과	2	52	44	8
사회체육과	6	197	129	68
생활체육과	5	151	109	42
필드매니저과	2	40	23	17

※ 한국교육개발원(2011. 12월 기준)

2011년 현재 전문대학 체육계 학과와 학생 수는 각각 271개 학과 22,2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5개의 학과가 증가했고 2011년에는 4개 학과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 수는 전년도에 비해 10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의 225명 감소에 이어 상당히 큰 폭의 감소가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구

직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체육계 학과와 학생 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고, 전문대학과 대학 간의 통폐합 등 거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대도시 및 거점지역 대학과 지방소재 대학 간 학생 수에 차이가 있는지, 체육계 전문대학 학생들의 취업경로 및 직업시장의 특성과 경력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학생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19.57%, 2010년 19.17%에서 2011년도에는 18.71%로 나타나 2009년 및 2010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대학의 체육계 학과 교수는 2010년 357명에서 2011년에는 359명으로 2명(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이후 전체 교수 수는 감소 후 정체를 지속하고 있는데 학과 수의 감소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1인당 교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고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184명(88.04%)이 증가한 반면 2009년도 이후에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정년퇴임 등 자연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교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원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10-9 체육계학과 학과, 학생 및 교원 수(전문대학)

(단위 : 명)

학과명	학과수	학생 수			교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2009	262	22,583	18,163	4,420	393	327	66
2010	267	22,358	18,072	4,286	357	296	61
2011	271	22,257	18,091	4,166	359	295	64
건강관리과	2	247	196	51	5	4	1
경찰경호스포츠과	1	56	51	5	0	0	0
경찰경호무도전공	1	13	13	0	0	0	0
경찰경호무도학부	1	57	55	2	0	0	0
경찰경호태권도과	1	4	4	0	0	0	0
경찰경호합기도과	1	4	4	0	0	0	0
경호무도과	4	414	350	64	8	7	1
경호무도전공	1	13	13	0	0	0	0
경호보안과	1	309	289	20	5	5	0
경호비서과							
경호스포츠계열							
경호스포츠과	3	362	321	41	7	5	2
경호스포츠전공	2	136	117	19	3	2	1
경호안전전공	2	56	56	0	0	0	0
경호태권도과	2	47	44	3	1	1	0

학과명	학과수	학생 수			교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경호합기도과	1	27	27	0	0	0	0
경호행정학과	1	8	8	0	0	0	0
골프·스포츠계열	1	5	5	0	0	0	0
골프/프로캐디과	1	74	53	21	2	2	0
골프경기지도과							
골프과	3	58	43	15	2	2	0
골프-레저스포츠과	1	38	33	5	2	2	0
골프요가과	1	38	25	13	0	0	0
골프운영지도과	1	8	8	0	0	0	0
골프지도&사회스포츠과	1	36	28	8	3	3	0
골프지도과	3	61	41	20	2	2	0
관광레저스포츠계열	1	308	281	27	5	4	1
관광레저스포츠과	1	148	131	17	2	2	0
관광레저스포츠학과	1	5	3	2	0	0	0
국제태권도과	1	72	60	12	1	1	0
레저생활체육과	1	4	4	0	0	0	0
레저스포츠계열	5	163	162	1	0	0	0
레저스포츠과	26	1,979	1,574	405	32	28	4
레저스포츠전공	6	494	430	64	7	6	1
레저스포츠학과	2	40	27	13	0	0	0
레저스포츠학부	2	257	222	35	4	4	0
레저스포츠과	2	157	132	25	2	2	0
레크리에이션과	2	283	218	65	3	3	0
레포츠지도과	1	55	53	2	0	0	0
무도과	2	83	81	2	0	0	0
무용&레저스포츠과	2	172	0	172	4	2	2
무용과	1	124	44	80	3	0	3
무용전공	1	1	1	0	0	0	0
부서관경호무도과	1	6	6	0	0	0	0
사회체육계열	3	168	144	24	4	4	0
사회체육골프과	2	159	127	32	3	2	1
사회체육과	33	4,289	3,484	805	56	48	8
사회체육전공	4	74	63	11	0	0	0
사회체육학과	2	78	48	30	0	0	0
사회체육학부	2	198	157	41	8	6	2
사회체육행정전공	1	6	6	0	0	0	0
생활레저스포츠과	1	21	19	2	0	0	0
생활스포츠과	5	670	559	111	11	8	3
생활스포츠학과	1	44	27	17	0	0	0

학과명	학과수	학생 수			교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생활체육계열	1	394	358	36	4	3	1
생활체육계열(무도전공)	1	44	40	4	0	0	0
생활체육계열(생활체육전공)	2	127	108	19	1	0	1
생활체육계열(스포츠재활전공)	1	92	74	18	1	1	0
생활체육과	19	1,706	1,490	216	31	23	8
생활체육레저과	2	275	245	30	3	3	0
생활체육무용							
생활체육전공	1	41	29	12	0	0	0
생활체육학과	3	54	33	21	0	0	0
생활체육학부	4	1,025	914	111	11	10	1
스키스노보드과	1	31	31	0	0	0	0
스트리트댄스과	1	5	5	0	0	0	0
스포츠·피트니스계열	1	37	29	8	0	0	0
스포츠·피트니스과	1	31	26	5	2	1	1
스포츠건강관리과	6	591	465	126	11	9	2
스포츠건강관리전공	3	281	241	40	1	0	1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2	342	304	38	3	3	0
스포츠건강복지과	3	45	29	16	0	0	0
스포츠건강학부	1	108	81	27	2	2	0
스포츠경호계열	2	209	187	22	9	6	3
스포츠과학계열	7	646	530	116	9	8	1
스포츠과학과	1	2	2	0	0	0	0
스포츠과학학부	1	376	340	36	7	7	0
스포츠관광계열							
스포츠레저과	2	231	214	17	4	4	0
스포츠복지과	1	41	35	6	1	1	0
스포츠산업계열	2	28	24	4	1	1	0
스포츠재활과	2	216	182	34	5	5	0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	2	192	182	10	3	2	1
스포츠지도과	1	74	71	3	1	1	0
승마조련전공	1	17	17	0	0	0	0
실용댄스과	1	152	70	82	1	0	1
실용무용과	1	67	23	44	1	0	1
실용무용전공	1	75	25	50	1	0	1
아동놀이지도과							
아동무용지도자과	1	79	0	79	2	0	2
아동스포츠과	1	100	0	100	1	0	1
아동체육과	1	82	0	82	2	1	1
예체능공학부	2	145	65	80	10	10	0

학과명	학과수	학생 수			교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요가과	1	74	6	68	2	0	2
운동건강관리과	1	121	110	11	0	0	0
운동재활과	1	55	49	6	0	0	0
운동처방과	1	52	32	20	1	0	1
웰빙건강관리과	2	10	10	0	0	0	0
웰빙건강관리전공							
웰빙테라피과	1	3	0	3	0	0	0
유아체육전공	1	16	15	1	0	0	0
이종격투기전공	1	22	22	0	0	0	0
자연건강관리과	1	1	1	0	0	0	0
자연건강복지과	1	21	17	4	0	0	0
체육경호계열	3	314	282	32	0	0	0
체육계열							
체육과	1	62	55	7	0	0	0
축구과	1	17	17	0	1	1	0
태권도경영과	1	77	68	9	2	2	0
태권도과	12	832	728	104	20	19	1
태권도외교과	3	312	256	56	7	5	2
태권도외교학과	1	9	7	2	0	0	0
태권도체육계열	1	353	320	33	11	10	1
태권도체육학과	1	58	56	2	0	0	0
태권도학과	2	62	46	16	0	0	0
택견전공	1	2	2	0	0	0	0
특수체육전공	1	24	18	6	0	0	0
해동검도과	1	5	5	0	0	0	0
해양산업잠수과	1	44	44	0	2	2	0
해양레저스포츠과	2	37	29	8	0	0	0
휘트니스건강관리과	2	193	131	62	4	3	1
휘트니스건강관리학과	1	27	7	20	0	0	0

※ 한국교육개발원(2011. 12월 기준)

2) 대학교

다음 (표 10-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 체육계학과 학생수는 2010년 451개학과 69,197명에서 2011년 465개 학과 69,662명으로, 학과수는 14개(3.1%), 학생수는 465명(0.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학과수는 증가하였지만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4년제 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과수와 학생수가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육의 특성상 전문대학 보다는 4년제 대학교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도 증가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 성장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산업 육성 등 체육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다 우수하고 많은 인력들이 교육·양성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학생수의 비율은 2009년, 2010년과 비교하여 수나 비율에 있어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학교 교수 현황은 (표 10-11)과 같다. 대학교 체육계 학과 교수는 2010년 1,161명에서 2011년 1,163명으로 2명(0.2%)의 소폭 증가가 있었으며 전문대학과는 달리 4년제 대학교의 경우 지속적인 교원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문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4년제 대학교의 학생 1인당 교원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요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표 10-10 대학교 체육계 학과 학생 및 교원 수

(단위 : 명)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2009	439	67,308	52,486	14,822	1,125	879	246
2010	451	69,197	53,887	15,284	1,161	919	242
2011	465	69,662	54,163	15,499	1,163	915	248
건강관리전공	2	68	53	15	0	0	0
건강관리학과	2	323	196	127	7	4	3
건강스포츠전공	1	104	99	5	0	0	0
건강스포츠학과	1	327	293	34	3	3	0
건강증진학과	1	248	192	56	4	3	1
검도학과	1	23	21	2	1	1	0
격기지도학과	1	222	200	22	3	3	0
격기학과	1	1	1	0	0	0	0
경기지도전공	1	240	193	47	4	3	1
경기지도학과	2	249	221	28	0	0	0
경기지도학전공	2	136	115	21	0	0	0
경찰무도학과	2	562	507	55	7	7	0
경호·무도학과	1	87	73	14	2	2	0
경호·무도학부	1	8	8	0	0	0	0
경호무도지도학과	1	319	296	23	3	3	0
경호무술학부	1	14	14	0	0	0	0
경호보안전공	1	87	76	11	3	3	0
경호보안학과	1	40	32	8	0	0	0
경호비서학과	4	986	851	135	13	12	1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경호비서학부							
경호비서학전공							
경호안전학과	1	87	62	25	3	3	0
경호전공	1	185	148	37	2	2	0
경호정보전공	1	12	10	2	0	0	0
경호학과	4	830	717	113	12	11	1
경호학부	2	478	436	42	22	20	2
경호학전공	4	784	689	95	0	0	0
골프과학전공	1	37	24	13	2	2	0
골프산업학과	2	227	200	27	3	2	1
골프시스템학과	1	86	76	10	1	1	0
골프지도학과	1	186	161	25	2	2	0
골프학과	2	384	328	56	9	8	1
골프학전공							
공연영상창작학부(무용전공)	1	230	50	180	6	3	3
공연예술무도학과	1	71	53	18	1	1	0
국선도건강과학전공	1	6	4	2	0	0	0
국제무도경호학부 (경찰경호무도전공)	1	59	51	8	0	0	0
국제무도경호학부 (국제무도교육전공)	1	88	82	6	0	0	0
국제스포츠레저전공	1	130	91	39	0	0	0
국제스포츠레저학부	1	33	29	4	4	4	0
국제태권도전공	1	14	13	1	1	1	0
노인체육복지전공	2	186	160	26	0	0	0
댄스스포츠학과	1	38	13	25	1	0	1
동양무예학과	3	510	439	71	7	6	1
레저건강관리학과							
레저레크리에이션전공							
레저스포츠 · 건강학과	1	154	131	23	3	2	1
레저스포츠과	1	1	1	0	0	0	0
레저스포츠산업학전공							
레저스포츠전공	10	937	759	178	6	4	2
레저스포츠학과	10	1588	1385	203	23	21	2
레저스포츠학부	1	42	36	6	0	0	0
레저스포츠학전공	1	57	49	8	2	1	1
레저운동관리학과	1	92	69	23	2	1	1
레저체육학부	1	2	2	0	0	0	0
레저체육학부	1	202	173	29	1	1	0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레포츠포학부	1	176	162	14	2	1	1
무도경찰경호학부	1	115	91	24	4	4	0
무도경찰학과	1	32	25	7	0	0	0
무도경찰학전공	1	15	15	0	0	0	0
무도경호학과	3	250	221	29	4	4	0
무도경호학부	2	50	45	5	0	0	0
무도체육학과	1	223	185	38	2	2	0
무도학과	1	29	29	0	0	0	0
무도학과전공	1	2	2	0	0	0	0
무도학전공	3	65	56	9	0	0	0
무술경호학부	1	20	15	5	4	3	1
무용공연학과							
무용과	10	1,097	104	993	30	3	27
무용복지전공	1	37	5	32	2	1	1
무용예술학과	2	180	17	163	5	0	5
무용예술학부							
무용예술학전공	1	12	2	10	0	0	0
무용전공	6	371	55	316	7	1	6
무용학과	20	2,292	353	1,939	58	6	52
무용학부	1	228	33	195	6	0	6
무용학전공	3	382	61	321	10	2	8
민속무용학과	1	78	17	61	4	0	4
바둑학과	1	205	171	34	4	3	1
복지스포츠포학과							
사회체육과	1	107	100	7	0	0	0
사회체육전공	5	1,115	946	169	8	7	1
사회체육학과	32	6,162	5,331	831	74	67	7
사회체육학과(인문예술)							
사회체육학부	7	996	842	154	48	41	7
사회체육학전공	5	637	571	66	0	0	0
산업스포츠포학과	1	134	125	9	1	1	0
생활무용예술학과	1	182	25	157	4	1	3
생활무용학과	2	188	33	155	5	1	4
생활스포츠포학부	2	121	97	24	0	0	0
생활체육전공	3	520	456	4	5	5	0
생활체육정보학과	1	272	237	35	6	5	1
생활체육지도학과	1	120	86	34	4	3	1
생활체육학과	12	2529	1979	550	42	36	6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생활체육학부	2	441	409	32	5	4	1
생활체육학전공							
스포츠건강관리전공	3	281	241	40	1	0	1
스포츠건강관리학과	2	156	120	36	3	3	0
스포츠건강관리학부	2	464	397	67	4	3	1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2	342	304	38	3	3	0
스포츠건강복지학부	1	10	10	0	21	16	5
스포츠건강의학전공	1	31	29	2	2	2	0
스포츠건강학과							
스포츠건강학부	1	167	146	21	5	5	0
스포츠경호비서학전공							
스포츠경호학부	1	12	12	0	0	0	0
스포츠학과과	8	991	825	166	19	18	1
스포츠학과과군	1	15	15	0	0	0	0
스포츠과학대학 경기지도학전공	1	17	15	2	0	0	0
스포츠과학대학 무도학전공							
스포츠과학대학 무용학전공							
스포츠과학대학 사회체육학전공	1	7	7	0	0	0	0
스포츠과학대학 체육학전공	1	28	26	2	0	0	0
스포츠과학부	11	3,104	2,714	390	67	62	5
스포츠과학부(골프지도전공)	1	227	176	51	2	2	0
스포츠과학부(생활체육학전공)	1	354	316	38	6	5	1
스포츠과학부(스포츠보건전공)	1	67	52	15	0	0	0
스포츠과학전공	2	267	219	48	2	1	1
스포츠레저복지전공	1	78	66	12	3	3	0
스포츠레저복지학부	1	1	1	0	0	0	0
스포츠레저학과	10	1,651	1,219	432	34	29	5
스포츠레저학부	5	529	515	14	7	7	0
스포츠무도복지학과	1	114	78	36	2	2	0
스포츠미디어학과	1	178	142	36	2	2	0
스포츠복지학과	1	231	208	23	4	4	0
스포츠복지학부	1	48	34	14	0	0	0
스포츠산업과학부	1	434	362	72	5	4	1
스포츠산업전공	1	356	311	45	6	5	1
스포츠의학과	3	787	651	136	5	5	0
스포츠의학전공	2	187	158	29	0	0	0
스포츠지도학과	3	676	598	78	9	9	0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1	221	186	35	0	0	0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1	42	34	8	0	0	0
스포츠학과	2	59	50	9	1	0	1
스포츠학부							
스포츠학전공	1	107	96	11	0	0	0
실버스포츠산업학과	1	155	139	16	3	3	0
실용무용전공	1	57	14	43	3	1	2
실용무용지도과	1	18	5	13	0	0	0
실용무용지도학과	1	40	12	28	2	1	1
요가명상학과	1	668	97	571	3	1	2
요가치유학과	2	18	8	10	1	1	0
요가학과	1	4	0	4	0	0	0
운동건강과학부	1	284	225	59	13	11	2
운동건강관리학과	1	42	32	10	0	0	0
운동건강학과	1	603	481	122	10	8	2
운동복지전공	1	59	28	31	0	0	0
운동처방재활학과	1	325	252	73	5	4	1
운동처방전공	1	43	38	5	0	0	0
운동처방학과	2	499	351	148	8	8	0
운동처방학전공	1	114	91	23	4	3	1
유도경기지도학과	1	282	234	48	7	6	1
유도전공	1	15	11	4	0	0	0
유도학과	1	640	599	41	7	7	0
유아·시니어스포츠전공	1	10	9	1	0	0	0
임상건강운동학과	1	222	160	62	2	1	1
장애인체육지도학과							
전통무예전공	1	6	6	0	0	0	0
체육·레저학과군	1	3	3	0	0	0	0
체육·레포츠학부	1	1	1	0	0	0	0
체육계열	1	9	9	0	0	0	0
체육과학과	1	145	0	145	0	0	0
체육과학부	2	238	200	38	4	2	2
체육과학전공	2	226	83	143	6	3	3
체육대학	1	9	9	0	0	0	0
체육레포츠학부(레저전공)	1	1	1	0	0	0	0
체육레포츠학부(체육학전공)	1	2	2	0	0	0	0
체육무용학부(레저스포츠전공)	1	1	1	0	0	0	0
체육무용학부(무용전공)	1	2	2	0	0	0	0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체육전공	3	221	170	51	0	0	0
체육학과	32	6,633	5,152	1,481	147	128	19
체육학부	20	4,383	3,876	507	112	100	12
체육학부 경기지도학전공	1	199	179	20	1	1	0
체육학부 생활체육학전공	1	205	185	20	0	0	0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1	291	251	40	0	0	0
체육학부 태권도경영학전공	1	67	63	4	0	0	0
체육학부 태권도학전공	3	328	286	42	0	0	0
체육학부(사회체육학전공)	1	301	269	32	0	0	0
체육학부(운동과학전공)	1	241	208	33	0	0	0
체육학부(체육학전공)	1	258	231	27	0	0	0
체육학전공	8	1,282	1,017	265	0	0	0
축구학과	1	266	264	2	4	4	0
축구학전공							
태권도경기지도학과	1	229	169	60	6	6	0
태권도경호학과	2	125	116	9	5	4	1
태권도 경호학과	1	45	36	9	4	4	0
태권도경호학전공							
태권도공연외교전공	1	49	47	2	0	0	0
태권도공연학부	1	25	24	1	0	0	0
태권도외교학과	1	61	50	11	1	1	0
태권도전공	5	75	63	12	0	0	0
태권도학과	25	4,585	3,929	656	53	48	5
태권도학부	1	140	119	21	5	4	1
태권도학전공	1	16	13	3	0	0	0
특수체육전공	1	35	33	2	0	0	0
특수체육학과	5	578	481	97	11	9	2
한국무용전공	1	34	12	22	0	0	0
한방스포츠의학과	1	272	216	56	4	3	1
항공해양스포츠학과	1	149	136	13	2	2	0
해양레저스포츠학과	1	26	24	2	1	1	0
해양스포츠학과	1	240	198	42	6	6	0
해양체육학과	1	149	126	23	3	3	0
헬스케어정보전공	1	1	0	1	0	0	0
현대무용전공	1	10	1	9	0	0	0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1. 12월 기준)

3) 대학원

체육계 학과 석사과정(체육교육계열 미포함)은 2010년 199개 학과 3,410명에서 2011년 199개 학과 3,419명으로 학과수는 변동이 없으며 학생수는 9명(0.3%) 증가하였다. 반면, 박사과정은 2010년 94개 학과 1,608명에서 2011년 95개 학과 1,631명으로 학과수는 1개(1.1%), 학생수는 23명(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심각한 청년 실업과 관련하여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실업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학력 및 경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보다 좋은 구직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10-11 대학원 체육계학과 학생 수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	박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9	193	91	3,338	—	—	1,551	—	—	—	—	—
2010	199	94	3,410	2,050	1,360	1,608	1,033	575	25	16	9
2011	199	95	3,419	1,343	1,029	1,631	1,029	602	19	12	7
건강과학과	2	0	7	3	4	0	0	0	0	0	0
건강관리전공	1	0	66	36	30	0	0	0	0	0	0
건강관리학과	1	0	16	13	3	0	0	0	0	0	0
건강레저	1	0	28	17	1	0	0	0	0	0	0
경찰무도학전공	1	0	3	3	0	0	0	0	0	0	0
경호무도학과	1	0	14	11	3	0	0	0	0	0	
경호스포츠학과	1	0	10	9	1	0	0	0	0	0	0
경호안전관리학과	1	0	5	3	2	0	0	0	0	0	0
경호안전학과	1	1	17	14	3	19	18	1	0	0	0
경호학과	2	1	33	30	3	21	20	1	0	0	0
골프경영학과	2	0	29	27	2	0	0	0	0	0	0
골프매니지먼트전공	1	0	9	0	9	0	0	0	0	0	0
골프산업학과	1	0	12	11	1	0	0	0	0	0	0
골프학과	2	0	34	27	7	0	0	0	0	0	0
뇌교육학과	1	1	94	18	76	70	22	48	8	4	4
레저·스포츠컨설팅전공	1	0	16	11		0	0	0	1	0	1
레저스포츠전공											
레저스포츠학과	9	2	67	51	16	35	27	8	1	1	0
레저·스포츠기획 전공	0	0	0	0	0	0	0	0	0	0	0
무도건강산업학과	1	0	1	1	0	0	0	0	0	0	0
무도산업학과	1	0	7	6	1	0	0	0	0	0	0
무도학과	1	1	5	4	1	14	13	1	0	0	0
무용·공연예술학과	1	1	26	2	24	15	4	11	0	0	0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	박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무용·공연학과	0	0	0	0	0	0	0	0	0	0	0
무용과	0	0	0	0	0	0	0	0	0	0	0
무용예술학과	1	0	12	2	10	0	0	0	0	0	0
무용전공	0	0	0	0	0	0	0	0	0	0	0
무용학과	27	9	400	43	357	175	33	142	0	0	0
무용학전공	1	0	73	26	47	0	0	0	0	0	0
민속무용학과	1	1	7	2	5	5	1	4	0	0	0
바둑학과	1	1	7	5	2	4	3	1	0	0	0
보건체육학과	1	0	1	1	0	0	0	0	0	0	0
비만관리학과	1	0	14	0	14	0	0	0	0	0	0
사회체육학과	16	5	188	150	8	3	4	4	0	0	0
생활무용예술학과	1	1	13	2	11	8	2	6	0	0	0
생활스포츠학과	1	1	23	17	6	20	14	6	0	0	0
생활체육교육학과	1	0	23	10	13	0	0	0	0	0	0
생활체육전공	1	0	102	80	22	0	0	0	0	0	0
생활체육정보학과	1	0	3	2	1	0	0	0	0	0	0
생활체육학과	2	1	26	17	9	6	4	2	0	0	0
스포츠·태권도학전공	1	1	25	20	5	17	15	2	2	2	0
스포츠건강과학과	1	0	12	6	6	0	0	0	0	0	0
스포츠건강관리학과	1	0	8	6	2	0	0	0	0	0	0
스포츠건강학과	2	0	11	8	3	0	0	0	0	0	0
스포츠과학과	8	4	136	106	30	64	39	25	0	0	0
스포츠과학정보전공	1	0	2	1	1	0	0	0	0	0	0
스포츠과학학과	1	0	61	40	21	0	0	0	0	0	0
스포츠기록분석전공	1	1	23	20	3	1	0	1	1	1	0
스포츠레저학과	1	1	46	31	15	51	34	17	0	0	0
스포츠산업정보학과	1	1	24	18	6	10	8	2	0	0	0
스포츠예술산업학과	1	0	8	5	3	0	0	0	0	0	0
스포츠지도전공	1	0	18	17	1	0	0	0	1	1	0
스포츠학과	2	0	83	67	16	0	0	0	0	0	0
심신통합치유학과	1	0	16	11	5	0	0	0	1	0	1
야구지도자학과											
야구학과	1	0	17	17	0	0	0	0	0	0	0
요가학과	1	0	32	3	29	0	0	0	0	0	0
우주기공학과											
운동건강학과	1	0	15	12	3	0	0	0	0	0	0
운동과학과	0	0	0	0	0	0	0	0	0	0	0
운동생리·처방학과	1	0	7	5	2	0	0	0	0	0	0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	박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운동생리정보학과	0	0	0	0	0	0	0	0	0	0	0
운동처방과 비만클리닉학과	1	0	8	3	5	0	0	0	0	0	0
운동치료전공	0	0	0	0	0	0	0	0	0	0	0
운동치료학과	0	0	0	0	0	0	0	0	0	0	0
유아·아동무용교육전공	0	0	0	0	0	0	0	0	0	0	0
전통무용전공	1	0	34	1	33	0	0	0	1	1	0
체력관리학과	1	0	6	6	0	0	0	0	0	0	0
체육 및 여가교육전공	1	0	55	40	15	0	0	0	0	0	0
체육과학과	2	2	60	37	23	27	3	24	0	0	0
체육무도학과	1	0	13	10	3	0	0	0	0	0	0
체육전공	1	0	5	4	1	0	0	0	0	0	0
체육학과	60	56	1,043	733	310	970	687	283	0	0	0
체육학과(무용학전공)	0	0	0	0	0	0	0	0	0	0	0
체육학과(사회체육학전공)	1	0	4	1	3	0	0	0	0	0	0
체육학과(체육학전공)	1	0	7	6	1	0	0	0	0	0	0
체육학전공	2	0	39	30	9	0	0	0	0	0	0
축구지도자학과											
축구학과	2	0	18	18	0	0	0	0	0	0	0
태권도전공	1	0	33	32	1	0	0	0	0	0	0
태권도학과	4	1	101	88	13	17	17	0	0	0	0
특수체육학과	2	1	24	18	6	11	11	0	0	0	0
표현예술학과	1	0	7	3	4	0	0	0	1	0	1
피부비만체형관리학과	0	0	0	0	0	0	0	0	0	0	0
항공스포츠학과	1	0	4	4	0	0	0	0	0	0	0

※ 한국교육개발원(2011. 12월 기준)

제3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1. 체육지도자 양성제도의 개요

1) 체육지도자 종류

현행 체육지도자 양성제도의 목적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국가가 공인자격을 부여하여 엘리트체육과 국민체육 진흥에 부합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1조에 의하면 체육지도자는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된다.

경기지도자는 해당 종목 전문체육분야의 코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1급과 2급으로 구분되고, 생활체육지도자는 해당 종목 생활체육분야의 코치로서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표 10-12 경기지도자의 자격 요건

자 격 구 분		응 시 자 격
1급 경기지도자		①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② 체육 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경기경력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2급 경기 지도자	일반 과정	① 대학교 졸업(예정)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②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 ③ 전문대학 졸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④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 부여	①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경기지도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사람 ② 2급 경기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사람 ③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경기지도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추가 취득	①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체육과학연구원(2011). 내부자료

표 10-13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

자격구분		응시자격
1급 생활체육지도자 (운동처방)	특별과정	① 운동처방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운동처방분야의 종사기간 또는 연구·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일반과정	①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체육 분야에 관한 박사나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 ③ 운동처방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
2급 생활체육지도자 (운동지도)	자격부여	①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사회(생활)체육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사람 ② 2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사람
	특별과정	① 1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②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일반과정	①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 ③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체육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추가취득	①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급 생활체육지도자 (운동지도)	자격부여	①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체육관련학과 및 전문대학의 사회(생활)체육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사람 ② 3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사람
	특별과정	①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② 체육에 관한 연구·지도 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일반과정	① 만18세 이상인 사람
	추가취득	①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체육과학연구원(2011). 내부자료

2) 체육지도자 양성 절차

체육지도자 양성은 체육지도자연수원이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신문 등 언론에 공고를 하게 되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이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하여 시험과 연수 등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체육과학연구원은 1급 경기지도자와 1급 생활체육지도자 및 2급 생활체육지도자 과정의 접수·연수·검정업무와 3급 생활체육지도자 검정업무를 담당하며,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 생활체육지도자와 3급 생활체육지도자 과정은 체육과학연구원의 지도·감독 하

에 지정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과학연구원 체육지도자연수원, 급별 지정연수원의 체육지도자 양성 절차는 <그림 10-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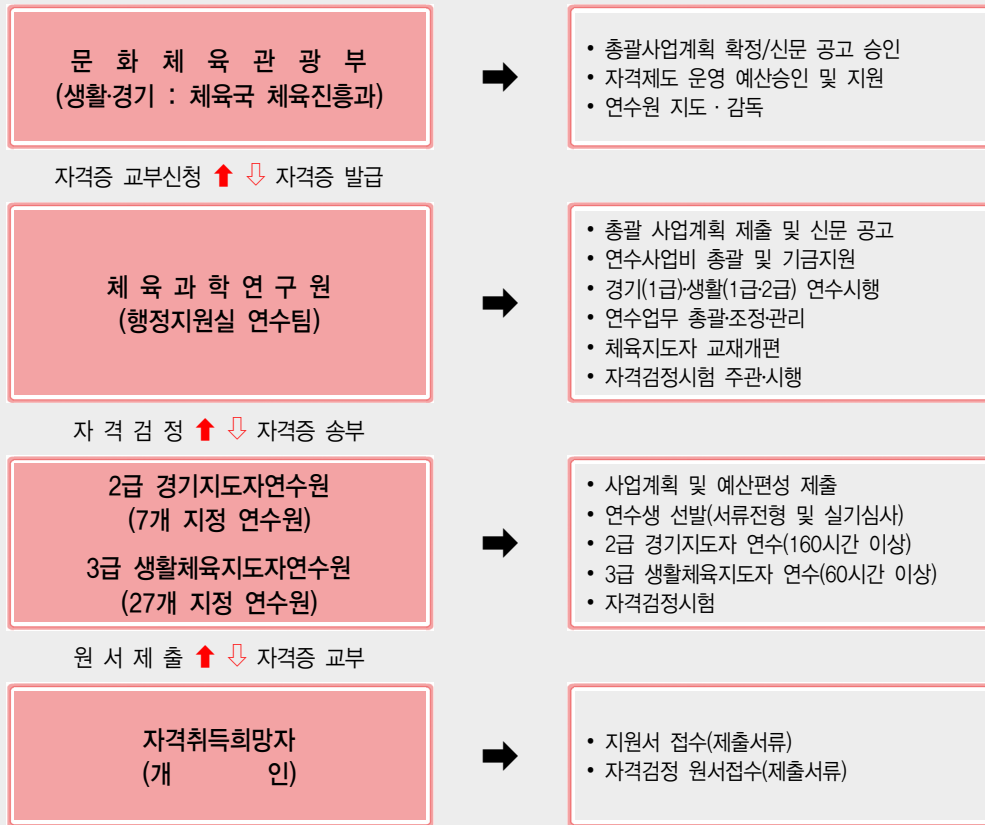


그림 10-1 체육지도자 양성절차

3) 체육지도자 양성 기관 지정 현황

체육지도자 양성기관은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과 경기지도자 연수원으로 구분된다.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의 경우, 체육과학연구원이 1급과 2급의 연수와 자격검정, 3급의 자격 검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원광대학교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이 2008년 신규로 2급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3급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는 27개 연수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 현황은 (표 10-14)와 같다.

표 10-14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 현황

급 별	연 수 원		자 격 검 정 기 관	
	연 수 원 명	지정년도	검 정 기 관 명	지정년도
1 급	체육과학연구원	'95. 5. 3	체육과학연구원	'95. 5. 3
2 급	체육과학연구원 원광대학교	'91. 10. 17 '08. 12. 17	체육과학연구원	'91. 10. 17
3 급 (27개)	용 인 대 충 남 대 조 선 대 동 아 대 제 주 대 국 기 원 계 명 대 한국프로골프협회 전 북 대 강 원 대 충 청 대 인 천 대 군 산 대 부 경 대 진주전문대 공 주 대 신 라 대 경 회 대 건 국 대 순 천 대 안 동 대 연 세 대 한국체대 관동대 중앙대 명지전문대 호서대	'88. 11. 29 '88. 11. 29 '88. 11. 29 '88. 11. 29 '90. 9. 24 '90. 2. 23 '92. 2. 20 '92. 12. 22 '96. 9. 20 '96. 9. 20 '97. 10. 23 '97. 10. 23 '98. 1. 21 '98. 1. 21 '98. 1. 21 '98. 1. 21 '02. 5. 29 '02. 5. 29 '02. 5. 29 '02. 5. 29 '03. 7. 1 '06. 12. 26 '10. 2. 3 '11. 5. 23 '11. 5. 23 '11. 5. 23 '11. 10. 24	체육과학연구원	'91. 10. 17

※ 체육과학연구원(2011). 내부자료

경기지도자는 체육과학연구원이 1급 경기지도자의 연수와 자격검정, 2급 경기지도자의 자격검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7개 기관이 2급 경기지도자의 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지도자 양성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15 경기지도자 양성 기관

구 분	급별	연 수 원		자 격 검 정 기 관	
		연 수 원 명	지정년도	검 정 기 관 명	지정년도
경 기 지 도 자	1 급	체육과학연구원	'89. 11. 1	체육과학연구원	'90. 8. 8
	2 급 (7개)	한 체 대	'83. 8. 31	체육과학연구원	'94. 1. 1
		국 기 원	'83. 12. 1		
		동 아 대	'92. 5. 22		
		조 선 대	'92. 5. 22		
		전 남 대	'92. 5. 22		
		충 남 대	'96. 9. 20		
		신 라 대	'02. 5. 29		

※ 체육과학연구원(2011). 내부자료

4) 양성 종목

경기지도자 양성종목은 주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종목으로서 1, 2급 경기지도자는 54개 종목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의 운동처방분야 1종목, 2,3급의 42종목을 대상으로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종목은 매년 체육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경기지도자의 경우, 2004년에는 47종목이었으나 2005년 10월에 당구, 스쿼시, 바이애슬론 종목이, 2010년에는 루지봅슬레이가 루지와 봅슬레이스켈레톤으로 분화되고 공수도, 댄스스포츠, 태권 종목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총 54종목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2004년에는 2급 41종목, 3급 23종목으로 양성 종목이 각각 달랐으나, 2005년 10월에 2급과 3급을 총 42종목으로 통합하였다.

표 10-16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자격구분	자 격 종 목
1~2급 경기지도자 (54종목)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댄스스포츠, 태권
1급 생활 체육지도자	운동처방분야
2~3급 생활체육 지도자 (42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 체육과학연구원(2011), 내부자료

2.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1) 연도별 양성 현황

연도별 경기지도자 양성현황은 74년 처음으로 경기지도자 양성을 시작한 이래 1급은 90년 전까지는 연도별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양성이 되었다가 90년 이후부터는 매년 지속적으로 양성이 되고 있으며, 2급 경기지도자의 경우에는 74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매년 지도자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현재 1급 910명, 2급 25,552명 등 총 26,462명의 경기지도자가 양성배출되었다. 경기지도자들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훈련 지원을 통해 엘리트스포츠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표 10-17 연도별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단위 : 명)

연도	1급경기	2급경기	계	연도	1급경기	2급경기	계
1974	-	137	137	1994	35	293	328
1975	17	60	77	1995	18	503	521
1976	-	39	39	1996	20	440	460
1977	-	36	36	1997	10	786	796
1978	-	58	58	1998	28	1,005	1,033
1979	22	61	83	1999	45	852	897
1980	27	22	49	2000	26	767	793
1981	-	92	92	2001	36	848	884
1982	-	250	250	2002	21	736	757
1983	-	372	372	2003	30	827	857
1984	-	519	519	2004	26	1,204	1,230
1985	-	499	499	2005	34	1,084	1,118
1986	-	571	571	2006	58	1,359	1,417
1987	-	633	633	2007	70	1,451	1,521
1988	-	523	523	2008	76	1,369	1,445
1989	-	295	295	2009	56	1,653	1,709
1990	22	686	708	2010	76	1,798	1,874
1991	14	346	360	2011	66	2,167	2,233
1992	39	652	691	계	910	25,552	26,462
1993	38	559	597				

※ 체육과학연구원(2011), 경기지도자연수원

2) 종목별 양성 현황

경기지도자 종목별 양성 현황은 1, 2급을 포함할 경우 태권도가 6,2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야구 1,848명, 육상 1,785명, 축구 1,202명, 수영 1,02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급별로 다시 구분하면, 1급 경기지도자의 경우에는 사격이 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육상 58명, 수영 51명, 태권도 40명, 골프 3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급 경기지도자의 경우에는 태권도가 6,2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야구 1,840명, 육상 1,727명, 축구 1,182명, 수영 978명 순으로 나타나 전체 경기지도자 순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 경기지도자 양성현황은 (표 10-18)과 같다.

표 10-18 종목별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단위 : 명)

종목	계	1급 경기	2급 경기	종목	계	1급 경기	2급 경기
검도	215	2	213	씨름	192	1	191
골프	562	38	524	아이스하키	139	19	120
궁도	82	5	77	야구	1,848	8	1,840
근대5종	167	13	154	양궁	482	21	461
농구	693	12	681	역도	407	30	377
당구	166	7	159	요트	273	23	250
력비	126	3	123	우슈	251	14	237
레슬링	432	36	396	유도	588	16	572
루지	10	2	8	육상	1,785	58	1,727
봅슬레이스켈레톤	6	1	5	인라인롤러	159	11	148
바이애슬론	29	5	24	정구	245	8	237
배구	802	25	777	조정	204	12	192
배드민턴	514	31	483	체조	532	34	498
보디빌딩	488	9	479	축구	1,202	20	1,182
복싱	530	20	510	카누	215	12	203
볼링	472	18	454	컬링	94	11	83
빙상	359	15	344	탁구	571	24	547
사격	748	65	683	태권도	6,244	40	6,204
사이클	341	25	316	테니스	810	15	795
산악	319	12	307	트라이애슬론	93	9	84
세팍타크로	61	4	57	펜싱	356	17	339
소프트볼	93	8	85	하키	291	29	262
수상스키	82	4	78	핸드볼	421	19	402
수영	1,029	51	978	공수도	25	1	24
수중	44	3	41	댄스스포츠	13	-	13
스쿼시	84	3	81	태권	90	-	90
스키	266	24	242	전체	26,462	910	25,552
승마	212	17	195				

※ 체육과학연구원(2011), 경기지도자 연수원

※ 현재의 양성종목은 (표 9-16) 참조

3.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1) 연도별 양성 현황

연도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현황은 (표 10-19)와 같다. 생활체육지도자는 1987년 2급 783명이 양성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그리고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에는 1995년 처음으로 17명이 양성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양성·배출되고 있다. 2011년 현재 1급 826명, 2급 7,932명, 3급 148,588명 등 총 157,346명이 양성·배출되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생활체육의 중심으로서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10-19 연도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단위 : 명)

연도	1급생활	2급생활	3급생활	계	연도	1급생활	2급생활	3급생활	계
1987	-	783	-	783	2000	36	404	5,537	5,977
1988	-	-	-	-	2001	40	481	6,064	6,585
1989	-	435	2,629	3,064	2002	48	416	7,054	7,518
1990	-	-	2,825	2,825	2003	47	355	6,934	7,336
1991	-	-	4,480	4,480	2004	50	609	8,599	9,258
1992	-	244	1,146	1,390	2005	65	448	8,549	9,062
1993	-	108	3,153	3,261	2006	61	458	10,114	10,633
1994	-	217	3,131	3,348	2007	73	372	10,264	10,709
1995	17	193	3,261	3,471	2008	57	375	10,683	11,115
1996	21	137	3,777	3,935	2009	61	369	8,982	9,412
1997	23	158	4,105	4,286	2010	70	319	11,211	11,600
1998	52	401	5,716	6,169	2011	57	280	10,430	10,767
1999	48	370	9,944	10,362	계	826	7,932	148,588	157,346

※ 체육과학연구원(2011),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2) 종목별 양성 현황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은 (표 10-20)과 같다. 2011년 현재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는 70개 종목에서 157,346명이 양성·배출되었다. 종목별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보디빌딩이 39,9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태권도 20,501명, 수영 19,466명, 에어로빅 11,374명, 골프 8,84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급별로 구분하면,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에는 운동처방 단일 종목으로 826명이 양성되었으며, 2급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에는 수영이 1,4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디빌딩 1,374명, 테니스 544명, 축구 446명, 골프 41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에는 보디빌딩이 38,5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태권도 20,228명, 수영 18,029명, 에어로빅 11,160명, 골프 8,43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20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단위 : 명)

종목	계	1급 생활	2급 생활	3급 생활	종목	계	1급 생활	2급 생활	3급 생활
검도	1,464	-	13	1,451	씨름	257	-	21	236
게이트볼	1,812	-	96	1,716	야구	714	-	120	594
격투기	105	-	-	105	양궁	4	-	4	-
골프	8,848	-	414	8,434	에어로빅	11,374	-	214	11,160
공권도	17	-	-	17	오리엔티어링	82	-	16	66
국선도	62	-	-	62	왕도특수무술	10	-	-	10
국술	69	-	-	69	요트	334	-	3	331
궁중무술	33	-	-	33	요가	387	-	-	387
권격도	49	-	-	49	우슈	889	-	26	863
복싱	1,375	-	31	1,344	윈드서핑	262	-	85	177
농구	3,133	-	370	2,763	유도	2,097	-	62	2,035
당구	604	-	25	579	유술	5	-	-	5
도봉술	8	-	-	8	육상	33	-	33	-
라켓볼	218	-	8	210	인라인롤러	518	-	100	418
력비	84	-	17	67	정구	141	-	23	118
레슬링	338	-	25	313	조정	143	-	5	138
레크리에이션	684	-	111	573	축구	4,554	-	446	4,108
리듬체조	1,021	-	214	807	카누	196	-	19	177
배구	1,637	-	244	1,393	킥복싱	151	-	-	151
배드민턴	8,323	-	431	7,892	탁구	2,957	-	201	2,756
보디빌딩	39,931	-	1,374	38,557	태권도	20,501	-	273	20,228
볼링	6,239	-	260	5,979	태수도	3	-	-	3
불무도	28	-	-	28	테니스	5,013	-	544	4,469
빙상	923	-	49	874	통일무술	18	-	-	18
사이클	170	-	27	143	특공무술	50	-	-	50
산악자전거	157	-	29	128	한무도	23	-	-	23
세팍타크로	21	-	10	11	합기도	1,677	-	-	1,677
수박도	23	-	-	23	핸드볼	11	-	11	-
수상스키	198	-	57	141	행글라이딩	5	-	3	2
수영	19,466	-	1,437	18,029	활기도	1,018	-	-	1,018
수중	151	-	46	105	활법	596	-	-	596
스쿼시	2,774	-	128	2,646	화랑도	18	-	-	18
스키	1,395	-	284	1,111	회전무술	33	-	-	33
승마	1,051	-	23	1,028	운동처방	826	826	-	-
십팔기	24	-	-	24	전체	157,346	826	7,932	148,588
십팔반무예	11	-	-	11					

※ 체육과학연구원(2011),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

※ 1.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운동처방분야업무 종사자로서 자격종목은 없음

2. 현재의 양성종목은 (표 9-16) 참조

4. 체육지도자 배치·활용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운동처방과 지도, 그리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각종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배치되는데 크게 관계법령에 의거한 민간부문의 의무배치와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1) 민간부문의 배치·활용

민간부문에서는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의 체육지도자 배치규정에 근거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은 (표 10-21)과 같다.

표 10-21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 모	배치인원
골프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 골프코스 36홀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스키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로프 10면 이하 • 슬로프 10면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요트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트 20척 이하 • 요트 20척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조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20척 이하 • 조정 20척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카누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누 20척 이하 • 카누 20척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빙상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이하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승마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20두 이하 • 말 20두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수영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실내 수영장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수영장 	1인 이상 2인 이상
체육도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골프연습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 50타석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체력단련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당해 종류의 체육지도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업종별 체육지도자 배치현황은 (표 10-22)와 같다. 2011년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체육지도자 1급 194명, 2급 1,110명, 3급 23,492명이 배치되어 총 24,796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하여 전체 배치인원은 2,956명(5.0%)이 증가하였는데, 급별로는 1급체육지도자가 55명(22%)의 급속한 감소세를 보였으며, 2급 지도자는 3명(0.27%) 감소한 반면 3급은 82명(0.3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사회적 수요와 역할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지도자 양성 및 배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0-22 업종별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업소수	지도자배치			
			계	1급	2급	3급
합계		56,807	24,796	194	1,110	23,492
등록 체육 시설	소계	439	411	4	48	359
	골프장	416	377	4	32	341
	스키장	20	34	-	16	18
	자동차경주장	3	-	-	-	-
신고 체육 시설	소계	56,368	24,385	190	1,062	23,133
	요트장	19	28	2	15	11
	조정장	-	-	-	-	-
	카누장	-	-	-	-	-
	빙상장	40	72	13	24	35
	승마장	116	134	3	22	109
	종합체육시설	230	1,271	8	101	1,162
	수영장	567	1,068	16	56	996
	체육도장	13,485	13,016	41	589	12,386
	골프연습장	9,033	2,120	63	124	1,933
	체력단련장	6,449	6,676	44	131	6,501
	당구장	25,159	-	-	-	-
	썰매장	122	-	-	-	-
	무도장	72	-	-	-	-
	무도학원	1,076	-	-	-	-

※ 비고 1. 체육시설업종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종목은 기재하지 아니함

2. 대상수는 : 업체수 + 규모에 따른 추가 배치 인원수임

※ 경영정보조사(2011). 전국 등록·신고체육시설업 현황(2010년 12월말 기준)

세부적으로는 등록체육시설업이 439개소에 411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평균 0.94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신고체육시설업도 56,368개소에 24,385명을 배치하여 평균 0.43명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공부문의 배치·활용

2000년부터 시작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장 지원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신규 프로그램 보급을 확산시킴으로써 대국민 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청년전문인력 고용 지원계획’에 따라 처음으로 995명의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인건비 50%씩을 부담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원하였다. 이후 국고지원을 기금지원으로 대체하고 matching fund 형태로 지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전일제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일제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은 (표 10-23)과 같다.

표 10-23 2011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실적

구분	지도자수	운영횟수	참가자수	구분	지도자수	운영횟수	참가자수
계	1,400	587,887	11,040,994	강원	109	41,202	758,787
서울	164	45,869	1,003,420	충북	74	25,525	532,104
부산	72	32,004	714,206	충남	80	33,701	555,922
대구	56	23,448	395,580	전북	71	27,318	548,426
인천	50	21,931	358,424	전남	110	82,659	1,008,452
광주	43	21,640	416,859	경북	117	44,324	966,077
대전	87	38,255	555,293	경남	123	55,583	1,124,714
울산	48	18,972	459,734	제주	25	7,372	173,511
경기	171	68,084	469,485	-	-	-	-

※ 국민생활체육회(2011). 내부자료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실적을 살펴보면, 배치인원은 총 1,400명이며 이는 전년도 1,450명보다 50명(3.57%) 감소한 수치로 2009년, 2010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실적의 지속적인 감소 원인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칭 펀드 지원방식이 문제가 되는지, 임금 및 근무환경 등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문제로 지도자들이 지원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인지, 또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의 문제인지 등을 분석·검토하여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로는 인구수가 많은 경기도가 17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164명, 경남이 123명, 경북이 117명, 전남 11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배치인원이 작은 시도는 제주 25명, 광주 43명, 울산 48명, 인천 50명, 대구 56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의 총 지도횟수는 587,887회이며, 참가자수는 11,040,994명으로 지도횟수(6,863회, 1.15%) 및

참가자수(870,971명, 7.31%) 모두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도부터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전담지도자 현장배치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사업으로서, 노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도가 수월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방문 활동으로 호응도 및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노인지도자에서 어르신전담지도자로 명칭을 바꾸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실적은 (표 10-24)와 같다.

표 10-24 2011년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실적

구분	지도자수	운영횟수	참가자수	구분	지도자수	운영횟수	참가자수
계	550	235,943	4,778,227	강원	47	17,199	345,904
서울	76	26,882	506,248	충북	36	12,745	308,909
부산	22	9,808	232,106	충남	37	17,811	295,979
대구	22	10,754	187,327	전북	29	11,773	292,727
인천	23	10,705	170,074	전남	58	27,703	575,613
광주	15	7,584	175,090	경북	45	19,229	393,372
대전	19	10,111	147,182	경남	48	23,930	487,668
울산	10	4,079	77,659	제주	9	3,050	89,662
경기	54	22,580	492,707	-	-	-	-

※ 국민생활체육회(2011). 내부자료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실적을 살펴보면, 배치인원은 총 550명이며 상대적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인원이 감소한 것과는 달리 어르신전담지도자의 경우에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 50명(10.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년 연속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 속에서 노인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생활체육지도자와 달리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인 서울이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남이 58명, 경기 54명, 경남 48, 강원 4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작은 시도는 제주로 9명, 다음으로는 울산이 10명, 광주 15명, 대전 19명, 부산 및 대구 22명으로 나타났다. 어르신전담지도자의 총 지도횟수는 235,943회이며, 참가자수는 4,778,227명에 이른다. 지도횟수(2,708회, 1.16%) 및 참가자수(212,408명, 4.65%)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생활체육광장지도자는 매일 새벽(06:00~07:00)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리한 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1일 1시간 이상 지역별 특성과 장소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

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현장지도와 아침광장 에어로빅 및 생활체조 지도가 중심이 되고 있다. 광장지도자 배치실적은 다음 <표 10-25>와 같다.

표 10-25 2011년 광장지도자 배치 실적

구분	개소수	운영횟수	참가자수	구분	개소수	운영횟수	참가자수
계	520	56,644	1,803,503	강원	39	3,431	70,984
서울	38	4,738	211,513	충북	33	3,538	101,195
부산	36	3,921	141,490	충남	33	3,555	83,678
대구	38	4,527	167,950	전북	38	4,336	116,566
인천	30	2,256	50,253	전남	39	4,374	166,666
광주	26	2,680	64,373	경북	38	4,142	131,069
대전	24	2,974	94,818	경남	40	4,761	121,095
울산	18	1,582	70,487	제주	14	1,894	99,101
경기	36	3,935	112,265	-	-	-	-

※ 국민생활체육회(2011). 내부자료

광장지도자 배치실적을 보면, 총 520명이 배치되어 전년도와 변화가 없었으나 운영횟수는 18,280회(24.4%)가 감소한 56,644회, 참가자수는 1,018,822명(36.1%)이 감소한 1,803,503명인 것으로 나타나 광장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문제점 파악과 사업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강원과 전남이 각각 39명, 서울, 대구, 전북, 경북이 38명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작은 시도는 제주 14명, 울산 18명, 대전 24명, 광주 26명, 인천 30명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 large red abstract graphic element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featuring a white arrow-like shape pointing right, which contains the text 'Section 11' and '체육정보'.

Section

11

체육정보

- 제1절 개 관
- 제2절 체육정보 현황



Section

11

체육정보



제1절 개 관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21세기 사회에 맞춰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 통신망을 고속·고도화하여 구축하고 정보통신망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식기반 경제 발전에 주력하여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체육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전문체육정보시스템구축,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 생활체육정보센터운영 등의 정보망을 구축하고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체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체육정보와 관련된 정책은 1993년 수립된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을 통해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다. 체육과학연구원을 주관으로 관련 단체 간의 전산망 구축,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정보 자료의 공유를 주 내용으로 하는 체육정보전산망 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정보화 대상 업무로는 첫째 체육과학연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구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재육성재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마사회 등 관련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른 체육정보DB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둘째 전자사랑방 운영, 지역정보센터 운영, 체육정보 뉴스 서버 운영, 체육정보 표준화 및 체육정보망 통합검색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체육정보 유통 기반 조성, 셋째 경마 실태중계, 재택 발권 시스템 구축 등 경륜·경마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1998년에 정부는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동계획은 체육정보의 개발과 유통을 국가 체육정책의 주요영역으로 포함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으로 사회·경제 환경에 근원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포착,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체육정책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국가 체육정책 분야에 체육정보 정책의 실질적 토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업영역은 체육정보관리체계 구축, 체육정보 개발, 체육정보의 확산 등 세 가지이다. 체육정보관리체계 구축은 체육정보 기반구축, 체육정보의 표준화, 체육정보 교육 프로그램개설 등 세 가지 사업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정보개발은 체육문헌, 경기력 향상, 건강체력, 체육산업, 전문체육, 생활체육,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8개 분야로 구분하고, 관련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육 정보 확산은 사업 분야를 생활체육, 전문체육으로 구분하여 체육정보의 확산 및 유통경로를 다양화, 고급화 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에 수립된 ‘제2차 문화정보화추진기본계획’은 변화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발전과 급증하고 있는 문화정보 분야의 수요 확대, 세계적인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동계획에서 체육정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체육종합정보망 구축, 국민체육진흥DB 구축, 생활체육 정보화, 엘리트체육 정보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대별된다. 2001년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관광부(구 문화관광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구 농림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대상 업무 영역은 줄었지만, 관련기관별 체육정보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체육정보의 생산과 유통,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가시화하였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크다.

2003년에 수립된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서의 체육정보는 스포츠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사이버 체력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스포츠정보 전자도서관 구축, 국민체육진흥 관련 DB 구축,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스포츠정보시스템 및 DB 구축 등 6개 부문으로 세부 사업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현재는 스포츠 정보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 기금 조성 및 지원을 통한 체육인복지 홍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고객 중심의 콘텐츠를 추가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내 체육정보는 전문체육 정보시스템과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사업을 지속하고 소프트볼, 세팍타크로 등 11개 종목의 대회운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체육행정에 있어 정보 추진실태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정립하고, 체육정보를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체육행정 전산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체계 구축, 소프트볼, 세팍타크로, 스쿼시, 공수도, 댄스스포츠, 검도, 궁도, 바둑, 산악, 수상스키, 수상종목의 대회운영시스템 구축, 초고속 정보통신 시대에 맞춘 기존 장비 교체 및 네트워크 환경개선을 통한 체육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에 체육관련 기관은 대회운영시스템 구축을 지속하고 국내·외 경기결과 및 기록DB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2절 체육정보 현황

1. 체육정보시스템

체육정보시스템은 체육관련 정보를 서비스하는 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체육과학연구원,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체육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시스템을 총칭하며, 전산장비 도입, 초고속 통신망 구축, 응용시스템 개발·보급, 멀티미디어 자료구축, DB설계 및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체육정보시스템의 현실화를 위해 각 관련 기관은 내부 정보 및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였고,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기관 간 자료 연계 시 자료 정보 보안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정보유통의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전산장비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림 11-1)은 체육기관 간 연계된 체육정보 시스템 구성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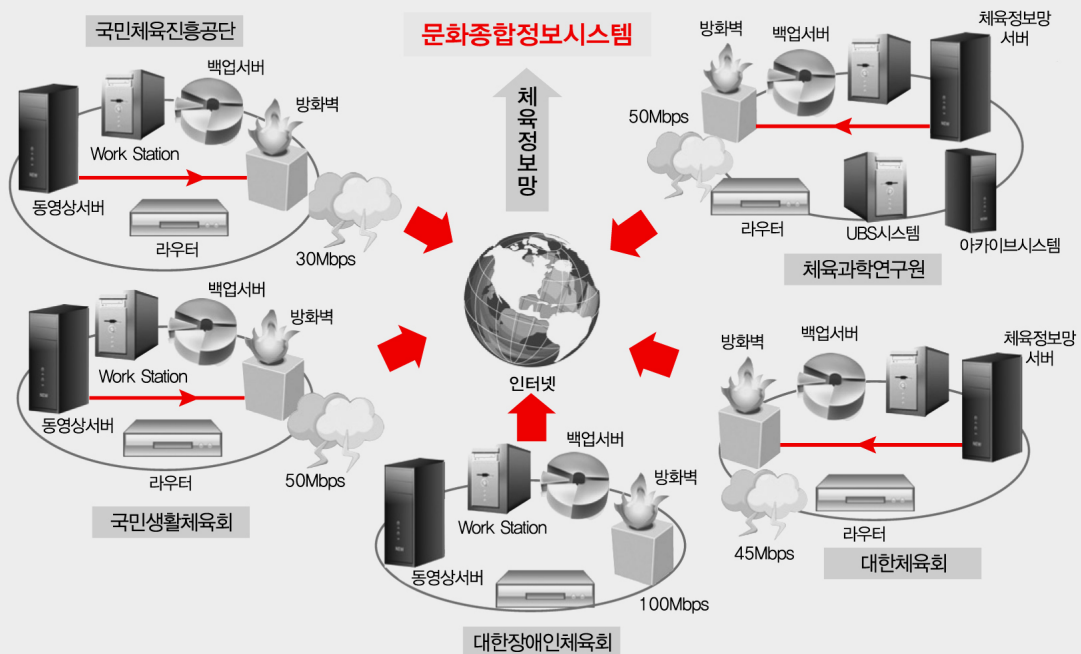


그림 11-1 체육정보시스템 구성도

2. 체육정보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체육정보망은 ‘문화정보화 추진 기본계획’에 따른 체육 분야 정보망으로 체육과학연구원을 거점기관으로 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 참여기관 간 정보의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내 문화정보망은 ‘1996년 문화정보화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분야별 10개 세부정보망(체육정보망, 행정정보망, 예술정보망, 문화재정보망, 박물관정보망, 도서관정보망, 미술관정보망, 관광정보망, 청소년정보망, 월드킴정보망)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1996년 체육과학연구원이 체육정보망 거점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1999년~2000년에 2차례 체육정보망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으며, 2000년~2001년에 사이버체력관리 및 청소년체력증진시스템을 구축하여 체육정보망 내 콘텐츠를 확대 하였다. 2002년~2003년에 스포츠산업정보 및 인증시스템을 구축, 2003년~2004년에 문헌정보 운영관리 시스템 원문변환작업, 체육지도자 네트워크, 레포츠허브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고, 2004년~2005년에 체육학회 및 16개 분과학회를 지원하기 위해 학회별 홈페이지, 체육학술정보 시스템, 스포츠산업정보, 사이버체력관리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스포츠코리아와 통합하였다. 2007년~2008년에는 체육통계포털을 구축하였으며, 2008년~2009년에는 스포츠산업정보/인증정보시스템 및 스포츠코리아를 개편하여 체육정보망을 재정비하였다. 2011년 현재 체육정보망은 체육유관기관의 정보교류 및 연계를 통해 다양한 체육정보를 제공하고 체육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과 시책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림 11-2).

3. 체육관련 기관별 정보

체육관련 기관에서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체육정보의 연계와 생산유통의 체계를 확립하고, 정보생산 경로를 다양화하여 종합체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체육과학연구원은 체육과학종합연구기관으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등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제안, 경기력 향상관련 연구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체육유관기관 정보망의 포털사이트로 스포츠코리아를 서비스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단본부, 경륜·경정사업본부, 스포츠산업본부, 그리고 (주)한국체육산업개발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주요 업무를 서비스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전문체육을 중심으로 가맹경기단체의 소개와 대표선수의 정보, 국제외교인력DB 등을 제공하고 동·하계올림픽 및 동·하계전국체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구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 진흥, 국민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과 종목을 소개하고 대내·외 대회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그리고 도핑검사계획과 결과관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체육인재발굴과 육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스포츠등지와 같은 스포츠전문지식 공유 채널을 통해 국·내외 체육인의 소통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취업지원개발홈페이지(스포츠커리어)운동을 통하여 체육인의 취업경쟁력을 증진시키고, 경력개발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육유관기관별 홈페이지는 (표 11-1)과 같다.



그림 11-2 체육정보망 구성도

표 11-1 체육유관기관 도메인

기 관	도 메 인	비 고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http://www.kspo.or.kr http://www.sportsbiz.or.kr http://www.krace.or.kr http://www.kspnco.or.kr http://www.kcycle.or.kr http://www.kboat.or.kr http://www.parktel.co.kr http://www.spoex.com http://www.88olympic.or.kr http://www.somamuseum.org http://www.tourdekorea.or.kr http://www.olympicpark.co.kr	공 단 본 부 스 포 츠 산 업 본 부 경 료 · 경 정 사 업 본 부 한 국 체 육 산 업 개 발(주) 경 령 정 경 파 크 텔 스 포 츠 산 업 박 람 회 서 울 올 림 픽 기 념 관 소 마 미 술 관 투 르 드 코 리 아 올 림 픽 공 원
체 육 과 학 연 구 원	http://www.sports.re.kr/ http://www.sportskorea.net/ http://www.insports.or.kr http://ssps.sportskorea.net/ http://www.spobiz.kr/ http://library.sports.re.kr	연 구 원 홈 페 이 지 스 포 츠 코 리 아 체 육 지 도 자 연 수 원 체 육 통 계 포 탈 스 포 츠 포 탈 전 자 도 서 관
대 한 체 육 회	http://www.sports.or.kr http://sunsuchon.sports.or.kr http://sports-in.sports.or.kr http://museum.sports.or.kr http://tv.sports.or.kr http://webzine.sports.or.kr http://photo.sports.or.kr http://junior.sports.or.kr http://national.sports.or.kr http://winter.sports.or.kr http://lib.sports.or.kr http://dbsd.sports.or.kr http://run.sports.or.kr	기 관 홈 페 이 지 대 한 체 육 회 선 수 촌 홈 페 이 지 스 포 츠 인 권 이 셴 터 홈 페 이 지 한 국 체 육 박 물 관 홈 페 이 지 대 한 체 육 회 인 터 넷 방 송 대 한 체 육 회 웹 진 스 포 츠 포 토 뱅 크 전 국 소 년 체 육 대 회 전 국 체 육 대 회 전 국 동 계 체 육 대 회 체 육 도 서 자 료 실 스 포 츠 외 교 인 력 D B 올 림 픽 의 날 달 리 기 대 회
대 한 장 애 인 체 육 회	http://www.kosad.or.kr http://dground.kosad.or.kr http://www.kosad.or.kr/english http://www.sports.kosad.or.kr http://kpcdb.kosad.or.kr/	기 관 홈 페 이 지 이 천 훈 련 원 홈 페 이 지 K P C 홈 페 이 지 생 활 체 육 정 보 셴 터 홈 페 이 지 국 제 외 교 인 력 정 보 네 트 워 크
국 민 생 활 체 육 회	http://www.sportal.or.kr http://club.sportal.or.kr	기 관 홈 페 이 지 동 호 인 클 럽 등 록 관 리 시 스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http://www.kada-ad.or.kr	기 관 홈 페 이 지
체 육 인 재 육 성 재 단	http://www.nest.or.kr http://www.sportcareer.kr http://www.sportnest.kr	기 관 홈 페 이 지 스 포 츠 커 리 어 홈 페 이 지 스 포 츠 동 지 홈 페 이 지

각 체육관련 단체들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구축 후 체육정보 콘텐츠 서비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화 근로사업을 통해 체육문헌정보 및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경기대회 동영상 등의 DB 구축이 이루어졌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육정보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 후 1~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의거 각 기관별 체육정보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11-2)과 같다.

표 11-2 체육정보 구축 내역

구 분	년 도	내 용
체 육 과 학 연 구 원	1996	• 홈페이지 개발
	1997	• 문헌정보, 레포트, 체육 사랑방 콘텐츠 자료 구축
	1998	• 문헌정보, 레포트, 체육 사랑방 콘텐츠 보완 및 추가 구축 • 스포츠산업정보 DB 자료 구축
	1999	• 체육문헌정보 원문DB 및 이미지 자료 구축 • 스포츠산업정보 자료(텍스트/이미지) 구축
	2000	• 스포츠산업 자료(텍스트) 및 대한민국체육사 자료구축 • 체육문헌정보 자료(텍스트) 구축 • 사이버(cyber)체력관리시스템 개발
	2001	• 청소년체력평가시스템 개발
	2002	• 스포츠산업정보 및 인증정보 시스템 구축 • 한국체육지표 검색시스템 개발 및 자료구축
	2003	• 문헌정보 내부관리시스템 개발 및 원문 자료구축 • 홈페이지 재구축 • 체육지도자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2004	• 체육관련학회 통합전산관리시스템(16개 학회) 구축 • 사이버(cyber)체력관리시스템 재구축 •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경기영상콘텐츠) 구축 • 스포츠산업정보 DB 구축 • 스포츠 전문인력양성 관리시스템 개발
	2005	• 사이버(cyber)체력관리시스템 재구축 • 스포츠전문인력 양성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 원문관리 및 논문자료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 청소년체력인증 및 향상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사업 • 온라인 연구지원 및 연구과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006	• 국민체력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 경기력진단평가 프로그램 구축
	2007	• 체육통계포털시스템 구축 • 연수·연구관리시스템 구축 • 아카이브시스템 연계 경기내용분석시스템 개발
	2008	• 체육정보망 이용자수요조사 및 콘텐츠 구축전략 수립 • 스포츠산업/인증정보 시스템 재구축

구 분	년 도	내 용
체 육 과 학 연 구 원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코리아 재구축(1차, 사이버 체력관리시스템 통합) • 16개 체육관련 학회 홈페이지 재구축 • 기관홈페이지 재구축(웹접근성 개선)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도서관 재구축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코리아 콘텐츠 확충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발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 서울하계올림픽경기대회 멀티미디어 정보 자료(동영상/이미지) 구축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이미지 자료 구축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지향적 홈페이지 재구축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동영상 디지털 서비스(VOD)사이트 구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지향적 홈페이지 재구축 • 통합 온라인 고객응대(E-cs) 시스템 구축 • 국민건강체력 콜센터 구축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지향적 홈페이지 재구축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바우처시스템 구축, 계약시스템 구축, 기금지원시스템 구축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P 시스템 구축, DW시스템, 고객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접근성 강화 홈페이지 재구축 • 친환경대중골프장운영시스템 구축 • 스포츠관람바우처 관리시스템 구축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시스템·통합성과평가시스템·경주사업관리시스템 구축 • 인트라넷 통합구축 및 올림픽공원·국민건강체조 홈페이지 개편
대 한 체 육 회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발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재구축 및 보완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보완 및 신규 자료 구축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보완 구축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보완 및 신규구축(올림픽, 문헌정보 등) • 경기 팀·선수 자료(텍스트) 구축 • 경기단체 자료(텍스트) 구축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보완 구축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보완 및 신규구축(문헌정보 등)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관리 시스템구축 • 체육정보시스템구축 • 문헌정보자료(체육지) 1차DB구축 • 전국체육대회운영시스템 WEB환경 1차 구축 • 역대전국체전자료 1차 DB구축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구축(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 경기단체 홈페이지구축 • 선수등록 시스템구축

구 분	년 도	내 용
대 한 체 육 회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과거자료 구축 • 문헌정보자료(체육지) 1차DB 구축 • 전국체육대회운영시스템 WEB환경 2차 구축 • 전국동계체육대회운영시스템 WEB환경 1차 구축 • 역대전국체전자료 2차 DB 구축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 구축(하계올림픽대회:아테네) • 선수등록(2004년도) DB구축 • 시도체육회 홈페이지 구축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보완 구축 • 전국동계체육대회운영시스템 WEB환경 2차 구축 • 전국소년체육대회운영시스템 WEB환경 구축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 구축(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 선수등록(2005년도) DB 구축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보완 구축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훈련기록DB구축) 보완 구축 • 동계종목대회운영시스템 구축 • 국내종합대회운영(전국체육대회 등)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제20회 토리노 동계올림픽대회 등) • 선수등록(2006년도) 온라인 접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보완 구축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운영시스템 구축 • 국내종합대회운영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제23회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 제6회 장춘 동계아시아경기대회, - 제24회 방콕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 선수등록(2007년도) 온라인 접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보완 구축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운영시스템 구축 • 국내종합대회운영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운영시스템 구축 • 국내종합대회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 • 홈페이지 보완구축 • 관세감면시스템 보완구축 • 스포츠인권센터 구축 - 스포츠인권포털, 은퇴선수지원포털 • 체육박물관 홈페이지 구축 • 선수등록신청시스템 보완 구축 • 선수등록(2009년도) 온라인접수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운영시스템 구축 • 대회운영시스템 보완(4개 종목) • 경기단체 홈페이지 보완구축 • 포상, 체육장학생 시스템 보완구축

구 분	년 도	내 용
대 한 체 육 회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운영시스템 구축(10개 종목) • 대한체육회 모바일앱 구축 • 대한체육회 인터넷방송 보완 구축
대 한 장 애 인 체 육 회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발 • 전국대회 홈페이지 구축(제3회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재구축/보완 • 시·도체육회 홈페이지 구축 • 선수등록시스템 구축 • 전국대회 홈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4회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제 27회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제 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시스템 보완(추가개발) • 생활체육프로그램 구축 • 2007 IPC정기총회 국·영문 홈페이지 구축 • KPC 영문 홈페이지 구축 • 생활체육정보센터 • 동계체전 경기운영시스템 구축 • 제전대진시스템 구축 • 가맹단체 홈페이지 신규 및 웹기반 구축
대 한 장 애 인 체 육 회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대회 홈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경기대회 • 전국대회 홈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5회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제 28회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2008 전국장애인청소년체육대회 • UCC사이버전시관 구축 • 생활체육정보센터 추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공간 구축 • KOSAD홈페이지 재구축 • 국제인력 DB구축 • 서훈관리시스템 구축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대회 홈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6회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제 29회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2009 전국장애인청소년체육대회 • 생활체육정보센터 추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스포츠포털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홈페이지 구축 • 국제대회 홈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회 밴쿠버 동계장애인올림픽경기대회 - 제10회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 전국대회 홈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회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제30회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제4회 전국장애인청소년체육대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재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접근성 개선

구 분	년 도	내 용
대 한 장 애 인 체 육 회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대회 홈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회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웹접근성 구축 지원 • 생활체육정보센터 기능개선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개 회원단체 홈페이지 구축
국 민 생 활 체 육 회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회원단체 홈페이지 구축 • 국민생활체육회(구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 부분개편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시스템 보완 구축 • 사업실적관리시스템 구축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편 구축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인클럽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차단시스템 도입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교실 4개 종목 추가 (티볼, 프리테니스, 프라이밍 디스크, 럭비) • 생활체육프로그램 (재활, 순환 프로그램) • 건강생활체조 프로그램 활성화 • 홈페이지 개편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웨어 개선 및 확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시·도생활체육회 전자문서 도입 • 전자메일 재개발 및 메신저 개발

1) 체육과학연구원

체육과학연구원은 2001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통합적인 체육정보망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 정보를 서비스 하고 있다. 서비스내용은 스포츠코리아를 통한 스포츠 정보제공과 더불어 체육관련학회(16개 학회) 통합전산관리시스템, 학술자료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체육통계포털시스템, 연수연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8년에는 이용자 현황 분석을 통해 고품질 콘텐츠 구축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체육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포츠코리아를 2009년에 재구축하였다. 특히, 체육 분야의 다양한 정보에 대해 보다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등 검색서비스를 추가하였다. 2010년에는 체육정보 도서관을 재구축하여 통합정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더욱 개선하였으며, 2011년에는 스포츠교실, 3GO준비운동 등 스포츠코리아 콘텐츠를 확충하여 체육정보의 질적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표 11-3).

표 11-3 체육과학연구원의 기관별 정보

체 육 과 학 연 구 원		
기관	목적	세부내용
연구원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발전을 위한 스포츠 과학에 대한 전문연구 기관 혁신적인 사과와 차별화된 능력으로 엘리트스포츠, 생활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산업육성 등을 통한 국가의 스포츠 선진화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SS 소개, 연구사업 지원 사업, 교육연수사업 정보교류, 알림마당, 고객광장 연구원 체육학술 정보(도서관)
스포츠 코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 청소년, 전문인을 대상의 이용자 현황 분석을 통한 고품질 콘텐츠 구축전략을 수립과 다양한 체육 정보 접근성유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 학술정보 전문가상담 스포츠 산업망, 커뮤니티 청소년체력평가 올림픽정보, 유관기관콘텐츠, 행사 및 대회 체육통계정보, 스포츠산업인카페
체육지도자 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검정 및 연수사업을 통한 우수한 체육지도자 육성·배출 선진 스포츠지식을 보급함으로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과정, 필기검정 확인서자격증 고객광장, 회원서비스
체육통계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관련 통계 정보제공 체육통계정보의 사용자 접근성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지표 국민체력실태조사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생활속체육통계
스포츠포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산업관련 통계 정보제공 스포츠산업 관련 뉴스 및 자료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산업기술정보 스포츠업계뉴스정보 스포츠자료실 스포츠비즈니스
전자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관련 학술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검색, 전자정보원 연구원자료, 스포츠컬렉션 MY Library, 도서관안내

연구원 홈페이지는 연구원 자체 연구 사업에 대한 DB와 체육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체육학술정보는 스포츠코리아 및 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학회 간학문·정보 교류 증대와 체육학문 발전을 위해 체육과학연구원과 한국체육학회 및 15개 분과학회가 참여하여 구축한 학술정보이다. 체육지도자 연수원은 체육지도자 육성 및 배출을 목적으로 구축하였으며,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등 체육전문지도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체육통계포털은 국민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홈페이지 이용자는 통합검색을 통해 체육지표, 국민체력실태조사, 국민생활 체육활동참여 실태조사의 통계자료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지역별·연령별·종목별·국가별 등 생활 속 체육통계에 대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체육통계별 원문서비스, 국민체력기준치,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체육통계포털은 현재 스포츠코리아내 체육통계정보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스포츠포탈은 스포츠산업관련 통계정보와 스포츠산업현장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

부에서 시작하였으며, 체육과학연구원이 현재 운영 중이다. 스포츠포탈은 스포츠산업의 깊이 있는 통계자료와 스포츠 비즈니스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스포츠산업관련 직종의 사람들과 스포츠 산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2)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기념 사업, 기금조성 및 지원 사업, 학술자료, 체육연금,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정보는 1997년에 개설되어 1999년~2000년까지 정보화사업을 통해 올림픽 동영상정보(320분)를 추가 구축하였다. 2001년에는 올림픽 기념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기념관 소개, 스포츠 체험관, 1988 서울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경기기록 및 각종 문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자료실과 기존 홈페이지에서 지원되었던 한국어·영어 서비스에서 중국어와 일본어 서비스 기능을 추가 확장하였다. 경륜의 홈페이지는 1999년에 개설한 후 3차에 걸쳐 재구축이 실시되었으며 경주, 선수 정보 및 경기 동영상 자료를 2003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경정 홈페이지는 경정을 소개하는 정보와 선수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소마미술관, 올림픽파크텔 및 올림픽공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올림픽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포츠산업박람회, 뚜르드코리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스포츠산업현장 및 국민들에게 스포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표 11-4).

표 11-4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관별 정보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기관	목적	세부내용
공 단 본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 제24회 서울하계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기금의 조성, 운용 및 체육과학의 연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 운용 및 관리하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고객광장, 사업안내, 홍보광장, 열린경영 사회공헌과 공단소개 올림픽공원, 올림픽기념관 국민건강체조 학술자료, 체육연금 스포츠 바우처 우리동네 체육시설 찾기
스포츠산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산업육성, 올림픽 유스호스텔 운영을 통한 스포츠 산업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공헌, 홍보광장, 고객광장 스포츠산업육성, 체육진흥투표 기금조성 및 지원 사업 기금운영사업, 스포츠 토토
경륜·경정사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륜과 경정을 통한 국민의 다양한 여가욕구 충족, 국민체육진흥, 청소년건강육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원 마련 자전거, 모터보트 경기수준 향상 및 관련산업의 발전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공헌, 공익기금조성 스포츠문화교실, 스포츠단운영 경륜 경정훈련원, 홍보광장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기관	목적	세부내용
체 육 산 업 개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서울하계올림픽경기대회 기념시설의 보존을 위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 생활체육시설 공간제공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자금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공원, 광명동경륜장, 미사리경정공원, 영주교 육훈련원의 시설관리 • 올림픽스포츠허브운영 • 스포츠센터, 공연/행사, 공원안내 • 참여마당
경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자금조성 • 청소년들의 건전한 미래를 위한 청소년 육성사업지원 • 국가 및 지방재정확충과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과 여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륜가이드 • 경주 및 선수정보 • 경륜클리닉 • 플레이존, 경륜방송, 고객광장
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 여가문화의 기회 제공 • 사업수익금을 통한 지방재정지원, 공익기금을 조성 • 낙후된 관련 사업 발전과 우리나라 모터보트 경기수준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정가이드 • 경주 및 선수정보 • 한국 경륜 및 세계 경륜 역사 • 플레이존, 경정방송, 고객광장 제공
파크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여행, 청소년 연수, 유스호스텔 소개, 미디어 갤러리를 제공 • 예약의 편리성을 위한 위치안내 예약센터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크텔가이드 • 멤버십 고객센터 관리 • 파크텔과 함께, 객실, 연회장/세미나 • 레스토랑, 웨딩, 부대시설관리
스포츠산업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레저산업을 대표하는 종합전시회로 국내 스포츠 용품 생산업체의 해외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개와 참가안내 • 참관안내 • 부대행사, 정보센터, 뉴스 제공
서울올림픽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 •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체험학습을 통한 열려 있는 공간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관 소개 • 사이버투어 • 올림픽이야기 • 기념관데스크, 미디어 존, 고객광장
소마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의 성과를 예술로 승화하는 기념공간, 휴식공간제공 • 국민의 스포츠 복지 증진에 앞서 우수한 예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관안내/전시 • 올림픽 교육 • 조각공원, 고객광장 제공
뚜르드코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페레이드와 이벤트를 통한 주민 참여가 능 범국민적 자전거 페스티벌 • 국제스포츠 이벤트와 문화 관광등 국가브랜드홍보의 장 • 엘리트 국제대회 외 생활체육이 접목된 국민참여형 스포츠 문화축제 설립 • 자전거이용문화 확산을 통한 환경, 건강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소개(일정) • 경주안내, 스테이지 대회결과 • 홍보존 커뮤니티, 명예의 전당 제공
올림픽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대회 • 국민에게 교육·문화예술·역사·교육·휴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시설안내 • 참여광장을 통한 고객참여서비스제공

3)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 및 청소년대표 등 우수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우수 선수발굴과 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국 동·하계 종합체육대회, 선수훈련 및 시설,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 지부, 국제체육교류, 국제종합경기대회, 스포츠인 인권센터, 한국체육 박물관 등의 체육현장을 위한 정보들과 체육웹진, 스포츠포토, 스포츠방송, 스포츠이벤트 등의 대국민서비스 정보들이 있다(표 11-5).

표 11-5 대한체육회의 기관별 정보

대한체육회		
기관	목적	세부내용
기관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스포츠경쟁력제고 우수선수육성기반확충 공정한 체육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상에 명시된 특수법인이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 한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육성 및 경기단체 지도·감독 국제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권익센터 태릉선수촌 선수등록신청 정보알림방, 고객참여센터 대회정보, 시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서비스 시스템
대한체육회선수촌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 태릉선수촌의 스포츠무한경쟁 시대에 한국스포츠의 위상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릉선수촌, 태백선수촌, 진천선수촌 국제스케이팅장 국가대표정보, 건강관리정보 선수촌 현황 서비스 구축
전국소년체육대회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대상의 체육대회에 대한 총체적인 집계와 순위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개요, 메달, 신기록 경기일정/결과 선수/임원검색 대회한마당 홈페이지 서비스
전국체육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체육대회 총 45개 종목에 대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개요, 종합득점 메달관련, 신기록 경기일정/결과 선수/임원검색 대회한마당
전국동계체육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에 대한 경기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개요, 종합득점 메달관련, 신기록 경기일정/결과 선수/임원검색 대회한마당, 역대동계체육대회
스포츠인권익센터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인들의 권익을 위한 대한체육회(선수권익보호팀, 스포츠인권익센터 상담실)의 주요 사업 홍보를 통한 스포츠인들의 인식전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비전 인권익센터 추진체계 스포츠인권포털 은퇴선수지원포털

대한체육회		
기관	목적	세부내용
한국체육 박물관 홈페이지	• 국가 기여도 및 스포츠 강국에 걸맞는 독립된 체육 문화 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역사관, 전국체전관, 경기단체관, 올림픽관으로 한국체육역사 자료 전시 홍보	• 박물관소개 • 전시관안내 • 유물기증안내
스포츠외교인력DB	• 스포츠외교의 전략 마련과 더불어 스포츠외교 전문인력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양성 및 활용	• DBSD소개 • 스포츠외교인력 • 양성프로그램 • 국제스포츠정보 • 소모임, 게시판
올림픽의날 달리기대회	• IOC가 주최하는 올림픽의 날 달리기대회로 전 인류의 스포츠보급 및 올림픽운동의 확산과 올림픽 정신의 보급 목적	• 대회소개 • 대회코스 • 참가신청/조회 • 올림픽의 날, 커뮤니티
대한체육회 인터넷방송	• 비인기종목 대중확산을 위한 서비스	• 편성표 • 영상자료실 • 포토갤러리 및 고객센터
대한체육회 웹진	• 국내체육관련 정보제공	• 지난호 보기 및 최근기사목록
스포츠포토뱅크	• 스포츠관련 이미지제공 서비스	• 국내·외경기대회 • 기타대회 • 종목별보기, 주요행사 • 인물별보기 • 한국스포츠역사
체육도서자료실	• 체육관련 전문서적을 수집, 정리, 보존하여 역대 한국스포츠의 발자취와 발전상을 제공	• 도서관소개 • 도서검색 • 이용자마당 • 도서정보

4)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정보와 장애인 전문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국내 및 국제대회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각종 회의 안내, 대회소식, 대회동영상등을 서비스하고 전국체전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전서버를 도입하였다. 또한 UCC사이버 전시관, 생활체육정보센터의 커뮤니티 공간 등 사용자들을 위한 공간을 구축함과 동시에 전국 장애인 체육관련 국제외교 인력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표 11-6).

표 11-6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기관별 정보

대한장애인체육회		
기관	목적	세부내용
기관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선수 지도 및 양성을 통한 국위선양 종목별 경기단체,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및 시도 지부를 지원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체육정보 대회정보 알림공간, 홍보공간, 참여공간 시도지부, 가맹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전문체육, 생활체육, 체육지원사업안내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원소개 사업소개, 열린마당 시설안내, 자료실 국가대표정보
KPC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rea Paralympic Committee는스포츠 증진을 위한 기금조성과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와 활동증가, 국제적인 스포츠와 외교기술의 권한을 증진시켜 국가의 위상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KPC Business Sports event sporting network, bulletin
생활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생활체육정보 안내와 운동 상담, 동호인클럽 정보의 제공 등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정보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찾아가는 생활체육 생활체육대회/행사정보 생활체육 따라하기 스포츠용품대여, 게시판
국제외교인력정보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장애인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효율적 관리 및 관계자들 네트워크 형성, 전문인력 양성 외교인력 양성프로그램을 공모한 사업의 공정성 향상과 참여율 확대를 통한 외교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외교인력 외교인력 양성교육 명예의 전당 행사정보, 알림정보

5)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는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과 국민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1996년에 개설하였고, 자료의 전문화를 위해 3차원 입체영상(3D)시물레이션을 개발하였으며, 생활체육 관련 각종 영상물을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 구축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스포츠 교육콘텐츠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표 11-7).

표 11-7 국민생활체육회의 기관별 정보

국민생활체육회		
기관	목적	주요 콘텐츠 구축 내용
기관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국민 건강과 체력증진,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 문화 창달 세계한민족의 동질성 함양과 통일기반 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서비스 커뮤니티, 알림마당, 고객마당 경영공시, 소개마당
동호인클럽 등록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호인클럽의 등록과 원활한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호인클럽정보 동호인현황 커뮤니티안내

6)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2006년 11월 우리나라 유일의 도핑방지전담기구로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첫발을 내딛었고, 이어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법정법인으로 발족함으로써 우리나라 스포츠도핑금지를 위한 검사소개, 결과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표준교육자료, 가이드북, 리플렛, 홍보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와 매체를 이용해 교육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핑관련규약과 같은 최신자료를 홈페이지에 서비스하고 있다(표 11-8).

표 11-8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기관별 정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기관	목적	주요 콘텐츠 구축 내용
기관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도핑검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 도핑검사결과와 관리 및 그 결과에 따른 제재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치료목적용 위한 예외적 약물 및 방법의 사용 허용기준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도핑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KADA소개 도핑검사&결과관리 교육홍보 국제협력 공지사항&게시판 도핑검사관

7) 체육인재육성재단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스포츠 선진국 도약을 위한 체육인재 육성을 미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지원에 힘입어 지난 2007년 설립되었으며, 차세대 스포츠 인재의 과학적 발굴 및 육성, 전문화 교육을 통한 스포츠 인재 역량 강화, 글로벌 역량 강화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체육기구 등 체육관련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인턴쉽 및 해외학

위과정, 그리고 국내 지도자, 심판의 국제경쟁력 배양을 도모하고자 해외스포츠강습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 [체육인재], 스포츠동지 E-Book 서비스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포츠커리어에서는 경력개발 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채용정보와 취업자료제공을 통해 체육인재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고 있다. 또한 스포츠동지는 스포츠과학, 학교체육, 스포츠외교/스포츠산업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표 11-9 체육인재육성재단의 기관별 정보

체육인재육성재단		
기관	목적	주요 콘텐츠 구축 내용
기관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개발, 운영지원 및 평가 • 체육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 • 인력양성 관계기관 네트워크, 국내외 정보 구축 및 제공 • 기업의 체육분야 지원 활성화 및 체육인력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류기반 마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안내 • 재단사업안내 • 홍보마당, 참여마당 • 경영공시 • Out of Nest • E-NEST
스포츠커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개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한 체육 인재의 취업 경쟁력 강화 • 취업정보 제공을 통한 체육(스포츠)관련 직종 정보 제공 • 스포츠전문 지식 보급 및 공유를 통한 전문체육 인의 능력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정보, 인재정보 • 개인서비스, 기업서비스 • 취업자료실, 취업정보공유
스포츠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과학, 학교체육, 스포츠외교/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지식의 공유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 • 해외통신원, 스포츠동지 기자단



Section

12

남북체육교류

- 제1절 개 관
- 제2절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정책 환경
- 제3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 현황



Section

12

남북체육교류



제1절 개 관

1. 남북 체육교류·협력의 의의

스포츠는 적대적인 국가와 사회를 화해시키고 소통하는 수단이다. 미·중간 핑퐁(탁구)외교는 체육교류의 힘을 상징한다. 죽의 장막이라고 여겨지던 중국이 그 당시 자본주의 블록의 국가들과 국민들에게 그렇게 빨리 다가올 수 있었던 징검다리는 체육교류였다. 체육교류의 힘은 오히려 적대적 정치상황을 뚫어낸 스포츠의 힘에서 나온다. 적대감이 커져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화나, 교류가 단절되었을 때마저도 유일하게 교류를 가능케 하는 것은 체육교류이다. 그것은 스포츠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체육교류가 국제체육기구의 중개 하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63년 체육회담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에 의해서 스위스 로잔에서 이뤄졌다. IOC처럼 국제체육기구들도 남북 단일팀 구성을 지지하고 응원해왔다. 기회가 생기면 단일팀 구성을 지원하려는 것이 세계 스포츠계의 흐름이다.

남남 이념갈등이 깔려있는 경우라도 체육교류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대하다. 2010남아공월드컵 북한 팀에 대한 응원 열기가 국민의 마음을 보여준다. 국민들은 북한 팀을 응원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을 것이다. 국민들은 체육교류가 남북 간 화해협력이나 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전 국민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0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0세 이상 국민 중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1.1%였고,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이 53.0%로서 전체의 64.1%가 남북

체육교류가 통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24.6%이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은 각각 9.5%, 1.8%로 나타났다. 이는 2008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2008년 조사에서는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4%였고,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이 58.2%로 전체의 64.6%가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이다'는 응답률은 25.2%,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각각 8.6%, 1.6%였다. 2006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문화관광부)에서는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7%였고,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이 42.6%로서 전체의 51.3%가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이다'는 응답률은 35.2%,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각각 8.6%, 1.6%였다. 2007년 「통일의식조사」(서울대 통일연구소)에서도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국민 중 체육인 교류를 포함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을 이루는 데 '다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9%,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8%로서 전체의 6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06년, '08년, '10년 3개의 설문조사를 비교해보면, 2010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남북 체육교류·협력이 통일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더 높다. 2010년 설문조사의 경우, '매우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 비율은 11.1%로서 2006년(8.7%)이나 2008년(6.4%)에 비해 상승했다. 이는 최근 들어 각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남북 체육교류·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남북체육교류에 대한 인식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 2011」에 따르면 '통일에 관심이 없다'의 응답비율이 전년대비 1.3%올라간 8.2%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특히 20대의 '통일에 관심이 없다' 응답 비율은 10.8%로 평균보다 높았고, 그들의 '북한을 지원 및 협력대상으로 본다'는 비율은 54.6%로, 가장 긍정적인 40대의 응답비율 70.7%보다 크게 낮았다. 통일의식의 변화는 남북체육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은 남북 교류협력의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체육교류를 지목하고 있다. 통일부가 2011년에 실시한 「남북교류협력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가 현 상황에서 사회문화교류에 유연성을 갖는 것에 74.3%가 찬성했고, 반대는 21.2%였다. 현재의 경색 상황에서 향후 교류확대분야로는 스포츠분야 29.2%로 가장 높았다. 문화예술은 28.2%, 시민사회 분야는 14.6%, 교육학술 분야는 10.9%로 나타났다.

남북체육교류는 1963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당시 스위스

로잔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은 긴 세월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후 남북 사이에 남북체육교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합의서가 교환된 것은 1991년에 이르러서였다.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는 체육교류·협력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문화된 바 있다.

첫째, 남과 북은 체육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 자료와 목록 등 정보 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정보자료의 상호교환은 특히 스포츠과학 연구 성과의 교환이 중요하다. 저널이나 국제경기동향분석서, 훈련지도서 등 연구 성과의 교환을 위한 공동 세미나, 연구 성과물의 교환(도서 주고받기), 국제학술회의에의 공동참석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둘째, 남과 북은 체육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기술협력의 예를 들면 훈련방법, 경기의 운용기술, 심리처방, 선수영양관리법 등 선수의 경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과학적 지원을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다.

셋째, 체육부문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에서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인적 교류에는 체육부문 전문 인력(지도자와 선수, 교사, 교수, 연구자, 체육단체 관리자 등)교류와 생활체육 부문의 인적 교류가 해당될 수 있다.

넷째로는 남과 북은 체육관련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도서출판물 등 유관 성과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다.

다섯째, 남과 북은 쌍방이 정한데 따라서 상대방의 각종 체육관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여섯째, 국제무대의 교환행위가 특히 많은 체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외사업의 공동 진출 및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을 하는 것이다.

남북체육교류·협력에서 중요한 점은 국제체육교류처럼 다양한 교류방식을 이루어나가되, 본질적으로 교류 목표가 남북 화해협력, 통일이라는 과제를 달성해가려는 노력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 분야의 경우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대회와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 구성 경험 이 있고, 2000년대에는 대규모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의 파견이 이루어졌다. FIFA와 IOC 등 국제체육기구가 존재하고, 국제체육 외교의 장에서 남북관계자가 접촉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남북체육교류는 다른 분야의 교류보다 쉽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올림픽 운동 등 국제 스포츠 환경은 평화공존과 화합을 지향한다. 따라서 남북 체육교류는 평화·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수월하며 국제적 이목도 끌 수 있는 효과적인 교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체육교류는 단순히 서로의 경기력을 과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일체감 조성과 신체적 접촉을 통한 상호

교류라는 측면에서 타 분야가 지닐 수 없는 교류 효과를 파생시킬 수 있다.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공동입장은 한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흥분과 감동을 안겨다 주었다. 남북한 공동입장은 2000 시드니하계올림픽을 지구촌 평화와 화합의 축제로 만든 결정적인 이벤트였다. 이후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의 개회식과 폐회식에서는 모두 남북한 선수가 손을 맞잡고 함께 입장하였다.

올림픽 개·폐회식에서의 선수단 공동입장은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성과를 잘 보여 준다. 공동입장의 경우 세계 각국에 생중계되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남북 화해협력의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볼 수 있었다.

남북체육교류의 또 다른 성취는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을 뿐 만 아니라 수백 명의 응원단을 별도로 파견하였다. 특히 북한 응원단의 파견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대북 접촉 기회가 없던 일반국민들에게 직접 북한 사람들을 대면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부산 하계아시안게임의 소중한 경험은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를 통해서도 계승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남한 관광객의 피격사건 발생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 전반이 경색되면서 체육 분야의 남북교류도 전반적으로 후퇴하였다. 한국 체육계의 숙원이었던 베이징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공동응원단 파견이 무산되었고, 남북 선수단의 올림픽 개회식 공동입장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1년은 2010년 천안함사건 등으로 위축된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더욱 위축된 한해였다. 특히 체육분야는 남북체육교류 행사도 없고, 남북간 인적 교류로 완전히 단절된 해였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체육·교류 협력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할 것이다. 남북체육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 평화·화해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일은 통일 환경의 조성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단으로 좌절된 민족 국가의 복원과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통하여 민족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 본다면 남북 체육교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간 체육교류·협력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타 분야의 교류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남북한 체육교류는 역사성을 갖는 문화행사로서 전통을 갖고 있다. 경평전과 같은 경기 대회가 분단 전부터 해방 직후까지 면면히 유지되던 남북체육교류의 전통을 이어 왔다. 경평전은 1929년 시작된 경성(서울)과 평양 간에 축구교류전으로서 당시에는 민족의 관심사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이 대회는 함흥을 포함한 3대도시 교류전에서 나중에는 전국 주요 도시대항전으로까지 발전하여 남북 교류의 전통을 만들어왔다. 또한 해방 이후 서울운동장에서 열렸던 마지막

경평전에는 축구 이외에 농구경기도 경평 대항전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체육교류는 우리민족의 관심과 교류의 필요성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남북체육교류·협력은 다른 영역의 교류에 비해 더 긴 교류노력을 공유해왔다. 남북한 체육교류를 위한 체육회담은 1958년부터 나타난다. 남북체육회담제의는 1960년 제17회 로마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한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각종 국제대회와 올림픽, 아시안게임 개최마다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이 수차례 이루어졌다.

둘째, 체육교류·협력은 타 분야의 교류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중성을 지닌다.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체육교류가 민족공동체 성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도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스포츠는 일반인의 삶 속에 매우 친밀한 소재로 결합되는 일상재로서 규정되고 있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 기간 동안 대한민국 대 그리스전의 TV 시청률(AGB 닐슨미디어리서치)은 47.5%이고 대한민국 대 아르헨티나전은 47.8%, 대한민국 대 나이지리아전은 39.5%,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로 화제가 되었던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전은 44.3%를 기록하였다. 특히 남북교류가 동질적인 민족공동체의식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중성을 지닌 스포츠야말로 민족적 동질성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한 체육은 타 분야에 비해 높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 스포츠는 동일한 경기규칙·규정 등에 의해 경기가 진행되므로 남북 간의 이질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류될 프로그램의 내용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남북교류의 장애요인이 없다. 또 신체의 표현 형식에서 이념이 드러날 소지가 거의 없으므로 교류의 내용과 형식에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간의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남북체육교류·협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체육교류·협력은 1990년 서울과 평양 간 축구교류전과 1991년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출전을 통해 남북 양측에서 합의한 전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전례는 체육 내부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부분, 예를 들면 단일팀 파견 시 국기 사용, 국가, 국호 등에서 어느 정도 양측이 인식을 공유하는 합의점이 만들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체육교류는 국제단체를 통한 중재가 가능하다. 남북한 체육교류는 양 당사자 간에 진행되었지만 국제체육의 장(場)에서 국제체육기구라는 중재자가 존재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문의 교류와 다른 교류의 틀을 갖추고 있다.

남북인적교류가 가능한 언론, 문화, 예술 등의 제 분야와 달리 체육 분야의 경우 남한과 북한을 중재할 수 있는 국제적 기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IOC, OCA, 각 종목 국제

경기연맹 등의 국제적 중재 기구가 남북체육교류 실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국제적 기구를 통해 남북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이견 조정을 위해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체육관련 국제기구는 남북한 체육교류 실현을 위해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 왔다. 국제유도연맹의 경우 1998년 5월 대한유도회가 요청한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승인하면서 1개국에서 1팀만 출전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예외로 적용한 바 있다.

또한 IOC는 남북체육교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다. 1997년 IOC가 북 NOC측에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체육교류를 제안한 이후 1998년 9월에는 IOC의 특사가 축구, 탁구, 배드민턴 종목에 대한 남북한 교류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FIFA의 경우에도 남북한의 축구교류가 ‘축구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라는 FIFA의 이념과 일치하기 때문에 남북 간 축구교류 및 남북 단일팀 구성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체육교류의 특성 때문에 남북체육교류·협력은 다른 부문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상황과 남북 간 역사적 관계에 비추어 체육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용이하고 과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보인다.

2. 남북 체육교류·협력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체육교류가 국가 간의 협력과 화합을 도모한다는 사실은 현대 세계사에서도 적잖게 나타난다. 1972년 미국과 중국 관계를 급변시킨 계기는 평풍경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핑풍외교’가 시작된 지 불과 10개월 만인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전까지 상대방을 적대시해오면서 어떠한 사회문화적 교류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스포츠경기는 양국 간의 긴장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특히 1980년대에는 서울 하계올림픽을 통해 동서 진영 간 정치적 화해를 도모할 수 있었던 전례가 있다. 1988 서울 하계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올림픽 경기는 1980 모스크바 하계올림픽과 1984 LA 하계올림픽에 걸쳐 8년 동안 동서간의 정치적 대결로 점철되고 있었다. 그러나 1988 서울 하계올림픽에 소련과 동구권을 포함한 공산국들 대부분이 참가함으로써 1976 몬트리올올림픽이후 12년 만에 동서화합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남북교류과정에서 남북체육교류가 갖는 정치적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평화정착 단계에서는 특히 인적왕래와 정보자료 교환을 통해 교류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이며, 체육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체육교류는 결과적으로 남북한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긴장관계를 완화 시킴으로써 모든 분야의 대화,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실현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나아가 남북 통일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2) 사회문화적 기능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상대방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이해를 통해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는 것이라 할 때 체육교류는 다음과 같은 사회문화적 기능을 하게 된다.

첫째,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의 사회 정서적 기능이나 사회통합의 기능과 관련하여 볼 때, 남북체육교류는 분단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아오는 동안 약화된 민족의식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둘째, 남북체육교류는 동포애를 고무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지난 2002 부산 하계아시안게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부산 하계아시안게임이나 시드니 하계올림픽에서처럼 국제대회에서 남과 북의 응원단이 서로 상대방의 경기를 응원해 준다거나 또는 남북 양 팀이 대결하는 경기에서 상대팀에 대한 공평한 응원 등은 민족의 화합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셋째, 남북체육교류는 민족의 정체성을 정립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었던 것이 1991년 일본에서 열렸던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 단일팀이 ‘코리아 팀’을 구성하여 출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예일 것이다. 이 같은 남북 체육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민족의 능력을 평가받음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게 되며, 그것은 곧 민족의 정체성 정립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남북체육교류는 남북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거의 반세기 동안 분단된 상황에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해 온 까닭에 생활의 양식과 사고방식 등에서 차별화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는 문제는 분단 상황의 극복을 위한 1차적 과제가 되었다. 남북한 체육교류는 체육인들의 상호 교류뿐만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상대방 체제와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생각하는 방식을 알게 된다. 이것은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단초로 작용하여 점차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갈 것이다.

3) 경제적 기능

남북체육교류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무드 조성에 일조하여 우리나라 국제 신용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외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스포츠 이벤트의 국내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등 부가 가치적 측면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체육교류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육과 관광이 연계되어 파급될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남북 간 인식이 공유되어야한다. FIFA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제적 체육행사가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지역의 이미지와 매력을 창출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남북체육 교류과정에서 체육행사와 병행하여 이벤트 관광을 실시할 경우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실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정책 환경

1. 법·제도적 기반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는 1990년 공포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10년 12월 30일 개정발효)이다. 동법의 1조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법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동법 24조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범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1997년 통일원장관의 고시로 발표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2009년 7월 개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주민왕래, 주민 접촉, 교역 및 기타 협력 사업을 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협력 사업’이란 법률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동법 2조 4항)로 폭넓게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그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과 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동 규정 3조)로 정의되었다. 이중 체육관련 협력사업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다음과 같이 범위가 명시되었다.

제3조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 학술연구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체육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의 협력 하에 주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국제체육과)은 남북체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이다. 통일부의 경우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에서 담당하고 정부 협의체로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두고 있다. 동 추진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 원칙 수립’(동법 6조 1항)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

승인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동법 6조 2항)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통일부는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증하는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해왔다. 2009년도에는 남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형물까지 확대하고, 남북한 왕래 및 남북한 주민 접촉 조항을 보완하며,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협력사업 승인 제도로의 일원화 등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1월 30일 동 법률을 크게 개정하였다. 특히 개정 법률은 동법 제 6조, 제7조, 제 8조에서 협의회와 구성과 기능, 회의와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제10조부터 제 24조까지에 걸쳐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역할과 개별 사안별 처리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통일부는 2009년 7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전면 개정된 것에 맞추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남북사회문화협력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 2010년 들어 개정 발효된 동 법의 개정 사유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북간 물품 등의 반출·반입 승인과 업무위탁의 절차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송장비 등의 출입관리, 검역, 무역보험법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다. 남북 체육교류 협력사업에서도 물품과 장비의 반입과 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화된 법령 및 시행령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0년대 후반 들어 활성화되었던 남북간 문화교류·협력사업의 관리를 위해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남북 문화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지침」(2009년 7월 1일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제정하였다. 동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지침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제 4조와 5조 조항이다.

제4조(각 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력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력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각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 요청서를 기획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류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기획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는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의 기능은 제 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6조 1.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신규 의제 발굴 등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의 발의 및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과제의 점검
4.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교류 자원

남북체육교류협력사업은 정부의 남북협력사업으로서 승인을 받게 되면 다른 부문교류와 같은 조건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는 체육교류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예술·체육 분야 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참가사업(2억 5700만 원)과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사업(7억 7500만 원)에 지원된 바 있으며, 그 이후 2000년대 들어서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21억 2600만 원), 남북통일축구경기(1억 5300만 원), 남북태권도시범단교환(1억 8900만 원) 등에 지원하였으며, 2003년에는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13억 5600만 원), 제주 민족평화축전행사(4억 9700만 원)에 지원한 바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남북사회문화협력 사업 활용에 대한 기준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2009년 12월 1일 개정고시)을 통일부 장관고시로 명문화하고 있다. 동 지침은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4장 제2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

의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제1조)에서 제정되었다. 동 지침에 따르면 국제체육행사의 단일팀 참가사업이나 국제체육행사 공동 시행 사업은 우선지원 대상 사업이다(제3조).

한편 동 지침에 의거한 기금지원상의 지원한도(제5조)는 다음과 같다.

제5조(지원한도) ① 기금의 지원은 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 등 협력사업 시행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대북협력사업자당 연 1회로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70%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상수익금
2. 이미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행정경비 등 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
3. 접대비, 기밀비 등 협력사업 시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4. 협력사업 시행과 관련된 국내외 여비 중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초과하는 금액
5. 찬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시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비용

통일부는 동 지침에서 자금의 집행 및 사용(제6조)과 기금지원의 중단 등(제7조)을 명시하여 남북협력지원자금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명시해두고 있다.

남북체육교류를 위해 활용되었던 공적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을 위해 조성되었다. 따라서 법제도적으로 남북 체육교류를 위한 재원으로서 사용 근거는 뚜렷이 명시된 바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 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11호의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가 규정화되어 있지만 이 조항에 근거한 시행령 역시 남북체육교류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체육교류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뚜렷하게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행히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관 제22조에 따르면 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면 남북체육교류의 축진이 정부의 정책사업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남북체육 교류에의 지원은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단복제작비 및 2006년 남북단일팀 구성 체육회담 개최비 등에 지원된 바 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장춘 동계아시안게임 공동입장 단복 제작, 북한 청소년축구단 전지훈련비 지원, 남북축구친선교환경기 및 축구장 개·보수 지원, 체육용품(축구화)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전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북체육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교류사업-주로 국제경기대회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노력-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체육 교류가 평평 외교처럼 경색된 남북 간 교류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체육단체나 관련 민간단체의 교류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체육단체 및 민간단체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기금의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이 다소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제3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 현황

1. 1990년 이전 남북체육회담을 통한 체육교류의 발전

남북 간의 체육교류를 위한 최초의 접촉은 1964년 도쿄 하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1963년 1월 스위스 로잔에서 회담한 것이다. 이후 냉전 이데올로기의 강화에 따라 남북체육교류는 회담조차 없이 1978년까지 이어져온다. 그리고 1979년 제35회 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문제 토의를 위해 그 해 2월과 3월 판문점에서 4차례 접촉하게 되고, 1984년 LA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문제,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90년 베이징 하계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문제 등으로 접촉하게 된다. 즉 1990년까지는 실질적인 체육교류라기 보다는 접촉단계로서 의미를 가지며,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 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같은 해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체육교류의 장을 열게 된다.

표 12-1 남북체육회담 주요일지

날 짜	장 소	명 칭	내 용
1963. 1. 24	스위스(로잔)	도쿄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회담	도쿄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문제 토의(결렬, 별도 참가)
5. 17	홍콩	단일팀 구성 실무 1차 회담	
7. 26	홍콩	단일팀 구성 실무 2차 회담	
1979. 2. 27	판문점	제1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제35회 평양세계탁구선수권 대회 단일팀 구성문제 토의 (결렬, 한국 참가 무산)
3. 5	판문점	제2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3. 9	판문점	제3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3. 12	판문점	제4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1984. 4. 9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LA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토의(결렬, 북한 불참)
4. 30	판문점	제2차 남북체육회담	
5. 25	판문점	제3차 남북체육회담	
1985. 10. 8~9	스위스(로잔)	제1차 남북체육회담	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협의(결렬, 북한 측이 IOC수정안 거부, 북한 불참)
1986. 1. 8~9	스위스(로잔)	제2차 남북체육회담	
6. 10~11	스위스(로잔)	제3차 남북체육회담	
1987. 7. 14~15	스위스(로잔)	제4차 남북체육회담	
1989. 3. 9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베이징 하계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논의(결렬, 별도 참가)
3. 28	판문점	제2차 남북체육회담	
10. 20	판문점	제3차 남북체육회담	

날	짜	장	소	명	칭	내	용
1989.	11. 16	판문점	제4차 남북체육회담				
	11. 24	판문점	제5차 남북체육회담				
	12. 22	판문점	제6차 남북체육회담				
1990.	1. 19	판문점	제7차 남북체육회담				
	1. 29	판문점	제8차 남북체육회담				
	2. 7	판문점	제9차 남북체육회담				
1990.	11. 29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남북통일축구 정례화,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논의	
1991.	1. 15	판문점	제2차 남북체육회담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토의	
	1. 30	판문점	제3차 남북체육회담			탁구단일팀 파견 및 청소년 축구대회 논의	
	2. 12	판문점	제4차 남북체육회담			탁구단일팀 파견 및 청소년 축구 단일팀 구성 합의	

※ 출처 : 대한올림픽위원회(1992) 남북체육교류자료집

2. 1990년~2000년 남북체육교류

1989년부터 베이징 하계아시안게임의 단일팀 구성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던 남북체육교류는 1990년 4월에 일시 중단되게 된다. 그리고 1990년 9월 베이징 하계아시안게임을 계기로 10월 11일 평양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후 남북체육회담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다시 열렸다. 동 체육회담은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와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공동 발표하고 일본 지바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양 대회에 단일팀 출전을 이루게 되었다.

남북체육교류는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이후에 침체하게 된다. 이후 정부는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가장 쉽게 교류할 수 있는 분야로서 체육교류 추진에 관심을 두고, 1994년 대통령 업무보고 안에는 문화체육부가 ‘남북문화체육교류 세부합의서’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북한의 폐쇄 정책으로, 남북체육교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남북체육교류는 아니지만 1997년 전국체전에는 북한의 수영 대표선수로 활약했었던 재일동포 선수(이여애)가 재일동포 선수단의 구성원으로 출전하기도 했다. 1998년에는 방콕 하계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단일팀 구성을 의제로 우리가 제안한 남북체육 회담제안은 북한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표 12-2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 개최 현황

구 분	평 양 대 회	서 울 대 회
방문기간	1990. 10. 9~10. 13	1990. 10. 21~10. 25
방 문 자	76명(선수단 45명, 인솔 11명, 보도 20명) - 인솔 : 체육부장관(정동성)	78명(선수단 45명, 인솔 11명, 보도 22명) - 인솔 : 국가체육위원회위원장(김유순)
경 기 일 / 장 소	1990. 10. 11 / 5·1경기장	1990. 10. 23 / 잠실주경기장
방문경로	서울-베이징-평양-판문점-서울	평양-판문점-서울
경기결과	북한승리 (2:1)	남한승리 (1:0)

정부 간 체육 회담이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민간부분의 남북체육교류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8월 노동단체가 주도한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평양에서 열렸으며, 11월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을 통해서 민간 기업이 나서는 체육교류의 장이 열렸다. 현대는 북한과 합작 사업으로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설하여 기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 실내체육관의 기공식을 전후로 남북 농구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평양 시내 약 26,446m²(8,000여 평)의 부지에 12,335석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이 추진하는 평양실내체육관건설 사업은 남북 협력 사업으로, 남한의 건설근로자가 상주하고 건설물자와 장비 등이 육로로 운송되기도 하였다.

표 12-3 1991년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현황

구 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일시/장소	1991. 4. 24 ~ 5. 6 / 일본 지바 현	1991. 6. 14 ~ 6. 30 / 포르투갈 리스본
호 칭	『코리아』, 『KOREA』	좌 동
단 기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	좌 동
단 가	1920년 우리나라 『아리랑』	좌 동
선수선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선발	서울평양 공개 평가전을 기초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선발
선수단구성	단장(북측) 총 56명(남북 각 28명, 선수 각 11명씩)	단장(남측) 총 62명(남북 각 31명, 선수 각 9명씩)
선수훈련	일본전지훈련(1991. 3. 26~4. 23)	남북 왕래훈련(1991. 5. 6~5. 21) - 서울평가전 5. 6~9/70명(잠실) - 평양평가전 5. 10~16/70명(5·1) - 서울강화훈련 및 결단식 5. 17~21 72명(잠실주경기장)
선수단경비	남북 공동부담	좌 동
장비조달	단복-북측, 운동복 등-남측	좌 동
귀 국	1991. 5. 8(동경에서 서울·평양으로)	1991. 6. 28(북한), 1991. 6. 29(남한)
대회결과	여자단체전우승 및 개인단식준우승(리분희) 남자개인단식 3위(김택수), 혼합단식 3위	8강 진출(예선 1승1무1패) 준준결승전에서 브라질에 패배(5:1)

표 12-4 1990년~2000년 남북체육교류 세부실적

사 업 명	개최지	일 시	참 가 자	비 고
남북(대표팀)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 개최(1990)	평양	1990. 10. 9 ~ 10. 13	76명(선수단 45명, 인솔 11명, 보도 20명)	남한 : 체육부장관 인솔
	서울	1990. 10. 21 ~ 10. 25	78명(선수단 45명, 인솔 11명, 보도 22명)	북한 :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인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1991)	일본 오사카	1991. 4. 24 ~ 5. 6	총56명(남북 각 28명, 선수 각 11명씩)	한반도기 사용 국가 : 아리랑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1991)	포르투갈 리스본	1991. 6. 14 ~ 6. 30	총62명(남북 각 31명, 선수 각 9명씩)	한반도기 사용 국가 : 아리랑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1999)	평양	1999. 8. 10 ~ 8. 14	37명 (선수단 22명, 인솔 15명) 남북 노동단체	8.12(남북대결) 8.13(남북혼합팀 구성)
현대 통일농구 교환경기(1999)	평양	1999. 9. 27 ~ 10. 1	79명(선수단 42명, 현대관계자 31명, TV중계요원 6명)	9.28(혼합경기) 9.29(남북대결)
	서울	1999. 12. 22 ~ 12. 25	62명(선수단 38명, 교예단 14명, 위성중계 기술자 2 명, 아태관계자 8명)	12.23(혼합경기) 12.24(남북대결)
금강산 자동차질주 경주대회(2000)	서울, 평양, 금강산	2000. 6. 30 ~ 7. 4	차량 56대(경기차량 23대 포함), 241명	사업대가로 100만 달러 지급
삼성통일탁구 경기대회(2000)	평양	2000. 7. 26 ~ 7. 30	50명 (선수단 13명, 인솔 37명)	남북대결 및 남북혼합팀 구성 경기
시드니 하계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	호주 시드니	2000. 9. 15	남북 각 90명씩 180명	한반도기사용 호칭 : KOREA
제81회 부산전국체전 금강산 성화채화(2000)	금강산 옥류동 무대 바위	2000. 10. 1	50명 (주관 : 부산광역시 - 금강산관광총회사)	

삼성전자는 2000년 7월 평양현지공장 설립을 앞두고 평양체육관에 전광판을 기증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통일탁구대회’ 라고 명명한 남북 탁구경기대회를 열었다. 남녀 단복식과 남남 북녀, 북남남녀가 짝이 되어 치른 혼합복식 등 5경기가 진행되었다. 2000년에는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이 금강산자동차질주경기대회를 7월 3~4일 양일간 남북한 양측을 가로지르는 지역에서 시행하였다. 동 대회에 남한에서는 인원이 22명, 자동차 47대가 참가하였다. 2000년에는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시드니 하계올림픽 동시입장이 성사되어 남북 팀이 단일 국기와 국가, 북장으로 개회식과 폐회식에 참가하였다. 그 해 10월 제81회 부산전국체전 성화가 금강산에서 채화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2001년 이후 남북한 간의 체육교류·협력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3. 2001~2011년 현재까지

1) 남북 단일팀 구성 노력

2001년에는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문제를 협의하고(3월), 제18회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 북한 측을 초청하기 위한 업무(9월) 및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 북한참여를 추진하기 위한 만남(11월) 등이 이루어졌다. 2001년 4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이 공동응원을 하였고, 공동응원의 경비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5,000만원이 지원되었다.

올림픽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남북 협력이 2008베이징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2005년도 마카오 동아시아경기대회부터 거론된 바 있다. 2005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 김정길회장과 조선올림픽위원회 문재덕위원장 간의 회동이 시발점이 되어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원칙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후 2005년 11월초 마카오동아시아대회 기간 중 개최된 남북 체육회담 실무대표단 회의에 남북 양측 6명이 참가하였으며, 차기 회담은 12월 7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12월 7일 남북 체육 회담이 개성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공동 보도문 발표에 합의하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2005년 말 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7년 말까지 4차례에 걸쳐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참가를 위한 체육 회담이 개최되었다.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의 남북 단일팀 참가는 남북 체육교류의 오랜 숙원이라 할 만하다. 남북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들은 2005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렸던 아시아올림픽위원회(OCA) 기간 동안 회합을 갖고 2006 도하 하계아시안게임 및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2006 도하 하계아시안게임과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의제로 한 남북체육회담이 2005년 12월 7일 북한 개성에서 열렸다. 남북 체육계간의 협력 분위기는 2006년 6월 29일 역시 북한 개성에서 열린 2차 남북체육회담으로 이어졌다. 제2차 회담에서는 북측의 요구에 의해서 도하 하계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문제가 의제에서 제외되었다.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관련 의제는 단일팀 선수단의 명칭(코리아), 선수단 가(아리랑), 단기(독도 포함 한반도기), 단일팀 선포식 일정 및 훈련방법에 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3차 회의에서도 베이징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문제에 대한 남북 간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카타르 도하에서 이루어진 제3차 남북체육회담과 2007년 2월 개성의 제4차 회담에서도 파견할 단체종목의 선수선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선수선발 원칙에 대해서 개인종목의 경우는 출

전권을 획득한 선수 모두를 단일팀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이 합의되었으나 단체종목의 선수선발 원칙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북측은 5:5 동수로 단일팀을 구성해서 예선전부터 참가하며 경기출전은 실력위주로 할 것을 안으로 내놓았고 남측은 남북이 각각 예선전에 참가하여 자격을 획득하고 결과적으로 일방만 획득한 경우는 그 일방을 주축으로 상대방의 우수선수를 포함시키고, 양방이 획득한 경우는 엔트리 2배수의 상비군을 구성하여 경기력 위주로 선수를 선발하자고 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남북단일팀구성을 권고하고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IOC는 2006년 12월 24일 남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인종목의 경우는 남북올림픽위원회가 각각 개별적으로 참가자격대회에 참가한 후 IOC가 해당종목의 국제연맹과 최종 참가자격 및 인원에 대해 협의하며 단체종목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예선대회에 참가한 후 IOC가 해당 국제연맹과 종목별로 단일팀에 적용할 참가인원에 대해서 특별 규정을 두어 인정할 것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2007년 2월 13일 개성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체육회담에서는 핵심쟁점인 선수선발 방식과 예선전참가방식에 대해 재논의 하였다. 북측은 단체종목의 선수선발 방식에 대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5대5 동수로 단일팀을 구성해 종목별 예선전부터 출전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남측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에 따라 예선전에 개별적으로 참가한 후 참가자격 획득 팀을 중심으로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안과 이것이 어려울 경우 엔트리의 두 배수 범위 내에서 남북 5대5 동수로 팀을 구성한 후 평가전 등을 거쳐 우수선수를 최종 선발하여 출전시키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선수선발 문제를 제외한 여타 문제(단일팀 명칭, 단가, 단기, 임원구성, 공동기구 등)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견접근을 보았다.

선수단 구성 문제로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단일팀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2007년 10월 개최된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맞이하여 경의선 열차를 이용, 남북공동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11월 16일 개최된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12월 28일 개성에서 갖기로 합의하였고, 12월에 제1차 실무접촉이 개최되어 응원단 규모, 응원단 이용 열차, 운행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8년 2월 4일 개최된 제2차 실무접촉에서는 응원단 규모(지원인원 포함) 남북 각각 150명씩 300명, 응원단의 개·폐막식 참가 등에 대해 합의하고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본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남북응원단 규모를 300명으로 하며 전·후반기 남북 각각 150명씩으로 하자며 제1차 실무접촉 시 남측이 제안한 응원단 규모에 동의하였고,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가 남북응원단 규모를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에 각기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응원단 이용열차 및 열차이용과 관련해서 남측은 이용할 열차, 운행횟수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응원

단 실무접촉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이 문제는 경의선 개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철도관계자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여 경의선 열차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절충하였다. 또한 남북은 남북응원단이 개·폐막식에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응원종목은 남과 북의 경기 참가종목이 확정된 후에 선정하며, 응원곡, 응원복장, 응원형식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과 입장권 구입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결정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그 외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 및 응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결국 베이징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파견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2000년 이후 계속된 남북 동시입장 또한 무산되고 말았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공동입장을 위한 체육회담 개최를 위해 2008년 전반기에만 수차례 전통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접수조차 거부했다. 특히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한 뒤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고 체육 분야 또한 마찬가지였다.

4월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6차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 총회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북한올림픽위원회가 나란히 참석했지만 베이징 하계올림픽경기대회 남북단일팀 및 공동응원단 구성을 위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 총회기간 박학선 신임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양자 회동을 갖자고 2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남측은 베이징 회담장 현지에서도 체육 회담을 추진했지만 이연택 대한올림픽위원장이 호텔 식당에서 박학선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우연히 만나 상견례만 했을 뿐 공동입장의 사전절차인 실무자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남북한 스스로 공동입장에 대한 해법을 풀어가지 못하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2008년 6월 자크 로게 위원장 명의로 남북한 정상에게 공동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던 IOC는 베이징 현지에서도 북한과 접촉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

베이징 현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8월 2일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박학선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입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올림픽에 참가하러 왔으니 그 문제는 후에 논의합시다.”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앞서 북한선수단 선발대로 도착했던 윤용복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은 “10. 4선언이 먼저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결국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한 공동입장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양측 모두 거부했다.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공동입장이 무산되자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는 화합 분위기라도 조성하기 위해

입장순서를 한국은 176번, 북한은 177번째로 정했지만 북한은 이마저 거부하고 180번째로 입장하였다.

2010년에는 밴쿠버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다. 냉랭해진 남북관계로 인해서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이뤄져왔던 올림픽개회식 및 폐회식의 공동입장은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다.

2) 남북 교류 협력

2001년 체육교류를 위한 접촉은 2월 제2차 통일염원 국제렐리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서 남북 당사자 간 회담이 이루어졌고, 이어 3월에는 남북태권도시범단 교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접촉이 이루어졌다. 2001년 대한양궁협회와 삼성그룹에서 북한 선수들에게 체육용품 및 체육설비 지원이 있었다.

2001년에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 지역에서는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이 주최하는 제2회 자동차질주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8월 15일에는 국제모터사이클 투어링이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미국, 일본, 독일 등 12개국 모터사이클 동호인 35명 등 총 399명이 참가하였는데, 남한에서는 46대 차량과 209명이 참가하였다.

남북 체육교류협력 사업 중 지원사업인 평양실내체육관 건설 사업도 지속되었다. 평양실내체육관은 2001년은 현대아산이 건립을 주도하였다.

2001년에는 남북체육교류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체육교류협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이외에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 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는 남북 태권도시범단 교환사업이 합의된 바 있다. 당시 태권도시범단 교환 행사를 위해서 남한의 대한태권도협회와 북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 간의 협의를 위한 접촉 과정에서 북한의 협의 거부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북한이 제시한 협의 거부 이유는 미국 뉴욕의 9.11 테러로 인해 남한에 내려진 비상경계조치였다. 2001년 3월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방북하였고, 방북 중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했으나, 북측이 준비 상 어려움을 제기하여 성사되지 못하였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체육교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합의된 이후에도 북한은 2001년부터 2002년 초까지 남북 당사자 간 체육교류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2002한·일 FIFA월드컵의 경우도 분산 개최와 단일팀 구성이 목표로 논의되면서 남한 축구협회 회장은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과 함께 방북해서 현안 사항을 협상해나갔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그러나 2002년 6월, 남한에서 이루어지던 국제행사에는 무조건 불참하던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을 이끌고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에 참가하였다. 당시 북한팀의 참가는 선수단과 함께 참가한 응원단 때문에 더욱 더 큰 사건이었다.

우여곡절을 겪던 남북태권도 시범단 교류도 2002년에 이루어졌다. 북한은 남북 간 태권도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도 실시하는 등 민간 교류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후 북한은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였다. 같은 해 남북은 민간차원의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개최와 같은 대규모 남북체육문화교류사업을 성사시켰다.

이외에도 2003년 물밑에서 남북 체육교류를 위한 접촉도 진행되었다. 주요 접촉사례로는 2004 국제평화마라톤대회, 2005년도 동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 준비 등 남북유도 교류협의, 서울-평양 여자축구 교류관련 협의 등이 있다.

2004년은 아테네 하계올림픽이 개최된 해이다. 아테네 하계올림픽은 또 다시 남한과 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흔들고 개최식과 폐회식에 참석하여 전 세계에 남북한이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2004 아테네 하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일어난 방송위원회와 북측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간의 협력 사업은 직접적인 체육교류는 아니지만 올림픽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문화교류의 진전이다. 2004년 8월 한국은 북한주민이 아테네 하계올림픽 개막식 이후 국제경기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올림픽 중계 북측방송 중계를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남측에서 개최한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통일축구대회에 북측 남·여 선수단이 참가하였으며, 제4회 마카오 동아시아경기대회에도 남북한 공동입장이 이루어졌다.

한편 2005년에는 남북 체육학술교류가 이뤄진 바 있다. 남북 사회교류 협력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추진된 「코리아 민족의 체육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는 2005년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민간연구기관인 남한의 민족통일체육연구원이 추진하던 남북 체육학술 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에서는 조선체육대학교 교수 5명,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원 3명 등이 참가하였고 중국의 조선족 학자 1인이 참여하여 총 1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동 행사에서는 남북한의 스포츠 중에서도 엘리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이론적 접근을 소개하고 현 단계를 평가하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시도이다.

표 12-5 2000년~2011년 남북체육교류 세부실적

사 업 명	개최지	일 시	참 가 자	비 고
제 2차 금강산 자동차질주 경주대회(2001)	금강산	2001. 7. 29 ~7. 31	차량 56대(경기차량 23대 포함), 241명	사업대가로 지급
태권도시범단 교환(2002)	평양	2002. 9. 14 ~9. 17	65명(남측35, 북측30)	- 7차 남북장관급회의 실무회의 합의에 근거 - 황봉영 조선태권도 위원회의 초청
	서울	2002. 10. 14 ~10.	62명(남측41, 북측21)	

사 업 명		개최지	일 시	참 가 자	비 고
남북통일축구경기(2002)		서울	2002. 9. 5 ~9. 8	리광근 등 49명	
부산 하계아시안게임 참가(2002)		부산	2002. 9. 22 ~10. 15	박명철 등 668명	
부산 하계아시안게임 참가(2002)		부산	2002. 10. 8 ~ 10. 15	장 웅 등 7명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2003)		일본 아오모리	2003. 2. 1 ~2. 8	- 남한 선수단 110명 - 북한 선수단 40명	- 단기 : 한반도기 - 북한 2.30일 밤 전격제안, 남한 수 용으로 성사
22회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2003)		대구	2003. 8. 20 ~9. 1	전극만 등 524명	- 선수단 197명 - 응원단 327명
남북태권도교류 협의 및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참관 (2003)		대구	2003. 8. 17 ~8. 21	장웅 등 3명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및 통일축구대회(2003)		평양	2003. 10. 6 ~10. 7	김운규 등 800여명	- 경의선 임시도로로 육로 방북 - SBS 평양에서 통일 농구대회 중계
제주민족평화축전(2003)		제주	2003. 10. 23 ~10. 28	김영대 등 190명	- 행사직전 취주단, 예술단 불참통보 로 물의 야기
아테네 하계올림픽 공동입장 (2004)		그리스 아테네	2004. 8. 14 ~9.	- 남한선수단 136명 - 북한선수단 50명	- 단가 : 아리랑 - 단기 : 한반도기
제2회 동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2005)		대구, 전주, 대전	2005. 7. 31 ~8. 7	북 선수단 65명	
남북통일축구(2005)		서울	2005. 8. 14 ~8. 16	남·여 선수단	
제4회 마카오 동아시아경기대회 공동입장(2005)		마카오	2005. 10. 29 ~11. 6	남북선수단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강원도겨울철체육경기		춘천	2006. 3. 2 ~3. 5	선수단 36명 (단장 정덕기 북측 민화협 부회장)	- 남북선수단 합동훈련 - 남측대학 선발팀과 북한 선발팀 혼 성경기 - 남북 시범경기
도하 하계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2006)		카타르 도하	2006. 2. ~12. 15	남북선수단	- 공동기수는 이규섭선수(남측)와 리 금숙선수(북측)
남북유소년 축구선수단 상호교류	북한 청소년팀 방한	제주, 수원, 순천, 광양, 서울	2007. 3. 20 ~4. 20	북 선수단 23명	- 15~17세 - 전지훈련
		강진	2007. 6. 1 ~6. 14	북 선수단 34명	- 15세 이하 - 친선 경기
	남한 청소년팀 방북	평양	2007. 6. 23 ~7. 3	남 선수단 26명	
		평양	2007. 11. 3 ~11. 14	남 선수단 22명	
북한태권도 시범단 방남		서울, 춘천	2007. 4. 6 ~4. 9	북 시범단 48명	- 단장 : 장웅 IOC 위원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		창원	2007. 4. 30		- 5·1절노동자통일대회 행사 - 북 대표단 60명 방한

사 업 명	개최지	일 시	참 가 자	비 고
2007 FIFA 청소년(U-17) 월드컵대회	서울 등 8개 도시	2007. 8. 18 ~ 9. 9	북 선수단 31명	- 16강 진출 - 2회 연속 8강 진출 실패
제2회 국제청소년 친선 축구대회(0.16~25)	전남 강진	2007. 10. 13 ~ 10. 25	북 선수단 22명	- 한국, 북한, 프랑스 등 7개국 참가 - 한국 중등축구연맹 주최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준공식	평양	2007.11.9	남 대표단 145명	- 축구장 시설 현대화 사업
제3회 동아시아축구대회	중국 충칭	2008.2.20		- 경기결과 1:1
2008 아시아시니어레슬링 선수권대회	제주도	2008.3.16~24	북선수단 15명	
200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제주도	2008.4.26~27	북 선수 17명	- 남자 -60kg 3위 - 여자 48kg이하 2위, 52kg이하 1위, 57kg이하 3위, 63kg이하 3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 3차 예선전	중국 상하이	2008.3.26	남북 축구대표팀	- 경기결과 0:0
	서울	2008.6.22	남북 축구대표팀	- 경기결과 0:0
2008 남북태권도교류행사	평양	2008.6.28~7.1	(사)ITF태권도협회 남측대표단 60명	- 북한의 시범공연 - 남한사범의 북한선수에 대한 기술 교육 실시
남북체육교류협회 유소년축구단 교류	평양	2008.6.14~26	유소년축구선수단 30명	- 4차례 친선 경기
		2008.10.8~15	경수유소년축구단, 임원 등 50여명	- 친선경기 및 합동훈련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 최종예선전	중국 상하이	2008.09.10	남북축구대표팀	- 경기결과 1:1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코리아응원단	중국 베이징	2008.8.10~14	응원단 400여명	- 남북한 팀 경기 응원
남북체육교류협회	평양	2009.2.25~28	同협회 관계자 17명	- 「김경성 체육인초대소」준공식 참석 및 체육교류 협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 남북예선전	서울	2009.3.29~4.2	북 선수단 43명	- 경기결과 1:0
피스앤스포츠컵	카타르 도하	2011.11.21~22	남한 선수 2명 북한 선수 2명	- 남자 복식(남북 단일팀) 우승 - 여자 복식(남북단일팀) 준우승

한편 2005년 8월 4일부터 9일에 또 하나의 남북 체육학자들간의 교류·협력사업이 성사되었다. 중국 연길시 연변대학교에서 남한의 한국체육학회, 북한의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연변대학교 체육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스포츠과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동 학술대회의 주제는 「민족체육 문화의 회고와 전망」이었다. 동 학술교류 행사에서는 남북 및 중국 거주 조선족 학자에 의해서 총 18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참석자는 남한의 경우 한국체육학회 대표단이 구성되었다. 학회 회장단과 각 분과학회를 대표한 학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원들이 참여하였다. 북한에서는 평양체육대학교 교수와 기관차체육단 연구원, 체육연구소 연구원이 참가하였다. 중국거주 조선족 학자로는 연변대학교 체육계열 교수가 참여하였다.

2007년에는 축구분야의 남북교류가 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남북체육교류협회(남한)

와 4.25 체육단(북한)이 남북유소년축구 상호교환경기 개최에 합의하였다. 양 단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남북 교환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교류 첫 행사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북한 청소년 축구팀 23명(15~17세)이 방한하여 제주와 수원, 전남 순천과 광양, 서울 등지에서 2007 FIFA 청소년(U-17)월드컵 대비 전지훈련을 실시하였다. 15세 이하 북한 청소년 팀 34명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방한하여 강진에서 한국, 중국, 강진중 팀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남한 청소년 팀의 방북도 이어져 6월 23부터 7월 3일까지 12세 이하 유소년 팀 26명이, 그리고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22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친선 경기를 가졌다.

북한 대표팀은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서울 등 8개 도시에서 개최된 2007 FIFA 청소년(U-17)월드컵에도 참가하였다. 북한은 선수단 31명을 8월 7일 사전 입국시켜 전남 광양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나 16강 진출에 그쳐 대회 2연속 8강 진출에는 실패하였다. 10월 13일부터 25일에는 북한 청소년 팀 22명이 전남 강진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청소년 친선 축구대회(10.16~25)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하였다. 한국 중등축구연맹이 주최하고 강진군이 주관한 이 대회에는 한국(2개 팀)을 비롯해 북한, 브라질, 프랑스, 일본, 중국, 동티모르 등 7개국 8개 팀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친선경기를 가졌다.

2007년 4월 30일에는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의 일환으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 대항전이 개최되어 또 한 번의 남북축구대결이 벌어졌으며, 남한 팀이 0:1로 북한 팀에게 패배하였다.

이외에도 인천시와 사단법인 평화3000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 하에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였다. 인조잔디와 우레탄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보수에 10억 5천만 원이 소요된 이 사업은 11월에 완결되어 11월 9일 평양에서 '축구장 준공식 및 기증식'이 개최되었다. 행사 참여를 위해 안상수 인천시장을 포함하여 남한 대표단 145명이 방북하였고, 준공식이 끝난 후에는 남북 유소년 팀 간에 훈련경기도 열렸다.

축구 이외에 태권도 및 권투분야에서도 남북교류가 진행되었다. 4월 6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의 초청으로 장웅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겸 IOC 위원이 이끄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 48명이 방한하였다. 춘천과 서울에서 2차례의 태권도 시범행사를 실시한 북한 시범단은 각종 손발 응용 동작, 1대1 대련, 건강태권도, 호신술 시범 등을 선보였다.

10월 19일에는 2004년 남북권투대회 개최 이후 여섯 번째로 남북권투대회가 개최되었다. 개성시 학생소년궁전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는 남한의 최신희(24), 손초룡(20) 및 북한의 류영심, 김혜성 간 논타이틀 매치(6R)경기, 남자 아마추어 친선경기 2경기 등 모두 4차례 남북대결이 벌어졌다. 박상권 WBCF 회장 겸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경기를 실행 중계한 KBS-N 오수성 사장 등 남북 주요 인사들과 남측 관광객 500여명도 방북하여 개성 시내를 관람한 뒤 남북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관람하였다.

2008년에는 4월 26~27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 200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에 남자 3명, 여자 4명 등 북한 선수 7명이 출전하였다. 조선체육지도위원회가 선정한 2007년 10대 최우수선수에 뽑힌 김철수, 2006년 도하 하계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 원옥임 등 지명도가 높은 선수들이 참가해서 남한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지만 북한선수의 남한 방문의 의의를 높였다.

체조분야에서는 남북 체조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남북 체조가 모두 2008년 올림픽 단체전 출전이 좌절된 탓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남측의 조현주, 북측의 홍은정, 차영화 등 여자 선수 세 명이 조 추점 결과 한조에 편성된 것이다. 이들은 베이징올림픽 예선 경기일인 8일까지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2008년 축구분야에서는 제3회 동아시아축구대회에서 1회,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3차전에서 2회, 최종예선에서 1회 등 4차례의 남북 축구대결이 펼쳐졌다. 첫 남북대결이었던 2008년 2월 20일 중국 충칭 개최 동아시아축구대회에서는 남북이 1:1로 비겼으며, 3월 26일 중국 상하이 홍커우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 월드컵 예선전 3차전 1차 대결에서도 0:0으로 다시 비겼다. 이 경기는 원래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무시한 채 평양에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제3국인 중국에서 진행되었다. 이 경기에는 재중 한국 교민, 북한 응원단 등이 경기장을 메우고 열띤 응원전을 펼쳐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6월 22일에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 월드컵 3차 예선 2차 남북대결이 치러졌으며, 남북은 0: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종예선에 동반 진출했다. 이 경기에는 약 5만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최종예선에 동반 진출한 남북은 9월 10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 월드컵 최종예선 1차 대결을 벌였으나 이 경기 또한 3월 대회와 마찬가지로 북측이 태극기 게양 및 애국가 제창에 난색을 표명해 평양이 아니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최종예선 1차 대결에서 남북은 또다시 1:1로 비겨 2008년 4차례의 남북대결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였다.

이렇듯 남북체육교류는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으나,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살사건은 체육교류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남북교류의 중단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2009년 남북체육교류는 2건, 즉 남북체육교류협회 주관 하에 평양에서 이루어진 체육협의회와 FIFA 월드컵 예선전 1차례에 지나지 않았다.

표 12-6 체육 관련 북한방문 현황(2001~2011)

건/(명)

구 분		신 청	승 인	불허	철회	처리중	성 사
2001년	전 체	786(9,148)	737(8,805)	3(30)	-	-	698(8,551)
	체 육	44(362)	43(353)	-	1(9)		37(310)
2002년	전 체	802(13,502)	774(12,979)	5(167)	27(349)	-	753(12,825)
	체 육	38(336)	37(326)	-	1(10)		37(326)
2003년	전 체	1,060(16,161)	1,028(15,697)	(17)	33(496)	3(8)	983(15,280)
	체 육	19(1,190)	19(1,190)	-	-	-	19(1,190)
2004년	전 체	1,532(30,455)	1,497(29,410)	-	-	-	1,428(26,213)
	체 육	6(8)	5(7)	-	-	-	4(5)
2005년	전 체	6,475(98,945)	6,494(97,464)	1(32)	7(1,604)	1(6)	6,086(87,028)
	체 육	28(804)	28(804)	-	-	-	27(799)
2006년	전 체	11,297(97,343)	11,273(95,251)	3(529)	6(1,50)	-	12,468(100,838)
	체 육	34(266)	32(251)	-	-	-	34(266)
2007년	전체	12,807(111,650)	12,803(109,476)	3(129)	33(2,078)	-	29,862(158,170)
	체육	68(1,272)	68(1,272)	-	-	-	65(1,198)
2008년	전체	71,099(117,020)	70,987(115,174)	107(357)	3(1,677)	-	119,884(186,443)
	체육	25(308)	25(308)	-	-	-	22(272)
2009년	전체	93,765(101,934)	92,985(100,810)	27(93)	619(877)	-	113,083(120,616)
	체육	7(89)	2(23)	-	6(79)	-	2(23)
2010년	전체	69,224(74,639)	69,086(74,424)	9(65)	135(147)	-	124,084(130,119)
	체육	1(3)	1(3)	-	-	-	1(3)
2011년	전체	51,489(53,179)	51,401(52,695)	37(433)	51(51)	-	14,738(116,047)
	체육	1(2)	-	1(2)	-	-	0(0)

※ 자료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에서 재작성

※ 주 : 전체에는 이산가족,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관광사업, 교통통신, 과학 환경, 경수로, 대북지원, 기타 등으로 금강산 관광은 제외함.

이러한 과정에서 2010남아프리카공화국 FIFA 월드컵은 남북체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 축구팀의 동반 본선 진출은 역사적으로 1930년 우루과이 FIFA월드컵 시작 이후 무려 70년만의 일이다. 분단국가가 월드컵 본선에 동반 진출한 사례는 1974 서독 FIFA월드컵 때의 동서독 참가에 이어 두 번째이다. 북한 축구대표팀은 아시아지구 최종예선 B조에서 2위를 차지하며 1위인 한국과 나란히 본선무대를 밟게 된 것이다. 북한은 국제 체육경기

에 선수단을 파견하고 있으나, 축구 등 일부 종목에서만 우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의 본선에 진출한 것이 더 반가운 것은 최근의 남북관계 및 체육교류에서 활로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 때문이다. 비록 스포츠에 국한된 일이지만 북한이 국제사회 패어플레이의 본 무대에 오르게 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표 12-7 체육 관련 북한주민접촉 현황(2001. 8월~2011. 12월)

건/(명)

구 분		신 고	수 리	수리 거부	철회	처리중	성 사
2001년	전 체	1,169(2,332)	1,145(2,283)	17(48)	6(11)	-	1,211(1,879)
	체 육	26(84)	24(80)	-	1(3)	-	11(27)
2002년	전 체	1,485(3,434)	1,453(3,367)	5(10)	12(39)	-	621(1,981))
	체 육	35(194)	34(192)	-	2(3)	-	24(147)
2003년	전 체	1,581(4,169)	1,527(3,991)	13(57)	18(50)	55(110)	954(1,964)
	체 육	24(107)	24(107)	-	-	-	12(31)
2004년	전 체	1,663(6,778)	1,683(6,736)	-	-	-	1,349(5,385)
	체 육	37(167)	34(163)	-	-	-	31(51)
2005년	전 체	1,322(3,518)	1,394(3,590)	-	2(2)	71(101)	1,172(3,301)
	체 육	48(163)	48(163)	-	-	-	46(136)
2006년	전 체	861(2,853)	860(2,852)	-	-	-	783(2,744)
	체 육	24(124)	24(124)	-	-	-	24(124)
2007년	전체	994(2,448)	986(2,441)	-	-	-	936(2,474)
	체육	2(2)	2(2)	-	-	-	27(87)
2008년	전체	681(1,465)	681(1,465)	-	-	-	689(1,600)
	체육	18(175)	18(175)	-	-	-	18(175)
2009년	전체	30(129)	26(116)	-	-	-	26(116)
	체육	1(56)	1(56)	-	-	-	1(56)
2010년	전체	(991)	(991)	-	-	-	(991)
	체육	15(75)	15(75)	-	-	-	-
2011년	전체	(590)	(590)	-	-	-	(590)
	체육	0(0)	0(0)	-	-	-	0(0)

※ 자료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에서 재작성

※ 주 : 전체에 포함된 분야는 이산가족,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관광사업, 교통통신, 과학 환경, 경수로, 대북 지원, 기타 등으로 금강산 관광은 제외함.

2010년에 북한 측은 남북관계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켰다.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 관계를 악화되면서 2010년에는 남북 체육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1년, 종합국제대회는 중국 선양의 하계유니버시아드와 터키 에르주룸의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전부이다. 그러나 동 대회에서 남북 체육교류관련 어떠한 접촉도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2011년에는 시범단 교류와 같은 방문 교류도 성사되지 못했다. 반면에 국제탁구연맹과 국제 스포츠 평화교류 비정부기구인 피스앤스포츠라는 단체가 공동 주관하여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 1회 Peace and Sports Cup대회에서 남북 선수들은 단일팀을 이뤄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동 대회는 국제탁구연맹이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인도, 파키스탄, 카타르,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10개국에서 남자 복식과 여자 복식조를 초청하여 치룬 친선경기대회였다. 이 대회는 비록 친선경기이기는 하나 1991년 4월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이후 20년만의 단일팀 구성으로 남자복식은 우승, 여자 복식은 준우승하는 결과를 이루었다. 피스앤스포츠컵대회에서의 남북교류에는 대한탁구협회 회장이자 피스앤스포츠 대사인 조양호 회장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피스앤스포츠대회의 남북 단일팀의 선전은 정규적 국제경기대회에서의 남북 협력이 단절되고, 정부주도의 남북 체육교류가 경색된 상황에서 가맹단체 차원 또는 민간 차원의 교류 성과로 대안 형태로서의 의의가 크다.

한편 인천광역시에는 4억 5천만 원을 투자해 2011년 지자체 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의 자회사로 중국 단둥에 수제축구화공장을 설립하였다. 단둥에 설립된 단둥 축구화공장은 한·중합작공장으로 공장 관리는 중국인이, 기술 지도는 한국 수제축구화 장인 김봉학씨와 또 다른 한국 기술자가 맡는다. 이 공장은 남북 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축구화 제작 기술을 전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 여기서 생산된 축구화의 일부는 북한 유소년 및 성인 축구대표팀에 기증되고, 대신 북측은 축구화 금액에 상응하는 현물을 공장 운영을 위해 제공하게 된다는 사업전략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교류형태는 전형적인 체육교류는 아니지만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이 주도하고, 축구화 기술 전수 및 축구화 지원이 궁극적으로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북한의 축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남북 체육교류 성과이다.

체육교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남북 간에 인적 접촉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점차 활발해져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남측의 북한 방문은 점차 늘어나서 2003년 10월에는 1999년에 착공한 「류경 정주영체육관」의 개관식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동 개관식에는 통일농구대회가 함께 기획되어 이루어졌다. 당시 모집된 남한의 참관단은 1,000명 규모로서 이들은 통일농구대회를 참관하고 묘향산·개성단지를 관광하였다. 2005년 북한 방문은 총 27건이며 799명이 체육관련 업무로 북한을 방문하였고, 2006년에는 34건에 266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2007년은 북한 방문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한 해 동안 남북체육교류

협력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 건수는 65건에 1,198명이었다. 태권도시범단 교류사업과 평양시 체육단 축구장 준공식에 남측 대표단 145명이 참가하였고, 남북한 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 교류 사업으로 2007년 6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서 남한선수단 26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체육관련 북한 방문건수와 방문자 수는 2008년 22건 272명으로 줄어들고 2009년에는 2건에 23명, 2010년에는 2건 3명, 2011년에는 한건도 없다. 2010년의 경우 남북 간 교류를 목적으로 한 방북한 건수는 124,084건, 방북인원수는 130,119명이지만 개성공단관련 건을 제외하면 사회 문화교류 전반이 모두 위축되었고 체육도 예외가 아니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 건수는 총 392건이며 방문자수는 6,524명이다. 체육과 관련해서 남한을 방문한 건수는 총 21건이며 방문자수는 1,897명이다. 남북 체육교류의 경우 남한방문 건수에 비해서 방문자수가 많은 것은 부산하계아시안게임이나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인적 교류규모가 큰 경기대회 개최로 인한 것이다.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우 북한선수단 186명, 응원단 303명 등 489명이 대회 참가를 위해서 남한을 방문했으며, 10월에는 제주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이 개최되어 북한선수 110명, 참가단 80명 등 총 190명의 북한주민이 제주도를 방문한 바 있다. 특히 이 행사는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던 행사로 행사준비과정 및 협상 등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을 야기했다. 그러나 그 동안 각종 국제종합경기대회에서 이루어진 남북교류와는 달리 사상 처음으로 남북만이 참가하는 행사였다는 점과 교류종목이 정식종목 이외에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등 민속경기도 병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일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체육 분야의 경우 북측의 남한 방문은 1건에 불과하며 방문자수는 4명으로 집계되었다. 집계 외의 2006년 남북체육교류로는 강원도청이 주관하는 지방자치 단체 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아이스하키선수단의 남한 방문 및 교환경기가 이루어진 바 있다. 남북 강원도 간에 이루어진 지자체간 남북교류의 일환이었다. 2006년 3월 2일 남한을 방문한 북한선수단은 총 36명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남북한 인적 접촉을 보면 2004년은 상대적으로 체육관련 남북한 인적 접촉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 인사의 남한 방문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로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남북한 주민의 인적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2005년 북한주민 접촉 건수는 총 46건이며 관련된 인원은 136명이다. 2006년은 남북 주민 접촉이 이루어진 건수는 24건으로 남측 관련자는 총 124명이었다. 2007년은 27건, 87명이었으며 2008년에는 18건, 175명, 2009년은 1건, 56명이었으며 2010년과 2011년은 남북관계 악화로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12-8 체육 관련 남한방문 현황(2001~2010)

건/(명)

		신 청	승 인	불 허	철회	처리중	성 사
2001년	전 체	5(191)	5(191)	-	-	-	5(191)
	체 육	1(1)	1(1)	-	-	-	1(1)
2002년	전 체	13(1,120)	13(1,120)	-	-	-	13(1,052)
	체 육	4(883)	4(883)	-	-	-	4(765)
2003년	전 체	11(1,023)	11(1,023)	-	-	-	11(1,023)
	체 육	3(717)	3(717)	-	-	-	3(717)
2004년	전 체	13(321)	13(321)	-	-	-	13(321)
	체 육	0(0)	0(0)	-	-	-	0(0)
2005년	전 체	30(1,313)	30(1,313)	-	-	-	30(1,313)
	체 육	1(78)	1(78)	-	-	-	1(78)
2006년	전 체	42(888)	42(888)	-	-	-	41(870)
	체 육	1(4)	1(4)	-	-	-	1(4)
2007년	전체	69(1,052)	69(1,052)	-	-	-	69(1,044)
	체육	6(221)	6(221)	-	-	-	6(213)
2008년	전체	48(332)	48(332)	-	-	-	48(332)
	체육	4(76)	4(76)	-	-	-	4(76)
2009년	전체	101(246)	101(246)	-	-	-	101(246)
	체육	1(43)	1(43)	-	-	-	1(43)
2010년	전체	61(132)	61(132)	-	-	-	61(132)
	체육	0(0)	0(0)	-	-	-	0(0)
2011년	전체	2(14)	2(14)	-	-	-	2(14)
	체육	0(0)	0(0)	-	-	-	0(0)

※ 자료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에서 재작성

※ 주 : 전체에 포함된 분야는 이산가족,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관광사업, 교통통신, 대북지원, 경수로, 기타 등으로 금강산 관광은 제외함.



2011

체육백서

집필진

책임 기획·편집

- 문화체육관광부
 - 노태강(체육국장)

집필진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책임집필 : 김권일
 - 집필위원 : 고은하, 김미숙, 김상훈, 김양례, 노용구, 박영옥, 성문정, 송명규, 윤성원, 이용식, 정지명, 조운용, 한태룡(가나다 순)
 - 집필보조 : 안지형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 집필총괄 : 정태경, 임복택
 - 집필위원 : 김성익, 김유미, 김원우, 김진엽, 김진희, 나경환, 노정동, 박현성, 안미란, 안현구, 윤인섭, 엄성근, 이승훈, 이영식, 이종인, 이철운, 전종윤, 정성욱, 정윤찬, 최성락, 표광중(가나다 순)

감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 책임감수 : 전병국(체육정책과장)
 - 감수위원 : 강수상(체육진흥과장), 김대현(국제체육과장), 나경환(장애인문화체육과장 대행)